

ETHER LIBRARY

0007

죄와 벌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Fyodor Dostoevsky · 1866

문학 · 소설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Constance Garnett 영역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1866)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콘스탄스 가넷(Constance Garnett)의 영역본을 저본으로 삼은 중역(重譯)**으로 옮겼고, **제2판에서 본문 전체를 문장마다 러시아어 원전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가넷이 잘못 읽거나 덧붙이거나 빠뜨리거나 누그러뜨린 자리 1,600여 곳을 원전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다만 문단 나눔은 영역본을 따르고 있어, 원전에서 바로 옮긴 번역과는 다릅니다. 이 사실을 첫 장에 밝혀 둡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81년에, 가넷은 19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했습니다.

가넷은 1912년에 이 소설을 영어로 옮겼고, 영어권 독자에게 도스토옙스키를 처음 알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번역에는 뚜렷한 성향이 있습니다. 러시아 화폐를 영국 동전으로 바꾸고(제2판에서 코페이카·베르쇼크 같은 러시아 단위로 되돌렸습니다), 러시아 속담을 영국 속담으로 갈아 끼우고, 인형극의 이름까지 영국 것으로 옮겼습니다. 정교회 기도를 가톨릭 라틴어 이름으로 부른 자리도 있습니다.

옮기면서 지킨 세 가지 원칙

하나, 없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2판에서는 가넷이 지운 말과 문장을 러시아어 원전에 따라 되살렸습니다. 예심판사 포르피리는 3부에서 라스콜니코프를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열 쪽에 걸친 심문이 통째로 호칭 없이 진행됩니다. 한국어는 그 빈자리에 「선생」이나 「○○ 씨」

를 넣고 싶어 하는 언어입니다만,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4부에서 그가 같은 이름을 열여섯 번 부르며 들어올 때의 낙차가 살아납니다.

둘, 있는 것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줄임표는 전권에 1,767개입니다. 한 장에만 아흔 개가 몰리는 곳도 있습니다. 줄이면 페이지는 깨끗해지지만 그 문체는 사라집니다. 세 점과 네 점의 구분까지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긋난 자리도 어긋난 채로 두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어머니의 편지를 열여덟 번 인용하는데 대부분 원문과 다릅니다. 조건절을 떼어내고, 뜻을 부풀리고, 아예 없는 문장을 지어냅니다. 그 어긋남이 곧 인물 묘사이므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셋, 번역이 저본보다 매끄러워지지 않게 했습니다. 막히는 문장을 뚫어 주고 싶은 자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막힌 것이 저본의 상태입니다.

한 군데, 저본을 거스른 곳

가넷은 러시아어 여성형 성(姓) 어미를 전부 지웠습니다. 그대로 따르면 소냐가 「소피야 세묘노브나 마르멜라도프」가 되어 한국 독자에게는 남자 이름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슬라브계 성에 한해 여성형을 되살렸습니다 — 마르멜라도바, 라스콜니코바. 독일계 성(리페베흐젤, 레슬리히)은 러시아어에도 여성형이 없으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영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옮기는 사람은 대사마다 새로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이 번역은 인물 관계마다 말의 등급을 미리 정해 두고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머니 풀헤리야**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굽힙니다. 그렇다고 존댓말을 쓰면 원문에 없는 계급 전도가 생기고, 평범한 반말을 쓰면 그 굽힘의 공포가 증발합니다. 그래서 반말을 유지하되 **명령형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어머니가 딸 두냐에게는 즉시 명령합니다. 그 낙차가 이 인물의 전부입니다.

소냐는 라스콜니코프를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백 쪽에 걸쳐 호칭이 없습니다. 그 공백이 말의 등급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당신은」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 각주는 옮긴이가 붙인 것입니다. 관등·화폐·도량형, 정교회 용어와 절기, 러시아 법제도, 그리고 가넷이 영국 것으로 바꿔 놓은 자리가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밝혔습니다. 인물의 심리나 상징을 해설하는 주는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 저본에 실린 가넷 자신의 주는 「영역자 가넷의 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원철자를 살렸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프랑스어를 쓰는 것은 교양의 표지가 아니라 파산의 표지이고, 뜻을 몰라야 하는 자리와 알아야 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차례

역자 서문 9

1부 1장 12

1부 2장 23

1부 3장 48

1부 4장 66

1부 5장 83

1부 6장 98

1부 7장 115

2부 1장 132

2부 2장 157

2부 3장 172

2부 4장 191

2부 5장 206

2부 6장 223

2부 7장 252

3부 1장 278

3부 2장 298
3부 3장 315
3부 4장 335
3부 5장 352
3부 6장 379
4부 1장 395
4부 2장 416
4부 3장 434
4부 4장 446
4부 5장 471
4부 6장 497
5부 1장 509
5부 2장 533
5부 3장 552
5부 4장 573
5부 5장 599
6부 1장 619
6부 2장 633
6부 3장 653
6부 4장 668
6부 5장 684

6부 6장 705
6부 7장 724
6부 8장 738
에필로그 1 753
에필로그 2 763

역자 서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자체에 관해 몇 마디 적어 두면 영국 독자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의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부모는 대단히 부지런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으나, 다섯 아이를 데리고 방 두 칸에서 살아야 할 만큼 가난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녁이면 아이들에게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며 시간을 보냈는데, 대개는 진지한 성격의 책이었다.

늘 병약하고 허약했음에도 도스토옙스키는 페테르부르크 공병학교의 졸업시험에서 3등으로 나왔다. 그는 그곳에서 이미 첫 작품 『가난한 사람들』을 쓰기 시작한 터였다.

이 소설은 시인 네크라소프가 자기 평론지에 실어 주었고 갈채 속에 받아들여졌다. 수줍고 이름 없던 청년은 하루아침에 제법 유명한 인사가 된 자신을 발견했다. 찬란하고 성공적인 앞길이 그의 앞에 열리는 듯했으나 그 희망은 이내 꺾였다. 1849년에 그는 체포되었다.

기질로 보나 신념으로 보나 혁명가가 아니었음에도, 도스토옙스키는 푸리에와 프루동을 함께 읽으려고 모이던 젊은이들의 작은 무리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 검열에 반대하는 대화에 가담하고, 벨린스키가 고골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하고, 인쇄기를 들여놓으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다 」 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니콜라이 1세(모리스 베어링이 부르는 대로 하자면 그 「엄격하고 공정한 사람」) 치하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했고,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여덟 달의 옥살이 끝에 그는 다른

스물한 사람과 함께 총살을 당하러 세묘노프스키 광장으로 끌려 나갔다. 형 미하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우리 머리 위에서 딱딱 끊어지는 말을 내뱉었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입는 흰 셔츠를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처형을 당하도록 셋씩 묶여 말뚝에 매였습니다. 줄의 세 번째였던 나는 내게 남은 삶이 몇 분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형님과 형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했고, 옆에 있던 플레셰예프와 두로프에게 간신히 입을 맞추어 작별을 고했습니다. 별안간 군대가 북을 두드렸고, 우리는 결박이 풀려 처형대 위로 도로 이끌려 올라갔으며, 황제 폐하께서 우리 목숨을 살려 주셨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는 강제 노역형으로 감형되었다.

수인 가운데 한 사람인 그리고리예프는 결박이 풀리자마자 미쳐 버렸고, 끝내 제정신을 되찾지 못했다.

이 경험이 안긴 극심한 고통은 도스토옙스키의 정신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겼다. 그의 종교적 기질은 마침내 그를 모든 고통을 체념으로 받아들이고 제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데까지 이끌었지만, 그는 자기 글에서 이 주제로 끊임없이 되돌아온다. 그는 사형수가 겪는 그 끔찍한 고뇌를 묘사하고, 그런 고문을 가하는 일의 잔혹함을 역설한다. 뒤이어 시베리아에서 잡범들과 어울려 지낸 4년의 징역살이가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죽음의 집』을 쓰기 시작했으며, 다시 몇 해 동안 징계 대대에서 복무했다.

체포되기 전부터 그에게는 정체 모를 신경 질환의 징후가 나타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격렬한 간질 발작으로 발전하여 그는 남은 평생 그 병에 시달렸다. 발작은 한 해에 서너 번 일어났고 큰 긴장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더 잦았다. 1859년에 그는 러시아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는 잡지를 하나 창간했다 — 『브레먀』[1]였는데, 검열

당국이 오해 때문에 금지해 버렸다. 1864년에 그는 첫 아내와 형 미하일을 잃었다. 그는 지독한 가난 속에 있었으나 형의 빚을 갚는 일을 제 몫으로 떠맡았다. 그는 또 하나의 잡지를 창간했다 — 『에포크』였는데, 이것도 몇 달이 못 되어 금지되었다. 그는 빚에 짓눌렸고, 형의 가족이 그에게 얹혀 있었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속도로 글을 써야만 했고, 자기 글을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들 한다. 그의 만년은 두 번째 아내의 다정함과 헌신으로 크게 누그러졌다.

1880년 6월 그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푸시킨 기념비 제막식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했고, 사랑과 경의의 이례적인 표시 속에 맞아들여졌다.

몇 달 뒤 도스토옙스키는 죽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문객의 무리가 그를 무덤까지 따라갔고, 그들은 「그 가엾은 사람에게 임금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 그는 지금도 아마 러시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작가일 것이다.

도스토옙스키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설명해 보려 한 어느 러시아 비평가의 말을 빌리면 이렇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하나였고, 우리와 같은 피와 같은 뼈를 지닌 사람이었으나, 그토록 고통받고 우리보다 그토록 훨씬 더 깊이 본 사람이어서 그의 통찰은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온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거기서 배우려고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의 지혜로. 그의 다른 재능은 모두 자연이 그에게 준 것이지만, 이것만은 그가 스스로 얻어 낸 것이며 그것을 통해 그는 위대해졌다.」

---

1. 가넷은 도스토옙스키 형제가 낸 두 잡지의 이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옮겼다. 앞의 것은 러시아어 발음을 그대로 적었고(Vremya), 뒤의 것은 영어로 옮겼다(The Epoch). 두 이름은 모두 「시대」를 뜻한다. 한국어판은 이 비대칭을 고르게 다듬지 않고 그대로 둔다.

1부 1장

칠월 초의 유난히 무더운 어느 저녁 무렵, 한 젊은이가 S 거리에 세 들어 사는 다락방에서 나와 망설이기라도 하는 듯 느릿느릿 K 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계단에서 집주인 여자와 마주치는 일을 용케 피했다. 그의 다락방은 높다란 5층 집 지붕 밑에 있었고, 방이라기보다는 벽장에 가까웠다. 다락방과 식사와 시중을 대 주는 그 집주인 여자는 한 층 아래에 살았는데, 그는 밖에 나갈 때마다 그 여자의 부엌 앞을 지나야 했고 부엌문은 거의 언제나 계단 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젊은이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겁먹은 기분이 들었고, 그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며 부끄러워했다. 그는 집주인 여자에게 갚을 길 없이 빚을 지고 있었고, 그 여자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그가 겁이 많고 비굴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다만 얼마 전부터 그는 신경이 지나치게 곤두서서 건드리기만 해도 날이 서는 상태, 거의 심기증(心氣症)에 다다른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자기 안으로 완전히 침잠해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고립된 나머지 그는 집주인 여자뿐 아니라 그 누구와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가난이 그를 짓뭉개고 있었으나, 제 처지에서 오는 걱정거리들은 근래 들어 그를 짓누르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실제로 중요한 일들을 챙기기를 그만두었고, 그럴 마음 자체를 잃어버렸다. 어떤 집주인이 무슨 짓을 하든 그에게 진짜 공포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계단에서 붙들려, 그

여자의 시시하고 뜬금없는 수다를, 돈을 내놓으라는 성가신 독촉과 으름장과 푸념을 억지로 듣고 서서, 핑계를 쥐어짜고 얼버무리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 아니, 그럴 바에는 고양이처럼 계단을 기어 내려가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빠져나가는 편이 나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리로 나서자, 제 빚쟁이 여자와 마주칠까 하는 두려움에 그 자신조차 놀랐다.

「저런 일을 저질러 보겠다면서 이따위 사소한 것에 겁을 먹다니.」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흠…… 그래, 모든 것이 인간의 손안에 있건만 인간은 비겁함 때문에 그 전부를 흘려보낸다. 그건 공리(公 理)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재미있겠군.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것, 새로운 자기만의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 그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말이 너무 많군. 내가 지껄이기만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다.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지껄이는 것인지도 모르지. 지난 한 달 동안 굴속에 며칠씩 내리 드러누워 생각에 잠긴 채 지껄이는 법을 익혔다…… 쓸데없는 옛날이야기 따위나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금 내가 왜 거기로 가고 있지? 내게 그럴 능력이 있기나 한가? 이게 진지한 일이기는 한가? 조금도 진지하지 않다. 그저 나를 즐겁게 해 보려는 공상일 뿐이다. 장난감이지! 그래, 어쩌면 장난감인지도 모른다.」

거리의 열기는 지독했다. 숨 막히는 공기, 북새통, 사방에 널린 회반죽과 비계와 벽돌과 먼지, 그리고 여름에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그 특유의 페테르부르크 악취 — 이 모든 것이 이미 한껏 곤두서 있던 젊은이의 신경을 괴롭게 건드렸다. 그 일대에 유난히 많은 선술집에서 풍겨 나오는 참을 수 없는 악취와, 평일인데도 쉴 새 없이 마주치는 술 취한 사내들이 이 역겨운 그림의 비참함을 완성했다. 더할 수 없이 깊은 혐오의 표정이 젊은이의 섬세한

얼굴에 한순간 번득였다. 덧붙여 두자면 그는 유난히 잘생긴 축이었고, 보통보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몸매가 좋았으며, 아름다운 검은 눈과 짙은 갈색 머리칼을 지니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 더 정확히 말하자면 머릿속이 온통 텅 비어 버린 상태에 빠졌다. 그는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은 채 걸어갔다. 이따금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방금 스스로 실토한 그 혼잣말하는 버릇 탓이었다. 이때 그는 제 생각이 이따금 뒤엉킨다는 것과 자기가 몹시 쇠약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틀 동안 그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였다.

그의 옷차림은 어찌나 형편없었는지, 남루한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대낮에 그런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에 나서는 것은 부끄러워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동네에서는 옷차림의 결함쯤은 좀처럼 놀랄 거리가 되지 못했다. 건초 시장이 가까운 데다 행실 나쁜 업소가 많고, 페테르부르크 한복판의 이 거리와 골목마다 직공과 장인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 탓에,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인간 유형이 하도 갖가지여서 아무리 괴상한 몰골이라도 놀라움을 자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악에 받친 경멸이 어찌나 쌓여 있었던지, 젊음에 으레 딸리는 온갖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리에서만은 제 누더기를 가장 덜 신경 썼다. 아는 사람이나 옛 동급생과 마주칠 때는 이야기가 달랐다 — 하기야 그는 언제라도 그들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무거운 짐말이 끄는 커다란 짐수레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던 술 취한 사내가 지나치면서 느닷없이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그를 손가락질하고 「어이, 거기 독일 모자쟁이!」 하고 외쳤을 때 — 젊은이는 별안간 걸음을 멈추고 부들부들 떨며 제 모자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치머만 가게에서 나온 키 높은 둥근 모자였으나, 완전히 닳아 빠지고 세월에 녹슨 듯 빛이 바랬으며, 온통 찢기고 얼룩진

데다, 챙이 떨어져 나가고 한쪽으로 더할 수 없이 꼴사납게 꺾여 있었다. 그러나 그를 덮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는 당황해 중얼거렸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게 제일 고약하다! 아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것이, 이런 하찮기 짝이 없는 사소한 것 하나가 계획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 내 모자는 너무 눈에 띈다……. 우스꽝스러우니까 눈에 띄는 거다……. 이런 누더기에는 챙모자를 써야 한다, 낡아 빠진 납작한 것이면 무엇이든 좋고, 이런 기괴한 물건은 안 된다. 아무도 이런 모자를 쓰지 않으니 멀리서도 대번에 눈에 띌 것이고, 기억에 남을 것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리라는 것, 그러면 그게 단서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런 일에는 되도록 눈에 덜 띄어야 한다……. 사소한 것,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 아니, 언제나 모든 걸 망쳐 놓는 건 바로 그런 사소한 것들이다…….」

멀리 갈 것은 없었다. 하숙집 대문에서부터 몇 걸음인지를 그는 실제로 알고 있었다. 정확히 칠백삼십 걸음이었다. 언젠가 공상에 빠져 있을 때 세어 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그 공상을 믿지 않았고, 다만 그 추악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대담함으로 제 속을 들쑤시며 애를 태우고 있었을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그는 그것을 달리 바라보기 시작했고, 제 무력함과 우유부단함을 비웃는 독백을 늘어놓으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끔찍한」 공상을 이미 하나의 계획으로 여기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 여전히 제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도. 그는 지금 분명히 제 계획의 「예행연습」을 하러 가는 길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흥분이 점점 더 격렬해졌다.

가슴이 내려앉고 신경이 떨리는 채로 그는 한쪽은 운하를, 다른 쪽은 거리를 면하고 있는 거대한 집으로 다가갔다. 이 집은 자잘한 셋방으로

쪼개어 세를 놓았고 온갖 부류의 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 재봉사, 자물쇠장이, 요리사, 이런저런 독일인, 되는대로 입에 풀칠을 하는 처녀들, 말단 서기 따위였다. 두 개의 대문과 두 개의 안마당으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그 건물에는 수위가 서넛 고용되어 있었다. 젊은이는 그들 가운데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은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고, 곧장 오른쪽 문으로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미끄러져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 그것은 어둡고 비좁은 뒷계단이었으나 그는 이미 익숙했고 길을 알았으며, 이 모든 주위가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캐기 좋아하는 눈이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지금도 이렇게 겁을 먹는데, 어쩌다 정말로 그 일을 하러 가게 된다면 어떻겠는가?」 4층에 이르렀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 그의 걸음은 어느 셋방에서 가구를 실어 내고 있던 퇴역 군인 짐꾼들에게 막혔다. 그 방에는 관청에 다니는 독일인 서기와 그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인이 지금 이사를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분간 이 계단, 이 층계참의 4층에는 노파의 셋방 하나만 사람이 사는 셈이었다. 「잘됐군…… 만일을 위해서는……」 노파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그는 다시 생각했다. 초인종은 구리가 아니라 양철로 만든 것처럼 희미하게 딸랑거렸다. 그런 집의 작은 셋방에는 언제나 그렇게 울리는 초인종이 달려 있다. 그는 그 종소리를 잊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독특한 딸랑거림이 무언가를 그에게 일깨우며 그것을 눈앞에 또렷이 불러내는 것 같았다……. 그는 흠칫했다. 이때쯤 그의 신경은 끔찍하게 곤두서 있었다. 잠시 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노파가 그 틈으로 눈에 띄게 미심쩍어하며 방문객을 살폈고,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작은 두 눈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층계참에 사람이 여럿 있는 것을 보고는 대담해져서 문을 활짝 열었다. 젊은이는 자그마한 부엌과

칸막이로 나뉜 어두운 현관으로 들어섰다. 노파는 말없이 그를 마주보고 서서 캐묻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예순 먹은 자그맣고 바싹 마른 노파로, 날카롭고 악의에 찬 눈과 뾰족하고 작은 코를 지니고 있었다. 빛깔이 바래고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에는 기름이 잔뜩 발려 있었고, 그 위에 수건 하나 쓰지 않았다. 닭다리처럼 보이는 가늘고 긴 목에는 플란넬 헝겊 같은 것이 둘려 매여 있었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어깨에는 세월에 누레진 털 빠진 모피 망토가 펄럭이며 걸려 있었다. 노파는 쉴 새 없이 기침을 하고 끙끙거렸다. 젊은이가 어지간히 야릇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던 모양인지, 그녀의 눈에 다시 불신의 빛이 어렸다.

「 라스콜니코프라고 합니다, 학생입니다. 한 달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 좀 더 공손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서, 젊은이는 반쯤 허리를 굽히며 서둘러 중얼거렸다.

「 기억하고말고요, 양반. 여기 오셨던 걸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요.」 노파는 또박또박 말하면서도 캐묻는 눈을 그의 얼굴에서 떼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은 볼일로 왔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노파의 미심쩍어하는 태도에 조금 당황하고 놀라며 말을 이었다. 「저 여자는 늘 저런지도 모르지, 지난번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고.」 그는 언짢은 기분으로 생각했다.

노파는 망설이기라도 하듯 잠시 말이 없다가, 한쪽으로 비켜서서 방문을 가리키며 방문객을 제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말했다.

「들어오시지요, 양반.」

젊은이가 들어선 자그마한 방은 벽에 누런 벽지가 발려 있고 창가에 제라늄 화분과 모슬린 커튼이 놓여 있었는데, 마침 그 순간 지는 해가 방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때도 해가 이렇게 비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치 우연처럼 라스콜니코프의 머릿속을 스쳤고, 그는 재빠른 눈길로 방 안의 모든 것을 훑으며 그 배치를 되도록 눈여겨보고 기억해 두려 했다. 그러나 방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가구는 하나같이 아주 낡은 누런 나무로 된 것들로, 커다랗게 흰 나무 등받이가 달린 소파, 소파 앞의 타원형 탁자, 두 창 사이에 놓인 거울 붙은 화장대, 벽을 따라 늘어선 의자들, 그리고 손에 새를 든 독일 처녀들을 그린, 누런 액자에 든 몇 푼짜리 싸구려 판화[1] 두세 점 — 그게 전부였다. 구석에는 작은 이콘[2] 앞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 모든 것이 아주 깨끗했다. 바닥도 가구도 반들반들 닦여 있었고, 무엇이나 윤이 났다.

「리자베타가 한 일이군.」 젊은이는 생각했다. 온 집 안에 먼지 한 점 보이지 않았다.

「이런 깔끔함은 심술궂은 늙은 과부의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라스콜니코프는 다시 생각했고, 또 하나의 자그마한 방으로 통하는 문에 드리운 무명 커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슬쩍 훔쳐보았다. 그 방에는 노파의 침대와 서랍장이 놓여 있었고, 그는 지금껏 한 번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이 두 칸이 집의 전부였다.

「무슨 볼일이지요?」 노파는 엄하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와, 아까처럼 그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볼 수 있게 그 앞에 버티고 섰다.

「잡힐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뒷면에 지구가 새겨진 구식 납작 은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줄은 강철로 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잡힌 물건은 기한이 지났어요. 그저께로 한 달이 찼지요.」

「한 달 치 이자를 더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야 내 마음이지요, 양반. 기다리든 당장 잡힌 물건을 팔아넘기든.」

「이 시계에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알료나 이바노브나?」

「그런 시시한 걸 들고 오시니, 양반, 값이 나갈 게 있나요. 지난번엔 반지를 두고 2루블[3]을 드렸는데, 그건 보석상에서 새것을 1루블 반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이지요.」

「4루블만 주십시오. 도로 찾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곧 돈이 좀 생길 겁니다.」

「1루블 반에 이자를 미리 떼고, 그래도 좋다면요!」

「1루블 반이라니요!」 젊은이가 소리쳤다.

「 그럼 마음대로 하시지요. 」 하고 노파는 시계를 그에게 도로 건네주었다. 젊은이는 그것을 받아 들었고, 어찌나 화가 났던지 그대로 나가 버릴 참이었다. 그러나 달리 갈 데가 없다는 것과 여기 온 데에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 떠올라 곧 스스로를 억눌렀다.

「이리 내십시오.」 그가 거칠게 말했다.

노파는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찾더니 커튼 뒤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방 한가운데 혼자 남겨진 젊은이는 귀를 곤두세우고 엿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서랍장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 맨 위 서랍이로군. 」 그는 헤아려 보았다. 「 그러니까 열쇠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전부 강철 고리 하나에 꿰어 한 묶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들보다 세 배는 크고 홈이 깊게 파인 열쇠가 하나 있다. 그건 서랍장 열쇠일 리가 없다…… 그렇다면 다른 궤짝이나 금고가 있다는 얘기다…… 알아 둘 만하군. 금고 열쇠는 언제나 그렇게 생겼다…… 그런데 이게 다 얼마나 치사한 짓인가.」

노파가 돌아왔다.

「자, 손님. 한 달에 1루블당 10코페이카라고들 하니, 1루블 반에서 한 달 치를 미리 15코페이카 떼야 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빌려 드린

2루블에 대해서도 같은 셈으로 미리 20코페이카를 물어야 해요. 그러니 모두 합쳐 35코페이카지요. 그럼 시계 값으로 1루블 15코페이카를 드려야 하는군요. 자, 여기 있어요.」

「뭐라고요! 이제 겨우 1루블 15코페이카라니!」

「그렇지요.」

젊은이는 따지지 않고 돈을 받았다. 그는 노파를 바라보며 자리를 뜨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 무언가 말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남아 있는 듯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잘 알지 못했다.

「 하루 이틀 안에 다른 걸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료나 이바노브나 — 값나가는 물건입니다 — 은으로 된 — 담뱃갑인데, 친구한테서 돌려받는 대로……」 그는 당황해 말을 끊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하지요, 손님.」

「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 늘 혼자 계십니까, 동생분은 같이 안 계시고요?」 그는 복도로 나서면서 되도록 아무렇지 않은 투로 그렇게 물었다.

「그 애가 양반하고 무슨 상관이랍니까?」

「아, 별것 아닙니다, 그냥 여쭤본 겁니다. 너무 빠르시군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알료나 이바노브나.」

라스콜니코프는 완전히 정신이 흐트러진 채 밖으로 나왔다. 그 혼란은 점점 더 심해졌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는 무슨 생각에 문득 얻어맞기라도 한 듯 두세 번이나 우뚝 멈춰 서기까지 했다. 거리로 나서자 그는 소리쳤다. 「 오, 하느님, 이 모든 게 얼마나 역겨운가! 그런데 내가, 내가 정말로……. 아니, 터무니없는 소리다, 쓰레기 같은 소리다! 」 그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 어떻게 그런 흉악한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내 마음이 이토록 더러운 짓까지 할 수 있다니. 그래, 무엇보다 더럽다, 구역질 난다, 역겹다, 역겹다! — 그런데

꼬박 한 달을 나는…….」 그러나 어떤 말로도, 어떤 외침으로도 그의 동요를 다 담아낼 수는 없었다. 노파에게 가는 길에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히기 시작했던 극심한 혐오감은 이제 어찌나 높은 데까지 치솟았고 어찌나 뚜렷한 형체를 갖추었는지, 그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도를 걸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부딪쳤으며, 다음 거리에 이르러서야 겨우 제정신이 들었다. 둘러보니 그는 보도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층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어느 선술집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취한 사내 둘이 문에서 나와, 서로 욕을 해 대며 서로를 부축한 채 층계를 올라왔다. 라스콜니코프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곧장 층계를 내려갔다. 그때까지 그는 선술집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지금은 어지럽고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맥주 한 잔이 간절했고, 갑작스러운 쇠약함을 먹지 못한 탓으로도 돌렸다. 그는 어둡고 더러운 구석의 끈적거리는 작은 탁자에 앉아 맥주를 시키고는 첫 잔을 허겁지겁 들이켰다. 곧 속이 편해졌고, 생각이 맑아졌다.

「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는 희망에 차서 말했다. 「걱정할 거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몸이 탈이 난 것뿐이다. 맥주 한 잔에 마른 빵 한 조각 — 그러면 단박에 머리가 튼튼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의지가 굳어진다! 흥, 이게 다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

그러나 이렇게 코웃음을 치면서도 그는 어느새 무서운 짐에서 별안간 풀려나기라도 한 듯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 안의 사람들을 다정한 눈길로 둘러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그에게는 이 한결 나아진 기분 또한 정상이 아니라는 어렴풋한 예감이 있었다.

그 시각 선술집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층계에서 마주친 취한 사내 둘 말고도, 사내 다섯쯤과 콘서티나를 든 처녀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같은 때에 나가 버린 참이었다. 그들이 나가자 방 안은 조용해지고 제법 텅 비었다. 아직 선술집에 남아 있는 사람은, 맥주 단지를 앞에 놓고 앉은, 취하기는 했으나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겉보기에 소시민으로 보이는 사내와, 그 일행인, 잿빛 수염을 기르고 자락이 넓은 짧은 외투를 입은 덩치 크고 뚱뚱한 사내였다. 이 사내는 몹시 취해서 긴 의자 위에 잠들어 버렸는데, 이따금 잠결인 듯 움찔 깨어나서는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손가락을 딱딱 튕기고 상체를 의자 위에서 들썩거리며 아무 뜻 없는 후렴을 흥얼거렸다. 이런 구절을 떠올려 보려고 애쓰면서.

「그이는 한 해 동안 아내를 고이 사랑했네 그이는 아내를 한 — 한 해 동안 — 고이 사랑했네.」

그러다 또 별안간 잠에서 깨어나서는,

「포댜체스카야 거리를 걸어가다가 옛날의 제 여자를 찾아냈다네.」

그러나 아무도 그의 흥에 어울려 주지 않았다. 말없는 일행은 이 모든 짓거리를 대놓고 적의와 불신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방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딘지 퇴직한 관청 서기처럼 보이는 사내였다. 그는 따로 떨어져 앉아 이따금 단지를 홀짝이며 좌중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 역시 어떤 동요 속에 있는 듯했다.

---

1. 원문은 「그로시짜리」. 그로시는 반 코페이카에 해당하던 옛 동전으로, 「한 푼짜리 싸구려」라는 뜻으로 쓰인다. 영역자 가넷은 이를 영국 동전(반 페니)으로 바꿔 옮겼다.

2. 이콘 — 정교회에서 그리스도·성모·성인을 그린 성화(聖畫). 러시아 가정에서는 방 한구석에 모셔 두고 그 앞에 등불을 켜 두는 것이 관습이었다.

3. 루블·코페이카 — 제정 러시아의 화폐 단위. 1루블은 100코페이카다. 뒤에 노파가 매기는 「한 달에 1루블당 10코페이카」는 월 10퍼센트, 곧 연 120퍼센트의 이자에 해당한다.

1부 2장

라스콜니코프는 사람 많은 곳에 익숙하지 않았고, 앞서 말했듯이 어떤 종류의 교제든 피해 왔으며 근래에 와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별안간 사람들 틈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는 듯했고, 그와 더불어 사람에 대한 일종의 갈증이 느껴졌다. 꼬박 한 달 동안 응축된 비참과 음울한 흥분에 시달린 끝이라 그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좋으니 그것이 어떤 세계이든 다른 세계에서 쉬고 싶었다. 그래서 주위가 더럽기 짝이 없는데도 그는 지금 이 술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반가웠다.

술집 주인은 다른 방에 있었으나 이따금 몇 계단을 내려와 큰 방으로 왔는데, 그때마다 몸의 나머지 부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커다란 붉은 접단을 댄, 맵시 있게 타르를 먹인 장화였다. 그는 긴 외투에 끔찍하게 번들거리는 검정 공단 조끼를 입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으며, 얼굴 전체가 쇠자물쇠처럼 기름칠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계산대에는 열네 살쯤 된 사내아이가 서 있었고, 그보다 좀 어린 다른 아이가 달라는 것을 갖다 주었다. 계산대 위에는 썰어 놓은 오이와 말라붙은 검은 빵 몇 조각, 잘게 토막 낸 생선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같이 냄새가 지독했다. 견딜 수 없이 답답했고 술기운이 어찌나 자욱한지 이런 공기 속에 오 분만 있어도 사람이 취할 만했다.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가운데는 한마디 말이 오가기도 전에 첫 순간부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라스콜니코프에게서 조금

떨어져 앉아 있던, 퇴직한 관리처럼 보이는 사내가 그에게 준 인상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젊은이는 나중에 이 인상을 자주 떠올렸고 심지어 그것을 예감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그는 그 관리 쪽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는데, 상대가 집요하게 자기를 쳐다보며 말을 붙이고 싶어 안달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것도 분명 한몫했을 것이다. 술집 주인을 포함해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리의 눈길에는 그들과 어울리는 데 이골이 났고 또 그것에 싫증이 났다는 기색이, 그리고 자기보다 신분도 교양도 낮아 말을 섞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자들이라는 식의 얕잡아 보는 경멸이 얼마쯤 서려 있었다. 쉰이 넘은 사내로, 머리가 벗어지고 희끗희끗했으며, 중키에 몸집이 다부졌다. 끊임없는 음주로 부어오른 얼굴은 누렇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었고, 부은 눈꺼풀 사이로 생기 있는 불그레한 두 눈이 조그만 틈새처럼 번득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몹시 기이한 데가 있었다. 두 눈에는 황홀한 열광 같은 빛까지 어려 있었고 — 어쩌면 거기에는 사색과 지성까지 있었는지 모른다 — 그와 동시에 광기 비슷한 것이 번뜩였다. 그는 낡고 구제 불능으로 너덜너덜한 검정 연미복을 입고 있었는데, 단추는 하나만 남고 모조리 떨어져 나갔으며 그 하나만은 잠가 두었으니 체면의 마지막 흔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구겨지고 얼룩과 반점투성이인 셔츠 앞섶이 무명 조끼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관리답게 턱수염도 콧수염도 기르지 않았으나 하도 오래 면도를 하지 않아 턱이 뻣뻣한 잿빛 솔처럼 보였다. 거동에도 어딘가 점잖고 관청 사람 같은 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만있지 못했다. 머리칼을 헝클어뜨리는가 하면, 얼룩지고 끈적거리는 탁자에 해진 팔꿈치를 괴고 이따금 낙심한 듯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곤 했다. 마침내 그는 라스콜니코프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청하건대, 존경하는 선생, 정중한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러한고 하니, 선생의 외양이 존경을 자아낼 만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제 경험이 이르기를 선생은 교양 있는 분이요 음주에 익숙지 않은 분이라 하는 까닭입니다. 저는 진실한 심성과 결합된 교양이라면 언제나 존중해 왔거니와, 그에 더하여 저로 말씀드리면 관등이 9등관이올시다[1]. 마르멜라도프 — 그것이 제 이름이지요. 9등관입니다. 감히 여쭙건대 — 관직에 몸담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학생입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말하는 이의 거창한 문체에도, 그렇게 대뜸 말을 걸어온 것에도 그는 적잖이 놀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든 좋으니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잠깐 들었건만, 막상 누가 말을 걸어오자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거나 다가오려 드는 낯선 사람에 대한 늘 그러한 짜증스럽고 불편한 혐오를 이내 느꼈다.

「그러면 학생이시거나 전에 학생이셨군요!」 관리가 소리쳤다. 「제 짐작 그대로입니다! 경험이올시다, 선생, 거듭된 경험이지요!」 그러고는 스스로 대견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툭 쳤다. 「학생이셨거나 어느 학문하는 기관에 다니셨을 겁니다!…… 한데 잠깐 실례를…….」 그는 일어서다 비틀거리더니 제 술병과 잔을 들고 젊은이 곁으로 와 비스듬히 마주 보고 앉았다. 취해 있었으나 말은 거침없고 대담하게 나왔고, 다만 이따금 문장의 갈피를 놓치고 말끝을 늘일 뿐이었다. 그는 마치 자기도 한 달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섞어 보지 못한 사람처럼 탐욕스럽게 라스콜니코프에게 달려들었다.

「존경하는 선생.」 그는 거의 엄숙하다 할 어조로 입을 열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 이건 옳은 말입니다. 허나 술주정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거니와, 그쪽이 한층 더 옳지요. 그러나 구걸은,

존경하는 선생, 구걸은 죄올시다. 가난 속에서는 타고난 영혼의 고귀함을 그래도 지닐 수 있으나, 구걸 속에서는 결코 — 아무도 지니지 못합니다. 구걸하는 자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몽둥이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 쓸려 나가지요. 될 수 있는 대로 모욕적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당하기도 한 것이, 구걸 속에서라면 제 자신을 모욕하는 데 제가 첫 번째로 나설 용의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하여 술집인 것이지요! 존경하는 선생, 한 달 전에 레베쟈트니코프 씨가 제 아내를 때렸습니다. 한데 제 아내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바강의 건초 바지선에서 밤을 지새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 실은 제가 방금 거기서 오는 길이고, 그렇게 잔 것이 닷새째 밤입니다…….」 그는 잔을 채우고 비운 다음 말을 멈추었다. 과연 건초 부스러기가 그의 옷에 달라붙고 머리칼에 끼여 있었다. 지난 닷새 동안 옷을 벗은 적도 몸을 씻은 적도 없어 보였다. 특히 손이 더러웠다. 기름때가 끼고 붉은 손에 손톱은 시커멨다.

그의 이야기는 시들하나마 좌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계산대의 아이들이 킥킥대기 시작했다. 술집 주인은 저 「웃기는 친구」의 말을 들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듯 위층 방에서 내려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더니, 나른하게 하품을 하면서도 위엄은 잃지 않았다. 마르멜라도프가 이곳에서 낯익은 인물임은 분명했고, 그 거창한 연설 취미도 술집에서 온갖 낯선 자들과 걸핏하면 말을 트는 습관에서 얻은 것이 십중팔구였다. 어떤 주정뱅이들에게는 이 습관이 필요가 되는데, 특히 집에서 매섭게 감시당하고 단속당하는 자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술

마시는 동료들 틈에서 그들은 제 자신을 변호하려 들고 할 수만 있다면 존경까지 받아 내려 든다.

「웃기는 친구야!」 주인이 한마디 했다. 「그래, 왜 일은 안 하나, 관직에 있다면서 왜 근무처에 나가 있질 않나?」

「 어찌하여 제가 근무처에 있지 않은가 하면, 존경하는 선생. 」 마르멜라도프는 마치 그 질문을 한 것이 라스콜니코프이기라도 한 양 오로지 그에게만 대고 말을 이었다. 「 어찌하여 제가 근무처에 있지 않은가? 제가 헛되이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에 제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한 달 전에 레베쟈트니코프 씨가 손수 제 아내를 때리는데 저는 취해 나자빠져 있었으니, 제가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실례합니다, 젊은 양반, 혹 이런 일을 겪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흠…… 그러니까, 가망 없이 돈을 꾸어 달라 청원해 본 일 말입니다.」

「있습니다. 한데 가망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가망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 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경우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이, 더없이 선량하고 더없이 유익한 이 시민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미리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제가 여쭙건대, 그가 어째서 주어야 합니까? 제가 갚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도 물론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동정심에서요? 허나 요즘 사상에 뒤지지 않는 레베쟈트니코프 씨가 며칠 전에 설명하기를, 요즘은 동정이라는 것이 과학 그 자체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정치경제학이 있는 영국에서는 이미 그렇게들 하고 있다더군요. 제가 여쭙건대, 그가 어째서 저에게 주어야 합니까? 그런데도 그가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면서 그래도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어째서 갑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끼어들었다.

「그야, 아무도 없고 달리 갈 데가 없을 때는 가는 겁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갈 데가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어디로든 반드시 가야만 하는 때가 있는 법이니 말입니다! 제 친딸이 노란 딱지[2]를 받고 처음 나갔을 때, 그때 저도 갔습니다…… (제 딸이 노란 딱지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말이지요.)」 그는 어딘가 불안한 눈으로 젊은이를 보며 괄호를 치듯 덧붙였다. 「괜찮습니다, 선생, 괜찮아요!」 계산대의 두 아이가 폭소를 터뜨리고 주인까지 빙긋 웃자 그는 서둘러,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저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쯤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두가 그 일을 다 알고 있으며, 감추인 것은 무엇이든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경멸이 아니라 겸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 될지어다! 그리 될지어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 실례합니다, 젊은 양반, 선생께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 강하고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요. 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감히 하시겠습니까, 저를 보면서 제가 돼지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젊은이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웅변가는 방 안의 웃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무덤덤하게, 오히려 위엄을 더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리 될지어다, 저는 돼지올시다. 허나 그 사람은 귀부인입니다! 저는 짐승의 꼴을 하고 있으나 제 아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요 영관 장교 집안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인정하지요, 인정합니다, 저는 파렴치한이올시다. 허나 그 사람은 고결한 마음을 지녔고 감정이 풍부하며 교육으로 세련된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아, 그 사람이 저를 가엾이 여겨 주기만 한다면! 존경하는 선생, 존경하는 선생, 아시다시피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를 가엾이 여겨 주는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너그럽기는 하여도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것이 오로지 연민에서 그러는 것임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 부끄러워하지 않고 되풀이하거니와, 그 사람은 제 머리채를 잡아챕니다, 젊은 양반.」 또다시 킥킥대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위엄을 갑절로 하여 선언했다. 「허나, 맙소사,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이……. 아니, 아닙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고 말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한 번 이상 제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있고 한 번 이상 그 사람이 저를 가엾이 여긴 적도 있으나…… 제 성미가 그런 것이고 저는 타고난 짐승인 것을!」

「그렇고말고!」 주인이 하품하며 맞장구쳤다. 마르멜라도프는 단호하게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제 성미가 그런 겁니다! 아십니까, 선생, 제가 그 사람 양말까지 술로 바꿔 마셨다는 걸 아십니까? 신발이 아니라 — 그거야 그래도 사리에 어지간히 맞는 일이겠지요 — 양말을, 그 사람 양말을 술로 바꿔 마셨습니다! 그 사람의 염소 솜털 머릿수건도 술로 바꿔 마셨는데, 그건 오래전에 누가 선물한 그 사람 물건이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은 춥고, 그 사람은 이번 겨울에 감기가 들어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피까지 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어린것이 셋 있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닦고 쓸고 아이들을 씻기는데, 어려서부터 깨끗한 것에 길이 든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허나 가슴이 약하고 폐병 기가 있으니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제가 못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실수록 더 느낍니다. 그래서 마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술 속에서 동정과 감정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라 오직 슬픔만을 찾는 겁니다……. 저는 갑절로 괴로우려고 마십니다!」 그러고는 절망한 사람처럼 탁자에 머리를 떨구었다.

「젊은 양반.」 그는 다시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다. 「선생의 얼굴에서 저는 무슨 마음의 괴로움을 읽는 듯합니다. 선생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읽었고, 그래서 대뜸 말을 건 것이지요. 제 인생 이야기를 선생께 펼쳐 보이는 것은 이미 죄다 알고 있는 저 한가한 청중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교양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현(縣)의 귀족 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졸업할 때 지사와 여러 고관들 앞에서 솔 춤을 추어 금메달과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메달은…… 뭐, 메달이야 물론 팔았습니다 — 오래전에요, 흠…… 허나 표창장은 아직도 그 사람 궤짝 속에 있고, 얼마 전에는 그걸 집주인 여자에게 보여 주기까지 했습니다. 집주인 여자와는 거의 끊임없이 사이가 틀어져 있으면서도, 누구 앞에서든 뽐내고 가 버린 행복한 날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일로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단 하나가 지난날의 추억이요 나머지는 죄다 먼지와 재인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말고요, 그 사람은 성미가 불같은 부인이요 자존심이 세고 굽힐 줄 모릅니다. 제 손으로 마루를 문질러 닦고 먹을 것이라곤 검은 빵밖에 없으면서도 제 자신이 함부로 대접받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베쟈트니코프 씨가 자기에게 무례하게 군 것을 그냥 넘기지 못했고, 그 일로 그가 그 사람을 때렸을 때는 맞은 것보다도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혼인했을 때 그 사람은 과부였고, 아이가 셋에 하나가 하나보다 더 어렸습니다. 첫 남편인 보병 장교와는 사랑해서 혼인했고 그 사람과 함께 친정에서 달아났습니다. 남편을 지극히 좋아했으나 그자가 노름에 빠져 재판에까지 걸리더니 그러고는 죽었습니다. 말년에는 그자가 그 사람을 때리곤 했지요. 그 사람이 되갚아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제게 확실한 문서상의 증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오늘까지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그자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그자를 들먹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쁩니다, 비록 상상 속에서일 뿐이나마 그 사람이 한때 자기가 행복했었다고 여기는 것이 기쁩니다……. 그자가 죽자 그 사람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침 그때 제가 있던 거칠고 외진 고장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가망 없는 가난 속에 남겨졌던지, 저야 온갖 부침을 숱하게 보아 온 사람입니다만 그것만은 도저히 그려 낼 자신이 없습니다. 친척들은 죄다 그 사람을 내쳤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자존심이 셌지요, 지나치게 셌습니다……. 그리하여, 존경하는 선생, 그리하여 그때 홀아비로 첫 아내가 남긴 열네 살 난 딸 하나를 데리고 있던 제가 그 사람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교양과 문화를 갖추고 명문가 출신인 그 사람이 제 아내가 되는 데 동의했다는 것으로 그 재난의 극한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의했습니다! 울고 흐느끼고 두 손을 쥐어짜면서 저와 혼인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 정말이지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선생이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꼬박 일 년 동안 저는 제 직무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수행했으며 이것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 그는 손가락으로 술병을 툭 쳤다. 「저에게도 감정이 있는 까닭입니다. 허나 그래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자리까지 잃었는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관청의 개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것에 손을 댔지요!…… 숱한 유랑과 허다한 재난 끝에 우리가 마침내 무수한 기념물로 장식된 이 장려한 수도에 당도한 지가 곧 일 년 반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얻었다가 다시 잃었지요.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제 잘못으로 잃었습니다. 제 약점이 드러난 까닭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말리아 표도로브나 리페베흐젤의 집에서 방 한 칸의 일부를 얻어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 먹고사는지 무엇으로 방세를 치르는지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고도 거기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소돔이지요, 더없이 추악한 소돔…… 흠…… 그렇습니다…… 그러는 동안 첫 아내가 낳은 제 딸이 다 자랐습니다. 자라는 동안 제 딸이 계모에게서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너그러운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이기는 하나 성미가 불같고 신경이 날카로운 부인이라 툭하면 쏘아붙이는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나 그 이야기를 되짚어 봐야 소용없지요! 소냐는, 넉넉히 짐작하시겠지만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 년 전에 제가 지리와 만국사를 한 차례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저 자신이 그 과목들에 그리 밝지 못한 데다 마땅한 책도 없었고, 있던 책이란 것도…… 흠, 어쨌거나 지금은 그것조차 없으니 우리의 교육은 죄다 끝이 났지요. 우리는 페르시아의 키루스에서 멈추었습니다. 나이가 찬 뒤로는 낭만적인 경향의 다른 책들을 읽었고, 근래에는 레베쟈트니코프 씨를 통해 얻은 책 한 권, 루이스의 『생리학』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 아십니까? — 우리에게 발췌를 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그 애가 받은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선생, 제 개인적인 일로 사사로운 질문 하나를 감히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가난하되 정직한 처녀가 정직한 노동으로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고 특별한 재주가 없다면, 한순간도 일손을 놓지 않고서도 하루에 15코페이카[3]도 벌지 못합니다! 게다가 5등관,[4] 이반 이바니치 클롭슈토크는 — 들어 보셨습니까? — 그 애가 지어 준 아마포 셔츠 여섯 벌 값을 오늘까지 치르지 않았을뿐더러, 셔츠 깃이 본과 다르게 되었고 비뚜로 달렸다는 구실로 발을 구르고 욕을 퍼부으며 그 애를 거칠게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린것들은 굶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 병에 걸리면 늘 그렇듯 두 볼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왔다 갔다 하며 두 손을 쥐어짜고는 이럽니다. 『이 밥버러지 같은 것, 너는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는구나.』 사흘째 어린것들에게 빵 껍질 한 조각 없는 판에 먹고 마시는 것이 대단도 하지요! 그때 저는 누워 있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저는 취해 누워 있었고 제 소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온순한 아이라 목소리가 나직하고…… 머리칼이 밝은빛에 얼굴은 그렇게 창백하고 여위고 조그맣습니다). 그 애가 말했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리야 프란초브나라는, 악의를 품은 데다 경찰에도 여러 번 알려진 여자가 집주인 여자를 통해 세 번쯤 그 애에게 접근하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못 할 게 뭐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할 만큼 네가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도 되느냐!』 허나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선생, 탓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 병과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에 미칠 지경으로 내몰려 있었고, 곧이곧대로의 뜻이라기보다 모욕하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성미인 까닭입니다. 아이들이 울면, 배가 고파 우는 것이라 해도 그 사람은 대뜸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시가 넘었을 무렵 저는 소냐가 일어나 머릿수건을 쓰고 망토를 걸치고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고, 여덟 시가 넘어 그 애가 돌아왔습니다. 그 애는 곧장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로 걸어가 말없이 그 앞의 탁자에 30루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그저 우리 집의 커다란 초록빛 drap de dames[,5] 숄을 집어 들어(우리에겐 drap de dames로 지은 숄이 한 장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덮고는 벽을 향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만 그 조그만 어깨와 몸뚱이가 줄곧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과 똑같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보았습니다, 젊은 양반, 저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똑같은 침묵 속에서 소냐의 작은 침대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녁 내내 무릎을 꿇고 소냐의 발에 입을 맞추며 일어나려 하지 않았고, 그러다 둘은 서로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함께, 함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해 누워 있었습니다.」

마르멜라도프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라도 한 듯 말을 뚝 그쳤다. 그러더니 서둘러 잔을 채워 마시고 목을 가다듬었다.

「그때 이후로, 선생.」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을 이었다. 「그때 이후로, 불행한 사건 하나와 악의를 품은 자들이 제공한 정보로 말미암아 — 그 모든 일에서 다리야 프란초브나가 자기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구실을 내세워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 그때 이후로 제 딸 소피야 세묘노브나는 노란 딱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와 계속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주인 아말리아 표도로브나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전에는 다리야 프란초브나를 거들었으면서도 말이지요) 레베쟈트니코프 씨 역시…… 흠……. 그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사이의 말썽은 죄다 소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몸소 소냐에게 수작을 걸려 하더니 별안간 위엄을 차리고 나서는 겁니다. 『나같이 계몽된 사람이』 하고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저런 계집애와 한집에서 살 수 있겠소?』 그러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애 편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소냐는 요새 대개 어두워진 뒤에 우리에게 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위로하고 그 애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줍니다……. 재봉사인 카페르나우모프네에 방을 얻어 그 집에 세 들어 삽니다. 카페르나우모프는 절름발이에 말더듬이인데 그 많은 식구가 다 말더듬이입니다. 그 아내도

말더듬이고요. 모두가 방 하나에서 사는데 소냐만은 칸을 막아 제 방을 갖고 있습니다……. 흠…… 그렇습니다…… 몹시 가난한 사람들이고 죄다 말더듬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어나 누더기를 걸치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린 다음 각하 이반 아파나시비치에게로 떠났습니다. 각하 이반 아파나시비치를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선생이 모르는 분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밀초올시다…… 주의 얼굴 앞의 밀초라. 밀이 녹음 같으니!……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마르멜라도프, 자네는 이미 한 번 내 기대를 저버렸네…… 내 책임으로 한 번 더 자네를 받아들이겠네』 —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 『명심하게』 하시고는 『이제 가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발밑의 먼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 생각으로만 그랬지요, 실제로는 그분이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치가이시고 현대적인 정치사상과 계몽사상을 지닌 분인 까닭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가 다시 관직에 받아들여졌고 봉급을 받게 되었다고 알리자, 맙소사, 얼마나 야단법석이 났는지!……」

마르멜라도프는 격한 흥분에 휩싸여 다시 말을 멈추었다. 바로 그때 이미 취한 한 무리의 술꾼들이 거리에서 들어왔고, 문간에서는 세낸 손풍금 소리와 일곱 살배기 아이가 「촌락」[6]을 부르는 갈라진 가락 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이 소란으로 가득 찼다. 술집 주인과 아이들은 새로 온 손님들을 치르느라 바빴다. 마르멜라도프는 새로 온 자들에게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 이제는 몹시 기운이 없어 보였으나, 취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는 더욱더 말이 많아졌다. 최근에 자리를 얻은 성공의 기억이 그를 되살리는 듯했고, 그것이 얼굴에 일종의 광채가 되어 뚜렷이 비쳤다. 라스콜니코프는 귀 기울여 들었다.

「 그게 다섯 주 전입니다, 선생. 그렇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소냐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고 맙소사, 저는 천국에

발을 들여놓기라도 한 듯했습니다. 전에는 이랬지요. 짐승처럼 나자빠져 있거나 말거나 돌아오는 건 욕설뿐. 그런데 이제는 발끝으로 걸어 다니며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세묜 자하로비치가 관청 일에 지치셨다, 쉬고 계신다, 쉿!』 제가 일하러 나가기 전에 커피를 타 주고 크림을 끓여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진짜 크림을 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번듯한 옷 한 벌 값 — 11루블 50코페이카 — 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저도 짐작이 안 갑니다. 장화, 무명 셔츠 앞섶 — 더없이 훌륭한 것들이었지요 — 제복까지, 죄다 멋들어지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11루블 반에 말입니다. 관청에서 돌아온 첫날 아침,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상에 두 가지 요리를, 수프와 고추냉이를 곁들인 절인 고기를 차려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옷이 없습니다…… 단 한 벌도 없지요. 그런데도 마치 남의 집에 다니러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몸치장을 한 겁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깨끗한 깃이라도 하나 달고 소매 끝동을 달았더니 아 글쎄 아주 딴사람이 되어, 더 젊어 보이고 더 예뻐 보였습니다. 제 귀여운 소냐는 돈으로만 거들었습니다. 『당분간은요』 하고 그 애가 말하기를, 『제가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건 좋지 않아요. 어두워진 뒤라면 몰라도요, 아무도 볼 수 없을 때라면요.』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저녁을 먹고 한숨 자려고 누웠는데 글쎄 어땠겠습니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불과 일주일 전에 집주인 아말리아 표도로브나와 더할 나위 없이 심하게 다투었건만, 그때는 참지 못하고 그 여자를 커피에 청해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둘이 앉아 소곤거렸습니다. 『세묜 자하로비치가 이제 다시 관직에 나가 봉급을 받고 있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이가 몸소 각하께 갔더니 각하께서 친히 그이에게 나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죄다

기다리게 해 놓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세묜 자하로비치의 손을 잡고 집무실로 데려가셨다지 뭡니까. 』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아무렴』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세묜 자하로비치, 자네의 지난 공로를 생각해서』 하시고, 『또 자네가 그 어리석은 약점에 기울어지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네가 약속을 하고 게다가 자네 없이 우리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았으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 하시고는, 『이제 신사로서의 자네 말을 믿겠네』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건대 그 사람이 혼자 지어낸 것입니다. 그저 방자해서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 사람은 그걸 죄다 스스로 믿고 있고 제 공상으로 제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로 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탓하지 않습니다!…… 엿새 전에 제가 첫 봉급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 죄다 합해서 23루블 40코페이카였습니다 — 갖다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저를 귀염둥이라 불렀습니다. 『귀염둥이』 하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조그만 귀염둥이』. 그것도 우리 둘만 있을 때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이 보시기에 제가 미남일 리도 없고 남편감으로 대단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뺨을 꼬집으며 『내 조그만 귀염둥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멜라도프는 말을 뚝 그치고 웃어 보이려 했으나 별안간 턱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을 다스렸다. 이 술집, 이 사내의 추락한 몰골, 건초 바지선에서 보낸 닷새 밤, 그리고 이 술 단지 — 그러면서도 아내와 자식들을 향한 이 사무치는 사랑이 듣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열심히 들었으나 괴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곳에 온 것이 짜증스러웠다.

「존경하는 선생, 존경하는 선생.」 마르멜라도프가 정신을 수습하고 소리쳤다. 「아, 선생, 어쩌면 선생께는 이 모든 것이 남들에게 그렇듯

웃음거리로 보일 테고, 어쩌면 저는 제 집안일의 시시콜콜한 사정들로 선생을 성가시게 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허나 저에게는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죄다 느낄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그 천국 같던 하루 내내, 그 저녁 내내 저는 모든 것을 어떻게 꾸려 갈지, 아이들을 어떻게 다 입힐지, 그 사람을 어떻게 쉬게 해 줄지, 그리고 제 친딸을 어떻게 치욕에서 건져 내어 가족의 품으로 되돌릴지 덧없는 꿈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아주 많은 것을……. 넉넉히 용서받을 만한 일이지요, 선생.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 (마르멜라도프는 별안간 흠칫하더니 고개를 들고 듣는 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꿈을 꾼 바로 이튿날에, 그러니까 정확히 닷새 전 저녁에, 저는 밤도둑같이 교활한 수작으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서 궤짝 열쇠를 훔쳐 내어 남은 봉급을 꺼냈습니다. 얼마였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집을 나온 지 닷새째이고, 집에서는 저를 찾고 있고, 제 일자리는 그것으로 끝이 났고, 제 제복은 이집트 다리 옆 어느 술집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과 바꾸었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르멜라도프는 주먹으로 제 이마를 치고 이를 악물고 눈을 감더니 팔꿈치로 탁자를 무겁게 짚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별안간 달라지더니, 어딘가 꾸며 낸 듯한 교활함과 허세를 지어 보이며 그는 라스콜니코프를 흘깃 보고 웃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소냐에게 갔습니다, 해장술 좀 달라고 가 본 겁니다! 헤-헤-헤!」

「설마 그 애가 주었다는 건 아니겠지!」 새로 온 자들 중 하나가 소리쳤다. 그는 그 말을 고함치듯 내뱉고는 껄껄 웃어 젖혔다.

「이 술도 그 애 돈으로 산 것입니다.」 마르멜라도프는 오로지 라스콜니코프만을 향해 말했다. 「30코페이카를 제 손으로 저에게 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진 전부를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땅 위가 아니라 저 위에서는…… 저들이 사람을 두고 슬퍼하고 울어 주되 탓하지는 않습니다, 탓하지 않아요! 허나 탓하지 않으면 더 아픕니다, 탓하지 않으면 더 아파요! 30코페이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애에게 그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애하는 선생? 그 애는 이제 제 모양을 갖추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 몸치장, 그 각별한 몸치장에는 돈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포마드도 있어야 하고, 아시다시피 이것저것 다 있어야 합니다. 속치마, 풀을 먹인 속치마, 신발도 있어야 하는데 웅덩이를 넘을 때 발을 내보이려면 정말로 맵시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 그 몸치장이 다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저는, 그 애 친아비인 저는 그 돈에서 30코페이카를 술값으로 집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다 마셔 버렸습니다! 자, 저 같은 인간을 누가 가엾이 여기겠습니까, 예? 선생, 제가 가엾습니까, 가엾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선생, 가엾습니까, 아닙니까? 헤-헤-헤!」

그는 잔을 채우려 했으나 남은 술이 없었다. 단지가 비어 있었다.

「자네가 가엾을 게 뭐 있나?」 다시 그들 가까이 와 있던 술집 주인이 소리쳤다.

웃음소리가, 심지어 욕설까지 뒤따랐다. 그 웃음과 욕설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들에게서도,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저 퇴직한 관리의 꼴을 바라보고만 있던 자들에게서도 나왔다.

「가엾다니! 어찌하여 내가 가엾어야 한단 말인가?」 마르멜라도프가 별안간 팔을 뻗치고 일어서서, 마치 그 질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양 낭독하듯 외쳤다.

「어찌하여 내가 가엾어야 하느냐고 그대는 말하는가? 그렇다! 나를 가엾이 여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야 한다, 가엾이 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못 박으라, 오 재판관이여, 못 박되 못 박고 나서는 그를 가엾이 여기라! 그러면 나는 스스로 못 박히러 가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흥겨움이 아니라 눈물과 환난인 까닭이니!…… 술 파는 이여, 그대는 그대의 이 한 병이 나에게 달았으리라 여기는가? 내가 그 바닥에서 구한 것은 환난이었고 눈물과 환난이었으며, 나는 그것을 찾아내었고 또 맛보았노라.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리니, 모든 사람을 가엾이 여기신 그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깨달으신 그분이라. 그분이야말로 유일하신 분이요 그분이 또한 재판관이시라. 그분께서 그날에 오시어 물으시리라. 『모질고 폐병 든 계모와 남의 어린것들을 위하여 제 몸을 내준 딸이 어디 있느냐? 제 땅 위의 아비 되는 더러운 주정뱅이를, 그 짐승 같음에 질리지 아니하고 가엾이 여긴 딸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리라. 『내게로 오라! 내 이미 너를 한 번 용서하였느니라……. 내 너를 한 번 용서하였느니라…….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나니 이는 네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내 소냐를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나는 그것을 아노라…… 아까 그 애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으로 그것을 느꼈노라! 그리고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모두를 용서하시리니,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온유한 자도 다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들 모두를 마치시고 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리라. 『너희도 나아오라』 하시며, 『나아오라 술 취한 자들아, 나아오라 약한 자들아, 나아오라 부끄러움의

자식들아!』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모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 그분 앞에 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돼지요 짐승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의 표를 지녔으나, 너희도 오라!』 하시리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들과 총명한 자들이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당신께서 이 사람들을 받으시나이까?』 하리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들을 받는 까닭이 이것이니, 오 지혜로운 자들아, 내가 이들을 받는 까닭이 이것이니, 오 총명한 자들아, 이들 중 단 하나도 스스로 이에 합당하다 여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두 손을 내미시리니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리라…… 그리고 우리는 울리라……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으리라! 그때 우리는 다 깨달으리라!…… 그리고 다들 깨달으리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까지도…… 그 사람도 깨달으리라……. 주여, 나라이 임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는 기진하여 무력하게 긴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고, 주위를 까맣게 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말은 어떤 인상을 남겼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내 다시 웃음과 욕설이 들려왔다.

「판결 한번 잘 내리셨군!」

「허풍이 끝도 없군!」

「관리 나리시라!」

그런 말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다.

「 갑시다, 선생. 」 마르멜라도프가 별안간 고개를 들고 라스콜니코프를 향해 말했다.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 코젤의 집입니다, 안뜰 쪽으로 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가려는 참입니다 — 갈 때가 되었지요.」

라스콜니코프는 진작부터 자리를 뜨고 싶었던 데다 그를 도와줄 작정이기도 했다. 마르멜라도프는 말보다 다리가 훨씬 더 후들거려

젊은이에게 몸을 무겁게 기댔다. 이삼백 걸음쯤 가면 되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이 취한 사내는 점점 더 두려움과 당혹에 사로잡혔다.

「지금 제가 두려운 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아닙니다.」 그가 안절부절못하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제 머리채를 잡아채기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칼이야 무슨 대수입니까! 머리칼 따위! 제 말이 그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잡아채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낫지요, 제가 두려운 건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이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눈이…… 두 뺨의 붉은 기운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숨소리도…….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숨 쉬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분했을 때 말입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도 두렵습니다……. 소냐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허나 매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십시오, 선생, 그런 매는 저에게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라는 것을. 실은 그것 없이는 지내지를 못합니다……. 그편이 낫습니다. 저를 때리라지요, 그래야 그 사람 속이 후련해지니…… 그편이 낫습니다…… 저기가 그 집입니다. 자물쇠장이 코젤의 집이지요…… 독일 사람인데 살림이 넉넉합니다. 앞장서십시오!」

그들은 안뜰로 들어가 4층까지 올라갔다. 올라갈수록 계단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열한 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고, 페테르부르크의 여름에는 진짜 밤이라는 것이 없다고는 하나 계단 꼭대기는 아주 캄캄했다.

계단 맨 꼭대기의 때 낀 작은 문이 빠끔히 열려 있었다. 길이가 열 걸음쯤 되는 몹시 초라한 방이 타다 남은 양초 하나로 밝혀져 있었는데, 입구에서 방 전체가 다 보였다. 방 안은 온통 어질러져 온갖 넝마, 특히 아이들 옷가지가 널려 있었다. 가장 안쪽 구석에는 너덜너덜한 홑이불이 가로질러 걸려 있었다. 그 뒤가 아마도 침대일 터였다. 방에는 의자 둘과 구멍이 숭숭 뚫린 인조 가죽을 씌운 소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앞에는 칠도 하지 않고 덮개도 씌우지 않은 낡은 전나무 부엌 탁자가 놓여 있었다. 탁자 가장자리에는 쇠 촛대에 꽂힌 수지 양초가 그을음을 내며 타고 있었다. 보아하니 이 식구는 방 한 칸의 일부가 아니라 제 방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으나, 그 방은 사실상 통로나 다름없었다. 아말리아 리페베흐젤의 셋집이 나뉘어 생긴 다른 방들로, 아니 차라리 벽장들이라 해야 할 곳들로 통하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고함과 소란과 웃음소리가 났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카드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따금 더없이 무람없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라스콜니코프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대번에 알아보았다. 키가 제법 크고 호리호리하며 자태가 고운 여자였는데, 무섭도록 여위었고 짙은 갈색 머리칼이 아직도 훌륭했으며 두 볼에는 열병 같은 홍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좁은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입술은 바싹 말랐고 숨은 신경질적으로 끊기며 가빠졌다. 두 눈은 열에 들뜬 듯 번득이며 매섭고 꼼짝도 않는 시선으로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타다 남은 양초의 마지막 가물거리는 불빛이 어른거리는 그 폐병 들고 흥분한 얼굴은 보는 이에게 병적인 인상을 주었다. 라스콜니코프가 보기에 그녀는 서른쯤 되어 보였고, 마르멜라도프에게는 확실히 어울리지 않는 아내였다……. 그녀는 그들의 기척을 듣지 못했고 들어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방 안은 답답했으나 그녀는 창을 열지 않았다. 계단에서는 악취가 올라왔으나 계단으로 난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안쪽 방들에서 담배 연기가 뭉게뭉게 흘러들어 그녀는 연신 기침을 했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다. 막내인 여섯 살배기 계집아이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소파에 머리를 얹은 채 잠들어 있었다. 한 살 더 많은 사내아이는 구석에 서서 울며 떨고 있었는데 아마 방금 매를 맞은 모양이었다. 그 옆에는 아홉 살 난

계집아이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여윈 아이로, 얇고 해진 속옷 위에 아마 두 해 전에 지어 준 것인지 이제는 무릎에도 닿지 않는 낡은 drap de dames 망토를 맨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막대기처럼 가느다란 팔로 아이는 동생의 목을 감고 있었다. 무언가 속삭이며 동생을 달래려 애썼고, 동생이 다시 훌쩍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겁에 질려 여윈 얼굴 탓에 한층 더 커 보이는 그 커다랗고 검은 두 눈은 불안하게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르멜라도프는 문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바로 문간에서 무릎을 꿇고는 라스콜니코프를 제 앞으로 밀었다. 낯선 사람을 본 여자는 무심하게 걸음을 멈추고 그를 마주 보았는데, 잠시 제정신이 돌아온 듯 그가 무슨 일로 왔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가 저쪽 방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거기로 가려면 제 방을 지나야 하니 그렇겠거니 하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그에게 더는 눈길을 주지 않고 그녀는 바깥문을 닫으려고 걸어가다가, 문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제 남편을 보고 별안간 비명을 질렀다.

「아!」 그녀가 미친 듯이 외쳤다. 「돌아왔구나! 이 징역감! 이 괴물!…… 그래, 돈은 어디 있어? 주머니에 뭐가 들었어, 내놔! 옷도 죄다 딴것이잖아! 옷은 어디 갔어? 돈은 어디 있느냐고! 말해!」

그러고는 그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르멜라도프는 순순히 고분고분 두 팔을 들어 올려 뒤지기 쉽게 해 주었다. 한 코페이카도 나오지 않았다.

「돈은 어디 있어?」 그녀가 외쳤다. 「맙소사, 저걸 죄다 마셔 버렸단 말이야? 궤짝에 은화 12루블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고는 격분하여 그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마르멜라도프는 온순하게 무릎으로 기어가며 그녀의 수고를 거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는 즐거움이올시다! 이것은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올-시-다, 존-경-하-는 선생!」 그는 머리채가

잡힌 채 이리저리 흔들리며, 심지어 한 번은 이마를 바닥에 찧어 가면서 외쳤다. 바닥에서 자던 아이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구석의 사내아이는 자제력을 완전히 잃고 몸을 떨며 비명을 지르더니, 거의 발작하다시피 격렬한 공포에 휩싸여 누나에게 달려들었다. 맏이 계집아이는 잠이 덜 깬 채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다.

「다 마셔 버렸어, 죄다 마셔 버렸어!」 가엾은 여자가 절망에 차서 비명을 질렀다. 「옷도 딴것이야! 그리고 이 애들은 굶고 있어, 굶고 있다고! 」 그러고는 두 손을 쥐어짜며 아이들을 가리켰다. 「 아,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녀는 별안간 라스콜니코프에게 달려들었다. 「 술집에서 왔군요! 저이하고 같이 마셨죠? 당신도 같이 마셨어요! 나가요!」

젊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둘러 나가려 했다. 안쪽 문이 활짝 열리고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파이프와 궐련을 문 상스럽고 히죽거리는 얼굴들과 빵모자를 쓴 머리들이 문간으로 불쑥불쑥 들이밀렸다. 더 안쪽으로는 앞자락을 풀어 헤친 실내복 차림에 꼴사납도록 헐벗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보였고, 더러는 손에 카드를 들고 있었다. 마르멜라도프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니면서 이것이 자기에게는 즐거움이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유난히 재미있어했다.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했다. 마침내 험악하고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으니, 아말리아 리페베흐젤 본인이 사람들을 헤치고 밀고 들어오며 제 나름의 방식으로 질서를 잡으려 들고,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어 내일 당장 방을 비우라고 명령함으로써 이 가엾은 여자를 백 번째로 겁주려 드는 소리였다. 나가면서 라스콜니코프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술집에서 1루블을 헐어 받은 구리 동전을 손에 잡히는 대로 움켜쥐고는 남몰래 창턱에 놓아둘 틈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계단에서 그는 마음이 바뀌어 되돌아가려 했다.

「내가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한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에겐 소냐가 있고 나는 내가 써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 도로 가져오기란 불가능하고 어차피 가져오지도 않았으리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그는 손을 내저어 그 일을 떨쳐 버리고 제 하숙으로 돌아갔다. 「소냐도 포마드가 필요하지.」 그는 거리를 걸으며 말하고는 악의에 차 웃었다. 「그런 몸치장에는 돈이 드니까……. 흠! 그리고 어쩌면 오늘은 소냐 자신이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르지. 큰 짐승을 사냥하는 데는…… 금을 캐는 데는 늘 위험이 따르는 법이니까…… 그러면 내 돈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내일 다들 빵 한 조각 없었겠군. 소냐 만세! 저 인간들이 거기 무슨 우물을 파 놓았는지! 그리고 아주 잘들 써먹고 있어! 그래, 잘도 써먹고 있어! 울고불고하더니 익숙해져 버렸지. 인간은 무엇에든 익숙해지는 법이야, 비열한 놈 같으니!」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그가 별안간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인간이 정말로는 비열한 놈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인간 일반이, 인류 전체가 말이야 — 그렇다면 나머지는 죄다 편견이고 그저 인위적인 공포에 불과하며, 아무 장벽도 없고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인 거지.」

---

1. 9등관(titular counsellor, 티툴랴르니 소베트니크) — 제정 러시아 관등표 14등급 가운데 9등. 세습 귀족이 되지 못하는 하급 문관의 대표적 등급으로, 관청 말단 서기의 자리다. 마르멜라도프는 이름보다 이 관등을 먼저, 그리고 두 번 말한다.

2. 노란 딱지 — 제정 러시아에서 매춘 종사 등록자에게 내주던 신분증. 이것을 받으면 일반 여권이 회수되어 거주와 취업이 제한되었다. 저본은 같은 것을 yellow ticket과 yellow passport 두 낱말로 갈라 쓰지만 한국어판은 한 용어로 옮긴다.

3. 원문은 「15코페이카」. 영역자 가넷은 이 자리를 영국의 4분의 1페니 동전 파딩(farthing)으로 바꿔 놓았다.

4. 5등관(civil counsellor, 스타츠키 소베트니크) — 관등표 5등. 9등관인 마르멜라도프보다 네 등급 위다. 「각하」 칭호는 4등관 이상에게 붙었다.

5. drap de dames — 「부인용 나사(羅紗)」라는 뜻의 프랑스어 모직물 이름. 값싼 편이지만 이 집에 단 한 장뿐인 재산이다.

6. 「촌락」 — 러시아 민요풍 노래의 제목. 저본은 이것을 영국 독자를 위해 The Hamlet으로 옮겨 놓았는데,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아니라 「작은 촌락」이라는 뜻이다.

1부 3장

그는 이튿날 늦게, 뒤숭숭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잠은 그를 조금도 개운하게 해 주지 못했다. 그는 속이 뒤틀리고 신경이 곤두선 채, 심사가 사나워져 깨어났고, 증오에 찬 눈으로 제 방을 둘러보았다. 길이가 여섯 걸음쯤 되는, 벽장이라고 해야 할 작은 방이었다. 누렇게 바랜 벽지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벽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 방은 가난에 찌든 꼴이었고, 천장이 어찌나 낮은지 보통 키보다 조금이라도 큰 사람은 그 안에서 편치가 않아 금방이라도 머리를 천장에 찧을 것만 같았다. 세간도 방에 걸맞았다. 낡은 의자가 셋 있었는데 하나같이 삐걱거렸고, 구석에 놓인 칠한 탁자 위에는 공책 몇 권과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으며, 그 위에 두껍게 내려앉은 먼지가 그것들이 오래도록 손 타지 않았음을 말해 주었다. 크고 볼품없는 소파 하나가 한쪽 벽을 거의 다 차지하고 방바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때는 사라사 천을 씌운 것이었으나 지금은 걸레가 다 되어 라스콜니코프의 침대 노릇을 했다. 그는 흔히 그 위에서, 입고 있던 그대로, 홑이불도 없이, 낡은 학생 외투를 두른 채, 작은 베개 하나에 머리를 얹고 잠들었다. 그 베개 밑에는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가리지 않고 가진 속옷을 죄다 쌓아 올려 긴 베개 대신으로 삼았다. 소파 앞에는 작은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보다 더 지저분하게 망가지기도 어려웠겠지만, 지금 같은 심경의 라스콜니코프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마음에 들었다. 그는 등딱지 속의 거북처럼 모든 사람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있었고, 시중을 들어야

해서 이따금 방을 들여다보는 하녀의 모습조차 그를 신경질로 몸서리치게 했다. 그는 한 가지에만 온통 정신이 쏠린 편집광들이 흔히 빠지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숙집 여주인은 두 주일 전부터 그에게 식사를 들여보내는 일을 그만두었는데, 저녁을 굶으면서도 그는 아직 그 일로 따져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부엌일을 맡은 단 하나의 하녀 나스타시야는 하숙인의 그런 기분을 오히려 반겼고, 그의 방을 쓸고 치우는 일을 아주 그만두어 버려서 일주일에 한 번쯤이나 빗자루를 들고 그 방에 들를 뿐이었다. 그날 그를 깨운 것도 그녀였다.

「일어나, 왜 아직도 자고 있어?」 그녀가 그를 불렀다. 「아홉 시가 넘었어. 차를 좀 가져왔는데, 한 잔 들겠어? 시장해서 죽을 지경일 텐데, 아니야?」

라스콜니코프는 눈을 뜨고 흠칫하더니 나스타시야를 알아보았다.

「주인아주머니가 보낸 거예요?」 그는 병자 같은 얼굴로 천천히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주인아주머니는 무슨!」

그녀는 묽고 김이 다 빠진 차가 가득 든 제 금 간 찻주전자를 그의 앞에 놓고, 그 옆에 누런 각설탕 두 덩이를 놓았다.

「자, 나스타시야, 이거 받아요.」 그는 (옷을 입은 채 잤으므로) 주머니를 더듬어 동전 한 줌을 꺼내며 말했다 — 「가서 빵 한 덩이만 사다 줘요. 그리고 돼지고기 가게에서 소시지도 조금, 제일 싼 걸로 사다 주고요.」

「빵이야 이 길로 당장 갖다주지. 그런데 소시지 말고 양배추 수프를 먹는 게 낫지 않겠어? 썩 훌륭한 수프야, 어제 것이긴 해도. 어제 남겨 뒀는데 늦게 들어왔잖아. 좋은 수프라니까.」

수프를 가져와 그가 먹기 시작하자, 나스타시야는 소파에 그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골 농사꾼 아낙이었고,

말이 여간 많은 편이 아니었다.

「 프라스코비야 파블로브나가 경찰에 고발하겠다더군. 」 그녀가 말했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경찰에요? 뭘 어쩌자는 건데요?」

「돈은 안 내지, 방은 안 비우지. 그러니 그러겠다는 거지 뭐.」

「 빌어먹을, 이것까지 겹치다니. 」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아니, 그건 곤란한데…… 지금은. 멍청한 여자예요.」 그가 소리 내어 덧붙였다. 「오늘 가서 얘기해 보죠.」

「멍청하지, 그야 틀림없어. 나나 마찬가지로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어째서 자루짝처럼 여기 드러누워서 내놓을 것 하나 없이 지내는 거야? 전에는 아이들 가르치러 나다녔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안 해?」

「하고 있어요……」 라스콜니코프가 뚱하니, 마지못해 입을 뗐다.

「뭘 하는데?」

「일을요……」

「무슨 일?」

「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그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스타시야는 웃음이 터져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잘 웃는 편이어서, 무엇이든 우스운 일이 있으면 소리 없이 웃었고, 온몸을 떨고 흔들어 대다가 속이 다 메슥거릴 지경이 되곤 했다.

「그래, 그 생각으로 돈은 많이 벌었어?」 그녀가 마침내 간신히 말을 만들어 냈다.

「장화가 없으면 과외를 나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침이나 뱉어 주죠.」

「우물에 침 뱉는 거 아니야.」

「과외는 삯이 너무 적어요. 동전 몇 닢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는 제 생각에 대꾸하기라도 하듯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밑천을 통째로 쥐고 싶다 이거야?」

그는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래요, 밑천을 통째로요.」 그는 잠깐 뜸을 들이고 나서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 사람 겁나게! 빵은 사다 줘, 말야?」

「마음대로 해요.」

「아 참, 잊고 있었네! 어제 나가고 없을 때 편지가 왔어.」

「편지요? 나한테요! 누구한테서요?」

「몰라. 내 돈으로 우편배달부한테 3코페이카 줬는데. 갚을 거지?」

「그럼 가져다줘요, 제발, 어서 가져다줘요.」 라스콜니코프가 몹시 흥분해서 소리쳤다 — 「아아, 하느님!」

잠시 뒤에 편지가 그에게 건네졌다. 과연 그것이었다. 어머니에게서, R—— 지방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편지를 받아 들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편지를 받아 본 지가 오래이기도 했지만, 그와는 다른 어떤 감정이 또한 문득 그의 심장을 찔렀다.

「나스타시야, 제발 나 좀 혼자 있게 해 줘요. 여기 3코페이카 받아요. 그러니 제발, 어서 좀 가 줘요!」

편지가 그의 손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뜯고 싶지 않았다. 이 편지와 단둘이 남고 싶었다. 나스타시야가 나가자 그는 얼른 편지를 입술로 가져가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수신인 주소를, 한때 그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준 어머니의, 그토록 정답고 낯익은 그 작고 비스듬한 글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머뭇거렸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까지 했다. 마침내 그는 편지를 뜯었다. 2로트[1]나 되는 두껍고 묵직한 편지였고, 큼직한 편지지 두 장이 아주 잔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사랑하는 로쟈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썼다 — 「편지로나마 너와 이야기를 나눈 지 두 달이 넘었구나. 그 일이 나를 괴롭혀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긴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던 이 침묵을 두고 네가 나를 탓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 것이다. 나와 두냐가 의지할 사람은 너뿐이니, 너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하나뿐인 희망이요, 하나뿐인 버팀목이다. 몇 달 전에 네가 제 몸 하나 건사할 길이 없어 대학을 그만두었고 과외 자리도 다른 일자리도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한 해 백이십 루블짜리 연금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었겠느냐? 넉 달 전에 네게 보낸 십오 루블은, 너도 알다시피, 이 고장 상인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바흐루신에게 내 연금을 담보로 잡히고 꾸어 온 것이다. 마음씨가 고운 분이고, 네 아버지와도 벗으로 지내던 사이다. 그런데 연금을 받을 권리를 그분에게 넘긴 터라 빚이 다 갚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것이 이제야 겨우 끝났으니, 그동안 네게 아무것도 부쳐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고맙게도, 무언가 더 보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아니, 실은 이제 우리 복을 우리 스스로 축하해도 좋을 만한 일이 생겼기에 서둘러 네게 알리는 것이다. 우선, 사랑하는 로쟈야, 네 누이가 여섯 주 전부터 나와 함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는 짐작이나 했겠느냐. 고맙게도 그 아이의 고생은 끝났다. 그러나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 온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네게 숨겨 온 것이 무엇인지 네가 다 알 수 있도록 차례대로 이야기하마. 두 달 전에 네가, 두냐가 스비드리가일로프 댁에서 무례를 당하며 참아 내야 할 일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고 편지에

쓰고, 그렇게 써 보내며 전부 알려 달라고 했을 때 — 내가 무어라고 답을 쓸 수 있었겠느냐? 사실대로 다 썼더라면 너는 필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설령 내내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왔을 것이다. 나는 네 성미와 네 마음을 알고 있고, 너는 네 누이가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아이가 아니니 말이다. 나 자신도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게다가 그때는 나 역시 사실을 다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은, 두냐가 지난해 그 댁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 백 루블을 미리 받았고 달마다 봉급에서 얼마씩 제하기로 되어 있었던 터라, 그 빚을 갚지 않고는 자리를 내던질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 돈은(이제는 다 털어놓아도 되겠구나, 내 귀한 로쟈야) 그 아이가 주로 네게 육십 루블을 보내 주려고 받은 것이다. 그때 네게 그 돈이 그렇게나 절실했고, 너는 지난해에 우리에게서 그것을 받았다. 그때 우리는 그 돈이 두냐가 모아 둔 것에서 나왔다고 써 보내어 너를 속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제 다 말하는 것은, 고맙게도 형편이 갑자기 좋은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또 두냐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네가 알았으면 해서이다. 처음에 스비드리가일로프 씨는 참으로 그 아이를 몹시 무례하게 대했고, 식탁에서 무람없고 비웃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다 끝난 일인데 공연히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니, 그 괴로운 자초지종은 시시콜콜 늘어놓지 않으련다. 요컨대 스비드리가일로프 씨의 부인 마르파 페트로브나와 그 밖의 온 집안 식구가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해 주었는데도 두냐는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특히 스비드리가일로프 씨가 옛 연대 시절 버릇이 도져 바쿠스의 힘을 빌릴 때면 더욱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아느냐? 믿어지겠느냐, 그 실성한 사람이 오래전부터 두냐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으면서 그것을 무례와 멸시로 꾸며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 제 나이며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처지를 생각하면 그 들뜬 바람이 스스로도 부끄럽고 소름 끼쳤을 테고, 그래서 두냐에게 화를 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 어쩌면 무례하고 비웃는 태도로 남들 눈을 속이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끝내 그는 자신을 놓아 버리고, 뻔뻔스럽게도 두냐에게 드러내 놓고 부끄러운 제안을 했다. 온갖 것을 다 해 주겠노라 약속하고,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아이를 제 다른 영지로, 아니 외국으로까지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 아이가 무엇을 겪었을지 너도 짐작이 갈 것이다! 자리를 당장 그만두는 것은 빚 때문만이 아니라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마음을 생각해서도 될 일이 아니었다. 그분이 의심을 품게 되었을 테고, 그러면 두냐가 그 집안을 갈라놓은 원인이 되었을 테니 말이다. 게다가 두냐에게도 끔찍한 추문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었을 테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두냐는 앞으로 여섯 주 동안은 그 무서운 집에서 벗어날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너도 두냐를 알지 않느냐. 그 아이가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뜻이 굳은지 너는 안다. 두냐는 많은 것을 견뎌 낼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도 굳건함을 잃지 않을 만한 너그러움을 제 안에서 찾아낼 줄 안다. 우리가 늘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는데도, 그 아이는 내가 상심할까 봐 모든 것을 편지에 적지도 않았다. 그 일은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끝이 났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정원에서 남편이 두냐에게 매달리는 것을 우연히 엿듣고는, 형편을 아주 그릇되게 해석하여 모든 것의 원인이 그 아이라고 믿고 그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 자리에서, 정원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서운 장면이 벌어졌다.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두냐를 때리기까지 했고,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꼬박 한 시간을 소리 질렀으며, 그러고는 두냐를 당장 농사꾼의 맨 짐수레에 실어 내게로 돌려보내라고 일렀다. 그 수레에 그 아이의 물건을, 속옷이며 옷가지를 개키지도 싸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죄다 던져

넣었다. 게다가 소나기까지 퍼부어서, 모욕당하고 망신당한 두냐는 지붕도 없는 수레에 농부와 함께 앉아 읍내까지 십칠 베르스타[2]를 꼬박 달려와야 했다. 그러니 두 달 전에 네게서 받은 그 편지에 내가 무슨 답을 보낼 수 있었겠는지, 무엇을 쓸 수 있었겠는지 이제 생각해 보려무나. 나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사실대로 쓸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알면 네가 몹시 괴롭고 분하고 억울했을 터인데, 그렇다 한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기껏해야 네 몸을 망치는 일밖에 더 있었겠느냐. 게다가 두냐가 말렸다. 그렇다고 가슴이 이토록 슬픔으로 가득한데 편지를 부질없는 이야기로 채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꼬박 한 달 동안 읍내는 이 추문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었고, 나중에는 우리를 두고 던지는 멸시의 눈길과 수군거림, 심지어 대놓고 하는 말들 때문에 두냐와 나는 교회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피했고 길에서 인사하는 이조차 없었다. 게다가 어떤 가게 점원들과 서기들이 우리 집 대문에 타르를 칠해 부끄러운 모욕을 주려 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고, 집주인은 우리더러 나가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부추긴 사람이 마르파 페트로브나였다. 그분은 집집마다 다니며 두냐를 헐뜯고 흙칠을 해 놓았다. 그분은 이 근방 사람을 모두 알고 있는 데다 그달 내내 쉴 새 없이 읍내에 나왔고, 원래 말이 좀 많고 제 집안일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며 특히 남편에 대한 불평을 아무에게나 늘어놓는 성미여서 — 그것은 도무지 옳은 일이 아니지만 —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를 읍내뿐 아니라 인근 지방 전체에 퍼뜨려 놓았다. 나는 그 일로 앓아누웠지만 두냐는 나보다 잘 견뎌 냈다.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면서 나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우려 했는지, 네가 보기만 했더라면! 그 아이는 천사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의 고생은 짧게 끝났다. 스비드리가일로프 씨가 정신을 차리고 뉘우쳤고, 아마

두냐가 딱하게 여겨졌던지, 마르파 페트로브나 앞에 두냐의 결백을 보여 주는 완전하고 분명한 증거를 내놓았다. 그 증거란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정원에서 두 사람을 맞닥뜨리기 전에 두냐가 어쩔 수 없이 써서 그에게 건넸던 편지였다. 그 아이가 떠난 뒤에도 스비드리가일로프 씨의 손에 남아 있던 그 편지는, 그가 애원하던 직접 해명과 은밀한 만남을 거절하기 위해 쓴 것이었다. 그 편지에서 그 아이는 마르파 페트로브나에 대한 그의 비열한 처사를 몹시 뜨겁고 분한 말로 나무랐고, 그가 한 집안의 아버지이자 가장임을 일깨웠으며, 이미 충분히 불행한 힘없는 처녀를 괴롭혀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지를 일러 주었다. 사랑하는 로쟈야, 그 편지는 정말이지 어찌나 고결하고 어찌나 가슴을 울리게 쓰였던지, 나는 읽으면서 흐느꼈고 지금도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한다. 게다가 하인들의 증언도 두냐의 명예를 씻어 주었다. 그들은 스비드리가일로프 씨 자신이 짐작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알고 있었다 — 하인이란 본래 언제나 그런 법이다.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완전히 허를 찔려, 본인이 우리에게 한 말마따나 『또다시 짓뭉개진』 셈이 되었지만, 두냐의 결백만은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바로 이튿날, 마침 주일이었는데, 그분은 곧장 대성당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성모께 기도드렸다. 이 새로운 시련을 견디고 제 도리를 다할 힘을 달라고 말이다. 그러고는 대성당에서 아무 데도 들르지 않고 곧장 우리에게로 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서럽게 울며 뉘우칠 대로 뉘우친 끝에 두냐를 껴안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그날 아침 그분은 지체 없이 우리 집에서 곧장 읍내의 집이란 집을 다 돌며,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로 두냐의 결백과 그 마음씨와 처신의 고결함을 내세웠다. 그뿐 아니라 두냐가 스비드리가일로프 씨에게 제 손으로 써 보낸 그 편지를 모두에게 보이고 읽어 주었으며, 베껴 가는 것까지 허락했다 —

그것만은 지나친 일이었다고 나는 말해 두어야겠다. 그렇게 그분은 며칠 동안이나 온 읍내를 마차로 돌아다니느라 분주했다. 남보다 뒤로 밀렸다고 해서 기분이 상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례를 정해야 했고, 집집마다 그분이 오기도 전에 기다리게 되었으며, 아무 날 아무 데서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그 편지를 읽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낭독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제 집에서도 남의 집에서도 이미 여러 번 들은 이들까지 적지 않았다. 내 생각에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아주 많은 것이 필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성미다. 어쨌든 그분은 두냐의 명예를 온전히 되돌려 놓는 데 성공했고, 이 일의 온갖 추악함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되어 주된 장본인인 남편에게 얹혔다. 그래서 나는 정말이지 그가 딱해지기 시작했으니, 그 실성한 사람을 너무 모질게 다룬 것이 사실이었다. 두냐에게는 곧 여러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는 청이 들어왔지만 그 아이는 거절했다. 갑자기 모두가 그 아이를 눈에 띄게 존중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형편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고 할 만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큰 몫을 했다. 사랑하는 로쟈야, 두냐에게 혼처가 생겼고 그 아이가 이미 혼인을 승낙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겠다. 서둘러 그 일을 다 알리마. 네 의견을 묻지 않고 정해진 일이긴 하나, 그 때문에 네가 나나 네 누이를 원망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네게서 소식이 올 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게다가 네가 이곳에 있지 않고서는 모든 사정을 헤아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일은 이렇게 되었다. 그 사람은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쥔이라 하는데, 이미 고문관[3] 관등에 올라 있고 마르파 페트로브나와 먼 친척뻘이다. 이 혼담을 성사시키는 데 그분이 아주 부지런히 나섰다. 그분을 통해 우리와 알고 지내고 싶다는 뜻을 전해 온 것이 시작이었다. 우리는 예를 갖추어 그를 맞았고 함께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그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매우 정중하게 혼인을 청하면서 빠르고 분명한 답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몹시 바쁜 사람이고 페테르부르크로 서둘러 가야 하는 터라 한시가 아까운 형편이다. 처음에는 물론 우리도 몹시 놀랐다. 모든 것이 그토록 빠르고 뜻밖으로 일어났으니 말이다. 우리는 하루 온종일 그 일을 생각하고 의논했다. 그는 넉넉한 사람이고 믿을 만하며, 관청에 자리를 둘이나 가지고 있고 이미 재산을 이루었다. 나이가 마흔다섯인 것은 사실이나 생김새가 제법 호감이 가는 편이어서 아직도 여자들 눈에 마음이 끌릴 만하고, 무엇보다 아주 점잖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다. 다만 조금 뚱하고 어딘가 자만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첫눈에 받는 인상일 뿐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로쟈야, 미리 일러 두는데, 아주 머지않아 페테르부르크에서 그를 만나게 되거든, 첫눈에 그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더라도, 네 버릇대로 너무 성급하고 격하게 판단하는 일만은 부디 삼가 주었으면 한다. 그가 네게 좋은 인상을 주리라고 나는 확신하지만, 그래도 미리 일러 두는 것이다. 게다가 누구든 사람을 알려면 찬찬히, 조심스럽게 보아야 하는 법이고, 한번 생기면 나중에 바로잡고 벗어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선입견이나 그릇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여러 가지 낌새로 보아 두루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첫 방문 때 그는 실제로 자기가 실무에 밝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제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가장 새로 떠오르는 세대』의 신념을 여럿 함께 지니고 있으며 온갖 선입견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그 밖에도 꽤 많은 말을 했는데, 조금 자만이 있고 남이 제 말을 들어 주기를 좋아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흠이라 하기는 어렵겠지. 나는 물론 그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지만, 두냐가 내게 설명해 주기를 그가 대단한 학식을 갖춘 사람은 아니어도 머리가 좋고 마음씨가 좋아 보인다고 했다. 너는 네 누이의 성미를 알지 않느냐,

로쟈야. 그 아이는 결단력 있고 분별 있고 참을성 있고 너그러운 처녀지만,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있다는 걸 나는 아주 잘 안다. 물론 그쪽에도 이쪽에도 대단한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냐는 총명한 처녀요 천사의 마음을 지녔으니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제 도리로 삼을 것이고, 남편 또한 그 아이의 행복을 제 할 일로 삼을 것이다. 그 점은 아직으로서는 크게 의심할 까닭이 없다. 다만 이 일이 몹시 서둘러 정해졌다는 것만은 인정해야겠지. 게다가 그는 타산이 밝은 사람이니, 두냐가 곁에서 행복할수록 제 행복도 더 든든해진다는 것을 틀림없이 스스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성품의 몇 가지 결점이며 몇 가지 버릇이며 더러는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는 — 그런 것이야 아무리 행복한 혼인에도 없을 수 없는 법이지만 — 두냐가 말하기를, 그 모든 것에 관해서는 제 자신을 믿는다고, 불안해할 것이 없다고, 앞으로의 사이가 정직하고 떳떳하기만 하다면 많은 것을 참아 낼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그는 처음에 내게 좀 퉁명스럽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그가 숨김없이 말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고,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이를테면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 두냐의 승낙을 받고 난 뒤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두냐와 알기 전부터 자기는 정직하되 지참금이 없고 무엇보다 가난을 겪어 본 처녀와 혼인하기로 마음을 정해 두었다고. 그 까닭인즉, 제 설명으로는, 남자가 아내에게 신세를 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제 은인으로 우러르는 편이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덧붙여 두어야겠는데, 그는 내가 옮긴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쓴 말 자체는 잊어버리고 뜻만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그것은 작정하고 한 말이 아니라 이야기가 달아오른 참에 무심코 새어 나온 말이 분명해서, 그는 나중에 스스로 고쳐 말하며 무마하려 했다. 그래도 조금 모질게 들린 것만은 사실이어서, 나는 뒤에 두냐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두냐는

언짢아하면서 『말이 곧 행동은 아니다』라고 대꾸했다. 그야 물론 더없이 옳은 말이다. 두냐는 마음을 정하기 전날 밤을 꼬박 새웠다. 내가 잠든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밤새도록 방 안을 오르내렸고, 끝내는 이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아침에 내게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말했듯이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이제 곧 페테르부르크로 떠난다. 그곳에 볼일이 아주 많고, 공인 변호 사무소를 열려고 한다. 그는 오래전부터 온갖 소송과 송사를 맡아 뛰어다녀 왔고, 바로 얼마 전에도 중요한 사건에서 이겼다. 원로원[4]에 걸려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페테르부르크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 로쟈야, 그가 네게 더없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모든 면에서 그렇다. 두냐와 나는, 바로 오늘부터 네가 앞길에 확실히 들어선 것이고 네 장래가 정해지고 보장된 것으로 여겨도 좋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아, 이 일이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찌나 큰 복인지, 우리로서는 하느님이 내리신 은혜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두냐는 그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우리는 벌써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그 이야기를 몇 마디 넌지시 꺼내 보기까지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하기를, 물론 비서 없이는 일을 해 나갈 수 없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남에게 봉급을 주느니 친척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네가 감당하지 못할 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어서, 네가 대학 공부를 하면서 제 사무소 일을 볼 틈이 있겠느냐고 미심쩍어했다. 그 이야기는 그쯤에서 흐지부지되었지만, 두냐는 지금 그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며칠째 그 아이는 열에 들뜬 것 같고, 네가 끝내는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사업에 한몫 끼어 동업자까지 되는 계획을 벌써 제법 짜 놓았다. 네가 법학도이니 그렇게 못 될 것도 없겠지. 나도 그 아이와 온전히 뜻이 같다, 로쟈야. 그 아이의 계획과 바람을 다 같이 나누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가망이 넉넉하다고 본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말을 얼버무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그가 너를 모르니 말이다), 그래도 두냐는 장래의 남편에게 좋은 감화를 끼쳐 모든 것을 얻어 내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믿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 먼 앞날의 계획을, 특히 네가 그의 동업자가 되는 이야기를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꺼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그는 실무에 밝은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를 아주 차갑게 받아들일지 모르고, 그로서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백일몽으로 보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가 네 대학 학비를 대 주기를 우리가 크게 바라고 있다는 것도 두냐나 나나 그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이 나중에 저절로 이루어질 터이고 그가 틀림없이 말을 길게 할 것도 없이 스스로 그렇게 하겠노라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그가 두냐에게 그것을 거절할 수야 있겠느냐). 더욱이 네가 네 힘으로 그 사무소의 오른팔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도움을 적선이 아니라 네 일로 벌어들인 봉급으로 받게 될 테니 말이다. 두냐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나가려 하고, 나도 그 아이와 뜻이 아주 같다. 그리고 우리 계획을 말하지 않은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다. 네가 그를 처음 만날 때 대등한 자리에 있다고 느끼기를 내가 각별히 바랐기 때문이다. 두냐가 그에게 너에 대해 열을 올려 이야기하자 그는, 사람이란 가까이서 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결코 판단할 수 없는 법이라면서, 너와 알게 되면 제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말이다, 내 귀한 로쟈야, 아무래도 어떤 까닭에서(표트르 페트로비치와는 아무 상관 없는, 그저 나 개인의, 아마도 늙은 아낙네다운 변덕에서) 혼인 뒤에는 그 애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지금처럼 따로 지내는 편이 나을 듯싶다. 그가 너그럽고 섬세한 사람이라 나를 청해서 앞으로도 딸과 함께 지내자고 권하리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껏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것은 그저

당연한 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양하련다. 사위와 장모가 그리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살아오면서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조금이라도 거치적거리고 싶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 몫의 빵 한 조각이 있고 너와 두냐 같은 자식들이 있는 한 온전히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 될 수만 있다면 너희 둘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싶구나. 사랑하는 로쟈야, 가장 기쁜 소식은 편지 끝에 남겨 두었다. 그러니 알아 두려무나, 내 아들아, 우리가 어쩌면 아주 머지않아 다 함께 모여 삼 년 가까운 헤어짐 끝에 셋이 다 다시 서로를 끌어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냐와 내가 페테르부르크로 떠나기로 한 것은 이미 확실히 정해졌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아주 곧, 어쩌면 일주일 안에 떠날 것이다. 모든 것이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달려 있는데, 그가 페테르부르크에서 둘러볼 겨를이 생기는 대로 우리에게 알려 줄 것이다. 제 형편에 맞추느라 그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예식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될 수만 있다면 성모 단식[5] 전에라도, 그것이 너무 촉박해 채비가 안 되면 그 직후에라도 치르자고 한다. 아아, 내가 너를 가슴에 끌어안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느냐! 두냐는 너를 만난다는 기쁜 생각에 온통 들떠 있어서, 언젠가는 농담으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표트르 페트로비치와 혼인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천사다! 그 아이는 지금 네게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다만 내게 이렇게 써 달라고만 했다. 네게 할 말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서 지금은 펜을 들지 않겠다고, 몇 줄로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을뿐더러 제 마음만 어지러워질 뿐이라고. 그리고 네게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입맞춤을 보낸다고 전해 달라 한다. 그렇게 곧 만나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안에 힘닿는 대로 돈을 부쳐 줄까 한다. 두냐가 표트르 페트로비치와 혼인한다는 말을 모두가 듣게 된 지금은 내 신용이 갑자기 좋아져서, 아파나시 이바노비치가 내 연금을 담보로 칠십오 루블까지도

대 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어쩌면 네게 이십오 루블, 아니 삼십 루블까지도 보낼 수 있겠구나. 더 보내고 싶지만 우리 여비가 마음에 걸린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고맙게도 여비의 일부를 떠맡아 주어서, 그러니까 우리 가방과 큰 궤짝을 나르는 일을 제가 맡아 주기는 했지만(그의 아는 사람들 편으로 부쳐질 것이다), 페테르부르크에 닿고 나서도 얼마쯤 돈이 들 것을 셈해 두어야 하고, 적어도 처음 며칠만이라도 그곳에서 땡전 한 닢[6] 없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두냐와 나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셈해 보았고, 여비가 그리 많이 들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있는 데서 철도까지는 구십 베르스타밖에 되지 않고, 채비를 해 두려고 아는 마부와 이야기를 맞추어 두었다. 거기서부터는 두냐와 내가 삼등칸으로 꽤 편히 갈 수 있다. 그러니 아마도 네게 이십오 루블이 아니라 삼십 루블을 보낼 수 있을 듯싶다. 그만 하자. 벌써 두 장을 다 채워서 더 쓸 자리가 없구나. 우리의 온 내력이다마는, 그사이 어찌 그리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이제, 내 귀한 로쟈야, 만날 때까지 너를 안아 주며 어미의 축복을 보낸다. 네 누이 두냐를 사랑하려무나, 로쟈야. 그 아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그 아이를 사랑하려무나. 그리고 그 아이가 끝없이, 제 자신보다도 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려무나. 그 아이는 천사이고, 로쟈야, 너는 우리에게 전부다 — 우리의 하나뿐인 희망, 하나뿐인 위안이다. 네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도 행복할 것이다. 로쟈야, 너는 아직도 기도를 드리느냐,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이와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자비를 믿고 있느냐? 요즈음 세상에 떠도는 저 새로운 불신의 기운이 네게 찾아든 것은 아닌지 마음속으로 두렵구나. 만일 그렇다면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기억하려무나, 내 아들아, 어릴 적에,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에 네가 내 무릎에 앉아 혀 짧은 소리로 기도를 외던 일과, 그 시절 우리가 다들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잘

있거라, 아니, 그보다는 다시 만날 때까지! 꼭, 꼭 너를 안고, 수없이 입을 맞춘다.」

「죽는 날까지 너의,」

「풀헤리야 라스콜니코바.」

편지를 읽는 동안, 거의 첫머리에서부터 라스콜니코프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다 읽고 났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에는 쓰디쓰고 노여우며 악의에 찬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올이 다 드러난 더러운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생각에 잠겼다,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심장이 사납게 뛰었고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마침내 그는 벽장 같기도 하고 상자 같기도 한 그 작고 누런 방 안이 답답하고 숨 막히게 느껴졌다. 그의 눈도 그의 정신도 넓은 곳을 갈망했다. 그는 모자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섰다. 이번에는 계단에서 누구와 마주칠까 하는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그 두려움을 잊고 있었다. 그는 V 대로를 지나 바실리옙스키섬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서두르는 사람 같았으나 여느 때의 버릇대로 길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걸었고, 중얼거리다 못해 소리 내어 혼잣말까지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그를 술 취한 사람으로 여겼다.

---

1. 로트는 제정 러시아의 무게 단위로, 1로트는 약 12.8그램이다. 영역자 가넷은 이를 「2온스」로 옮겼다.

2. 베르스타는 제정 러시아의 거리 단위로, 1베르스타는 약 1.067킬로미터다.

3. 고문관(나드보르니 소베트니크)은 제정 러시아 관등표 14등급 가운데 7등에 해당하는 문관 직급이다.

4. 원로원은 제정 러시아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상소 사건의 종심을 맡았다.

5. 성모 단식은 정교회의 단식 기간으로, 구력 8월 1일부터 성모 안식 대축일(8월 15일) 전날까지 지킨다.

6. 원문은 「그로시 한 닢 없이」. 그로시는 반 코페이카에 해당하던 옛 동전이다. 영역자 가넷은 이 자리를 영국 동전 halfpenny로 바꾸어 놓았다.

1부 4장

어머니의 편지는 그에게 고문이었다. 그러나 거기 적힌 핵심 사실에 관해서라면 그는 편지를 읽는 동안에도 단 한순간 망설이지 않았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그것도 돌이킬 수 없이 결정되어 있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런 결혼은 절대 없다, 루쥔 씨 따위는 지옥에나 가라지!」 「일은 아주 분명해.」 그는 제 결정의 승리를 미리 맛보는 악의 어린 미소를 띠고 혼자 중얼거렸다. 「안 됩니다, 어머니, 안 돼, 두냐, 나를 속이지는 못해요! 게다가 내 의견도 묻지 않고 나를 빼놓고 결정해서 미안하다니! 그러시겠지! 이제 다 정해져서 깨뜨릴 수 없다고 여기는 모양인데,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두고 보자고! 변명도 훌륭하시지.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워낙 사업에 밝은 사람, 워낙 사업에 밝은 사람이라 결혼마저 역마차로, 거의 기차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구나.』 아니야, 두냐, 나는 다 보여, 네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려는지도 알고, 밤새 방 안을 오락가락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어머니 침실에 걸린 카잔의 성모[1] 앞에서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도 다 안다고. 골고다로 오르는 길은 쓰디쓰지……. 흠…… 그래서 끝내 결정이 났다 이거지, 분별 있는 사업가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거지,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재산이 있는 사람(재산을 이미 모아 놓은 사람, 그편이 훨씬 든든하고 그럴듯하니까), 관직을 둘이나 지니고 있고 어머니가 쓰신 대로 우리의 가장 새로 떠오르는 세대의 사상을 함께하며 게다가 두냐 자신이 말한

대로 친절해 보이는 사람과 말이야. 그 보인다는 게 무엇보다 압권이야! 바로 그 두냐가 바로 그 『보인다』 하나 때문에 그자와 결혼을 한다! 훌륭하군! 훌륭해!

「…… 그런데 어머니는 왜 나한테 『우리의 가장 새로 떠오르는 세대』 얘기를 써 보내신 걸까? 그냥 묘사 삼아서일까, 아니면 루쥔 씨 쪽으로 내 마음을 미리 돌려놓으려는 생각에서일까? 아아, 그 속셈들!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날 낮과 밤에, 그리고 그 뒤로 내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얼마나 솔직했을까? 말로 다 했을까, 아니면 둘 다 가슴속과 머릿속에 같은 것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아서 소리 내어 말할 필요가 없었고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여겼을까. 아마 얼마쯤은 그랬을 테고, 어머니 편지를 보면 그건 분명해. 그자가 어머니에게는 좀 무례해 보였고, 어머니는 단순하셔서 그 소감을 두냐에게 들고 가셨고, 그러자 두냐는 당연히 언짢아졌을 테고 『성이 나서 대꾸했다』는 거고. 그랬겠지, 순진한 물음 없이도 이미 다 분명하고 따져 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는 마당에 누군들 성이 나지 않겠어! 그런데 왜 나한테 『두냐를 사랑하려무나, 로쟈야, 그 아이는 제 자신보다도 더 너를 사랑한다』고 쓰시는 걸까? 아들에게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일로 양심이 남몰래 찔리시는 걸까? 『너는 우리의 소망이요, 너는 우리의 전부다!』 아아, 어머니!」

그의 안에서 울화가 점점 더 거세게 끓어올랐고, 만일 그 순간에 루쥔 씨와 마주치기라도 했다면 그는 그를 죽여 버렸을지도 몰랐다.

「흠…… 그래, 그건 맞는 말이지.」 그는 머릿속에서 서로 쫓고 쫓기며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을 좇아 말을 이었다. 「『사람을 알려면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 맞는 말이야, 하지만 루쥔 씨에 관해서라면 틀릴 것이 없어. 핵심은 그자가 『사업에 밝은 사람이고 친절해 보인다』는 거지, 짐을 떠맡아 큰 궤짝을 제 돈으로 부쳐 준다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 아닌가! 그러고 났으니 친절한 사람이고말고! 그런데 신부와 그 어머니는 거적을 씌운 농부의 짐수레를 타고 가야 한다(나도 알아, 나도 그걸 타고 가 봤으니까). 상관없지! 겨우 구십 베르스타니까, 그런 다음에는 천 베르스타를 『삼등칸으로 아주 편히』 갈 수 있고! 지당한 말씀이야. 천을 보고 옷을 마름질해야 하는 법이지,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루쥔 씨? 그 여자는 당신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여비를 마련하려고 연금을 잡혀야 한다는 것쯤은 아실 것 아닙니까. 하긴 이건 사업이지, 상호 이익을 위한 동업이고, 지분도 비용도 똑같이 나누는 — 먹고 마시는 것은 대주되 담뱃값은 각자 내는. 이 사업가는 여기서도 그들을 살짝 등쳐 먹었군, 짐 삯이 사람 삯보다 쌀 테고 어쩌면 공짜로 갈지도 모르지. 어째서 저 두 사람은 그걸 다 보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걸까?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어, 기뻐하고 있다고! 게다가 이건 아직 첫 꽃일 뿐이고 진짜 열매는 이제부터라는 걸 생각하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인색함도 아니고 쩨쩨함도 아니야, 이 모든 일의 어조야, 결혼한 뒤에도 그게 어조가 될 테니까, 이건 예언이야. 어머니는 또 왜 그렇게 헤프신 걸까? 페테르부르크에 닿을 때쯤이면 손에 뭐가 남아 있을까? 은화로 삼 루블, 아니면 그…… 노파 말마따나 『지폐 두 장』[2]…… 흠! 그러고 나서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뭘로 사실 작정이실까? 결혼하고 나면 처음 몇 달조차 두냐와 함께 살 수 없으리라는 것쯤은 벌써 짐작하실 까닭이 있으셨고, 그 훌륭한 양반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흘렸을 게 분명한데 어머니는 부인하시겠지, 『나는 사양하련다』 고 하시니까. 그럼 대체 누구를 믿고 계신 걸까?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의 빚을 갚고 남는 연금 백이십 루블을 셈하고 계신 건가? 어머니는 늙은 눈을 버려 가며 모직 숄을 뜨고 소매 끝동에 수를 놓으시지만, 그 숄을 다 합쳐도 백이십에 일 년에 이십 루블 이상은 못 보탠다는 걸 나는 알아. 그러니 어머니는 내내

루쥔 씨의 너그러움에만 희망을 걸고 계신 거야. 『그이가 스스로 나설 게다, 억지로라도 떠맡길 게다.』 그거야 오래오래 기다리셔야 할걸! 실러풍의 고귀한 마음이란 늘 그런 식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에게 공작 깃털을 입혀 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쪽만 바라며 나쁜 것은 하나도 보려 하지 않고, 메달의 뒷면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떠밀리기 전에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며, 그 생각만 해도 몸서리를 치면서 두 손으로 진실을 밀어내다가, 제 손으로 고운 색을 입혀 놓은 바로 그 사람이 제 손으로 그들을 감쪽같이 골탕 먹이고서야 그만두는 거야. 루쥔 씨한테 훈장이 있는지 궁금한데, 단춧구멍에 안나 훈장[3]을 달고 있고 청부업자나 상인들과 만찬에 갈 때 그걸 꺼내 단다는 데 걸겠어. 아마 결혼식에도 달고 나오겠지! 그자 얘긴 그만하자, 빌어먹을!

「 그래,…… 어머니야 이상할 것도 없지, 그분다운 일이니까, 하느님이 보살피시기를. 그런데 두냐가 어떻게? 두냐야, 내가 너를 모를 줄 알고!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너는 스무 살이 다 되어 있었고, 나는 그때 너를 다 알아보았어. 어머니는 『두냐는 많은 것을 견뎌 낼 수 있다』고 쓰셨더군, 나도 아주 잘 알아. 이 년 반 전에 이미 알았고, 지난 이 년 반 동안 바로 그것, 『두냐는 많은 것을 견뎌 낼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 왔어. 스비드리가일로프 씨와 그 나머지 전부를 견뎌 낼 수 있었다면 그 애는 확실히 많은 것을 견뎌 낼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그 애는 루쥔 씨도 견뎌 낼 수 있다고 머릿속에 넣어 버렸어, 아내란 궁핍에서 건져 올려져 남편의 은덕으로 모든 것을 얻은 여자라야 낫다는 이론을 늘어놓는 사내를 — 그것도 거의 첫 대면에서 늘어놓는 사내를 말이야. 그자가 『 무심코 흘렸다 』 고 치자, 분별 있는 사람이기는 하니까(하긴 흘린 게 전혀 아니라 되도록 빨리 제 뜻을 분명히 해 두려던 것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두냐는, 두냐는? 물론 그

애는 그 사내를 꿰뚫어 보지, 그러나 그 사내와 함께 살아야 해. 그 애는 검은 빵과 물만 먹고 살지언정 제 영혼을 팔지 않고, 안락을 얻자고 제 도덕적 자유를 내주지 않으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을 통째로 준대도 내주지 않을 텐데 하물며 루쥔 씨 따위에게야. 아니야, 내가 알던 두냐는 그런 애가 아니었고…… 지금도 물론 그대로겠지! 그래, 부인할 수 없어, 스비드리가일로프 집안은 쓴 약이지! 시골에서 이백 루블을 받고 가정교사로 평생을 보내는 것도 쓴 일이야, 하지만 나는 알아, 그 애는 차라리 농장의 흑인 노예가 되거나 독일인 주인을 섬기는 라트비아인이 될지언정 존경하지도 않고 아무 공통점도 없는 사내에게 제 몸을 영영 묶어 제 영혼과 도덕적 존엄을 깎아내리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 제 잇속을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루쥔 씨가 순금으로 되어 있든 거대한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든, 그 애는 결코 그자의 합법적인 첩이 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왜 지금은 동의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답이 뭐지? 뻔해. 제 자신을 위해서라면, 제 안락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 애는 제 몸을 팔지 않을 텐데, 남을 위해서는 팔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떠받드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애는 제 몸을 팔겠지, 결국 그 얘기야, 제 오라비를 위해서, 제 어미를 위해서 그 애는 제 몸을 팔 거야! 무엇이든 다 팔 거라고! 그런 경우엔 『필요하다면 우리는 도덕 감정쯤 이겨 낸다』는 거고, 자유도 평온도 양심까지도, 전부, 전부 장에 내다 놓는 거야. 내 목숨쯤 가져가라지, 사랑하는 이들만 행복하다면! 그뿐인가, 우리는 결의론자가 되고 예수회식으로 둘러대는 법을 배우며, 한동안은 스스로를 달랠 수도, 좋은 목적을 위한 의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어. 우리가 꼭 그렇지, 대낮처럼 훤해, 이 일의 중심 인물은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이고 다른 누구도 아니라는 게 훤하다고. 아무렴, 그 애는 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고, 그를 대학에 붙들어 둘 수 있고, 사무소의

동업자로 만들 수 있고, 그의 앞날을 통째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 어쩌면 나중에 부자가 될지도 몰라, 번창하고 존경받고, 어쩌면 이름난 사람으로 생을 마칠지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온통 로쟈지, 귀한 로쟈, 맏아들,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딸쯤 누군들 제물로 바치지 않겠어! 아아, 사랑스럽고도 불공평한 마음들이여! 그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소냐의 운명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걸. 소냐, 소냐 마르멜라도바, 세상이 있는 한 영원한 소냐! 두 사람은 자기들 희생의 크기를 재어 보기는 했나? 그게 옳은가? 감당할 수는 있나? 쓸모는 있나? 거기 뜻이 있기는 한가? 그리고 내가 말해 주지, 두냐, 소냐의 삶이 루쥔 씨와 사는 삶보다 나쁠 게 없어. 『사랑 같은 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어머니는 쓰셨지. 그런데 존경마저 있을 수 없다면, 도리어 혐오와 경멸과 역겨움이 있다면, 그때는 어쩔 건데, 그러면 너도 『제 모양을 갖추어야』 하겠구나. 그렇지 않아? 그 몸치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니? 루쥔 쪽 몸치장이 소냐의 몸치장과 똑같은 것이고 어쩌면 더 나쁘고 더 더럽고 더 비천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겠니, 네 경우는 결국 사치를 얻자는 흥정이지만 소냐의 경우는 그저 굶어 죽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말이다. 값을 치러야 해, 값을 치러야 한다고, 두냐, 이 몸치장은. 그러다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후회하게 되면 어쩔 건데? 쓰라림, 비참함, 저주, 온 세상에 숨긴 눈물, 너는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아니니까. 그때 네 어머니 심정은 어떠시겠어? 지금도 불안해하시고 근심하시는데, 그때, 그걸 죄다 환히 보시게 되면? 그리고 나는? 그래, 정말이지, 두 사람은 나를 뭘로 안 거야? 두냐, 나는 네 희생을 받지 않겠다, 어머니, 나는 그걸 받지 않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살아 있는 한 없어, 없다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그는 문득 정신이 들어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넌 뭘 할 건데? 금지라도 하겠다고? 무슨 권리로? 그런 권리를 가지려면 네 쪽에서는 무엇을 약속할 수 있지? 학업을 마치고 자리를 얻으면 네 평생을, 네 앞날 전부를 그들에게 바치겠다고? 그래, 그런 소리는 전에도 들었지, 그건 죄다 말뿐이고, 지금은?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해, 지금, 그걸 알겠어? 그런데 넌 지금 뭘 하고 있지? 넌 그들을 털어 먹고 있어, 그들은 백루블짜리 연금을 잡혀 돈을 빌리고, 스비드리가일로프 집안에서 빌리지. 스비드리가일로프 같은 자들에게서,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바흐루신에게서 넌 대체 어떻게 그들을 구해 낼 건데, 아, 그들의 인생을 대신 마련해 주실 미래의 백만장자 제우스 나리? 십 년 뒤에? 십 년 뒤면 어머니는 숄을 뜨다 눈이 머실 거야, 어쩌면 울다가도, 금식으로 그림자처럼 야위실 테고, 그럼 내 누이는? 십 년 뒤에 네 누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 십 년 동안 그 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순간만 그려 봐. 그려지기나 해?」

그렇게 그는 그런 물음들로 스스로를 들볶으며 자신을 괴롭혔고, 그 안에서 일종의 즐거움마저 찾아냈다. 그러나 이 모든 물음은 갑자기 그 앞에 들이닥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익숙한 통증이었고, 그것들이 그의 심장을 움켜쥐고 찢기 시작한 지는 오래였다. 아주, 아주 오래전에 지금의 이 고뇌는 처음 싹을 틔웠고, 자라나 힘을 모았고, 무르익어 한곳으로 뭉쳐 마침내 무섭고 광란하는 환상 같은 물음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그 물음은 그의 가슴과 머리를 괴롭히며 집요하게 대답을 요구해 댔다. 이제 어머니의 편지가 벼락처럼 그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이제는 풀리지 않는 물음들로 스스로를 근심하며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그것도 당장, 그것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아니면 삶을 통째로 내던지든가!」 그가 미친 듯이 갑자기 외쳤다 — 「제 몫을 있는 그대로 고분고분 받아들이고, 단번에 영영, 제 안의 모든 것을 목 졸라 죽이고, 활동이며 삶이며 사랑에 대한 권리를 죄다 포기하든가!」

「 아시겠습니까, 선생, 정말이지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마르멜라도프가 던진 물음이 문득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 사람에겐 누구나 갈 곳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는 흠칫 몸을 떨었다, 어제 떠올랐던 또 하나의 생각이 슬며시 머릿속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가 흠칫한 것은 그 생각이 되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이 반드시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미리 느끼고 있었으며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게다가 그것은 어제만의 생각도 아니었다. 다른 점은, 한 달 전만 해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한낱 공상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것이 전혀 공상으로 보이지 않고 새롭고 위협적이며 아주 낯선 형체를 띠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이 문득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머릿속에서 망치질 소리가 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앉고 싶어서 벤치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K—— 가로수길을 걷고 있었다. 백 걸음쯤 앞에 벤치가 하나 있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쪽으로 걸어갔으나, 가는 길에 몇 분 동안 그의 주의를 온통 빨아들인 작은 사건을 만났다. 벤치를 찾느라 둘러보다가 그는 스무 걸음쯤 앞에서 걸어가는 여자 하나를 보았지만, 처음에는 길에 놓인 다른 사물들보다 더 눈여겨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는 그렇게 걷는 데 익숙했다. 그런데 앞서 가는 그 여자에게는 첫눈에 무언가 하도 이상한

데가 있어서 그의 주의는 차츰 그 여자에게 못 박혔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말하자면 짜증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골똘하게. 저 여자의 무엇이 저토록 이상한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문득 일었다. 우선 여자는 아주 어린 처녀로 보였는데, 이 지독한 더위에 모자도 쓰지 않고 양산도 장갑도 없이 두 팔을 우스꽝스럽게 내저으며 걷고 있었다. 가벼운 비단 천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으나 이상하게 비뚜름히 걸쳐져 있었고 단추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으며 뒤쪽 허리께, 치마가 시작되는 자리가 찢겨 벌어져 있었다. 큰 조각 하나가 뜯겨 늘어져 있었다. 드러난 목에는 작은 수건이 걸쳐져 있었으나 한쪽으로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처녀는 걸음걸이도 불안해서 비틀거리며 이쪽저쪽으로 휘청거렸다. 마침내 그 여자는 라스콜니코프의 온 주의를 끌어갔다. 그는 벤치 있는 데서 처녀를 따라잡았는데, 그곳에 이르자 처녀는 벤치 구석에 털썩 주저앉더니 등받이에 머리를 젖히고, 보아하니 극도로 지친 채 눈을 감았다. 가까이서 들여다본 그는 그 여자가 완전히 취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기이하고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그는 자기가 잘못 본 것이 아닌지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눈앞에는 아주 어린 금발 처녀의 얼굴이 있었다 — 열여섯, 어쩌면 겨우 열다섯쯤 되었을, 예쁘장한 작은 얼굴이었으나 온통 벌겋게 달아오르고 부은 듯했다. 처녀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거의 모르는 듯했고, 한쪽 다리를 다른 쪽 위로 꼬면서 점잖지 못할 만큼 드러냈으며, 자기가 길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온갖 표시를 내 보이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앉지 않았으나 그 여자를 두고 떠날 마음도 나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 앞에 마주 서 있었다. 이 가로수길은 원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았고, 한 시가 넘은 지금, 이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는 아주 인적이 끊겨 있었는데, 그런데도 한쪽으로 열다섯 걸음쯤 떨어진 가로수길 가장자리에 신사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역시 제 나름의

속셈을 가지고 처녀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고, 그 역시 멀리서 여자를 보고 뒤를 밟아 온 모양인데 라스콜니코프가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성난 눈으로 라스콜니코프를 쳐다보았고, 저 달갑잖은 누더기 사내가 비켜 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서 있었으니, 그 의도는 틀림이 없었다. 신사는 서른쯤 되었고 다부지고 살이 쪘으며 혈색이 좋고 입술은 분홍빛에 콧수염을 조그맣게 길렀고, 한껏 멋을 부려 차려입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격노했다, 이 뚱뚱한 멋쟁이를 무슨 수로든 모욕해 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치밀었다. 그는 처녀를 잠시 두고 신사 쪽으로 걸어갔다.

「어이! 이 스비드리가일로프!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로 거품이 인 입술로 웃으면서 소리쳤다.

「무슨 소린가?」 신사가 오만한 놀라움에 눈살을 찌푸리며 엄하게 물었다.

「꺼지라는 소리다.」

「이 천한 것이, 감히!」

그가 채찍을 휘둘렀다. 라스콜니코프는 그 건장한 신사가 자기 같은 사람 둘은 당해 낼 만하다는 것도 헤아리지 않고 주먹을 쥔 채 달려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붙들었고, 순경 하나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됐습니다, 두 분, 공공장소에서 싸움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인가? 자네는 누군가?」 그는 라스콜니코프의 누더기를 알아보고 엄하게 물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씩씩한 군인 얼굴에 희끗한 콧수염과 구레나룻이 있었고 눈빛이 분별 있어 보였다.

「마침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라스콜니코프가 그의 팔을 붙들며 외쳤다. 「나는 대학생이었던 라스콜니코프라고 합니다…….

너도 알아 두는 게 좋을 거다.」 그는 신사를 향해 덧붙였다. 「자, 이리와 봐요, 보여 줄 게 있어요.」

그러고는 순경의 손을 잡아 벤치 쪽으로 끌었다.

「 이것 봐요, 곤드레만드레 취했어요, 방금 이 가로수길을 걸어 내려왔고요,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업으로 삼는 여자로는 보이지 않아요. 어디선가 술을 먹이고 속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것도 처음으로…… 알겠어요? 그러고는 저렇게 길바닥에 내다 놓은 거죠. 저 옷이 찢어진 꼴이며 입혀진 꼴을 좀 봐요, 누가 입혀 준 거지 제가 입은 게 아니고, 그것도 서툰 손이, 남자 손이 입힌 거예요, 그건 뻔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을 좀 봐요, 나는 아까 싸우려던 저 멋쟁이를 모르고 오늘 처음 보지만, 저자도 길에서 저 여자를 봤어요, 방금, 취해서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 여자를 손에 넣지 못해 안달이 나서 저 꼴일 때 어디론가 데려가려 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내 말을 믿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저자가 여자를 지켜보고 뒤를 밟는 걸 내 눈으로 봤지만 내가 막았고, 지금은 내가 가 버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것 봐요, 조금 물러나 서서는 담배를 마는 척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저자 손에서 지키고 집으로 보낼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봐요.」

순경은 단번에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뚱뚱한 신사 쪽은 이해하기 쉬웠고, 그는 처녀 쪽으로 돌아섰다. 순경은 몸을 굽혀 여자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고,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연민이 떠올랐다.

「 아아, 가엾어라! 」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 「 이건 아직 어린애가 아닌가! 속은 거야, 한눈에 알겠구먼. 이봐요, 아가씨.」 그가 여자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 「어디 살아요?」 처녀는 지치고 졸린 듯한 눈을 뜨더니 묻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는 손을 내저었다.

「 여기요. 」 라스콜니코프가 주머니를 뒤져 이십 코페이카를 찾아내며 말했다. 「 자, 마차를 불러서 집까지 데려다주라고 해요. 문제는 집이 어딘지 알아내는 것뿐이에요!」

「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 순경이 돈을 받아 쥐며 다시 말을 붙였다. 「 내가 지금 마차를 잡아서 직접 모셔다드리지요. 어디로 모실까요, 네? 어디 사세요?」

「 저리 가! 왜들 가만두질 않아. 」 처녀가 중얼거리고는 다시 한번 손을 내저었다.

「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가씨, 창피한 일이야!」 그는 나무라듯, 안타까운 듯, 분개한 듯 다시 고개를 저었다.

「 난처한 일이군. 」 순경이 라스콜니코프에게 말하면서 재빠른 눈길로 다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에게는 이 사내도 이상한 인물로 보였을 것이다. 누더기를 걸치고서 돈을 내주다니!

「여기서 먼 데서 만났나?」 그가 물었다.

「말했잖아요, 내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고요, 바로 여기, 이 가로수길에서요. 겨우 이 벤치까지 와서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아, 요즘 세상에 벌어지는 부끄러운 일들이라니,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런 순진한 것이 벌써 취하다니! 속은 게야, 그건 틀림없어. 옷이 찢어진 꼴도 좀 보게……. 아아, 요즘 눈에 띄는 이 타락이라니! 게다가 어쩌면 양갓집 사람일지도 모르겠네, 가난한 집이겠지만……. 요즘 저런 경우가 많아. 생김새도 곱고, 꼭 귀한 집 아가씨 같지 않나.」 그러고는 다시 한번 여자 위로 몸을 굽혔다.

어쩌면 그에게도 그렇게 자라는 딸들이 있는지 몰랐다. 「 귀한 집 아가씨 같고 곱게 생긴 」 , 양갓집 티와 몸치장에 대한 허영을 품은 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라스콜니코프가 끈질기게 말했다. 「저 여자를 저 악당 손에서 지키는 거예요! 어째서 저자가 저 애를 짓밟아야 하죠! 저자가 뭘 노리는지는 대낮처럼 분명해요. 아, 저 짐승, 꿈쩍도 안 하네!」

라스콜니코프는 큰 소리로 말하며 그를 손가락질했다. 신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발끈하려는 듯하더니 마음을 고쳐먹고 경멸하는 눈길 하나로 그쳤다. 그러고는 천천히 열 걸음쯤 더 물러가 다시 멈춰 섰다.

「저자 손에서 지키는 거야 할 수 있지.」 순경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어디로 데려가면 되는지 저 애가 말만 해 준다면 말이야. 그런데 저 모양이니…….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그는 다시 한번 여자 위로 몸을 굽혔다.

여자는 느닷없이 눈을 활짝 뜨더니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벤치에서 일어나 왔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이, 뻔뻔한 것들, 왜들 가만두질 않아!」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하며 또 손을 내저었다. 여자는 여전히 비틀거리면서도 빠르게 걸었다. 멋쟁이는 여자를 뒤따랐으나 다른 길로 가면서 눈은 여자에게서 떼지 않았다.

「 걱정 말게, 저자한테 넘기지 않을 테니. 」 순경이 단호하게 말하고는 그들을 뒤쫓아 갔다.

「아아, 요즘 눈에 띄는 이 타락이라니!」 그가 한숨을 쉬며 소리 내어 되뇌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라스콜니코프를 쏘는 것 같았다. 한순간에 감정이 송두리째 뒤집혔다.

「어이, 이봐요!」 그가 순경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순경이 돌아보았다.

「내버려 둬요! 당신이 알 바 뭐예요? 가게 두라고요! 저자더러 실컷 즐기라죠.」 그는 멋쟁이를 가리켰다. 「당신이 알 바 뭐냐고요?」

순경은 어리둥절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라스콜니코프는 웃었다.

「 원, 참! 」 순경이 손을 홱 내저으며 내뱉고는, 아마도 라스콜니코프를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한 무엇으로 여기면서 멋쟁이와 처녀를 뒤쫓아 걸어갔다.

「 내 이십 코페이카를 들고 가 버렸군. 」 혼자 남게 되자 라스콜니코프가 성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저쪽 사내한테서도 그만큼 받아 처녀를 넘겨주고 그걸로 끝내라지. 그런데 나는 왜 끼어들고 싶었을까? 내가 남을 도울 처지인가? 나한테 도울 권리라도 있나? 서로 산 채로 잡아먹으라지 —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감히 그자에게 이십 코페이카를 줬지? 그게 내 돈이기는 했나?」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서도 그는 몹시 비참했다. 그는 비어 버린 벤치에 앉았다. 생각이 정처 없이 흩어졌다……. 그 순간 그는 무엇에도 마음을 붙들어 매기가 힘들었다. 자기 자신을 통째로 잊고, 모든 것을 잊고, 그런 다음 깨어나 삶을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가엾은 것!」 그는 그 여자가 앉았던 빈 구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 「정신을 차리면 울겠지, 그러면 어머니가 알게 되고……. 어머니는 처음엔 그 애를 때리고 그다음엔 회초리로, 아프고 수치스럽게 매질을 하고, 어쩌면 집 밖으로 내쫓겠지……. 내쫓지 않는다 해도 다리야 프란초브나 같은 것들이 냄새를 맡을 테고, 그러면 그 애는 곧 여기저기로 몰래 빠져나가게 되겠지. 그다음엔 곧장 병원이지(몰래 그르친, 점잖은 어머니를 둔 계집애들은 늘 그런 팔자니까), 그러고는…… 또 병원…… 술…… 술집…… 그리고 또 병원, 이삼 년이면 — 폐인이 되고, 열여덟이나 열아홉에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런 경우를 내가 못 봤겠어? 그 애들은 어쩌다 그 꼴이 됐지? 뭘, 다들 그렇게 온 거지. 윽!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람? 그래야 마땅하다고들

하니까. 해마다 일정한 퍼센트가, 그들 말로는, 그리로…… 그쪽으로…… 짐작건대 악마에게로 가 주어야 한다는 거지, 나머지를 생기 있게 해 주고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야. 퍼센트라! 참 훌륭한 말들을 가졌단 말이야, 어찌나 과학적이고 어찌나 위안이 되는지……. 일단 『퍼센트』라고 말해 버리면 더는 걱정할 게 없어지거든. 다른 말이 있었다면…… 어쩌면 더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만약 두냐도 어쩌다 그 퍼센트에 들기라도 한다면! 이 퍼센트가 아니면 저 퍼센트에라도?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상하군, 무슨 일로 나왔었는데. 편지를 읽자마자 나왔지……. 바실리옙스키섬으로, 라주미힌한테 가려던 참이었어. 그거였지…… 이제 생각났다. 그런데 뭐 하러? 그리고 하필 지금 라주미힌한테 갈 생각이 어디서 났지? 이상한 일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라주미힌은 대학 시절의 옛 동무 가운데 하나였다. 라스콜니코프에게 대학에 친구라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인데, 그는 누구에게나 거리를 두었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으며 찾아오는 사람도 반기지 않았으므로 과연 모두가 이내 그를 포기했다. 그는 학생들의 모임에도 놀이에도 대화에도 끼지 않았다. 몸을 아끼지 않고 대단한 열의로 공부했고 그 점으로 존경을 받았으나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는 몹시 가난했고, 무언가를 혼자 감추고 있기라도 한 듯 오만한 자존심과 과묵함 같은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몇몇 동무들에게 그는 마치 발달과 지식과 신념에서 자기가 우월하기라도 한 듯, 그들의 믿음과 관심사가 제 아래에 있기라도 한 듯, 그들 모두를 어린애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라주미힌과는 어쩐 일인지 가까워졌다, 아니 가까워졌다기보다 그 앞에서는 말도 더 하고 더 터놓았다. 하기야 라주미힌과 다른 식으로 지내기란 불가능했다. 그는 유별나게 쾌활하고 솔직한 젊은이였고 단순하다 싶을 만큼 사람이 좋았으나, 그 단순함 아래에는 깊이와 품위가 함께 숨어 있었다. 동무들 가운데 나은 축은 그것을 알아보았고 다들 그를 좋아했다. 그는 대단히 영리했으나 때때로 정말 어수룩한 데가 있기도 했다. 생김새가 눈에 띄었다 — 키가 크고 여위었으며 검은 머리에 수염은 늘 아무렇게나 깎여 있었고, 이따금 요란하게 굴었으며 힘이 장사라는 소문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술자리에 어울렸다가 단 한 방으로 키가 열두 베르쇼크[4]나 되는 순경을 나자빠뜨린 적도 있었고, 술은 한이 없이 마셨으나 아주 끊을 수도 있었으며, 장난이 도를 넘을 때도 있었으나 장난을 통째로 그만둘 수도 있었다. 라주미힌에게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어떤 실패도 그를 괴롭히지 못했고 어떤 불리한 처지도 그를 짓뭉갤 수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붕 위에서라도 살 수 있었고 지옥 같은 굶주림과 지독한 추위도 견뎌 냈으며, 몹시 가난했으나 이런저런 일로 벌 수 있는 것만으로 전적으로 제 몸을 건사했고, 돈을 벌 방도라면 끝도 없이 알고 있었다. 한겨울을 통째로 난로 한 번 때지 않고 나고서는 추운 데서 더 푹 자게 되니 그편이 오히려 좋다고 떠들고 다니기도 했다. 지금은 그 역시 대학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것은 한때일 뿐이었고, 다시 학업으로 돌아갈 돈을 모으려고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넉 달쯤 그를 찾아가지 않았고 라주미힌은 그의 주소조차 몰랐는데, 두어 달 전에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으나 라스콜니코프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기까지 했다. 라주미힌은 그를 알아보고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지나쳐 주었다.

1. 카잔의 성모. 러시아 정교회에서 가장 널리 모셔지는 성모 이콘 가운데 하나로, 1579년 카잔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한다. 집안의 수호 이콘으로 침실이나 성상 구석에 모셨다.

2. 당시 러시아에서는 은화로 셈한 루블과 지폐로 셈한 루블의 값이 같지 않아, 액수를 말할 때 어느 쪽인지를 밝혔다. 지폐 쪽이 낮게 쳐졌다.

3. 성 안나 훈장. 제정 러시아의 훈장으로 등급이 나뉘어 있었고 아래 등급은 관리들에게 흔히 주어졌다. 단춧구멍에 다는 것은 그 아래 등급이다.

4. 베르쇼크는 러시아의 길이 단위로 약 4.4센티미터. 당시 러시아에서는 사람의 키를 2아르신(약 142센티미터)을 넘는 베르쇼크 수로만 말했다. 열두 베르쇼크면 키가 195센티미터쯤 된다.

1부 5장

「물론 요즘 라주미힌한테 가서 일자리를 부탁해 볼 생각이긴 했지, 가정교사 자리라도 구해 달라고 해 볼까 하고……」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가정교사 자리를 구해 준다고 치자, 마지막 코페이카[1] 한 닢까지 나눠 준다고 치자, 그에게 코페이카가 있기나 하다면 말이지만, 그래서 내가 장화도 사 신고 옷도 손봐서 가르치러 다닐 수 있게 된다고 치자…… 흠……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그렇게 번 동전 몇 푼으로 뭘 한다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라주미힌한테 간다는 건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짓이다…….」

어째서 지금 라주미힌에게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은 그 자신이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를 뒤흔들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이 행동 속에서 어떤 불길한 의미를 불안하게 자꾸만 찾고 있었다.

「라주미힌 하나로 이 모든 걸 바로잡고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내가 기대했단 말인가?」 그는 놀라서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며 이마를 문질렀고, 이상한 일이지만, 오랜 궁리 끝에 별안간, 마치 저절로 우연히 떠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의 기괴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흠…… 라주미힌한테로.」 그가 최종 결심에라도 이른 듯 별안간 차분하게 말했다. 「물론 라주미힌한테 가긴 갈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에게 가는 건…… 그것 다음 날, 그것이 끝나고 모든 게 새로 시작될 때다…….」

그리고 별안간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 그것 다음이라니. 」 그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일어나기는 하는 건가? 그게 정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벤치를 떠나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다. 집 쪽으로 돌아설 작정이었으나 집에 간다는 생각이 갑자기 지독한 혐오로 그를 가득 채웠다. 거기, 그 구석에서, 그 끔찍한 벽장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벌써 한 달도 넘게 무르익어 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되는대로 걸어갔다.

신경의 떨림은 오한이 느껴질 만큼의 열로 옮아가 있었다. 더위 속에서도 그는 추웠다. 그는 일종의 안간힘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내적인 갈망에서, 주의를 돌려 줄 무언가를 찾기라도 하듯 눈앞의 온갖 사물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는 시시각각 다시 생각 속으로 가라앉았다. 흠칫 놀라 고개를 다시 들고 둘러볼 때면 그는 방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곧바로 잊어버렸다. 그런 식으로 그는 바실리옙스키섬을 가로질러 작은 네바강으로 나왔고, 다리를 건너 섬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시의 먼지와 석회와, 사방에서 조여 오며 짓누르는 거대한 집들에 익숙해진 그의 지친 눈에 초록과 신선함은 처음에는 반가웠다. 여기에는 술집도, 숨 막히는 답답함도, 악취도 없었다. 그러나 이 새롭고 유쾌한 감각은 이내 병적인 짜증으로 옮아갔다. 이따금 그는 푸른 잎사귀들 사이에 선 밝게 칠한 여름 별장 앞에 멈춰 서서 울타리 너머를 들여다보았고, 베란다와 발코니에 나와 있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자들과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멀찍이 바라보았다. 특히 그의 눈길을 붙든 것은 꽃이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꽃을 오래

바라보았다. 호화로운 마차들과 말을 탄 남녀들도 그와 마주쳤는데,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으나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잊어버렸다. 한번은 걸음을 멈추고 돈을 세어 보았다. 삼십 코페이카쯤 있었다. 「순경에게 이십, 편지 값으로 나스타시야에게 삼, 그러니 어제 마르멜라도프네에는 사십칠이나 오십을 준 셈이군.」 그는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렇게 셈을 맞춰 보며 생각했으나, 무슨 목적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지는 이내 잊어버렸다. 밥집인지 술집인지를 지나면서 그는 그것을 떠올렸고, 자기가 배고프다는 것을 느꼈다……. 술집에 들어가 그는 보드카 한 잔을 마시고 무슨 소를 넣은 파이를 하나 먹었다. 나머지는 걸어 나오면서 먹어 치웠다. 보드카를 입에 댄 지 오래되었던 터라,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은 당장 그에게 작용했다.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큰 졸음이 몰려왔다. 그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페트롭스키 섬에 이르러 완전히 기진해 멈춰 섰고, 길에서 벗어나 덤불 속으로 들어가 풀밭에 주저앉더니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뇌가 병적인 상태에 있을 때, 꿈은 흔히 유별난 실감과 선명함을, 그리고 현실과의 비상한 닮음을 띤다. 때로는 괴물 같은 형상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배경과 그림 전체가 어찌나 진실에 가깝고 어찌나 섬세한 세부로 가득 차 있는지, 게다가 그 세부들이 어찌나 뜻밖이면서도 어찌나 예술적으로 일관되는지, 꿈꾸는 자가 설령 푸시킨이나 투르게네프 같은 예술가라 하더라도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그것들을 지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병든 꿈은 언제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과로하고 착란에 빠진 신경 조직에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라스콜니코프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로, 자기가 태어난 작은 읍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일곱 살쯤 된 아이였고,

축일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교외로 걸어 나가고 있었다. 잿빛의 숨 막히게 무더운 날이었고, 그 일대는 그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깨어 있을 때의 기억보다 꿈속에서 훨씬 더 생생하게 떠올랐다. 작은 읍은 손바닥처럼 훵한 평지 위에 서 있었고 버드나무 한 그루 가까이에 없었으며, 다만 저 멀리 지평선 맨 끝에 잡목숲 하나가 검은 얼룩처럼 누워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채마밭에서 몇 걸음 더 간 자리에 술집이 하나, 큰 술집이 하나 서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그 앞을 지날 때면 그 집은 언제나 그에게 혐오를, 심지어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거기에는 늘 사람이 북적였고, 늘 고함과 웃음과 욕설이, 흉측하게 쉰 노랫소리가, 그리고 자주 싸움이 있었다. 술에 취한 끔찍한 몰골의 사내들이 술집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런 자들과 마주치면 그는 온몸을 떨며 아버지에게 바짝 매달리곤 했다. 술집 근처에서 길은 먼지투성이 소로가 되었고, 그 먼지는 언제나 검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고, 삼백 걸음쯤 더 가서 읍의 묘지를 오른쪽으로 끼고 돌았다. 묘지 한가운데에는 초록색 둥근 지붕을 인 석조 교회가 서 있었는데, 그는 오래전에 죽어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를 기리는 추도 예배가 있을 때면 일 년에 두세 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그곳으로 오전 예배[2]를 보러 가곤 했다. 그럴 때면 언제나 흰 접시에 냅킨으로 싸서 쿠티야[3]를 가지고 갔는데, 그 쿠티야는 쌀에 설탕을 넣고 건포도를 십자 모양으로 쌀에 박아 넣은 것이었다. 그는 그 교회를, 예스럽고 장식 없는 이콘들을, 그리고 머리를 떠는 늙은 사제를 사랑했다. 돌을 얹어 표시해 둔 할머니의 무덤 옆에는 생후 여섯 달에 죽은 남동생의 작은 무덤이 있었다. 그는 그 아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나 동생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묘지에 갈 때마다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성호를 긋고 몸을 굽혀 그 작은 무덤에 입을 맞추곤 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버지와 함께 묘지로 가는 길에 술집 앞을 지나는 꿈을 꾸고 있었고,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술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가지 별난 정황이 그의 눈길을 끌었으니, 무슨 잔치라도 벌어진 듯 알록달록하게 차려입은 읍내 사람들과 농사꾼 아낙들과 그 남편들과 온갖 잡배들이 떼를 지어 있었으며, 모두 취해 있었고 모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술집 입구 가까이에 짐마차가 한 대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짐마차였다. 그것은 보통 무거운 짐말들이 끌고 포도주 통이나 그 밖의 무거운 짐을 싣는 그런 큰 짐마차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그 큰 짐말들을, 긴 갈기와 굵은 다리와 느리고 고른 걸음으로, 힘들이는 기색이라고는 없이, 마치 짐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오히려 수월하다는 듯이 산더미 같은 짐을 끌고 가는 그 말들을 바라보는 것을 언제나 좋아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그런 짐마차의 채 사이에 여윈 작은 적갈색 짐승이, 농민들이 부리는 그 비루먹은 말들 가운데 하나가 매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런 말들이 장작이나 건초를 잔뜩 실은 짐 아래서, 특히 바퀴가 진창이나 바퀴 자국에 빠졌을 때 젖 먹던 힘까지 짜내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러면 농민들은 그 말들을 어찌나 모질게 때리는지, 때로는 코와 눈까지 때렸고, 그는 그것들이 하도 가엾고 하도 가여워서 울음이 터질 지경이었으며, 그럴 때면 어머니가 언제나 그를 창가에서 데려가곤 했다. 별안간 고함과 노래와 발랄라이카 소리가 크게 일더니, 술집에서 몸집이 크고 잔뜩 취한 농민들이 붉고 푸른 셔츠를 입고 겉옷을 어깨에 걸친 채 우르르 몰려나왔다.

「타라, 타!」 그중 하나가 소리쳤다. 목이 굵고 얼굴이 당근처럼 벌건 젊은 농민이었다. 「죄다 태워 주마, 타라니까!」

그러나 당장 군중 속에서 웃음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저따위 짐승으로 우릴 죄다 태운다고!」

「미콜카, 너 미쳤냐, 그런 짐마차에 저따위 비루먹은 말을 매다니?」

「저 암말은 아무리 봐줘도 스무 살은 됐다, 이 사람들아!」

「타라, 죄다 태워 주마.」 미콜카가 맨 먼저 짐마차로 뛰어올라 고삐를 잡고 앞쪽에 똑바로 선 채 다시 소리쳤다. 「밤색 말은 마트베이가 끌고 나갔어.」 그가 마차 위에서 외쳤다 — 「그런데 이 짐승이, 이 사람들아, 내 속을 아주 뒤집어 놓는단 말이다. 죽여 버리고 싶을 지경이야. 그저 사료만 축내지. 타라니까! 내가 저년을 내달리게 해 주마! 내달릴 거다!」 그러고는 채찍을 집어 들고 흥이 나서 그 작은 암말을 후려칠 채비를 했다.

「타라! 어서!」 군중이 웃었다. 「들었냐, 저년이 내달린단다!」

「저년은 아마 십 년은 내달려 본 적이 없을걸.」

「껑충껑충 뛸 거다!」

「저년 걱정할 것 없다, 이 사람들아, 하나씩 채찍을 들어라, 채비해!」

「좋다! 갈겨라!」

그들은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모두 미콜카의 짐마차로 기어올랐다. 여섯이 탔는데도 자리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들은 살이 찌고 뺨이 불그레한 여자 하나를 끌어 올렸다. 붉은 무명옷을 입고 구슬을 단 뾰족한 머리쓰개를 쓰고 두꺼운 가죽신을 신은 여자였는데, 호두를 까면서 웃고 있었다. 둘러선 군중도 웃고 있었다. 사실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저 비루먹은 말이 저 마차 가득한 사람들을 싣고 내달려야 한다니! 마차에 탄 젊은 녀석 둘이 미콜카를 거들려고 막 채찍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 하는 고함과 함께 암말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당겼으나, 내닫기는커녕 앞으로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다. 말은 다리를 버둥거렸고 헐떡였고, 콩알 쏟아지듯 떨어지는 세 개의 채찍에 맞아 몸을 움츠렸다. 마차 위와 군중 속의 웃음이 배가되었지만, 미콜카는 노발대발하여 암말이 정말로 내달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미친 듯이 후려쳤다.

「나도 좀 타자, 이 사람들아.」 군중 속의 젊은 사내 하나가 구미가 동해 소리쳤다.

「타라, 죄다 타라.」 미콜카가 외쳤다. 「저년이 다 끌 거다. 때려죽여 버리겠다!」 그러고는 치고 또 쳤고, 분이 치밀어 이제는 무엇으로 때려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그가 외쳤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불쌍한 말을 때려요!」

「가자, 어서 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취해서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거다, 장난을 치는 거야. 이리 오너라, 보지 마라!」 그러면서 그를 끌어당기려 했으나 그는 그 손을 뿌리치고 제정신을 잃은 채 말에게로 달려갔다. 가엾은 짐승은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헐떡이며 멈춰 섰다가 다시 당기고는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때려죽이는 거다.」 미콜카가 외쳤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끝장을 내 주마!」

「지금 무슨 짓이냐, 네가 그리스도교인이냐, 이 악마 같은 놈아?」 군중 속의 한 노인이 소리쳤다.

「저런 걸 본 사람이 있나? 저따위 비루먹은 말이 저만한 짐을 끌다니.」 또 다른 자가 말했다.

「저년을 죽이겠구나.」 세 번째 사람이 소리쳤다.

「참견 마라! 내 물건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더 타라! 죄다 타라! 내 기어이 저년을 내달리게 하고야 말겠다!……」

돌연 웃음이 폭소로 터져 모든 것을 덮어 버렸다. 빗발치는 매질을 견디지 못한 암말이 힘없이 뒷발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조차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저따위 비참한 작은 짐승이 뒷발질을 해 보겠다고 하다니!

군중 속의 젊은 녀석 둘이 채찍을 집어 들고 암말에게 달려가 옆구리를 때렸다.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달려갔다.

「낯짝을 때려라, 눈을, 눈을 때려!」 미콜카가 외쳤다.

「 노래나 한 자락 뽑아라, 이 사람들아. 」 마차 위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마차에 탄 사람들이 모두 방탕한 노래에 목청을 합치며 탬버린을 울리고 휘파람을 불었다. 여자는 계속 호두를 까며 웃고 있었다.

…… 그는 암말 옆을 달렸고, 앞질러 달렸고, 말이 눈을 가로질러, 바로 눈을 맞고 채찍질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울고 있었고, 숨이 막혔고, 눈물이 줄줄 흘렀다. 사내들 가운데 하나가 채찍으로 그의 얼굴을 후려쳤으나 그는 느끼지 못했다. 그는 두 손을 쥐어짜며 비명을 지르고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젓고 있던, 머리가 세고 수염이 센 노인에게로 달려갔다. 한 여자가 그의 손을 붙들어 데려가려 했으나 그는 그 손을 뿌리치고 암말에게로 도로 달려갔다. 말은 거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나 다시 한번 뒷발질을 하기 시작했다.

「에잇, 악마나 물어 가라!」 미콜카가 사납게 소리쳤다. 그는 채찍을 내던지고 몸을 숙여 마차 바닥에서 길고 굵은 채를 집어 들더니, 한쪽 끝을 두 손으로 붙잡고 안간힘을 써서 암말 위로 휘둘렀다.

「때려눕히겠다.」 그의 주위에서 고함이 터졌다. 「죽이겠구나!」

「내 물건이다.」 미콜카가 소리치며 채를 휘둘러 내리쳤다. 묵직하게 퍽 하는 소리가 났다.

「패라, 패! 왜 멈췄냐?」 군중 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외쳤다.

그리고 미콜카는 두 번째로 채를 휘둘렀고, 그것은 두 번째로 재수 없는 암말의 등뼈 위에 떨어졌다. 말은 뒷다리를 꺾고 주저앉았다가 앞으로 비틀거리며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당겼고, 이쪽으로 한 번 저쪽으로 한 번 당기며 짐마차를 움직여 보려 했다. 그러나 여섯 개의

채찍이 사방에서 말을 덮치고 있었고, 채는 다시 들려 세 번째로, 이어 네 번째로 묵직하고 고른 타격이 되어 말 위에 떨어졌다. 미콜카는 한 번에 죽이지 못하는 것에 미쳐 날뛰었다.

「질긴 년이다.」 군중 속에서 고함이 터졌다.

「금방 쓰러진다, 이 사람들아, 이제 곧 끝장이야.」 군중 속의 한 구경꾼이 감탄하며 말했다.

「도끼로 쳐라, 뭘 꾸물대! 단번에 끝장을 내!」 세 번째 사람이 소리쳤다.

「에잇, 모기한테나 뜯겨라! 다들 물러서라.」 미콜카가 미친 듯이 악을 썼다. 그는 채를 내던지고 마차 안에서 몸을 굽혀 쇠지렛대를 집어 들었다. 「비켜!」 그가 소리치고는 온 힘을 다해 가엾은 암말에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일격을 내리쳤다. 타격이 떨어졌고, 암말은 휘청이다가 주저앉았고, 끌어 보려 했으나 지렛대가 다시 휘둘려 등에 떨어지자 네 다리가 한꺼번에 잘리기라도 한 듯 땅바닥에 쓰러졌다.

「끝장을 내라.」 미콜카가 소리치며 제정신이 아닌 채로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역시 술기운에 얼굴이 벌게진 젊은 사내 몇이 채찍이든 막대기든 장대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움켜쥐고 죽어 가는 암말에게로 달려갔다. 미콜카는 한쪽에 서서 쇠지렛대로 등을 마구 내리치기 시작했다. 암말은 고개를 길게 뻗고 긴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죽었다.

「끝장을 냈다!」 군중 속에서 고함이 터졌다.

「그럼 왜 내닫질 않아?」

「내 물건이다!」 미콜카가 핏발 선 눈으로 지렛대를 손에 휘두르며 소리쳤다. 그는 더 때릴 것이 없다는 게 아쉽다는 듯이 서 있었다.

「틀림없다, 네놈은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다.」 군중 속에서 많은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가엾은 아이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비명을 지르며 군중을 헤치고 그 적갈색 비루먹은 말에게로 나아가, 피투성이가 된 죽은 머리를 두 팔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눈에 입을 맞추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작은 주먹을 내지르며 미친 듯이 미콜카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아이를 뒤쫓아 달려온 아버지가 아이를 낚아채어 군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가자,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그가 아이에게 말했다.

「아버지! 왜 저 사람들이…… 죽였어요…… 불쌍한 말을!」 아이가 흐느꼈으나 목소리가 갈라졌고, 말은 헐떡이는 가슴에서 비명이 되어 터져 나왔다.

「취해서 장난들을 치는 거다,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으나 숨이 막히고, 또 막혔다. 숨을 들이쉬려고, 소리를 지르려고 애쓰다가 — 잠에서 깼다.

그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고, 머리카락도 땀에 절어 있었으며, 공포에 질려 몸을 일으켰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저 꿈이었구나.」 그가 나무 아래 앉아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하지만 이게 뭔가? 열병이라도 나려는 건가? 이렇게 흉측한 꿈이라니!」

그는 완전히 부서진 기분이었다. 영혼 속에는 어둠과 혼란이 들어 있었다. 그는 두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오 하느님!」 그가 외쳤다. 「그럴 수가,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정말로 도끼를 들고, 머리를 내리치고, 그 두개골을 박살 내고…… 끈적하고 따뜻한 피에 미끄러지며, 자물쇠를 부수고, 훔치고 떨고, 온통 피를 뒤집어쓴 채 숨는다니…… 도끼를 들고……. 오 하느님, 그럴 수가 있나?」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잎사귀처럼 떨고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건가?」 그가 다시 몸을 일으키며, 말하자면 깊은 경악 속에서 말을 이었다. 「나는 결코 그 일을 해낼 수 없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을 괴롭혀 온 건가? 어제, 어제 그…… 시험을 하러 갔을 때, 어제 나는 내가 결코 그것을 견뎌 내지 못하리라는 걸 완전히 깨달았다……. 그런데 왜 또다시 곱씹고 있는가? 왜 망설이는가? 어제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비열하고 역겹고 더럽다, 더럽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껍고 공포로 가득 찼다.

「아니, 나는 못 한다, 나는 못 해! 인정하자, 그 모든 추론에 결함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자, 이 한 달 동안 내가 내린 결론이 전부 대낮처럼 명백하고 산술처럼 참이라고 인정하자……. 맙소사! 어쨌든 나는 그 일에 나 자신을 밀어 넣을 수 없다! 나는 못 한다, 나는 못 해! 그런데 왜, 대체 왜 나는 아직도……?」

그는 일어서서, 자기가 이런 곳에 와 있는 것이 놀랍기라도 한 듯 어리둥절하게 둘러보고는 T—— 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창백했고 두 눈은 이글거렸으며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 있었으나, 갑자기 숨쉬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 같았다. 그토록 오래 그를 짓눌러 온 그 무서운 짐을 벗어던졌다고 느꼈고, 영혼 속에 별안간 안도와 평화의 감각이 찾아들었다. 「주여.」 그가 기도했다. 「제게 길을 보여 주소서 — 저 저주받은…… 제 꿈을 버리나이다.」

다리를 건너면서 그는 네바강을, 이글거리는 하늘 속으로 지는 이글거리는 붉은 해를 고요하고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몸이 약해져 있었는데도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다. 한 달 동안 그의 가슴속에서 곪아 오던 종기가 별안간 터져 버린 것만 같았다. 자유다, 자유! 그는 그 주문에서, 그 마법에서, 그 망집에서 풀려났다!

훗날 그 시절을,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분 단위로, 낱낱이 되짚어 볼 때면, 그는 한 가지 정황에 미신적인 충격을 받곤 했다. 그 자체로는 그다지 별날 것도 없었지만 나중까지 늘 제 운명에 미리 정해져 있던 무엇처럼 여겨지던 정황이었다. 그는 자기가 어째서, 지치고 기진한 상태였고 가장 짧고 곧은 길로 집에 가는 편이 훨씬 편했을 그때, 갈 이유라고는 없는 건초 시장을 거쳐 돌아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리 크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누가 보아도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우회였다. 어느 거리를 지나왔는지도 모르는 채 집에 돌아온 일이 수십 번이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째서, 하고 그는 늘 자신에게 물었다, 어째서 그토록 중대하고 그토록 결정적이면서 동시에 그토록 완전히 우연한 만남이 하필 건초 시장에서(게다가 그가 갈 이유도 없던 곳에서), 그 만남이 그의 운명 전체에 가장 무겁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그런 심경과 바로 그런 정황 속에 그가 놓여 있던 생애의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단 말인가? 마치 일부러 그를 노리고 숨어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가 건초 시장을 가로지른 것은 아홉 시쯤이었다. 좌판과 수레 앞에서, 노점과 가게 앞에서 시장 사람들은 모두 제 가게를 닫거나 물건을 치워 싸 넣고 있었고,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넝마주이와 온갖 종류의 행상들이 건초 시장의 더럽고 악취 나는 안뜰마다 있는 술집 주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거리를 정처 없이 쏘다닐 때면 이곳과 그 언저리의 골목들을 특히 좋아했다. 여기서는 그의 누더기가 경멸의 눈길을 끌지 않았고, 어떤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남의 눈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K—— 골목 바로 그 모퉁이에서 한 행상과 그 아내가 좌판 두 개를 펴 놓고 끈이며 실이며 무명 손수건 따위를 팔고 있었다. 그들 역시 집에 가려고 일어선

참이었으나, 방금 다가온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꾸물거리고 있었다. 그 지인은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혹은 다들 그렇게 부르듯이 리자베타였고, 14등관 부인이자 고리대금업자인 바로 그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동생, 곧 라스콜니코프가 바로 전날 시계를 잡히고 자기 시험을 해 보려고 찾아갔던 그 노파의 동생이었다……. 그는 이미 리자베타에 관해 다 알고 있었고 그녀도 그를 조금은 알고 있었다. 서른다섯 살 먹은 처녀로, 키가 크고 굼뜨고 겁이 많고 고분고분했으며 거의 얼뜨기에 가까웠다. 그녀는 언니의 완전한 노예로, 밤낮 언니를 위해 일하며 그 앞에서 벌벌 떨었고 매까지 맞으며 지냈다. 그녀는 보퉁이를 든 채 행상 부부 앞에 서서 생각에 잠긴 얼굴로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유난히 열을 올려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녀를 알아본 순간, 이 만남에 놀랄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격심한 경악 같은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직접 마음을 정하면 되잖아요.」 행상이 소리 높여 말하고 있었다. 「내일 여섯 시 넘어서 들르세요. 그 사람들도 와 있을 거고요.」

「내일요?」 리자베타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듯 느리고 생각에 잠긴 투로 말했다.

「어쩌면 그렇게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무서워해요.」 행상의 아내가, 자그맣고 활달한 여자가 재잘거렸다. 「내가 보기엔 꼭 젖먹이 같아요. 게다가 친언니도 아니잖아요 — 의붓언니일 뿐인데, 사람을 저렇게 쥐고 흔들다니!」

「하지만 이번엔 알료나 이바노브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말아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내 충고는 그래요, 묻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오세요. 손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언니도 제풀에 생각이 들지 모르지요.」

「가야 하나요?」

「내일 여섯 시 넘어서요. 그쪽에서도 사람이 와 있을 겁니다. 직접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차도 한잔 하고요.」 아내가 덧붙였다.

「그래요, 갈게요.」 리자베타가 여전히 생각에 잠긴 채 말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라스콜니코프는 막 지나친 참이어서 그 이상은 듣지 못했다. 그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나갔다. 처음의 경악에 뒤이어 공포의 전율이, 등골을 타고 내리는 오한 같은 것이 왔다. 그는 알아 버린 것이다, 그는 갑자기, 전혀 뜻하지 않게 알아 버린 것이다, 다음 날 저녁 정확히 일곱 시에 노파의 동생이자 유일한 동거인인 리자베타가 집에 없으리라는 것을, 그러므로 저녁 정확히 일곱 시에 노파가 혼자 남게 되리라는 것을.

하숙집까지는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다만 그는 자기에게 더 이상 사유의 자유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별안간 돌이킬 수 없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분명히, 적당한 기회를 몇 해나 기다려야 했다 하더라도, 방금 제 앞에 나타난 것보다 계획의 성공을 향한 더 확실한 걸음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아도, 다음 날 어느 시각에 목숨을 노리는 계획의 대상인 노파가 집에 있으며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더 적은 위험으로, 위태로운 탐문이나 조사도 없이 미리 확실하게 알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터였다.

1. 코페이카 — 러시아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 100코페이카가 1루블이다. 영역자 가넷은 이 자리를 영국 동전(파딩)으로 바꿔 옮겼다.

2. 오전 예배 — 정교회의 성찬 예배(обедня). 보통 오전에 드린다. 영역자 가넷은 이를 가톨릭·성공회 용어(mass)로 옮겼다.

3. 쿠티야(кутья) — 정교회 추도 의식에 반드시 올리는 음식. 쌀이나 밀을 꿀·설탕·건포도와 섞어 만든다. 영역자 가넷은 음식 이름을 지우고 재료로 풀어 옮겼다.

1부 6장

훗날 라스콜니코프는 그 행상 부부가 왜 리자베타를 불렀는지 우연히 알게 되었다. 지극히 범상한 일이었고 특별할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이 도시로 흘러들어 왔다가 가난에 몰린 어느 집안이 살림살이와 옷가지를 내다 팔고 있었는데 전부 여자 물건이었다. 시장에 내놓아 봐야 값을 얼마 받지 못할 물건들이라 그들은 중개인을 찾고 있었다. 그것이 리자베타의 일이었다. 그녀는 그런 일을 맡아 했고 자주 불려 다녔는데, 아주 정직해서 언제나 공정한 값을 매기고 한번 매긴 값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체로 말수가 적었고, 앞서 말한 대로 몹시 순종적이고 겁이 많았다.

그러나 라스콜니코프는 근래 들어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신의 흔적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그에게 남아 거의 뿌리 뽑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그는 훗날까지도 언제나 무언가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것을, 말하자면 어떤 특별한 힘과 우연의 작용을 보려는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겨울 하리코프로 떠난 포코레프라는 아는 대학생이 이야기 끝에, 무엇이든 전당 잡힐 일이 생기거든 찾아가 보라며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주소를 일러 준 적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여자를 찾아가지 않았다. 개인 교습 자리가 있어 그럭저럭 견딜 만했기 때문이다. 여섯 주 전에 그는 그 주소를 떠올렸다. 전당 잡힐 만한 물건이 둘 있었으니, 아버지가 쓰던 낡은 은시계와 붉은 돌 세 개가 박힌 작은 금반지로, 반지는 누이가 헤어질 때 준

선물이었다. 그는 반지를 가져가기로 했다. 노파를 찾아냈을 때 그는 그 여자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첫눈에 이겨 낼 수 없는 혐오를 느꼈다. 그는 그 여자에게서 2루블을 받아 들고 돌아오는 길에 초라하고 자그마한 술집으로 들어갔다. 차를 시키고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기이한 생각 하나가 알 속의 병아리처럼 그의 머리를 쪼고 있었고, 그를 아주, 아주 깊이 사로잡았다.

거의 그의 곁이라 할 다음 탁자에 그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학생 하나가 앉아 있었고, 함께 젊은 장교가 있었다. 둘은 당구를 한 판 치고 나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때 문득 그는 대학생이 장교에게 10등관 부인인 고리대금업자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이야기를 꺼내며 주소를 일러 주는 것을 들었다. 그것부터가 라스콜니코프에게는 기이하게 느껴졌다. 방금 그 여자에게서 나온 참인데 여기서 곧바로 그 이름을 듣다니. 물론 우연이었지만 그는 범상치 않은 인상을 떨쳐 낼 수가 없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대학생은 친구에게 알료나 이바노브나에 관한 이런저런 자세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여자로 말하면 아주 쓸 만하지.」 그가 말했다. 「언제든 돈을 구할 수 있거든. 유대인처럼 부자라 한 번에 5천 루블도 내주면서 1루블짜리 전당물도 마다하지 않아. 우리 쪽 녀석들 중에도 그 여자와 거래해 본 자가 수두룩하다니까. 하지만 지독한 악질 년이야…….」

그러고는 그 여자가 얼마나 심술궂고 변덕스러운지, 이자를 하루만 늦어도 전당물이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물건 값의 사분의 일밖에 쳐주지 않으면서 다달이 5퍼센트, 심지어 7퍼센트까지 이자를 뜯어 간다는 것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대학생은 쉬지 않고 지껄였다. 그 여자에게 리자베타라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조그맣고 못된 것이 쉬지

않고 동생을 두들겨 패고 어린애처럼 완전히 종으로 부린다는 것이었다. 리자베타는 키가 적어도 여덟 베르쇼크는[1] 되는데도 말이다.

「그런 별종이 또 어디 있겠어.」 대학생이 소리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둘은 리자베타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생은 유난히 신이 나서 그녀 이야기를 했고 연방 웃어 댔으며, 장교는 큰 흥미를 보이며 듣다가 자기 옷도 좀 꿰매게 리자베타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라스콜니코프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리자베타는 노파보다 나이가 어렸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동생이었다. 서른다섯이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언니를 위해 일했고, 밥 짓고 빨래하는 것 말고도 삯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바닥 청소까지 품을 팔아 번 것을 전부 언니에게 갖다 바쳤다. 언니의 허락 없이는 주문이든 일거리든 감히 받지 못했다. 노파는 이미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고 리자베타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유언장에 따르면 그녀에게 돌아올 것은 그로시[2] 한 닢도 없었고 의자 따위 세간붙이가 전부였으며, 돈은 전부 N—— 지방의 어느 수도원에 남겨졌으니 노파를 위해 영구히 위령 기도를 올리게 하려는 것이었다[3]. 리자베타는 관리 집안이 아닌 소시민 신분이었고, 처녀였으며, 생김새가 지독히도 투박했고, 유난히 키가 크고 발이 길어서 바깥쪽으로 휘어 보일 지경이었다. 언제나 다 해진 염소가죽 신을 신고 다녔지만 몸은 깨끗했다. 대학생이 무엇보다 놀라워하며 재미있어한 것은 리자베타가 끊임없이 아이를 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자네 말로는 흉측하다면서?」 장교가 한마디 했다.

「그래, 살빛이 아주 검고 병정을 여자로 꾸며 놓은 꼴 같지. 그렇지만 말이야, 흉측한 구석이라곤 전혀 없어. 얼굴도 눈매도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니까. 놀라울 정도야. 그 증거로, 그 여자한테 끌리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어찌나 부드럽고 순한지 무슨 일이든 참아 내고, 늘 고분고분하고,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지. 게다가 웃는 얼굴이 정말 여간 곱지가 않아.」

「자네야말로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모양이군.」 장교가 웃었다.

「별난 맛이 있으니까. 아니, 그보다 내 말 좀 들어 보게. 나 같으면 그 빌어먹을 노파를 죽이고 돈을 털어 가도 양심이 털끝만치도 찔리지 않을 거야, 정말이지.」 대학생이 열을 올리며 덧붙였다. 장교가 다시 웃었고 라스콜니코프는 몸을 떨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이보게, 진지하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대학생이 열을 띠고 말했다. 「물론 농담이었지만 잘 들어 보게. 한쪽에는 어리석고 무분별하고 쓸모없고 심술궂고 병약하고 흉악한 노파가 하나 있는데,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해를 끼치는 데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어차피 하루 이틀이면 죽을 여자야. 알겠나? 알겠느냐고?」

「그래, 그래, 알겠네.」 장교가 흥분한 동무를 유심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자, 그럼 들어 보게. 다른 한쪽에는 도움을 받지 못해 헛되이 스러져 가는 싱싱한 젊은 목숨이 사방에 수천이야! 수도원에 바쳐질 그 노파의 돈이면 좋은 일과 사업을 백 가지, 천 가지는 벌이고 바로잡을 수 있어!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을 바른길로 이끌 수 있고, 수십 집안을 가난에서, 부패에서, 파멸에서, 타락에서, 성병 병원에서[4] 건져 낼 수 있어. 그것도 전부 그 여자 돈으로 말이야. 그 여자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그 힘으로 인류에 봉사하고 만인의 복리에 몸을 바치는 거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 하찮은 범죄 하나가 수천 가지 선행으로 씻기지 않겠나? 목숨 하나로 수천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면하는 거야. 죽음 하나에 목숨 백을 맞바꾸는 셈이니, 이건 단순한 산술이야! 게다가 저 폐병 들고

어리석고 심보 고약한 노파의 목숨이 존재의 저울 위에서 대체 무슨 값이 나가겠나! 이 한 마리, 바퀴벌레 한 마리 목숨만도 못하지. 아니, 실은 그보다도 못해. 노파는 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남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단 말이야. 며칠 전에도 심술을 부려 리자베타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바람에 하마터면 잘라 낼 뻔했다지 않나.」

「물론 그 여자가 살 자격이야 없지.」 장교가 말했다. 「하지만 어쩌겠나, 그게 자연인걸.」

「원, 이 사람아, 그 자연이란 것을 바로잡고 이끌어야 하는 게 우리 일이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편견의 바다에 빠져 죽고 말걸. 그러지 않았다면 위인이라곤 단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을 거야. 다들 의무니 양심이니 하지 — 나도 의무와 양심을 헐뜯을 생각은 없어 —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말로 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거야. 잠깐, 자네한테 물어볼 게 하나 더 있어. 들어 보게!」

「아니, 자네야말로 잠깐. 내가 하나 묻겠네. 들어 보게!」

「뭔가?」

「자네는 그렇게 떠들고 연설을 늘어놓는데, 말해 보게, 그럼 자네가 직접 그 노파를 죽이겠나?」

「당연히 아니지! 나는 그 일의 정당성을 따져 본 것뿐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하지만 내 생각엔, 자네가 직접 하지 않을 일이라면 거기엔 정당성 같은 건 없네……. 한 판 더 치세.」

라스콜니코프는 격렬하게 동요했다. 물론 그것은 모두 범상한 젊은이들의 말이요 생각이었고, 형태를 달리하고 주제를 달리해서 그가 전에도 숱하게 들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어째서 하필 제 머릿속이 바로 그…… 똑같은 생각을 막 품어 가고 있던 그 순간에 그런 토론과 그런 사상을 듣게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어째서 하필 노파에게서 제 생각의

싹을 들고 나온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와 맞닥뜨렸단 말인가? 이 우연의 일치는 두고두고 그에게 기이하게 느껴졌다. 술집에서 오간 이 사소한 이야기가 뒷날 그의 행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정말로 그 안에 무언가 예정된 것이, 어떤 인도하는 암시가 들어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건초 시장에서 돌아온 그는 소파에 몸을 내던지고 한 시간 내내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사이 날이 저물었다. 초도 없었지만 사실 불을 켤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때 자기가 무슨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는지 그는 끝내 기억해 낼 수 없었다. 마침내 예의 그 열과 오한이 느껴졌고, 소파에 드러누워도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놓였다. 곧 무겁고 납덩이 같은 잠이 짓누르듯 그를 덮쳤다.

그는 유난히 오래, 꿈도 꾸지 않고 잤다. 이튿날 아침 열 시에 방으로 들어온 나스타시야는 그를 깨우느라 애를 먹었다. 그녀는 차와 빵을 들고 왔다. 차는 또 두 번째로 우린 것이었고 또 그녀 자신의 찻주전자에 담겨 있었다.

「어이구, 잠도 퍽이나 자네!」 그녀가 분해하며 소리쳤다. 「노상 잠만 자고 있어.」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아팠다. 그는 일어서서 다락방을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또 잘 작정이군.」 나스타시야가 소리쳤다. 「어디 아픈 거야, 응?」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차 마실 테야?」

「나중에요.」 그가 힘겹게 말하고는 다시 눈을 감고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나스타시야가 그를 내려다보고 섰다.

「정말로 앓는 모양이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나갔다. 두 시에 그녀는 수프를 들고 다시 들어왔다. 그는 아까 그대로 누워 있었다. 차는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나스타시야는 영락없이 모욕을 당한 기분이 들어 화를 내며 그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

「왜 통나무처럼 자빠져 있는 거야?」 그녀가 역겹다는 눈으로 그를 보며 고함쳤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았으나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바라보았다.

「아픈 거야, 아닌 거야?」 나스타시야가 물었으나 이번에도 대답을 듣지 못했다.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는 게 낫겠어.」 잠시 뒤 그녀가 말했다.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나중에요.」 그가 힘없이 말했다. 「가 보세요.」

그러고는 손짓으로 그녀를 내보냈다.

그녀는 조금 더 머물러 가엾다는 눈으로 그를 보다가 나갔다.

몇 분 뒤 그는 눈을 들어 차와 수프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빵을 집고 숟가락을 들어 먹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 서너 숟가락쯤 먹었다. 입맛도 없이 그저 기계처럼 먹었을 뿐이다. 머리는 덜 아팠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다시 소파에 몸을 뻗었으나 이번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백일몽이, 그것도 기이하기 짝이 없는 백일몽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는데, 자꾸만 되풀이되는 꿈 하나에서 그는 아프리카에, 이집트에, 어느 오아시스에 와 있었다. 대상(隊商)은 쉬고 있었고 낙타들은 평온하게 엎드려 있었으며, 종려나무가 사방을 빙 둘러 온전한 원을 이루고 서 있었고, 일행은 모두 식사 중이었다. 그러나 그는 가까이서 졸졸 흐르는 샘물을 마시고 있었다. 물은 어찌나 시원한지, 놀랍도록, 놀랍도록 푸르고 차가운 물이 알록달록한 돌 사이로,

여기저기 금빛처럼 반짝이는 깨끗한 모래 위로 흘렀다……. 갑자기 시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흠칫 놀라 정신을 차리고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고,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지 알아채고는 누가 소파에서 끌어내리기라도 한 듯 잠이 확 깬 채 벌떡 일어섰다. 그는 발끝으로 문까지 다가가 살그머니 문을 열고 층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무섭게 뛰었다. 그러나 층계는 모두가 잠들기라도 한 듯 조용하기만 했다……. 어제부터 그렇게 정신없이 잠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직 아무 준비도 해 두지 않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기이하고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그사이 벌써 여섯 시를 쳤는지도 몰랐다. 졸음과 멍한 상태가 가시자 이번에는 유별나고 열에 들뜬, 말하자면 얼이 빠진 듯한 조급함이 뒤따랐다. 그러나 해 둘 준비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생각해 내는 데 온 힘을 쏟았고, 심장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계속 뛰고 두방망이질했다. 우선 올가미를 만들어 외투에 꿰매 붙여야 했는데 그것은 잠깐이면 되는 일이었다. 그는 베개 밑을 뒤져 거기 쑤셔 박아 둔 속옷가지 가운데서 낡고 해진, 빨지 않은 셔츠 하나를 골라냈다. 그 누더기에서 너비 한 베르쇼크, 길이 여덟 베르쇼크쯤 되는 긴 천 조각을 찢어 냈다. 그는 그 천 조각을 둘로 접고, 두툼한 무명으로 지은 품 넓고 튼튼한 여름 외투(그의 유일한 겉옷이었다)를 벗어서 안쪽 왼쪽 겨드랑이 밑에 천 조각의 두 끝을 꿰매어 붙이기 시작했다. 바느질하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그는 제대로 해냈고, 그래서 외투를 다시 걸쳤을 때 밖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바늘과 실은 벌써 오래전에 마련해 두어 종이에 싸인 채 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올가미로 말하자면 그것은 그가 손수 생각해 낸 아주 기발한 장치였으니, 도끼를 걸기 위한 것이었다. 도끼를 손에 들고 거리를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외투 밑에 감춘다 해도 손으로 받쳐야 했을 테고 그러면 눈에 띄었을 것이다.

이제는 도끼날 쪽을 올가미에 끼우기만 하면 도끼가 안쪽 겨드랑이 밑에 얌전히 매달릴 터였다.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는 내내 자루 끝을 붙들고 있으면 도끼가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게다가 외투가 워낙 품이 넓어 그야말로 자루나 다름없었으므로 주머니에 넣은 손으로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것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 올가미 역시 그가 두 주 전에 고안해 둔 것이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 그는 그 「터키식」 소파와 바닥 사이의 조그만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왼쪽 구석을 더듬은 끝에,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 거기 감춰 둔 전당물을 꺼냈다. 그러나 이 전당물이라는 것은 은제 담뱃갑만 한 크기와 두께로 매끈하게 대패질한 나뭇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산책길에 곁채에 무슨 작업장이 들어 있는 어느 안마당에서 우연히 이 나뭇조각을 주웠다. 뒤에 그는 나뭇조각에 얇고 매끄러운 쇳조각을 덧붙였는데, 아마 무언가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였을 그것 역시 같은 때에 거리에서 주운 것이었다. 나뭇조각보다 조금 작은 쇳조각을 그 위에 얹고 실을 이리저리 엇갈려 감아 아주 단단히 붙들어 맨 다음, 깨끗한 흰 종이로 조심스럽고 맵시 있게 싸서 가는 끈으로 역시 열십자로 묶되, 매듭은 좀처럼 풀기 어렵게 지어 두었다. 노파가 매듭을 푸느라 애쓰는 동안 잠시 주의를 딴 데로 돌려 그 틈을 벌기 위해서였다. 쇳조각을 덧댄 것은 무게를 주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 「물건」이 나무로 만든 것임을 여자가 첫 순간에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것을 그는 미리 소파 밑에 간수해 두었던 것이다. 전당물을 막 꺼냈을 때 갑자기 안마당 어디선가 누군가의 고함이 들렸다.

「여섯 시 친 지가 한참 됐다니까.」

「한참이라니! 맙소사!」

그는 문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이고 모자를 집어 들고는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열세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부엌에서 도끼를 훔쳐 내는 일이었다. 그 일을 도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에 정해 둔 바였다. 그에게는 접이식 전지칼도 있었지만 칼은 믿을 수 없었고 제 힘은 더더욱 믿을 수 없었으므로 결국 도끼로 정한 것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두자면, 이 일에 관해 그가 내린 모든 최종 결심에는 기이한 특징이 하나 있었다. 결심이 최종적인 것이 될수록 그의 눈에는 그것이 그 즉시 더 흉측하고 더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그 모든 괴로운 내적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동안 단 한순간도 자기 계획이 실행되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실제로 만에 하나 사소한 데까지 전부 검토되고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져 어떤 불확실함도 남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는 아마 그 모든 것을 터무니없고 끔찍하고 불가능한 짓이라며 내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매듭지어지지 않은 점과 불확실한 것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다. 도끼를 손에 넣는 문제로 말하자면 그 하찮은 일은 조금도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으니, 그보다 쉬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스타시야는 노상 집을 비웠고 특히 저녁이면 더했는데, 이웃집으로 뛰어가거나 가게로 달려가면서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 둔 채였다. 집주인이 늘 그녀를 나무라는 것도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이었다. 그러니 때가 되면 그는 부엌으로 조용히 들어가 도끼를 집어 오고, 한 시간 뒤에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다시 들어가 제자리에 놓아두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다. 한 시간 뒤에 도끼를 돌려놓으러 왔는데 나스타시야가 돌아와 그 자리에 있다고 치자. 물론 그는 그냥 지나쳐 그녀가 다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사이에 그녀가 도끼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찾아다니며 소리라도 지른다면, 그것은 곧 의심을, 적어도 의심의 근거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모두 그가 생각해 보기 시작하지도 않은 자질구레한 일이었고 사실 그럴 틈도 없었다. 그는 핵심만 생각하고 자잘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믿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미뤄 두었다. 그런데 그것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 적어도 그 자신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이를테면 그는 자기가 언젠가 생각을 그만두고 일어나서 그저 그리로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요전의 시험(즉, 현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셈으로 한 방문)조차 시험을 해 보려는 시도였을 뿐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으니, 이를테면 「자, 가서 한번 해 보자꾸나, 공상만 해서 무엇 하나!」 하고 말해 보는 것과 같았고,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침을 뱉고는 스스로에게 미칠 듯이 화를 내며 달아났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도덕 문제에 관한 한 그의 분석은 완결된 듯 보였다. 그의 궤변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고 제 안에서 이치에 닿는 반론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누군가 그를 억지로 떠밀고 끌어당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완강하게, 노예처럼, 사방을 더듬어 가며 반론을 찾아 헤맸다. 그런데 그토록 뜻밖에 닥쳐와 모든 것을 단번에 결정해 버린 마지막 날은 그에게 거의 완전히 기계적으로 작용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손을 잡고, 거역할 수 없이, 맹목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힘으로, 반론의 여지도 없이 끌고 가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옷자락이 기계 바퀴에 걸려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실은 훨씬 오래전부터, 그는 한 가지 물음에 골몰해 있었다. 어째서 거의 모든 범죄가 그토록 쉽게 찾아내지고 드러나는가, 어째서 거의 모든 범죄자가 그토록 뚜렷한 흔적을 남기는가? 그는 차츰 여러 가지 기묘한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의 생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범죄를

감추는 일이 물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기보다 범죄자 자신에게 있었다. 거의 모든 범죄자는 신중함과 조심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바로 그 순간에 어린애 같고 놀라울 만큼 얼빠진 부주의에 빠져 의지와 판단력을 잃고 만다. 이성의 이 일식(日蝕)과 의지의 마비가 병처럼 사람을 덮쳐 점점 자라나서 범행 직전에 절정에 이르고, 범행의 순간에도 같은 격렬함으로 계속되며, 경우에 따라 길든 짧든 그 뒤로도 이어지다가, 여느 병과 마찬가지로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다. 병이 범죄를 낳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라는 것이 그 특유의 성질상 언제나 병 비슷한 무언가를 동반하는 것인지, 그 물음은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그는 느꼈다.

이런 결론에 이르자 그는 자기 경우에는 그런 병적인 반응이 있을 수 없다고,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자기 이성과 의지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리라고 단정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의 계획은 「범죄가 아니었으니까…….」 그가 이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은 여기서 전부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미 너무 앞서 나갔다……. 다만 이것만 덧붙여 두자. 이 일의 실제적이고 순전히 물질적인 어려움은 그의 머릿속에서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의지와 이성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될 일이고, 일의 아주 자잘한 데까지 제 것으로 익혀 두기만 하면 때가 되어 전부 극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 준비는 시작조차 된 적이 없었다. 그가 가장 믿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자기의 최종 결심이었고, 막상 그때가 닥치자 모든 일은 아주 다르게, 말하자면 우발적이고 뜻밖의 방식으로 일어났다.

사소한 사정 하나가 그가 층계를 다 내려서기도 전에 그의 계산을 뒤엎어 버렸다. 여느 때처럼 문이 열려 있는 집주인의 부엌에 이르자, 그는 나스타시야가 없는 사이에 집주인 자신이 거기 있는지, 없다면 제 방문은 닫혀 있는지, 그래서 도끼를 가지러 들어갈 때 내다보지는

않을지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나스타시야가 집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엌에서 바구니의 빨래를 꺼내 줄에 널며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를 보자 그녀는 빨래 너는 손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가 지나가는 내내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눈길을 돌리고 아무것도 못 본 척 지나쳤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도끼가 없는 것이다! 그는 망연자실했다.

「어째서 나는,」 그는 대문 밑을 지나며 생각했다. 「어째서 나는 그 시각에 그 여자가 틀림없이 집에 없으리라고 생각했을까! 어째서, 어째서, 어째서 그렇게 단단히 믿어 버렸을까?」

그는 짓눌린 기분이었고 모욕감마저 느꼈다. 분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비웃고 싶을 지경이었다……. 둔중한 짐승 같은 분노가 그의 안에서 끓어올랐다.

그는 대문간에 서서 망설였다. 거리로 나가 남의 눈을 의식해 산책하는 시늉을 하는 것도 역겨웠고 제 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역겨웠다. 「이런 기회를 영영 놓쳐 버리다니!」 그는 마찬가지로 문이 열려 있는 수위의 작고 어두운 방 바로 맞은편, 대문간에 하릴없이 서서 중얼거렸다. 문득 그는 흠칫했다. 두 걸음 떨어진 수위 방 안, 오른쪽 의자 밑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둘레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발끝으로 그 방에 다가가 두 계단을 내려가서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수위를 불렀다. 「그래, 없구나! 하지만 문을 활짝 열어 놨으니 어디 가까운 데, 마당 어딘가에 있겠지.」 그는 도끼로 달려들어(정말 도끼였다) 장작 두 토막 사이에 놓여 있던 그것을 의자 밑에서 끌어냈고, 나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도끼를 올가미에 단단히 걸고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방을 나왔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이성이 안 되면 악마가 거들어 주는군!」

그는 기묘하게 씩 웃으며 생각했다. 이 우연은 그의 기운을 놀랍도록 북돋웠다.

그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조용히, 점잖게, 서두르지 않고 걸었다. 행인들은 거의 보지 않았고 아예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으며 되도록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다. 문득 모자 생각이 났다. 「맙소사! 그저께 돈이 있었는데 바꿔 쓸 챙 모자 하나 사 두지 않다니!」 영혼 밑바닥에서 저주가 치밀어 올랐다.

어느 가게 안을 곁눈질로 들여다보다가 그는 벽시계로 일곱 시 십 분인 것을 알았다. 서둘러야 했고, 동시에 그 집에 반대쪽에서 다가가려면 길을 좀 돌아가야 했다…….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따금 머릿속에 그려 볼 때면 그는 자기가 몹시 겁을 먹으리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다지 겁이 나지 않았다. 아니, 아예 겁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엉뚱한 일로 차 있기까지 했는데 어느 것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유수포프 공원 옆을 지날 때 그는 커다란 분수들을 세우는 일과 그것이 모든 광장의 공기를 얼마나 시원하게 해 줄지를 골똘히 생각했다. 그러다 차츰 여름 정원을 마르스 광장까지 넓히고 나아가 미하일로프스키 궁전의 정원과 이어 놓는다면 훌륭한 일이 될 테고 이 도시에 큰 이익이 되리라는 확신에 이르렀다. 다음에는 어째서 큰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그저 형편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어딘가 유별난 성향에 이끌려 정원도 분수도 없는 구역에, 더러움과 악취와 온갖 추한 것이 가장 심한 구역에 모여 사는가 하는 물음에 흥미가 갔다. 그러자 건초 시장을 돌아다니던 제 걸음이 떠올랐고 그는 잠시 현실로 깨어났다. 「무슨 헛소리인가!」 그는 생각했다. 「차라리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아마 이렇게 길에서 마주치는 온갖 것에 마음을 붙들어 매겠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으나 그저

번개처럼 스쳤을 뿐, 그는 서둘러 그 생각을 떨쳐 버렸다……. 그러는 사이 벌써 가까이 와 있었다. 저기가 그 집이고 저기가 대문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시계가 한 번 울렸다. 「뭐라고! 일곱 시 반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시계가 빠른 게지!」

다행히도 대문에서 또 한 번 모든 일이 잘 풀렸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일부러 그를 위해 그러기라도 한 듯 커다란 건초 수레 한 대가 막 대문으로 들어서서 그가 대문 밑을 지나는 동안 그를 완전히 가려 주었고, 수레가 대문을 빠져 안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번개같이 오른쪽으로 빠져 들어갔다. 수레 저편에서는 고함 소리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고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널따란 네모 안마당으로 난 창문이 그때 여럿 열려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 힘이 없었다. 노파의 방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바로 곁, 대문간 오른쪽에 있었다. 그는 벌써 층계에 올라서 있었다…….

숨을 고르고 두방망이질하는 심장을 손으로 누르며, 다시 한번 도끼를 더듬어 똑바로 고쳐 놓고서, 그는 시시각각 귀를 기울이며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층계도 인적이 뚝 끊겨 있었다. 문이란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다만 2층의 한 집만 문이 활짝 열린 채 페인트공들이 안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올라갔다. 「물론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기서 두 층 위니까.」

그리고 4층이었다. 여기가 그 문이고 여기가 맞은편의 빈집이었다. 노파의 아래층 집도 비어 있는 모양이었다. 문에 못으로 박아 둔 명함이 뜯겨 나가 있었다. 이사를 가 버린 것이다!…… 그는 숨이 찼다. 한순간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노파의 문에 귀를 대고 듣기 시작했다.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러고는

다시 층계 쪽에 귀를 기울여 오래, 유심히 들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둘레를 둘러보고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곧추세우고는 올가미에 걸린 도끼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내 얼굴이 아주 창백한가?」 그는 생각했다. 「누가 봐도 흥분한 티가 나지 않을까? 그 여자는 의심이 많은데……. 조금 더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 심장이 그만 뛸 때까지?」

그러나 심장은 그치지 않았다. 도리어 그를 약 올리기라도 하듯 점점 더 세차게 뛰었다. 그는 더 견딜 수 없어 천천히 손을 뻗어 초인종을 울렸다. 반 분쯤 뒤에 그는 더 크게 다시 울렸다.

답이 없었다. 계속 울려 봐야 소용없는 일이었고 어울리지도 않았다. 노파는 물론 집에 있었다. 그러나 의심이 많고 혼자였다. 그는 그 여자의 버릇을 조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에 귀를 갖다 댔다. 그의 감각이 유난히 예민했거나(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니면 그 소리가 정말로 아주 또렷했거나 둘 중 하나였다. 아무튼 그는 자물쇠에 조심스레 손이 닿는 듯한 소리와 바로 문 앞에서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를 불현듯 들었다. 누군가 자물쇠 바로 곁에 몰래 서서, 그가 바깥에서 하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안에서 몰래 귀를 기울이며 문에 귀를 대고 있는 듯했다……. 그는 숨어 있는 꼴로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몸을 조금 움직이고 무어라 소리 내어 중얼거린 다음 세 번째로 초인종을 울렸다. 그러나 조용히, 차분하게, 조급한 기색 없이 울렸다. 뒷날 그 일을 돌이킬 때마다 그 순간은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고 또렷하게, 영원히 남았다. 어떻게 그런 꾀가 났는지 그는 알 수 없었으니, 정신은 이따금 흐려지는 듯했고 제 몸조차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잠시 뒤 걸쇠가 벗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1. 베르쇼크 — 러시아의 길이 단위로 약 4.4센티미터. 사람의 키는 2아르신(약 142센티미터)을 넘는 베르쇼크 수로 말하는 것이 관례여서, 리자베타의 「여덟 베르쇼크」는 약 178센티미터에 해당한다. 영역자 가넷은 이 장의 러시아 단위를 영국 단위(피트·인치)로 바꿔 옮겼다.

2. 그로시 — 반 코페이카에 해당하던 옛 동전. 「그로시 한 닢도 없다」는 「한 푼도 없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영역자 가넷은 이를 영국 동전(파딩)으로 바꿔 옮겼다.

3. 영구 위령 — 정교회에서, 기부를 받은 수도원이 그 이름을 위령 명부에 올려 두고 기부자가 죽은 뒤에도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를 올리는 관행.

4. 성병 병원(Lock hospital) — 18~19세기 영국에서 성병 환자를 따로 수용해 치료하던 병원. 이름에 든 「lock」은 자물쇠와 아무 관계가 없다. 저본이 영국 독자에게 익숙한 제도의 이름을 그대로 쓴 자리다.

1부 7장

문은 전과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만 열렸고, 다시 날카롭고 미심쩍어하는 두 눈이 어둠 속에서 그를 노려보았다. 그때 라스콜니코프는 제정신을 잃고 하마터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노파가 둘만 있다는 데 겁을 먹을까 두려웠고, 제 얼굴을 보인다고 해서 그 의심이 풀리리라는 기대도 없었으므로, 그는 문을 붙잡고 노파가 다시 닫으려 들지 못하도록 제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을 보고 노파는 문을 도로 잡아당기지는 않았으나 손잡이를 놓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는 하마터면 그녀를 문과 함께 층계로 끌어낼 뻔했다. 노파가 문간에 버티고 서서 그를 들여보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곧장 그녀에게로 다가섰다. 그녀는 놀라 뒷걸음질 치며 무어라 말하려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고 눈을 크게 뜬 채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안녕하십니까, 알료나 이바노브나.」 그가 스스럼없이 말해 보려 애쓰며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가 말을 듣지 않아 갈라지고 떨렸다. 「가져온 게 있어서요…… 그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밝은 데로…….」

그러고는 그녀를 내버려 둔 채 청하지도 않았는데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다. 노파가 그를 뒤쫓아 달려왔다. 이제 그녀의 혀가 풀렸다.

「아이고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구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 아니, 알료나 이바노브나, 저를 아시잖습니까…… 라스콜니코프입니다…… 자, 요전에 약속한 전당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당물을 내밀었다.

노파는 잠깐 전당물에 눈길을 주었으나 이내 청하지도 않은 방문객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유심히, 악의에 차서, 미심쩍어하며 바라보았다. 일 분이 흘렀다. 그녀의 눈 속에 비웃음 같은 것이,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한 기색이 어린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자기가 제정신을 잃어 가고 있다고, 자기가 겁을 먹고 있다고, 어찌나 겁을 먹었는지 저 여자가 저런 눈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삼십 초만 더 있는다면 자기는 그녀에게서 달아나고 말았으리라고 느꼈다.

「왜 저를 모르는 사람 보듯 쳐다보십니까?」 그도 악의를 담아 불쑥 말했다. 「 받으시려면 받고, 싫으시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바쁘니까요.」

그는 이런 말을 할 생각조차 없었는데, 말이 저절로 불쑥 튀어나왔다. 노파는 정신을 차렸고, 방문객의 단호한 어조가 눈에 띄게 그녀의 자신감을 되살려 놓았다.

「 아니 그런데 양반, 이렇게 대뜸……. 그게 뭐예요? 」 그녀가 전당물을 보며 물었다.

「은제 담뱃갑입니다. 요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창백해요…… 게다가 손도 떨고 있네요? 목욕이라도 하고 왔어요, 양반?」

「열이 나서요.」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창백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먹을 게 없으면.」 그는 낱말을 간신히 굴려 내며 덧붙였다.

기운이 다시 그를 저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참말처럼 들렸고, 노파는 전당물을 받아 들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는 라스콜니코프를 유심히 뜯어보고 전당물을 손으로 가늠해 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물건입니다…… 담뱃갑이지요……. 은제……. 보십시오.」

「어쩐지 은 같지가 않네요……. 어쩌면 이렇게 싸맸담!」

끈을 풀어 보려고 창문 쪽으로, 빛이 드는 쪽으로 돌아서면서(숨 막히는 더위인데도 그녀의 창문은 죄다 닫혀 있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그를 아주 내버려 둔 채 등을 돌리고 섰다. 그는 외투 단추를 풀고 올가미에서 도끼를 빼냈으나 아직 완전히 꺼내지는 않고 외투 밑에서 오른손에 쥐고만 있었다. 두 손은 무섭도록 힘이 없었고, 시시각각 더 무디어지고 더 나무토막처럼 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도끼를 놓쳐 떨어뜨릴까 두려웠다……. 별안간 현기증이 그를 덮쳤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놨담?」 노파가 짜증스럽게 외치며 그를 향해 다가섰다.

더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도끼를 완전히 빼내어 두 팔로 치켜들었고, 제 몸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거의 힘도 들이지 않고, 거의 기계처럼 도끼등을 그녀의 머리에 내리쳤다. 그 순간 그는 제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한번 도끼를 내리치고 나자 그의 안에서 힘이 생겨났다.

노파는 여느 때처럼 맨머리였다. 희끗희끗한 줄이 섞인 가늘고 옅은 머리카락은 기름이 잔뜩 발린 채 쥐꼬리처럼 땋여서, 목덜미에 툭 불거져 나온 부러진 뿔 빗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키가 워낙 작았던 터라 타격은 바로 정수리에 떨어졌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으나 아주 희미했고, 두 손을 머리로 올리며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았다. 한 손에는 여전히 「전당물」을 쥐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온 힘을 다해 한 번, 또 한 번, 매번 도끼등으로 매번 정수리를 내리쳤다. 피가 엎어진 잔에서처럼 쏟아져 나왔고 몸이 뒤로 넘어갔다. 그는 물러서서 몸이

쓰러지게 두었고 곧바로 그녀의 얼굴 위로 몸을 굽혔다. 그녀는 죽어 있었다. 두 눈은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듯했고 이마와 얼굴 전체가 경련하듯 일그러지고 뒤틀려 있었다.

그는 시신 가까운 바닥에 도끼를 내려놓고 곧바로 그녀의 주머니를 더듬었다(피가 흘러내리는 몸에 닿지 않으려 애쓰면서) — 지난번에 왔을 때 그녀가 열쇠를 꺼냈던 바로 그 오른쪽 주머니였다. 그는 제 감각을 온전히 지니고 있었고 혼란도 현기증도 없었으나 손은 여전히 떨렸다. 뒷날 그는 자기가 유별나게 침착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내내 피를 묻히지 않으려 애썼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곧 열쇠들을 끄집어냈는데, 전과 마찬가지로 전부 강철 고리 하나에 꿰여 있었고, 그것들을 들고 그는 곧장 침실로 달려 들어갔다. 이콘을 잔뜩 모신 감실이 통째로 들어앉은 아주 작은 방이었다. 맞은편 벽에는 아주 깨끗한, 비단 조각보를 이어 누빈 이불을 덮은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다. 세 번째 벽에는 서랍장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가 열쇠를 서랍장에 맞추기 시작하자마자, 열쇠들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경련 같은 전율이 그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별안간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나가 버리고 싶은 유혹을 다시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뿐이었으니,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는 제 자신을 두고 정말로 미소를 지었는데, 그때 또 하나의 무서운 생각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문득 노파가 아직 살아 있어서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쇠도 서랍장도 내버려 둔 채 그는 시신에게로 달려가 도끼를 집어 들고 노파 위로 다시 한번 치켜들었으나 내리치지는 않았다. 그녀가 죽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몸을 굽혀 다시 한번 더 가까이 살펴본 그는 두개골이 박살 났고 한쪽으로 조금 비뚤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손가락으로 만져 보려다가 그는 손을 도로 거두었고, 사실 그러지 않아도 분명했다.

그러는 사이 피가 완전히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별안간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끈을 알아차렸고 그것을 잡아당겼으나, 끈은 질겨서 끊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피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옷 앞섶에서 그것을 끌어내려 했으나 무언가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조급해진 그는 시신 위쪽에서 끈을 자르려고 도끼를 다시 치켜들었으나 차마 그러지 못했고, 손과 도끼를 피로 문대 가며 이 분 동안 서둘러 애쓴 끝에 도끼로 몸을 건드리지 않고 끈을 잘라 내어 벗겨 냈다. 그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 지갑이었다. 끈에는 십자가가 둘, 하나는 사이프러스 나무로 하나는 구리로 된 것이 꿰여 있었고 법랑을 입힌 작은 이콘[1]이 함께 꿰여 있었으며, 그것들과 더불어 강철 테와 고리가 달린 기름때 전 작은 샤미가죽 지갑이 하나 달려 있었다. 지갑은 아주 두둑하게 불러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것을 제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십자가들은 노파의 가슴 위에 내던지고 이번에는 도끼를 가지고 침실로 다시 달려 들어갔다.

그는 몹시 서둘렀고, 열쇠를 움켜쥐고 다시 맞춰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되지 않았다. 열쇠들은 자물쇠에 들어가지 않았다. 손이 떨려서라기보다는 자꾸 헛짚었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어떤 열쇠가 맞지 않는 것이고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고도 그는 여전히 그것을 밀어 넣으려 했다. 별안간 그는, 작은 열쇠들과 함께 매달려 있는 홈이 깊게 파인 큰 열쇠가 서랍장의 것일 리 없고(지난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어떤 궤짝의 것이며 어쩌면 모든 것이 그 궤짝에 감춰져 있으리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는 서랍장을 버려두고 곧바로 침대 밑을 더듬었다. 노파들이 흔히 궤짝을 침대 밑에 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과연 그랬다. 침대 밑에는 길이가 1아르신[2]이 넘는 제법 큰 궤짝이 있었는데, 뚜껑이 둥글게 솟았고 붉은 가죽이 씌워졌으며 강철 못이 박혀 있었다. 홈이 파인 열쇠가 대번에 들어맞아 궤짝이 열렸다. 맨

위에는 흰 홑이불 아래로 토끼 가죽을 안에 댄 붉은 비단 외투가 있었고, 그 밑에는 비단 드레스가, 그다음에는 솔이 있었으며, 그 아래로는 옷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가 맨 먼저 한 일은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그 붉은 비단에 닦는 것이었다. 「붉은 천이니까 붉은 바탕에서는 피가 덜 눈에 띄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다 그는 별안간 정신이 들었다. 「맙소사, 내가 미쳐 가는 건가?」 그는 공포에 질려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옷가지에 손을 대자마자 금시계 하나가 모피 외투 밑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그는 서둘러 그것들을 전부 뒤집었다. 옷가지 틈에서 금붙이가 여러 가지 나왔다 — 아마 전부 전당물로, 찾아간 것이든 찾아가지 않은 것이든 섞여 있었으리라 — 팔찌, 목걸이, 귀고리, 핀 따위였다. 어떤 것은 갑에 들어 있었고 어떤 것은 그저 신문지에, 그러나 두 겹으로 정성스럽고 반듯하게 싸여 끈으로 묶여 있었다.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꾸러미며 갑이며 들여다보지도 풀어 보지도 않은 채 바지와 외투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이 집어넣을 틈은 없었다…….

그는 문득 노파가 누워 있는 방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우뚝 멈춰 서서 죽은 듯이 굳었으나, 사위가 조용했으니 잘못 들은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별안간 그는 희미한 외마디 소리를, 누군가 낮게 끊긴 신음을 내뱉기라도 한 듯한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러고는 다시 일이 분 동안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궤짝 옆에 쪼그려 앉은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별안간 그는 벌떡 일어나 도끼를 움켜쥐고 침실 밖으로 달려 나갔다.

방 한가운데 리자베타가 커다란 보따리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그녀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살해당한 언니를 얼이 빠진 채 바라보고 있었고, 비명을 지를 기운조차 없어 보였다. 그가 침실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나뭇잎처럼 온몸을 희미하게 떨기 시작했고 얼굴 위로 전율이 훑고 지나갔으며, 손을 들고 입을 벌렸으나 여전히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천천히 뒷걸음질 쳐 구석으로 물러나면서 그를 유심히, 집요하게 바라보았으나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으니, 마치 비명을 지를 숨이 모자라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는 도끼를 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입이 가엾게 씰룩였다, 겁을 먹기 시작한 아기들이 저를 겁나게 하는 것을 빤히 바라보며 막 울음을 터뜨리려 할 때 흔히 보는 그 입처럼. 그리고 이 딱한 리자베타는 너무나 단순했고 너무나 철저하게 짓눌리고 겁먹은 채 살아온 터라, 도끼가 제 얼굴 위로 치켜들려 있고 그것이 그 순간 무엇보다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도 얼굴을 막으려고 손 한번 들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아무것도 들지 않은 왼손을 들어 올렸을 뿐인데, 얼굴로 가져가지는 않고 마치 그를 밀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천천히 제 앞으로 내밀었다. 도끼는 날이 선 쪽으로 바로 두개골에 떨어져 단 한 번에 이마 윗부분을 거의 정수리까지 통째로 쪼개 놓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겁게 쓰러졌다. 라스콜니코프는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고, 그녀의 보따리를 움켜쥐었다가 다시 떨어뜨리고는 현관으로 달려 나갔다.

공포가 점점 더 그를 지배해 갔고, 계획에 없던 이 두 번째 살인 뒤로는 더욱 그랬다. 그는 되도록 빨리 그곳에서 달아나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그 순간 그가 더 올바르게 보고 따질 수 있었더라면, 만약 제 처지의 온갖 곤란을, 그 가망 없음과 흉측함과 어처구니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만약 그곳을 빠져나가 집까지 가는 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장애를 헤쳐 나가야 하고 어쩌면 얼마나 많은 범죄를 더 저질러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그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제 발로 자수하러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순전한 공포와 혐오 때문에 말이다.

특히 그 혐오의 감정이 그의 안에서 치솟아 올라 시시각각 더 강해졌다. 그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궤짝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방에 들어가지조차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종의 공백이, 아니 몽롱함까지가 차츰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이따금 그는 제 자신을 잊었다, 아니 그보다는 중요한 것을 잊고 하찮은 것에 매달렸다. 그러다 부엌을 들여다보고 의자 위에 물이 반쯤 담긴 들통이 놓인 것을 보고서 그는 손과 도끼를 씻을 생각이 났다. 그의 손은 피로 끈적거렸다. 그는 날이 물에 잠기도록 도끼를 담그고 창턱의 깨진 접시에 놓인 비누 한 조각을 집어 들고는 들통에 손을 씻기 시작했다. 손이 깨끗해지자 그는 도끼를 꺼내 날을 씻고, 자루에 피가 튄 자리를 비누로 문질러 가며 오래도록, 삼 분쯤 씻었다. 그런 다음 부엌 빨랫줄에 널려 말라 가던 무슨 천으로 전부 닦아 내고는 창가에서 오래도록 도끼를 유심히 살폈다.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다만 나무만 아직 축축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끼를 외투 밑 올가미에 걸었다. 그러고는 어둑한 부엌 불빛으로나마 할 수 있는 만큼 제 외투와 바지와 장화를 살펴보았다. 언뜻 보아서는 장화에 얼룩이 있을 뿐 다른 것은 없는 듯했다. 그는 걸레를 적셔 장화를 문질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제대로 살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눈에 띄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생각에 잠겼다. 어둡고 괴로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 자기가 미쳤다는, 지금 이 순간 자기는 따질 수도 제 몸을 지킬 수도 없다는,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맙소사!」 그가 중얼거렸다. 「달아나야 한다, 달아나야 해.」 그러고는 현관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나 여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가 일찍이 겪어 본 적 없는 공포의 충격이었다.

그는 선 채로 바라보았고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으니, 문이, 층계로 통하는 바깥문이, 얼마 전 그가 초인종을 울리고 들어왔던 그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손바닥 한 뼘만큼이나 열려 있었다. 자물쇠도, 빗장도 없이, 그동안 내내, 그 모든 시간 동안! 노파가 어쩌면 조심 삼아 그의 뒤로 문을 닫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맙소사! 아니, 그는 그 뒤에 리자베타를 보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그녀가 어떻게든 들어왔으리라는 데 생각이 미치지 못했단 말인가! 그녀가 벽을 뚫고 들어왔을 리는 없지 않은가!

그는 문으로 달려들어 걸쇠를 걸었다.

「아니, 또 틀렸다! 나가야 한다, 나가야 해…….」

그는 걸쇠를 벗기고 문을 열고는 층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 귀를 기울였다. 어딘가 멀리서, 어쩌면 대문간에서 두 목소리가 크고 날카롭게 고함을 지르며 다투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저것들은 뭘 하는 건가?」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마침내 모든 것이, 갑자기 끊어지기라도 한 듯 조용해졌으니, 그들이 흩어진 것이었다. 그가 막 나가려는데 별안간 아래층에서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누군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쩌자고 다들 저렇게 소리를 내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닫고 기다렸다. 마침내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인기척이라고는 없었다. 그가 막 층계 쪽으로 한 걸음을 떼려는데 새로운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아주 멀리, 층계 맨 아래에서 났지만, 그는 첫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무슨 까닭인지 저것이 이리로, 4층으로, 노파에게 오는 누군가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기억했다. 어째서였을까? 그 소리에 무언가 유별나고 심상찮은 데가 있었던 것일까? 발소리는 무겁고 고르고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이제

그는 1층을 지났다, 이제 더 높이 올라오고 있다,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진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제 3층에 이르렀다. 여기로 오고 있다! 그러자 문득 그는 제 몸이 돌로 변한 것 같았고, 쫓기다가 거의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뿌리박힌 채 팔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꿈속 같았다.

마침내 그 낯선 자가 4층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그는 별안간 몸을 움찔하더니 용케도 날쌔고 재빠르게 그 집 안으로 도로 미끄러져 들어가 제 등 뒤로 문을 닫는 데 성공했다. 그러고는 걸쇠를 집어 살그머니, 소리 없이 고리에 걸었다. 본능이 그를 도왔다. 그것을 마치고 그는 숨을 죽인 채 문 옆에 웅크렸다. 낯선 방문객도 이제 문 앞에 와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었으니, 조금 전 그가 노파와 그렇게 마주 서 있던 때와, 문이 둘을 갈라놓고 있고 그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바로 그때와 꼭 같았다.

방문객은 몇 번 헐떡였다. 「덩치가 크고 뚱뚱한 자인 모양이군.」 라스콜니코프는 손에 쥔 도끼를 움켜쥐며 생각했다. 정말로 꿈만 같았다. 방문객은 초인종 줄을 잡고 요란하게 울렸다.

양철 초인종이 딸랑거리자마자 라스콜니코프는 방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을 느낀 것 같았다. 몇 초 동안 그는 자못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낯선 자가 다시 울리고 기다리다가 별안간 조급하고 난폭하게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라스콜니코프는 걸쇠가 그 고리 안에서 흔들리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고, 금세라도 그 고리가 뽑혀 나오고 말리라고 넋이 나간 채 시시각각 예상하고 있었다. 사내가 어찌나 세차게 흔들어 대는지 그것은 정말로 있을 법해 보였다. 그는 고리를 손으로 붙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그랬다가는 저쪽이 알아차릴 수도 있었다. 현기증이 다시 그를 덮쳤다. 「쓰러지겠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으나, 낯선 자가 입을 열기 시작하자 그는 곧 정신을 차렸다.

「어떻게 된 거야? 자는 건가, 누가 목 졸라 죽이기라도 했나? 비, 빌어먹을 것들!」 그가 걸걸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어이, 알료나 이바노브나, 이 늙은 마귀할멈!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인아! 문 열어! 아, 빌어먹을 것들! 자는 건가 뭔가?」

그러고는 다시 격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단숨에 열 번쯤 초인종을 잡아당겼다. 어지간히 위세 있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이인 것이 분명했다.

그때 멀지 않은 층계에서 가볍고 바쁜 발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설마 아무도 없는 건 아니겠죠.」 새로 온 사람이 여전히 초인종을 잡아당기고 있는 첫 번째 방문객에게 밝고 쟁쟁한 목소리로 외쳤다. 「안녕하세요, 코흐.」

「목소리로 보아 아주 젊은 자로군.」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귀신이나 알겠지! 자물쇠를 부술 지경일세.」 코흐가 대답했다. 「그런데 자네가 날 어떻게 아는가?」

「아니! 그저께 감브리누스에서 당구로 내리 세 판을 이겼잖아요.」

「오!」

「그럼 집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어쨌든 지독하게 맥 빠지는 노릇이군요. 이 노파가 어디로 갔을까요? 나는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러게, 나도 그 여자한테 볼일이 있네.」

「그럼 어쩌죠? 돌아가는 수밖에요, 아이 — 아이! 돈 좀 만지려고 했는데!」 젊은이가 소리쳤다.

「물론 포기해야겠지, 그런데 그 여자가 무엇 때문에 이번에 시각을 정해 준 건가? 그 늙은 마귀할멈이 제 입으로 나더러 오라고 시각을 잡아 놓고선. 여기가 내 길목도 아닌데 말일세. 대체 어디로 기어들어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그 늙은 할망구는 한 해가 가고 또 가도 여기 붙박여 앉아만 있고 다리도 성치 않은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별안간 바람을 쐬러 나갔다니!」

「수위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라고?」

「어디로 갔고 언제 돌아오는지요.」

「 흠……. 제기랄!…… 물어봐도 되겠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그 여자는 아무 데도 나가지 않는단 말일세.」

그러고는 다시 한번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제기랄. 어쩔 도리가 없군, 가야겠네!」

「잠깐만요!」 젊은이가 별안간 소리쳤다. 「당겨 보면 문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 저건 잠긴 게 아니라 걸쇠로 걸어 놨다는 뜻이에요! 걸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아니, 모르시겠어요? 저건 둘 중 하나가 집에 있다는 증거예요. 다들 나갔다면 안에서 걸쇠를 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열쇠로 문을 잠갔겠죠. 자, 걸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그러니까 저 안에 앉아서 문을 안 열어 주는 거라고요!」

「 이런!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 아닌가! 」 코흐가 놀라서 외쳤다. 「대체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는 미친 듯이 문을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젊은이가 다시 소리쳤다. 「당기지 마세요! 무언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보세요, 그렇게 초인종을 울리고 문을 잡아당겼는데도 안 열어 주잖아요! 그러니 둘 다 기절을 했거나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하죠. 가서 수위를 데려오죠, 그 사람더러 깨우게 하고요.」

「그러지.」

둘 다 내려가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여기 계세요, 내가 수위를 부르러 뛰어 내려갈 테니.」

「뭣 하러?」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지.」

「내가 예심판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분명해요, 분-명-하다고요, 여기 뭔가 잘못됐어요!」 젊은이가 열을 내어 외치고는 층계를 뛰어 내려갔다.

코흐는 남았다. 그는 다시 한번 살며시 초인종을 건드려 딸랑 소리를 한 번 냈고, 그런 다음 생각에 잠겨 둘레를 살피기라도 하듯 조심스레 문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그것이 걸쇠로만 걸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고는 씩씩거리며 몸을 굽혀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나, 열쇠가 안쪽에서 자물쇠에 꽂혀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라스콜니코프는 도끼를 꽉 쥐고 서 있었다. 그는 일종의 섬망 상태에 있었다. 그는 저들이 들어오면 싸울 채비까지 하고 있었다. 저들이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 버리고 문

너머로 저들에게 소리쳐 버릴까 하는 생각이 여러 차례 그에게 떠올랐다. 이따금 그는 저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저들에게 욕을 퍼붓고 저들을 비웃어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서 끝나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대체 저 녀석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흘렀다, 일 분, 또 일 분 — 아무도 오지 않았다. 코흐가 안절부절못하기 시작했다.

「에잇, 제기랄!…… 」 그가 별안간 외치더니 조바심에 제 보초 자리를 버리고 그 역시 서둘러 무거운 장화로 층계를 쿵쿵거리며 내려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맙소사! 어떻게 해야 하지?」

라스콜니코프는 걸쇠를 벗기고 문을 열었다 —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불쑥 그는 밖으로 나가 할 수 있는 한 문을 단단히 닫고 층계를 내려갔다.

세 층을 내려왔을 때 그는 별안간 아래쪽에서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 — 어디로 가야 하나! 숨을 곳이라고는 없었다. 그는 막 그 집으로 되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어이, 이 귀신 같은 놈, 제기랄! 거기 서!」

누군가 아래층 집에서 고함을 지르며 뛰쳐나와 층계를 달려 내려갔다기보다 굴러떨어지다시피 하면서 목청껏 악을 썼다.

「미트카! 미트카! 미트카! 미트카! 미트카! 이 망할 놈!」

고함은 비명으로 끝났고, 마지막 소리는 안마당에서 났으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러 사람이 크고 빠르게 떠들며 요란하게 층계를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넛은 되었다. 그는 젊은이의 쟁쟁한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저자들이다!」

절망에 휩싸인 채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곧장 그들을 향해 내려갔다. 저들이 그를 막아선다면 — 모든 것이 끝장이고, 저들이

그를 지나가게 둔다면 — 그 역시 모든 것이 끝장이었으니, 저들이 그를 기억할 것이었다. 저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저들과 그의 사이는 한 층밖에 남지 않았는데 — 별안간 구원이 나타났다!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오른쪽에 문이 활짝 열린 빈집이 있었으니, 페인트공들이 일하고 있던 2층의 그 집이었고, 마치 그를 위해 그러기라도 한 듯 그들이 막 자리를 비운 참이었다. 방금 고함을 지르며 뛰어 내려간 것은 틀림없이 그들이었다. 바닥은 막 칠해 놓은 참이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들통과 페인트와 붓이 담긴 깨진 단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한순간에 열린 문으로 쏙 들어가 벽 뒤에 몸을 숨겼는데 아슬아슬하게 때를 맞춘 것이었으니, 저들은 이미 층계참에 이르러 있었다. 그러고 나서 저들은 방향을 틀어 큰 소리로 떠들며 4층까지 올라갔다. 그는 기다렸다가 발끝으로 나와서 층계를 달려 내려갔다.

층계에도 대문간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는 빠르게 대문간을 지나 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저들이 그 집에 있다는 것을, 방금 걸어 잠갔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저들이 몹시 놀라고 있다는 것을, 지금쯤 저들이 시신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일 분도 채 지나기 전에 저들이 살인자가 방금까지 거기 있다가 용케 어딘가에 숨어 저들 곁을 빠져나가 달아났다는 것을 짐작하고 완전히 깨달으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저들은 아마 그가 자기들이 올라가는 동안 빈집에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감히 걸음을 크게 빨리하지 못했으니, 첫 모퉁이까지는 아직 백 걸음쯤 남아 있는데도 그랬다. 「어느 대문간으로 빠져 들어가 어느 낯선 층계에서 기다릴까? 안 된다, 가망 없다! 도끼를 던져 버릴까? 마차를 잡을까? 가망 없다, 가망 없다!」

마침내 골목이 나타났다. 그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몰골로 그리로 꺾어 들었다. 여기까지 오면 절반은 안전한 셈이었고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 사람이 엄청나게 붐벼 그가 모래알 하나처럼 그 속에 묻혀 버리므로 위험이 덜했다. 그러나 그가 겪은 모든 것이 그를 어찌나 약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는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다. 땀이 방울져 흘러내렸고 목덜미가 흠뻑 젖었다. 「이야, 어지간히 거나하구먼!」 운하 둑으로 나섰을 때 누군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는 이제 제 자신을 어렴풋이 의식할 뿐이었고, 갈수록 더 나빠졌다. 그러나 그는, 운하 둑으로 나섰을 때 거기 사람이 적어 그만큼 자기가 더 눈에 띈다는 데 놀랐고 되돌아갈까 생각했다는 것만은 기억했다.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는데도 그는 전혀 다른 쪽에서 집에 닿으려고 멀리 돌아갔다.

그는 제집 대문간을 지날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 도끼가 생각난 것은 벌써 층계에 올라선 뒤였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아주 중대한 일이 남아 있었으니, 도끼를 제자리에 돌려놓되 되도록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도끼를 아예 돌려놓지 않고 나중에 아무 집 마당에나 버리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물론 그가 따져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운 좋게 풀렸으니, 수위 방의 문은 닫혀 있었으나 잠겨 있지는 않아서 수위가 집에 있을 공산이 커 보였다. 그러나 그는 따져 볼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터라 곧장 그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만약 수위가 그에게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더라면 그는 어쩌면 그저 도끼를 건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위는 집에 없었고, 그는 도끼를 의자 밑 제자리에 돌려놓고 전처럼 장작 토막으로 덮어 두기까지 했다. 그 뒤로 제 방까지 가는 동안 그는 아무와도, 사람 하나 마주치지 않았고, 집주인의 문은 닫혀 있었다. 제 방에 들어서자 그는 입은 그대로 소파에 몸을 내던졌다 — 잠든 것은

아니었으나 텅 빈 망각 속으로 가라앉았다. 만약 그때 누가 그의 방에 들어왔더라면 그는 당장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생각의 부스러기와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그저 우글거리고 있었으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그중 하나도 붙잡을 수 없었고 그중 하나에 머무를 수도 없었다…….

---

1. 정교회에서는 세례 때 받은 작은 십자가를 끈에 꿰어 목에 걸고 평생 몸에 지니며, 흔히 작은 이콘을 함께 꿴다. 사이프러스(측백나뭇과의 향나무)는 그 십자가를 만드는 대표적인 재목이다.

2. 아르신 — 러시아의 길이 단위로 약 71센티미터. 영역자 가넷은 이를 영국 단위(야드)로 바꿔 옮겼다.

2부 1장

그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다. 이따금 잠에서 깨는 듯했고 그럴 때면 밤이 한참 깊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며, 마침내 이미 대낮처럼 환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도 그는 방금 전까지의 망각에서 아직 멍한 채로 반듯이 누워 있을 뿐이었다. 거리에서 무섭고 절망에 찬 비명이 날카롭게 솟아올랐는데, 실은 밤마다 두 시가 지나면 그의 창 밑에서 들려오던 소리였다. 그 소리가 지금 그를 깨웠다.

「아, 술꾼들이 술집에서 나오는구나.」 그는 생각했다. 「두 시가 지났군.」 그러고는 누가 소파에서 잡아끌기라도 한 듯 대번에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두 시가 지났다고!」

그는 소파에 앉았다 —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떠올랐다! 한꺼번에, 한 번의 섬광으로, 모든 것이 떠올랐다.

첫 순간 그는 자기가 미쳐 가고 있는 줄 알았다. 무시무시한 한기가 그를 덮쳤으나 그 한기는 잠든 사이 훨씬 전부터 시작된 열에서 온 것이었고, 이제 그는 별안간 격렬한 오한에 사로잡혀 이가 딱딱 부딪치고 사지가 온통 떨렸다. 그는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 집 안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제 자신과 방 안의 모든 것을 둘러보며, 어떻게 어젯밤에 문도 걸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옷도 벗지 않고 모자조차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내던질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모자는 벗겨져 베개 옆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누가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취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창가로 달려갔다. 빛은 충분했고, 그는 서둘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입고 있는 옷을 죄다 살피기 시작했다. 흔적은 없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니어서, 그는 오한에 떨면서 옷을 전부 벗고 다시 살피기 시작했고, 마지막 실오라기와 누더기 한 조각까지 모조리 뒤집어 보았으며, 제 자신을 믿지 못해 같은 수색을 세 번쯤 되풀이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듯했고, 흔적이라고는 단 한 군데, 바짓단이 해져 술처럼 늘어진 자리에 엉겨 붙은 핏자국이 짙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는 큼직한 접칼을 집어 들어 해진 실밥을 잘라 냈다. 그 밖에는 더 없는 듯했다.

문득 그는 노파의 궤에서 꺼내 온 지갑과 물건들이 아직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때까지 그것들을 꺼내 감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옷을 살피는 동안에도 그것들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게 무슨 꼴인가? 그는 당장 달려들어 그것들을 끄집어내 탁자 위에 내던졌다. 죄다 꺼내고 나서 남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주머니를 뒤집어 보기까지 한 다음, 그는 그 무더기를 통째로 구석으로 날랐는데, 그 벽 아래쪽에서는 벽지가 떨어져 너덜너덜 늘어져 있었다. 그는 벽지 밑 구멍에 물건을 죄다 쑤셔 넣기 시작했다. 「들어갔다! 전부 눈에 안 띄게, 지갑까지!」 그는 기쁘게 생각하며 일어나, 어느 때보다 불룩해진 구멍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별안간 그는 공포로 온몸을 떨었다. 「맙소사!」 그는 절망에 빠져 속삭였다. 「내가 왜 이러지? 저게 숨긴 건가? 저게 물건을 숨기는 방법인가?」

그는 장신구 따위를 숨겨야 하리라고는 계산에 넣지 않았었다. 돈만 생각했기 때문에 숨길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지금 내가 뭐가 기쁘다는 거지?」 그는 생각했다. 「저게 물건을 숨긴 건가? 정말이지 이성이 나를 버리고 있다!」

그는 기진해서 소파에 주저앉았고, 곧바로 또 한 차례 견딜 수 없는 오한에 흔들렸다. 그는 기계적으로 곁의 의자에서, 거의 누더기가 다 되었으나 아직 온기는 남아 있는 낡은 학생 겨울 외투를 끌어당겨 뒤집어썼고, 그러자 다시 졸음과 착란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

오 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두 번째로 벌떡 일어났고, 곧바로 미친 듯이 제 옷에 달려들었다.

「아무것도 해 놓지 않고 어떻게 또 잠이 들 수 있었지? 그래, 그래. 겨드랑이 밑의 올가미를 떼지 않았어! 잊고 있었다, 그런 것을 잊고 있었다니! 그런 증거를!」

그는 올가미를 뜯어내 서둘러 조각조각 찢고는 그 조각들을 베개 밑 속옷 사이에 쑤셔 넣었다.

「찢어진 헝겊 조각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심을 살 리 없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그렇게 되뇌었고, 고통스러운 집중력으로 다시 사방을, 바닥을, 어디든 둘러보며 잊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는지 확인하려 애썼다. 모든 능력이, 기억조차, 가장 단순한 사고의 힘조차 저를 저버리고 있다는 확신이 견딜 수 없는 고문이 되기 시작했다.

「설마 벌써 시작된 건 아니겠지! 설마 벌써 내 벌이 나에게 내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저기, 저기, 역시 그렇구나!」

바지에서 잘라 낸 해진 헝겊들이 정말로 방 한가운데 바닥에, 누가 들어오면 바로 보일 자리에 떨어져 있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다시 외쳤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머리에 들어왔다. 어쩌면 옷이 온통 피투성이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얼룩이 아주 많은데 자기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감각이 무너져 가고 산산이 부서지고 있어서…… 이성이 흐려져서……. 문득 그는 지갑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아! 그렇다면 주머니에도 피가 묻었겠구나, 젖은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순식간에 그는 주머니를 뒤집었고, 그렇다! — 흔적이, 주머니 안감에 얼룩이 있었다!

「그러니 이성이 아주 나를 버린 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챘으니 아직 분별도 기억도 남아 있는 거다.」 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기양양하게 생각했다. 「그저 열 때문에 약해진 것뿐이야, 한순간의 착란이야.」 그러고는 바지 왼쪽 주머니의 안감을 통째로 뜯어냈다. 바로 그 순간 햇빛이 그의 왼쪽 장화 위에 떨어졌다. 장화 밖으로 비어져 나온 양말에 흔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장화를 벗어 던졌다. 「흔적이 맞다! 양말 끝이 피에 흠뻑 젖었어.」 그 웅덩이를 조심성 없이 밟았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어쩐다? 양말과 헝겊과 주머니는 어디다 둔다?」

그는 그것들을 죄다 한 손에 그러모아 쥐고 방 한가운데 섰다.

「난로에? 하지만 저들은 무엇보다 먼저 난로를 뒤질 것이다. 태워? 하지만 무엇으로 태운단 말인가? 성냥조차 없는데. 아니야, 나가서 어디든 내다 버리는 게 낫다. 그래, 내다 버리는 게 낫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되뇌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꾸물거리지 말고……」

그러나 머리는 그 대신 베개 위로 떨어졌다. 다시 견딜 수 없는 얼음 같은 오한이 그를 덮쳤다. 다시 그는 외투를 끌어당겨 덮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몇 시간이나, 그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어디로든 나가서 그것을 죄다 던져 버리자, 눈에 안 띄게 없애 버리자, 당장, 당장!」 하는 충동에 시달렸다. 여러 번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일어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를 온전히 깨운 것은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열어, 어서, 죽었어 살았어? 이 사람은 여기서 잠만 잔다니까!」 나스타시야가 주먹으로 문을 쿵쿵 치며 소리쳤다. 「며칠씩 내리 개처럼 코를 골아 대지. 개가 따로 없어. 열라니까. 열 시가 넘었어.」

「집에 없는지도 모르지요.」 사내 목소리가 말했다.

「아! 수위 목소리다……. 저자가 뭘 원하는 거지?」

그는 벌떡 일어나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뛰는 것이 그대로 통증이었다.

「그럼 누가 문을 걸었겠어?」 나스타시야가 받아쳤다. 「제 몸을 가두고 자는 버릇까지 들었구먼! 누가 너를 업어 가기라도 한대! 열어, 멍청아, 일어나!」

「저들이 뭘 원하는 거지? 수위는 왜? 죄다 들통났다. 버틸까 열까? 될 대로 되라지!……」

그는 반쯤 몸을 일으켜 앞으로 수그리고 걸쇠를 벗겼다.

방이 어찌나 작은지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고도 걸쇠를 풀 수 있었다. 그렇다, 수위와 나스타시야가 거기 서 있었다.

나스타시야가 이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반항적이고 자포자기한 듯한 태도로 수위를 흘끗 보았고, 수위는 아무 말 없이 병 봉랍으로 봉한 잿빛 종이 한 장을 접은 채로 그에게 내밀었다.

「사무소에서 온 통지서요.」 그는 종이를 건네며 알렸다.

「무슨 사무소요?」

「 경찰서로 나오라는 소환장이지요, 뻔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무소인지야 아실 텐데.」

「경찰서요?…… 무슨 일로요?……」

「내가 그걸 어찌 압니까. 부르면 가는 거지.」

사내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방 안을 둘러보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이 사람 영락없이 병이 났네!」 나스타시야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수위가 잠깐 고개를 돌렸다. 「 어제부터 열이 났다니까.」 나스타시야가 덧붙였다.

라스콜니코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종이를 뜯지도 않은 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러니 일어나지 마.」 나스타시야는 그가 소파에서 발을 내리는 것을 보고 딱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아프면 가지 마. 그렇게 급할 것도 없어. 손에 든 건 뭐야?」

그는 내려다보았다. 오른손에는 바지에서 잘라 낸 조각들과 양말과 주머니 안감 나부랭이가 쥐여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는 그것들을 손에 그러쥔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그 일을 곰곰이 돌이켜 보다가 그는, 열에 들떠 반쯤 깨었을 때 이것들을 손에 꽉 그러쥐고는 그대로 다시 잠들어 버렸다는 것을 떠올렸다.

「 저 넝마 좀 봐, 저런 걸 주워 모아서는 보물이라도 쥔 것처럼 끌어안고 자다니……」

그러고는 나스타시야가 그 발작 같은 낄낄거림으로 넘어갔다.

그는 순식간에 그것들을 외투 밑으로 밀어 넣고 나스타시야에게 눈을 박았다. 그 순간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곧 붙들려 갈 사람을 저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으리라는 것만은 느꼈다. 「하지만…… 경찰은?」

「차나 좀 마시지! 응? 내가 가져다줄게, 좀 남았어.」

「아니요…… 갑니다. 지금 곧 가겠어요.」 그는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아니, 계단도 못 내려갈 텐데!」

「갈 거예요.」

「맘대로 해.」

나스타시야는 수위를 따라 나갔다.

그는 곧바로 밝은 데로 달려가 양말과 헝겊을 살폈다.

「얼룩이 있긴 한데 그리 눈에 띄지는 않는다. 죄다 흙이 묻고 문질러져서 이미 빛깔이 바랬다. 미리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나스타시야도 멀리서는 알아차리지 못했겠지, 다행히도!」 그러고 나서 그는 떨면서 통지서의 봉인을 뜯고 읽기 시작했다. 한참을 읽고 나서야 겨우 뜻이 들어왔다. 그날 아홉 시 반까지 구역 서장실로 출두하라는, 관할 경찰서의 평범한 소환장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지? 나는 경찰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리고 왜 하필 오늘인가?」 그는 괴로운 당혹 속에서 생각했다. 「하느님 맙소사, 그저 빨리 끝나기만 한다면!」

그는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려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 기도라는 생각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우스워서였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다. 「망했으면 망한 거지, 상관없다! 양말을 신을까?」 그는 문득 생각했다. 「신으면 먼지가 더 묻어서 흔적이 없어지겠지.」

그러나 신자마자 그는 혐오와 공포에 사로잡혀 다시 벗어 버렸다. 벗어 던지고 나서 다른 양말이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쳐 그는 그것을 다시 집어 들어 신었다 — 그러고는 다시 웃었다.

「전부 관습이다, 전부 상대적인 거다, 전부 형식일 뿐이다.」 그는 번개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나 그것은 마음의 맨 위 표면을 스쳐 갔을

뿐이었고,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자, 신었다! 결국 신고야 말았구나!」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곧 절망이 따라왔다.

「아니야, 이건 내게 너무 벅차다……」 그는 생각했다. 다리가 떨렸다. 「무서워서다.」 그는 중얼거렸다. 머리가 핑 돌고 열로 지끈거렸다. 「함정이다! 나를 꾀어내서 별안간 모든 걸로 걸고넘어지려는 거다.」 그는 계단으로 나서며 그렇게 곱씹었다 — 「무엇보다 나쁜 건 내가 거의 헛소리를 할 지경이라는 거야…… 무슨 바보 같은 거짓말을 불쑥 내뱉을지도 몰라……」

계단에서 그는 물건들을 벽 구멍에 그대로 둔 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내가 나간 사이에 뒤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도 모르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뚝 멈춰 섰다.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절망은, 굳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파멸의 냉소랄 것은 어찌나 깊었던지, 그는 손을 한 번 내젓고는 그대로 갔다. 「그저 끝나기만 한다면!」

거리는 또다시 견딜 수 없이 더웠다. 그 며칠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또다시 먼지와 벽돌과 회반죽, 또다시 가게와 선술집에서 풍기는 악취, 또다시 취한 사내들과 핀란드 행상들과 반쯤 부서진 삯마차들. 햇빛이 눈으로 곧장 쏟아져 들어 눈을 뜨고 내다보기가 아플 지경이었고, 그는 머리가 도는 것을 느꼈다 — 열이 있는 사람이 화창한 날 거리로 나섰을 때 으레 느끼는 그것이었다.

어제의 그 거리로 꺾어져 들어가는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그는 괴로운 불안 속에서 거리 아래쪽을 내려다보았고…… 그 집을 보았고…… 곧바로 눈을 돌려 버렸다.

「심문을 받으면 어쩌면 그냥 말해 버릴지도 모르겠다.」 경찰서에 가까워지면서 그는 생각했다.

경찰서는 4분의 1베르스타쯤[1] 떨어져 있었고, 최근에 새 건물 4층의 새 사무실로 옮겨 온 참이었다. 그는 예전 사무소에 한 번 잠깐 들른 적이 있었으나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대문으로 들어서다가 그는 오른쪽에서 계단 하나를 보았는데, 농사꾼 하나가 손에 장부를 들고[2] 마침 그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참이었다. 「수위겠지. 그러니 사무소는 여기다.」 그러고는 짐작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묻고 싶지 않았다.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죄다 털어놓자……」 그는 4층에 이르며 생각했다.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으며 더러운 물로 온통 질척거렸고, 각 층 셋집의 부엌이 계단 쪽으로 문을 내고 있는 데다 그 문들이 거의 하루 종일 열려 있어서 지독한 냄새와 열기가 들어차 있었다. 계단에는 장부를 옆구리에 낀 수위들이 오르내리고 순경들과 온갖 부류의 남녀가 붐비고 있었다. 사무실 문 또한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들어가 대기실에 멈춰 섰다. 거기에는 농사꾼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 역시 숨이 막히도록 더웠고, 새로 단장한 방에서 나는 갓 칠한 페인트와 삭은 기름의 메스꺼운 냄새가 배어 있었다.

잠시 기다리다가 그는 다음 방으로 더 들어가 보기로 했다. 방은 하나같이 작고 천장이 낮았다. 무서운 조급함이 그를 자꾸만 앞으로 끌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두 번째 방에서는 서기 몇이 앉아 글을 쓰고 있었는데 옷차림이 그보다 기껏해야 조금 나을 뿐이고 생김새도 어지간히 별난 자들이었다. 그는 그중 하나에게 다가갔다.

「뭐야?」

그는 받은 통지서를 내보였다.

「학생이오?」 사내가 통지서를 흘끗 보며 물었다.

「예, 전에 학생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를 쳐다보았으나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유난히 부스스한 자였고, 눈에는 한 가지 생각에 붙들린 사람의 빛이 있었다.

「 이자한테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겠군,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저기 수석 서기한테 가 보시오.」 서기가 가장 안쪽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 순서로 치면 네 번째 방이었다. 작은 방이었고 사람으로 꽉 차 있었는데, 바깥 방들보다는 옷차림이 나았다. 그중에 여자가 둘 있었다. 하나는 상복 차림의 초라한 여자로, 수석 서기 맞은편 탁자에 앉아 그가 부르는 대로 무언가를 받아 적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몹시 뚱뚱하고 살집 좋은 여자로, 자줏빛이 도는 붉은 얼굴에 얼룩이 져 있었고, 지나칠 만큼 화려하게 차려입고 가슴에는 받침 접시만 한 브로치를 달고서 한쪽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수석 서기에게 통지서를 들이밀었다. 서기는 그것을 흘끗 보고 「 잠깐 기다리시오 」 하고는 상복 입은 여자를 마저 상대했다.

그는 한결 편하게 숨을 쉬었다. 「그 일일 리가 없다!」

조금씩 그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라고 침착하라고 스스로를 거듭 다그쳤다.

「 어리석은 짓 하나, 사소한 부주의 하나로도 나는 나를 드러내고 만다! 흠…… 여기 공기가 없는 게 아쉽군.」 그는 덧붙였다. 「숨이 막혀……. 가뜩이나 도는 머리가 더 도는군…… 정신도……」

그는 무서운 내적 혼란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자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웠고, 무엇이든 붙들어 거기에 정신을 붙들어 매려고, 그것도 아주 상관없는 무언가에 붙들어 매려고 애썼지만 도무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수석 서기만은 그의 관심을 크게 끌어서, 그는 그를 꿰뚫어 보고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알아내기를 자꾸만 바랐다.

그는 아주 젊은 사내로 스물둘쯤 되어 보였고, 가무잡잡하고 잘 움직이는 얼굴은 나이보다 늙어 보였으며, 유행을 좇아 멋을 부린 차림에 뒤통수에 가르마를 타서 잘 빗어 기름을 바르고, 깨끗이 씻은 손가락에는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조끼에는 금줄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방에 있던 어느 외국인에게 프랑스어로 두어 마디 했는데, 꽤 정확하게 말했다.

「루이자 이바노브나, 앉으셔도 됩니다.」 그가 화려하게 차려입은 자줏빛 얼굴의 여자에게 무심하게 말했다. 여자는 옆에 의자가 있는데도 감히 앉지 못하겠다는 듯 여태 서 있었던 것이다.

「Ich danke.」[3]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비단 스치는 소리와 함께 사뿐히 의자에 내려앉았다. 흰 레이스로 단을 두른 하늘빛 드레스가 기구처럼 의자 둘레에 부풀어 올라 방의 거의 절반을 채웠다. 여자에게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러나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토록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여자는 분명 민망한 모양이어서, 그 미소는 뻔뻔하면서도 비굴했으나 거기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이 배어 있었다.

상복 입은 여자가 마침내 일을 마치고 일어섰다. 그때 별안간 얼마간 소리를 내며 장교 하나가 걸음마다 어깨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흔들면서 아주 거들먹거리며 걸어 들어와서는, 모표가 달린 제모를 탁자에 던지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화려한 차림의 여자는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펄쩍 뛰다시피 일어나 유난히 황홀해하며 무릎을 굽혀 절하기 시작했으나, 장교는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여자는 그가 있는 앞에서 감히 다시 앉지 못했다. 그는 중위로, 부서장이었다. 그는 얼굴 양옆으로 수평으로 뻗친 불그스름한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이목구비가 유난히

작아서 어느 정도의 오만함 말고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했다. 그는 라스콜니코프를 곁눈질로, 꽤 못마땅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는데, 그자는 옷차림이 너무나 형편없는데도 그 굴욕스러운 처지에 어울리지 않게 몸가짐이 옷차림과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라스콜니코프가 조심성 없이 그에게 아주 길고 곧은 눈길을 박아 놓는 바람에 그는 대놓고 모욕을 당한 기분이 되었다.

「무슨 일인가?」 그는 저런 누더기 같은 자가 제 번개 같은 눈길 앞에서 움츠러들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놀랍다는 듯 고함쳤다.

「 소환을 받아서…… 통지서를 받고…… 」 라스콜니코프가 더듬거렸다.

「받을 돈을 받아 내는 건입니다, 저 학생한테서요.」 수석 서기가 서류에서 몸을 떼며 황급히 끼어들었다. 「 여기! 」 그러고는 라스콜니코프에게 서류철을 던져 주며 한 자리를 짚어 보였다. 「그걸 읽어 보시오!」

「 돈? 무슨 돈? 」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 하지만…… 그렇다면…… 확실히 그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기쁨에 떨었다. 갑자기 강렬하고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가 밀려왔다. 등에서 짐이 벗겨졌다.

「그런데 몇 시에 출두하라고 쓰여 있던가, 선생?」 부서장이 무슨 까닭인지 점점 더 분해하는 기색으로 고함쳤다. 「 아홉 시라고 써 보냈는데 지금은 벌써 열한 시가 넘었어!」

「통지서는 십오 분 전에야 저한테 왔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어깨너머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제 자신도 놀랍게 그 역시 갑자기 화가 났고 거기서 어떤 쾌감마저 느꼈다. 「 열병에 걸린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함치지 말게!」

「 고함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말하고 있고, 나한테 고함을 지르는 건 그쪽입니다. 나는 학생이고, 누구에게도 고함을 듣지 않습니다.」

부서장은 어찌나 화가 났던지 처음 한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에서 침방울만 튀었다. 그는 자리에서 펄쩍 뛰어 일어났다.

「입 다-아-아물게! 여기는 관청이야. 건-건-건방 떨지 말게, 슨생!」

「 당신도 관청에 있습니다. 」 라스콜니코프가 외쳤다. 「 그런데 고함을 치는 데다 담배까지 피우고 있으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말할 수 없는 만족을 느꼈다.

수석 서기가 웃음을 띠고 두 사람을 보았다. 화가 난 부서장은 분명 말문이 막혔다.

「 그건 자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 그가 마침내 부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외쳤다. 「 요구받은 진술서나 쓰게. 저자한테 보여 주게, 알렉산드르 그리고리예비치. 자네를 걸어 고소가 들어와 있어! 빚을 갚지 않는다는군! 어디서 이런 잘난 매가 날아들었나!」

그러나 라스콜니코프는 이제 듣고 있지 않았고, 설명을 찾으려는 조급함으로 서류를 냉큼 붙들어 한 번 읽고 두 번 읽었으나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그가 수석 서기에게 물었다.

「 차용증에 따른 채권 추심, 곧 지급 청구입니다. 귀하는 비용과 소송비 일체를 포함해 갚든지, 아니면 언제 갚을 수 있는지 서면으로 진술하고 동시에 갚기 전에는 수도를 떠나지 않으며 재산을 팔거나 감추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귀하의 재산을 팔 수 있고 법에 따라 귀하를 상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여기, 법적으로 공증되고 지급기가 된 백십오 루블짜리 차용증이 추심을 위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귀하가 아홉 달 전에 8등관[4] 자르니친의 미망인에게 써 준 것을, 그 자르니치나 미망인이 지불 대신 7등관 체바로프 씨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로 귀하를 소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하숙집 주인입니다!」

「하숙집 주인이면 어떻다는 겁니까?」

수석 서기는 너그럽게 딱하다는 듯한 미소를 띠고, 동시에 어떤 승리감을 담아, 처음으로 포화를 겪는 신병을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 「자, 이제 기분이 어떤가?」 하고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차용증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고 지급 청구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금 그런 것이 걱정할 값어치가 있는가, 눈길 한 번 줄 값어치라도 있는가! 그는 서 있었고, 읽었고, 들었고, 대답했고, 스스로 묻기까지 했지만 전부 기계적이었다. 압도적인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구원의, 안전의 의기양양한 감각, 그것이 그 순간 그의 영혼 전체를 채우고 있었고 거기에는 앞일에 대한 생각도, 분석도, 억측도 추측도, 의심도 물음도 없었다. 그것은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순전히 동물적인 기쁨의 한순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무실 안에서 천둥 번개 같은 일이 벌어졌다. 라스콜니코프의 무례에 아직도 흔들린 채 씩씩거리며 상한 위신을 어떻게든 세우고 싶어 하던 부서장이, 들어올 때부터 줄곧 더없이 멍청한 미소를 띠고 그를 바라보고 있던 그 딱한 화려한 차림의 여자에게 달려든 것이었다.

「이 뻔뻔한 계집!」 그가 별안간 목청껏 고함쳤다. (상복 입은 여자는 사무실을 떠난 뒤였다.) 「어젯밤 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응! 또 추태를 부렸어, 네가 온 거리의 망신거리야. 또 싸움질에 술판이지.

교화소에 가고 싶은가? 내가 열 번은 일렀지, 열한 번째는 봐주지 않겠다고! 그런데 또, 또, 이…… 이……!」

서류가 라스콜니코프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그토록 함부로 다루어지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를 얼빠진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그는 영문을 알아차렸고 곧바로 이 소동에서 분명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서, 즐겁게 귀를 기울였고 어찌나 즐거운지 웃고 또 웃고 싶었다…… 신경이란 신경이 죄다 곤두서 있었다.

「일리야 페트로비치!」 수석 서기가 걱정스레 입을 떼다가 말을 삼켰으니, 격분한 보좌는 힘으로 누르지 않는 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화려한 차림의 여자로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 폭풍 앞에서 정말로 떨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쏟아지는 욕설이 많아지고 거세질수록 그 얼굴은 더 상냥해졌고, 그 무서운 보좌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미소는 더 교태스러워졌다. 여자는 제자리에서 종종거리며 몸을 움직였고 쉴 새 없이 무릎을 굽혀 절했으며, 한마디 끼워 넣을 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틈을 찾아냈다.

「우리 집에서는 소란도 싸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위님.」 여자는 콩알 쏟아지듯 단숨에 조잘대기 시작했다. 러시아어는 독일 억양이 짙게 묻어날 뿐 거침이 없었다. 「추태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 나리께서 취해서 오신 거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위님, 제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점잖은 집이고요, 대위님, 몸가짐도 점잖고요, 대위님, 저는 언제나, 언제나 추태라면 제가 먼저 질색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얼근해서 오시더니 또 세 병을 달라고 하시고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발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셨는데, 그건 점잖은 집에서 할 일이 전혀 아니고요, 게다가 ganz[5] 피아노를 부수셨고, 그건 정말이지 너무나 못된 버릇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병을 집어 들고 그것으로 모두를 뒤에서 쿡쿡 찌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위를 불렀고 카를이 왔는데, 그분이 카를을 붙잡아 눈을 때리셨고요, 헨리에테의 눈도 때리셨고, 제 뺨은 다섯 대를 때리셨습니다. 점잖은 집에서 그건 너무나 상스러운 짓이라 대위님,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운하 쪽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새끼 돼지처럼 꽥꽥거리셨습니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지요. 거리로 난 창에서 새끼 돼지처럼 꽥꽥거리다니! 망측하기도 하지! 그래서 카를이 뒤에서 연미복 자락을 잡고 그분을 창에서 끌어냈는데, 그때 정말로, 대위님, sein rock[6]이 찢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손해배상으로 십오 루블을 man muss[7] 물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대위님, sein rock 값으로 오 루블을요. 그분은 상스러운 손님이고 그 소동을 죄다 일으킨 분입니다. 『당신 일을 커다란 풍자로 찍어 내겠다』고 하시더군요, 『당신에 대해 모든 신문에 써 보낼 수 있으니까』 하고요.」

「그럼 그자가 저술가였다는 건가?」

「예, 대위님, 그런데 점잖은 집에 그런 상스러운 손님이라니…….」

「 그래, 그래, 그래! 됐어! 내가 말했지, 말했어, 분명히 말했잖나……」

「일리야 페트로비치!」 수석 서기가 뜻을 담아 되풀이했다.

보좌가 재빨리 그를 흘끗 보았다. 수석 서기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 …… 그러니 자네한테 이 말을 해 두겠네, 더없이 존경스러운 라비자 이바노브나,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일세.」 보좌가 말을 이었다. 「그 점잖은 집에서 또 한 번 추태가 벌어지면 자네를, 점잖은 자리에서 부르는 말로 하자면 유치장에 처넣겠네. 알아들었나? 그래, 문인이라는 자가, 저술가라는 자가 『점잖은 집』에서 제 웃옷 자락 값으로 오 루블을 받아 갔다고? 훌륭한 족속이야, 이 저술가라는 것들은!」

그러고는 그는 경멸 어린 눈길을 라스콜니코프에게 던졌다. 「그저께는 음식점에서도 추태가 있었지. 저술가라는 자가 밥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으려 들면서 『너희를 풍자로 써 주겠다』고 했다는군. 지난주에는 또 그런 자가 기선에서 어느 5등관의 점잖은 가족한테, 부인과 따님한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퍼부었고. 요전 날에는 또 그런 자가 과자점에서 쫓겨났지. 다들 그런 족속이야, 저술가니 문인이니 학생이니 나발쟁이니……. 쳇! 자넨 가 보게! 내가 언제 한번 자네 집을 직접 들여다보겠네. 그때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들었나?」

루이자 이바노브나는 허둥지둥 굽신거리며 사방으로 무릎을 굽혀 절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절을 하며 문까지 물러갔다. 그러나 문간에서 여자는 뒷걸음질 치다가, 싱싱하고 트인 얼굴에 숱 많은 금빛 구레나룻이 훌륭한 잘생긴 장교와 부딪쳤다. 바로 그 구역의 서장인 니코딤 포미치였다. 루이자 이바노브나는 서둘러 거의 땅에 닿도록 무릎을 굽혀 절하고는 깡충거리듯 종종걸음을 쳐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또 우르릉 쾅, 또 천둥 번개에 회오리바람에 태풍이로군!」 니코딤 포미치가 일리야 페트로비치에게 정중하고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또 달아올랐군, 또 씩씩거리고 있어! 계단에서부터 들리던데!」

「뭘요!」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신사다운 무심함으로 말했다(그것도 그냥 「뭘요」가 아니라 「뭐-얼요-오!」 하고 늘여서). 그러고는 서류 몇 장을 들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쪽 어깨를 보란 듯이 흔들면서 다른 탁자로 걸어갔다. 「자, 좀 보십시오. 저술가라는 자가, 아니면 적어도 학생이었다는 자가, 빚을 갚지 않고, 차용증을 써 주고도, 방을 비우지 않고, 끊임없이 고소를 당하면서, 여기서는 제가 그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항의를 하셨답니다! 자기는 비-비-비열하게 굴면서 말입니다. 어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신사분,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 가난은 죄가 아니지요, 이보시오. 그런데 화약처럼 확 터지는 성미인 것은 우리도 압니다. 업신여김을 못 견디는 게지요. 짐작건대 무언가에 성이 나서 그쪽이 먼저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 니코딤 포미치가 라스콜니코프를 향해 다정하게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점에서는 틀렸습니다. 저 사람은 더-어-없이 고-오-귀-이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다만 화약이지요, 화약! 확 달아오르고, 끓어오르고, 타 버리면 그만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지요! 그리고 속은 황금 같은 사람입니다! 연대에서 저 사람 별명이 『 화약 중위 』였다니까요…….」

「 그 여-여-연대가 또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이 유쾌한 농담에 크게 흡족해하면서도 여전히 뚱한 채로 외쳤다.

라스콜니코프는 문득 그들 모두에게 유난히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실례합니다, 대위님.」 그가 별안간 니코딤 포미치를 향해 스스럼없이 입을 열었다. 「 제 처지를 좀 헤아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를 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학생이고, 병들고 가난에 짓부서졌습니다(짓부서졌다는 것이 그가 쓴 말이었다). 지금은 제 몸 하나 건사할 수 없어 공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돈은 생길 겁니다……. 제게는 —— 현에 어머니와 누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내 줄 것이고 그러면 갚겠습니다. 하숙집 주인은 마음씨 좋은 사람입니다만, 제가 가정교사 자리를 잃고 넉 달째 돈을 내지 못하니 어찌나 화가 났던지 끼니조차 올려보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용증이라는 것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차용증으로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무엇으로 갚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지요.」 수석 서기가 한마디 하려 했다.

「 예,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 라스콜니코프가 다시 끼어들었다. 여전히 니코딤 포미치를 향하고 있었지만 일리야 페트로비치에게도 힘껏 말을 걸어 보려 했는데, 그자는 서류를 뒤적이며 그를 경멸하듯 안중에도 없다는 시늉을 끈질기게 하고 있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온 뒤로 줄곧 그 집에 산 지 삼 년쯤 되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니, 고백하지 못할 것도 없지요, 맨 처음에 저는 그 집 딸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고, 제 발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처녀였고…… 사실 저는 그 아가씨가 좋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지만…… 요컨대 젊은 날의 일이었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시절에 주인이 제게 외상을 후하게 주었고 저는 얼마간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제가 아주 경솔했다는 것입니다……」

「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는 아무도 묻지 않았네, 선생, 우리는 한가하지 않아.」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거칠게, 승리감이 배인 투로 끼어들었다. 그러나 라스콜니코프는 열을 내어 그를 가로막았다. 말하기가 별안간 지독히 힘들어졌는데도 그랬다.

「 하지만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는 것은 제 몫입니다…… 제 차례에서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건 불필요하지요. 그런데 일 년 전에 그 처녀가 티푸스로 죽었습니다. 저는 전처럼 그 집에 계속 세 들어 있었고, 주인이 지금 사는 곳으로 옮길 때 저한테 말하더군요…… 그것도 다정하게…… 저를 아주 믿지만 그래도 제가 진 빚 전부인 백십오 루블짜리 차용증을 하나 써 주지 않겠느냐고요. 그것만 써 주면 얼마든지 다시 외상을 주겠다고, 그리고 결코, 결코 — 그건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

제가 스스로 갚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차용증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정교사 자리를 잃고 먹을 것도 없게 되자 저를 걸어 소송을 낸 겁니다. 여기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 이 감동적인 사연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선생. 」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무례하게 잘랐다. 「자네는 서면으로 서약을 해야 하네. 연애 사건이니 이 비극적인 일들이니 하는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 이보게…… 자네 너무 심하군. 」 니코딤 포미치가 탁자에 앉아 자기도 서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는 조금 부끄러운 표정이었다.

「쓰시오!」 수석 서기가 라스콜니코프에게 말했다.

「무엇을 씁니까?」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쓰시오.」

라스콜니코프는 제 연설이 끝난 뒤로 수석 서기가 자기를 더 함부로, 더 경멸하듯 대한다고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별안간 누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완전히 아무래도 좋아졌고, 이 돌변은 섬광처럼, 한순간에 일어났다.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자기가 불과 일 분 전에 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제 감정을 억지로 떠맡기듯 말했다는 데 정말로 경악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감정은 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이제는 이 방이 경찰관들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들 그는 그들에게 건넬 인간의 말 한마디를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괴롭고 영원한 고독과 격절의 음울한 감각이 그의 영혼 안에서 또렷한 형태를 갖추었다. 일리야 페트로비치 앞에서 감상을 쏟아 놓은 제 자신의 비루함도, 그 앞에서 저자가 거둔 승리의 비루함도 마음속의 이 갑작스러운 돌변을 일으킨 원인은 아니었다. 아, 이제 그에게 제

비열함이, 이 모든 하찮은 허영이, 장교들이, 독일 여자들이, 빚이, 경찰서가, 기타 등등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 순간 화형에 처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해도 그는 꿈쩍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선고를 끝까지 듣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무언가 전적으로 새롭고 갑작스럽고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감각의 온 강렬함으로 또렷이 느꼈다. 이 경찰서의 이 사람들에게 방금 전의 그 발작 같은 감상으로든 그 무엇으로든 다시는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들이 경찰관이 아니라 제 친형제자매였다 하더라도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저들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그토록 기이하고 그토록 무서운 감각을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 그것이 관념이나 생각이라기보다 감각이었다는 것, 직접적인 감각이었다는 것, 그가 평생 알아 온 모든 감각 가운데 가장 괴로운 감각이었다는 것이다.

수석 서기는 지불할 수 없다는 것, 뒷날 지불하겠다는 것, 도시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 재산을 팔지도 남에게 주지도 않겠다는 것 따위의 통상적인 진술서 서식을 그에게 받아쓰게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글씨를 못 쓰겠군, 펜도 제대로 못 쥐지 않소.」 수석 서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라스콜니코프를 보며 말했다. 「어디 아프시오?」

「예, 어지럽습니다. 계속하시지요!」

「그게 다요. 서명하시오.」

수석 서기는 종이를 받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러 돌아섰다.

라스콜니코프는 펜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일어나 나가는 대신 그는 탁자에 팔꿈치를 대고 두 손으로 머리를 짚었다. 머리뼈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다. 지금 당장 일어나 니코딤 포미치에게 가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마지막 하나까지 죄다 말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제 하숙으로 가서 구석의 구멍 속

물건들을 보여 주자는 것이었다. 그 충동이 어찌나 강했던지 그는 그것을 실행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 생각해 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짐을 벗어 버리는 게 낫다.」 그러나 그는 별안간 그 자리에 뿌리박힌 듯 멈춰 섰다. 니코딤 포미치가 일리야 페트로비치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둘 다 풀려날 걸세. 우선 그 이야기가 통째로 앞뒤가 맞지 않아. 저들이 한 짓이라면 무엇 하러 수위를 불렀겠나? 제 발로 고발하려고? 아니면 눈속임으로? 아니, 그건 너무 교활하지! 게다가 학생 페스트랴코프는 들어갈 때 수위 둘과 동네 여자 하나한테 대문에서 목격됐어. 친구 셋과 함께 걸어왔고 그 친구들은 대문에서 헤어졌는데, 그자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수위들에게 거처를 물었네. 그런 목적으로 가는 자가 거처를 묻겠나? 코흐로 말하자면 노파에게 올라가기 전에 아래층 은세공점에서 삼십 분을 보냈고, 정확히 여덟 시 십오 분 전에 거기서 노파에게 올라갔어. 자, 생각해 보게……」

「하지만 실례합니다, 그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들은 문을 두드렸는데 잠겨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삼 분 뒤 수위와 함께 올라가 보니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세. 살인자가 거기 있다가 안에서 빗장을 걸었던 게 틀림없어. 코흐가 얼간이처럼 저까지 수위를 찾으러 내려가지만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붙잡았을 걸세. 그자는 그 틈을 타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떻게든 그들 옆을 빠져나간 거야. 코흐는 연신 성호를 그으면서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그자가 뛰쳐나와 도끼로 나를 죽였을 거요』 하고 말한다더군. 러시아식 감사 기도[8]를 올릴 참이라지, 헤헤!……」

「그런데 살인자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못 봤을 만도 하지요. 그 집은 영락없는 노아의 방주니까요.」 듣고 있던 수석 서기가 말했다.

「분명하네, 아주 분명해.」 니코딤 포미치가 열을 내어 되풀이했다.

「아닙니다, 전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굽히지 않았다.

라스콜니코프는 모자를 집어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으나 거기 닿지 못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 오른쪽에서 그를 부축하고 있었으며, 다른 누군가는 왼쪽에 서서 누런 물이 담긴 누르스름한 유리잔을 들고 있었고, 니코딤 포미치가 앞에 서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가 아픈 겁니까?」 니코딤 포미치가 꽤 날카롭게 물었다.

「서명할 때도 펜을 제대로 못 쥐었습니다.」 수석 서기가 제자리로 물러앉아 다시 일을 붙들며 말했다.

「앓은 지 오래됐나?」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제자리에서 외쳤다. 그 역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물론 이 병자가 쓰러졌을 때 보러 오기는 했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자 곧바로 제자리로 물러났던 것이다.

「어제부텁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중얼거리며 대답했다.

「어제 밖에 나갔나?」

「예.」

「아픈 몸으로?」

「예.」

「몇 시에?」

「저녁 일곱 시 넘어서요.」

「그래, 어디를 갔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거리를 따라서요.」

「짧고 분명하군.」

라스콜니코프는 손수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날카롭게, 뚝뚝 끊어 대답했고, 검고 열에 들뜬 눈을 일리야 페트로비치의 응시 앞에서 조금도 내리지 않았다.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자네는……」 니코딤 포미치가 입을 떼려 했다.

「괜-찮-습니다!」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어딘가 묘한 투로 말했다.

니코딤 포미치는 무어라 더 따지려 했으나, 자기를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수석 서기를 흘끗 보고는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좋네, 그럼.」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말을 맺었다. 「더 붙들지 않겠네.」

라스콜니코프는 나왔다. 그가 나가자 열띤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그중에서도 니코딤 포미치의 캐묻는 목소리가 솟아올랐다. 거리로 나오자 그는 완전히 정신이 들었다.

「수색이다, 수색이야, 당장 수색이 있을 거다!」 그는 집으로 서둘러 가며 되뇌었다. 「날강도 같은 놈들! 저들이 의심하고 있다!」

아까의 공포가 다시 그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로잡았다.

---

1. 베르스타는 러시아의 거리 단위로 약 1.07킬로미터. 4분의 1베르스타는 270미터쯤이다.

2. 제정 러시아의 집집마다 수위가 관리하던 거주 등록 장부. 세입자의 신원과 출입을 적어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으므로 수위들은 이 장부를 끼고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3. Ich danke — 독일어로 「고맙습니다」.

4. 8등관(assessor, 콜레즈스키 아세소르) — 제정 러시아 관등표 14등급 가운데 8등. 마르멜라도프의 9등관보다 한 등급 위다.

5. ganz — 독일어로 「완전히」.

6. sein rock — 독일어로 「그의 웃옷」. 저본이 소문자로 적은 철자를 그대로 둔다.

7. man muss — 독일어로 「~해야 한다」.

8. 정교회의 몰레벤(молебен). 특정한 청원이나 감사를 위해 따로 올리는 짧은 기도 예배로, 화를 면한 사람이 흔히 청해 올렸다.

2부 2장

「 만일 벌써 수색이 있었다면? 만일 지금 방에서 그자들과 딱 마주친다면?」

그러나 방은 여기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나스타시야조차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맙소사! 어떻게 그 물건들을 전부 그 구멍 속에 놓아두고 갈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구석으로 달려가 벽지 밑으로 손을 밀어 넣고 물건들을 끄집어내어 주머니마다 채워 넣었다. 물건은 모두 여덟 개였다. 귀고리인지 그 비슷한 것인지가 든 작은 상자 둘,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작은 가죽 상자 넷. 그저 신문지에 싼 사슬이 하나 있었고, 역시 신문지에 싼 또 하나는 훈장 같아 보였다……. 그는 그것들을 외투의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그리고 바지의 남은 오른쪽 주머니에 나누어 넣으며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지갑도 챙겼다. 그러고는 방을 나섰는데, 이번에는 문을 아예 활짝 열어 둔 채였다. 그는 빠르고 단호하게 걸었고,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으나 정신만은 또렷했다. 그는 추적이 두려웠고, 반 시간 뒤면, 어쩌면 십오 분 뒤면 자기를 뒤쫓으라는 지시가 내려질까 봐 두려웠으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전에 모든 흔적을 감추어야 했다. 아직 힘이, 생각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 두어야 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다. 「운하에 던져 버리면 흔적은 전부 물속에 묻히고 일은 끝난다.」 그는 헛소리를 하던 그 밤에, 몇 번이고 일어나 나가서 서둘러 이 모든 것을 치워 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 그렇게 정했다. 그러나 치워 버리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예카테리닌스키운하의 둑을 따라 반 시간 남짓 헤매면서 물가로 내려가는 계단을 몇 번이나 바라보았으나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계단 끝에 뗏목이 대어져 있고 그 위에서 아낙들이 빨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배들이 매여 있고 사람들이 사방에 우글거렸다. 게다가 양쪽 둑 어디에서나 그가 보이고 눈에 띌 수 있었으니, 사내가 일부러 내려가 멈춰 서서 무언가를 물에 던진다면 수상쩍게 보일 것이었다. 그리고 만일 상자들이 가라앉지 않고 떠오른다면? 아니, 틀림없이 떠오를 것이었다. 누구나 보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마주치는 사람마다 달리 할 일이라곤 그를 지켜보는 것밖에 없다는 듯 그를 빤히 보고 돌아보는 것만 같았다. 「어째서지, 아니면 내 착각인가?」 그는 생각했다.

마침내 네바강으로 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으니, 거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덜 눈에 띌 것이고 여러모로 더 편할 것이며, 무엇보다 더 멀었다. 이 위험한 반 시간을 걱정과 불안 속에 헤매면서 어째서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그는 의아했다. 게다가 그 반 시간을, 꿈결에, 헛소리 속에서 한 번 그렇게 정해졌다는 이유 하나로 터무니없는 일에 허비한 것이다! 그는 지독하게 멍해지고 잘 잊게 되었으며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정말이지 서둘러야 했다.

그는 V—— 대로를 따라 네바강 쪽으로 걸었으나, 가는 길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왜 네바강인가? 왜 물속인가? 차라리 아주 멀리 어디로, 다시 섬들로라도 가서 인적 없는 곳에, 숲속 덤불 밑에 이것을 전부 묻고 나무에 표시라도 해 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또렷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느끼면서도 그 생각은 그에게 틀림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리로 가게 되어 있지 않았다. V —— 대로에서 광장 쪽으로 나오다가 그는 왼쪽에, 창 하나 없는 두 벽 사이로 안뜰로 이어지는 통로를 보았던 것이다. 오른쪽으로는 회칠도 하지 않은 4층 집의 민 벽이 안뜰 깊숙이 뻗어 있었고, 왼쪽으로는 널빤지 울타리가 그와 나란히 스무 걸음쯤 안뜰로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급히 꺾였다. 거기는 무슨 자재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울로 막힌 외진 자리였고, 안뜰 끝에서는 어느 작업장의 일부인 듯한, 나지막하고 검게 그을린 돌 헛간의 모퉁이가 울타리 뒤로 내다보였다. 마차를 만드는 곳이거나 철물공의 작업장이거나 그 비슷한 곳인 모양이었고, 입구에서부터 온통 석탄 먼지로 시커멨다. 여기가 던져 버릴 자리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는 슬쩍 들어섰고, 대문 가까이에 수채가 있는 것을 곧 보았는데 일꾼이나 마부가 많이 드나드는 뜰에 흔히 놓아두는 그런 것이었다. 그 위 울타리에는 해묵은 익살이 분필로 갈겨져 있었다. 「여기 서 잇는 거슬 엄금함.」 오히려 잘된 일이었으니, 그가 들어가는 데 수상할 것이 없어진 셈이었다. 「여기다 전부 한 무더기로 던져 놓고 가 버리면 된다!」

이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한 번 더 둘러보다가 그는 바깥벽에 붙어, 입구와 수채 사이, 그 틈이 통틀어 한 아르신[1] 너비밖에 안 되는 자리에 놓인, 무게가 아마 한 푸드 반[2]쯤 되었을 다듬지 않은 큰 돌 하나를 보았다. 벽 저쪽은 거리였다. 그 근처에 늘 많은 행인들의 소리가 들렸으나 누군가 거리에서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입구에서 그가 보일 리는 없었고, 하기야 그런 일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서둘러야 했다.

그는 돌 위로 몸을 굽혀 윗부분을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뒤집었고, 돌 밑 땅에는 작은 구덩이가 있어 그는 곧바로 주머니를

그 속에 비웠다. 지갑이 맨 위에 놓였는데도 구덩이는 다 차지 않았고, 그러고서 그는 다시 돌을 붙잡아 한 번에 되돌려 놓았는데 돌은 아주 조금 높아졌을 뿐 도로 같은 자리에 놓였다. 그러나 그는 둘레의 흙을 긁어모으고 가장자리를 발로 눌러 다졌다.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고서 그는 나와 광장으로 들어섰다. 경찰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강렬한, 거의 견딜 수 없는 기쁨이 한순간 그를 휩쓸었다. 「흔적을 묻어 버렸다! 그리고 누가, 누가 저 돌 밑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겠나? 저 돌은 십중팔구 집이 세워진 뒤로 줄곧 저기 누워 있었고 앞으로도 그만큼 더 누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찾아낸다 한들 누가 나를 떠올리겠나? 다 끝났다! 단서는 없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그렇다, 그는 신경질적이고 잘게 끊기는, 소리 없는 웃음을 길게 웃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했고, 광장을 가로지르는 내내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전 그 처녀를 마주쳤던 K—— 가로수길에 이르자 웃음이 별안간 그쳤다. 다른 생각들이 마음속으로 기어들었다. 처녀가 가 버린 뒤 자기가 앉아 곰곰이 생각했던 그 벤치 앞을 지나가는 일이 역겨우리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십 코페이카를 주었던 그 구레나룻 순경을 마주치는 일도 끔찍하리라는 생각이 한꺼번에 들었다. 「빌어먹을 놈!」

그는 성나고 얼떠 있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걸었다. 이제 그의 모든 생각이 어떤 주된 한 점을 맴도는 것 같았고, 그는 정말로 그런 주된 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자기가 그 점과 마주 선 채 남겨졌다는 것을 — 게다가 실로 최근 두 달 동안 처음으로 — 느꼈다.

「다 빌어먹어라!」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문득 생각했다. 「시작됐으면 시작된 거다. 새 삶이라니, 집어치워라! 맙소사,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그리고 오늘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던가! 저 형편없는 일리야 페트로비치에게 얼마나 비굴하게 알랑거렸던가! 그러나 그것도 전부 어리석은 짓이다! 그자들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며 내가 알랑거린 것이야 또 무슨 상관인가! 그것이 아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다!」

별안간 그는 멈춰 섰다. 새롭고 전혀 뜻밖이며 지극히 단순한 물음 하나가 그를 당혹스럽게 하고 쓰라리게 어지럽혔다.

「만일 이 모든 일을 정말로 얼빠지게가 아니라 작정하고 한 것이라면, 만일 너에게 정말로 확실하고 단단한 목적이 있었다면, 어째서 너는 지금까지 지갑 속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네가 무엇을 손에 넣었는지도 모른단 말인가, 그것 때문에 온갖 고통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이 비열하고 더럽고 천한 짓을 작정하고 떠맡았는데? 게다가 너는 방금 그 지갑을, 역시 아직 보지도 않은 물건들과 함께 물에 던져 버리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건 또 어떻게 된 건가?」

그렇다, 그랬다, 전부 그랬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전에도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물음이 아니었으니, 그 밤에 물에 던지기로 정해졌을 때에도, 망설임도 반문도 없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듯, 달리 될 수는 없다는 듯 그렇게 정해졌던 것이다……. 그렇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제 그가 궤짝 앞에 앉아 보석 상자들을 끄집어내던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 그랬다.

「내가 몹시 아프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가 침울하게 단정했다. 「나는 나 자신을 들볶고 괴롭혀 왔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제도 그저께도 이 내내 나는 나를 괴롭혀 왔다……. 나으면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영영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맙소사, 이 모든 것에 진저리가 난다!」

그는 쉬지 않고 걸었다. 그는 무엇으로든 기분을 돌리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에 손을 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새로운, 압도적인 감각이 순간순간 점점 더 그를 지배해 갔으니, 그것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거의 육체적인 혐오였고, 고집스럽고 악의에 찬 증오의 감정이었다. 마주치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역겨웠으니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몸짓이, 그들의 손짓이 역겨웠고, 누가 그에게 말이라도 걸었다면 침을 뱉거나 물어뜯었을 것 같았다…….

바실리옙스키섬의 다리 가까이, 작은 네바강 둑으로 나왔을 때 그는 문득 멈춰 섰다. 「아니, 그가 여기 저 집에 살지.」 그는 생각했다. 「이게 뭐야, 내가 제 발로 라주미힌한테 와 버렸잖아! 또 그때와 똑같은 일이다……. 그래도 꽤 궁금하군. 일부러 온 건가, 아니면 그저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건가? 아무래도 좋다. 그저께 나는 그다음 날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래, 그러면 가겠다! 이제 와서 들르지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그는 5층에 있는 라주미힌의 방으로 올라갔다.

라주미힌은 제 다락방에 있었고 마침 무언가를 부지런히 쓰고 있다가 손수 문을 열어 주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지 못한 지 넉 달째였다. 라주미힌은 다 해진 실내복 차림으로 맨발에 슬리퍼를 꿰고 앉아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은 꼴이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떠올라 있었다.

「 너야? 」 그가 소리쳤다. 그는 동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 「 그렇게까지 쪼들리나! 이 사람아, 나를 아주 눌러 버렸군! 」 라스콜니코프의 누더기를 보며 그가 덧붙였다. 「자, 앉아, 지쳤을 게 뻔하니.」

그러고서 그가 자기 것보다도 더 못한 꼴의 인조 가죽 소파에 주저앉자, 라주미힌은 이 손님이 병이 났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보았다.

「아니, 너 심하게 아프잖아, 그건 알고 있어?」 그가 맥을 짚기 시작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 그가 말했다. 「이것 때문에 왔어. 나한테 과외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좀,…… 아니, 사실은 과외 자리는 필요 없어…….」

「아니 이봐! 너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 라주미힌이 그를 찬찬히 살피며 말했다.

「아니야.」

라스콜니코프는 소파에서 일어섰는데, 라주미힌의 집으로 계단을 오를 때만 해도 그는 자기가 이 친구와 얼굴을 맞대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번개처럼 깨달았다. 그 순간 그가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바로 누군가와 얼굴을 맞대는 일이라는 것을. 속에서 울화가 치밀었다. 라주미힌의 문지방을 들어서자마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잘 있어.」 그가 퉁명스럽게 말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서, 서 봐! 이 별난 친구야.」

「싫어.」 상대가 다시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그럼 도대체 뭐 하러 온 거야? 미쳤나,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건…… 거의 모욕이잖아! 그렇게 가게 둘 수는 없어.」

「그럼 말해 주지, 내가 너를 찾아온 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네가 누구보다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 아니, 영리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판단할 줄 아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들리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동정도. 나는 나 혼자야…… 혼자. 됐어, 이만하면 됐어. 나를 내버려 둬.」

「잠깐 있어 봐, 이 굴뚝 청소부 같은 놈아! 너는 완전히 미친놈이야. 네 마음대로 해, 나야 상관없으니. 나도 과외 자리가 없어, 알겠어?

그리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그런데 톨쿠치 시장에 헤루비모프라는 책장수가 있는데 — 그자가 제 나름으로 과외 자리 노릇을 해 준다. 장사꾼 집 과외 다섯 자리를 준대도 그자하고는 안 바꾼다. 그자가 출판이랍시고 일을 벌여서 자연과학 입문서 같은 걸 내는데, 그게 또 얼마나 팔리는지! 제목만 해도 돈값을 한다니까! 너는 늘 나를 바보라고 했지만, 맹세코, 이봐, 나보다 더한 바보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자가 진보적인 축인 양 행세하는데, 뭘 알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나야 물론 부추기지. 여기 독일어 원문 전지[3] 두 장 남짓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가장 조잡한 협잡이야. 『여자는 인간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물론 인간이라는 걸 의기양양하게 증명해 낸다. 헤루비모프는 이걸 여성 문제에 부치는 글로 내놓을 작정이고, 내가 그걸 옮기고 있어. 그자는 이 전지 두 장 반을 여섯 장으로 늘릴 거고, 우리는 반 페이지나 되는 으리으리한 제목을 지어 붙여서 반 루블에 내놓을 거야. 그거면 돼! 그자는 전지 한 장에 6루블을 주니까 일 전체로 15루블쯤 되는데, 나는 벌써 6루블을 선금으로 받았어. 이걸 끝내면 고래에 관한 번역을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는 『Les Confessions』[4] 제2부에서 가장 따분한 추문 몇 대목을 골라 두었어. 누가 헤루비모프한테 루소가 일종의 라디셰프[5] 같은 사람이라고 일러 주었다더군. 내가 반박하지 않았을 거야 뻔하지, 빌어먹을 놈 같으니! 그래, 『여자는 인간인가?』 전지 둘째 장을 맡아 볼래? 하겠으면 독일어 원문하고 펜하고 종이를 가져가 — 그건 다 대 주는 거니까 — 그리고 3루블을 가져가. 일 전체에 6루블을 선금으로 받았으니 네 몫으로 3루블이 가는 거지. 그리고 그 전지를 끝내면 또 3루블이 네 것이 된다. 그리고 제발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오히려 정반대야, 네가 들어서자마자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보았으니까. 첫째로 나는 철자에 약하고, 둘째로 독일어에서 아주 헤맬 때가 있어서 대개는 지어내며 나간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그편이 틀림없이 더 나아진다는 거지. 하기야 누가 알겠어, 어쩌면 더 나빠질 때도 있겠지. 맡을래?」

라스콜니코프는 말없이 독일어 종이를 받아 들고 3루블을 받아 들고는 한마디도 없이 나갔다. 라주미힌은 놀라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라스콜니코프는 다음 거리에 이르렀을 때 돌아서서 다시 라주미힌의 집으로 계단을 올라가 독일어 글과 3루블을 탁자에 놓고는, 역시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다시 나갔다.

「너 섬망증이라도 걸린 거야, 뭐야?」 라주미힌이 마침내 분통이 터져 소리쳤다. 「이게 무슨 익살이야? 너 때문에 나까지 돌겠다…… 도대체 뭐 하러 나를 찾아온 거야, 빌어먹을?」

「번역은…… 필요 없어.」 라스콜니코프가 계단에서 중얼거렸다.

「 그럼 도대체 뭐가 필요한데? 」 라주미힌이 위에서 소리쳤다. 라스콜니코프는 말없이 계단을 계속 내려갔다.

「이봐! 어디 사는데?」

대답이 없었다.

「좋아, 그럼 빌어먹어라!」

그러나 라스콜니코프는 이미 거리로 나서고 있었다. 니콜라옙스키 다리 위에서 그는 불쾌한 사건으로 다시 온전히 정신이 들었으니, 마부 하나가 서너 번 소리를 지르고도 그가 하마터면 말발굽 아래로 들어올 뻔하자 채찍으로 그의 등을 세차게 후려쳤던 것이다. 그 채찍질에 그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난간 쪽으로 뛰어갔다(무슨 까닭인지 그는 마차가 오가는 다리 한복판으로 걷고 있었다). 그는 성이 나서 이를 악물고 갈았다. 물론 웃음소리가 들렸다.

「꼴좋다!」

「어디 사기꾼이겠지.」

「취한 척하고 일부러 바퀴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쪽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걸로 벌어먹는 거요, 노형, 그걸로 벌어먹지…….」

그러나 그가 난간에 기대선 채 멀어지는 마차를 여전히 성나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며 등을 문지르고 있을 때, 그는 문득 누군가가 제 손에 돈을 쥐여 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보았다. 머릿수건을 쓰고 염소가죽 신을 신은 나이 든 장사꾼 아낙이었고, 모자를 쓰고 초록색 양산을 든, 아마도 그 딸인 듯한 처녀와 함께 있었다.

「받아요, 젊은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받아 쥐자 그들은 지나갔다. 이십 코페이카짜리였다. 옷차림과 행색으로 보아 그들은 그를 거리에서 동냥하는 거지로 여겼음직했고, 이십 코페이카를 준 것은 틀림없이 그 채찍질 덕분이었으니 그 일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다.

그는 이십 코페이카를 손에 꼭 쥔 채 열 걸음쯤 걷다가 네바강 쪽으로, 궁전 쪽을 바라보며 돌아섰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물은 네바강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물게 거의 새파랬다. 다리에서 예배당으로부터 스무 걸음쯤 되는 자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대성당의 둥근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고, 맑은 공기 속에서 그 위의 장식 하나하나까지 또렷이 분간할 수 있었다. 채찍 맞은 자리의 아픔은 가셨고 라스콜니코프는 그것을 잊었다. 불안하고 그리 뚜렷하지도 않은 생각 하나가 이제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오래도록 뚫어지게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이 자리는 그에게 유난히 낯익은 곳이었다. 대학에 다닐 때 그는 아마 백 번쯤은 — 대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 바로 이 자리에 멈춰 서서 참으로 장엄한 이 광경을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그 광경이 그의 안에 불러일으키는 어떤 막연하고 알 수 없는 감정에 거의 언제나 놀라워하곤 했다. 이 장엄한 광경에서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그에게 불어왔다. 이 화려한 그림은 그에게 말 없고 귀먹은 정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기의 그 음울하고 수수께끼 같은 인상에 매번 의아해하면서도, 스스로를 믿지 못해 그 까닭을 찾는 일을 뒤로 미루었다. 그는 그 옛 의심과 당혹을 생생하게 떠올렸고, 지금 그것을 떠올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만 같았다.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 멈춰 섰다는 것이 그에게 기이하고 괴이하게 느껴졌다. 마치 자기가 정말로 예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전에 자기의 관심을 끌던 것과 똑같은 이론과 그림에 관심을 둘 수 있다고 여기기라도 하는 듯이…… 그토록 짧은 시간 전에 말이다. 그것이 그에게는 거의 우습게까지 느껴졌고, 그러면서도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그에게는 어딘가 깊은 곳에, 저 아래, 발밑 어딘가에 겨우 보일락 말락 놓여 있는 것만 같았다 — 그의 옛 과거도, 옛 생각도, 옛 문제와 이론도, 옛 인상도, 그 그림도, 그 자신도, 전부, 전부……. 그는 자기가 위로 날아오르고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 무심코 손을 움직이다가 그는 주먹 안에 든 동전을 문득 알아차렸다. 그는 손을 펴서 동전을 들여다보았고, 팔을 휘둘러 그것을 물속으로 던졌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그 순간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것에서 가위로 자르듯 스스로를 잘라 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이르렀을 때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는 여섯 시간쯤 걸어 다닌 셈이었다. 어떻게 어디로 돌아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옷을 벗고 혹사당한 말처럼 몸을 떨면서 그는 소파에 누워 외투를 끌어다 덮고는 이내 망각 속으로 가라앉았다…….

무시무시한 비명에 잠이 깼을 때는 어스름이었다. 맙소사, 그 무슨 비명이었던가!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소리를, 그런 울부짖음과 통곡과 이 가는 소리와 눈물과 매질과 욕설을 그는 여태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런 잔혹함을, 그런 광란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포에 질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고, 괴로움에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싸우고 통곡하고 욕하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러다 몹시 놀랍게도 그는 하숙집 여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녀는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빠르고 급하고 두서가 없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틀림없이 때리지 말아 달라고 빌고 있었을 것이니 계단에서 무자비하게 얻어맞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때리는 자의 목소리는 악의와 분노로 너무나 끔찍해서 거의 쉰 소리에 가까웠는데, 그자 역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그 역시 빠르고 불분명하게, 서두르며 침을 튀기며 말하고 있었다. 별안간 라스콜니코프가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 목소리를 알아본 것이다 — 일리야 페트로비치의 목소리였다.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여기서 하숙집 여주인을 때리고 있다니! 그자가 그녀를 걷어차고 그녀의 머리를 계단에 짓찧고 있다 — 그건 분명하다, 소리로, 비명으로, 쿵쿵 울리는 소리로 알 수 있다. 어찌 된 일인가, 세상이 뒤집히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는 모든 층에서 모든 계단에서 사람들이 떼 지어 달려 나오는 소리를 들었고, 목소리와 외침과 문 두드리는 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는 자기가 정말로 미쳐 버렸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되풀이했다. 그러나 아니다, 그는 너무나 또렷하게 듣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음은 그에게로 올 것이다, 「틀림없이…… 다 그 일 때문이지…… 어제 일 때문이야……. 맙소사!」 그는 문을 걸쇠로 걸어 잠그고 싶었으나 손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래 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공포가 얼음처럼 그의 심장을 움켜쥐고 그를 고문하고 마비시켰다……. 그러나 십 분쯤 이어지던 이 소동도 마침내 차츰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숙집 여주인은 신음하고 끙끙거렸다. 일리야

페트로비치는 여전히 위협과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마저 잠잠해진 듯했고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가 버렸나? 맙소사!」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여주인도 여전히 울고 신음하며 가고 있다…… 그러더니 그녀의 문이 쾅 닫혔다……. 이제 사람들이 외치고 다투고 서로를 부르며, 목소리를 고함으로 높였다가 다시 속삭임으로 떨어뜨리면서 계단에서 저마다의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숫자가 꽤 많았을 것이다 —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왜, 왜 그자가 여기 왔던 것인가!」

라스콜니코프는 기진해서 소파에 쓰러졌으나 눈을 감을 수가 없었고, 반 시간 동안 이제껏 겪어 본 적 없는 고통 속에, 견딜 수 없는 끝없는 공포의 감각 속에 누워 있었다. 별안간 밝은 빛이 그의 방으로 비쳐 들었다. 나스타시야가 촛불과 수프 한 접시를 들고 들어온 것이다. 그를 찬찬히 살펴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녀는 촛불을 탁자에 놓고 가져온 것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 빵, 소금, 접시, 숟가락.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겠지, 틀림없이. 하루 종일 쏘다니고서는 열이 나서 덜덜 떨고 있고.」

「나스타시야…… 주인아주머니를 왜 때린 거예요?」

그녀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누가 주인아주머니를 때려?」

「 아까요…… 반 시간쯤 전에, 부서장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계단에서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을 함부로 다뤘고, 그리고…… 왜 여기 왔던 거예요?」

나스타시야는 말없이 이맛살을 찌푸린 채 그를 뜯어보았고, 그 살핌은 오래 이어졌다. 그는 그녀의 캐는 듯한 눈길에 불편해졌고 겁까지 났다.

「나스타시야, 왜 말을 안 해요?」 그가 마침내 겁먹은 듯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 때문이지.」 그녀가 마침내 혼잣말하듯 나직이 대답했다.

「피라니? 무슨 피요?」 그가 하얗게 질려 벽 쪽으로 돌아누우며 중얼거렸다.

나스타시야는 여전히 말없이 그를 보고 있었다.

「아무도 주인아주머니를 때리지 않았어.」 그녀가 마침내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직접 들었어요……. 자고 있지 않았어요……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그가 한결 더 겁먹은 듯 말했다. 「한참 동안 귀를 기울였어요. 부서장이 왔어요……. 집집마다 사람들이 죄다 계단으로 뛰어나왔고요.」

「여기 아무도 안 왔어. 그건 네 귓속에서 피가 우는 소리야.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엉겨 붙으면 별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법이지……. 뭘 좀 먹을 테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스타시야는 여전히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마실 것 좀 줘요…… 나스타슈시카.」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이 분쯤 지나 흰 오지 잔에 물을 담아 돌아왔다. 그러나 그 뒤의 일은 그가 이미 기억하지 못했다. 차가운 물을 한 모금 삼키고 잔에서 가슴에 물을 흘린 것만을 기억했다. 그다음에는 망각이 뒤따랐다.

---

1. 아르신 — 러시아의 길이 단위로 약 71센티미터.

2. 푸드 — 러시아의 무게 단위로 약 16.4킬로그램. 한 푸드 반은 약 25킬로그램이다. 가넷의 영역본은 이를 60파운드로 옮겼다.

3. 전지(全紙) — 인쇄용 큰 종이 한 장. 접어서 열여섯 면을 만들었으므로 원고와 번역의 분량을 세는 단위로도 쓰였다. 저본의 signature가 이것이며, 서명(署名)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4. 『Les Confessions』 — 장자크 루소의 자서전 『고백록』(1782~1789).

5. 라디셰프(1749~1802) —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으로 농노제와 전제정을 고발했다가 유형에 처해진 러시아 작가.

2부 3장

그렇다고 앓는 내내 의식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그는 열에 들뜬 상태였고 어떤 때는 헛소리를 했으며 어떤 때는 반쯤 정신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 가운데 많은 것을 기억해 냈다. 어떤 때는 여러 사람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은 그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으며, 그를 두고 옥신각신 다투고 의논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는 방에 그 혼자 남았는데, 다들 그가 무서워 가 버린 것이어서 이따금 문을 조금 열어 그를 들여다볼 뿐이었고, 그러면서도 그를 을러대고, 저희끼리 무언가를 꾸미고, 웃고, 그를 놀려 댔다. 그는 나스타시야가 자주 머리맡에 있었던 것을 기억했고, 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아주 잘 아는 사람 같으면서도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고, 그것이 그를 안달하게 만들어 울음이 터지기까지 했다. 어떤 때는 자기가 한 달째 거기 누워 있는 것 같았고, 또 어떤 때는 그 모든 일이 다 같은 하루 안의 일 같았지만, 그 일은 — 그 일만은 아무 기억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는 느낌이 시시각각 들었다. 그는 떠올려 보려고 애를 태우고 스스로를 들볶았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벌컥 화를 냈고,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무서운 공포 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몸부림쳐 일어나 달아나려 했지만 누군가가 언제나 힘으로 그를 막았고, 그는 다시 무력과 망각 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침내 그는 온전히 정신을 되찾았다.

그것은 아침 열 시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날이 좋은 날이면 그 시각에 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오른쪽 벽과 문가 모퉁이에 한 줄기 빛을 던져 놓곤 했다. 나스타시야가 그의 곁에 서 있었고, 또 한 사람, 전혀 낯선 사내가 함께 서서 몹시 궁금하다는 눈으로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수염을 기른 젊은 사내로 품이 넉넉하고 허리가 짧은 겉옷을 입었으며 사환처럼 보였다. 주인 여자가 반쯤 열린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몸을 일으켰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스타시야?」 그가 젊은 사내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 이이가 제정신이 돌아왔네!」 그녀가 말했다.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내가 따라 말했다.

그가 정신을 차렸다고 판단한 주인 여자는 문을 닫고 사라졌는데, 그녀는 언제나 수줍음을 탔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따지는 일을 질색했다. 마흔쯤 된 여자로 얼굴도 제법 반반했고, 살이 찌고 몸집이 푸짐했으며, 검은 눈과 검은 눈썹을 가졌고, 살찌고 게으른 데서 오는 좋은 성품을 지녔으며, 우스울 만큼 부끄럼을 탔다.

「누구……신가요?」 그가 사내를 향해 말을 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키가 워낙 커서 몸을 조금 숙인 채로 라주미힌이 들어왔다.

「무슨 놈의 선실이 이래!」 그가 소리쳤다. 「올 때마다 머리를 찧는다니까. 이런 걸 하숙이라고! 그래, 정신이 들었어, 이 사람아? 파셴카한테서 방금 들었어.」

「방금 정신이 들었어요.」 나스타시야가 말했다.

「방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사내가 웃으며 또 따라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누군가?」 라주미힌이 느닷없이 그를 향해 물었다. 「내 이름은 브라주미힌[1]일세, 잘 부탁하네. 다들 라주미힌이라

부르지만 브라주미힌이야, 학생이고 귀족 집 자식일세. 그리고 이쪽은 내 친구일세. 그래, 자네는 누군가?」

「저는 셸로파예프 상인 어른 밑에 있는 저희 사무소의 사환입니다. 볼일이 있어 왔습니다.」

「 앉게. 」 라주미힌은 탁자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 「 정신이 들었으니 다행이야, 이 사람아.」 그가 라스콜니코프에게 말을 이었다. 「나흘 동안 먹은 것도 마신 것도 거의 없어서 차도 숟가락으로 떠 넣어 줘야 했고, 조시모프를 두 번이나 데려왔어. 조시모프 기억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대수로운 게 아니라고 대번에 말하더군 — 머리로 뭔가가 올라간 모양이라고, 못 먹어서 생긴 신경성 헛것이라고, 맥주하고 겨자무를 충분히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말이야. 별것 아니고 지나가면 멀쩡해진다더라. 조시모프는 일류야! 의사 노릇을 제법 그럴듯하게 시작했어. 자, 자네를 붙들고 있지는 않겠네.」 그가 다시 사내를 향해 말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 보게. 로쟈, 자네도 알아 둬야 할 게, 사무소에서 사람을 보낸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는 다른 사람이 왔고 그때는 내가 상대했지. 지난번에 온 사람은 누군가?」

「 그건 그저께였습니다요, 외람되오나 말씀드리자면. 알렉세이 세묘노비치였습니다. 그이도 저희 사무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네보다 똑똑하던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예, 그렇습니다요. 그이가 저보다 무게가 나갑지요.」

「그렇겠지. 계속하게.」

「 어머님의 청으로, 여러 번 들어 아시리라 짐작되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바흐루신 어른을 통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나리께 송금이 나왔습니다.」 사내가 라스콜니코프를 향해 말문을 열었다. 「나리께서 이해 가능한 상태이시라면 35루블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청에 따라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어른께서 세묜 세묘노비치께 그러한 취지의

지시를 내리셨고 이는 전에도 있었던 일이니 말씀입니다. 그 어른을 아시는지요?」

「예, 기억나요…… 바흐루신.」 라스콜니코프가 꿈결처럼 말했다.

「 들었나, 상인 바흐루신을 안다는군! 」 라주미힌이 소리쳤다. 「 그런데도 『 이해 가능한 상태 』 가 아니라고? 보아하니 자네도 이해력이 대단한 사람이로군. 하기야 슬기로운 말씀은 언제 들어도 흐뭇하지.」

「바로 그 어른이십니다, 바흐루신,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어머님께서 전에도 한 번 그 어른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송금을 보내신 바 있고, 이번에도 그 어른께서 청을 물리치지 않으시어, 며칠 전에 세묜 세묘노비치께 35루블을 나리께 전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더 나은 날이 오기를 바라는 뜻에서요.」

「그 『더 나은 날이 오기를』이 오늘 자네가 한 말 중에 제일 낫군. 『 어머님 』 도 나쁘지 않지만.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이 사람이 온전히 정신이 들었느냐, 이건가?」

「그건 괜찮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에 서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정도야 휘갈길 수 있지. 장부는 가져왔나?」

「예,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 이리 주게. 자 로쟈, 일어나 앉아. 내가 받쳐 줄게. 펜을 들고 『라스콜니코프』라고 휘갈겨 줘. 지금 우리한테는 말이야, 이 사람아, 돈이 당밀보다 다니까.」

「필요 없어.」 라스콜니코프가 펜을 밀어내며 말했다.

「필요 없다니?」

「서명 안 해.」

「서명을 안 하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싫어…… 그 돈은.」

「돈이 싫다고! 이봐 이 사람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증인이지. 신경 쓰지 말게, 또 여행을 떠난 것뿐이니까. 하기야 저 친구야 평소에도 흔히 그러지만……. 자네는 분별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이 친구를 붙들어 주지, 아니 더 간단히 말해서 손을 붙들어 주면 서명이야 할 걸세. 자.」

「하오면 다음에 다시 와도 됩니다.」

「 아니, 아니야. 왜 자네를 번거롭게 하겠나? 자네는 분별 있는 사람인데……. 자 로쟈, 손님 붙들어 두지 마, 저렇게 기다리잖아. 」 그러고는 정말로 라스콜니코프의 손을 붙들 채비를 했다.

「그만둬, 혼자 할게.」 라스콜니코프가 펜을 집어 제 이름을 적으며 말했다.

사환은 돈을 꺼내 놓고 물러갔다.

「좋았어! 자 이제, 이 사람아, 배 안 고파?」

「고파.」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수프 좀 있냐?」

「 어제 것이 좀 있어요. 」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던 나스타시야가 대답했다.

「감자하고 쌀 넣은 거?」

「감자하고 쌀이요.」

「그거야 훤히 알지. 수프 가져오고 차도 좀 내오너라.」

「그러지요.」

라스콜니코프는 이 모든 것을 깊은 놀라움과 까닭 모를 둔한 공포 속에서 바라보면서, 잠자코 있은 채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이건 현실인 모양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분 뒤에 나스타시야가 수프를 들고 돌아와 차도 곧 준비된다고 알리고는, 수프와 함께 숟가락 두 개, 접시 두 개, 소금, 후추, 쇠고기에 칠 겨자 따위를 가져다 놓았다. 오랫동안 이렇게 차려진 적이 없는 상이었다. 식탁보도 깨끗했다.

「나스타슈시카, 프라스코비야 파블로브나가 맥주를 두어 병 올려 보내 준다면 나쁠 것 없겠는데. 우리가 비워 줄 수 있으니.」

「원, 참 넉살도 좋지.」 나스타시야가 중얼거리고는 시키는 대로 하러 나갔다.

라스콜니코프는 여전히 잔뜩 곤두선 주의를 기울이며 험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라주미힌은 그의 곁 소파에 앉아, 그가 혼자서도 일어나 앉을 수 있는데도 곰처럼 서툰 손놀림으로 왼팔을 라스콜니코프의 머리 뒤로 두르고는, 오른손으로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뜨거워 데지 않도록 후후 불어 가며 먹였다. 그러나 수프는 겨우 미지근할 뿐이었고, 라스콜니코프는 한 숟가락을 게걸스럽게 삼켰고, 두 숟가락째, 세 숟가락째를 삼켰는데, 몇 숟가락을 더 떠 넣어 준 뒤에 라주미힌은 별안간 손을 멈추더니 더 먹여도 되는지 조시모프에게 물어봐야겠다고 말했다.

나스타시야가 맥주 두 병을 들고 들어왔다.

「차도 드릴까요?」

「그래.」

「나스타시야, 얼른 가서 차를 내오너라. 차쯤이야 의사 선생 허락 없이도 감히 마셔 볼 만하지. 옳지, 맥주가 왔군!」 그는 제 의자로 돌아가 수프와 고기를 앞으로 끌어당기고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한 사람처럼 먹기 시작했다.

「로쟈, 내 말해 두는데, 요새 나는 날마다 여기서 이렇게 저녁을 먹어.」 그가 쇠고기를 입에 잔뜩 문 채 우물거렸다. 「전부 파셴카가, 그 귀여운 자네 주인아주머니가 챙겨 주는 거야. 나한테 뭐든 해 주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마다할 것도 없지. 옳지, 나스타시야가 차를 가져왔군. 손이 참 빨라. 나스텐카, 너도 맥주 좀 하지 않으련?」

「에그, 별소리를 다 하시네!」

「그럼 차라도 한 잔?」

「차라면 한 잔 하지요.」

「따라라. 아니, 가만있어, 내가 따르마. 앉아 있어.」

그는 두 잔을 따르고는 제 아침을 내버려 두고 다시 소파에 앉아, 아까처럼 왼팔을 병자의 머리 뒤로 둘러 그를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차를 떠 먹였는데, 한 숟가락마다 한결같이 진지하게 후후 부는 품이 마치 이 절차가 친구를 낫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험 있는 수단이기라도 한 듯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스르지도 않았는데, 부축 없이 혼자 소파에 앉아 있을 만큼, 잔이나 숟가락을 드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기운이 있다고 느꼈는데도 그랬다. 그러나 어떤 기묘한, 거의 짐승 같은 꾀에서 그는 제 힘을 감추고 한동안 죽은 듯이 엎드려 있겠다는 생각을, 필요하다면 아직 제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척하겠다는 생각을 품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알아내려 했다. 그래도 역겨움만은 이겨 내지 못해서, 차를 열 숟가락쯤 홀짝인 뒤에 그는 별안간 머리를 빼내고 변덕스럽게 숟가락을 밀쳐 내고는 베개에 도로 누웠다. 이제 그의 머리 밑에는 진짜 베개가, 깨끗한 잇을 씌운 깃털 베개가 놓여 있었고, 그는 그것도 알아보았으며 마음에 적어 두었다.

「 파셴카더러 오늘은 산딸기잼을 좀 내놓으라고 해야겠다, 이 친구한테 산딸기차를 타 주게.」 라주미힌이 제 의자로 돌아가 다시 수프와 맥주에 달려들며 말했다.

「그 산딸기를 어디서 구해 온대요?」 나스타시야가 다섯 손가락을 쫙 펴 그 위에 받침 접시를 올려놓고, 각설탕을 문 채 차를 홀짝이며 물었다.

「가게에서 사 오면 되지, 얘야. 로쟈, 자네가 드러누워 있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자네가 주소도 남기지 않고 그 못된 꼴로 달아났을 때 나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기어이 찾아내서 처형하고야 말겠다고 작정하고는 그날로 일에 착수했지. 자네를 수소문하느라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이 하숙은 잊어버렸는데, 사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애초에 몰랐으니 기억할 것도 없었고, 전에 살던 하숙은 다섯 모퉁이의 하를라모프네 집이라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어. 그 하를라모프네 집을 찾아 헤맸는데 나중에 보니 하를라모프네가 아니라 부흐네였지 뭐야, 사람이란 것이 소리를 어쩌면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기억하는지! 그래서 부아가 나서 이튿날 혹시나 하고 주소 안내소[2]에 갔더니, 글쎄 이 분 만에 자네를 찾아내지 뭐야, 자네 이름이 거기 떡하니 올라 있더라고!」

「내 이름이!」

「그럼 올라 있고말고. 그런데 내가 거기 있는 동안 코벨레프라는 장군은 못 찾아내더군. 뭐, 긴 이야기야. 아무튼 이 집에 들이닥치자마자 자네 사정을 죄다 알게 됐지 — 죄다, 죄다 말이야, 이 사람아, 내가 모르는 게 없으니 여기 나스타시야한테 물어봐. 니코딤 포미치하고 알고 지내게 됐고, 일리야 페트로비치는 누가 가리켜 보여 줬고, 문지기하고, 경찰서 수석 서기인 자묘토프 씨, 알렉산드르 그리고리예비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셴카하고 알고 지내게 됐어 — 그게 화룡점정이었지. 여기 나스타시야가 알지…….」

「아주 구워삶았지.」 나스타시야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 그런데 나스타시야 니키포로브나, 차에 설탕은 어찌 아니 넣으십니까?」

「아이고, 이 개 같은 양반!」 나스타시야가 별안간 소리치더니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 니키포로브나가 아니라 페트로브나예요. 」 겨우 웃음을 가라앉히고 그녀가 불쑥 덧붙였다.

「 그럼 그리 적어 두겠습니다. 자 이 사람아, 길게 끌 것 없이 말하자면, 나는 처음에 여기다 전기 충격을 쫙 흘려서 이 근방의 편견을 단번에 뿌리 뽑을 작정이었는데 파셴카가 이겼어. 나는 말이야 이 사람아, 그이가 그렇게…… 마음을 끄는 사람일 줄은 몰랐어. 어때, 자네 생각은?」

라스콜니코프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불안한 눈길을 한순간도 그에게서 떼지 않았고, 지금도 끈질기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 게다가 참으로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지. 」 라주미힌이 그의 침묵에도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마치 대답이라도 들은 듯 맞장구를 치며 말을 이었다.

「아이고, 저 몹쓸 것!」 나스타시야가 또 비명 지르듯 소리쳤다. 이 대화가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이 즐거웠다.

「 이 사람아, 애초에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게 딱해. 그이한테는 다르게 다가갔어야지. 그이는 말하자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성격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쩌다 밥상까지 끊기게 내버려 뒀어? 그리고 그 차용증은? 차용증에 서명을 하다니 제정신이 아니었군. 그 딸 나탈리야 예고로브나가 살아 있을 때 한 혼인 약속은 또 뭐고?…… 나는 죄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예민한 문제인

줄 알아, 내가 얼간이지. 용서해. 그런데 어리석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프라스코비야 파블로브나가 첫눈에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걸 알아?」

「 그래…… 」 라스콜니코프가 눈길을 돌린 채 웅얼거렸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이어 가는 편이 낫다고 느꼈다.

「 그렇지? 」 라주미힌이 대답을 끌어낸 것이 기뻐 소리쳤다. 「 그렇다고 아주 영리하지도 않아, 그렇지? 그이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도 가끔은 정말이지 어쩔 줄을 모르겠어……. 마흔은 됐을 텐데 서른여섯이라고 하고, 그야 그렇게 말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지. 하지만 맹세코 나는 그이를 지적으로, 순전히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사이에는 일종의 상징 같은 것이, 일종의 대수학이랄까 하는 것이 생겨났단 말이야! 나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뭐, 다 부질없는 소리지. 다만, 자네가 이제 학생도 아니고 과외도 옷가지도 다 잃었고, 그 아가씨가 죽었으니 자네를 친척처럼 대할 까닭도 없어진 걸 보고 그이가 덜컥 겁이 난 거야. 게다가 자네는 굴속에 틀어박혀 그이와의 옛 정리를 죄다 끊어 버렸으니 자네를 떼어 낼 궁리를 한 거고, 그 궁리를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지만 차용증이 아까웠지, 자네 어머니가 갚아 주실 거라고 자네 입으로 장담을 했으니까.」

「 그런 말을 한 건 비열한 짓이었어……. 어머니도 거지나 다름없는데…… 하숙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지…… 얻어먹으려고.」 라스콜니코프가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래, 아주 분별 있게 처신했지. 그런데 고약한 건 바로 그 대목에서 궁정 고문관[3]이자 실무가인 체바로프 씨가 튀어나온 거야. 파셴카 혼자서는 무슨 일을 벌일 생각도 못 했을걸, 워낙 내성적이니까. 그런데 실무가는 도무지 내성적이지 않거든. 그자가 대뜸 묻기를, 『 이

차용증을 현금으로 바꿀 가망이 있소?』 대답은, 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는 제 몸을 굶겨서라도 연금 125루블로 제 로젠카를 구해 낼 어머니가 있고, 오빠를 위해서라면 종살이라도 들어갈 누이가 있으니까. 그자가 셈에 넣은 게 그거야……. 왜 움찔해? 나는 이제 자네 일이라면 속속들이 다 알아, 이 친구야 — 자네가 그 집 사윗감이던 시절에 파셴카한테 그렇게 속을 다 털어놓은 게 공연한 일이 아니었지. 그리고 이런 말도 친구니까 하는 거야……. 아무튼 말이야, 정직하고 여린 사람은 속을 털어놓고, 실무가는 듣기만 하면서 먹다가 나중에는 상대를 먹어 치운다 이거지. 그래서 그이가 그 체바로프한테 빚 대신 차용증을 넘겼고 그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정식으로 지급을 청구했고, 나는 그 얘길 다 듣고 내 양심을 씻을 겸 그자한테도 전기 충격을 흘려 줄까 했는데, 그때쯤에는 나와 파셴카 사이에 화기가 돌고 있어서, 자네가 갚겠다고 내가 나서서 이 일을 전부 덮으라고 고집했지. 내가 자네 보증을 선 거야, 이 사람아. 알아듣겠어? 체바로프를 불러다 10루블을 던져 주고 차용증을 돌려받았어. 이렇게 자네에게 돌려드리는 영광을 누리는 바야. 그이는 이제 자네 말을 믿어. 자, 받아, 보다시피 내가 찢어 놨어.」

라주미힌은 그 종이를 탁자에 놓았고, 라스콜니코프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한마디도 없이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라주미힌조차 가슴이 뜨끔했다.

「알겠어, 이 사람아.」 그가 잠시 뒤에 말했다. 「내가 또 바보짓을 했군. 수다로 자네를 즐겁게 해 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부아만 돋운 모양이야.」

「내가 헛소리할 때 못 알아본 사람이 자네였어?」 라스콜니코프가 잠시 사이를 두고,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 그래, 그것 때문에 자네가 펄펄 뛰었지. 특히 어느 날 내가 자묘토프를 데려왔을 때 말이야.」

「자묘토프? 그 수석 서기? 뭐 하러?」 라스콜니코프가 홱 돌아누우며 라주미힌에게 눈을 박았다.

「 왜 그래?…… 뭐가 그리 언짢아? 내가 자네 얘기를 하도 많이 했더니 자네와 알고 지내고 싶어 하더군……. 그 친구 말고 누구한테서 그만한 걸 알아냈겠어? 썩 훌륭한 친구야, 이 사람아, 일류지…… 물론 제 나름으로 말이지만. 이제는 친구가 돼서 — 거의 날마다 얼굴을 봐. 나도 이 동네로 이사를 왔거든. 아직 몰랐어?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 그 친구하고 라비자네 집에 두 번 가 봤어……. 라비자 기억나, 라비자 이바노브나?

「내가 헛소리로 무슨 말을 했어?」

「했고말고!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무슨 헛소리를 했는데?」

「별소릴 다 하는군! 무슨 헛소리를 했느냐고? 사람들이 헛소리할 때 하는 소리지 뭐……. 자 이 사람아, 이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어. 일하러 가야지.」 그는 탁자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어 들었다.

「무슨 헛소리를 했느냐니까?」

「끈질기기도 하지! 무슨 비밀이라도 흘렸을까 봐 겁나? 걱정 마, 백작 부인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 불도그 얘기, 귀고리와 사슬 얘기, 크레스톱스키 섬 얘기, 어느 문지기 얘기, 니코딤 포미치와 부서장 일리야 페트로비치 얘기는 실컷 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네가 유난히 마음을 쓴 게 자네 양말이었어. 『내 양말 내놔』 하고 낑낑댔지. 자묘토프가 방 안을 샅샅이 뒤져 양말을 찾아내서는 향수 뿌리고 반지 낀 제 손가락으로 그 걸레 조각을 자네한테 건네줬고, 그제야 자네가 진정이 돼서 꼬박 하루 동안 그 너절한 것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았어.

우리가 아무리 해도 빼앗을 수가 없더군. 지금도 이불 밑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고는 바짓단에 달 술을 달라고 어찌나 애처롭게 조르던지. 무슨 술을 말하는 건지 알아내려 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자, 이제 일 얘기를 하지! 여기 35루블이 있는데, 그중에서 10루블을 내가 가져가고 한두 시간 안에 셈을 해서 알려 주지, 조시모프한테도 그참에 기별할 텐데 벌써 왔어야 할 사람이야, 곧 열두 시니까. 그리고 나스텐카, 내가 없는 동안 자주 들여다봐서 이 친구가 마실 것이든 뭐든 찾는지 살펴 다오, 파셴카한테는 필요한 걸 내가 직접 말해 둘 테니. 자, 그럼!」

「파셴카라고 부르네! 아이고, 이 능구렁이 낯짝 같으니!」 그가 나가자 나스타시야가 말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서서 귀를 기울이다가, 그가 주인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몹시 듣고 싶었던 터라 끝내 참지 못하고 그를 뒤쫓아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녀는 누가 보아도 라주미힌에게 홀딱 반해 있었다.

그녀가 방을 나가기가 무섭게 병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미친 사람처럼 침상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는 일에 착수하려고 저들이 가 주기를 타는 듯한, 경련이 이는 듯한 초조함으로 기다려 왔던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에? 이제 와서, 그를 약 올리기라도 하듯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맙소사, 한 가지만 말해 다오. 저들이 벌써 그 일을 아는가 모르는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내가 드러누워 있는 동안 나를 놀리고 있다가, 들어와서는 그런 건 벌써 오래전에 다 밝혀졌고 저들은 그저…… 라고 말하면 어쩌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그걸 잊어버렸다, 일부러 그런 것처럼. 대번에 다 잊어버렸다, 조금 전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는 방 한복판에 서서 비참한 당혹 속에 주위를 둘러보았고,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가 원하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러다 별안간 무언가가 떠오른 듯 그는 벽지 밑에 구멍이 나 있는 모퉁이로 달려가 그것을 살펴보고 손을 구멍에 넣어 더듬었지만 — 그것도 아니었다. 그는 난로로 가서 문을 열고 재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바짓단의 해진 자락과 주머니에서 잘라 낸 헝겊 조각이 그가 던져 넣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다! 그때 그는 라주미힌이 방금 이야기한 양말이 생각났는데, 그래, 저기 소파 위 이불 밑에 그것이 있었으나, 먼지와 때가 어찌나 앉았는지 자묘토프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 리는 없었다.

「 체, 자묘토프! 경찰서! 그런데 왜 나를 경찰서로 부른 거지? 소환장은 어디 있나? 체! 뒤섞고 있군, 그건 그때 일이지. 그때도 양말을 들여다봤지,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앓고 난 거다. 그런데 자묘토프는 뭐 하러 왔지? 라주미힌은 왜 그를 데려왔을까?」 그가 다시 맥없이 소파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아직 헛것을 보고 있나, 아니면 현실인가? 현실인 것 같다……. 아, 생각났다. 달아나야 한다! 서둘러 달아나야 한다. 그래, 달아나야 해, 달아나야 한다! 그래…… 그런데 어디로? 내 옷은 어디 있지? 장화가 없다. 저들이 가져갔구나! 숨겼구나! 알겠다! 아, 여기 외투가 있군 — 이건 그냥 뒀구나! 그리고 탁자 위에 돈이 있다, 고맙게도! 그리고 여기 차용증도…… 돈을 들고 나가서 다른 하숙을 얻어야지. 저들은 나를 못 찾을 거다!…… 그래, 하지만 주소 안내소는? 저들이 찾아낼 거다, 라주미힌이 찾아낼 거다. 차라리 아주 달아나는 게 낫다…… 멀리…… 아메리카로, 그리고 저들이 어디 할 테면 해 보라지! 차용증도 가져가야지…… 거기서는 쓸모가 있을 거다……. 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 저들은 내가 아픈 줄 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걸 모른다, 헤헤헤! 저들 눈을 보니 죄다 알고 있더라! 아래층까지만 내려갈 수

있다면! 그런데 거기 망을 세워 뒀으면 어쩌지 — 순경들을! 이 차는 뭐지? 아, 맥주가 남았군, 반 병, 차갑다!」

그는 아직 한 잔쯤 남아 있는 병을 집어 들고 가슴속의 불길이라도 끄듯 맛있게 들이켰으나, 다음 순간 맥주가 머리로 올라왔고 희미한, 그러나 오히려 기분 좋은 떨림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그는 자리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겼는데, 병들고 앞뒤가 맞지 않던 그의 생각들은 점점 더 갈피를 잃어 갔고, 이윽고 가볍고 기분 좋은 졸음이 그에게 밀려왔다. 그는 편안한 기분으로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낡고 해진 외투 대신 덮여 있는 부드러운 솜이불을 더 바싹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고 깊고 고른, 몸을 되살리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깼는데, 눈을 뜨자 라주미힌이 문간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고, 라스콜니코프는 얼른 소파에 일어나 앉아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아, 안 자고 있었군! 나 왔어! 나스타시야, 꾸러미 가져오너라!」 라주미힌이 층계 아래로 소리쳤다. 「셈은 곧 해 주지.」

「몇 시야?」 라스콜니코프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아주 잘 잤어, 이 사람아. 벌써 저녁이 다 됐어, 곧 여섯 시야. 여섯 시간도 넘게 잤어.」

「맙소사! 그렇게나?」

「그러면 어때? 몸에 좋지. 뭐가 그리 급해? 밀회라도 있어? 시간이야 얼마든지 있어. 나는 세 시간째 자네를 기다렸고 두 번이나 올라와 봤는데 그때마다 자고 있더군, 조시모프한테도 두 번 들렀는데 집에 없지 뭐야, 하지만 상관없어, 나타나겠지. 내 볼일도 보고 왔고. 오늘 이사했다고 했잖아, 숙부하고 같이. 지금 숙부가 나하고 같이 사시거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일 얘기를 하지. 꾸러미 이리 다오, 나스텐카. 지금 바로 끌러 보자. 그래 이제 몸은 어때, 이 사람아?」

「아주 멀쩡해, 아프지 않아. 라주미힌, 여기 온 지 오래됐어?」

「세 시간째 기다렸다니까.」

「아니, 그 전에.」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드나든 지 얼마나 됐느냐고.」

「아니, 오늘 아침에 다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

라스콜니코프는 생각에 잠겼는데, 아침 일이 꿈처럼 여겨졌고, 혼자서는 떠올릴 수가 없어서 그는 묻는 눈으로 라주미힌을 바라보았다.

「흠!」 라주미힌이 말했다. 「잊어버렸군. 그때도 자네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한숨 자고 나니 좀 나아졌어……. 정말 훨씬 나아 보여. 훌륭해! 자, 일 얘기를 하지. 곧 생각날 거야. 이보게, 이 친구야, 여기 좀 봐.」

그는 꾸러미를 끄르기 시작했는데, 그 일에 여간 마음이 쏠려 있지 않은 듯했다.

「이 사람아, 정말이지 이건 내가 각별히 마음을 쓴 일이야. 자네를 사람 꼴로 만들어 놔야 하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하지. 이 모자 보여?」 그가 꾸러미에서 값싸고 흔한 것이지만 제법 쓸 만한 모자를 꺼내며 말했다. 「한번 씌워 보자.」

「이따가, 나중에.」 라스콜니코프가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자 로쟈, 이 친구야, 버티지 마, 나중에는 늦어, 게다가 나는 밤새 한숨도 잠을 못 잘 거야, 치수도 재지 않고 눈대중으로 샀으니까. 딱 맞는군!」 그가 모자를 씌워 보고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꼭 자네 머리야! 머리에 쓰는 물건이 제대로여야 하는 법이지, 옷차림의 으뜸이고 그 나름의 추천장이거든. 내 친구 톨스탸코프는 남들이 다 모자를 쓰고 있는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 뚜껑을 벗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비굴한 예절 때문인 줄 알지만 실은 제 새집 같은 머리가 부끄러워서야. 어찌나 부끄럼을 타는 친구인지! 나스텐카, 봐라, 여기 머리에 쓰는 물건의 본보기가 둘 있다. 이 파머스턴[4]이냐」 — 그는 모퉁이에서 라스콜니코프의 낡고 찌그러진 모자를 집어 들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그것을 파머스턴이라고 불렀다 — 「아니면 이 보물이냐! 값을 맞혀 봐, 로쟈, 내가 얼마를 줬을 것 같으냐? 나스타슈시카? 」 라스콜니코프가 말이 없는 것을 보고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20코페이카, 그 이상은 안 줬을걸요.」 나스타시야가 대답했다.

「20코페이카라니, 이 바보야!」 그가 기분이 상해 소리쳤다. 「요즘 같으면 너를 팔아도 그보다는 더 나가겠다 — 80코페이카야! 그것도 이미 쓰던 물건이라 그 값인데, 게다가 이게 닳아 못 쓰게 되면 내년에 다른 걸 준다는 조건으로 산 거다. 그래, 내 말이 틀림없어! 자, 이제 학교에서 부르던 이름대로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넘어가 볼까. 정말이지 나는 이 바지가 자랑스러워. 」 그러면서 그는 회색 모직으로 지은 가볍고 시원한 여름 바지를 라스콜니코프 앞에 펼쳐 보였다. 「구멍도 없고 얼룩도 없고, 조금 낡긴 했어도 아주 번듯해. 여기 어울리는 조끼도 있어, 유행에 딱 맞는 걸로. 낡았다는 게 오히려 나아, 더 부드럽고 매끄러우니까……. 로쟈, 내 생각에는 말이야, 세상을 살아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철을 지키는 거야, 정월에 아스파라거스를 먹겠다고 우기지만 않으면 돈이 주머니에 남거든. 이 물건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여름이니 여름 물건을 산 거지 — 가을이 오면 더 두꺼운 감이 필요할 테니 이건 어차피 내버려야 해…… 자네의 사치 기준이 높지 않더라도 그때쯤이면 저희끼리 흩어져 못 쓰게 될 테니 더욱 그렇고. 자, 값을 매겨 봐! 얼마일 것 같아? 2루블 25코페이카야! 그리고 조건을 잊지 마. 이걸 다 해지도록 입으면 다음 옷은 공짜야! 페댜예프네에서만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한 번 물건을 사면 평생

만족이야, 제 발로 다시는 가지 않을 테니까. 이제 장화 차례군. 어때? 보다시피 조금 낡았지만 두어 달은 갈 거야, 외국 솜씨에 외국 가죽이고, 영국 대사관 서기관이 지난주에 톨쿠치 시장에 내놓은 건데 — 엿새밖에 신지 않았는데 현금이 몹시 아쉬웠던 모양이야. 값은 — 1루블 반. 싸지 않아?」

「그런데 발에 안 맞으면 어쩌지요.」 나스타시야가 말했다.

「안 맞는다고? 이걸 봐라!」 그러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마른 흙이 딱딱하게 엉겨 붙은 라스콜니코프의 낡고 해진 장화 한 짝을 꺼냈다. 「나도 빈손으로 간 게 아니야 — 이 괴물을 갖고 가서 치수를 쟀지. 다들 힘껏 애를 썼어. 속옷은 자네 주인아주머니하고 의논해서 정했고. 자, 우선 셔츠가 석 장, 삼베지만 앞섶은 유행하는 모양이야……. 자 그럼 셈을 해 보자. 모자가 80코페이카, 옷 한 벌이 2루블 25코페이카 — 합쳐서 3루블 5코페이카 — 장화가 1루블 반 — 보다시피 물건이 아주 좋으니까 — 해서 4루블 55코페이카. 속옷이 5루블 — 한꺼번에 떼어 왔지 — 해서 꼭 9루블 55코페이카. 잔돈 45코페이카는 동전으로 있어. 받겠어? 자 로쟈, 이것으로 자네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로 차려입게 된 거야, 외투는 그대로 쓸 만하고 나름의 멋도 있으니까, 그게 다 샤르메르네서 옷을 맞춰 입은 덕이지! 양말이며 그 밖의 것은 자네한테 맡기겠어. 25루블이 남았으니까. 파셴카며 하숙비 걱정은 하지 마. 그이는 자네한테라면 무엇이든 외상으로 줄 거야. 자 이제, 이 사람아, 속옷을 갈아입히겠어. 셔츠와 함께 병도 벗어 던지게 될 테니까.」

「 내버려 둬! 싫어! 」 라스콜니코프가 그를 손으로 내쳤는데, 라주미힌이 제가 사 온 물건들을 두고 우스개를 하려고 애쓰는 것을 그는 역겨운 마음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다.

「 이 사람아, 내가 공연히 발품을 팔았다는 소리는 하지 마. 」 라주미힌이 우겼다. 「나스타슈시카, 부끄러워 말고 좀 거들어라 —

옳지, 그렇게. 」 그러고는 라스콜니코프가 버티는데도 속옷을 갈아입혔고, 라스콜니코프는 베개에 도로 몸을 묻고 이 분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들을 떨쳐 내려면 한참 걸리겠군.」 그는 생각했다. 「그건 다 무슨 돈으로 산 거야?」 마침내 그가 벽을 바라본 채 물었다.

「돈? 아니, 자네 돈이지, 사환이 바흐루신한테서 가져온 것 말이야, 자네 어머니가 부치신 거고. 그것도 잊어버렸어?」

「이제 생각나.」 오래도록 뚱한 침묵이 흐른 뒤에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라주미힌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불안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라스콜니코프에게 어딘지 낯익은 듯한 키 크고 몸집 좋은 사내가 들어왔다. 「조시모프! 드디어 왔군!」 라주미힌이 반가워 소리쳤다.

---

1. 브라주미힌 — 라주미힌이 제 성을 일부러 늘여 대는 말장난이다. 러시아어에서 이 성의 어근은 「 이성(разум) 」 이고, 그가 지어 붙인 형태는 「 깨우쳐 주다(вразумить) 」에 닿는다. 한국어 음차로는 한 음절이 늘어날 뿐이어서 그 뜻이 옮겨지지 않는다.

2. 주소 안내소 — 제정 러시아 경찰이 운영하던 거주자 등록 사무소. 도시에 사는 사람은 사는 곳을 신고하게 되어 있었고, 누구든 이곳에서 남의 거처를 조회할 수 있었다.

3. 궁정 고문관 — 제정 러시아 관등표의 7등관.

4. 파머스턴 — 영국의 정치가 파머스턴 경(1784~1865). 그의 이름을 딴 외투와 모자가 당시 유행했다.

2부 4장

조시모프는 키가 크고 살진 사내로, 부어오른 듯 핏기 없는 얼굴은 말끔히 면도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아마빛으로 곧았다. 그는 안경을 썼고 살진 손가락에 큼직한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나이는 스물일곱이었다. 밝은 회색의 맵시 있는 헐렁한 외투에 얇은 여름 바지를 입었고 몸에 걸친 것은 무엇이나 헐렁하고 맵시 있고 말쑥했으며, 속옷은 나무랄 데가 없었고 시곗줄은 묵직했다. 몸가짐은 느릿하고, 말하자면 무심한 듯하면서도 동시에 애써 거리낌 없고 편안했으며, 그는 제 잘난 체를 감추려고 애썼으나 그것은 순간순간 드러났다.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그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겼으나 일솜씨는 좋다고들 했다.

「오늘 자네한테 두 번이나 갔었네, 이 사람아. 보다시피 정신이 들었어.」 라주미힌이 외쳤다.

「보이네, 보여. 그래, 이제 우리 기분이 좀 어떤가, 응?」 조시모프가 라스콜니코프에게 말하며 그를 찬찬히 살폈고, 소파 발치에 앉아 되도록 편하게 자리를 잡았다.

「아직 가라앉아 있어.」 라주미힌이 말을 이었다. 「방금 속옷을 갈아입혔는데 하마터면 울 뻔했다니까.」

「그야 지극히 당연하지. 본인이 싫다면 미뤄도 되었을 텐데……. 맥은 아주 좋군. 머리는 아직 조금 아픈가, 응?」

「 나는 괜찮아요, 아주 멀쩡해요! 」 라스콜니코프가 단호하고 신경질적으로 잘라 말하고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번득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으나, 이내 베개 위로 도로 쓰러져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조시모프가 그를 뚫어지게 살폈다.

「 아주 좋아……. 잘돼 가는군. 」 그가 느릿하게 말했다. 「 뭘 좀 먹었나?」

그들이 알려 주고, 무엇을 먹여도 되는지 물었다.

「무엇이든 먹여도 되네…… 수프, 차…… 물론 버섯이나 오이는 주면 안 되고, 고기도 안 먹는 편이 낫고, 그리고…… 하기야 자네들한테 일러 줄 것도 없겠지!」 라주미힌과 그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약이고 뭐고 더는 필요 없네. 내일 또 들여다보지. 어쩌면 오늘이라도…… 아니, 아무래도 좋고……」

「 내일 저녁에는 산책을 시켜 볼 참이야. 」 라주미힌이 말했다. 「유수포프 정원에 갔다가 Palais de Cristal[1]에 갈 거고.」

「 내일은 아예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싶네만, 글쎄…… 조금이라면 혹시…… 어쨌든 두고 보지.」

「아, 이거 난처하군! 오늘 밤에 집들이를 하는데 여기서 몇 걸음도 안 되는 데야. 이 친구도 올 수 없을까? 소파에 누워 있으면 되는데. 자네는 오는 거지? 」 라주미힌이 조시모프에게 말했다. 「 잊지 말게, 약속했으니.」

「좋네, 다만 좀 늦게 가겠네. 무얼 할 참인가?」

「아무것도 아니야 — 차, 보드카, 청어. 파이도 하나 나올 거고…… 그저 우리끼리야.」

「누가 오는데?」

「전부 여기 이웃들이지, 거의 다 새로 사귄 사람들이고, 우리 늙은 삼촌만 빼고 — 하기야 그분도 새로운 셈이야, 어제 볼일이 있어서 페테르부르크에 막 도착했으니까. 우리는 오 년에 한 번꼴로 만나거든.」

「뭐 하는 분인가?」

「 평생 지방 우체국장으로 썩고 있지. 연금을 조금 받고. 예순다섯이고 — 이야기할 만한 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그분이 좋아.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도 올 거야. 여기 예심부[2] 책임자인데…… 법률학교 출신이지. 그래, 자네도 알지.」

「그 사람도 자네 친척인가?」

「아주 먼 친척이지. 그런데 왜 얼굴을 찡그리나? 한 번 다퉜다고 해서 안 오겠다는 건가?」

「그 사람이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네.」

「그럼 더 잘됐군. 그래, 학생 몇에다 교사 하나, 관리 하나, 악사 하나, 장교 하나, 그리고 자묘토프가 올 거야.」

「하나 물어보세, 자네나 저 친구가」 — 조시모프가 라스콜니코프 쪽으로 턱짓을 했다 — 「그 자묘토프라는 자와 무슨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이고, 이 깐깐한 양반! 원칙이라! 자네는 마치 태엽에 감긴 것처럼 원칙에 끌려다니는군. 제 생각으로 돌아설 엄두도 못 내고. 사람이 좋은 친구면 그걸로 그만이야, 내가 따르는 원칙은 그것뿐일세. 자묘토프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뇌물을 받기는 하지만.」

「그야 받지!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그자가 뇌물을 받든 말든 나는 상관없네.」 라주미힌이 어울리지 않게 성을 내며 소리쳤다. 「뇌물을 받는다고 그자를 칭찬하는 게 아니야. 그자가 그자 나름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할 뿐이지! 그런데 사람을 이모저모로 다 뜯어보면 — 남아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나야말로 내장까지 통째로 쳐도 구운 양파 한 알밖에 못 받을 게 뻔하고…… 그것도 자네를 얹어 줘야 그렇다니까!」

「그건 너무 박하군. 나라면 자네한테 두 알은 주겠네.」

「나는 자네한테 한 알밖에 못 주겠어. 어디 더 재간을 부려 보게! 자묘토프는 아직 애송이야. 나는 그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길 수도 있지만, 사람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야 하는 법일세. 밀어내서 사람을 고칠 수는 없어, 더구나 애송이는. 애송이한테는 두 배로 조심해야 하는 거야. 아이고, 이 진보적인 멍청이들! 자네들은 몰라. 남을 깎아내려 봐야 제 손해지……. 아무튼 정 알고 싶다면, 우리한테는 정말로 함께 걸린 일이 하나 있네.」

「그게 뭔지 듣고 싶군.」

「어떤 도장공 때문일세……. 우리가 그자를 궁지에서 빼내고 있거든! 하기야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지. 사안은 완전히 자명하니까. 우리는 그저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야.」

「도장공?」

「아니, 자네한테 그 이야기를 안 했던가? 그때는 첫머리만, 그러니까 전당포 노파, 관리의 미망인이 살해된 것까지만 이야기했지. 그런데 그 도장공이 거기 얽혔단 말이야……」

「아, 그 살인 사건은 전에 들었고 좀 관심이 있었네…… 얼마쯤은…… 한 가지 까닭이 있어서……. 신문에서도 읽었고…….」

「리자베타도 죽었어.」 나스타시야가 별안간 라스콜니코프를 향해 불쑥 말했다. 그녀는 내내 방 안에 남아 문가에 서서 듣고 있었다.

「리자베타?」 라스콜니코프가 들릴락 말락 중얼거렸다.

「리자베타, 헌옷 팔던 여자 말이야. 몰랐어? 여기도 왔었잖아. 네 셔츠도 기워 줬었고.」

라스콜니코프는 벽 쪽으로 돌아누워 더럽고 누런 벽지에서 갈색 선이 그어진 서툰 흰 꽃 하나를 골라내어, 그 꽃잎이 몇 장인지, 꽃잎에 톱니가 몇 개인지, 거기 그어진 선이 몇 개인지 헤아리기 시작했다. 그는 팔다리가 잘려 나간 것처럼 생기가 없다고 느꼈다. 움직이려 하지 않고 고집스레 그 꽃만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 도장공은?」 조시모프가 눈에 띄게 못마땅해하며 나스타시야의 수다를 끊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입을 다물었다.

「아니, 그자가 살인범으로 몰렸단 말일세.」 라주미힌이 열을 내며 말을 이었다.

「그럼 그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었나?」

「증거라니, 원! 증거 아닌 증거지, 그리고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게 바로 그거야. 처음에 코흐와 페스트랴코프, 그 친구들한테 덤벼든 것과 똑같아. 쳇! 어쩌면 그렇게들 어리석게 하는지, 남의 일인데도 속이 뒤집힌다니까! 페스트랴코프는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르지……. 그런데 로쟈, 너는 이 일을 벌써 들어서 알고 있지, 네가 앓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경찰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네가 기절하기 바로 전날 말이야.」

조시모프가 궁금한 눈으로 라스콜니코프를 보았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보게 라주미힌, 자네는 참 놀랍군. 어지간한 참견꾼일세!」 조시모프가 한마디 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자를 빼낼 걸세.」 라주미힌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가장 못마땅한 건 그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야 — 거짓말이야 언제든 용서할 수

있지, 거짓말은 즐거운 것이고 진실로 이끌어 주니까 — 못마땅한 건 거짓말을 하면서 제 거짓말을 떠받든다는 거야……. 나는 포르피리를 존경하네, 하지만…… 애초에 그자들을 헷갈리게 한 게 뭐였나? 그자들이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았는데 수위를 데리고 돌아와 보니 열려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 코흐와 페스트랴코프가 살인범이라는 거야 — 그게 그자들의 논리일세!」

「그렇지만 흥분하지 말게. 그자들은 그저 붙들어 둔 것뿐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러고 보니 나도 그 코흐라는 자를 만난 적이 있네. 그자가 노파한테서 기한 지난 전당물을 사들였다지? 응?」

「그래, 사기꾼일세. 부도난 빚도 사들이지. 그걸 업으로 삼은 자야. 하지만 그자 이야기는 그만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아나? 그자들의 역겹고 썩어빠진, 화석이 된 관행 때문일세……. 이 사건이야말로 새로운 방법을 들여올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야. 심리적 자료만으로도 진짜 범인의 자취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보여 줄 수 있단 말일세. 『우리에게는 사실이 있다』고 그자들은 말하지. 그러나 사실이 전부는 아니야 — 적어도 일의 절반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럼 자네는 해석할 수 있나?」

「아무튼 무언가 느낌이 있을 때는, 손에 잡히는 느낌이 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법일세,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에잇! 자네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아나?」

「나는 도장공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네.」

「아, 그렇지! 자, 이야기는 이러네. 살인이 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그자들이 아직 코흐와 페스트랴코프를 어르고 있을 때 — 그 두 사람은 제 걸음 하나하나를 다 해명했고 대낮처럼 뻔했는데도 말이야 — 뜻밖의 사실이 하나 튀어나왔네. 그 집 맞은편에서 선술집을 하는

두시킨이라는 농사꾼이 금 귀고리가 든 보석상 상자를 경찰서에 가져와서 장황한 소리를 늘어놓았지. 『그저께 여덟 시가 막 지났을 때』 — 날짜와 시각을 잘 봐 두게! — 『그날 벌써 한 번 제게 들렀던 도장공 니콜라이가 금과 보석이 박힌 이 귀고리 상자를 가져와서 2루블만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 길에서 주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 두시킨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걸세 — 『저는 지폐 한 장을』 — 1루블 말이야 — 『주었습니다, 저한테 잡히지 않으면 다른 데다 잡힐 테고 어차피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술로 다 날려 버릴 바에야 제 손에 있는 편이 낫지요. 깊이 감출수록 빨리 찾는 법이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소문이라도 들리면 경찰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 허튼소리지, 그자는 말처럼 거짓말을 하네, 나는 이 두시킨을 아는데 그자는 전당포를 하고 장물을 받는 자이고, 30루블짜리 물건을 니콜라이한테서 가로챈 것이 경찰에 갖다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지. 그저 겁이 났던 것뿐이야. 하지만 아무래도 좋고, 두시킨의 이야기로 돌아가지. 『저는 이 니콜라이 데멘티예프라는 농사꾼을 어릴 적부터 알았습니다. 같은 도(道) 자라이스크 군 출신이고 우리 둘 다 랴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이가 술고래는 아니어도 마시기는 하는데, 그가 그 집에서 역시 같은 마을 출신인 드미트리와 함께 칠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지요. 그 사람은 1루블을 받자마자 헐어서 두 잔을 마시고 거스름돈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때 드미트리는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는 누군가가 알료나 이바노브나와 그 동생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를 도끼로 죽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았고, 죽은 여자가 전당을 잡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알았기에 대뜸 그 귀고리가 수상하다 싶어, 그 집으로 가서 아무한테도 한마디 하지 않고 조심스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니콜라이가 여기 있소?" 하고

물었지요. 드미트리는 니콜라이가 술판을 벌이러 나갔다고, 새벽에 취해서 돌아와 십 분쯤 집에 있다가 다시 나갔다고, 그 뒤로는 못 봤고 혼자 일을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데는 살인이 난 바로 그 계단, 2층이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도 저는 아무한테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 이게 두시킨의 말일세 — 『그러나 살인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알아내고, 여전히 수상쩍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덟 시에』 —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이야, 알겠나 — 『니콜라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짱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취했다고 할 정도도 아니어서 하는 말은 알아들을 만했는데, 그는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는 모르는 사람 하나가 있었고, 아는 사람 하나가 의자에서 자고 있었고, 우리 집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를 보았나?" 하고 제가 물었지요. "못 봤소." 하더군요. "여기도 안 왔었고?" "그저께 뒤로는 안 왔소." "그럼 어젯밤엔 어디서 잤나?" "페스키에서, 콜로멘스키 사람들하고." "그 귀고리는 어디서 났나?" 하고 물었습니다. "길에서 주웠소." 하는데 말하는 품이 어딘가 이상했고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바로 그 시각에, 바로 그 계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나?"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하고 그가 말하기를 "못 들었소."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내 귀를 기울이고 눈이 튀어나올 듯하더니 얼굴이 백묵처럼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 일을 다 이야기해 주니 그는 모자를 집어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붙들고 싶었지요. "잠깐만 있게, 니콜라이,"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한잔 안 하겠나?" 그러고는 아이에게 문을 막으라고 손짓하고 저는 계산대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쳐나가 거리를 달려 모퉁이로 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못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 의심은 끝이 났습니다 — 그자의 짓입니다, 그보다 더 분명할 수가 없지요…….』」

「그야 그렇겠지.」 조시모프가 말했다.

「잠깐! 끝까지 듣게. 물론 그자들은 사방으로 니콜라이를 샅샅이 찾았고, 두시킨을 붙들어 두고 그 집을 수색했으며, 드미트리까지 잡아들였고, 콜로멘스키 사람들도 탈탈 털었네. 그리고 그저께 —— 스카야 관문 근처의 여인숙에서 니콜라이를 붙잡았는데, 그자는 거기 가서 목에 건 은 십자가[3]를 벗어 놓고 그것으로 술 한 잔을 달라고 했네. 사람들이 주었고. 몇 분 뒤에 아낙이 외양간에 갔다가 벽 틈으로, 옆 헛간에서 그자가 들보에 제 허리띠로 올가미를 만들어 걸고 나무토막 위에 올라서서 목을 끼우려 하는 것을 보았어. 아낙이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지. 『그래 그런 짓을 하려고 했구나!』 『나를』 하고 그자가 말하기를, 『아무 아무 경찰관한테 데려다주시오. 다 자백하겠소.』 그래서 그자들이 응당한 예우를 갖춰 그자를 그 경찰서로 — 그러니까 여기로 — 데려갔네. 그래서 이것저것 물었지, 나이가 몇이냐, 『스물둘이오』, 이런 식으로. 『드미트리와 일할 때, 몇 시 몇 시쯤에 계단에서 누구를 보지 못했나?』 하는 물음에 대답은 『오르내린 사람들이야 있었겠지만 눈여겨보지 않았소』. 『그럼 무슨 소리든, 무슨 기척이든 듣지 못했나?』 『별다른 소리는 못 들었소.』 『그러면 니콜라이, 바로 그날 아무개 미망인과 그 동생이 살해되고 강도를 당했다는 말은 들었나?』 『저는 그런 일은 전혀 몰랐소. 사흘째 되는 날 선술집에서 아파나시 파블로비치한테 처음 들었소.』 『그럼 귀고리는 어디서 났나?』 『길바닥에서 주웠소.』 『이튿날은 왜 드미트리와 일하러 나오지 않았나?』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까.』 『어디서 마셨나?』 『아무 아무 데서요.』 『두시킨의 가게에서는 왜 달아났나?』 『몹시 겁이 나서.』 『무엇이 겁났나?』 『죄를 뒤집어쓸까 봐.』 『죄가 없다고 느꼈다면 어째서 겁이 날 수 있나?』

자, 조시모프, 자네는 못 믿을지 모르지만 그 물음은 글자 그대로 그렇게 나왔네. 확실히 알고 있어, 그대로 옮겨 들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나?」

「어쨌든 증거는 있지 않나.」

「나는 지금 증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물음 이야기를, 그자들이 제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세. 자, 그렇게 그자들이 그를 쥐어짜고 또 쥐어짜니 그가 자백했네. 『길에서 주운 게 아니라 드미트리와 함께 칠하던 그 집에서 주웠소.』 『그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 『드미트리와 내가 거기서 온종일, 여덟 시까지 칠을 하다가 막 가려고 하는데, 드미트리가 붓을 집어 내 얼굴에 칠을 하고는 달아났고 내가 뒤쫓았소.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그를 뒤쫓았고, 계단 아래에서 수위와 웬 신사들과 정면으로 부딪쳤는데 신사가 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소. 수위가 나한테 욕을 했고 다른 수위도 욕을 했고 수위 아내가 나와서 우리한테 욕을 했고, 어떤 신사가 부인과 함께 대문간으로 들어오다가 역시 우리한테 욕을 했소, 드미트리와 내가 길을 가로막고 누워 있었으니까. 나는 드미트리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때리기 시작했소. 드미트리도 내 머리채를 잡고 때리기 시작했고. 그러나 우리는 성이 나서가 아니라 사이좋게, 장난으로 그런 것이오. 그러다가 드미트리가 빠져나가 거리로 달아났고 나도 뒤쫓았지만 붙잡지 못하고 혼자 그 집으로 돌아왔소. 내 물건들을 치워야 했으니까. 드미트리가 오기를 기다리며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거기 복도의 문 옆 구석에서 상자를 밟았고, 종이에 싸인 채 놓여 있는 것이 보여 종이를 벗기니 작은 고리들이 보였으며, 그것을 끌렀더니 상자 안에 귀고리가 있었소…….』」

「문 뒤에? 문 뒤에 놓여 있었다고? 문 뒤에?」 라스콜니코프가 별안간 소리치며 공포에 질린 멍한 눈으로 라주미힌을 쏘아보았고, 손을 짚고 천천히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주미힌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스콜니코프가 들릴락 말락하게 대답하며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한동안 모두 말이 없었다.

「꿈에서 깬 모양이군.」 라주미힌이 마침내 말하며 묻는 눈으로 조시모프를 보았다. 조시모프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자, 계속하게.」 조시모프가 말했다. 「그다음은?」

「그다음? 그자는 귀고리를 보자마자 드미트리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모자를 집어 들고 두시킨에게 달려가 아는 대로 그에게서 1루블을 받았고, 길에서 주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술을 마시러 갔지. 살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말만 되풀이하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사흘째 되는 날에야 처음 들었소.』 『그럼 왜 지금까지 경찰에 오지 않았나?』 『겁이 나서.』 『그럼 왜 목을 매려 했나?』 『걱정이 되어서.』 『무슨 걱정인가?』 『죄를 뒤집어쓸까 봐.』 자, 그게 이야기의 전부일세. 그런데 그자들이 거기서 무엇을 끌어냈을 것 같나?」

「끌어내고 말고 할 게 뭐 있나. 이러니저러니 해도 단서가 있고 사실이 있지 않은가. 자네 도장공을 풀어 주자는 건가?」

「그자들은 이제 그를 아주 살인범으로 여기고 있어.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네가 흥분한 걸세. 그런데 귀고리는 어떻게 되나?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각에 노파의 궤짝에서 나온 귀고리가 니콜라이의 손에 들어왔다면 그것이 어떻게든 거기까지 들어온 것이라는 점은 자네도 인정해야 하네. 이런 사건에서 그건 꽤 큰 일이야.」

「어떻게 들어갔느냐고? 어떻게 들어갔느냐고?」 라주미힌이 소리쳤다. 「의사인 자네가,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직분이고 누구보다

사람의 본성을 살필 기회가 많은 자네가 — 어떻게 이 이야기 전체에서 그 사내의 성격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인가? 그가 심문에서 한 대답들이 거룩한 진실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보지 못하겠나? 귀고리는 그가 우리에게 말한 그대로 그의 손에 들어온 걸세 — 그가 상자를 밟았고 그것을 주웠지.」

「 거룩한 진실이라! 하지만 처음에 거짓말을 했다고 그 자신이 실토하지 않았나?」

「내 말을 듣게, 귀 기울여 들어 보게. 수위와 코흐와 페스트랴코프와 다른 수위와 첫째 수위의 아내와 수위실에 앉아 있던 여자와, 마침 그때 마차에서 내려 부인을 팔에 끼고 대문간으로 들어선 궁정 고문관[4] 크류코프까지, 그러니까 여덟이나 열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니콜라이가 드미트리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때리고 있었고 드미트리는 그의 머리채를 붙들고 역시 때리고 있었다는 걸세. 두 사람은 길을 가로막고 통행을 막은 채 누워 있었고. 사방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 증인들의 말 그대로 —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뒤엉켜 넘어지고 깩깩거리고 싸우고 더없이 우스운 얼굴로 웃어 댔고, 아이들처럼 서로를 쫓아 거리로 뛰어나갔다는 거야. 들었나? 자, 잘 새겨 두게. 위층의 시체들은 따뜻했네, 알겠나, 발견되었을 때 따뜻했다고! 만일 그들이, 또는 니콜라이 혼자서 그들을 죽이고 궤짝을 부수어 열었거나 단순히 강도에 가담했다면, 한 가지만 묻겠네, 그런 마음 상태가, 그 깩깩거림과 낄낄거림과 대문간에서의 어린애 같은 몸싸움이 도끼와 유혈과 악마 같은 교활함과 조심성과 강도질에 어울리는 일인가? 그들은 오 분이나 십 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들을 막 죽여 놓고서 — 시체가 아직 따뜻했으니까 — 곧바로, 사람들이 당장 올라올 줄 알면서도 집을 열어 놓은 채, 훔친 것을 내던져 버리고 아이들처럼

뒹굴며 웃어 대고 사람들의 눈길을 죄다 끌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것을 한목소리로 증언하는 증인이 열 명이나 있네!」

「물론 이상한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지만……」

「아니야, 이 사람아, 하지만은 없네. 살인이 난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니콜라이의 손에서 귀고리가 나온 것이 그에게 불리한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된다 해도 — 그가 내놓은 진술로 곧바로 설명되니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지만 —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들도 함께 헤아려야 하네, 더구나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인 바에야. 그런데 자네는 우리 법 제도의 성격으로 보아, 단지 심리적 불가능 하나에만, 마음 상태 하나에만 기대고 있을 뿐인 이 사실을, 반박할 수 없고 검찰 측의 정황 증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자들이 받아들이리라고, 아니 받아들일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받아들이지 않네,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 그자들은 보석 상자를 찾아냈고 그 사내가 목을 매려 했으니까 말일세, 『죄가 없었다면 그럴 리 없었다』는 거지. 바로 그 점이야, 그 점이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거라고, 알아주게!」

「아, 자네가 흥분한 건 알겠네! 잠깐. 묻는다는 걸 잊었군. 그 상자가 노파의 것이라는 증거는 뭔가?」

「그건 밝혀졌네.」 라주미힌이 내키지 않는 기색으로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코흐가 그 보석 상자를 알아보고 임자의 이름을 댔고, 그 임자가 제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했지.」

「그건 좋지 않군. 그럼 또 한 가지. 코흐와 페스트랴코프가 처음에 위층으로 올라갈 때 니콜라이를 본 사람이 있었나, 그에 관한 증언은 없나?」

「아무도 보지 못했네.」 라주미힌이 분한 듯 대답했다. 「그게 가장 나쁜 점인데, 코흐와 페스트랴코프조차 올라가는 길에 그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기야 그들의 증언이 대단한 값어치가 있었을 리도 없지. 그들은 그 집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딱히 눈여겨보지 않아서 정말로 안에 일꾼들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네.」

「흠!…… 그러니까 변호에 쓸 증거라고는 그들이 서로 때리며 웃고 있었다는 것뿐이군. 그거야 강한 추정이 되긴 하지만…… 자네 자신은 이 사실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나? 그가 진술한 대로 정말 그렇게 주웠다면 귀고리가 거기 있었던 건 어떻게 설명하나?」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설명할 게 뭐가 있나? 뻔하지 않은가. 적어도 설명을 어느 쪽에서 찾아야 하는지는 뻔하고, 보석 상자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 진짜 살인범이 그 귀고리를 떨어뜨린 걸세. 코흐와 페스트랴코프가 문을 두드릴 때 살인범은 위층에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코흐가 멍청이처럼 문 앞에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살인범도 뛰쳐나와 내려왔고, 달리 빠져나갈 길이 없었으니까. 니콜라이와 드미트리가 막 뛰쳐나간 그 집에 들어가 코흐와 페스트랴코프와 수위를 피해 숨은 걸세. 수위와 다른 사람들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거기 있다가 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고, 그러고는 드미트리와 니콜라이가 거리로 뛰어나가고 대문간에 아무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태연히 계단을 내려간 거야. 누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눈여겨보지는 않았겠지. 드나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는 문 뒤에 서 있는 동안 주머니에서 귀고리를 떨어뜨렸을 것이고, 떨어뜨린 줄도 몰랐을 걸세, 다른 생각할 것이 있었으니까. 보석 상자야말로 그가 거기 서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일세……. 나는 그렇게 설명하네.」

「교묘하군! 아니야, 여보게, 이건 교묘해. 무엇보다 교묘하군!」

「하지만 왜, 왜 그런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 잘 들어맞고…… 짜여 있으니까…… 꼭 연극처럼 말일세.」

「아아!」 라주미힌이 막 소리를 지르려는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그 자리의 모두에게 낯선 인물 하나가 들어왔다.

---

1. Palais de Cristal — 「수정궁」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이름을 단 페테르부르크의 음식점. 이 자리는 러시아어 원문도 프랑스어 이름을 러시아 글자로 적었다(«Пале де Кристаль»). 뒤에서 러시아어 이름 『수정궁』으로 불리는 음식점과 같은 곳이다.

2. 예심부 — 제정 러시아의 형사 절차에서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 여부를 가리던 기관. 그 책임자인 예심판사는 변호인이 아니라 수사와 신문을 지휘하는 사법관이다.

3. 은 십자가 — 정교회 신자가 세례 때 받아 평생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4. 궁정 고문관 — 제정 러시아 관등표의 7등관.

2부 5장

이제는 젊다고 할 수 없는 신사였다. 뻣뻣하고 풍채가 좋았으며 얼굴빛은 조심스럽고 시큰둥했다. 그는 우선 문간에 우뚝 멈춰 서서, 제가 어떤 데를 들어왔나 스스로에게 묻기라도 하는 듯 무례하고 감추려 들지도 않는 놀라움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불신에 찬 눈으로, 놀란 척 거의 모욕이라도 당한 척하면서 그는 라스콜니코프의 나지막하고 비좁은 「선실」을 훑었다. 같은 놀라움으로 그는 라스콜니코프를 바라보았다.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씻지도 않은 채 초라하고 더러운 소파에 누워 그를 빤히 마주 보고 있는 라스콜니코프를. 이어서 똑같이 느릿느릿 그는 라주미힌의 텁수룩하고 단정치 못한 몰골과 면도하지 않은 얼굴을 뜯어보았는데, 라주미힌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대담하게 캐묻는 눈으로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팽팽한 침묵이 일 분쯤 이어졌고, 그런 다음 예상할 만한 대로 무대 장치가 바뀌었다. 아마도 꽤나 틀림없는 몇 가지 징후로 미루어 이 「선실」에서는 위압을 부려 봐야 얻어 낼 것이 없겠다고 헤아린 신사는 다소 누그러져서, 얼마간 엄격하기는 해도 정중하게, 묻는 말의 음절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짚어 가며 조시모프를 향해 말을 건넸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 대학생, 또는 전(前) 대학생 되십니까?」

조시모프가 느릿하게 몸을 움직였으니 어쩌면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나, 자기에게 묻지도 않은 라주미힌이 곧바로 가로챘다.

「여기 소파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이 허물없는 「무슨 일이죠」가 거드름을 피우던 신사의 발밑을 허물어 버린 듯했다. 그는 라주미힌 쪽으로 돌아서려다가 제때 자신을 다잡고 다시 조시모프에게로 돌아섰다.

「이 사람이 라스콜니코프입니다.」 조시모프가 그쪽으로 고갯짓을 하며 웅얼거렸다. 그러고는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리고 길게 하품을 했다. 그다음에는 느릿느릿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둥근 뚜껑이 달린 커다란 금시계를 꺼내어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고는, 그만큼이나 느리고 나른하게 도로 집어넣었다.

라스콜니코프 자신은 말없이 반듯이 누운 채, 아무 생각도 없이 낯선 사람을 끈질기게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이 벽지의 그 기이한 꽃에서 돌려져 있는 지금, 그 얼굴은 극도로 창백했고 방금 끔찍한 수술을 받았거나 고문대에서 막 끌려 내려온 사람 같은 고통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온 사람은 차츰 그의 주의를, 이어서 놀라움을, 이어서 의심과 심지어 경계심까지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조시모프가 「이 사람이 라스콜니코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 소파에 앉았고, 거의 도전하는 듯하면서도 약하게 갈라지는 목소리로 또렷이 말했다.

「그래요, 내가 라스콜니코프입니다! 무슨 일이죠?」

손님은 그를 뜯어보고 나서 묵직하게 말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쥔입니다. 제 이름이 귀하께 아주 생소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할 만한 근거가 본인에게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던 라스콜니코프는 표트르 페트로비치라는 이름을 난생처음 듣기라도 하는 듯 멍하니 꿈꾸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금껏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다소 비위가 상해서 물었다.

대답 대신 라스콜니코프는 나른하게 베개에 도로 몸을 묻고는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낀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루쥔의 얼굴에 낭패한 기색이 떠올랐다. 조시모프와 라주미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캐묻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는 틀림없는 당혹의 기색을 드러냈다.

「본인은 추정하고 또 산정하기를,」 그가 더듬거렸다. 「보름은 아니더라도 열흘이 넘게 전에 부친 편지라면……」

「이봐요, 왜 자꾸 문간에 서 있는 거예요?」 라주미힌이 불쑥 말을 끊었다. 「할 말이 있으면 앉으세요. 나스타시야하고 둘이 거기 서 있으니 비좁잖아요. 나스타슈시카, 자리 좀 내줘. 이리 오세요, 여기 의자 있으니까. 비집고 들어오세요!」

그는 탁자에서 제 의자를 뒤로 물려 탁자와 제 무릎 사이에 좁은 틈을 만들고는, 상당히 옹색한 자세로 손님이 「비집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을 어찌나 절묘하게 골랐는지 거절하기란 불가능했고, 손님은 서두르다 비틀거리며 몸을 비집어 넣었다. 의자에 다다르자 그는 자리에 앉아 미심쩍은 눈으로 라주미힌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거북해하실 것 없어요.」 라주미힌이 불쑥 내뱉었다. 「로쟈는 닷새째 앓고 있고 사흘은 헛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정신이 들었고 입맛 좋게 먹기까지 했어요. 이쪽은 방금 진찰하고 난 담당 의사고요. 나는 로쟈의 동무인데, 저 친구처럼 전에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간병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없는 셈 치고 거리끼지 말고 볼일이나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 있고 말을 나누는 것이 환자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조시모프에게

물었다.

「아-니요.」 조시모프가 웅얼거렸다. 「심심풀이는 되겠지요.」 그가 다시 하품을 했다.

「아, 정신이야 진작에 들었어요, 아침부터!」 라주미힌이 말을 이었는데, 그 허물없음이 어찌나 꾸밈없는 호의처럼 보였던지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차츰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허름하고 뻔뻔한 사내가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탓도 얼마쯤은 있었을 것이다.

「귀하의 어머님께서는」 루쥔이 입을 열었다.

「흠!」 라주미힌이 큰 소리로 헛기침을 했다. 루쥔이 캐묻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요. 계속하세요…….」

루쥔이 어깨를 으쓱했다.

「귀하의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그 인근에 체재하던 동안에 귀하께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지에 당도한 뒤 본인은 귀하께서 그 소식을 온전히 접수하셨음을 충분히 확인해 두기 위하여 일부러 며칠을 흘려보낸 다음에야 찾아뵙는 것이온데, 이제 와서 놀랍게도……」

「압니다, 알아요!」 라스콜니코프가 참지 못하고 짜증스럽게 별안간 소리쳤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약혼자군요? 압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이번에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기분이 상한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 힘껏 애썼다. 일 분쯤 침묵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 대답할 때 그쪽으로 몸을 조금 돌렸던 라스콜니코프가 별안간 다시 그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듯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눈에 띄기라도 했다는 듯 눈에 띄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를 바라보려고 일부러 베개에서 몸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풍채 전체에는 과연 무언가 유별난 데가, 그에게 그토록 격식 없이 붙여진 「약혼자」라는 명칭을 정당화해 주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우선,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수도에서 보낸 며칠을 약혼자를 맞을 채비로 제 몸을 꾸미고 차려입는 데 부지런히 썼다는 것이 너무도, 참으로 지나치리만큼 훤히 드러나 있었는데 — 하기야 이는 지극히 무해하고 허용될 만한 일이었다. 제 용모가 흡족하게 나아진 것을 두고 스스로 품은, 어쩌면 지나치게 흐뭇한 그 의식조차도,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약혼자라는 역을 떠맡은 마당이니 이런 사정에서는 눈감아 줄 만했다. 옷은 모두 양복점에서 갓 나온 것이었고 나무랄 데가 없었으나, 다만 너무 새것이고 용도가 너무 뚜렷하다는 것이 흠이었다. 멋들어진 새 둥근 모자조차 같은 뜻을 지니고 있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그것을 지나치게 공손히 다루었고 손에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진짜 주뱅제(製)[1]인 근사한 연보라 장갑 한 켤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 끼지 않고 보란 듯이 손에 들고만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러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차림에서는 밝고 젊은 빛깔이 우세했다. 그는 밝은 갈색의 어여쁜 여름 윗옷에 밝은 빛의 가벼운 바지, 같은 감의 조끼, 새것의 고운 속옷, 분홍 줄무늬가 든 더없이 얇은 고운 아마포 넥타이를 매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잘 어울렸다. 아주 싱싱하고 심지어 잘생겼다고 할 그의 얼굴은 언제 보아도 마흔다섯이라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거무스름한 구레나룻이 커틀릿 두 조각 모양으로 양 볼을 보기 좋게 덮고, 번들거리도록 말끔히 면도한 턱 양옆에서 보기 좋게 짙어져 있었다. 아주 조금 희끗한 머리카락조차, 이발소에서 빗질하고 지진 것인데도, 곱슬거리는 머리가 흔히 그러하듯 혼인날의 독일 사람을

어김없이 떠올리게 하여 그를 우스꽝스럽거나 어리석어 보이게 만들지는 않았다. 제법 잘생기고 당당한 그 얼굴에 정말로 어딘지 거슬리고 역겨운 데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원인에서 온 것이었다. 루쥔 씨를 격식 없이 훑어본 다음 라스콜니코프는 심술궂게 씩 웃고는 베개에 도로 몸을 묻고 아까처럼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루쥔 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들의 별난 짓거리를 당분간 못 본 체하기로 작정한 듯했다.

「귀하를 이러한 처지에서 뵙게 된 데 대하여 본인은 심심한 유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가 애써 다시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귀하의 병환을 알았더라면 더 일찍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겠지요. 게다가 본인에게는 변호사 일로 원로원[2]에 걸린 대단히 중요한 소송 건도 있고, 귀하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만한 여타의 용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귀하의 어머님과 누이께서 당장에라도 오실 참입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몸을 움직이며 무슨 말을 하려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 어떤 동요가 비쳤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말을 멈추고 기다렸으나 아무 말도 뒤따르지 않자 다시 말을 이었다.

「……당장에라도 말입니다. 두 분이 도착하시면 우선 묵으실 하숙을 잡아 두었습니다.」

「어딥니까?」 라스콜니코프가 힘없이 물었다.

「바로 이 근처, 바칼레예프의 집입니다.」

「 그건 보즈네센스키 대로에 있어요. 」 라주미힌이 끼어들었다. 「유신이라는 상인이 방을 세놓는 층이 둘 있죠. 나도 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셋방이지요……」

「 지독하게 역겨운 데예요 — 더럽고 악취가 나고, 게다가 수상한 곳이죠. 별일이 다 있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살고 있어요! 나도 추잡한

일로 거기 갔었고요. 싸기는 싸지만.」

「 본인은 물론 그렇게까지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 자신이 페테르부르크에는 낯선 사람이니까요. 」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뾰로통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방 둘은 대단히 깨끗하고, 또 그렇게 잠깐 동안이니…… 본인은 이미 영구적인,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의 장래 거처를 마련해 두었고」 그가 라스콜니코프를 향해 말했다. 「지금 손을 보게 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본인 자신은 여기서 몇 걸음 안 되는 리페베흐젤 부인의 셋집에서 젊은 벗인 안드레이 세묘노비치 레베쟈트니코프와 한방을 쓰느라 옹색하게 지내고 있지요. 바칼레예프의 집을 일러 준 것도 그 사람이고……」

「레베쟈트니코프요?」 라스콜니코프가 무언가를 떠올리기라도 하는 듯 천천히 말했다.

「 그렇습니다, 안드레이 세묘노비치 레베쟈트니코프, 부처의 관리입니다. 아십니까?」

「압니다…… 아니요.」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 실례했습니다. 물으시기에 그런 줄로 짐작했습니다. 본인이 한때 그의 후견인이었지요……. 아주 훌륭한 청년이고…… 시류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본인은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에게서 새것을 배우게 되니까요.」 루쥔이 기대에 찬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어떤 점에서요?」 라주미힌이 물었다.

「 가장 진지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에서 말입니다. 」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그 물음이 반갑기라도 한 듯 대답했다. 「 보십시오, 본인은 십 년 동안 페테르부르크에 와 보지 못했습니다. 온갖 새것과 개혁과 사상이 지방에도 닿기는 했으나, 그 전부를 더 또렷이 보려면 페테르부르크에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젊은 세대를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많이 관찰하고 배우는 길이라는 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거니와 본인은 아주 흡족합니다……」

「뭐가요?」

「폭이 넓은 물음이십니다. 본인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결 또렷해진 견해와, 더 많은, 말하자면, 비판과, 더 많은 실천성을 본인은 발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조시모프가 툭 던졌다.

「 헛소리! 실천성 같은 건 없어. 」 라주미힌이 달려들었다. 「 실천성은 어렵게 얻는 물건이야.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지 않아. 게다가 우리는 이백 년 가까이 무슨 일이든 손 놓는 버릇이 들었지…… 사상이야, 뭐, 끊고는 있겠지요.」 그가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말했다.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어린애 같기는 해도. 정직도 찾아볼 수 있어요, 사기꾼이 셀 수도 없이 몰려들기는 했어도. 그래도 실천성은 없어요! 실천성은 장화를 신고 다니거든요.」

「 본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눈에 띄게 즐거워하며 대답했다. 「 물론 사람들이 휩쓸려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만, 너그러이 보아야지요. 그 잘못들이란 대의를 향한 열정과 비정상적인 외적 환경의 증거일 따름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적다면 시간이 짧았던 탓이고, 수단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말씀드리거니와, 이미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본인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새롭고 값진 사상이 퍼졌고, 예전의 몽상적이고 낭만적인 저작들 대신에 새롭고 값진 저작 몇몇이 퍼졌습니다. 문학은 한결 성숙한 꼴을 갖추어 가고 있고, 해로운 편견들이 숱하게 뿌리 뽑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과거와 돌이킬 수 없이 인연을 끊었으며, 본인이 보기에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랑하려고 외워 왔군!」 라스콜니코프가 별안간 내뱉었다.

「무어라고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시모프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조시모프에게 상냥한 눈길을 던지며 말을 이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는 승리감과 거만함이 얼마간 서린 어조로 라주미힌을 향해 말을 이으며 — 하마터면 「젊은이」라고 덧붙일 뻔했다 — 「전진이라는 것이, 요즘 말로 하자면 과학과 경제학적 진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진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뻔한 소리!」

「아니,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어쩌면 지나치게 서둘러 말을 이었다. 「제 외투를 반으로 찢어 이웃과 나누어 갖고 둘 다 반쯤 벗은 꼴로 남는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러시아 속담이 이르기를, 『토끼 여러 마리를 쫓으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했지요. 과학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세상 모든 것이 사리(私利) 위에 서 있으니.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일을 제대로 건사하면 제 외투는 온전히 남습니다. 경제학적 진리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회 안에서 사사로운 일들이 잘 꾸려질수록 — 말하자면 온전한 외투가 많아질수록 — 그 사회의 기초는 더 튼튼해지고 공공의 복리 또한 더 잘 꾸려진다고. 그러므로 오로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하여 재산을 모으는 일로 본인은 말하자면 모두를 위하여 모으고 있는 것이며, 이웃이 찢어진 외투보다 조금은 더 나은 것을 갖게 되는 데 손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사로운 개인의 선심에서가 아니라 전체가 나아간 결과로서 말이지요. 생각은 단순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상주의와 감상에 가로막혀

우리에게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는 데에는 지혜랄 것이 거의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만……」

「 실례지만, 나도 지혜랄 게 없는 사람이라서요 」 라주미힌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그만둡시다. 나는 목적이 있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지난 삼 년 동안 제 흥에 겨워 떠들어 대는 이런 지껄임에, 늘 똑같은 뻔한 소리가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데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맹세코 나 말고 남이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기만 해도 낯이 뜨거워질 지경이에요. 당신이야 물론 제 학식을 서둘러 내보이고 싶었겠지요. 그건 충분히 봐줄 만하고 나무라지도 않아요. 나는 그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요즘 온갖 잇속꾼들이 하도 많이 공동의 대의에 달라붙어서 손대는 것마다 제 잇속에 맞게 비틀어 놓는 바람에 대의 전체를 완전히 더럽혀 놓았거든요. 자, 그만합시다!」

「실례합니다만, 선생.」 루쥔이 모욕을 느끼고 지나치게 위엄을 차려 말했다. 「그렇게 격식 없이, 본인 또한 그러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아이고, 선생님…… 제가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만합시다. 」 라주미힌은 그렇게 매듭짓고는 불쑥 조시모프에게로 돌아서서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그 부인(否認)을 받아들일 만한 분별은 있었다. 그는 이 분 뒤에 자리를 뜨기로 마음먹었다.

「우리의 교분이」 그가 라스콜니코프를 향해 말했다. 「귀하께서 회복하신 뒤에는, 또 귀하께서도 아시는 그 사정에 비추어,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귀하께서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 틀림없이 전당 잡히러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죽였네! 」 조시모프가 단정하듯 말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 라주미힌이 대답했다. 「포르피리는 제 생각을 말하지 않지만, 그 여자한테 물건을 맡긴 사람들을 전부 신문하고 있어.」

「신문한다고?」 라스콜니코프가 소리 내어 물었다.

「그래.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아내나?」 조시모프가 물었다.

「코흐가 몇 사람 이름을 댔고, 다른 이름들은 전당물 포장지에 적혀 있고, 제 발로 나선 사람들도 있고.」

「 교활하고 손에 익은 악당이 틀림없네! 그 대담함이라니! 그 결단력이라니!」

「바로 그게 아니라니까!」 라주미힌이 끼어들었다. 「다들 그 점에서 냄새를 잘못 맡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그자는 교활하지도 않고 손에 익지도 않았어. 아마 이번이 그자의 첫걸음이었을걸! 계산된 범죄이고 교활한 범인이라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아. 서투른 자였다고 쳐 봐. 그러면 그자를 구해 준 건 오로지 우연이었다는 게 분명해지지 — 그리고 우연이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아니, 그자는 걸림돌을 미리 내다보지도 못했을걸! 게다가 일을 어떻게 벌였나? 십 루블이나 이십 루블어치 패물을 집어서 주머니에 쑤셔 넣고, 노파의 궤짝이며 넝마 뭉치를 헤집어 놓았지 — 그런데 사람들이 서랍장 맨 윗서랍 상자 속에서 천오백 루블을, 그 밖에 증권까지 찾아냈단 말이야! 그자는 훔칠 줄을 몰랐어. 죽일 줄만 알았지.

첫걸음이었다니까, 장담하는데 첫걸음이야. 정신을 놓아 버린 거지. 그리고 머리를 잘 써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빠져나간 거고!」

「 얼마 전 관리의 미망인인 노파가 살해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조시모프를 향해 끼어들었다. 그는 모자와 장갑을 손에 들고 선 채였으나, 떠나기 전에 지적인 문구를 몇 마디 더 던지고 싶어진 것이었다. 그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 분명했고, 그 허영이 분별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아, 예. 근처에 있다 보니.」

「자세한 내용도 아십니까?」

「그렇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본인의 흥미를 끄는 것은 다른 사정입니다 — 말하자면 문제 전체 말이지요. 지난 오 년 동안 하층 계급에서 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도처에서 벌어지는 강도와 방화 사건들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본인에게 가장 기이하게 다가오는 것은 상층 계급에서도 범죄가 그에 비례하여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느 전(前) 대학생이 한길에서 우편마차를 턴 이야기가 들리고, 다른 쪽에서는 사회적으로 버젓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조지폐를 만듭니다. 근래 모스크바에서는 복권을 위조해 온 일당이 통째로 붙잡혔는데 그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가 만국사 강사였고,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 서기관은 무언가 불분명한 이득의 동기로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노파, 이 전당포 여자가 전당 잡히러 온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살해된 것이라면 그자 역시 사회의 상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되는데 — 농민은 금붙이를 전당 잡히지 않으니까요 — 그렇다면 문명화된 우리 사회 일부의 이 타락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경제적인 변화가 많지요.」 조시모프가 끼어들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고요?」 라주미힌이 받아쳤다. 「바로 우리의 너무 뿌리 깊은 실천성 없음으로 설명이 되겠지요.」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 모스크바의 그 강사, 당신이 말한 그 강사가 왜 복권 증서를 위조했느냐는 물음에 뭐라고 답했지요? 『다들 이러저러하게 부자가 되고 있으니 나도 서둘러 부자가 되고 싶었다』고 했어요.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요컨대 거저, 서둘러, 힘들이지 않고 갖고 싶다는 거였죠! 우리는 무엇이든 다 차려진 것으로 사는 데, 남이 잡아 주는 걸음마 끈에 매달려 걷는 데, 남이 씹어 준 음식을 먹는 데 길들었어요. 그러다 그 위대한 시간이 울렸고,[3] 사람마다 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하지만 도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원칙은……」

「 그런데 당신은 왜 그걸 걱정합니까? 」 라스콜니코프가 별안간 끼어들었다. 「당신 이론대로인데요!」

「본인의 이론대로라니요?」

「 아니, 방금 당신이 펴던 그 이론을 논리대로 끝까지 밀고 가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말이 되니까……」

「이럴 수가!」 루쥔이 외쳤다.

「아니, 그건 그렇지 않네.」 조시모프가 끼어들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새하얀 얼굴로 윗입술을 실룩거리며 괴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 무슨 일에나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 루쥔이 거만하게 말을 이었다. 「경제학적 사상은 살인의 선동이 아니며, 다만 가정해 보기만 하여도……」

「 그런데 사실입니까, 」 라스콜니코프가 또 한 번 별안간 끼어들었는데, 분노와 그를 모욕하는 데서 오는 쾌감으로 다시금 떨리는

목소리였다. 「사실입니까, 당신이 약혼녀에게…… 그 여자가 승낙한 지 한 시간도 되기 전에, 당신 마음에 가장 흡족했던 것은…… 그 여자가 빈털터리라는 점이었다고…… 아내란 가난에서 건져 올려야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고 제가 은인임을 두고두고 들이댈 수 있으니 그편이 낫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선생!」 루쥔이 당혹으로 시뻘게져서 성이 나고 짜증 난 목소리로 외쳤다. 「 선생…… 본인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비틀다니! 실례합니다만, 귀하께 도달한, 아니 도달했다기보다 전달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옳겠습니다만, 그 전언에는 사실의 근거가 전혀 없음을 확언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누구인지 짐작이…… 한마디로…… 이 화살은…… 한마디로, 귀하의 어머님…… 그분은 다른 점에서는, 그 온갖 훌륭한 자질을 지니셨음에도, 본인에게 다소 과장되고 낭만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을 그토록 기상천외하게 오해하고 왜곡하시리라고는 본인은 천만리만큼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참으로……」

「말해 둘 게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베개에서 몸을 일으켜 꿰뚫는 듯 번득이는 눈을 그에게 박으며 외쳤다. 「 말해 둘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루쥔이 도전적이고 모욕당한 얼굴로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앞으로 또 한 번이라도…… 감히 한마디라도 입에 올리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계단 아래로 거꾸로 굴려 버릴 겁니다!」

「아니 왜 이래!」 라주미힌이 외쳤다.

「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겁니까? 」 루쥔은 창백해져서 입술을 깨물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 」 그가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억누르면서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또박또박 말을 꺼냈다. 「본인은 아까 들어서자마자 귀하의 적의를 알아차렸습니다만, 더 알아보려고 일부러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앓는 사람에게, 더구나 인척이 될 사람에게라면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겠으나, 귀하는…… 이 일이 있고 난 뒤로는 결코……」

「난 아프지 않아!」 라스콜니코프가 외쳤다.

「그렇다면 더욱 나쁘지요……」

「썩 꺼져 버려요!」

그러나 루쥔은 말을 끝맺지도 않은 채 벌써 탁자와 의자 사이를 비집으며 나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라주미힌이 일어서서 길을 내주었다. 그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얼마 전부터 환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에게 눈짓을 보내고 있던 조시모프에게 고갯짓조차 하지 않은 채, 문을 나서느라 몸을 굽힐 때 모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구부러진 등줄기의 곡선마저 그가 받은 그 끔찍한 모욕을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 어떻게 그럴 수가!」 라주미힌이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버려 둬 — 다들 나를 내버려 두라고!」 라스콜니코프가 미친 듯이 외쳤다. 「나를 괴롭히는 걸 언제쯤 그만둘 거야? 나는 너희가 두렵지 않아! 이제 나는 아무도, 아무도 두렵지 않아! 저리 가! 혼자 있고 싶어, 혼자, 혼자!」

「가세.」 조시모프가 라주미힌에게 고갯짓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잖아!」

「 가세. 」 조시모프가 우기듯 되풀이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라주미힌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를 따라잡으려고 뛰어나갔다.

「말을 안 들어 주면 더 나빠질 걸세.」 조시모프가 층계에서 말했다. 「자극하면 안 되네.」

「대체 저 친구 왜 저래?」

「좋은 쪽으로 충격이라도 한 번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거라면 될 텐데! 처음에는 나아지고 있었네……. 저 친구 마음에 무언가 걸려 있다는 걸 자네도 알잖나! 무슨 고정된 생각 하나가 그를 짓누르고 있어……. 나는 그게 몹시 두렵네. 틀림없이 그런 게 있어!」

「아마 그 신사, 표트르 페트로비치 때문일 거야. 얘기를 들어 보니 저 친구 누이와 결혼할 모양이고, 병이 나기 바로 전에 그 일로 편지를 받았다던데…….」

「그래, 하필 지금 악마가 그 작자를 데려왔군! 일을 통째로 그르쳐 놓았을지도 모르네. 그런데 자네 눈치챘나, 저 친구가 무엇에도 관심이 없고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흥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있다는 걸 — 바로 그 살인 말일세?」

「그래, 그래.」 라주미힌이 맞장구를 쳤다. 「나도 알아챘어. 관심을 갖고 있고, 겁을 내고 있지. 병이 나던 날 경찰서에서 충격을 받았어. 기절을 했거든.」

「저녁에 그 얘기를 더 들려주게. 그러면 나도 나중에 자네에게 해 줄 얘기가 있네. 저 친구한테 아주 흥미가 가는군! 삼십 분쯤 뒤에 다시 가 보겠네……. 그래도 염증은 없을 걸세.」

「고마워! 그동안 나는 파셴카한테 가 있으면서 나스타시야를 통해 저 친구를 지켜보겠어…….」

혼자 남은 라스콜니코프는 초조하고 비참한 눈으로 나스타시야를 바라보았으나, 그녀는 여전히 꾸물거리고 있었다.

「이제 차라도 좀 들겠어?」 그녀가 물었다.

「나중에요! 졸려요. 좀 나가 줘요.」

그는 경련하듯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나스타시야가 나갔다.

---

1. 주뱅(Jouvin) — 프랑스 그르노블의 이름난 고급 장갑 상표. 가넷의 영역본은 이를 벨기에 도시 루뱅(Louvain)으로 잘못 옮겼다.

2. 원로원 — 제정 러시아의 최고 사법·행정 기관. 표트르 1세가 1711년에 세웠고, 19세기에는 사실상 최고 상소법원 구실을 했다. 루쥔이 말하는 「원로원에 걸린 소송」은 그가 최고심까지 올라간 사건을 맡고 있다는 뜻이다.

3. 1861년의 농노해방을 가리킨다. — 영역자 가넷의 주.

2부 6장

그러나 그 여자가 나가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에 걸쇠를 걸고, 아까 라주미힌이 가져왔다가 다시 묶어 두었던 꾸러미를 끌러 놓고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는 곧바로 더할 나위 없이 차분해진 듯했으니, 조금 전의 섬망도, 근래 들어 그를 따라다니던 그 공황과도 같은 공포도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기이하게 갑작스러운 그 평온의 첫 순간이었다. 동작은 정확하고 분명했으며 거기에는 굳은 목적이 뚜렷이 배어 있었다. 「오늘, 오늘이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자기가 아직 약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평온에까지, 붙박인 하나의 생각에까지 이른 극도의 정신적 긴장이 그에게 힘과 자신감을 주었고, 게다가 거리에서 쓰러지지는 않으리라는 희망도 있었다. 온통 새 옷으로 차려입고 나서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돈을 바라보았고, 잠시 생각한 뒤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십오 루블이었다. 라주미힌이 옷값으로 쓴 십 루블에서 남은 구리 잔돈도 전부 챙겼다. 그런 다음 소리 없이 걸쇠를 벗기고 밖으로 나가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가서는 열린 부엌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나스타시야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몸을 굽힌 채 집주인 여자의 사모바르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고, 나스타시야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하기야 그가 밖에 나가리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일 분 뒤 그는 거리에 나와 있었다.

여덟 시가 다 되어 해가 지고 있었다. 숨 막히기는 여전했으나 그는 악취 나고 먼지 낀 도시의 공기를 게걸스레 들이마셨다.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고, 열에 들뜬 두 눈과 야위고 창백하게 누런 얼굴에는 별안간 야만적이라 할 기운이 번득였다.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단번에, 당장 끝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전에는 그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끝낸다는 말인가? 그는 그것에 관해 아무 생각도 없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생각을 쫓아냈다.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가 아는 것, 그가 느끼는 것이라고는 모든 것이 「이러나저러나」 달라져야 한다는 것뿐이었고, 그는 절망적이면서도 꿈쩍하지 않는 자신감과 결의로 그 말을 되뇌었다.

오랜 버릇대로 그는 늘 다니던 길을 따라 곧장 건초 시장으로 향했다. 건초 시장에 못 미쳐, 검은 머리의 젊은 사내 하나가 손풍금을 들고 자그마한 잡화점 앞 길바닥에 서서 몹시 감상적인 노래를 돌려 내며, 제 앞 보도에 서 있는 열다섯 살쯤 된 처녀의 반주를 맡고 있었다. 처녀는 아가씨처럼 차려입고 있었으니, 크리놀린 치마를 받쳐 입고 망토를 걸치고 장갑을 끼고 불꽃 빛깔 깃을 꽂은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몹시 낡고 초라한 것이었다. 거리에서 노래하느라 갈라지고 거칠어졌으나 그래도 힘 있고 제법 듣기 좋은 목소리로, 처녀는 가게에서 이 코페이카짜리 한 닢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노래했다. 라스콜니코프는 두세 사람쯤 되는 구경꾼 틈에 끼어들었다가 오 코페이카짜리 하나를 꺼내 처녀의 손에 쥐여 주었다. 처녀는 감상적인 고음을 뽑다 말고 그 한복판에서 뚝 노래를 그치고는 손풍금쟁이에게 날카롭게 「그만!」 하고 외쳤고, 둘은 다음 가게로 옮겨 갔다.

「거리의 음악을 좋아해요?」 라스콜니코프가 곁에 우두커니 서 있던 중년 사내에게 말을 붙였다. 사내는 흠칫 놀라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거리의 손풍금에 맞춰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게 좋아요.」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는데, 그 태도는 이야기하는 내용과 기이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춥고 어둡고 축축한 가을 저녁에 듣는 게 좋지요 — 반드시 축축해야 해요 —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다 파리한 초록빛의 병든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아니면 바람 한 점 없는데 진눈깨비가 곧장 내리꽂힐 때가 더 좋고요 —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그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비쳐 나올 때요……」

「모르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낯선 사내는 그 물음에도 라스콜니코프의 기이한 태도에도 겁을 먹고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렸다.

라스콜니코프는 곧장 걸어서, 전에 그 좌판 장수가 제 마누라와 함께 리자베타와 이야기를 나누던 건초 시장 모퉁이로 나왔으나 지금 그들은 거기에 없었다. 그 자리를 알아보고 그는 걸음을 멈추어 둘레를 한 번 둘러본 다음, 곡물상 가게 앞에서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던 붉은 셔츠 차림의 젊은이에게 말을 붙였다.

「이 모퉁이에서 마누라하고 같이 좌판을 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기선 온갖 사람이 다 좌판을 내지요.」 젊은이는 라스콜니코프를 깔보는 눈으로 흘끗 보며 대답했다.

「그 사람 이름이 뭔데요?」

「세례 때 받은 이름이겠지요.」

「댁도 자라이스크 사람 아니에요? 어느 지방이죠?」

젊은이가 라스콜니코프를 다시 쳐다보았다.

「저희 쪽은 지방이 아니라 군(郡)[1]입죠, 나리. 그리고 다니기는 형이 다녔고 저는 집에만 있어서 모릅니다요……. 너그러이 용서하십쇼, 나리!」

「저 위에 있는 게 술집인가요?」

「예, 밥집이고요, 당구장도 있고, 공주님들도 계시죠……. 랄라!」

라스콜니코프는 광장을 가로질렀다. 그 모퉁이에는 농민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고, 그는 얼굴들을 살피며 가장 빽빽한 곳으로 밀고 들어갔다. 사람들과 말을 트고 싶다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에게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고, 다들 무리를 지어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는 서서 잠시 생각하다가 오른쪽으로 꺾어 보도를 따라 V 쪽으로 향했다. 광장을 지나 그는 어느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는 시장에서 사도비 거리로 이어지며 비스듬히 꺾이는 그 작은 골목을 자주 건너다녔다. 근래 들어 그는 마음이 울적할 때면 이 동네를 떠돌고 싶어지곤 했으니, 더 울적해지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다. 그 언저리에는 커다란 건물 한 채가 통째로 선술집과 밥집으로만 세를 놓고 있었고, 여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실내복 차림으로 끊임없이 드나들며 여기저기 보도에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는데 특히 아래층에 있는 온갖 흥청거리는 업소의 입구 언저리가 그러했다. 그중 한 곳에서 요란한 소음과 노랫소리와 기타를 퉁기는 소리와 흥겨운 고함 소리가 거리로 흘러나왔고, 여자들이 떼를 지어 문간을 둘러싸고서 더러는 층계에 앉고 더러는 보도에 앉았으며 더러는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술 취한 군인 하나가 궐련을 피워 물고 욕설을 내뱉으며 그들 곁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론가 가는 길을 찾으려는 듯했으나 어디였는지를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거지 하나가 다른 거지와 다투고 있었고, 곤드레만드레 취한 사내 하나가 길을 가로질러 드러누워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여자들 무리에 끼어들었는데, 그 여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무명옷에

염소가죽 신을 신고 있었다. 마흔이 넘은 여자도 있었고 열일곱을 넘지 않은 여자도 있었으며, 거의 모두가 눈두덩이 멍들어 있었다.

아래층 술청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온갖 소음과 소동이 기이하게 그를 끌어당겼다……. 안에서는 누군가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기타 소리와 경쾌한 가락을 뽑아 대는 가느다란 가성에 맞추어 제 뒤꿈치로 박자를 밟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입구에 몸을 굽히고 보도에서 안쪽을 캐묻듯 들여다보면서, 음울하고 몽롱한 얼굴로 골똘히 귀를 기울였다.

「아아 나의 잘생긴 순경 나리 공연한 일로 나를 때리지 마오,」

하고 노래하는 자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떨듯 뽑아 올렸다. 라스콜니코프는 그자가 대체 무엇을 부르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으니, 마치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기라도 한 듯했다.

「들어가 볼까?」 그는 생각했다. 「저들은 웃고 있다. 술 때문이지. 나도 취해 버릴까?」

「안 들어오실래요, 나리?」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아직은 가락이 있었고 다른 여자들만큼 탁하지 않았다. 젊었고 역겹지 않았다 — 무리에서 유일하게.

「이런, 예쁜데.」 그가 몸을 곧추세우고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자는 그 칭찬이 몹시 흐뭇해서 미소를 지었다.

「댁도 아주 잘생겼네요.」 여자가 말했다.

「그런데 어지간히 말랐네!」 다른 여자가 굵은 저음으로 한마디 했다. 「병원에서 막 나왔수?」

「죄다 장군 딸들이신 모양인데 코는 하나같이 납작코란 말씀이야.」 헐렁한 웃옷을 걸치고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띤 얼근한 농사꾼이 끼어들었다. 「저렇게들 신이 났는 것 좀 보라지.」

「왔으면 들어가든지!」

「들어가고말고! 꿀맛이지!」

그러고는 아래층 술청으로 쏜살같이 내려가 버렸다. 라스콜니코프는 걸음을 옮겼다.

「저기요, 나리.」 처녀가 그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무슨 일이에요?」

여자는 머뭇거렸다.

「 언제든 한 시간쯤 모시면 기쁘겠어요, 친절하신 나리.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워서요. 술 한잔 하게 육 코페이카만 주세요, 착한 도련님!」

라스콜니코프는 손에 먼저 잡히는 것을 주었다 — 십오 코페이카였다.

「아이고, 마음씨 고운 나리도 다 계시네!」

「이름이 뭐예요?」

「두클리다를 찾으면 돼요.」

「어머, 너무하네.」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두클리다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 했다. 「 어떻게 저렇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쓰러졌을걸…….」

라스콜니코프는 말한 여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다. 서른쯤 된 곰보 계집으로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윗입술이 부어 있었다. 여자는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그 나무람을 했다. 「 어디였더라. 」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죽기 한 시간 전에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어디서 읽었더라. 어느 높은 바위 위에서, 겨우 설 자리밖에 없는 좁은 턱 위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둘레에는 낭떠러지와 대양과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고독과 영원한 폭풍뿐이라면, 평생을, 천 년을, 영원을 한 아르신의 자리에 선

채로 견뎌야 한다면, 그래도 당장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는 편이 낫다는 것! 살기만 한다면, 살고 또 산다면! 삶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얼마나 옳은 말인가! 하느님 맙소사, 얼마나 옳은가! 사람은 비열한 존재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람을 비열하다 부르는 자야말로 비열하다.」 그는 잠시 뒤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다른 거리로 들어섰다. 「이런, 『수정궁』[2]이잖아! 라주미힌이 아까 『수정궁』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대체 내가 무엇을 하려던 거였더라? 그래, 읽으려던 거였지!…… 조시모프가 신문에서 읽었다고 했지. 신문 있어요?」 그는 방이 여럿 딸렸으나 꽤 비어 있는, 아주 널찍하고 정말이지 깨끗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두세 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었고, 더 안쪽 방에는 네 사람이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중 하나가 자묘토프인 것 같았으나 그 거리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러면 또 어떤가?」 그는 생각했다.

「보드카 드릴까요?」 급사가 물었다.

「차를 주고 신문도 가져다줘요, 지난 닷새치 묵은 것으로. 술값은 따로 주지요.」

「예, 손님, 오늘 치가 여기 있습니다. 보드카는 안 하시고요?」

묵은 신문들과 차가 나왔다. 라스콜니코프는 자리에 앉아 신문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 이즐레르, 이즐레르, 아스텍인, 아스텍인, 이즐레르, 바르톨라, 마시모, 아스텍인, 이즐레르[3]…… 쳇, 젠장! 아, 이건 소식란이군. 계단에서 떨어진 여자, 술 때문에 저절로 타 죽은 좌판 장수, 페스키의 화재…… 페테르부르크 구의 화재…… 페테르부르크 구의 또 다른 화재…… 그리고 페테르부르크 구의 또 다른 화재…… 이즐레르, 이즐레르, 이즐레르, 이즐레르, 마시모……. 아, 여기 있다!」 마침내 찾던 것을 찾아내어 그는 읽기 시작했다. 글줄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으나 그는 끝까지 다 읽고는 뒤이은 호들에서 나중에 덧붙은 기사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 신문장을 넘기는 그의 손이 신경질적인 조바심으로 떨렸다. 별안간 누군가 그의 탁자 옆자리에 앉았다. 고개를 들어 보니 수석 서기 자묘토프였고 예전 그대로였다. 손가락에는 반지를, 가슴에는 시곗줄을 달고, 검은 고수머리를 가르마 타서 포마드로 붙여 넘겼으며, 맵시 있는 조끼에 제법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속옷은 깨끗하지 못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적어도 아주 유쾌하고 사람 좋게 웃고 있었다. 거무스름한 얼굴이 마신 샴페인 탓에 제법 붉어져 있었다.

「아니, 여기 있었나?」 그는 평생 알고 지낸 사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로 놀라며 입을 열었다. 「아니, 라주미힌이 바로 어제 자네가 의식이 없다고 하던데. 이상한 일이군! 그런데 내가 자네를 보러 갔던 건 알고 있나?」

라스콜니코프는 그가 다가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문을 옆으로 밀어 놓고 자묘토프 쪽으로 돌아앉았는데, 입술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그 미소에는 조바심 섞인 짜증의 새로운 빛이 배어 있었다.

「알고 있네.」 그가 대답했다. 「들었어. 내 양말을 찾았다지……. 그런데 라주미힌이 자네한테 홀딱 반한 건 아나? 자네하고 같이 루이자 이바노브나한테 갔다더군 — 그 있잖나, 자네가 편들어 주려고 했던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자네가 화약 중위에게 눈짓을 했는데 그자가 알아듣지 못했다는. 기억나나?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지 — 아주 분명했잖나, 안 그런가?」

「참 다혈질이란 말이야!」

「그 화약 말인가?」

「아니, 자네 친구 라주미힌 말이야.」

「팔자가 좋겠어, 자묘토프 씨. 제일 재미난 데는 죄다 공짜로 드나드니. 방금 누가 자네한테 샴페인을 부어 넣어 줬나?」

「우리는 그냥…… 같이 한잔한 거야……. 부어 넣어 줬다니 무슨 말버릇인가!」

「사례금 삼아서겠지! 자네는 무엇에서든 이득을 보는군!」 라스콜니코프가 웃었다. 「괜찮네, 착하디착한 젊은이, 괜찮아!」 그는 자묘토프의 어깨를 두드리며 덧붙였다. 「골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장난삼아 하는 말이야, 그 노파 사건에서 자네네 그 일꾼이 미트카하고 드잡이하면서 한 말마따나…….」

「그걸 어떻게 아나?」

「어쩌면 자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지도 모르지.」

「자네 참 이상하군……. 아직 몸이 아주 안 좋은 게 틀림없어. 나오지 말았어야 했네.」

「오, 내가 자네한테 이상해 보이나?」

「그래. 뭘 하고 있었나, 신문을 읽고 있었어?」

「그래.」

「화재 기사가 많더군.」

「아니, 나는 화재 기사를 읽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그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자묘토프를 보았다. 그의 입술이 다시 조롱하는 미소로 비틀렸다. 「아니, 나는 화재 기사를 읽는 게 아니라고.」 그는 자묘토프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실토해 보게, 젊은 친구, 내가 무엇에 관해 읽고 있는지 지독히도 알고 싶지?」

「조금도 안 궁금해. 그냥 물어본 거야. 물어보면 안 되나? 자네는 어째서 자꾸……?」

「이보게, 자네는 교양과 교육을 갖춘 사람이지?」

「김나지움[4] 6학년까지 다녔네.」 자묘토프가 얼마쯤 위엄을 차리며 말했다.

「6학년이라! 아, 내 새끼 참새! 가르마에 반지까지 — 자네는 돈 있는 신사로군. 푸! 이 귀여운 도련님 같으니!」 여기서 라스콜니코프는 자묘토프의 얼굴에 대고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상대는 기분이 상했다기보다 어이가 없어서 몸을 물렸다.

「푸! 자네 참 이상하군!」 자묘토프가 아주 진지하게 되풀이했다. 「아무래도 자네가 아직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거짓말 말게, 내 새끼 참새! 그래, 내가 이상해? 내가 신기하다는 거지?」

「그래, 신기해.」

「내가 무엇에 관해 읽고 있었는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말해 줄까? 신문을 이렇게나 많이 가져오게 한 걸 좀 보게. 수상하지, 응?」

「그래서, 뭔가?」

「귀가 쫑긋해지나?」

「『귀가 쫑긋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지. 그런데 지금은 말이야,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진술하는데…… 아니, 『자백한다』가 낫겠군…… 아니, 그것도 옳지 않아. 『내가 공술하고 자네가 조서를 꾸미는 것이다.』 공술하건대 나는 읽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뒤지고 있었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을 멈추었다. 「내가 뒤지고 있던 것은 — 그리고 그러려고 일부러 여기 온 건데 — 관리의 과부인 그 노파가 살해된 사건의 소식이야.」 그는 마침내 그렇게 또렷이 발음했다, 거의 속삭이듯, 제 얼굴을 자묘토프의 얼굴에 지독히도 가까이 들이대면서. 자묘토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얼굴을 물리지도 않은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뒷날 자묘토프에게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기이하게

여겨진 것은 그 뒤로 꼭 일 분 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그동안 내내 둘이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자네가 그걸 읽었다 한들 어떻다는 건가?」 그가 마침내 당황하고 조바심이 나서 소리쳤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바로 그 노파 말이야.」 라스콜니코프는 자묘토프의 외침에도 꿈쩍하지 않고 여전히 속삭이며 말을 이었다. 「기억하지, 경찰서에서 다들 그 노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기절했잖나. 자, 이제 알겠나?」

「무슨 말인가? 알겠느냐니…… 무엇을?」 자묘토프가 거의 겁먹은 듯 겨우 말을 꺼냈다.

라스콜니코프의 굳고 진지하던 얼굴이 별안간 변했고, 그는 도무지 제 자신을 억누를 수 없겠다는 듯 아까와 똑같은 신경질적인 웃음을 또 한 번 터뜨렸다. 그리고 한순간의 섬광처럼 그는 얼마 전의 어떤 순간을, 문 뒤에 도끼를 들고 서 있고 걸쇠가 떨리고 바깥에서 사내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흔들어 대던 그 순간을, 그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퍼붓고 혀를 내밀고 조롱하고 웃고 웃고 또 웃고 싶다는 욕망이 별안간 치밀던 그 순간을 유별난 감각의 생생함으로 되살렸다.

「자네는 미쳤거나, 아니면……」 자묘토프는 말을 꺼냈다가, 별안간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어떤 생각에 얻어맞기라도 한 듯 말을 뚝 그쳐 버렸다.

「아니면? 아니면 뭔가? 뭐? 자, 말해 보게!」

「아무것도 아니야.」 자묘토프가 성을 내며 말했다. 「죄다 헛소리야!」

둘 다 잠잠해졌다. 별안간 웃음을 터뜨리고 난 뒤 라스콜니코프는 갑자기 생각에 잠겨 울적해졌고,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손에 머리를

얹은 채 자묘토프를 아주 잊어버린 듯했다.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다.

「왜 차를 안 마시나? 식겠네.」 자묘토프가 말했다.

「뭐? 차? 아, 그래…….」 라스콜니코프는 잔을 홀짝이고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가, 별안간 자묘토프를 바라보더니 모든 것을 기억해 낸 듯 정신을 가다듬었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처음의 조롱하는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차를 계속 마셨다.

「요즘 그런 사기가 아주 많아졌어.」 자묘토프가 말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모스크바 소식』에서 읽었는데, 모스크바에서 위조 화폐범 한 패가 통째로 붙잡혔다더군. 제대로 된 결사였다는 거야. 지폐를 위조하곤 했다지!」

「아, 그건 오래전 일이야! 나는 한 달 전에 읽었네.」 라스콜니코프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럼 자네는 그자들을 사기꾼으로 치나?」 그는 미소를 띠며 덧붙였다.

「당연히 사기꾼이지.」

「그자들이? 그자들은 어린애고 얼뜨기지 사기꾼이 아니야! 아니, 그런 일을 하자고 쉰 명이 모이다니 — 그게 무슨 생각인가! 셋도 너무 많은데, 게다가 저마다 제 자신보다 남을 더 믿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하나만 술김에 입을 놀리면 죄다 무너지는 거야. 얼뜨기들! 게다가 지폐 바꾸는 일을 믿지 못할 자들에게 맡겼어 — 어쩌다 만난 낯선 자에게 그런 일을 맡기다니! 좋아, 그 얼뜨기들이 성공해서 저마다 백만씩 쥐었다고 치세, 그러면 남은 평생은 어떻게 되나? 저마다 남은 평생 서로에게 매이는 거야! 차라리 당장 목을 매는 편이 낫지! 게다가 지폐 바꾸는 법도 몰랐어. 지폐를 바꾸러 간 자가 오천 루블을 받았는데 손이 떨렸다는 거야. 처음 사천은 세고 다섯째 천은 세지도 않았어 —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달아나기가 그렇게 급했던 거지. 당연히 의심을 샀고. 그래서 바보 하나 때문에 통째로 무너져 버렸어! 그럴 수가 있나?」

「손이 떨렸다는 것 말인가?」 자묘토프가 한마디 했다. 「그래, 그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지. 그건,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있을 법해. 어떤 일은 사람이 견뎌 내지 못하는 법이니까.」

「그걸 못 견딘다고?」

「아니, 자네라면 그때 견뎌 낼 수 있었겠나? 나라면 못 해. 백 루블 때문에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는다고? 그런 걸 가려내는 것이 본업인 은행에 위조 지폐를 들고 간다고! 아니, 나라면 그럴 낯이 없어. 자네라면 하겠나?」

라스콜니코프는 또다시 「 혀를 내밀고 」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등줄기로 오한이 자꾸 흘러내렸다.

「나라면 아주 다르게 하겠네.」 라스콜니코프가 에둘러 입을 열었다. 「 나는 지폐를 이런 식으로 바꾸겠어. 처음 천은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면서 앞뒤로 네 번쯤 세고, 그런 다음 둘째 천으로 넘어가서 그것은 절반쯤 세다가 오십 루블짜리 한 장을 빛에 비춰 보고, 뒤집어 보고, 또 한 번 빛에 비춰 보는 거야 —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보려고. 『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요. 』 나는 이렇게 말하겠지. 『 우리 친척 하나가 며칠 전에 위조 지폐 때문에 이십오 루블을 날렸거든요. 』 그러고는 그 이야기를 통째로 들려주는 거야. 그런 다음 셋째 천을 세기 시작했다가 『아니, 잠깐만요, 아무래도 둘째 천의 일곱째 백에서 제가 잘못 센 것 같은데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고는 셋째 천을 밀어 놓고 둘째 천으로 되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다 끝내고 나서는 다섯째 천에서 한 장, 둘째 천에서 한 장을 골라내 그것을 다시 빛에 비춰 보고 또 이렇게 묻는 거야. 『이것 좀 바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은행 직원을 어찌할 바 모르게 들볶아 놓아서, 나를 어떻게 떼어 내야 할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다 끝내고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아니, 잠깐만요』 하고는 뭔가 설명을 청하는 거야. 나라면 그렇게 하겠네.」

「푸! 끔찍한 소리를 하는군!」 자묘토프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죄다 말뿐이야. 막상 일에 닥치면 자네도 실수를 할걸. 이골이 난 대담한 자라도 제 자신을 늘 믿을 수는 없는 법인데 하물며 자네나 나겠나. 가까운 데서 예를 들자면 — 우리 관할에서 살해된 그 노파 말이야. 살인자는 대담한 자였던 모양이야, 대낮에 모든 것을 걸었고 기적으로 살아났지 — 그런데 그자도 손이 떨렸어. 물건을 털어 내는 데는 실패했으니, 견뎌 내지 못한 거지. 그건 분명해, 그……」

라스콜니코프는 기분이 상한 듯했다.

「분명하다고? 그럼 어디 이제 그자를 잡아 보게!」 그가 자묘토프를 악의 있게 놀리며 소리쳤다.

「곧 잡힐 거야.」

「누가? 자네들이? 자네들이 그자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어려운 일이지! 자네들에게 큰 단서라고는 누가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뿐이야. 돈이 없던 자가 갑자기 쓰기 시작하면 그자가 범인이라는 거지. 그러니 어린애라도 자네들을 속일 수 있어.」

「사실이 그렇다니까, 늘 그런다고.」 자묘토프가 대답했다. 「목숨을 걸고 교묘한 살인을 저지르고는 곧장 술집에 가서 마셔 대는 거야. 돈을 쓰다가 붙잡히지. 다들 자네만큼 꾀바르지는 못하거든. 자네야 물론 술집에는 가지 않겠지?」

라스콜니코프는 얼굴을 찌푸리고 자묘토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는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지도 알고 싶은가?」 그가 언짢은 기색으로 물었다.

「알고 싶네.」 자묘토프가 단호하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과 눈빛에 지나치다 싶은 진지함이 얼마쯤 비치기 시작했다.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좋아, 그럼. 나라면 이렇게 하겠네.」 라스콜니코프가 입을 열었다, 다시 제 얼굴을 자묘토프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고, 다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속삭이듯 말했으므로 상대는 정말로 몸서리를 쳤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돈과 패물을 챙겨서 거기서 걸어 나온 다음, 울타리가 둘러쳐지고 사람 그림자라고는 거의 없는 어느 버려진 자리로, 채마밭이나 그런 데로 곧장 갔겠지. 미리 봐 둔 돌이 하나 있어야 해, 집이 지어질 때부터 그 구석에 놓여 있던, 무게가 한 푸드나 한 푸드 반[5]쯤 나갈 만한 돌덩이 말이야. 그 돌을 들어 올리면 — 아래에는 틀림없이 우묵한 구멍이 있을 테고, 나는 그 구멍에 패물과 돈을 넣겠어. 그런 다음 돌을 도로 굴려 놓아 전과 똑같아 보이게 하고 발로 꾹 눌러 놓고는 걸어 나오는 거야. 그러고는 일 년이든 이 년이든, 어쩌면 삼 년이든 손도 대지 않는 거지. 자, 그러면 실컷 찾아보라지! 아무 흔적도 없을 테니까.」

「자네는 미친 사람이야.」 자묘토프가 말했는데, 무슨 까닭인지 그 역시 속삭이고 있었고, 두 눈이 번득이는 라스콜니코프에게서 몸을 물렸다. 라스콜니코프는 무섭게 창백해져 있었고 윗입술이 실룩실룩 떨렸다. 그는 자묘토프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몸을 굽혔고, 그의 입술이 한마디도 내지 않은 채 움직이기 시작해 그것이 반 분쯤 이어졌으니,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자신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 무서운 낱말이 그의 입술 위에서 떨렸으니 그때 그 문의 걸쇠처럼 떨렸고, 한순간만 더 지나면 그것이 터져 나오고, 한순간만 더 지나면 그가 그것을 놓아 버리고, 그가 말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노파하고 리자베타를 죽인 것이 나라면?」 그는 별안간 그렇게 말했고 —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자묘토프가 미친 듯한 눈으로 그를 보았고 식탁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의 얼굴에 일그러진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가 힘없이 겨우 말했다. 라스콜니코프가 노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실토하게, 자네가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지, 믿었지?」

「천만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안 믿네!」 자묘토프가 황급히 외쳤다.

「드디어 걸려들었군! 내 새끼 참새를 잡았어.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안 믿는다』면 전에는 믿었다는 것 아닌가?」

「전혀 아니야.」 자묘토프가 분명 당황해서 외쳤다. 「이 말을 끌어내려고 나를 그렇게 겁준 건가?」

「그럼 안 믿는다는 건가? 내가 경찰서에서 나갔을 때 자네들은 내 등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내가 기절한 뒤에 그 화약 중위는 왜 나를 심문했나? 여보시오.」 그는 일어서서 모자를 집으며 급사에게 소리쳤다. 「얼마요?」

「삼십 코페이카입니다.」 급사가 달려오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십 코페이카는 술값[6]이고. 돈이 이렇게나 많은 것 좀 보게!」 그는 지폐를 쥔 떨리는 손을 자묘토프에게 내밀었다. 「붉은 것에 푸른 것[7], 이십오 루블이야. 이걸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내 새 옷은 어디서 났을까? 나한테 한 푼도 없었던 건 자네도 알지. 내 집주인 여자를 벌써 캐물어 봤겠지, 틀림없이……. 그래, 이만하면 됐어! Assez causé![8] 또 만날 때까지!」

그는 견딜 수 없는 환희의 요소가 섞인 일종의 사나운 히스테리 같은 감각으로 온몸을 떨면서 밖으로 나갔으나, 그러면서도 음울했고 지독하게 지쳐 있었다. 발작을 겪고 난 뒤처럼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피로가 빠르게 더해 갔다. 어떤 충격이든 어떤 거스르는 감각이든 그의 기운을 단번에 돋우고 되살려 놓았으나, 그 자극이 걷히고 나면 그만큼이나 빠르게 그에게서 힘이 꺼져 버렸다.

혼자 남은 자묘토프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으니, 라스콜니코프는 어떤 점에 관해 저도 모르게 그의 머릿속에 혁명을 일으켰고 그를 대신해 결정적으로 마음을 정해 주었던 것이다.

「일리야 페트로비치는 멍청이다.」 그는 그렇게 판정했다.

라스콜니코프가 음식점 문을 열자마자 그는 층계에서 라주미힌과 부딪쳤는데, 둘은 거의 맞부딪칠 때까지 서로를 보지 못했고, 한순간 그들은 선 채로 서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라주미힌은 몹시 놀랐고, 이어 분노가, 진짜 분노가 그의 두 눈에서 사납게 번득였다.

「그래 여기 있었군!」 그가 목청껏 소리쳤다. 「침대에서 달아났어! 나는 소파 밑까지 뒤지고 다녔는데! 다락방에도 올라가 봤어. 너 때문에 나스타시야를 하마터면 때릴 뻔했다고. 그런데 결국 여기 있었네. 로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죄다 바른대로 말해! 털어놔! 듣고 있어?」

「 너희 모두한테 신물이 나서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이야. 」 라스콜니코프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 혼자? 걷지도 못하고,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고,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 이 바보야!…… 『수정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 당장 실토해!」

「놔줘!」 라스콜니코프가 말하며 그를 지나가려 했다. 라주미힌은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라스콜니코프의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놔 달라고? 감히 나더러 놓으라는 말이 나와? 내가 지금 당장 너를 어떻게 할지 알아? 번쩍 들어다 꾸러미처럼 묶어서 옆구리에 끼고 집으로 데려가 가둬 버릴 거야!」

「들어 봐, 라주미힌.」 라스콜니코프가 겉으로는 차분하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네 선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안 보여? 그것에…… 침을 뱉는 사람에게, 아니 그것을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무슨 재미를 보겠다는 거야? 내가 앓기 시작했을 때 왜 나를 찾아냈지? 어쩌면 나는 죽는 게 아주 반가웠을지도 몰라. 오늘 내가 충분히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나, 네가 나를 고문하고 있다고, 내가…… 네게 신물이 났다고! 너는 사람을 고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분명히 말하는데 그게 다 내 회복을 심하게 가로막고 있어, 끊임없이 나를 거스르니까. 아까 조시모프도 나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가 버렸잖아! 너도 나를 좀 내버려 둬, 제발! 대체 무슨 권리로 나를 억지로 붙들어 두는 거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주 말짱하다는 게 안 보여? 어떻게, 어떻게 해야 네 친절로 나를 못살게 굴지 말라고 너를 설득할 수 있지? 내가 배은망덕할 수도 있고 비열할 수도 있어, 그저 너희 모두 나를 내버려 둬, 하느님을 봐서라도 나를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둬, 내버려 두라고!」

그는 차분하게 시작했고 제가 곧 쏟아 낼 독한 말들을 미리 고소해하며 맛보았으나, 끝에 가서는 숨이 차서 헐떡이며 광란에 빠졌으니 루쥔에게 그랬던 것과 같았다.

라주미힌은 잠시 서서 생각하다가 그의 팔을 놓아주었다.

「그래, 그럼 지옥에나 가.」 그가 부드럽고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서.」 라스콜니코프가 움직이려 하자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 말 들어. 내가 말해 주지, 너희는 하나같이 수다쟁이에 허풍선이들이야! 조그만 괴로움이라도 생기면 암탉이 알을 품듯 그것을 끌어안고 앉아 있지. 게다가 그것마저 남의 것을 베낀 거라고! 너희 안에는 독자적인 삶의 기미라고는 없어! 너희는 고래기름 연고로 만들어졌고 핏줄에는 피 대신 멀건 혈청이 흐르고 있어. 나는 너희

가운데 누구도 믿지 않아! 어떤 경우에든 너희 모두에게 첫째가는 일은 사람답지 않게 구는 거지! 서라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다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고 그가 갑절로 사나워져 소리쳤다. 「끝까지 들어! 내가 오늘 저녁에 집들이를 하는 건 알지, 지금쯤이면 다들 왔을 텐데 나는 삼촌을 거기 남겨 두고 — 잠깐 뛰어 들어온 거야 — 손님을 맞으시라고 해 놓았어. 그런데 네가 바보만 아니었다면, 천박한 바보, 꽉 막힌 바보, 외국 것을 옮겨 놓은 번역판만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로쟈, 나도 네가 영리한 놈이라는 건 인정해, 하지만 너는 바보야! — 네가 바보만 아니었다면 거리에서 구둣창이나 닳리고 있는 대신 오늘 저녁 내게 왔을 거란 말이야! 기왕 나온 김에 어쩔 수 없잖아! 푹신한 안락의자를 내주지, 집주인 여자한테 하나 있어…… 차 한 잔에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소파에 누워 있어도 되고 — 어쨌든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거야……. 조시모프도 올 거야. 올 거지?」

「아니.」

「허, 헛소리!」 라주미힌이 참다못해 소리쳤다. 「네가 어떻게 알아? 너는 네 자신도 장담 못 해! 너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나는 수천 번도 더 사람들하고 죽어라 싸우고는 나중에 도로 달려갔어……. 부끄러워져서 그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 기억해 둬, 포친코프의 집 3층이야…….」

「원, 라주미힌 씨, 당신은 순전한 선심에서 누구한테든 얻어맞아 줄 사람이군.」

「때려? 누구를? 나를? 그런 생각만 해도 코를 비틀어 떼어 버릴 거야! 포친코프의 집 47호, 관리 바부시킨의 셋방이야…….」

「나는 안 가, 라주미힌.」 라스콜니코프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올 거라는 데 걸겠어.」 라주미힌이 그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안 오면 너를 모르는 사람으로 치겠어! 서, 이봐, 자묘토프가 저 안에

있나?」

「있어.」

「봤어?」

「봤어.」

「이야기했고?」

「했어.」

「무슨 이야기를? 젠장, 말하기 싫으면 말아. 포친코프의 집 47호, 바부시킨의 셋방, 기억해!」

라스콜니코프는 계속 걸어 모퉁이를 돌아 사도비 거리로 들어섰고, 라주미힌은 생각에 잠겨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손을 한 번 내젓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층계 중간에서 우뚝 멈춰 섰다.

「제기랄.」 그는 거의 소리 내어 말을 이었다. 「말은 조리 있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바보지! 미친 사람은 조리 있게 말하지 않기라도 하나! 게다가 조시모프도 바로 이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그는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쳤다. 「만약에…… 어떻게 저 애를 혼자 보낼 수 있었지?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아, 이런 실수를! 안 되겠어.」 그리고 그는 라스콜니코프를 따라잡으려고 되돌아 뛰었으나 그의 자취라고는 없었고, 그는 침을 탁 뱉고는 어서 자묘토프를 캐물으려고 빠른 걸음으로 「수정궁」으로 되돌아갔다.

라스콜니코프는 곧장 X—— 다리로 걸어가 한가운데 서서, 두 팔꿈치를 난간에 괴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라주미힌과 헤어진 뒤 그는 부쩍 기운이 빠져 이곳까지 겨우 닿았고, 거리 아무 데라도 좋으니 앉거나 누웠으면 싶었다. 물 위로 몸을 굽힌 채 그는 기계적으로 바라보았다, 저물녘의 마지막 분홍빛 노을을, 짙어 가는 어스름 속에서 어두워지는 집들의 줄을, 지는 해의 마지막 빛살에 불이 붙은 듯 번쩍이는 왼편 기슭의 먼 다락방 창 하나를, 어두워지는 운하의 물을.

그리고 그 물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듯했다. 마침내 그의 눈앞에 붉은 고리들이 번쩍였고 집들이 움직이는 것만 같았으며, 지나는 사람들도 운하의 기슭도 마차들도 모두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별안간 그는 흠칫 놀랐으니, 어쩌면 섬뜩하고 흉측한 광경 하나가 그를 또 한 번 실신에서 건져 낸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제 오른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쳐다보니 머리에 수건을 쓴 키 큰 여자로 길쭉하고 누렇게 여윈 얼굴에 붉고 움푹 꺼진 두 눈을 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으나 분명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별안간 여자는 오른손으로 난간 벽을 짚고 오른 다리를 난간 너머로 넘긴 다음 왼 다리도 넘겨 운하로 몸을 던졌다. 더러운 물이 갈라지며 한순간 그 희생물을 삼켰으나, 잠깐 뒤 물에 빠진 여자는 수면으로 떠올라 물살을 따라 천천히 흘러갔고, 머리와 다리는 물에 잠겼으며 등이 위로 드러난 채 치맛자락이 물 위로 베개처럼 부풀어 있었다.

「물에 몸을 던졌다! 몸을 던졌어!」 수십 명이 고함쳤고, 사람들이 달려왔고 양쪽 기슭이 구경꾼으로 가득 찼으며, 다리 위에서는 사람들이 라스콜니코프를 둘러싸고 등 뒤에서 밀어 댔다.

「아이고 맙소사, 우리 아프로시니야잖아!」 바로 곁에서 한 여자가 울먹이며 외쳤다. 「맙소사! 저 사람 좀 살려요! 여러분, 좀 건져 내 주세요!」

「배를, 배를!」 하는 고함이 군중 속에서 일었다. 그러나 배는 필요 없었으니, 순경 하나가 운하로 내려가는 층계를 달려 내려가서 제 외투와 장화를 벗어 던지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여자에게 닿기는 쉬웠다. 층계에서 두 걸음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떠 있었으므로 그는 오른손으로 여자의 옷을 붙들고 왼손으로 동료가 내민 장대를 잡았고, 물에 빠진 여자는 곧바로 끌어 올려졌다. 사람들은

여자를 강둑의 화강암 바닥에 뉘었다. 여자는 이내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고 일어나 앉더니 재채기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젖은 옷을 멍하니 손으로 훔쳤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을 퍼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곁에서 울먹였다.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며칠 전에도 목을 매려는 걸 우리가 끊어 내렸어요. 방금 가게에 다녀오느라고 우리 계집애더러 보고 있으라 했는데 — 또 이런 일이 났네요! 우리 동네 아낙이에요, 나리,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요, 바로 가까이 살아요, 끝에서 두 번째 집이에요, 저기 보이죠…….」

군중이 흩어졌다. 경찰들은 여전히 여자를 둘러싸고 있었고 누군가 경찰서 이야기를 꺼냈다……. 라스콜니코프는 무관심과 냉담이라는 기이한 감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역겨웠다. 「아니, 저건 역겨워…… 물은…… 그것으로는 안 되겠어.」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는 덧붙였다. 「기다려 봐야 소용없어. 경찰서는 어떨까……? 그런데 자묘토프는 왜 경찰서에 없지? 경찰서는 열 시까지 열려 있는데……. 」 그는 난간에 등을 돌리고 둘레를 둘러보았다.

「좋아, 그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다리에서 걸음을 옮겨 경찰서 쪽으로 걸어갔다. 가슴속이 텅 비어 공허했고 그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울적함마저 가셨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며 나섰던 그 기운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았으며, 완전한 무감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뭐, 그것도 빠져나가는 길이지.」 운하 기슭을 따라 느리고 맥없이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어쨌든 끝을 내겠다,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는 길인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한 아르신의 자리가 생기겠지 — 하! 하지만 무슨 놈의 끝이람! 정말로

끝인가? 그들에게 말할까 말까? 아…… 젠장! 어쩌면 이렇게 피곤할까! 어디든 곧 앉거나 누울 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무엇보다 부끄러운 것은 이것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어! 사람 머리에는 어쩌면 이렇게 얼빠진 생각이 다 떠오를까.」

경찰서에 가려면 곧장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두 번째 길을 꺾어 들어야 했고,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첫 번째 모퉁이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고, 잠시 생각한 뒤 옆길로 접어들어 두 거리나 에돌아 갔으니, 어쩌면 아무 목적도 없이, 어쩌면 잠시 미루어 시간을 벌려고 그랬는지도 몰랐다. 그는 땅을 내려다보며 걸었다. 별안간 누군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아 고개를 들어 보니, 자기가 바로 그 집의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이후로 그는 그 앞을 지난 적도, 근처에 가 본 적도 없었다. 압도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간을 지나 오른쪽 첫 번째 출입구로 들어섰고, 눈에 익은 층계를 4층까지 오르기 시작했다. 좁고 가파른 층계는 몹시 어두웠다. 그는 층계참마다 멈춰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레를 둘러보았는데, 첫 번째 층계참에서는 창틀이 뜯겨 나가 있었다. 「그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그는 생각했다. 니콜라이와 미트카가 일하고 있던 2층의 셋방이 여기였다. 「닫혀 있고 문은 새로 칠했군. 그러니까 세를 놓는 거다.」 그다음이 3층, 그리고 4층. 「여기다!」 셋방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어리둥절했으니, 안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소리까지 들려왔는데 그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잠시 망설인 뒤 그는 마지막 층계를 올라 셋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 역시 손질 중이었고 안에 일꾼들이 있었다. 그것이 그를 놀라게 한 듯했으니, 어쩐지 그는 모든 것이 자기가 두고 온 그대로, 어쩌면 시체들까지도 바닥의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맨 벽뿐이고 세간이라고는 없어서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창턱에 앉았다. 일꾼은 둘이었는데 둘 다 젊은 축이었고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훨씬 어렸으며, 그들은 낡고 더러운 누런 벽지 대신 연보랏빛 잔꽃무늬가 박힌 새 흰 벽지를 바르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무슨 까닭인지 그것이 지독하게 거슬려서, 모든 것이 그렇게 달라져 버린 것이 아깝기라도 한 듯 못마땅한 눈으로 새 벽지를 바라보았다. 일꾼들은 분명 시간을 넘겨 남아 있었고, 이제 서둘러 벽지를 말아 올리며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라스콜니코프가 들어온 것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라스콜니코프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침에 그 여자가 나한테 오는 거야.」 나이 많은 쪽이 어린 쪽에게 말했다. 「아주 이른 아침에, 한껏 차려입고서. 『무슨 일로 그렇게 멋을 부리고 단장을 했나? 』 내가 그랬지. 『 티트 바실리예비치,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오로지 당신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 이러는 거야! 게다가 그 여자가 꼭 유행 화보처럼 차려입었더라니까!」

「그런데 아저씨, 유행 화보가 뭔데요?」 어린 쪽이 물었다. 그는 분명 그 「아저씨」에게서 배우는 중이었다.

「유행 화보란 건 말이야, 이 친구야, 그림이 잔뜩 든 거야, 색을 입힌 그림으로, 토요일마다 외국에서 우편으로 이 동네 재봉사들한테 오지,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사람들한테 보여 주려고. 그림들이라니까. 신사들은 대개 모피 외투를 걸치고 있고, 부인네들 쪽에는, 이 친구야, 어찌나 기막힌 것들이 있는지 내 가진 걸 몽땅 내줘도 모자랄 판이야!」

「페테르부르크에는 없는 게 없어요.」 어린 쪽이 신이 나서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만 빼면 다 있다니까요!」

「그것만 빼면 다 있지, 이 친구야.」 나이 많은 쪽이 잠언이라도 읊듯 단정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궤짝과 서랍장이 놓여 있던 다른 방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세간이 하나도 없으니 그 방이 그에게는 아주 비좁아 보였다. 벽지는 그대로였고, 구석의 벽지에 이콘 상자가 놓여 있던 자리가 드러나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창가로 갔다. 나이 많은 일꾼이 그를 곁눈으로 흘겨보았다.

「뭘 찾으쇼?」 그가 별안간 물었다.

대답 대신 라스콜니코프는 복도로 나가 초인종을 당겼다. 같은 초인종, 같은 양철 같은 소리였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로 그것을 울렸고, 귀를 기울이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느꼈던 그 흉측하고 괴롭도록 두렵던 감각이 점점 더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울릴 때마다 그는 몸서리를 쳤으며 그럴수록 점점 더 큰 만족을 느꼈다.

「 대체 뭘 찾느냐고? 당신은 누구요? 」 일꾼이 그에게 나오며 소리쳤다. 라스콜니코프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세를 얻으려고요.」 그가 말했다. 「둘러보는 중이에요.」

「 밤중에 방을 보러 오는 법이 어디 있소! 게다가 수위하고 같이 올라와야지.」

「 바닥을 씻어 냈군요, 칠도 할 건가요? 」 라스콜니코프가 말을 이었다. 「피는 없어요?」

「무슨 피 말이오?」

「여기서 노파하고 그 동생이 살해됐잖아요. 저기 피가 흥건했는데.」

「당신 대체 누구요?」 일꾼이 불안해하며 소리쳤다.

「내가 누구냐고요?」

「그래.」

「알고 싶어요? 경찰서로 갑시다, 거기서 말해 줄 테니.」

일꾼들은 어이가 없어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갈 시간이야, 늦었어. 가자, 알료시카. 문을 잠가야지.」 나이 많은 일꾼이 말했다.

「좋아요, 갑시다.」 라스콜니코프가 무심하게 말하고는 먼저 나가서 천천히 층계를 내려갔다. 「이봐요, 수위!」 그가 문간에서 소리쳤다.

출입구에는 몇 사람이 서서 지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으니, 수위 둘과 농사꾼 아낙 하나, 긴 외투를 걸친 사내 하나, 그 밖에 몇 사람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곧장 그들에게 다가갔다.

「뭘 찾으쇼?」 수위 하나가 물었다.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방금 다녀왔소. 그건 왜 묻소?」

「열려 있어요?」

「그럼요.」

「부서장은 있어요?」

「한동안 있었소. 그건 왜 묻소?」

라스콜니코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채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저 사람이 셋방을 보러 왔었소.」 나이 많은 일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어느 셋방?」

「우리가 일하고 있는 데 말이오. 『왜 피를 씻어 냈느냐』고 하지 않겠소. 『여기서 살인이 있었는데 내가 이 방을 얻으러 왔다』고 하지 않겠소. 그러고는 초인종을 울려 대는데 아주 부술 뻔했소. 『경찰서로 가자, 거기서 다 말해 주겠다』고 합디다. 우리를 놓아주질 않았소.」

수위는 얼굴을 찌푸리고 어리둥절해하며 라스콜니코프를 바라보았다.

「당신 누구요?」 그가 좀 더 으름장을 놓듯 소리쳤다.

「나는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 전직 학생이고, 사는 곳은 여기서 멀지 않은 실의 집 14호, 수위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이 나를 아니까.」 라스콜니코프는 이 모든 말을 나른하고 몽롱한 목소리로,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어두워 가는 거리 쪽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했다.

「그 셋방에는 왜 갔소?」

「보려고요.」

「볼 게 뭐가 있다고?」

「경찰서로 곧장 끌고 갑시다.」 긴 외투를 걸친 사내가 불쑥 끼어들었다가 입을 다물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어깨 너머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여전히 느리고 나른한 어조로 말했다.

「갑시다.」

「그래, 끌고 갑시다.」 사내가 더 자신 있게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이 왜 거기 들어갔겠소,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요, 안 그렇소?」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하느님이나 아시겠지.」 일꾼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대체 뭘 찾느냐고?」 수위가 정말로 성이 나기 시작해 다시 소리쳤다. 「왜 여기서 얼쩡거리는 거요?」

「경찰서가 무서운 모양이죠?」 라스콜니코프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왜 얼쩡거리느냐고?」

「저치는 협잡꾼이야!」 농사꾼 아낙이 소리쳤다.

「저런 자하고 말을 섞어 봐야 무슨 소용이오?」 앞자락을 활짝 풀어헤친 외투를 걸치고 허리띠에 열쇠 꾸러미를 찬 덩치 큰 농사꾼인 다른 수위가 외쳤다. 「가시오! 협잡꾼이 틀림없구먼. 가라니까!」

그러고는 라스콜니코프의 어깨를 붙들어 거리로 내동댕이쳤다. 그는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으나 발을 가누고는 말없이 구경꾼들을 바라보다가 걸어갔다.

「이상한 사람이군.」 일꾼이 한마디 했다.

「요즘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낙이 말했다.

「그래도 경찰서로 끌고 갔어야 하는데.」 긴 외투를 걸친 사내가 말했다.

「저런 자하고는 상관하지 않는 편이 나아.」 덩치 큰 수위가 단정했다. 「영락없는 협잡꾼이라니까!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게 틀림없어, 한번 끌고 가 보라지, 떼어 낼 수가 없을 테니……. 우리도 그런 부류는 알거든!」

「거기로 갈까 말까?」 라스콜니코프는 네거리 큰길 한복판에 서서 생각했고, 누군가에게서 결정적인 한마디라도 기다리는 듯 둘레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가 밟고 선 돌처럼 죽어서 잠잠했으니, 그에게 죽어 있었고,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죽어 있었다……. 별안간 거리 끝에서, 이백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짙어 가는 어스름 속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말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무리 한가운데에 마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거리 한복판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무슨 일이지?」 라스콜니코프는 오른쪽으로 돌아 무리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마치 무엇에든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런 생각이 들자 차갑게 웃었으니, 경찰서에 가기로 이미 완전히 마음을 굳혔고 이제 모든 것이 곧 끝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 지방과 군 — 제정 러시아의 행정 구역은 지방(губерния) 아래에 군(уезд)을 두었다. 자라이스크는 지방이 아니라 군이다.

2. 수정궁(Хрустальный дворец) — 당시 페테르부르크에 실제로 있던 음식점의 이름. 가넷 영역본은 이 이름을 프랑스어 Palais de Cristal로 옮겼다.

3. 이즐레르는 당시 페테르부르크의 유원지 「광천(鑛泉)」의 주인이고, 아스텍인은 그 무렵 구경거리로 내보인 두 난쟁이 바르톨라와 마시모를 가리킨다. 모두 당시 신문을 채우던 오락 기사의 이름들이다. 가넷 영역본은 이 대목을 뺐다.

4. 김나지움 — 제정 러시아의 8년제 중등학교. 6학년까지 다녔다는 것은 마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학력으로는 대학에 갈 수 없다.

5. 푸드(пуд) — 러시아의 무게 단위로 약 16.4킬로그램. 가넷 영역본은 이 자리를 「1헌드레드웨이트(약 51킬로그램)가 넘는」으로 옮겨 무게를 부풀렸다.

6. 저본의 「for vodka」(보드카 값으로)는 러시아어 관용구 「на водку」를 옮긴 것으로, 잔돈을 팁으로 얹어 준다는 뜻이다. 한국어의 「술값이나 하라」와 쓰임이 같다.

7. 당시 러시아의 지폐는 액면마다 빛깔이 달랐다. 붉은 것은 10루블, 푸른 것은 5루블 지폐다.

8. Assez causé! — 프랑스어로 「이야기는 이만하면 됐다」.

2부 7장

길 한복판에 기운찬 잿빛 말 두 필이 매인 우아한 마차가 서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마부는 마부석에서 내려와 곁에 서 있었으며, 말들은 누군가 굴레를 붙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고 그 앞쪽에는 경관들이 서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불 켜진 등을 들고 몸을 굽혀 바퀴 바로 곁 포석 위의 무언가를 비추고 있었다. 모두가 지껄이고 소리치고 탄성을 질러 댔고, 마부는 어쩔 줄을 모르는 모양으로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런 변이 있나! 맙소사, 이런 변이 있나!」

라스콜니코프는 갈 수 있는 데까지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갔고, 마침내 이 소동과 관심의 대상을 볼 수 있었다. 땅바닥에는 마차에 치인 사내가 보아하니 의식을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는데, 옷차림은 몹시 남루했으나 「 신사 」 의 옷이었다. 머리와 얼굴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얼굴은 짓뭉개지고 찢기고 일그러져 있었으니, 중상인 것이 분명했다.

「 하느님 맙소사! 」 마부가 울부짖었다. 「 제가 더 어쩔 수 있었겠습니까? 빨리 몰았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모를까, 저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가고 있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가고 있었다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취한 사람은 똑바로 걷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거야 다들 아는 일이고요……. 저 양반이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질 듯이 길을 건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소리를 질렀고 두 번째로 또

질렀고 세 번째로 또 질렀고, 그러고 나서 말을 붙들었는데, 저 양반이 곧장 말발굽 밑으로 쓰러진 겁니다!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몹시 취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 말들은 어리고 잘 놀랍니다…… 말들이 내닫고 저 양반이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더 나빠진 겁니다. 이렇게 된 일이올시다!」

「바로 그랬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맞장구를 쳤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세 번 질렀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단언했다.

「세 번이었어요, 우리 모두 들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가 외쳤다.

그러나 마부는 그리 크게 상심하거나 겁을 먹고 있지 않았으니, 이 마차가 어딘가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의 것임이 분명했고, 경관들은 물론 그분의 일정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려고 적잖이 마음을 쓰고 있었다. 다친 사내는 경찰서와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는 사이 라스콜니코프는 비집고 들어가 그에게로 더 가까이 몸을 굽혔다. 등불이 별안간 그 불행한 사내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그를 알아보았다.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앞으로 밀고 나가며 외쳤다. 「관직에서 물러난 관리인데, 9등관 마르멜라도프라고 합니다. 바로 저기 코젤의 집에 삽니다……. 어서 의사를 불러 주십시오! 제가 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경관에게 보였다. 그는 격심한 흥분 상태에 있었다.

경관들은 이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낸 것을 다행스러워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제 이름과 주소를 댔고, 마치 제 아버지이기라도 한 양 간절하게, 의식 없는 마르멜라도프를 당장 그의 하숙으로 옮겨 달라고 경관들에게 간청했다.

「바로 여깁니다, 세 집 건너요.」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부유한 독일 사람 코젤의 집입니다. 집으로 가던 길이었을 텐데 틀림없이 취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주정뱅이입니다. 거기 식구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딸도 하나 있고요……. 병원으로 데려가자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집에는 틀림없이 의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적어도 집에서는 돌봐 주는 사람이라도 있을 테고…… 곧바로 손을 써 줄 겁니다. 하지만 병원까지 데려가는 동안에 죽고 말 겁니다.」 그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경관의 손에 무언가를 쥐여 주었다. 그러나 사정은 단순하고 온당한 것이었으며, 어쨌거나 도움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이쪽이었다. 사람들이 다친 사내를 들어 올렸고, 거들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있었다.

코젤의 집은 서른 걸음[1]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마르멜라도프의 머리를 조심스레 받쳐 든 채 뒤따라 걸으며 길을 일러 주었다.

「 이쪽으로, 이쪽으로! 머리부터 해서 위층으로 올려야 합니다. 돌리십시오! 제가 내겠습니다, 수고한 값은 치러 드리겠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틈만 나면 늘 그랬듯이, 두 팔을 가슴 앞에 포개어 안고 혼잣말을 하고 기침을 해 가며 그 좁은 방 안을 창가에서 난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되풀이하며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근래 들어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맏딸 폴레치카에게 말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열 살짜리 이 아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많으면서도 어머니에게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아주 잘 알아서, 언제나 그 크고 영리한 눈으로 어머니를 지켜보며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려고 있는 힘껏 애를 썼다. 이때 폴레치카는 종일 몸이 좋지 않아 잠자리에 들려는 어린 남동생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 사내아이는 밤에

빨아야 하는 셔츠를 누나가 벗겨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말없이 진지한 얼굴로 두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고 발뒤꿈치는 모으고 발끝은 바깥으로 벌린 채 의자에 꼿꼿이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어머니가 누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며, 착한 사내아이들이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 때면 으레 그러듯이 입술을 뾰족 내밀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보다 더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말 그대로 누더기를 걸치고 칸막이 곁에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었는데, 다른 방들에서 흘러들어 와 이 가엾은 폐병 든 여자에게 길고 무서운 기침 발작을 일으키는 담배 연기의 구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보려는 것이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 한 주 사이에 한층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의 홍조는 그 어느 때보다 짙었다.

「너는 믿지 못할 거다, 상상도 못 할 거야, 폴레치카.」 그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 댁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호사스럽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주정뱅이가 나를 어떻게 망쳐 놓았고 너희들까지 죄다 어떻게 망쳐 놓을지 말이다! 아버지는 문관 대령[2]이었고 지사가 되기까지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었지. 그래서 아버지를 뵈러 오는 사람마다 이랬단다. 『우리는 당신을, 이반 미하일로비치, 우리 지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그녀는 격렬하게 기침을 했다. 「아, 저주받은 인생.」 그녀가 목을 가다듬고 두 손을 가슴에 누르며 외쳤다. 「내가…… 마지막 무도회에서…… 귀족회장[3] 댁에서…… 베즈제멜니 공작부인이 나를 보시고 — 네 아버지와 내가 혼인할 때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이란다, 폴레치카 — 대뜸 『졸업식 때 숄 춤을 춘 그 예쁜 아가씨가 아니냐?』 하고 물으셨지. (그 찢어진 데는 꿰매야 한다, 바늘을 들고 내가 보여 준 대로 감쳐야지, 안 그러면 내일 — 콜록, 콜록, 콜록 — 구멍이 더 커질

테니!」 그녀가 목이 찢어져라 외쳤다.) 「그때 시종보[14]인 세골스코이 공작이 페테르부르크에서 막 와 있었는데…… 나하고 마주르카를 추고는 이튿날 청혼을 하려고 했단다. 하지만 나는 듣기 좋은 말로 고맙다고 하고는 내 마음은 벌써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지. 그 다른 사람이 네 아버지였다, 폴랴.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지……. 물은 다 됐니? 셔츠를 다오, 그리고 양말도! 리다. 」 그녀는 막내에게 말했다. 「 오늘 밤은 속옷 없이 견뎌야겠다…… 그리고 양말도 같이 내놓아라…… 한꺼번에 빨아야겠으니……. 저 주정뱅이 떠돌이는 어째서 들어오지를 않는 게냐? 셔츠를 행주 꼴이 되도록 입어서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지! 이틀 밤을 내리 일하지 않으려면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아이고! (콜록, 콜록, 콜록, 콜록!) 또! 이게 뭐지?」 그녀는 복도의 사람들과 무언가를 떠메고 제 방으로 밀고 들어오는 남자들을 알아보고 외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무엇을 들고 오는 거야? 하느님 맙소사!」

「어디다 눕힐까요?」 의식 없이 피투성이가 된 마르멜라도프가 들려 들어오자 경관이 둘러보며 물었다.

「 소파에요! 바로 소파에 눕히십시오, 머리를 이쪽으로 해서. 」 라스콜니코프가 자리를 가리켰다.

「길에서 마차에 치였대! 취했대!」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새하얗게 질려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렸으며, 어린 리다는 비명을 지르며 폴레치카에게 달려들어 온몸을 떨며 매달렸다.

마르멜라도프를 눕히고 나서 라스콜니코프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로 달려갔다.

「 제발 진정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 그는 빠르게 말했다. 「 길을 건너다 마차에 치였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정신이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리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여기 온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정신이 돌아올 겁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기어이 일을 냈구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절망에 차서 외치며 남편에게로 달려갔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녀가 쉽게 실신하는 부류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그녀는 아무도 생각해 내지 못한 베개를 곧바로 그 가엾은 사내의 머리 밑에 받쳐 주고는 옷을 벗겨 가며 그를 살피기 시작했고, 자기를 잊은 채 정신을 놓지 않았으며, 떨리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눌러 삼켰다.

그러는 동안 라스콜니코프는 누군가를 구슬러 의사를 부르러 달려가게 했다. 알고 보니 의사는 한 집 건너에 살고 있었다.

「의사를 부르러 보냈습니다.」 그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거듭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겠습니다. 물은 없습니까?…… 그리고 냅킨이든 수건이든 아무거나 주십시오, 되도록 빨리요.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아직 모르니까요……. 다쳤을 뿐이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창가로 달려갔다. 그곳 구석의 부서진 의자 위에는 그날 밤 아이들과 남편의 빨래를 하려고 마련해 둔, 물이 가득 찬 커다란 오지 대야가 놓여 있었다. 이 빨래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더 잦으면 잦았지 덜하지는 않게 밤중에 손수 하는 일이었다. 이 집안은 갈아입을 속옷조차 사실상 없어 식구마다 한 벌씩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는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불결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집 안에 때가 앉은 꼴을 보느니 차라리 다들 잠든 밤에 제 힘에 부치도록 일해 가며 제 몸을 축내는 쪽을 택했고, 그렇게 해서 젖은 빨래를 줄에 널어 아침이면 말라 있게 했다. 그녀는

라스콜니코프가 청하는 대로 물이 든 대야를 들어 올렸으나 그 무게에 하마터면 고꾸라질 뻔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수건 하나를 찾아내어 물에 적셔서는 마르멜라도프의 얼굴에서 피를 씻어 내기 시작한 뒤였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괴롭게 숨을 쉬며 곁에 서 있었다. 정작 돌봄이 필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었고, 라스콜니코프는 다친 사내를 이리로 데려오게 한 것이 어쩌면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며, 경관도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폴레치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외쳤다. 「소냐에게 달려가라, 어서. 집에 없거든 아버지가 마차에 치였으니 곧바로 이리로 오라고 일러 두고 오너라…… 들어오는 대로 말이다. 뛰어라, 폴레치카! 자, 숄을 걸치고.」

「제일 빨리 뛰어!」 의자에 앉은 사내아이가 별안간 외치고는, 다시 전처럼 말없이 뻣뻣하게 굳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발뒤꿈치를 앞으로 내밀고 발끝을 벌린 자세로 돌아갔다.

그러는 사이 방 안은 바늘 하나 떨어뜨릴 데가 없을 만큼 사람으로 가득 찼고, 경관들은 하나만 남고 모두 떠났는데, 남은 한 사람은 얼마 동안 계단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애썼다. 리페베흐젤 부인의 하숙인들이 거의 다 이 집 안쪽 방들에서 쏟아져 나와 처음에는 문간에 서로 밀착해 끼어 있다가 나중에는 방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불같이 화를 냈다.

「죽기라도 편히 죽게 놔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녀가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입을 벌리고 볼 구경거리라도 되나요? 궐련까지 물고! (콜록, 콜록, 콜록!) 모자도 아주 쓰고들 계시지 그러세요……. 아니, 저기 하나는 정말 모자를 쓰고 있네!…… 나가요! 적어도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죠!」

기침이 그녀의 목을 막았다. 그러나 그 질책이 아무 효과도 없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분명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얼마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숙인들은 하나씩 하나씩 문 쪽으로 도로 비집고 물러갔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를 앞에 두었을 때면 아무리 진실한 동정과 연민을 품고 있다 해도, 심지어 피해자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서조차 보이는, 살아 있는 사람 누구도 면할 수 없는 저 기이한 내면의 만족감을 지닌 채였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병원 이야기를 하며 여기서 소란을 피울 일이 아니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죽을 일도 아니라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외치며 노여움을 퍼부어 주려고 문으로 달려갔으나, 문간에서 이제 막 사고 소식을 듣고 질서를 잡겠다고 뛰어 들어온 리페베흐젤 부인과 얼굴을 맞대게 되었다. 그녀는 유난히 싸움을 좋아하고 무책임한 독일 여자였다.

「아, 맙소사!」 그녀가 두 손을 맞잡으며 외쳤다. 「당신 남편 취해서 말이 짓밟았어요! 병원으로 데려가요! 내가 집주인이에요!」

「아말리아 루드비고브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도도하게 입을 열었다(그녀는 집주인 여자가 「제 분수를 알도록」 언제나 도도한 어조를 썼고, 이런 판국에도 그 만족만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말리아 루드비고브나……」

「내가 당신에 벌써 딱 잘라 말했어요, 나에게 아말리아 루드비고브나라고 부르는 것을 감히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예요.」

「당신은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아니라 아말리아 루드비고브나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문 뒤에서 웃고 있는 레베쟈트니코프 씨 같은 당신의 그 비루한 아첨꾼 축에 들지 않으니까(과연 문간에서 웃음소리와

『또 시작이군』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앞으로도 언제나 당신을 아말리아 루드비고브나라고 부를 거예요. 어째서 그 이름을 싫어하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말이에요. 세묜 자하로비치가 어찌 되었는지는 당신 눈으로도 보이겠지요. 저이는 죽어 가고 있어요. 당장 저 문을 닫고 아무도 들이지 마시기 바라요. 죽기라도 편히 죽게 놔둬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내일 당장 총독 각하께 당신이 한 짓을 알려 드릴 테니 그리 아세요. 공작께서는 내가 처녀일 적부터 나를 아셨고, 세묜 자하로비치도 잘 기억하고 계시며 그이에게 여러 번 은혜를 베푸셨어요. 세묜 자하로비치에게 친구와 후원자가 많았다는 것은 다들 아는 일이지요. 그이가 제 딱한 약점을 알고 명예로운 자존심에서 스스로 그분들을 끊어 버린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은(그녀는 라스콜니코프를 가리켰다) 재산도 연줄도 있고 세묜 자하로비치와는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인 너그러운 젊은이가 우리를 도우러 와 주었어요. 안심해도 좋아요, 아말리아 루드비고브나……」

이 모든 말이 극도로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쏟아져 나왔으나 별안간 기침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웅변을 끊어 놓았다. 바로 그 순간 죽어 가던 사내가 의식을 되찾고 신음 소리를 내자 그녀는 그에게로 달려갔고, 다친 사내는 눈을 뜨고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제 위로 몸을 굽히고 있는 라스콜니코프를 바라보았다. 그는 깊고 느리고 괴로운 숨을 쉬었고, 입아귀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돋았으며, 라스콜니코프를 알아보지 못한 그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슬프면서도 준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맙소사! 가슴이 온통 으스러졌어! 피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그녀가 절망에 차서 말했다. 「옷을 벗겨야 해. 조금만 돌아누워 봐, 세묜 자하로비치, 할 수 있으면.」 그녀가 그에게 외쳤다.

마르멜라도프가 그녀를 알아보았다.

「신부를.」 그가 쉰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창가로 걸어가 창틀에 머리를 기대고 절망에 차서 외쳤다.

「아, 저주받은 인생!」

「신부를.」 죽어 가는 사내가 잠시 침묵한 뒤에 다시 말했다.

「부르러 갔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그에게 소리쳤고, 그는 그 고함에 순순히 따라 입을 다물었다. 슬프고 겁먹은 눈으로 그는 그녀를 찾았다. 그녀가 돌아와 그의 베갯머리에 섰다. 그는 조금 편해진 듯했으나 오래가지 않았다.

이윽고 그의 눈이 구석에서 발작이라도 난 듯 떨며 놀란 아이의 눈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그가 제일 귀여워하는 어린 리다에게 머물렀다.

「아-아.」 그가 불안하게 그 아이 쪽을 가리켰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다.

「또 뭐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외쳤다.

「맨발이야, 맨발!」 그가 미칠 듯한 눈으로 아이의 맨발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 가만있어. 」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짜증스럽게 외쳤다. 「 왜 맨발인지 당신도 알잖아.」

「다행이다, 의사가 왔다.」 라스콜니코프가 마음을 놓고 외쳤다.

의사가 들어왔다. 자그맣고 깐깐한 노인으로, 독일 사람이었고 미심쩍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환자에게 다가가 맥을 짚고 머리를 조심스레 만져 본 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도움을 받아 피에 젖은 셔츠의 단추를 끌러 다친 사내의 가슴을 드러냈다. 가슴은 찢기고

짓뭉개지고 부서져 오른쪽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져 있었고, 왼쪽 심장 바로 위에는 말발굽에 모질게 차인 자국인, 크고 불길해 보이는 누르스름한 검은 멍이 있었다. 의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경관이 그에게, 이 사람이 바퀴에 걸려 빙빙 돌면서 포석 위로 서른 걸음쯤 끌려갔다고 일러 주었다.

「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만도 놀라운 일입니다. 」 의사가 라스콜니코프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물었다.

「곧 죽습니다.」

「정말 가망이 없습니까?」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머리도 심하게 다쳤고…… 흠…… 원하신다면 피를 뽑아 볼 수야 있겠습니다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오 분이나 십 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피를 뽑는 편이 낫겠습니다.」

「원하신다면요…….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거니와 아무 소용도 없을 겁니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복도의 군중이 갈라지고, 자그맣고 머리가 센 늙은 신부가 성체[5]를 받들고 문간에 나타났다. 사고가 났을 때 경관 하나가 그를 부르러 갔던 것이었다. 의사는 곧바로 그에게 자리를 내주며 뜻 있는 눈길을 주고받았다. 라스콜니코프는 의사에게 잠시만 더 있어 달라고 청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남았다.

모두가 물러섰다. 고해는 곧 끝났다. 죽어 가는 사내는 아마 거의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이 토막 난 소리밖에 내지 못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어린 리다를 데려오고 사내아이를 의자에서 내려 난로 옆 구석에 무릎을 꿇고는 아이들을 제 앞에

꿇어앉혔다. 계집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으나, 맨무릎으로 꿇어앉은 사내아이는 손을 박자에 맞추어 들어 올려 또박또박 성호를 긋고는 몸을 굽혀 이마를 바닥에 대었는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유난히 흡족한 모양이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으며 저도 기도했고, 이따금 사내아이의 셔츠를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무릎을 꿇은 채 일어서지도 기도를 멈추지도 않고 서랍장에서 숄을 꺼내어 계집아이의 드러난 어깨를 덮어 주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안쪽 방들로 난 문이 다시 호기심에 차서 열렸고, 복도에는 이 계단에 딸린 모든 집에서 나온 구경꾼들이 점점 더 빽빽하게 들어찼으나 그들은 문턱 안으로는 감히 들어서지 못했다. 타다 남은 초 한 도막이 이 광경을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폴레치카가 문간의 군중을 헤치고 들어왔다. 너무 빨리 달려온 탓에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아이는 머릿수건을 벗고 어머니를 찾아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언니가 와요, 길에서 만났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제 곁에 꿇어앉혔다.

겁먹은 듯 소리 없이 한 젊은 처녀가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는데, 궁핍과 누더기와 죽음과 절망 한가운데인 그 방에서 그 모습은 기이했다. 그녀 역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입은 것은 죄다 값싼 것뿐이었으나, 그 부끄러운 용도를 틀림없이 드러내 보이는 특별한 종류의 거리 치장을 하고 있었다. 소냐는 복도의 문턱 바로 앞에 멈춰 섰으나 문턱 안으로는 들어서지 않은 채,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듯 넋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는 그 우스꽝스럽도록 긴 끌림자락과 함께 그토록 어울리지 않는, 네 번째로 손을 거친 화려한 비단 드레스도, 문간을 통째로 메우는 엄청나게 큰 크리놀린도, 밝은 빛깔의 구두도, 밤에는 아무 쓸모도 없건만 들고 온 양산도, 불꽃 빛깔의 깃털이 활짝 꽂힌 터무니없는 둥근 밀짚모자도 잊고 있었다. 건들거리게

비뚜로 얹힌 그 모자 아래로 입술을 벌리고 겁에 질려 눈을 부릅뜬, 창백하고 겁먹은 조그만 얼굴이 있었다. 소냐는 밝은 머리칼에 자그맣고 여윈 열여덟쯤 된 처녀로, 제법 예뻤고 눈이 놀랍도록 푸르렀다. 그녀는 침대와 신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급히 걸어오느라 숨이 차 있었다. 마침내 속삭임이, 아마도 군중 속에서 나온 몇 마디 말이 그녀의 귀에 닿았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섰으나 여전히 문 가까이에 붙어 있었다.

예식이 끝나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다시 남편에게로 갔고, 신부는 물러섰다가 떠나면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훈계와 위로의 말을 몇 마디 하려고 돌아섰다.

「이 어린것들은 어쩌라고요?」 그녀가 아이들을 가리키며 날카롭고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신부가 입을 열었다.

「아흐! 자비로우시겠지요, 우리한테는 아니고요.」

「그건 죄입니다, 죄예요, 부인.」 신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 그럼 저건 죄가 아닌가요? 」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죽어 가는 사내를 가리키며 외쳤다.

「 본의 아니게 이 일을 일으킨 이들이 적어도 벌이를 잃은 데 대해서는 보상해 주기로 할지도 모릅니다.」

「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성이 나서 손을 내저으며 외쳤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보상을 하나요? 아니, 저이가 취해서 제 발로 말발굽 밑에 뛰어든 건데요! 벌이라니요? 저이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이라곤 비참함밖에 없었어요. 죄다 마셔 없앴어요, 저 주정뱅이가! 술을 마시려고 우리 것을 훔쳐 갔고, 술 때문에 저 애들

인생도 내 인생도 망쳐 놓았어요! 그러니 죽어 가는 게 다행이지요! 먹일 입이 하나 줄었으니!」

「 임종의 시각에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부인, 그런 마음은 큰 죄예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죽어 가는 사내를 돌보느라 바빠서, 물을 먹이고 머리에서 피와 땀을 닦아 내고 베개를 바로 놓아 주면서 이따금 잠깐씩 돌아서서 신부에게 말을 건넬 뿐이었다. 그러던 그녀가 이제 거의 광란에 가까운 기세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 아, 신부님! 그건 말이에요, 말뿐이라고요! 용서라니요! 저이가 마차에 치이지 않았다면 오늘도 취해서 하나뿐인 셔츠를 더럽히고 누더기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는 통나무처럼 곯아떨어졌을 테고, 나는 날이 샐 때까지 저이 누더기며 아이들 옷가지를 물에 담갔다 헹구었다 하며 빨아서 창가에 널어 말리고, 날이 밝자마자 그걸 꿰매고 앉아 있었겠지요. 내 밤이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용서 이야기가 다 무슨 소용인가요! 나는 벌써 용서했는걸요!」

무섭고 텅 빈 기침이 그녀의 말을 끊었고, 그녀는 손수건을 입술에 대었다가 그것을 신부에게 보이며 다른 손으로는 아픈 가슴을 눌렀는데, 손수건은 온통 피로 덮여 있었다. 신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르멜라도프는 마지막 단말마에 놓인 채, 다시 제 위로 몸을 굽히고 있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자꾸만 그녀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다. 힘겹게 혀를 움직여 알아들을 수 없이 웅얼거리기 시작했으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가 용서를 빌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단호하게 그에게 소리쳤다.

「 가만있어! 그럴 것 없어!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아! 」 그러자 병자는 입을 다물었으나, 바로 그 순간 헤매던 그의 눈길이 문간으로

흘러가 소냐를 보았다.

그때까지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구석 그늘 속에 서 있었던 것이다.

「 저게 누구냐? 저게 누구냐? 」 그가 별안간 두텁게 헐떡이는 목소리로 흥분하여 말하고는, 딸이 서 있는 문 쪽으로 겁에 질린 눈을 돌리며 일어나 앉으려 했다.

「누워! 누-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외쳤다.

그는 예사롭지 않은 힘으로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한동안 딸을 알아보지 못하기라도 하는 듯 사납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런 차림을 한 딸을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별안간 그는 치욕과 요란한 치장 속에서 짓눌리고 부끄러워하며 죽어 가는 아비에게 작별을 고할 제 차례를 온순하게 기다리고 있는 딸을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극심한 고통이 떠올랐다.

「소냐! 내 딸아! 용서해 다오!」 그가 외치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려 했으나, 몸의 균형을 잃고 소파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엎어졌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를 안아 올려 소파에 눕혔으나 그는 죽어 가고 있었다. 소냐가 가냘프게 외마디 소리를 내며 달려와 그를 껴안고는 그대로 꼼짝 않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 기어이 바라던 대로 됐구나. 」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남편의 주검을 보며 외쳤다. 「자, 이제 어떡하면 좋아? 저이를 무슨 수로 묻어! 내일 저 애들에게 뭘 먹여!」

라스콜니코프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로 다가갔다.

「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 그가 입을 열었다. 「 지난주에 부인의 남편께서 저에게 그분의 한평생과 처지를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그분은 부인 이야기를 간절한 존경을 담아 하셨습니다. 그분이 식구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불행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를 알게 된 그날 저녁부터, 그날 저녁부터 우리는 벗이 되었습니다…….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무언가 하도록…… 죽은 벗에게 진 빚을 갚도록 말입니다. 여기 20루블이 있습니다, 아마도 — 그리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요컨대 다시 오겠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어쩌면 내일 다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계단 쪽으로 군중을 헤치며 서둘러 방을 나갔으나, 사람들 틈에서 별안간 니코딤 포미치와 부딪쳤으니, 사고 소식을 듣고 직접 지시를 내리러 온 참이었다.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 이래로 둘은 만난 적이 없었으나 니코딤 포미치는 대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아, 당신이었습니까?」 그가 그에게 물었다.

「죽었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의사도 왔고 신부도 왔고,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었습니다. 저 가엾은 부인을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잖아도 폐병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운을 북돋아 주십시오…… 당신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니까요, 저는 압니다……」 그는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웃음을 띠고 덧붙였다.

「한데 당신 몸에 피가 튀었군요.」 니코딤 포미치가 등불 빛에 라스콜니코프의 조끼에 묻은 새 얼룩을 알아보고 말했다.

「네…… 저는 온통 피투성이입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묘한 기색으로 말했다. 그러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천천히 찬찬히 내려갔다. 열이 있었으나 스스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별안간 제 안에서 솟구쳐 오른 삶과 힘의 압도적인 새 감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다. 이 감각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별안간 사면을 받은 사람의 그것에 견줄 만한 것이었다.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신부가 그를 앞질러 갔다. 라스콜니코프는 그에게

말없이 인사를 건네며 길을 비켜 주었다. 마지막 몇 단을 막 내려서는데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를 뒤쫓아 오고 있었다. 폴레치카였다. 아이는 「저기요! 저기요!」 하고 부르며 그를 뒤쫓아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돌아섰다. 아이는 계단 아래쪽에 이르러 그보다 한 단 위에서 우뚝 멈춰 섰다. 마당에서 흐릿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밝은 아이다운 미소를 띠고 자기를 바라보는, 여위었으나 예쁜 아이의 조그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아이는 전할 말을 가지고 그를 뒤쫓아 온 것이었고 그 말을 전하게 된 것을 분명히 기뻐하고 있었다.

「저,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어디 사세요?」 아이가 숨 가쁜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다.

그는 두 손을 아이의 어깨에 얹고 일종의 행복감에 차서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는 그토록 큰 기쁨이었으나 왜 그런지는 그 자신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가 보냈니?」

「소냐 언니가 보냈어요.」 아이가 한결 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소냐 언니가 보냈을 줄 알았다.」

「엄마도 보냈어요…… 소냐 언니가 저를 보내려는데 엄마도 와서 『빨리 뛰어라, 폴레치카』 하고 말했어요.」

「소냐 언니를 사랑하니?」

「누구보다 제일 사랑해요.」 폴레치카가 유난히 단호하게 대답했고, 아이의 미소가 한결 무거워졌다.

「그럼 나도 사랑해 주겠니?」

대답 대신 그는 어린 계집아이의 얼굴이 제게로 다가오는 것을, 도톰한 입술을 천진하게 내밀어 입을 맞추려는 것을 보았다. 별안간

성냥개비처럼 가느다란 두 팔이 그를 꽉 끌어안았고, 아이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얹혔으며, 어린것은 얼굴을 그에게 점점 더 꼭 묻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아빠가 불쌍해요.」 잠시 뒤 아이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제는 불행한 일만 생겨요.」 아이는 어른처럼 말하고 싶을 때 아이들이 애써 지어 보이는 그 유난히 의젓한 태도로 별안간 덧붙였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셨니?」

「리다를 제일 사랑했어요.」 아이는 웃지도 않고 꼭 어른들처럼 아주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리다가 어리고 또 아프기도 해서 사랑했어요. 그리고 리다한테는 늘 선물을 가져다줬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글 읽는 걸 가르쳐 줬고 저한테는 문법하고 성경도 가르쳐 줬어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우리는 엄마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고 아빠도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요.」

「그럼 기도는 할 줄 아니?」

「그럼요, 할 줄 알죠! 벌써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저는 이제 다 큰 아이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콜랴하고 리다는 엄마하고 소리 내어 해요. 먼저 『기뻐하소서, 동정 성모여』[6]를 외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님, 소냐 언니를 용서하시고 복 주소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님, 우리 두 번째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복 주소서』 해요. 우리 먼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분은 다른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폴레치카, 내 이름은 로지온이란다. 나를 위해서도 가끔 기도해다오. 『또한 당신의 종 로지온을』, 그것뿐이면 된다.」

「평생 내내 기도해 드릴게요.」 어린 계집아이가 열을 내어 단언하고는 별안간 다시 웃으며 그에게 달려들어 또 한 번 꼭 그를 껴안았다.

라스콜니코프는 아이에게 제 이름과 주소를 일러 주고 이튿날 꼭 오겠다고 약속했고, 아이는 그에게 완전히 홀린 채 돌아갔으며, 그가 거리로 나섰을 때는 열 시가 지나 있었다. 오 분 뒤 그는 다리 위, 그 여자가 뛰어내렸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됐다.」 그는 단호하게, 의기양양하게 내뱉었다. 「공상도, 상상 속의 공포도, 유령도 이제 끝이다! 삶이 있다! 내가 방금 살아 보지 않았나? 내 삶은 아직 저 노파와 함께 죽지 않았어! 그 여자에게 천국이 있기를 — 그리고 이제 그만이오, 부인, 쉬실 때가 됐소! 이제부터는 이성과 빛의 치세다…… 그리고 의지와 힘의…… 자, 이제 두고 보자! 우리 힘을 겨루어 보자!」 그는 어둠의 어떤 힘에게 도전이라도 하듯 도전적으로 덧붙였다. 「그런데 나는 한 아르신의 자리에서 사는 데도 기꺼이 동의할 참이었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몹시 약하다. 하지만…… 내 병은 다 끝난 것 같다. 나올 때 이미 끝날 줄 알았지. 그러고 보니 포친코프의 집이 몇 걸음밖에 안 되는 곳에 있군. 가깝지 않더라도 라주미힌에게는 꼭 가야 해…… 그 녀석 내기에서 이기게 해 주자! 그 녀석한테도 만족을 좀 주자고 — 아무려면 어때! 힘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야,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리고 힘은 힘으로 얻어야 하는 거지 — 저들은 그걸 모른다.」 그는 자랑스럽고 자신만만하게 덧붙이고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다리를 떠났다. 자부심과 자신감이 그의 안에서 쉼 없이 자라났다. 그는 순간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의 안에서 이 변혁을 일으킨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지푸라기를 붙드는 사람처럼 그는 별안간 자기도 「살 수

있다고, 자기에게 아직 삶이 남아 있다고, 자기 삶이 그 노파와 함께 죽지는 않았다고」 느꼈다. 어쩌면 그는 지나치게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르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도 기도할 때 『당신의 종 로지온』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기는 했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뭐, 그건…… 만약을 위해서였고.」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는 제 어린애 같은 농담에 스스로 웃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다.

그는 라주미힌을 쉽게 찾아냈다. 포친코프의 집에서는 새 하숙인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문지기가 대번에 길을 일러 주었고, 계단을 반쯤 올라갔을 때 벌써 여럿이 모여 떠드는 소리와 활기찬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계단 쪽으로 난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외침 소리와 논쟁 소리가 들렸다. 라주미힌의 방은 제법 널찍했고 모인 사람은 열다섯 명쯤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현관에 멈춰 섰는데, 그곳에서는 집주인 여자의 하녀 둘이 칸막이 뒤에서 주인 여자의 부엌에서 들고 올라온 사모바르 두 개와 병들과 접시들과 파이며 안줏거리를 담은 그릇들을 부산하게 다루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사람을 들여보내 라주미힌을 불렀다. 그는 기뻐하며 달려 나왔다. 첫눈에 그가 술을 아주 많이 마셨다는 것이 뚜렷했고, 아무리 마셔도 라주미힌이 아주 취하는 법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눈에 띄게 취기가 올라 있었다.

「이봐.」 라스콜니코프가 서둘러 말했다. 「네가 내기에서 이겼다는 것하고, 사람 일이란 정말 누구도 모르는 거라는 걸 말해 주러 잠깐 들른 것뿐이야.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너무 약해져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 잘 있어, 잘 가고! 내일 나한테 와.」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집까지 바래다줄게. 네 입으로 약하다고 하니 그래야……」

「손님들은 어쩌고? 방금 내다본 그 곱슬머리는 누구야?」

「저 친구? 누가 알겠어! 아마 삼촌 친구겠지, 아니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거나…… 삼촌을 저 사람들한테 맡겨 두고 가지, 삼촌은 둘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 너한테 소개할 수 없는 게 아깝군. 하지만 지금은 다들 될 대로 되라지! 내가 없어도 눈치 못 챌 테고, 나도 신선한 공기를 좀 쐬어야겠어. 네가 딱 알맞은 때에 온 거야 — 이 분만 더 있었으면 주먹다짐을 할 뻔했거든! 어찌나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늘어놓는지…… 사람이 무슨 말까지 하는지 너는 상상도 못 할 거다! 하긴 왜 상상을 못 하겠어? 우리라고 헛소리를 안 하나? 그러니 실컷 하라지…… 그래야 안 하는 법을 배우니까!…… 잠깐만, 조시모프를 데려올게.」

조시모프는 거의 탐욕스럽다 할 만큼 라스콜니코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이내 얼굴이 밝아졌다.

「당장 자리에 눕게.」 그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환자를 진찰하며 말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한 가지 먹어 두면 좋겠네. 먹겠나? 아까 미리 마련해 두었네…… 가루약일세.」

「두 봉지라도 좋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가루약은 곧바로 삼켜졌다.

「자네가 데려다주니 잘됐네.」 조시모프가 라주미힌에게 말했다. 「내일 어떤지 보세. 오늘은 전혀 나쁘지 않아 — 낮보다 상당히 달라졌어. 오래 살고 볼 일이지……」

「나올 때 조시모프가 나한테 뭐라고 속삭였는지 알아?」 거리로 나서기가 무섭게 라주미힌이 불쑥 말했다. 「너한테는 죄다 털어놓을게, 이 사람아, 저것들이 하도 바보 같아서 말이야. 조시모프가 나더러 가는 길에 너하고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너도 나한테 허물없이 이야기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자기한테 그 얘길 전해 달라는 거야. 네가…… 미쳤거나 거의 미쳤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 생각해 봐!

첫째로 너는 그 친구보다 머리가 세 곱은 좋고, 둘째로 네가 미치지 않았다면 그 친구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든 말든 눈 하나 깜짝할 것 없고, 셋째로 전공이 외과인 저 고깃덩어리 같은 인간이 정신병에 미쳐 버린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너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건 오늘 네가 자묘토프하고 나눈 이야기 때문이고.」

「자묘토프가 너한테 죄다 말했어?」

「 죄다 했어, 아주 잘한 일이지. 이제 나도 그게 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자묘토프도 알아……. 그러니까, 실은 말이야, 로쟈…… 요점은…… 내가 지금 좀 취했어…….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고…… 요점은 이 생각이…… 알겠어? 저 사람들 머릿속에서 막 부화하고 있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소리 내어 말하지는 못했어. 그 생각이 너무 터무니없는 데다, 특히 그 도장공이 잡혀간 뒤로는 그 거품이 터져서 영영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저것들은 왜 그렇게 바보 같을까? 그때 내가 자묘토프를 좀 두들겨 줬어 — 이건 우리끼리 얘기다, 이 사람아. 네가 안다는 낌새는 부디 내비치지 마라. 그 친구가 그 일에 민감한 걸 내가 봤거든. 루이자 이바노브나의 집에서였지. 하지만 오늘, 오늘은 죄다 밝혀졌어. 저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바로 그 뿌리야! 네가 경찰서에서 기절한 걸 이용해 먹었는데, 지금은 자기도 부끄러워하고 있어. 내가 알지……」

라스콜니코프는 탐욕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라주미힌은 말이 너무 헤퍼질 만큼 취해 있었다.

「그때 기절한 건 숨이 막히도록 답답했고 페인트 냄새가 나서였어.」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그건 설명할 것도 없어! 그리고 페인트 때문만도 아니야. 열은 한 달 전부터 올라오고 있었어. 조시모프가 그걸 증언한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너는 믿지 못할 거다! 『나는 그 사람

새끼손가락만도 못하다』고 하더군. 네 새끼손가락 말이야. 그 친구도 가끔은 마음이 착해, 이 사람아. 하지만 그 한 수, 오늘 네가 『수정궁』[7]에서 그 친구한테 먹인 그 한 수는 더할 나위가 없었어! 처음에는 네가 그 친구를 겁줬잖아, 거의 경련을 일으킬 뻔했다니까! 그 흉악한 헛소리가 다 사실이라고 그 친구를 다시 거의 믿게 만들어 놓고는, 그러고 나서 별안간 — 혀를 쏙 내밀었지. 『자, 이걸 어떻게 보시겠소?』 완벽했어! 그 친구는 지금 짓뭉개지고 박살이 났다고! 대단한 솜씨였어, 정말이지 저것들한테는 그게 딱 알맞아! 아,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니! 그 친구는 너를 죽도록 보고 싶어 했어. 포르피리도 너와 알고 지내고 싶어 하고……」

「아!…… 그 사람도…… 그런데 왜들 나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거지?」

「아니, 미쳤다는 건 아니고. 내가 말이 좀 지나쳤나 보다, 이 사람아……. 그 친구가 이상하게 본 건 말이지, 오직 그 이야기에만 네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는 거야. 이제는 왜 관심이 갔는지 분명하지. 사정을 죄다 알고 나면…… 그리고 그게 너를 얼마나 자극했고 네 병하고 맞물렸는지도…… 내가 좀 취했다, 이 사람아, 다만, 젠장, 그 친구한테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내 말하지만 그 친구는 정신병에 미쳐 있어. 하지만 너는 신경 쓰지 마……」

삼십 초쯤 둘 다 말이 없었다.

「이봐, 라주미힌.」 라스콜니코프가 입을 열었다. 「너한테 솔직히 말하고 싶다. 나는 방금 어떤 사람의 임종을 보고 오는 길이야, 죽은 관리 하나…… 내 돈을 죄다 그 집에 주고 왔어…… 그리고 또 방금 누군가한테 입맞춤을 받았는데, 그 누군가는 내가 설령 누구를 죽였다 해도 똑같이…… 사실 거기서 또 다른 사람도 봤어…… 불꽃 빛깔

깃털을 단…… 아니, 내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몹시 약해졌어, 나를 좀 부축해 줘…… 곧 계단에 닿겠지……」

「왜 그래?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주미힌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좀 어지러워,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무 슬퍼, 너무 슬프다고…… 꼭 여자처럼…… 정말이야! 봐, 저게 뭐지? 봐, 봐!」

「뭐가?」

「안 보여? 내 방에 불이 켜져 있잖아, 보이지? 저 틈새로……」

둘은 이미 마지막 층계 아래, 집주인 여자의 문이 있는 층에 이르러 있었고, 과연 아래에서도 라스콜니코프의 다락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이상한데! 나스타시야인가 보지.」 라주미힌이 말했다.

「그 여자는 이 시간에 내 방에 있는 법이 없고 벌써 오래전에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하지만…… 아무래도 좋아! 잘 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같이 간다, 같이 들어가자고!」

「같이 들어갈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여기서 악수를 하고 여기서 너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그러니 손을 다오, 잘 가!」

「너 왜 그러는 거야, 로쟈?」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네가 증인이 되어 줘.」

둘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어쩌면 조시모프가 결국 옳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라주미힌에게 떠올랐다. 「아, 내가 떠들어 대는 바람에 이 친구 마음을 흔들어 놓았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문 앞에 이르자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야?」 라주미힌이 외쳤다. 라스콜니코프가 먼저 문을 열었다. 그는 문을 활짝 밀어젖히고는 어안이 벙벙하여 문간에 우뚝 선

채 꼼짝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누이가 그의 소파에 앉아 한 시간 반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길을 떠났고 오는 중이며 곧 도착하리라는 소식을 바로 그날 거듭 들었으면서도, 어찌하여 그는 한 번도 그들을 예상하지 않았고 한 번도 그들을 떠올리지 않았던 것일까? 그 한 시간 반 동안 그들은 나스타시야를 붙들고 이것저것 캐물었다. 그녀는 그들 앞에 서서 이미 죄다 이야기해 준 뒤였다. 그가 오늘 앓는 몸으로, 게다가 그녀의 이야기로 미루어 헛소리까지 하면서 「뛰쳐나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놀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맙소사, 그 애가 어떻게 된 걸까?」 둘 다 울었고, 둘 다 그 한 시간 반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다.

기쁨의, 환희의 외침이 라스콜니코프가 들어서는 것을 맞이했고 둘 다 그에게로 달려들었으나, 그는 죽은 사람처럼 서 있었으니 견딜 수 없는 깨달음이 별안간 벼락처럼 그를 쳤던 것이다. 그는 그들을 껴안으려고 팔을 들어 올리지 않았다.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누이가 그를 두 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웃고 울었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고,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다.

걱정, 놀란 외침, 신음…… 문간에 서 있던 라주미힌이 방 안으로 날아들어 억센 두 팔로 병자를 붙들어 순식간에 소파에 눕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어머니와 누이에게 외쳤다. 「그저 기절한 것뿐입니다, 대단찮은 일이에요! 방금 전에도 의사가 훨씬 좋아졌다고, 아주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물을! 보십시오, 정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괜찮아졌어요!」

그러고는 두냐의 팔을 하마터면 빠뜨릴 뻔할 만큼 세게 붙들어 「다시 괜찮아졌다」는 것을 보라고 그녀의 몸을 굽히게 했다. 어머니와 누이는 그를 자기들의 섭리라도 되는 양 감격과 감사에 차서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나스타시야에게서, 그날 저녁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

라스콜니코바가 두냐와 단둘이 이야기하며 부른 대로 「아주 유능한 젊은이」인 이 사람이 그들의 로쟈가 앓는 동안 그를 위해 해 준 일들을 죄다 들은 터였다.

---

1. 걸음 — 러시아어 원문의 단위는 「걸음(шаг)」이다. 가넷 영역본은 이를 영국 단위 「야드」로 바꿔 옮겼다.

2. 문관 대령 — 제정 러시아 관등표 6등(콜레즈스키 소베트니크)을 무관의 대령에 견주어 부르던 말. 카테리나는 관등 이름 대신 이 군대식 속칭을 쓴다.

3. 귀족회장 — 제정 러시아의 현(縣)과 군(郡)에서 귀족들이 뽑던 대표(프레드보디텔). 그 저택에서 열리는 무도회는 지방 사교계의 정점이었다.

4. 시종보 — 궁정 관등의 하나(러시아어 카메르윤케르, 본디 독일어 Kammerjunker). 젊은 귀족에게 내리던 명예 궁정직이다.

5. 성체 — 신부가 임종하는 이에게 가져오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 정교회에서는 고해와 마지막 영성체가 임종의 성사를 이루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고해와 예식이 그것이다.

6. 기뻐하소서, 동정 성모여(Богородице Дево, радуйся) — 정교회에서 성모께 드리는 기도. 러시아어 원문은 이 기도를 «Богородица»라고 적었다. 가넷 영역본은 이를 가톨릭 기도의 라틴어 이름 Ave Maria로 옮겼다.

7. 수정궁(Хрустальный дворец) — 당시 페테르부르크에 실제로 있던 음식점의 이름. 가넷 영역본은 이 이름을 프랑스어 Palais de Cristal로 옮겼다.

3부 1장

라스콜니코프는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았다. 그는 라주미힌이 제 어머니와 누이에게 쏟아 놓고 있던 따뜻하고 두서없는 위로의 물줄기를 끊으려고 힘없이 손을 내저었고,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고서 이 분가량 말없이 이 얼굴에서 저 얼굴로 눈길을 옮겼다. 어머니는 그의 눈빛에 겁이 났다. 그 눈빛에는 견딜 수 없이 사무치는 감정이 드러나 있었고, 그와 동시에 꿈쩍도 하지 않는 무엇이, 심지어 실성한 듯한 무엇이 있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울기 시작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얼굴이 창백했다. 오라버니의 손 안에서 그녀의 손이 떨렸다.

「 집으로 가세요…… 이 친구하고. 」 그가 라주미힌을 가리키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까지 안녕히, 내일이면 다…… 온 지 오래됐어요?」

「오늘 저녁이란다, 로쟈야.」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대답했다. 「 기차가 지독히도 늦었지 뭐냐. 그렇지만 로쟈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와서 너를 두고 가지는 않으련다! 여기서, 네 곁에서 밤을 새우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가 짜증스러운 몸짓으로 말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라주미힌이 외쳤다. 「한시도 이 친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손님들이야 될 대로 되라지요! 실컷들 성을 내라고 하십시오! 거기는 제 삼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어떻게, 어떻게 이 고마움을 다 갚을까요!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다시 라주미힌의 두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으나, 라스콜니코프가 또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가 짜증스럽게 되풀이했다. 「나를 들볶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으니 가 주세요…… 못 하겠어요!」

「 어머니, 잠깐만이라도 방에서 나가요. 」 두냐가 겁에 질려 속삭였다. 「우리가 오라버니를 죽이고 있어요, 뻔히 보이는걸요.」

「삼 년 만인데 얼굴도 못 보느냐?」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울며 말했다.

「기다려요.」 그가 다시 두 사람을 멈춰 세웠다. 「자꾸 말을 끊으니 생각이 뒤엉키잖아요……. 루쥔은 만났어요?」

「아니다, 로쟈야. 그렇지만 그이도 우리가 온 것은 벌써 알고 있다. 로쟈야, 우리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고맙게도 오늘 너를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단다.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어쩐지 머뭇거리며 덧붙였다.

「그래요…… 고맙기도 하지요…… 두냐, 나는 아까 루쥔한테 층계 아래로 내던져 버리겠다고 하고는 꺼지라고 쫓아 버렸다…….」

「 로쟈야,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설마……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놀라 입을 열었다가, 두냐를 보고 말을 멈추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기다리며 오라버니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나스타시야에게서 그 다툼 이야기를 들은 터였으나 그녀가 알아들은 만큼만, 전할 수 있는 만큼만 들은 것이어서, 둘은 괴로운 당혹과 조바심 속에 있었다.

「두냐.」 라스콜니코프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나는 그 혼인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일 첫마디에 루쥔을 물리쳐서, 우리가 다시는

그 이름을 듣는 일이 없게 해라.」

「맙소사!」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오라버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발끈하여 입을 열었다가 곧바로 스스로를 눌렀다. 「지금은 이야기할 형편이 아닌가 봐요. 피곤하신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루쥔과 혼인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희생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내일이 오기 전에 편지를 써서 그를 물리쳐라…… 아침에 내가 읽어 보게 해 다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건 못 해요!」 처녀가 모욕을 느끼고 외쳤다. 「오라버니한테 무슨 권리가……」

「두냐, 너도 성급하구나, 좀 가만있어라, 내일…… 너도 보이지 않니……」 어머니가 겁에 질려 두냐에게 달려들며 말했다. 「아무래도 그만 나가는 게 낫겠다!」

「이 친구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라주미힌이 취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저런 소리를! 내일이면 이런 허튼소리는 다 지나갑니다…… 오늘 이 친구가 그 사람을 쫓아낸 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랬지요. 그리고 루쥔도 성이 났고요……. 여기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며 제 학식을 뽐내려 들더니 풀이 죽어서 나갔습니다…….」

「그럼 정말인가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내일 뵐게요, 오라버니.」 두냐가 가엾다는 듯이 말했다 — 「가요, 어머니…… 잘 있어요, 로쟈.」

「듣고 있니, 누이야.」 그가 마지막 힘을 그러모아 그들의 등 뒤에 대고 되뇌었다. 「나는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이 혼인은 — 추악한

짓이야. 나는 비열한 자로 굴어도 좋다만 너는 안 된다…… 하나로 족해…… 그리고 내가 비열한 자이긴 해도 그런 누이를 누이로 두지는 않겠다. 나냐 루쥔이냐다! 이제 가라…….」

「 자네 정말 제정신이 아니로군! 폭군 같으니! 」 라주미힌이 고함쳤다. 그러나 라스콜니코프는 대답하지 않았고, 어쩌면 대답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소파에 누워 벽 쪽으로 돌아누웠으니 기진맥진한 것이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흥미로운 눈으로 라주미힌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검은 두 눈이 번득였다. 라주미힌은 그 눈길에 정말로 흠칫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망연히 서 있었다.

「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가요. 」 그녀가 거의 절망에 빠져 라주미힌에게 속삭였다. 「 어디든 여기 있겠어요…… 두냐만 데려다주세요.」

「그러시면 다 그르칩니다.」 라주미힌이 참다못해 같은 속삭임으로 대답했다 — 「 아무튼 층계로라도 나가시지요. 나스타시야, 불을 비춰라! 맹세합니다만.」 그는 층계에서 반쯤 속삭이며 말을 이었다 — 「 오늘 낮에는 이 친구가 의사하고 저를 하마터면 두들겨 팰 뻔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를요! 그 사람조차 이 친구를 더 건드리지 않으려고 물러나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래층에 남아 망을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새 옷을 챙겨 입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자꾸 건드리시면 이 밤중에 또 빠져나가서 제 몸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말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그리고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어머니도 없이 그 하숙에 두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디 묵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열한 자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더 나은 데를 구해 드리지 못했을 리가…… 아,

그런데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이렇게…… 입이 험합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여기 주인아주머니한테 가 보겠어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고집했다. 「오늘 밤 두냐하고 내가 몸 누일 구석이라도 내어 달라고 사정하겠어요. 저 애를 저렇게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없고말고요!」

이 대화는 집주인 여자의 문 바로 앞 층계참에서 오간 것이었다. 나스타시야가 한 계단 아래에서 그들에게 불을 비추어 주었다. 라주미힌은 보통 아닌 흥분 상태에 있었다. 삼십 분 전에 라스콜니코프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그가 정말로 입을 함부로 놀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그 자신도 알고 있었고, 그날 저녁 엄청난 양의 술을 들이켰는데도 아주 기운차고 거의 말짱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황홀경에 닿은 상태여서, 마신 것이 죄다 곱절의 힘으로 머리로 날아오르는 듯했다. 그는 두 부인과 함께 서서 양쪽의 손을 하나씩 붙들고 놀랄 만큼 거침없는 말로 설득하고 근거를 늘어놓았으며, 아마도 제 논거에 힘을 싣고 싶었던 것인지 거의 한마디 할 때마다 그들의 손을 바이스처럼 아프게 조였다. 그리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눈으로 삼킬 듯 바라보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아파서 이따금 그 커다랗고 뼈만 남은 손아귀에서 제 손을 빼냈으나,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더 바싹 끌어당겼다. 그들이 층계에서 머리부터 뛰어내리라고 했다면 그는 그들을 위하여 생각도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이 젊은이가 정말이지 너무 별나고 제 손을 너무 세게 쥔다고 느끼면서도, 제 로쟈를 두고 애를 태우는 터라 그가 곁에 있는 것을 하늘이 내린 일로 여겨 그의 유별난 구석들을 죄다 못 본 척하려 했다. 그러나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어머니와 같은 걱정을 나누고 있었고

겁이 많은 성미도 아니었건만, 오라버니 친구의 사나운 불길로 번득이는 눈길을 마주할 때마다 놀라움과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라버니의 그 괴상한 친구에 대하여 나스타시야가 들려준 이야기가 심어 준 그 끝없는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그녀는 그에게서 달아나려 했을 것이고 어머니에게도 그러자고 권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달아나는 것조차 어쩌면 가능하지 않겠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십 분이 지나자 그녀는 적잖이 마음이 놓였다. 어떤 기분에 있든 제 본바탕을 대번에 드러내 보여서 사람들이 제가 상대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세 알아보게 만드는 것이 라주미힌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 주인아주머니한테 가시다니, 그건 순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가 외쳤다. 「남아 계시면, 아무리 어머니시라 해도 저 친구를 미쳐 날뛰게 만드실 테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들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지요. 지금은 나스타시야가 곁에 있을 것이고, 저는 두 분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두 분만 계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페테르부르크는 그 점에서는…… 에이, 알 게 뭡니까!…… 그러고 나서 곧장 여기로 달려와서, 십오 분 뒤에는, 제 명예를 걸고, 저 친구가 어떤지 잠들었는지 그 밖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 보십시오! 그러고는 눈 깜짝할 새에 집으로 달려가서 — 거기 제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죄다 취해 있습니다만 — 조시모프를 데려오겠습니다. 저 친구를 봐 주는 의사인데, 그 사람도 거기 있고 그 사람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하지 않았고말고요, 그 사람은 결코 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로쟈한테 끌고 갔다가 두 분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안에 보고를 두 번 받으시는 셈이지요 — 의사한테서, 아시겠습니까, 의사 본인한테서 말입니다. 그건 제가 전해

드리는 것과는 영 다른 것이지요!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맹세코 제가 두 분을 여기로 직접 모셔 오겠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으면 주무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기 통로에서 밤을 지내겠습니다. 저 친구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를 테고, 조시모프한테는 가까이 있도록 주인아주머니 방에서 자라고 이르겠습니다. 저 친구에게 지금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두 분입니까 의사입니까? 의사가 더 쓸모 있지요, 더 쓸모 있고말고요. 그러니 댁으로 가시지요! 주인아주머니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저야 괜찮지만 두 분께는 어림없어요. 그 여자는 두 분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 여자는 바보니까요…… 그 여자는 저 때문에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질투할 테고, 알고 싶으시다면요…… 어머니까지도 질투할 겁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야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여자는 정말이지, 정말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기야 저도 바보지요!…… 됐습니다! 가시지요! 저를 믿으십니까? 자, 저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가요, 어머니.」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말했다. 「이분은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킬 거예요. 벌써 오라버니를 되살려 놓으셨고, 의사 선생이 정말로 여기서 밤을 지내 주기로 한다면 그보다 나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은…… 저를 알아주시는군요, 천사이시니까요! 」 라주미힌이 황홀하여 외쳤다. 「 가시지요! 나스타시야! 얼른 위로 올라가 불을 켜고 곁에 앉아 있어라. 나는 십오 분 안에 오마.」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온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었으나 더는 버티지 않았다. 라주미힌은 두 사람에게 한쪽씩 팔을 내주고 층계 아래로 끌다시피 데려갔다. 그래도 그는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유능하고 사람이 좋기는 하다지만, 그가 과연 제 약속을 지켜 낼 수 있을까? 저런 꼴을 하고 있는데…….

「아, 제가 저런 꼴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라주미힌이 그녀의 생각을 알아맞히고 끼어들었다. 그는 보도를 성큼성큼 걸었으므로 두 부인이 따라오기가 힘들 지경이었는데, 정작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보처럼 취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저를 취하게 한 것은 술이 아닙니다. 두 분을 뵌 것이 제 머리를 돌게 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마십시오!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는 허튼소리를 하고 있고, 저는 두 분께 걸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두 분께 도무지 걸맞지 않습니다! 두 분을 댁에 모셔다 드리는 그 순간에, 저는 여기 이 도랑에서 제 머리에 물을 두 통 끼얹겠습니다. 그러면 멀쩡해질 겁니다……. 제가 두 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기만 한다면! 웃지 마십시오, 그리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노여워하셔도 좋지만 저한테만은 안 됩니다! 저는 저 친구의 벗이고, 그러므로 두 분의 벗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순간 그런 일이…… 하기야 그건 예감이랄 것도 아니었지요, 두 분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잘 것 같습니다…… 조시모프가 조금 전에 저 친구가 미쳐 버릴까 봐 걱정하더군요…… 그래서 저 친구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외쳤다.

「의사 선생이 정말로 그렇게 말했나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겁이 나서 물었다.

「말은 그랬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약을, 가루약을 주었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분이 오신 거지요……. 아! 내일 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나와

버린 건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안에 조시모프가 직접 두 분께 모든 것을 알려 드릴 겁니다. 그 사람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취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곤드레가 됐느냐 하면, 그자들이 저를 논쟁에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빌어먹을! 다시는 논쟁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자들이 하는 소리란 게 죄다 허섭스레기예요! 하마터면 주먹다짐까지 갈 뻔했습니다! 자리는 삼촌한테 맡겨 두고 나왔고요. 믿으시겠습니까, 그자들은 개성이 완전히 없어야 한다고 우겨 대는데, 바로 그것에 신이 나 있습니다! 제 자신이 되지 않는 것, 제 자신과 될 수 있는 한 닮지 않는 것. 그것을 그자들은 진보의 가장 높은 자리로 여깁니다. 그 허튼소리나마 제 것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실상은……」

「저기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머뭇거리며 말을 끊었으나,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주미힌이 전보다도 더 크게 소리쳤다. 「제가 그자들이 허튼소리를 한다고 몰아세우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저는 그자들이 허튼소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물 가운데서 누리는 단 하나의 특권이니까요. 헛소리를 하다 보면 진리에 이릅니다! 저는 헛소리를 하기에 사람입니다! 미리 열네 번, 어쩌면 백열네 번 헛소리를 하지 않고서 진리에 하나라도 가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 나름으로는 훌륭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제 머리로 헛소리를 할 줄조차 모릅니다! 허튼소리를 하되 제 허튼소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값으로 입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제 식으로 하는 헛소리가 남의 식으로 하는 진리보다 거의 낫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사람이고, 뒤의 경우에는 새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진리는 달아나지 않지만 삶은 못질해 가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학문에서, 발전에서, 사유에서, 발명에서, 이상에서, 욕망에서, 자유주의에서, 이성에서, 경험에서, 그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서 아직도 김나지움의 첫 예비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생각으로 사는 편을 좋아하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 말이 옳지요, 옳지요?」 라주미힌이 두 부인의 손을 쥐고 흔들며 외쳤다. 「옳지요?」

「아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가엾은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말했다.

「그래요, 그래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진지하게 덧붙이고는 이내 비명을 질렀으니, 그가 그녀의 손을 어찌나 아프게 쥐었던지.

「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당신은…… 」 그가 넋을 잃고 외쳤다. 「 당신은 선함과 순결함과 분별의…… 그리고 완전함의 샘입니다. 손을 주십시오…… 당신도 손을 주십시오! 여기서 당장, 무릎을 꿇고 두 분의 손에 입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보도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는데, 다행히도 그 시각에 거리에는 인적이 없었다.

「 그만두세요, 제발이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더할 나위 없이 놀라 외쳤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두냐가 웃으며 말했으나 그녀 역시 마음이 어지러웠다.

「두 분의 손에 입 맞추게 해 주시기 전에는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옳지! 됐습니다! 일어나서 갑니다! 저는 운도 없는 바보이고, 두 분께 걸맞지 않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두 분을 사랑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두 분께 경의를 바치는 것은 완전한 짐승이 아닌 사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의를

바쳤습니다……. 여기가 두 분 숙소군요. 그 하나만으로도 로지온이 아까 두 분의 그 표트르 페트로비치를 쫓아낸 것은 옳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두 분을 이런 데 모셔 놓는단 말입니까! 이건 추문입니다! 여기 어떤 자들을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의 약혼자이시고! 약혼자시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러고 보면 당신의 신랑감은 비열한 자입니다.」

「 여보세요, 라주미힌 씨, 자신을 잊으셨군요……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입을 열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잊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 라주미힌이 서둘러 사과했다. 「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저한테 노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건…… 흠! 그건 비열한 짓일 테고요. 한마디로 제가 당신에게…… 흠!…… 아무튼 그만두지요, 왜 그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들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발소에서 머리를 지지고 와서도 아니고, 제 재치를 서둘러 내보이려 해서도 아니라, 그가 염탐꾼이고 투기꾼이기 때문이고, 유대인 같은 노랑이에 어릿광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뻔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그런 자가 당신의 짝이 되겠습니까? 맙소사! 보십시오, 두 분.」 그가 두 사람의 방으로 올라가는 길에 별안간 걸음을 멈추었다. 「 거기 제 친구들이 죄다 취해 있기는 해도 하나같이 정직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허섭스레기를 잔뜩 떠들어 대기는 해도, 저 역시 그렇지만, 우리는 끝내 이야기를 헤쳐 진리에 가 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결한 길 위에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고결한 길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그자들을 온갖 말로 욕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들을 다 존경합니다…… 자묘토프는 존경하지 않습니다만 좋아합니다, 그자는 강아지니까요. 그 짐승 같은 조시모프까지도요, 그 사람은 정직하고 제 일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됐습니다, 다 말했고 다 용서됐습니다. 용서하시는 겁니까? 그럼 갑시다. 저는 이 복도를 압니다, 와 본 적이 있어요, 여기 3호실에서 추문이 있었지요……. 두 분은 여기 어디십니까? 몇 호실입니까? 8호? 그럼 밤에는 문을 잠가 두십시오. 아무도 들이지 마시고요. 십오 분 안에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고, 그 반 시간 뒤에는 조시모프를 데려오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 맙소사, 두냐야,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 거냐?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걱정과 당황에 차서 딸에게 말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두냐가 모자와 망토를 벗으며 말했다. 「하느님이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거예요, 술자리에서 오시기는 했지만요. 저분은 믿어도 돼요, 정말이에요. 게다가 로쟈를 위해 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아아, 두냐야, 저이가 올지 안 올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어떻게 로쟈를 두고 나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날을 얼마나 다르게, 얼마나 다르게 그려 보았는데! 그 애는 어찌 그리 냉랭하던지, 우리를 보고도 반갑지 않다는 듯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보지 못하셨어요, 내내 울고만 계셨으니까요. 오라버니는 심한 병으로 넋이 아주 흔들려 있어요 — 그 때문이에요.」

「아아, 그 병! 어떻게 되려는지, 어떻게 되려는지! 그리고 그 애가 너한테 그런 말투로 말하다니, 두냐야!」 어머니가 딸의 생각을 읽어

보려는 듯 머뭇머뭇 딸을 바라보며 말했는데, 두냐가 오라버니를 감싸는 것을 보고 — 그것은 이미 용서했다는 뜻이었다 — 벌써 반쯤은 마음이 놓인 뒤였다. 「나는 그 애가 내일이면 마음을 고쳐먹으리라고 믿는다.」 그녀가 딸의 속을 더 떠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오라버니가 내일도 같은 말을 하리라고 믿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잘라 말했다. 그러니 물론 그보다 더 나아갈 수는 없었으니, 그것은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꺼내기를 두려워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두냐는 다가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을 꼭 껴안았다. 그러고는 앉아서 라주미힌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팔짱을 끼고 역시 기다리며 생각에 잠긴 채 방 안을 오르내리는 딸을 조심스레 지켜보았다. 생각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의 버릇이었고, 그럴 때 딸의 기분을 깨뜨리는 것을 어머니는 늘 두려워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향한 라주미힌의 저 느닷없는 취중 연정이 우스꽝스러웠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괴상한 상태를 빼놓고 보더라도,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특히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서글픈 얼굴로 오락가락하던 그 순간의 그녀를 보았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이 그럴 만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키가 크고 몸매가 놀랍도록 고르며 힘 있고 당찼는데, 당차다는 것은 몸짓 하나하나에 드러났으면서도 그 몸놀림의 우아함과 부드러움을 조금도 덜어 내지 않았다. 얼굴은 오라버니를 닮았으나 그녀는 정말 아름답다고 할 만했다. 머리칼은 짙은 밤빛으로 오라버니보다 조금 밝았고, 번득이는 거의 검은 두 눈에는 자존의 빛이 있으면서도 이따금 보기 드문 다정함이 어렸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그것은 건강한 창백함이었고, 신선함과 생기로 환했다. 입은 오히려 작은 편이었고 도톰하고 붉은 아랫입술이 턱과 함께 조금 앞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얼굴에서 고르지 않은 곳이라고는 그것 하나뿐이었으나 바로 그것이 얼굴에 유난히 저만의, 거의 오만하다 할 표정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즐겁기보다 언제나 더 진지하고 생각이 깊었다. 그러나 미소가, 젊고 가볍고 거리낌 없는 웃음이 그 얼굴에 얼마나 잘 어울렸던지! 라주미힌처럼 따뜻하고 솔직하고 마음이 단순하고 정직한 거인이, 그런 여자를 여태 본 적도 없는 데다 게다가 취해 있던 터에, 대번에 넋을 잃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그는 두냐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오라버니에 대한 사랑과 그를 만나는 기쁨으로 환히 달라진 그녀를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라버니의 무례하고 배은망덕하리만큼 모진 명령에 그녀의 아랫입술이 분노로 떨리는 것을 보았고 —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가 층계에서 취중에 내뱉은 말, 곧 라스콜니코프의 별난 집주인 프라스코비야 파블로브나가 저 때문에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뿐 아니라 어쩌면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까지 질투하리라는 말은 사실이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마흔셋이었지만 얼굴에는 아직 지난날 아름다움의 자취가 남아 있었고, 실제로 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는데, 그것은 늙도록 맑은 정신과 싱싱한 감수성과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의 열기를 잃지 않는 여자에게 거의 언제나 있는 일이다. 덧붙여 말해 두자면,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늙도록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단 하나의 길이다. 머리칼은 세기 시작하고 숱이 줄었으며,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힌 지 오래였고, 두 볼은 근심과 슬픔으로 움푹 꺼져 있었으나 그래도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십 년 나이를 더 먹은 두냐 그대로였고, 다만 앞으로 나온 아랫입술이 없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감정이 여린 사람이었으나 감상적이지는 않았고, 겁이 많고 잘 굽히는 사람이었으나 어느 선까지만 그러했다. 그녀는 제 신념에 어긋나는 것까지도 많이 양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정직함과 원칙과 가장 깊은 신념이 세워 놓은 어떤 울타리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넘지 않았다.

라주미힌이 떠난 지 꼭 이십 분 만에 문에서 나직하지만 다급한 노크 소리가 두 번 났다. 그가 돌아온 것이었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문이 열리자 그가 서둘러 말했다. 「돌처럼 잘 잡니다, 깊이, 조용히. 열 시간은 자기를 하느님께 빌 따름이지요. 나스타시야가 곁에 있고, 제가 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일러 두었습니다. 이제 조시모프를 데리러 갑니다. 그 사람이 두 분께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면 두 분은 자리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아하니 더할 수 없이 지치셨습니다…….」

그러고는 복도를 달려 내려갔다.

「참으로 유능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젊은이로구나!」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외쳤다.

「훌륭한 분 같아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얼마쯤 열을 담아 대답하고는 다시 방 안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한 시간이 다 되어서야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고 또 한 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두 여자는 이번에는 라주미힌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렸으니, 그는 정말로 조시모프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조시모프는 술자리를 버리고 라스콜니코프의 집으로 가는 데는 대번에 응했으나, 두 부인을 보러 가는 데는 마지못해, 더없이 미심쩍어하며 따라나섰으니 술 취한 라주미힌을 믿지 못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은 곧 달래지고 우쭐해졌다. 그들이 정말로 그를 신탁이라도 되는 양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꼭 십 분을 머물렀고,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를 완전히 납득시키고 안심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눈에 띄게 다정한 태도로 말했으나, 중요한 진찰 자리에 앉은 스물일곱 살 의사와 꼭 같은 절제와 극도의 진지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다른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고, 두 부인과 사사로이 가까워지려는 기색은 털끝만큼도 내비치지 않았다. 들어서자마자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알아보았으면서도 그는 머무는 동안 내내 그녀를 아예 보지 않으려 애썼고 오직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에게만 말을 건넸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보통 아닌 속만족을 주었다. 그는 환자가 지금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환자의 병은 한편으로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불행한 물질적 환경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기원도 있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정신적·물질적 영향과 불안과 우려와 걱정과 어떤 생각들…… 따위의 산물」이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제 말을 유심히 좇고 있는 것을 지나가듯 알아차린 조시모프는 이 주제를 좀 더 늘어놓아도 되겠다고 여겼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걱정스럽게, 머뭇거리며 「혹시 실성한 것은 아닌지」 묻자 그는 차분하고 숨김없는 미소를 띠고 대답하기를, 제 말이 과장되었다고, 환자에게 어떤 고정된 관념이, 편집광에 가까운 무엇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 그, 조시모프는 요즈음 의학의 이 흥미로운 갈래를 특히 연구하고 있노라고 — 그러나 환자가 거의 오늘까지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그리고 물론 식구들이 와 준 것이 그에게 힘을 주고 마음을 흩어 주며 구원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새로운 충격만 다 피할 수 있다면」 하고 그는 뜻을 담아 덧붙였다. 그러고는 일어나 위엄 있고 상냥하게 인사하고 물러났는데, 그러는 동안 축복과 따뜻한 감사와 간청이 그에게 쏟아졌고,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제 편에서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제 방문에 매우 흡족해하며, 그보다도 제 자신에게 더 흡족해하며 나갔다.

「내일 이야기하시지요, 지금은 당장 주무십시오!」 라주미힌이 조시모프를 따라 나가며 마무리 삼아 말했다. 「내일 아침에는 되도록 일찍 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황홀한 아가씨더군,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말이야.」 둘이 함께 거리로 나서자 조시모프가 거의 입맛을 다시듯 말했다.

「황홀하다고? 자네 지금 황홀하다고 했나?」 라주미힌이 고함을 지르며 조시모프에게 달려들어 목을 움켜쥐었다. 「자네가 언제든 감히……. 알아듣겠나? 알아듣겠어?」 그가 옷깃을 잡아 흔들며 벽에 밀어붙이고 소리쳤다. 「듣고 있나?」

「놓게, 이 술주정뱅이야.」 조시모프가 몸부림치며 말했고, 상대가 손을 놓아주자 그를 빤히 보더니 별안간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라주미힌은 두 팔을 늘어뜨리고 그를 마주 보고 선 채 음울하고 진지한 생각에 잠겼다.

「물론 나야 멍청이지.」 그가 먹구름처럼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자네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이 사람아, 전혀 마찬가지가 아니지. 나는 어리석은 짓은 꿈도 꾸지 않으니까.」

둘은 말없이 걸었고, 라스콜니코프의 하숙 가까이에 이르러서야 라주미힌이 적잖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침묵을 깼다.

「들어 보게.」 그가 말했다. 「자네는 좋은 친구지만, 다른 흠들은 접어 두고, 자네는 행실이 헤픈 사람이야, 그건 내가 알지, 그것도 더러운 쪽이고. 자네는 신경질적이고 물러 빠진 쓰레기이고 변덕덩어리이고, 살이 오르고 게을러지고 제 자신한테 무엇 하나 참지 못해 — 그리고 나는 그걸 더럽다고 하는 거야, 그게 사람을 곧장 진창으로 끌고 가니까. 자네는 스스로를 어찌나 풀어 놓았는지, 솔직히 그러고도 아직 어떻게 좋은 의사, 아니 헌신적인 의사로 남아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자네가 — 의사라는 사람이 — 깃털 요 위에서 자다가 밤중에 환자를 보러 일어나다니! 삼 년쯤 지나면 자네는 환자를 보러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 젠장, 그게 요점이 아니지!…… 자네는 오늘 밤 여기 주인아주머니 방에서 자게 되어 있어. (그이를 설득하느라 애깨나 먹었지!) 그리고 나는 부엌에 있을 거고. 그러니 자네한테는 그이를 좀 더 알아볼 기회인 셈이지…….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 비슷한 기미조차 없어, 이 사람아……!」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거기엔 얌전함이 있어, 이 사람아, 말수 적음, 수줍음, 사나울 만큼 굳은 정절…… 그런데도 밀랍처럼 한숨을 쉬며 녹아내리지, 그냥 녹아내려! 나 좀 그이한테서 구해 주게, 세상 모든 악마를 봐서라도 부탁하네! 그이는 여간 마음을 끄는 사람이 아니야…… 내 반드시 갚음세, 목을 걸고 갚겠네!」

조시모프가 전보다 더 요란하게 웃었다.

「자네 단단히 홀렸군! 그런데 내가 그이를 어쩌라는 건가?」

「별 수고랄 것도 없어, 정말이야. 무슨 허튼소리든 좋으니 그저 곁에 앉아서 이야기만 해 주게. 자네도 의사니까 무엇이든 하나 고쳐 주기 시작하든지. 맹세컨대 후회하지 않을 걸세. 그이한테 클라비코드가 있는데,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조금 뚱길 줄 알지.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진짜배기 러시아 노래야.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네』. 그이는 진짜배기를 좋아하거든 — 그래, 다 그 노래에서 시작된 걸세. 그런데 자네는 어엿한 연주가요 maître[1]요 루빈시테인[2]이 아닌가……. 정말이지 후회하지 않을 거야!」

「 그런데 자네 그이한테 무슨 약속이라도 한 건가? 문서로 쓴 것이라도? 혹시 혼인 약속?」

「없어, 없어, 그런 건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 게다가 그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체바로프가 그걸 해 보려다가…….」

「그럼 손을 떼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떼어지질 않아!」

「왜 안 된다는 건가?」

「글쎄 안 된다니까, 그뿐이야! 여기엔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석이 있어, 이 사람아.」

「그럼 자네는 왜 그이를 홀렸나?」

「나는 홀린 적 없어. 어쩌면 어리석게도 내가 홀렸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이한테는 자네든 나든 터럭만큼도 상관없어, 누구든 곁에 앉아 한숨만 쉬어 주면 되니까……. 이 형편을 설명할 수가 없군, 이 사람아…… 여보게, 자네 수학을 잘하고 지금도 붙들고 있잖나…… 그이한테 적분학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맹세코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야, 그이한테는 그게 그거일 테니까. 그이는 꼬박 한 해라도 자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쉴 걸세. 나는 언젠가 그이한테 이틀을 내리 프로이센 상원 이야기를 했는데(무슨 이야기든 해야 하니까) — 그이는 그저 한숨을 쉬며 땀을 흘리더군! 그리고 사랑 이야기는 하면 안 되네 — 부끄러워서 발작을 일으킬 지경이니까 — 그저 자네가 그이한테서 떠나지 못하겠다는 것만 보여 주게, 그거면 충분해. 여간 편한 게 아니야. 제 집처럼 지내면서 읽고 앉고 드러눕고 쓰고 할 수 있어. 조심만 하면 입맞춤까지 해 볼 만하지.」

「그런데 내가 그이를 어디다 쓴다는 건가?」

「아, 자네한테는 알아듣게 할 수가 없군! 보라니까, 자네들은 서로를 위해 지어진 사이야! 나는 전부터 자네 생각을 했어…… 자네도 끝내는 거기로 가게 될 걸세! 그러니 그게 이르든 늦든 무슨 상관인가? 여기엔 깃털 요라는 것이 있어, 이 사람아 — 아! 그것만이 아니야! 여기엔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 — 여기엔 세상의 끝이, 닻자리가, 고요한 항구가, 땅의 배꼽이, 세상을 떠받친다는 세 마리 물고기[3]가, 팬케이크와 기름진 쿨레뱌카 파이와 저녁나절 사모바르와 부드러운 한숨과 따뜻한 솔과 잠자기 좋은 뜨듯한 페치카의 정수가 있어 — 죽은 것처럼 아늑하면서도 살아 있으니 — 양쪽의 좋은 점을 한꺼번에 누리는 셈이지! 아무튼, 젠장, 이 사람아, 내가 무슨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나, 잘 시간이야! 들어보게. 나는 이따금 밤중에 깨거든. 그러면 들어가서 저 친구를 들여다보겠네. 하기야 그럴 것도 없어, 괜찮으니까. 자네도 너무 걱정 말게. 그래도 원한다면 한 번쯤은 들여다봐도 좋고. 그런데 무슨 낌새가 보이면 — 헛소리든 열이든 뭐든 — 나를 당장 깨우게. 하기야 그럴 리야 없지…….」

---

1. maître — 프랑스어로 「거장」, 「대가」. 원전은 이 낱말을 러시아 글자로 적었다(метр).

2. 안톤 루빈시테인(1829~1894) — 당대 유럽에서 이름을 떨치던 러시아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세운 사람이다.

3. 세 마리 물고기 — 땅이 물 위에 뜬 세 마리 물고기(또는 고래) 위에 얹혀 있다는 옛 러시아 민간의 우주관. 「흔들리지 않는 바탕」을 가리키는 속담처럼 쓰였다.

3부 2장

라주미힌은 이튿날 아침 일곱 시가 넘어 심란하고 심각한 얼굴로 깨어났다. 그는 새롭고 뜻하지 않은 난감함이 한꺼번에 제 앞에 닥쳐 있는 것을 보았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기분으로 눈을 뜨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전날의 일을 낱낱이 기억했고, 제게 아주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태 알던 그 무엇과도 다른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제 상상에 불을 지른 그 꿈이 가망 없이 닿을 수 없는 것임을 똑똑히 깨달았으니 — 어찌나 닿을 수 없던지 그는 그 꿈이 정말로 부끄러웠고, 그래서 저 「세 번 저주받을 어제」가 제게 물려준 다른 실질적인 걱정과 난처함 쪽으로 서둘러 옮겨 갔다.

전날 일 가운데 가장 끔찍한 기억은 제가 「비열하고 치사하게」 굴었다는 것이었다. 취해 있었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며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면서, 어리석은 질투에 사로잡혀 젊은 처녀의 처지를 틈타 그 약혼자를 헐뜯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성급하고 조심성 없이 남을 평한단 말인가? 누가 그의 의견을 청했단 말인가?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같은 사람이 돈 때문에 보잘것없는 사내와 혼인하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언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숙? 하지만 결국 그가 그 하숙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 사람은 살림집을 손보고 있는 중이라지

않는가…… 원! 죄다 얼마나 치사한 짓인가! 그리고 취해 있었다는 것이 무슨 변명이 되는가? 그런 어리석은 핑계는 더욱 꼴사나울 뿐이다! 술에는 진실이 있다더니 진실이 죄다 튀어나온 것이다, 「곧 그 거칠고 시기심 많은 마음의 더러운 것이 죄다」! 그리고 그, 라주미힌에게 그런 꿈이 도대체 허락될 법이나 한가? 그런 처녀 앞에서 그는 무엇인가 — 어젯밤의 그 취하고 시끄러운 허풍선이가? 그토록 터무니없고 뻔뻔한 짝지음을 상상할 수나 있는가? 라주미힌은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새빨개졌고, 그러다 별안간 어젯밤 층계에서 집주인 여자가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질투할 것이라고 지껄인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것만은 도무지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부엌의 페치카에 주먹을 내리쳐 손을 다쳤고 벽돌 한 장을 튀어 나가게 했다.

「 물론이지. 」 잠시 뒤에 그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심정으로 중얼거렸다. 「물론 이 파렴치한 짓들은 씻어 낼 수도 없고 덮어 버릴 수도 없다…… 그러니 생각해 봐야 소용없는 노릇이고, 나는 말없이 그분들에게 가서 내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것도 말없이…… 용서를 빌지도 말고 아무 말도 말고…… 이제 다 잃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옷을 입으며 여느 때보다 제 차림새를 꼼꼼히 살폈다. 다른 옷은 없었다 — 있었다 한들 아마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일부러 안 입었을 거다.」 그러나 어쨌든 냉소가에 더러운 칠칠이로 남아 있을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남의 마음을, 더구나 제 도움을 필요로 하여 와 달라고 청한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권리가 없었다. 그는 옷을 꼼꼼히 솔질했다. 속옷만은 언제나 말끔했다. 그 점에서 그는 유난히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날 아침 그는 정성스레 몸을 씻었다 — 나스타시야에게서 비누를 얻었다 — 머리를 감고 목을 씻고 특히 손을 씻었다. 까칠하게 자란 턱수염을 밀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프라스코비야

파블로브나에게는 죽은 남편이 남긴 훌륭한 면도칼이 있었다) 성난 목소리로 아니라는 답이 나왔다. 「그냥 두자! 무슨 속셈이 있어 일부러 면도를 했다고 생각하면 어쩌자고……?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거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약한 것은 그가 너무 거칠고 너무 더럽고 술집 사람 같은 몸가짐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얼마쯤은 점잖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치더라도…… 점잖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자랑거리란 말인가? 사람은 누구나 점잖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그는 떠올렸다) 그 역시 자잘한 짓들을 한 적이 있다…… 딱히 정직하지 못한 짓은 아니라 해도, 그래도……. 그리고 그가 이따금 품은 생각들이라니, 흠…… 그 모든 것을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곁에 놓아 본다면! 빌어먹을! 될 대로 되라지! 그래, 그렇다면 작정하고 더럽게, 기름때가 끼게, 술집 사람 같은 몸가짐으로 지낼 테고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 더 고약해지겠다!」

그가 이런 혼잣말에 빠져 있을 때, 프라스코비야 파블로브나의 거실에서 밤을 지낸 조시모프가 들어왔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전에 서둘러 환자를 들여다보려던 참이었다. 라주미힌은 라스콜니코프가 겨울잠쥐처럼 자고 있다고 알렸다. 조시모프는 깨우지 말라고 이르고 열 시 넘어 다시 오겠노라고 했다.

「저 친구가 그때까지 집에 있다면 말이지만.」 그가 덧붙였다. 「빌어먹을! 제 환자를 손안에 두지 못한다면 무슨 수로 고친단 말인가? 저 친구가 그쪽으로 갈지, 그쪽에서 이리로 올지 자네 아나?」

「오시는 것 같네.」 라주미힌이 그 물음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말했다. 「그리고 집안일을 의논하겠지, 틀림없이. 나는 자리를 뜨겠네.

자네야 의사니까 나보다는 여기 있을 권리가 있고.」

「나는 고해 신부가 아니야. 왔다가 가면 그만이고, 그 사람들 뒤를 봐주는 것 말고도 할 일이 많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라주미힌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끼어들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저 친구한테 취해서 허튼소리를 잔뜩 늘어놨는데…… 온갖 이야기를 다 했어…… 그중에 자네가 저 친구더러…… 실성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더라는 이야기도 있었네.」

「그 부인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지.」

「멍청한 짓이었다는 건 나도 알아! 때리고 싶으면 때리게! 자네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했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이지, 내가 어떻게 그걸 진지하게 생각했겠나? 나를 저 친구한테 데려올 때 저 친구를 편집광이라고 일러준 건 자네 자신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어제 거기에 기름을 부었지, 그러니까 자네가 그 도장공 이야기를 꺼내서 말이야. 참 훌륭한 이야깃거리였지, 어쩌면 저 친구가 바로 그 대목에서 미쳐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못된 자가…… 저 친구한테 그런 혐의를 씌워 모욕을 주었다는 걸 내가 알기만 했더라면! 흠…… 어제 그런 이야기가 오가게 두지 않았을 걸세. 이런 편집광들은 티끌만 한 것으로 산을 쌓고…… 제 공상을 단단한 현실로 보거든……. 내 기억으로는 그 수수께끼의 절반을 풀어 준 게 자묘토프의 이야기였네. 이보게, 나는 마흔 난 심기증 환자가 여덟 살짜리 사내아이의 목을 벤 경우를 알고 있어, 그 아이가 날마다 식탁에서 하는 농담을 견딜 수 없어서 말이야! 그런데 이 경우에는 누더기에, 무례한 경찰관에, 막 시작되던 병에, 그리고 이 혐의까지 겹쳤네! 그 모든 것이 심기증으로 반쯤 제정신이 아닌 데다 병적으로 유난한 자존심까지 가진 사람에게 작용한 거야! 그것이 병의 출발점이

되었을 만도 하지. 아무튼 다 집어치우고!…… 그런데 말이야, 그 자묘토프라는 자는 분명 괜찮은 친구이긴 한데, 흠…… 어젯밤에 그 이야기를 죄다 늘어놓지는 말았어야지. 입이 여간 가벼운 게 아니야!」

「그런데 그자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나? 자네하고 나한테?」

「포르피리한테도.」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건 그렇고, 자네 그 사람들한테, 저 친구 어머니하고 누이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나? 오늘은 저 친구를 좀 더 조심해서 대하라고 일러 주게…….」

「알아서들 잘하실 걸세!」 라주미힌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저 친구는 왜 그 루쥔이라는 사람한테 저렇게 뻗대는 건가? 돈이 있는 사람이고 아가씨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리고 그 집에는 파딩[1] 한 닢 없는 모양이지, 안 그런가?」

「그게 자네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주미힌이 성이 나서 외쳤다. 「그 집에 파딩 한 닢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 자네가 직접 물어보게, 그러면 알게 될지도 모르지…….」

「원, 자네는 어떤 때는 어지간한 멍청이로군! 어젯밤 술이 아직 안 깼어……. 잘 있게. 자네의 그 프라스코비야 파블로브나한테 하룻밤 재워 준 것 고맙다고 전해 주게. 문을 잠그고 들어앉아서, 내가 문 너머로 건넨 bonjour[2]에는 대꾸도 없더군. 일곱 시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사모바르를 들여가게 하더니, 나한테 직접 얼굴을 보여 주는 은혜는 베풀지 않았네…….」

아홉 시 정각에 라주미힌은 바칼레예프의 집에 있는 하숙에 이르렀다. 두 부인은 벌써부터 신경질적인 조바심을 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일곱 시나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 있었다. 그는 한밤중처럼

어두운 얼굴로 들어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그런 제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는 헛짚고 있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그에게 달려들다시피 하여 두 손을 잡고 하마터면 입을 맞출 뻔한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흘끗 보았는데, 그 도도한 얼굴에는 그 순간 어찌나 큰 감사와 다정함이, 어찌나 온전하고 뜻밖의 존중이 어려 있던지(그가 각오하고 있던 비웃는 눈길과 감추지 못한 멸시 대신에), 차라리 욕을 먹었더라면 덜했을 만큼 그는 더 큰 당혹에 빠졌다. 다행히 이야깃거리가 있었고, 그는 서둘러 그것을 붙들었다.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있으며 로쟈가 아직 깨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다고, 「미리 꼭, 꼭 의논해 두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차에 관한 물음과 함께 같이 들자는 청이 있었다. 그들은 그와 같이 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종을 울렸다. 누더기를 걸친 더러운 사환이 대답하러 왔고, 그들은 차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차는 마침내 나왔으나 어찌나 더럽고 지저분하게 차려져 나왔는지 두 부인이 부끄러워할 지경이었다. 라주미힌은 이 하숙을 호되게 몰아세우려다가 루쥔이 떠올라 겸연쩍게 입을 다물었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의 물음 덕분에 크게 한숨을 돌렸다.

그는 그들의 물음에 연방 말이 끊기면서 사십오 분 동안 이야기했고, 라스콜니코프의 지난 한 해에 관하여 제가 아는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죄다 들려주는 데 성공했으며, 그의 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은 많이 빼놓았으니,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과 그 모든 여파도 거기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고, 그가 이만하면 다 이야기했고 듣는 이들도 흡족했으리라고 여겼을 때, 그들에게는 그가 겨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실례했어요, 아직 존함도 여쭙지 못했군요!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드미트리 프로코피치입니다.」

「정말, 정말 알고 싶어요,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그 애가 요즈음 세상일을 대체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요? 늘 저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그 애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말하자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일러 주세요. 지금 무엇의 영향 아래 있나요? 한마디로 저는 알고 싶은 것이……」

「어머니, 저분이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대답하시겠어요.」 두냐가 말했다.

「 맙소사, 그 애가 이런 모습일 줄은 조금도 생각지 못했어요,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 그야 그러시겠지요. 」 라주미힌이 대답했다. 「 저는 어머니가 없습니다만 삼촌이 해마다 오는데, 그 양반은 영리한 사람인데도 거의 올 때마다 겉모습조차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삼 년을 떨어져 계셨으니 그것이 어디 작은 일이겠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는 로지온을 한 해 반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뚱하고 음울하고 자존심이 세고 오만하며, 근자에는 — 어쩌면 훨씬 전부터 — 의심이 많고 심기증이 있습니다. 그는 고결한 천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감정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속을 털어놓느니 차라리 모진 짓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심기증 기미라고는 전혀 없이 그저 차갑고 사람 같지 않게 무디기만 합니다. 마치 두 가지 성격을 번갈아 오가는 것 같지요. 어떤 때는 무섭도록 입을 닫습니다! 너무 바빠서 무엇이든 방해가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리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비웃는 법이 없는데, 재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하찮은 일에 쓸 시간이 없다는 투입니다. 남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남들이 열을 올리는 일에는 결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는 제 자신을 아주 높이 치는데, 어쩌면 그가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두 분이 오신 것이 그에게 더없이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라주미힌이 들려준 제 로쟈 이야기에 마음이 아파 외쳤다.

그리고 라주미힌은 마침내 좀 더 대담하게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바라볼 용기를 냈다.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그는 자주 그녀를 흘끗거렸으나 한순간뿐이었고 곧바로 눈을 돌리곤 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탁자 앞에 앉아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일어나 버릇대로 팔짱을 끼고 입술을 꼭 다문 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오락가락하기 시작했고, 이따금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물음을 하나씩 끼워 넣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도 남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버릇이 똑같이 있었다. 그녀는 얇고 짙은 천으로 지은 옷을 입고 목에는 하얀 비치는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라주미힌은 그들의 세간에서 지독한 가난의 자취를 이내 알아보았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여왕처럼 차려입고 있었더라면 그는 그녀가 두렵지 않았으리라고 느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녀가 초라하게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의 온갖 궁색함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제가 내뱉는 말 하나, 제가 하는 몸짓 하나가 죄다 겁나기 시작했으니, 이는 그러잖아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하던 사람에게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제 오라버니의 성격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우치지 않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기뻐요.

저는 선생님이 오라버니한테 너무 무비판적으로 빠져 계신 줄 알았거든요. 」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미소를 띠고 말했다. 「 오라버니한테 여자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덧붙였다.

「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옳으신 말씀일 겁니다, 다만……」

「다만 뭐죠?」

「 그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어쩌면 앞으로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라주미힌이 잘라 말했다.

「사랑할 줄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당신은 오라버니를 지독히도 닮았습니다, 정말이지 무엇에서나요!」 그가 제 자신도 놀랄 만큼 불쑥 내뱉고는, 바로 앞에서 그 오라버니를 두고 한 말이 떠올라 가재처럼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그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 두 사람 다 로쟈를 잘못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조금 마음이 상하여 말했다. 「지금 당장의 이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두냐야.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이 편지에 쓴 것이나 너와 내가 짐작한 것이 틀렸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그 애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말하자면 제멋대로인지는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 애가 겨우 열다섯이었을 때도 나는 그 애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애는 아무도 생각해 내지 못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해요…… 이를테면, 한 해 반쯤 전에 그 애가 그 처녀하고, 그 애가 이름이 뭐였더라, 주인집 딸하고 혼인하겠다고 나섰을 때 나를 얼마나 놀라게

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하마터면 나를 죽일 뻔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일을 자세히 아세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물었다.

「생각해 보세요 —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열을 올려 말을 이었다. 「내 눈물이, 내 애원이, 내 병이, 내가 슬픔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가난이 그 애를 멈춰 세웠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애는 태연히 모든 장애를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 설마 그 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일에 대해서는 그가 저한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주미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프라스코비야 파블로브나 본인한테서 무언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이가 결코 수다스러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제가 들은 것은 확실히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나요?」 두 부인이 한꺼번에 물었다.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저 다 정해져 있었는데 처녀가 죽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한 그 혼인을 프라스코비야 파블로브나가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 처녀가 예쁘지도 않았다는 말도 있고, 사실 아주 못생겼다고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병약했고…… 그리고 별났고요. 하지만 좋은 점이 얼마쯤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좋은 점이 얼마쯤은 있었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돈도 없었고 그가 돈을 따졌을 리도 없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야 언제나 판단하기 어려운 법이지요.」

「좋은 처녀였을 거예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짤막하게 말했다.

「하느님 용서하소서, 나는 그 애가 죽었을 때 그저 기뻤어요. 하기야 둘 중에 누가 누구를 망쳤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애가 그 처녀를 망쳤을지 그 처녀가 그 애를 망쳤을지.」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말을 맺었다. 그러고는 전날 루쥔과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캐묻기 시작했는데, 머뭇거리면서 연방 두냐를 흘끗거렸고 그것이 딸에게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일이 그녀를 불안하게, 아니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라주미힌은 그 일을 다시 자세히 들려주었으나 이번에는 제 나름의 판단을 덧붙였다. 그는 라스콜니코프가 일부러 표트르 페트로비치를 모욕했다고 드러내 놓고 나무랐고, 병을 핑계로 그를 감싸려 하지 않았다.

「병이 나기 전에 벌써 작정해 둔 일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풀 죽은 얼굴로 맞장구쳤다. 그러나 라주미힌이 표트르 페트로비치에 대하여 그토록 조심스럽게, 게다가 어느 정도의 존중까지 담아 말하는 것에 그녀는 몹시 놀랐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도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 표트르 페트로비치를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끝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 따님의 장래 남편이 되실 분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 라주미힌이 단호하고도 열을 담아 대답했다. 「 그리고 이것은 그저 겉치레 예의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께서 스스로 원하여 그분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저 그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분을 그토록 함부로 말한 것은 제가 역겹도록 취해 있었고…… 게다가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쳐 있었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머리가 완전히 돌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입을 다물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도 얼굴을 붉혔으나 침묵을 깨지는 않았다. 그녀는 루쥔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딸의 거들어 줌이 없자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침내 그녀는 더듬더듬, 연방 딸을 흘끗거리며, 한 가지 일이 몹시 마음에 걸린다고 털어놓았다.

「저,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드미트리 프로코피치께 다 털어놓아도 되겠니, 두냐야?」

「그럼요, 어머니.」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힘주어 말했다.

「이런 일이에요.」 근심거리를 이야기해도 좋다는 허락이 마음의 짐을 덜어 주기라도 한 듯 그녀가 서둘러 말을 꺼냈다. 「오늘 아침 아주 일찍 표트르 페트로비치한테서 쪽지가 왔어요, 우리가 도착한다고 알린 편지에 대한 답으로요. 아시다시피 그이는 정거장으로 마중 나오겠다고 약속했었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인을 보내 이 하숙 주소를 알려 주고 길을 안내하게 했고, 아침에 본인이 직접 오겠다는 말을 전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쪽지가 온 거예요. 직접 읽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거기에 저를 몹시 마음 쓰이게 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곧 그게 무엇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로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그 누구보다 좋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두냐는, 말씀드리자면, 대번에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주미힌은 전날 날짜가 적힌 그 쪽지를 펼쳤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친애하는 부인,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 귀하. 본인은 예기치 못한 지장으로 말미암아 철도 정거장에서 귀하를 영접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는 영광을 누리며, 같은 목적으로 대단히 유능한 사람을 보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지체를 허락하지 않는 원로원[3]의 용무로 인하여, 아울러 귀하께서 아드님을,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께서 오라버니를 만나시는 그 가족의 자리에 끼어들지 않기 위하여, 내일 오전에 귀하를 뵙는 영광 또한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다름 아닌 내일 저녁 여덟 시 정각에 귀하의 숙소로 찾아뵙고 문안 올리는 영광을 누리고자 하며, 이에 덧붙여 간곡한, 본인이 감히 덧붙이건대 불가결한 청을 올리는 바, 곧 우리의 면담 자리에 로지온 로마노비치가 동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어제 본인이 병중의 그를 방문하였을 때 그가 본인에게 심히 무례하고 전례 없는 모욕을 가하였기 때문이며, 더욱이 본인은 어떤 점에 관하여 귀하께 불가결하고도 상세한 해명을 직접 청하고자 하며 그에 대한 귀하 자신의 해석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려 드리는 영광을 누리거니와, 본인의 청에도 불구하고 로지온 로마노비치와 마주치게 된다면 본인은 즉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때는 귀하께서 스스로를 탓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쓰는 것은, 본인이 방문하였을 때 그토록 앓는 것으로 보이던 로지온 로마노비치가 두 시간 뒤에 별안간 회복되었으니, 집 밖으로 나설 수 있는 이상 귀하를 찾아갈 수도 있으리라는 전제에서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확신을 얻은 것은, 마차에 치여 그 뒤에 사망한 어느 주정뱅이의 셋집에서 본인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 바에 의거합니다. 그는 그 집 딸, 곧 행실이 좋지 못하기로 이름난 젊은 여자에게 장례 비용이라는 구실로 이십오 루블이나 내주었으며, 귀하께서 그 액수를 마련하시느라 어떠한 수고를 감내하셨는지 알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이에 심히 놀랐습니다. 이로써 귀하의 훌륭하신 따님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께 각별한 경의를 표하며, 삼가 정중한 인사를 받아 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미천한 종,」

「표. 루쥔.」

「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로쟈더러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어제 그 애는 표트르 페트로비치를 물리치라고 그토록 간곡히 우겼는데, 이제 우리는 로쟈를 맞아들이지 말라는 분부를 받은 거예요! 그 애가 알게 되면 일부러라도 올 텐데,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주미힌이 곧바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이를 어째요! 저 애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노리는지 설명을 안 하니까요! 저 애 말이, 그게 가장 좋겠다고, 아니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로쟈가 반드시 여덟 시에 여기 와 있어야 하고 둘이 꼭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애한테 편지를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무슨 꾀를 써서라도 선생님 도움으로 못 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 애가 워낙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 죽었다는 주정뱅이며 그 딸이며, 그리고 그 애가 어떻게 그 딸한테 마지막 남은 돈을 죄다 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돈이……」

「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해서 마련하신 돈이지요. 」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끼어들었다.

「어제는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라주미힌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 어제 그가 음식점에서 무슨 말을 늘어놓았는지 아시기만 한다면, 하기야 영리한 말이기는 했습니다만……. 흠! 어제저녁 집으로 오는 길에 죽은 사람과 어떤 처녀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젯밤에는 저 자신도……」

「어머니, 우리가 직접 그리로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가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자리에서 알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게다가 늦었어요 — 어머나, 열 시가 넘었네.」 그녀가 가느다란 베네치아 사슬에 꿰어 목에 건 훌륭한 에나멜 금시계를 보며 외쳤는데, 그것은 나머지 차림새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 약혼자가 준 선물이군. 」 라주미힌은 생각했다.

「 가야겠다, 두냐야, 가야겠어. 」 어머니가 허둥지둥 외쳤다. 「이렇게 늦게 가면 그 애는 우리가 어제 일로 아직 골이 나 있는 줄 알 거다. 맙소사!」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서둘러 모자와 망토를 걸쳤다. 두냐도 채비를 했다. 라주미힌이 보기에 그녀의 장갑은 낡았을 뿐 아니라 구멍까지 나 있었는데, 그 뻔한 가난이 도리어 두 부인에게 각별한 기품을 주었으니, 가난한 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있는 기품이었다. 라주미힌은 두냐를 경건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녀를 모시고 가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 감옥에서 제 양말을 기웠다는 그 왕비도. 」 그는 생각했다. 「그때야말로 어느 모로 보나 왕비였을 테고, 성대한 잔치와 접견에서보다 더욱 왕비였을 것이다.」

「 맙소사!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내 아들을, 내 귀하고 귀한 로쟈를 만나는 일이 두려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무서워요,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를 흘끗 보며 덧붙였다.

「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 두냐가 어머니에게 입 맞추며 말했다. 「그보다 오라버니를 믿으세요.」

「아아, 믿는다마는, 밤새 한숨도 못 잤구나.」 가엾은 부인이 외쳤다.

그들은 거리로 나섰다.

「그런데 말이다, 두냐야, 오늘 아침에 잠깐 눈을 붙였을 때 마르파 페트로브나 꿈을 꾸었다…… 온통 하얀 옷을 입고…… 나한테 다가와서 손을 잡고는 고개를 저었는데, 어찌나 엄하던지 나를 나무라는 것 같더구나……. 그게 좋은 징조일까? 아이고 이를 어쩌나!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돌아가신 것을 모르시지요!」

「몰랐습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누구십니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글쎄……」

「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세요, 어머니. 」 두냐가 끼어들었다. 「이분은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아, 모르셨군요? 나는 선생님이 우리 일을 죄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용서하세요,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요 며칠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로 선생님을 우리에게 내려진 섭리로 여기고 있어서, 우리 일을 죄다 아시려니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선생님을 친척처럼 여기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 노여워하지 마세요. 어머나, 오른손이 왜 그러세요? 어디 부딪치셨어요?」

「예, 좀 멍이 들었습니다.」 라주미힌이 기쁨에 겨워 중얼거렸다.

「나는 이따금 마음에 있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두냐한테 꾸중을 듣는답니다……. 그런데 어머나, 그 애가 사는 곳이 무슨 벽장 같군요! 깼는지 모르겠네. 이 여자가, 그 집주인이 이걸 방이라고 여긴답니까? 그런데 그 애가 제 감정을 드러내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내가 이…… 이런 약한 모습으로 그 애를 성가시게 할까요? 좀 일러 주세요,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그 애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 이맛살을 찌푸리거든 무엇이든 너무 캐묻지 마십시오. 몸이 어떠냐고 너무 묻지도 마시고요. 그런 걸 싫어합니다.」

「아아,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어미 노릇이 어찌 이리 어려울까요! 그런데 여기가 층계로군요……. 무슨 층계가 이렇게 끔찍한지!」

「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요, 진정하세요, 우리 어머니.」 두냐가 어머니를 어루만지며 말하고는, 두 눈을 번득이며 덧붙였다. 「오라버니는 어머니를 뵈면 기뻐해야 마땅한데, 어머니는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시잖아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들여다보고 깼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두 부인은 앞서 가는 라주미힌을 천천히 뒤따랐고, 4층 집주인 여자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고 그 안의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검은 두 눈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이 마주치자 문이 별안간 쾅 닫혔고,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

1. 파딩(farthing) — 4분의 1페니에 해당하는 영국의 최저액 동전. 저본의 역자 가넷이 러시아 화폐 코페이카를 영국 동전으로 바꾸어 옮긴 자리이며, 이 책에서는 루블·코페이카와 뒤섞여 쓰인다.

2. bonjour — 프랑스어로 「안녕하십니까」. 저본은 프랑스어 철자를 그대로 두었다.

3. 원로원 — 제정 러시아의 최고 사법·행정 기관으로 19세기에는 사실상 최고 상소법원 구실을 했다. 루쥔이 내세우는 「원로원의 용무」는 그가 최고심에 걸린 사건을 맡고 있다는 뜻이다.

3부 3장

「 다 나았습니다, 아주 멀쩡합니다! 」 그들이 들어서자 조시모프가 쾌활하게 외쳤다.

그는 십 분 전에 와서 전과 같은 자리, 소파에 앉아 있었고, 라스콜니코프는 맞은편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옷을 다 갖춰 입었고 얼마 전부터는 없던 일이거니와 몸도 정성껏 씻고 머리도 빗은 차림이었다. 방은 이내 빽빽해졌으나 그래도 나스타시야가 손님들 뒤를 따라 들어와 이야기를 들으려고 남아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전날의 상태에 견주면 정말로 거의 다 나은 셈이었으나 여전히 몹시 창백하고 넋이 나가 있고 침울했으며, 부상당한 사람이나 무슨 심한 육체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눈썹은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으며 두 눈은 열에 들떠 있었고, 그는 말을 적게, 그것도 마지못해, 마치 무슨 의무를 치르기라도 하는 듯이 했으며, 그 동작에는 이따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기색이 비쳤다.

손가락이 몹시 곪았거나 팔을 다친 사람과 꼭 같아 보이는 데에는 팔에 두른 붕대나 손가락에 씌운 호박단 덮개 하나면 족했을 것이다. 창백하고 침울한 얼굴은 어머니와 누이가 들어섰을 때 잠깐 환해졌으나, 그것은 다만 아까의 울적하게 넋 나간 빛 대신에 한결 응축된 고통의 빛을 그 얼굴에 얹어 놓았을 뿐이었다. 빛은 이내 스러졌으나 고통의 빛은 남았고, 이제 막 개업한 젊은 의사의 온갖 열의로 제 환자를

지켜보며 뜯어보던 조시모프는 어머니와 누이가 온 것을 두고 그에게 아무 기쁨도 없다는 것을, 다만 피할 수 없는 한두 시간의 고문을 더 견뎌 내겠다는 쓰디쓰고 감추어진 결의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나중에, 뒤이어 오간 이야기의 거의 모든 낱말이 어딘가 아픈 자리를 건드려 그것을 덧나게 하는 듯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바로 전날 편집광처럼 사소한 한마디에도 광란에 빠졌던 환자가 스스로를 다잡고 제 감정을 감추는 그 힘에 놀랐다.

「 네, 저도 이제 제가 거의 다 나았다는 걸 알겠어요. 」 라스콜니코프가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와 누이에게 맞이하는 입맞춤을 했고, 그것만으로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의 얼굴이 이내 환해졌다. 「그리고 이건 어제처럼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는 라주미힌을 향해 그렇게 말하며 다정하게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 사람이 아주 놀랍습니다.」 조시모프가 입을 열었는데, 그는 숙녀들이 들어선 것이 몹시 반가웠으니 제 환자와 십 분도 이야기를 이어 가지 못한 터였다. 「앞으로 사나흘만 이대로 가면 예전과 똑같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이나 두 달…… 어쩌면 석 달 전과 똑같아진다는 말씀이지요. 이건 오래전부터 쌓여 온 것이니까요……. 응? 자, 이실직고해 보게, 어쩌면 자네 자신의 탓이 아니었나? 」 그는 여전히 그를 자극할까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러운 웃음을 띠고 덧붙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라스콜니코프가 차갑게 대답했다.

「내 말도 그렇네만」 조시모프가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자네가 온전히 낫고 못 낫고는 오로지 자네 자신에게 달려 있네. 이제 자네와 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한 가지 새겨 두게 하고 싶은데, 자네의 병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기본적인, 말하자면 근본적인 원인들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것일세. 그렇게만 하면 자네는 나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갈수록 더 나빠질 걸세.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네만 자네는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네. 자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물론 제 자신을 살펴보았을 테지. 내 짐작으로는 자네의 병이 시작된 것이 얼마쯤은 대학을 그만둔 때와 겹치는 듯하네. 자네는 할 일 없이 지내서는 안 되고, 그러니 일거리와 눈앞에 놓인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내 짐작에 아주 이로울 걸세.」

「 네, 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서둘러 대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굴러가겠지요…….」

얼마간은 숙녀들 앞에서 효과를 내려고 그 현명한 충고를 시작했던 조시모프는, 제 환자를 흘끗 보았다가 그 얼굴에서 틀림없는 조롱을 알아보고는 분명 얼마쯤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곧바로 조시모프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전날 밤 그들의 숙소를 찾아 주었던 일에 대해서였다.

「뭐라고요! 어젯밤에 두 분을 찾아뵈었다고요?」 라스콜니코프가 흠칫 놀란 듯이 물었다. 「 그럼 두 분도 먼 길 끝에 잠을 못 주무셨겠네요.」

「 아이고, 로쟈야, 그거야 두 시까지였을 뿐이다. 나하고 두냐는 집에서도 두 시 전에는 자리에 드는 법이 없단다.」

「 저도 저분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라스콜니코프는 갑자기 이마를 찌푸리고 눈을 내리깐 채 말을 이었다. 「 치료비 문제는 제쳐 두고 — 그것을 입에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그는 조시모프 쪽으로 돌아앉았다) — 제가 무슨 일을 했기에 선생한테서 이토록 각별한 마음을 받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또…… 이해가 안 되니 정말이지 그것이 저를 짓누릅니다. 이렇게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짜증 내지 말게.」 조시모프가 억지로 웃어 보였다. 「자네가 내 첫 환자라고 치세 — 자, 우리같이 이제 막 개업을 한 자들은 첫 환자를 제 자식처럼 사랑하고, 더러는 거의 사랑에 빠지다시피 한다네. 그리고 물론 나는 환자가 많은 편도 아니고.」

「저 친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라주미힌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나한테서 모욕과 성가신 일 말고는 받은 게 없는데도 말이지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야, 너 오늘 감상에 젖었구나, 그렇지?」 라주미힌이 소리쳤다.

그에게 좀 더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그 속에 감상이라고는 자취도 없고 오히려 정말이지 그와 정반대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나,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그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오라비를 골똘하고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한테는 저는 감히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그는 아침부터 외워 둔 학과를 되뇌기라도 하듯 말을 이었다. 「어제 여기서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태우셨을지, 오늘에야 겨우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별안간 누이에게 손을 내밀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꾸밈없는 진짜 감정의 번득임이 있었다. 두냐는 곧바로 제게 내민 손을 붙잡아 벅찬 기쁨과 고마움으로 뜨겁게 쥐었으니, 전날의 다툼 이후 그가 누이에게 말을 건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말없이 이루어진 이 결정적인 화해를 보고 어머니의 얼굴은 황홀한 행복으로 환해졌다. 「그래, 내가 저 녀석을 좋아하는 게 바로 저런 거지.」 라주미힌은 모든 것을 부풀려 받아들이며 의자에서 힘차게 몸을 돌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녀석한테는 저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야.」

「저 애는 저런 것을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이 우러나는지, 그리고 누이와의 그 모든 오해를 얼마나 간단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끝내 버렸는지 — 그저 알맞은 때에 손을 내밀고 저렇게 바라보아 주는 것만으로……. 게다가 눈은 또 얼마나 고운지, 얼굴 전체가 얼마나 고운지!…… 두냐보다도 더 잘생겼어……. 그런데 맙소사, 저 옷이 뭐람 — 옷차림이 저렇게 형편없다니!…… 아파나시 이바니치네 가게 심부름꾼 바샤가 저보다는 낫겠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저 애를 붙들고 울고 싶은데 — 무섭구나……. 아이고, 저 애는 어쩌면 저리 낯설까! 다정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나는 무섭구나! 아니, 내가 무엇이 무섭다는 걸까?……」

「아아, 로쟈야, 너는 믿지 못할 거다.」 그녀는 제게 건넨 그 말에 서둘러 답하려고 별안간 입을 열었다. 「어제 나하고 두냐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이제 다 지나가고 끝나서 우리가 다시 아주 행복해졌으니 —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렴, 우리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거의 곧장 이리로 달려와 너를 끌어안으려 했는데 저 사람이 — 아, 여기 있구나! 안녕, 나스타시야!…… 저 사람이 대뜸 우리한테 말하기를, 네가 높은 열로 누워 있다가 헛소리를 하며 의사한테서 막 달아났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너를 찾고 있다는 거야. 우리 심정이 어땠을지 너는 짐작도 못 할 게다! 나는 네 아버지의 벗이던 포탄치코프 중위의 비참한 최후가 자꾸 떠올랐다 — 너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겠지, 로쟈야 — 그분도 똑같이 높은 열에 뛰쳐나갔다가 안뜰 우물에 빠졌는데 이튿날에야 겨우 건져 냈지 않니. 물론 우리가 일을 부풀려 생각한 거겠지. 우리는 표트르 페트로비치한테 달려가 도와 달라고 할 참이었다……. 우리 둘뿐이었으니까, 아주 외따로 우리 둘뿐이었으니까.」 그녀는 애처롭게 그렇게 말하다가 별안간 뚝 그쳤으니, 「우리가 다시 아주 행복해졌」

는데도 표트르 페트로비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 얼마쯤 위험하다는 것이 문득 떠올랐던 것이다.

「네, 네……. 물론 아주 난처한 일이지요…….」 라스콜니코프가 대답으로 중얼거렸으나, 그 태도가 어찌나 딴 데 정신이 팔려 있고 건성이었던지 두냐가 어리둥절하여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아, 그렇지, 어머니, 그리고 두냐 너도, 제가 오늘 두 분을 찾아뵐 마음이 없어서 먼저 와 주시기를 기다린 거라고는 부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로쟈야?」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그녀 또한 놀랐던 것이다.

「오라버니는 의무로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는 걸까?」 두냐는 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예식을 치르듯, 외운 것을 되뇌듯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 걸까?」

「 저는 방금 잠에서 깼고 두 분께 가려고 했는데 옷 때문에 늦어졌어요. 어제 저 사람한테…… 나스타시야한테…… 피를 씻어 내달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이제 막 옷을 입었어요.」

「피라니! 무슨 피?」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놀라서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얼마쯤 헛소리를 하며 돌아다니다가 마차에 치인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관리였는데……」

「헛소리를 했다고? 그런데 너는 다 기억하잖아!」 라주미힌이 말을 가로챘다.

「그건 맞아.」 라스콜니코프가 각별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죄다 기억해, 그런데도 — 내가 왜 그런 짓을 했고 왜 거기에 갔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지금 또렷이 설명할 수가 없어.」

「흔히 있는 현상입니다.」 조시모프가 끼어들었다. 「행동 자체는 더러 아주 능숙하고 더없이 교묘하게 이루어지는데, 행동을 다스리는 것, 행동의 발단은 흐트러져 있어서 온갖 병적인 인상에 휘둘리지요 — 꿈과 같은 겁니다.」

「저자가 나를 거의 미친 사람으로 여긴다면 어쩌면 그게 정말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주 건강한 사람도 똑같이 행동하는걸요.」 두냐가 불안한 눈으로 조시모프를 보며 말했다.

「지적하신 데에 얼마쯤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런 뜻에서라면 우리는 분명 누구나 드물지 않게 미친 사람 같습니다만, 다만 「환자」들이 우리보다 얼마쯤 더 미쳐 있다는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인데, 우리로서는 어디엔가 선을 그어야 하니까요. 조화로운 사람이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수만 명에 — 어쩌면 수십만 명에 —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고, 그것도 꽤 시원찮은 표본이지요……」

조시모프가 제가 좋아하는 화제를 늘어놓다가 무심코 떨어뜨린 「미친 사람」이라는 낱말에 모두가 이마를 찌푸렸다.

라스콜니코프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이 앉아 창백한 입술에 기이한 미소를 띤 채 생각에 잠겨 있었으니,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속으로 곰곰이 짚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차에 치였다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네 말을 잘랐잖아!」 라주미힌이 서둘러 외쳤다.

「뭐?」 라스콜니코프가 잠에서 깨어난 듯했다. 「아…… 그 사람을 집까지 옮기는 걸 돕다가 피가 튀었어. 그런데 엄마, 저 어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보내 주신 돈을 몽땅 줘 버렸어요…… 그 사람 아내한테 장례에 쓰라고요. 그 여자는 이제

과부인데 폐병을 앓고 있고 가엾은 사람이에요…… 어린것이 셋인데 굶고 있고……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딸도 하나 있고요…… 어머니도 그 사람들을 보셨다면 아마 손수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 그럴 권리가 없었다는 건 인정해요, 더구나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을 도우려면 그럴 권리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Crevez, chiens, si vous n'êtes pas contents.[1]」 그는 웃었다. 「그렇지 않니, 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흥! 너도…… 작정한 게 있구나!」 그는 거의 증오에 가까운 눈으로 누이를 보며 비웃는 미소를 띠고 중얼거렸다. 「 그걸 헤아렸어야 했는데……. 뭐, 그건 칭찬할 만한 일이고 너한테도 그편이 낫지…… 그리고 너는 어떤 선(線)에 이를 텐데,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불행해질 테고…… 넘으면 어쩌면 더 불행해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다 부질없는 소리야. 」 그는 스스로 말에 휩쓸린 것이 못마땅해져 짜증스럽게 덧붙였다. 「 어머니께 용서를 빈다는 말씀을 드리려던 것뿐이에요.」 그는 짧고 퉁명스럽게 말을 맺었다.

「그만하면 됐다, 로쟈야. 네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옳다고 나는 믿는다.」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는 입을 비틀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침묵이 뒤따랐다. 이 대화 전체에도, 그 침묵에도, 그 화해에도, 그 용서에도 어딘가 거북한 데가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군.」 라스콜니코프는 어머니와 누이를 곁눈질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곁에 없을 때는 내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데 로쟈야,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죽은 것을 아니?」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별안간 불쑥 말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라니, 누구요?」

「아이고, 맙소사 — 마르파 페트로브나 스비드리가일로바 말이다.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편지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아-! 그래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아, 정말요?」 그는 잠에서 깨기라도 하듯 별안간 정신을 차렸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데요?」

「생각해 보렴, 아주 갑자기였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그의 호기심에 힘을 얻어 서둘러 대답했다. 「바로 내가 너한테 그 편지를 부치던 날에! 믿어지겠니, 그 끔찍한 사람이 그 사람 죽음의 원인인 것 같더구나. 그이가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무섭게 때렸다더라.」

「아니, 그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나빴니?」 그가 누이를 향해 물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지요. 그 사람은 부인에게 늘 아주 참을성이 있었고 심지어 정중하기까지 했으며, 사실 혼인한 칠 년 내내 부인에게 양보했고 많은 경우에는 정말이지 지나치리만큼 그랬어요. 그러다가 별안간 참을성을 잃은 모양이에요.」

「그럼 칠 년이나 스스로를 다잡았다면 그렇게까지 끔찍한 자일 리는 없지 않겠니? 너는 그자를 두둔하는 것 같구나, 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두냐는 몸서리라도 치듯 대답하고는 이마를 찌푸리며 생각에 잠겨 들었다.

「 그 일은 아침에 있었다더구나.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서둘러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그 사람이 점심을 먹고 나서 곧장 읍내로 나가겠다며 말에 마구를 채우라고 일렀다지 뭐냐. 그런 일이 있을 때면 그 사람은 늘 읍내로 나가곤 했다더라. 점심도 아주 잘 먹었다고 하고…….」

「매를 맞고 나서요?」

「 그게 늘 그 사람의…… 버릇이었단다. 그리고 점심을 먹자마자, 떠나는 것이 늦어지지 않게 목욕간으로 갔다지……. 그 사람이 목욕으로 무슨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 거기에는 찬 샘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은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물에 몸을 담그곤 했는데, 물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별안간 졸중을 일으켰다는구나!」

「그럴 만하지요.」 조시모프가 말했다.

「그런데 그자가 심하게 때렸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두냐가 끼어들었다.

「흠!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라스콜니코프가 저도 모르게 그러기라도 하듯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아, 얘야,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 나왔다.

「아니, 다들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가 거북한 미소를 띠고 물었다.

「 그건 정말 그래요. 」 두냐가 오라비를 똑바로, 엄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계단을 올라오면서 무서워서 성호를 긋고 계셨어요.」

그의 얼굴이 경련이라도 일으킨 듯 일그러졌다.

「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두냐! 부디 화내지 말려무나, 로쟈야……. 왜 그런 말을 했니, 두냐?」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을 열었다 — 「여기 오면서 나는 기차 안에서 오는 내내 꿈을 꾸듯 그려 보았단다,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지……. 그리고 어찌나 행복했던지 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지금 행복하단다……. 그러면 못쓴다, 두냐……. 나는 지금 행복해 — 그저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로쟈야…….」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가 어머니를 보지 않은 채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 우리한테는 모든 것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별안간 당혹감에 휩싸여 얼굴이 창백해졌다. 요사이 알게 된 그 끔찍한 감각이 죽음처럼 차갑게 다시 한번 그의 영혼 위를 지나갔다. 자기가 방금 무서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 이제 결코 모든 것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 무엇에 관해서든 그 누구에게든 다시는 이야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별안간 또렷하고 손에 잡힐 듯이 다가왔다. 이 생각의 고통이 어찌나 컸던지 그는 한순간 거의 정신을 놓을 뻔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방을 나가려 걸어갔다.

「뭐 하는 거야?」 라주미힌이 그의 팔을 붙들며 외쳤다.

그는 다시 앉아 말없이 둘레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모두가 어리둥절하여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시무룩한 거예요? 」 그가 별안간, 아주 뜻밖에 소리쳤다. 「무슨 말이든 좀 해 보세요!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말들 좀 해 보시라고요.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모여 앉아서는 말없이 있기만 하고……. 자, 아무거나!」

「하느님 고맙습니다. 나는 어제와 똑같은 일이 또 시작되는 줄 알고 겁이 났단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로쟈?」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미심쩍어하며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생각난 게 있어서.」 그가 대답하고는 별안간 웃었다.

「뭐, 생각난 게 있어서 그런 거라면 괜찮네!…… 나는 또 무슨……」 조시모프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중얼거렸다. 「이만 가 봐야겠습니다. 어쩌면 또 들르지요…… 계시면요……」 그는 인사를 하고 나갔다.

「참 훌륭한 분이구나!」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말했다.

「 네, 훌륭하고, 뛰어나고, 배움도 깊고, 머리도 좋지요. 」 라스콜니코프가 별안간 놀랄 만큼 빠르게,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활기를 띠고 입을 열었다. 「앓기 전에 저분을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에서 만난 것 같기는 한데 —…… 그리고 이 친구도 좋은 사람이고요.」 그는 라주미힌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저 친구가 마음에 드니, 두냐?」 그가 누이에게 물었다. 그러고는 별안간, 무슨 까닭에선지 웃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두냐가 대답했다.

「체! — 이 돼지 같은 놈!」 라주미힌은 몹시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항의하고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엷게 미소를 지었으나 라스콜니코프는 소리 내어 웃었다.

「어디 가?」

「가 봐야 해.」

「전혀 그럴 것 없어. 있어. 조시모프가 갔으니 너는 있어야지. 가지 마. 몇 시야? 열두 시인가? 두냐, 네 시계 참 예쁘구나. 그런데 다들 왜 또 잠잠한 거예요? 말은 나 혼자 다 하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준 선물이에요.」 두냐가 대답했다.

「 그것도 아주 값나가는 것이란다!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덧붙였다.

「아-아! 참 크기도 하네! 여자 것 같지가 않구나.」

「저는 그런 게 좋아요.」 두냐가 말했다.

「 그러니까 약혼자한테서 받은 선물이 아니로군. 」 라주미힌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까닭 없이 기뻐졌다.

「나는 루쥔이 준 선물인 줄 알았지.」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아니다, 그 사람은 아직 두냐한테 아무 선물도 하지 않았다.」

「아-아! 그런데 어머니, 제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 기억하세요?」 그가 어머니를 보며 별안간 말했고,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화제의 변화와 그가 그것을 입에 올리는 투에 당황했다.

「그래, 기억한다, 얘야.」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두냐와 라주미힌과 눈길을 주고받았다.

「 흠,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몹시 병약한 처녀였지요.」 그는 다시 꿈꾸는 듯해져 눈을 내리깐 채 말을 이었다. 「 아주 병자였어요. 그 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기를 좋아했고 늘 수녀원에 들어갈 꿈을 꾸었는데, 한번은 그 이야기를 저한테 꺼내다가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기억나요. 아주 잘 기억나요. 못생긴 자그마한 아이였지요. 그때 무엇이 저를 그 애에게 끌어당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 늘 앓고 있어서였던 것 같은데, 그 애가 절름발이였거나 곱사등이였다면 아마 저는 그 애를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는 꿈꾸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건 일종의 봄철 헛것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저 봄철 헛것만은 아니었어요.」 두냐가 뜨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그는 긴장한 채 골똘한 눈길을 누이에게 붙박았으나 그 말을 듣지 못했거나 알아듣지 못했고, 그러고는 완전히 생각에 잠긴 채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 너는 지금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감동하여 말했다.

「그 애를요? 지금요? 아, 네……. 그 애에 관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제 죄다, 말하자면 다른 세상의 일이고……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하기야 여기서 일어나는 일도 다 어쩐지 아득하게만 느껴져요.」 그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제는 두 분도…… 저는 천 베르스타 밖에서 두 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그런 걸 물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는 짜증스럽게 덧붙이고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시 꿈꾸는 듯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네 하숙은 어쩌면 이리 초라하냐, 로쟈야! 꼭 관(棺) 같구나.」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짓누르는 침묵을 별안간 깨뜨리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 우울해진 것도 절반은 이 하숙 탓이지 싶다.」

「제 하숙이라.」 그가 맥없이 대답했다. 「그래요, 이 하숙이 큰 몫을 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방금 얼마나 기이한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기만 한다면.」 그는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삼 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어머니와 이 누이가, 정작 무엇에 관해서도 참말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 완전한 불가능 앞에서 오가는 이 허물없는 말투가 그로서는 도저히 견뎌 낼 수 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어떻게든 이러나저러나 매듭지어야 할 급한 일이 하나 있었으니 — 잠에서 깰 때

그렇게 정해 둔 터였다. 지금 그는 빠져나갈 구멍으로 그 일이 떠오른 것이 반가웠다.

「들어라, 두냐.」 그가 엄숙하고 건조하게 입을 열었다. 「어제 일은 물론 용서를 빈다. 하지만 내 요점만은 거두지 않겠다는 말을 다시 해 두는 것이 내 도리라고 본다. 나냐 루쥔이냐다. 내가 비열한 놈이라면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면 족하다. 네가 루쥔과 결혼한다면 나는 그 즉시 너를 누이로 보기를 그만두겠다.」

「로쟈, 로쟈야! 또 어제와 똑같구나.」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서글프게 외쳤다. 「그리고 왜 스스로를 비열한 놈이라고 하니? 나는 그 말을 견딜 수가 없다. 어제도 똑같은 말을 했지.」

「 오라버니. 」 두냐가 단호하게, 그리고 그와 똑같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이 모든 일에는 오라버니 쪽에 잘못 짚은 것이 있어요. 밤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잘못 짚은 데를 찾아냈는데, 그건 다 오라버니가 제가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해 저를 희생하고 있다고 여기시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저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제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물론 제 식구들에게 쓸모가 있게 된다면 그야 기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제 결심의 주된 동기는 아니에요…….」

「 거짓말이다. 」 그는 앙심을 품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도도한 것! 은인 노릇을 하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구나! 아, 비천한 성품들! 저들은 미워하듯이 사랑하기까지 한다……. 아, 내가 얼마나…… 저들 모두를 미워하는지!」

「 한마디로 」 두냐가 말을 이었다. 「 제가 표트르 페트로비치와 결혼하는 건 두 가지 나쁜 것 가운데 덜한 쪽을 고르기 때문이고, 저는 그분이 제게 바라는 것을 다 정직하게 할 작정이니 그분을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방금 왜 웃으셨어요?」 그녀 또한 얼굴을 붉혔고 두 눈에는 노여움이 번득였다.

「다?」 그가 악의에 찬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 어느 한도 안에서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청혼한 방식이나 형식이나 모두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에게 곧바로 보여 주었고, 그분이 물론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 볼 수는 있지만 저 또한 존중해 주기를 저는 바라요……. 왜 또 웃으세요?」

「 그런데 너는 왜 또 얼굴을 붉히지?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누이야.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지. 그저 여자다운 고집에서, 그저 나한테 지지 않으려고……. 너는 루쥔을 존경할 수 없어. 나는 그자를 보았고 이야기도 나눠 봤다. 그러니 너는 돈을 받고 너를 팔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어느 모로 보나 비천하게 굴고 있는 것이며, 그래도 네가 그 일로 얼굴을 붉힐 줄은 안다는 게 나는 적어도 반갑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냐가 평정을 잃고 외쳤다. 「그분이 저를 존중하고 저를 높이 본다는 확신이 없다면 저는 그분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분을 존경할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이 없다면 저는 그분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 바로 오늘 그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결혼은 오라버니 말씀처럼 비열한 짓이 아니에요! 설령 오라버니가 옳다 해도, 제가 정말로 비열한 짓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 해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자비한 일이 아닌가요? 어째서 오라버니는 어쩌면 오라버니 자신도 갖지 못한 영웅적인 것을 저에게 요구하시나요? 그건 전횡이에요, 폭정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망친다면 그건 저 하나뿐이에요……. 저는 아직 아무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어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왜 그렇게 창백해요? 로쟈, 왜 그래요? 로쟈, 사랑하는 오라버니!……」

「 맙소사! 네가 오라비를 기절시켰구나.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 아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지 기절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머릿속에 기절밖에 없으시군요. 흠,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아, 그래. 네가 그자를 존경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자가…… 네 말대로 너를 존중한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오늘 어떤 식으로 얻겠다는 거냐? 오늘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머니, 오라버니한테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편지를 보여 주세요.」 두냐가 말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편지를 건넸고, 그는 큰 관심을 보이며 그것을 받아 들었으나, 펴 보기 전에 별안간 일종의 놀라움을 담은 눈으로 두냐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군.」 그가 무슨 새로운 생각에 부딪히기라도 한 듯 천천히 말했다. 「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소란을 피우고 있지? 대체 무슨 일이라고? 마음에 드는 자와 결혼해라!」

그는 혼잣말처럼 이 말을 했으나 소리 내어 말했고, 얼떨떨한 듯 한동안 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편지를 폈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그 기이한 놀라움의 빛이 그대로였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 시작하여 두 번을 읽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고, 사실 모두가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놀라운 것은」 그는 잠깐 뜸을 들였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돌려주며, 그러나 딱히 누구를 향해서랄 것도 없이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이 사업가에다 법률가이고 말하는 투는 정말이지 거들먹거리는데, 정작 편지는 이렇게 못 배운 사람처럼 쓴다는 거예요.」

모두가 흠칫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 하지만 다들 그렇게 씁니다, 아시다시피. 」 라주미힌이 불쑥 말했다.

「읽어 봤어?」

「응.」

「 우리가 보여 드렸다, 로쟈야. 우리가…… 방금 저분께 여쭤 보았단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겸연쩍어하며 말을 꺼냈다.

「그건 그저 법정에서 쓰는 말투입니다.」 라주미힌이 끼어들었다. 「법률 문서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씁니다.」

「법률 투라고? 그래, 바로 법률 투야 — 실무 문투지 — 그렇게까지 못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 — 실무 문투!」

「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자기가 변변찮은 교육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제 힘으로 제 길을 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오라비의 말투에 얼마쯤 기분이 상해 말했다.

「 그래, 자랑스러워한다면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거겠지, 나도 부인하지 않아. 내가 편지를 두고 그런 하찮은 흠이나 잡는다고, 그리고 너를 성가시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시시한 것을 입에 올린다고 여겨서 너는 기분이 상한 모양이구나, 누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체에 관해 떠오른 한 가지 소견이 지금 형편에서는 결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 『 당신들 스스로를 탓하라 』 는 말 한마디가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렷하게 박혀 있고, 그 밖에 내가 자리에 있으면 그 즉시 가 버리겠다는 위협이 있지. 가 버리겠다는 그 위협은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둘 다 내버리겠다는 위협이나 같고, 그것도 페테르부르크로 불러 놓고 나서 이제 와 내버리겠다는 것이지. 자, 어떻게 생각하니? 루쥔이 쓴 그런 말에 대고, 저 친구가(그는 라주미힌을 가리켰다) 썼거나

조시모프가 썼거나 우리 가운데 누가 썼을 때처럼 화를 낼 수 있겠느냐?」

「아-니요.」 두냐가 한결 생기를 띠고 대답했다. 「저도 그것이 너무 순진하게 쓰였다는 것을, 그분이 그저 글솜씨가 없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건 옳은 지적이에요, 오라버니. 정말이지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건 법률 문투로 쓰여 있고, 아마 저 사람이 뜻한 것보다 더 거칠게 들리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조금 환멸에 빠뜨려야겠구나. 그 편지에는 나에 관한 험담이, 그것도 꽤 비열한 험담이 한 군데 있다. 나는 어젯밤에 그 돈을 과부에게 주었어, 폐병을 앓고 괴로움에 짓눌린 여자에게. 그리고 『장례를 구실로』가 아니라 그저 장례를 치르라고 준 것이고, 딸에게 — 저 사람이 쓴 대로 품행이 좋지 않기로 이름난 젊은 여자에게(나는 어젯밤에 난생처음 그 여자를 보았다) — 준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 준 것이다. 이 모든 데서 나는 나를 헐뜯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너무 성급한 욕심을 본다. 이것 또한 법률 투로, 그러니까 노리는 바를 너무 뻔히 드러내면서, 그것도 아주 순진한 열성으로 쓰여 있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분별 있게 처신하는 데에는 머리만으로 모자란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됨을 보여 주고…… 나는 그자가 너를 크게 존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그저 너에게 일러 두려는 것뿐이야, 진심으로 네가 잘되기를 바라니까……」

두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결심은 이미 서 있었다. 그녀는 다만 저녁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기로 하겠니, 로쟈야?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물었는데, 그녀는 그의 말투가 별안간 새롭게 사무적으로 바뀐 것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었다.

「『하기로 한다』 니요?」

「보다시피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오늘 저녁에 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네가 오면 자기는 가 버리겠다고 썼지 않니. 그래서 너는…… 오겠니?」

「그야 물론 제가 정할 일이 아니라 먼저 어머니가 정하실 일이지요, 그런 요구에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은 두냐가 정할 일이고요, 저 애 또한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면 말이지요. 저는 어머니가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가 건조하게 덧붙였다.

「두냐가 이미 정했고 나도 그 애와 뜻이 온전히 같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서둘러 말했다.

「저는 오라버니께 청하기로 했어요, 로쟈. 이번 자리에 꼭 저희와 함께 있어 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기로요. 」 두냐가 말했다. 「오시겠어요?」

「그러마.」

「당신께도 여덟 시에 저희와 함께 있어 주시기를 청하겠어요.」 그녀가 라주미힌을 향해 말했다. 「어머니, 이분도 제가 청하는 거예요.」

「잘했다, 두냐. 그래, 네가 정했으니」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덧붙였다. 「그렇게 하자꾸나. 나도 마음이 한결 편하겠다. 나는 숨기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온전한 진실을 밝히는 편이 낫지……. 이제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화를 내든 말든!」

---

1. Crevez, chiens, si vous n'êtes pas contents — 프랑스어로 「뒈져라, 개들아, 불만이면」.

3부 4장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젊은 처녀 하나가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모두가 놀라움과 호기심에 차서 그녀 쪽을 돌아보았다. 라스콜니코프는 첫눈에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소피야 세묘노브나 마르멜라도바였다. 그는 어제 그녀를 처음 보았으나, 그것은 그런 순간에 그런 주위와 그런 옷차림 속에서였던 터라 그의 기억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남아 있었다. 지금 그녀는 수수하고 가난한 차림의 젊은 처녀였고, 정말이지 아주 어려서 거의 아이 같았으며, 몸가짐이 얌전하고 단정했고, 맑으면서도 어딘가 겁에 질린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주 평범한 실내복을 입고 낡아 빠진 유행 지난 모자를 쓰고 있었으나, 양산만은 여전히 들고 있었다. 뜻밖에도 방이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그녀는 당황했다기보다 어린아이처럼 수줍음에 온통 압도되어 버렸다. 물러서려고까지 했다. 「아…… 당신이에요?……」 라스콜니코프가 몹시 놀라 말했고, 그 자신도 당황했다. 그는 어머니와 누이가 루쥔의 편지를 통해 「행실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어떤 젊은 여자」에 관해 알고 있다는 것을 단박에 떠올렸다. 그는 방금 전까지 루쥔의 중상에 항의하며 그 처녀를 어젯밤에 처음 보았노라고 말하던 참이었는데, 바로 그 처녀가 별안간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또한 그는 자기가 「행실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이라는 표현에는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희미하고 덧없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으나, 그녀를 더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는 그 모욕당한

피조물이 너무도 모욕당해 있는 것을 보고 별안간 그녀가 가엾어졌다. 그녀가 겁에 질려 물러서려는 몸짓을 했을 때, 그의 속에서 무언가가 뒤집히는 듯했다.

「오실 줄 몰랐어요.」 그가 서둘러 말했는데, 그 눈빛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 앉으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서 오신 거겠지요. 실례지만 — 거기 말고. 여기 앉으세요…….」

소냐가 들어오자, 문 가까이에 있는 라스콜니코프의 의자 셋 가운데 하나에 앉아 있던 라주미힌이 그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일어섰다. 라스콜니코프는 처음에는 조시모프가 앉아 있던 소파 자리를 그녀에게 가리켰으나, 자기 침대 노릇을 하는 그 소파가 너무 허물없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라주미힌의 의자 쪽으로 그녀에게 손짓했다.

「 자네는 여기 앉아. 」 그가 라주미힌에게 말하며 그를 소파에 앉혔다.

소냐는 겁에 질려 거의 떨다시피 하며 앉아서는 두 부인을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 곁에 자기가 앉을 수 있다는 것이 그녀 자신에게도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 분명했고, 그 생각을 하자 어찌나 겁이 났던지 그녀는 황급히 다시 일어서서는 온통 당황한 채로 라스콜니코프에게 말을 걸었다.

「 저…… 저…… 잠깐이면 돼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서 왔는데,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부탁드리라고 했어요…… 내일 장례 예배에 와 주십사고…… 아침에…… 미사 때…… 미트로파니옙스키[1]에서…… 그러고 나서…… 저희 집으로…… 그분에게로…… 식사하러 와 주십사고…… 그런 영광을 베풀어 주십사고…… 그렇게 부탁드리라고 했어요……」 소냐는 말을 더듬다가 그쳤다.

「그러지요, 꼭, 꼭 그러겠어요.」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그 역시 일어섰고, 그 역시 말을 더듬어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앉으세요.」 그가 불쑥 말했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바쁘신지도 모르지만, 부디 너그러이 이 분만 내주세요.」 그러고는 그녀에게 의자를 끌어다 주었다.

소냐는 다시 앉았고, 다시 겁먹은 눈으로 서둘러 두 부인을 훔쳐보고는 눈을 내리떴으며, 라스콜니코프의 창백한 얼굴은 붉어졌고 몸에 전율이 스쳤으며 두 눈이 타올랐다.

「 어머니. 」 그가 단호하고 힘주어 말했다. 「 이쪽은 소피야 세묘노브나 마르멜라도바입니다. 어제 제 눈앞에서 마차에 치인, 방금 제가 얘기해 드린 그 불행한 마르멜라도프 씨의 따님이에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소냐를 흘깃 보고는 눈을 조금 가늘게 떴는데, 로쟈의 다급하고 도전적인 눈빛 앞에서 거북했음에도 그 정도 만족만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두냐는 그 가련한 처녀의 얼굴을 진지하고 뚫어지게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낯으로 뜯어보았고, 소냐는 자기가 소개되는 것을 듣고 다시 눈을 들어 보려 했으나 전보다 더욱 당황했을 뿐이었다.

「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라스콜니코프가 서둘러 말했다. 「 오늘은 일이 어떻게 됐나요? 이를테면 경찰이 성가시게 굴지는 않았어요?」

「 아뇨, 그건 괜찮았어요…… 사인이 너무 분명해서…… 저희를 성가시게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하숙인들이 화를 내요.」

「왜죠?」

「시신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날이 더우니까요, 냄새가……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 무렵에 시신을 묘지로, 예배당으로

옮겨서 내일까지 거기 두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싫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분도 그래야 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 오늘요?」

「내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와 주시고 그러고 나서 추도연[2]에도 자리해 주시는 영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사고 그분이 청하셨어요.」

「추도연을 연다고요?」

「 네…… 조촐하게요……. 어제 저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 몹시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다면 장례를 치를 것도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그녀의 입술과 턱이 떨리기 시작했으나, 그녀는 안간힘을 써서 그것을 억눌렀고 다시 눈을 내리떴다.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라스콜니코프는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위고, 아주 여윈, 창백한 작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이목구비가 고르지 않고 모가 졌으며 코와 턱이 뾰족했다.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푸른 눈이 어찌나 맑던지, 그 눈에 불이 켜질 때면 그 표정에 어리는 다정함과 순박함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니 그녀의 온몸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이 있었다. 열여덟이라는 나이에도 그녀는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거의 계집아이처럼 — 거의 어린아이처럼 보였고, 그녀의 어떤 몸짓에서는 그 아이 같음이 거의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감당할 수 있었나요? 정말 추도연까지 열 생각인가요? 」 라스콜니코프가 집요하게 이야기를 이어 가며 물었다.

「관은 물론 수수한 것으로 하고요…… 죄다 수수하게 할 테니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제가 다 셈해 봤는데 그러고도 추도연을 치를 만큼은 남아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꼭

그래야 한다고 했고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그분에게는 그게 위안이에요……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요…….」

「 알겠어요, 알겠어요…… 물론이지요…… 제 방을 왜 그렇게 보세요? 어머니도 방금 관(棺) 같다고 하셨지요.」

「 어제 저희에게 다 주셨잖아요. 」 소냐가 별안간 크고 빠른 속삭임으로 대답하고는 다시 당황하여 눈을 내리떴다. 입술과 턱이 또다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라스콜니코프의 가난한 살림살이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을 받았던 터라 이제 그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온 것이었고, 침묵이 뒤따랐으며, 두냐의 눈에는 빛이 어렸고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조차 소냐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 로쟈. 」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 우리야 물론 함께 저녁을 먹어야지. 가자, 두냐……. 그리고 로쟈, 너는 잠깐 걷다가 와서 우리한테 오기 전에 쉬면서 좀 눕는 게 낫지 않겠니……. 우리가 너를 너무 지치게 한 것 같구나…….」

「네, 네, 갈게요.」 그가 부산스럽게 일어서며 대답했다. 「그런데 볼일이 좀 있어요.」

「 아니, 그럼 같이 저녁을 먹는 게 아닌가? 」 라주미힌이 놀라서 라스콜니코프를 보며 외쳤다. 「무슨 소리야?」

「그래, 그래, 갈 거야…… 물론이지, 물론! 그리고 자네는 잠깐 남아 있어. 어머니,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하진 않으시죠? 아니면 제가 어머니한테서 이 사람을 뺏는 건가요?」

「 아니다, 아니야. 그런데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우리와 저녁을 함께해 주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꼭 오세요.」 두냐가 덧붙였다.

라주미힌이 정말이지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절을 했고, 한순간 모두가 이상하게 거북해졌다.

「잘 있으려무나, 로쟈, 아니 또 보자꾸나. 나는 작별 인사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다. 잘 있거라, 나스타시야. 아, 또 작별 인사를 하고 말았구나.」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소냐에게도 인사를 하려 했으나 어쩐지 그렇게 되지 않았고, 허둥지둥 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어머니를 뒤따라 나가면서 소냐에게 정중하고 세심한 인사를 했다. 소냐는 당황하여 겁먹은 듯 황급히 무릎을 굽혀 답례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의 정중함과 관심이 짐스럽고 괴롭기라도 한 듯 사무치게 불편한 기색이 있었다.

「두냐, 잘 가라.」 라스콜니코프가 복도에서 불렀다. 「손 좀 다오.」

「 어머, 아까 드렸잖아요. 잊으셨어요? 」 두냐가 다정하면서도 어색하게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상관없다, 한 번 더 다오.」 그러고는 그녀의 가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두냐는 미소 짓고 얼굴을 붉히고는 서둘러 손을 빼내고, 어쩐지 그녀 또한 온통 행복한 기분으로 어머니를 따라 나갔다.

「 자, 잘됐군요. 」 그가 돌아와 그녀를 환한 낯으로 바라보며 소냐에게 말했다. 「죽은 이에게는 하느님이 평안을 주시고,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소냐는 그의 얼굴이 별안간 환해진 것에 놀란 듯 바라보았고,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죽은 아버지가 그녀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 전부가 별안간 그의 기억 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이고, 두냐.」 거리로 나서자마자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입을 열었다. 「나와 버리니 나도 정말 마음이 놓이는구나 — 한결

편해졌어. 어제 기차에서야 그런 일을 다행스러워하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니.」

「 어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라버니는 아직 많이 아파요. 안 보이세요? 아마 우리 걱정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걸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 해요, 그러면 많은 것을, 아주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 너야말로 그리 참을성이 있지는 않더구나!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발끈해서 시샘하듯 말을 가로챘다. 「두냐, 내가 너희 둘을 보고 있었다. 너는 그 애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더라, 얼굴보다도 마음이 그래. 둘 다 우울하고, 둘 다 뚱하고 성마르고, 둘 다 거만하고, 또 둘 다 너그럽지……. 설마 그 애가 이기주의자일 리야 없겠지, 두냐. 응? 오늘 저녁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내려앉는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될 일은 되게 마련이에요.」

「두냐, 우리 처지가 어떤지 생각 좀 해 봐라!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파혼이라도 하면 어쩌니?」 가엾은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앞뒤 가리지 않고 불쑥 내뱉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한 값어치도 없는 사람인 거죠.」 두냐가 날카롭고 경멸하듯 대답했다.

「 우리가 나오기를 잘했다.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서둘러 말을 끊었다. 「 그 애는 무슨 볼일인가로 바빴잖니.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면…… 그 애 방은 숨이 막히게 답답하더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서 바람을 쐰단 말이냐? 여기는 거리마저 닫아 놓은 방 같구나. 아이고 세상에! 무슨 도시가 이렇다니!…… 가만…… 이쪽으로…… 밟히겠다 — 무얼 나르고 있구나. 어머나, 저건 피아노 아니냐…… 어쩌면 저렇게들 밀어붙이는지!…… 나는 그 젊은 여자도 몹시 무섭더구나.」

「무슨 젊은 여자 말이에요, 어머니?」

「아니, 방금 거기 있던 그 소피야 세묘노브나 말이다.」

「왜요?」

「예감이 든다, 두냐. 그래, 네가 믿든 안 믿든, 그 여자가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저 여자가 이 모든 화근이구나 싶었다…….」

「 그런 것 아니에요! 」 두냐가 짜증을 내며 외쳤다. 「 어머니는 예감이니 뭐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라버니는 어제저녁에야 그 사람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했잖아요.」

「글쎄, 두고 보렴……. 그 여자가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두고 보렴, 두고 봐! 나는 어찌나 무섭던지. 그 여자가 그 눈으로 나를 빤히 보더구나. 그 애가 소개를 시작했을 때 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 너도 기억하지? 참 이상한 일이다만,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그 여자를 두고 그렇게 쓰는데 그 애는 그 여자를 우리한테 소개하다니 — 너한테 말이다! 그러니 그 여자가 그 애한테 소중한 게 틀림없어!」

「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써 대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돌고 글이 실렸잖아요. 잊으셨어요? 저는 그 사람이 착한 처녀이고 그 말은 죄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믿어요.」

「그래야 할 텐데!」

「 그리고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비열한 중상꾼이에요. 」 두냐가 별안간 딱 잘라 말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짓눌렸고, 대화는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

「자네한테 무슨 볼일인지 말해 주지.」 라스콜니코프가 라주미힌을 창가로 끌고 가며 말했다.

「그럼 저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오신다고 말할게요.」 소냐가 서둘러 말하며 떠날 채비를 했다.

「잠깐만요, 소피야 세묘노브나. 우리끼리 비밀은 없어요. 방해가 되지도 않고요. 한두 마디 더 나누고 싶어요. 들어 봐!」 그가 갑자기 다시 라주미힌 쪽으로 돌아섰다. 「자네 그……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를 알지?」

「알다마다! 친척인걸. 왜?」 상대가 호기심이 터지기라도 한 듯 덧붙였다.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맡고 있지 않나…… 그 왜, 그 살인 사건 말이야…… 어제 자네가 그 얘기를 했잖아.」

「그래…… 그런데?」 라주미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사람이 물건을 잡힌 사람들을 찾고 있다며. 나도 거기 잡힌 물건이 좀 있어 — 하찮은 것들이야 — 집을 떠날 때 누이가 기념으로 준 반지하고 아버지의 은시계야 — 다 합쳐 봐야 오륙 루블어치밖에 안 되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것들이야.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물건들을, 특히 그 시계를 잃고 싶지 않아. 아까 두냐의 시계 얘기가 나왔을 때 어머니가 그걸 보자고 할까 봐 조마조마했어.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거든. 그걸 잃어버리면 어머니가 앓아누우실 거야. 여자들이 어떤지는 자네도 알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줘.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곧바로 포르피리한테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응? 자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 일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잖아. 알다시피 어머니가 저녁 전에 그걸 보자고 할지도 모르고.」

「경찰서는 절대 안 돼. 무조건 포르피리한테 가야지.」 라주미힌이 유난스러운 흥분에 싸여 소리쳤다. 「아, 내가 얼마나 기쁜지. 당장 가세. 두어 걸음이면 되는 거리야.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 거야.」

「좋아, 가지.」

「그리고 그 사람도 자네를 알게 되면 아주, 아주 기뻐할 거야. 내가 여러 번 때를 달리해 가며 그 사람한테 자네 얘기를 했거든. 어제도 자네

얘기를 했지. 가세. 그래, 자네가 그 노파를 알고 있었다고? 그랬군! 일이 멋-지-게 풀렸군!…… 아 참, 소피야 이바노브나……」

「 소피야 세묘노브나야. 」 라스콜니코프가 바로잡았다. 「 소피야 세묘노브나, 이쪽은 제 친구 라주미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가 보셔야 한다면요.」 소냐가 말을 꺼냈는데, 라주미힌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까보다 더 당황해 있었다.

「 가지. 」 라스콜니코프가 결정했다. 「 오늘 찾아갈게요, 소피야 세묘노브나. 어디 사시는지만 말해 주세요.」

그는 정확히 말해 거북해한 것은 아니었으나 서두르는 듯했고 그녀의 눈을 피했으며, 소냐는 주소를 일러 주면서 그러는 동안 얼굴을 붉혔고, 그들은 모두 함께 밖으로 나갔다.

「문을 안 잠그나?」 라주미힌이 그를 따라 계단으로 나서며 물었다.

「한 번도 안 잠가.」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이 년째 자물쇠를 하나 사려고 벼르고 있어. 자물쇠가 필요 없는 사람은 행복한 거지요.」 그가 웃으며 소냐에게 말했다. 그들은 대문 안에 멈춰 섰다.

「 오른쪽으로 가시나요, 소피야 세묘노브나? 그런데 나를 어떻게 찾았어요?」 그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싶기라도 한 듯 덧붙였다. 그는 그녀의 부드럽고 맑은 눈을 들여다보고 싶었으나, 그것이 쉽지 않았다.

「어제 폴레치카에게 주소를 알려 주셨잖아요.」

「 폴레치카? 아, 그렇지. 폴레치카, 그 어린 여자아이 말이군요. 동생인가요? 내가 그 아이에게 주소를 알려 줬던가요?」

「아니, 잊으셨어요?」

「아니요, 기억나요.」

「 아버지한테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만 그때는 성함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오게 됐는데…… 어제 성함을

알게 되었으니까 오늘 『라스콜니코프 씨가 어디 사시나요?』 하고 물었지요. 당신도 셋방살이를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럼 가 볼게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전할게요.」

마침내 벗어나게 된 것이 그녀는 더없이 기뻤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되도록 빨리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려고 서두르며, 오른쪽 모퉁이까지 스무 걸음을 걸어 마침내 혼자가 되려고, 그런 다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빠르게 걸어가며 한 마디 한 마디를,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곱씹어 보려고 가 버렸다. 한 번도, 한 번도 그녀는 이런 것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희미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히 새로운 세계 하나가 그녀의 영혼 속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라스콜니코프가 오늘, 어쩌면 아침에, 어쩌면 당장이라도 자기를 찾아오려 한다는 것을 문득 떠올렸다!

「제발 오늘만은 안 돼, 오늘만은 안 돼!」 그녀는 겁먹은 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애원하듯 가슴이 내려앉은 채로 자꾸만 중얼거렸다. 「어쩌면 좋아! 나한테로…… 그 방으로…… 다 보게 될 텐데…… 아이고!」

그 순간 그녀는 자기를 지켜보며 바로 뒤를 따라오는 낯선 신사 하나를 알아차릴 겨를이 없었다. 그는 대문에서부터 그녀를 따라왔다. 라주미힌과 라스콜니코프와 그녀가 헤어지려고 포장도로에 멈춰 섰을 때,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이 신사는 소냐의 말, 곧 「그래서 라스콜니코프 씨가 어디 사시느냐고 물었어요」 라는 말을 듣고 흠칫했다. 그는 세 사람 모두에게, 특히 소냐가 말을 건네고 있는 라스콜니코프에게 재빠르면서도 주의 깊은 눈길을 던졌고, 그런 다음 그 집을 보고 눈여겨 두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해치웠고, 자기 관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걸음을 늦추어 걸어갔다. 그는 소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헤어지는 것을, 그리고 소냐가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집이라. 어디지? 저 얼굴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생각했다. 「알아내야겠군.」

모퉁이에서 그는 길을 건너 둘러보았고,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같은 길로 오고 있는 소냐를 보았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자 그는 건너편에서 그녀를 따라갔고, 쉰 걸음쯤 간 뒤에 다시 길을 건너 그녀를 따라잡고는 다섯 걸음[3] 뒤를 지켰다.

그는 쉰 살쯤 된 사내로 키가 제법 크고 몸집이 다부졌으며, 넓고 높은 어깨 탓에 어딘가 구부정해 보였다. 좋은 옷을 유행에 맞게 차려입어 신분이 있는 신사처럼 보였고, 훌륭한 지팡이를 짚고 걸음마다 그것으로 포장도로를 두드렸으며, 장갑에는 얼룩 하나 없었다. 광대뼈가 높고 넓적하며 제법 호감이 가는 얼굴에는 페테르부르크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생기 있는 혈색이 돌았다. 아마빛 머리카락은 아직 숱이 많았고 군데군데 희끗한 기가 섞였을 뿐이었으며, 삽 모양으로 늘어진 넓고 숱 많은 수염은 머리카락보다도 더 옅었다. 두 눈은 푸르고 차갑고 생각에 잠긴 빛을 띠었으며 입술은 진홍빛이었고, 그는 눈에 띄게 잘 간수된 사내여서 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소냐가 운하 둑으로 나섰을 때 포장도로에는 두 사람뿐이었고, 그는 그녀가 꿈결에 잠긴 듯 넋을 놓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자기가 세 들어 사는 집에 이르자 소냐는 대문으로 들어섰고, 그는 제법 놀란 기색으로 그녀를 뒤따랐으며, 안마당에서 그녀는 제 셋방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는 오른쪽 구석으로 돌아섰다. 「허!」 낯선 신사가 중얼거리고는 그녀를 뒤따라 계단을 올랐고, 소냐는 그제야 그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3층에 이르러 복도로 접어들더니 9호의 초인종을 울렸는데, 문에는 분필로 「재봉사 카페르나우모프」라고 적혀 있었다.

「허!」 낯선 사내가 그 묘한 우연을 의아해하며 다시 되뇌고는 옆집인 8호의 초인종을 울렸고, 두 문은 여섯 걸음쯤 떨어져 있었다.

「 카페르나우모프네에 세 들어 사시는군요. 」 그가 소냐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어제 내 조끼를 고쳐 준 사람이에요. 나는 바로 여기 옆집 레슬리히 부인, 게르트루다 카를로브나 댁에 묵고 있고요. 거참 묘하기도 하지!」 소냐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웃이군요.」 그가 유쾌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그저께야 이 도시에 왔어요. 그럼 우선은 이만.」

소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문이 열리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는데, 어쩐 일인지 그녀는 부끄럽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포르피리의 집으로 가는 길에 라주미힌은 눈에 띄게 들떠 있었다.

「 잘됐어, 이 사람아. 」 그가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나는 기뻐! 기뻐!」

「뭐가 기쁘다는 거지?」 라스콜니코프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네도 그 노파한테 물건을 잡힌 줄은 몰랐어. 그런데…… 오래된 일인가? 그러니까 거기 갔던 게 오래전인가?」

「어쩌면 저렇게 순진한 바보일까!」

「 언제였더라? 」 라스콜니코프는 기억을 더듬느라 걸음을 멈췄다. 「그 여자가 죽기 사흘쯤 전이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물건을 찾을 생각이 없어.」 그는 그 물건들이 걱정된다는 티를 서두르듯 눈에 띄게 내면서 덧붙였다. 「 은화 1루블밖에 안 남았거든…… 어젯밤의 그 빌어먹을 헛소리 소동 뒤로!」

그는 헛소리라는 말에 특별히 힘을 주었다.

「 그래, 그래. 」 라주미힌이 서둘러 맞장구를 쳤는데 — 무엇에 대해서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 그럼 그래서 자네가…… 거기 걸려 있었던 거군…… 얼마쯤은…… 그 왜, 자네가 헛소리를 할 때 무슨

반지니 사슬이니 하는 말을 자꾸 했거든! 그래, 그래…… 이제 분명해, 죄다 분명해졌어.」

「이런! 저 생각이 저들 사이에 얼마나 퍼져 있는 건가. 여기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도 오를 사람인데, 내가 헛소리 중에 반지 얘기를 한 까닭이 밝혀졌다고 좋아하고 있구나! 저 생각이 저들 모두를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는 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가 불쑥 물었다.

「그럼, 만나고말고.」 라주미힌이 얼른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야, 보면 알아, 이 사람아. 좀 뻣뻣하달까, 그러니까 몸가짐은 세련된 사람인데 내가 말하는 뻣뻣함은 다른 뜻이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정말이지 아주 좋아, 다만 자기 나름의 생각의 테두리가 있지……. 남을 잘 믿지 않고, 의심이 많고, 냉소적이고…… 사람을 속여 넘기기를, 아니 차라리 놀려 먹기를 좋아해. 그 사람 방식은 옛날식이지, 정황을 하나하나 따지는……. 하지만 자기 일은 알아…… 속속들이……. 작년에는 경찰이 단서라고는 거의 잡지 못한 살인 사건을 풀어냈어. 자네와 알고 지내기를 아주, 아주 바라고 있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바란다는 거야?」

「아,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네가 앓는 동안 내가 어쩌다 자네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자네에 대해 듣고는…… 자네가 법과 학생인데 형편 때문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안타까운 일이군!』 하고 말했어.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린 거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합쳐서 말이야. 어제 자묘토프가…… 그 왜, 로쟈, 어제 자네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취해서 헛소리를 좀 했잖아…… 나는 말이야, 이 사람아, 자네가 그걸 과장해서 받아들일까 봐 걱정이야.」

「뭘? 저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으로 여긴다는 것?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 그가 어색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래, 그래……. 아니, 그러니까, 원,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한 말은 (그리고 다른 것도 좀 있었지만) 죄다 헛소리였어, 취해서 한 헛소리였다고.」

「그런데 왜 사과를 하는 거야? 나는 그 모든 게 아주 지긋지긋해!」 라스콜니코프가 과장된 짜증을 내며 외쳤다. 하지만 얼마쯤은 꾸며 낸 것이었다.

「알아, 알아, 이해해. 정말이지 나는 이해해. 입에 올리기가 부끄러운 일이지.」

「부끄러우면 입에 올리지 마.」

둘 다 입을 다물었다. 라주미힌은 황홀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라스콜니코프는 그것을 역겹게 느꼈으며, 그는 또한 라주미힌이 방금 포르피리에 대해 한 말에 마음이 불안하기도 했다.

「저 사람한테도 나사로 타령을 늘어놓아야겠군.」 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도 더 자연스럽게 늘어놓아야지. 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아무 타령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애써 아무 타령도 하지 않기! 아니, 애써서라면 그것도 또 자연스럽지 않지……. 아, 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보게 되겠지…… 이제 곧. 가는 것이 좋은 일인가 아닌가? 나방은 불을 향해 날아가지. 가슴이 뛰는구나, 그게 나쁜 거야!」

「이 잿빛 집이야.」 라주미힌이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르피리가 내가 어제 그 마녀의 집에 갔던 것을…… 그리고 피에 대해 물었던 것을 알고 있느냐다. 들어가자마자 당장 그것을 알아내야 해, 얼굴을 보고 알아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 파멸이 되더라도 알아내고야 만다.」

「그런데 말이야, 이 사람아.」 그가 불쑥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고 라주미힌에게 말을 건넸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자네가 묘하게 들떠 있던데. 안 그래?」

「들떠? 천만에.」 라주미힌이 아픈 데를 찔린 듯 말했다.

「아니야, 이 사람아, 정말이지 티가 난다니까. 자네가 앉는 법이 없는 식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데, 어쩐지 끄트머리에 걸터앉아서는 내내 몸을 뒤트는 것 같더군. 아무 일도 아닌데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고. 한순간은 성을 냈다가 다음 순간에는 얼굴이 사탕처럼 되고. 얼굴까지 붉히더군. 특히 저녁 초대를 받았을 때는 얼굴이 아주 새빨개졌어.」

「그런 것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소리야?」

「그런데 왜 학생처럼 발뺌을 하나? 이런, 또 빨개지는군.」

「이 돼지 같은 놈!」

「그런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나? 로미오! 가만있어, 내가 오늘 다 일러바칠 테다. 하하하! 어머니를 웃겨 드려야지,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들어 봐, 들어 봐, 들어 봐, 이건 진담이야……. 무슨 짓을 하려고, 이 마귀 같은 놈아!」 라주미힌은 완전히 넋이 나가 공포로 싸늘해졌다. 「뭘 일러바친다는 거야? 이봐, 이 사람아…… 퉤! 이 돼지 같은 놈!」

「영락없는 봄 장미야! 그게 자네한테 얼마나 어울리는지 알기나 하나. 6피트[4]가 넘는 로미오라니! 게다가 오늘은 어찌나 씻었는지 — 손톱까지 다듬었더군, 세상에. 응?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이런, 머리에 포마드까지 바른 것 같은데! 고개 좀 숙여 봐.」

「돼지 같은 놈!」

라스콜니코프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웃었고, 그렇게 웃으면서 그들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집으로 들어섰다. 이것이 바로 라스콜니코프가

바라던 바였으니, 안에서는 그들이 들어오면서 웃는 소리가, 복도에서까지 껄껄대고 있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었다.

「여기서는 한마디도 하지 마, 안 그러면 내가…… 머리통을 부숴 버릴 테니까!」 라주미힌이 라스콜니코프의 어깨를 움켜쥐고 사납게 속삭였다.

---

1. 미트로파니옙스키 — 페테르부르크 남쪽 변두리의 공동묘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묻혔다.

2. 추도연 — 정교회에서 장례를 치른 뒤 죽은 이를 기려 여는 식사(포민키). 저본은 같은 것을 funeral lunch·funeral dinner·memorial dinner 세 낱말로 갈라 쓰지만 한국어판은 한 용어로 옮긴다.

3. 걸음 — 원전은 「다섯 걸음」, 뒤의 문 사이 거리는 「여섯 걸음」이다. 저본의 역자 가넷은 두 자리를 다 「두세 야드」(1야드는 약 0.91미터)로 바꿔 놓았다. 이 판은 러시아어 원전을 따른다.

4. 6피트 — 약 183센티미터. 원전은 「열 베르쇼크」로, 러시아식으로 두 아르신에 덧붙는 치수만 말한 것이며 약 187센티미터다. 가넷이 러시아 도량형을 영국 단위로 바꿔 놓은 자리다.

3부 5장

라스콜니코프는 이미 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다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느라 이만저만 애를 쓰는 게 아니라는 얼굴로 들어왔다. 그 뒤로 라주미힌이 어색하고 뻣뻣하게, 부끄러워하며 작약처럼 붉어진 얼굴로, 아주 기가 꺾이고도 사나운 표정을 한 채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 순간 그의 얼굴과 온몸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웠고 라스콜니코프의 웃음을 넉넉히 정당화해 주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소개를 기다리지도 않고, 방 한가운데 서서 캐묻는 듯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는데, 웃음을 억누르고 제 소개가 될 만한 몇 마디를 내뱉으려고 여전히 필사적으로 애쓰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간신히 진지한 얼굴을 지어내고 무어라 중얼거리는 데 성공하자마자 그는 별안간 어쩌다 그런 것처럼 라주미힌을 다시 한번 흘끔 보았고, 더는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었으니, 눌러 둔 웃음은 억누르려 들면 들수록 더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라주미힌이 이 「진심 어린」 웃음을 받아들인 그 유난스러운 사나움이 이 장면 전체에 더할 나위 없이 진짜다운 재미와 자연스러움의 모양새를 입혔다. 라주미힌은 일부러 그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인상을 더욱 굳혀 주었다.

「에잇, 빌어먹을!」 그가 으르렁거리며 팔을 휘둘렀고, 그 팔이 곧장 빈 찻잔이 놓인 작고 둥근 탁자를 쳤다. 모든 것이 날아가 요란하게 부서졌다.

「그런데 왜 의자를 부수십니까, 여러분? 나랏돈에 손해인 줄 아시면서.」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유쾌하게 외쳤다.[1]

라스콜니코프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손을 잡은 채 여전히 웃고 있었으나, 지나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며 이것을 자연스럽게 끝맺을 알맞은 순간을 기다렸다. 탁자를 엎고 잔을 깨뜨린 일로 완전히 무안해진 라주미힌은 깨진 조각들을 침울하게 바라보다가 침을 퉤 뱉고는 홱 창문 쪽으로 돌아서서, 사납게 인상을 쓴 얼굴로 아무것도 보지 않으며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웃었고 얼마든지 더 웃을 태세였으나,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자묘토프는 구석에 앉아 있다가 손님들이 들어오자 일어나 입가에 미소를 띠고 기다리듯 서 있었는데, 이 장면 전체와 라스콜니코프를 놀라움과, 심지어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눈길로, 어딘가 거북해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자묘토프가 뜻밖에 거기 있다는 것이 라스콜니코프의 마음을 언짢게 쳤다.

「저것도 생각해 둬야겠군.」 그는 생각했다. 「실례합니다.」 그가 몹시 당황한 척하며 말을 꺼냈다. 「라스콜니코프입니다.」

「천만에요, 뵙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게다가 참 유쾌하게들 들어오셨고요……. 아니, 저 친구는 인사도 안 할 참인가 봅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라주미힌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맹세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저에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길에 그저 로미오 같다고 말했을 뿐이고…… 그걸 증명해 보였지요. 그게 다였던 것 같은데요!」

「돼지!」 라주미힌이 돌아보지도 않고 내뱉었다.

「그 한마디에 저리 길길이 뛰는 걸 보면 아주 중대한 근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포르피리가 웃었다.

「이런, 자네! 예심판사 나리!…… 다들 빌어먹을!」 라주미힌이 쏘아붙이고는, 별안간 자기도 웃음을 터뜨리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결 밝아진 얼굴로 포르피리에게 다가갔다. 「그만하면 됐어! 우리 다 바보지. 본론으로 가자고. 이쪽은 내 친구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인데, 첫째로 자네 이야기를 듣고 알고 지내고 싶어 하고, 둘째로 자네한테 볼일이 좀 있어. 어라! 자묘토프, 자네는 여기 웬일인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어? 서로 안 지 오래됐어?」

「이게 무슨 소린가?」 라스콜니코프가 불안하게 생각했다.

자묘토프는 허를 찔린 듯했으나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

「아니, 어제 자네 방에서 만났잖아.」 그가 스스럼없이 말했다.

「그럼 내가 수고를 덜었군. 지난주에 나더러 자네한테 소개해 달라고 몹시 졸라 댔거든. 포르피리하고 자네는 나 없이도 서로 냄새를 맡았고 말이야. 담배 어디 있어?」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실내복 차림에 아주 깨끗한 속옷을 받쳐 입고 뒤축이 밟혀 꺾인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서른다섯쯤 된 사내로, 키가 보통보다 작고 뚱뚱한 데다 배까지 나왔으며 수염은 말끔히 밀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크고 둥근 머리통은 뒤통수가 유난히 도드라져 있었다. 통통하고 둥글며 조금 들창코인 얼굴은 병든 듯한 누런빛이었으나 표정은 활기차고 꽤 비꼬는 데가 있었다. 누군가에게 눈짓이라도 하듯 깜박이는, 거의 흰빛에 가까운 속눈썹 아래에서 물기 어린 느끼한 빛을 내며 빛나는 눈만 아니었더라면 사람 좋은 얼굴이었을 것이다. 그 눈의 표정은 어딘가 여자 같은 그의 몸피와 이상하리만큼 어울리지 않았고, 첫눈에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를 그 몸에 얹어 놓고 있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찾아온 사람에게 볼일이 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소파에 앉기를 권하고 자기도 그 반대쪽 끝에 앉아 그가

용건을 설명하기를 기다렸는데, 그 애써 기울이는, 너무도 진지한 주의는 그 자체로 사람을 짓누르고 당황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으니 초면인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했고, 더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각별한 엄숙함을 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본인이 여기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라스콜니코프는 짧고 조리 있는 말로 자기 용건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했고, 스스로에게 어찌나 만족했던지 포르피리를 찬찬히 뜯어보기까지 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그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다. 같은 탁자 맞은편에 앉은 라주미힌은 열을 내며 조바심하며 듣고 있었고, 지나치다 싶은 관심으로 시시각각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바보.」 라스콜니코프가 속으로 욕했다.

「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포르피리가 더할 나위 없이 사무적인 태도로 대답했다. 「 이번 사건, 그러니까 살인 사건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러이러한 물건이 제 것이니 그것을 되찾고자 한다는 뜻을 사건을 맡은 예심판사에게 알려 주시기를 청한다고요…… 아니면…… 아무튼 거기서 써 드릴 겁니다.」

「 바로 그게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 라스콜니코프는 당황한 척하려고 갖은 애를 썼다. 「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이런 하찮은 액수조차 저에게는 벅찹니다…… 그저, 보시다시피, 당장은 그 물건이 제 것이라는 것과, 돈이 생기거든 그때 가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그의 주머니 사정에 대한 설명을 차갑게 받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저에게 곧장 쓰셔도 됩니다. 이 일을 전해 들었고 이러이러한 것이 제 소유임을 주장하니 청하건대……」

「 보통 종이에 써도 됩니까? 」 라스콜니코프가 다시 이 문제의 금전적인 면에 관심이 생겨 냉큼 끼어들었다.

「 아, 가장 평범한 종이로요. 」 그러더니 별안간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드러내 놓고 비꼬는 눈길로 그를 보았는데, 말하자면 그에게 눈을 찡긋한 셈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라스콜니코프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르니, 그 모든 것이 한순간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무언가가 분명히 있기는 했으니, 라스콜니코프는 그가 자기에게 눈을 찡긋했다고 맹세라도 할 수 있었다, 무슨 까닭인지는 하늘이나 알 일이지만.

「이자는 안다.」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 이런 하찮은 일로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 그가 조금 당황한 채 말을 이었다. 「그 물건들은 오 루블어치밖에 안 됩니다만, 저에게 그것이 건너온 사람들 때문에 각별히 아끼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식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 그래서 포르피리가 물건 맡긴 사람을 전부 찾고 있다고 내가 조시모프한테 말했을 때 그렇게 놀랐던 거구나! 」 라주미힌이 뻔한 속셈으로 끼어들었다.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검은 눈에 앙심 어린 분노의 빛을 번뜩이며 그를 흘끔 보지 않을 수 없었으나, 곧 정신을 차렸다.

「 나를 놀리는 건가, 이 사람아? 」 그는 잘 꾸며 낸 짜증을 실어 그에게 말했다.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을 만큼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나를 이기적이라거나 탐욕스럽다고 여겨서는 안 돼, 그 두 가지 물건은 내 눈에는 쓰레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은시계는 한 푼어치도 안 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야. 나를 비웃어도 좋지만, 어머니가 여기 와 계셔. 」 그는 별안간 포르피리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니 만약 어머니가,」 그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떨면서 다시 서둘러 라주미힌 쪽으로 돌아섰다.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걸 아신다면 절망하실 거라고! 여자들이 어떤지 알잖나!」

「전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정반대라고!」 라주미힌이 괴로워하며 소리쳤다.

「제대로 한 건가? 자연스러웠나? 지나쳤나?」 라스콜니코프가 떨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여자들 이야기는 왜 한 거지?」

「아, 어머님이 와 계십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무슨 까닭에선지 물었다.

「예.」

「언제 오셨습니까?」

「어젯밤에요.」

포르피리는 생각에 잠긴 듯 말을 멈추었다.

「물건은 어차피 없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차분하고 차갑게 말을 이었다. 「저는 여기서 오시기를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도 되는 양, 양탄자 위에 무자비하게 담뱃재를 흩뿌리고 있는 라주미힌에게 재떨이를 조심스레 내밀어 주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움찔했으나 포르피리는 그를 보고 있지 않는 듯했고, 여전히 라주미힌의 담배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

「뭐?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니, 이 친구가 거기 물건을 맡긴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라주미힌이 소리쳤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라스콜니코프를 향해 말했다.

「반지와 시계는 함께 싸여 있었고, 그 종이에는 성함이 연필로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맡기신 날짜와 함께요……」

「참 눈여겨보시는군요!」 라스콜니코프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보려고 각별히 애쓰며 어색하게 웃었으나, 참지 못하고

별안간 덧붙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맡긴 물건이 아주 많았을 텐데…… 그걸 다 기억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또렷이 기억하고 계시니, 그리고…… 그리고……」

「멍청하다! 어설프다!」 그는 생각했다. 「그건 왜 덧붙였지?」

「하지만 물건을 맡긴 사람은 이제 거의 다 알려져 있고, 아직 나서지 않으신 분은 지금 여기 계신 한 분뿐입니다.」 포르피리가 알아채기 힘든 비꼼을 실어 대답했다.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무언가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셨다는 말까지 들었고요. 아직도 창백해 보이십니다.」

「창백하긴 전혀……. 아니요, 저는 아주 멀쩡합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어조를 완전히 바꾸어 무례하고 성난 투로 쏘아붙였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누를 수가 없었다. 「이러다 화에 못 이겨 내가 나를 드러내겠구나.」 또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왜들 나를 고문하는 거지?」

「몸이 좀 좋지 않다니!」 라주미힌이 받아쳤다. 「말이 되나! 어제까지 거의 의식도 없이 헛소리를 했어. 믿을 수 있겠어, 포르피리, 우리가 등을 돌리기가 무섭게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옷을 차려입고는 우리를 따돌리고 거의 한밤중까지 어딘가를 쏘다녔다고, 그 내내 헛소리를 하면서! 믿어지나! 기가 막힐 노릇이지!」

「정말로 헛소리를 했다는 건가? 저런, 설마!」 포르피리가 여자처럼 고개를 저었다.

「허튼소리! 믿지 마십시오! 하기야 어차피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라스콜니코프가 화김에 내뱉고 말았다. 그러나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그 이상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했다.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다면 대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었겠어?」 라주미힌이 별안간 열을 냈다. 「 무엇 하러 나갔나? 그게 무슨 소용이었어? 그리고 왜 몰래 나갔지? 그럴 때 제정신이었어? 이제 위험이 다 지났으니 터놓고 말하지.」

「어제는 이 사람들한테 진저리가 나 있었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별안간 건방지게 대드는 미소를 띠고 포르피리에게 말했다. 「 이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서 찾지 못할 방을 얻으려고 했고, 돈도 잔뜩 들고 나갔지요. 저기 자묘토프 씨가 봤습니다. 이보게, 자묘토프 씨, 어제 내가 제정신이었나 헛소리를 했나? 우리 다툼을 정리해 주게.」

그 순간 그는 자묘토프를 목 졸라 죽일 수도 있었으니, 그의 표정과 침묵이 그에게 그토록 밉살스러웠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조리 있게, 심지어 교묘하게 말했어. 다만 몹시 짜증을 내고 있었지.」 자묘토프가 건조하게 말했다.

「 그리고 니코딤 포미치가 오늘 저에게 말하더군요. 」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끼어들었다. 「 어젯밤 아주 늦게 마차에 치인 사람의 셋방에서 뵈었다고요.」

「그것 봐.」 라주미힌이 말했다. 「그때는 미친 게 아니었어? 장례 치르라고 과부에게 마지막 한 푼까지 줘 버렸잖아. 돕고 싶었으면 열다섯이나 스물쯤 주고 적어도 제 몫으로 삼 루블은 남겨 뒀어야지, 그런데 이 친구는 이십오 루블을 한꺼번에 몽땅 내던졌다고!」

「 어디서 보물이라도 찾았는데 자네가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어제 내가 그렇게 후했던 거고……. 자묘토프 씨는 내가 보물을 찾은 걸 알아! 이런 하찮은 일로 삼십 분이나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그가 입술을 떨며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지루하시지요?」

「 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아주 정반대입니다! 제가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아신다면! 보고 듣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서 주셔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나저나 차라도 좀 주지! 목이 마른데.」 라주미힌이 소리쳤다.

「좋은 생각일세! 우리도 다 같이 어울리지. 차 전에…… 좀 더 든든한 걸 들지 않겠나?」

「집어치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차를 시키러 나갔다.

라스콜니코프의 생각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끔찍한 격앙 상태였다.

「무엇보다 고약한 건 저것들이 감추지도 않는다는 거다. 격식을 차릴 마음조차 없는 거야! 나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면 어떻게 니코딤 포미치와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지? 그러니까 저것들은 개 떼처럼 나를 쫓고 있다는 걸 숨길 생각조차 없는 거다. 그냥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지.」 그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자, 대놓고 쳐라, 고양이가 쥐 가지고 놀듯 나를 가지고 놀지 마라.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어쩌면 나는 이걸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일어나서 너희들 그 흉한 낯짝에 진실을 통째로 내던지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경멸하는지 알게 되겠지.」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런데 이게 그저 내 착각이라면? 내가 잘못 짚은 거라면, 그래서 경험이 없는 탓에 화를 내고 내 더러운 배역을 지켜 내지 못하는 거라면? 어쩌면 저것들은 아무 뜻도 없는지 모른다. 저것들이 쓰는 말은 죄다 흔한 것들인데,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 다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무언가가 있다. 저자는 왜 대놓고 『그 여자에게』라고 했지? 자묘토프는 왜 내가 교묘하게 말했다고 덧붙였지? 저것들은 왜 저런 어조로 말하지? 그래, 어조다……. 라주미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지? 저 순진한 멍청이는 언제나 아무것도 못 본다! 또 열이 오르는군! 포르피리가 아까 나에게 눈을 찡긋했나? 물론 헛소리지! 무엇 하러 눈을 찡긋하겠나? 저것들이 내 신경을 흔들려는 건가, 아니면 나를 놀리는 건가? 죄다 착각이거나, 아니면 저것들이 아는 거다! 자묘토프까지 무례하게 구는군……. 자묘토프가 무례한가? 자묘토프는 밤사이에 마음을 바꿨다. 나는 저자가 마음을 바꾸리라는 걸 내다봤지! 저자는 여기서 제집처럼 굴지만 정작 처음 온 거다. 포르피리는 저자를 손님으로 여기지 않고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다. 나를 두고 한통속이 된 게 틀림없다! 우리가 오기 전에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저것들이 그 방에 대해 아나? 제발 좀 서둘렀으면! 방을 얻으려고 달아났다고 했을 때 저자는 그냥 흘려들었지……. 방 이야기는 영리하게 끼워 넣었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헛소리라니, 원…… 하하하! 저자는 어젯밤 일을 죄다 알고 있다! 어머니가 오신 건 몰랐고! 그 마녀가 날짜까지 연필로 적어 뒀구나! 너희가 틀렸다, 나를 잡지 못한다! 사실이 없어…… 죄다 추측일 뿐이야! 사실을 내놔 봐라! 그 방조차 사실이 아니라 헛소리지. 저것들한테 무슨 말을 할지 나는 안다……. 저것들이 그 방에 대해 아나? 알아내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 나는 무엇 하러 온 거지? 하지만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 어쩌면 그게 사실이겠구나! 에잇, 어쩌면 이렇게 신경질적인가! 어쩌면 그게 옳은지도 모르지. 환자 노릇을 하는 것……. 저자는 나를 더듬고 있다. 나를 잡으려 들겠지. 나는 무엇 하러 왔나?」

이 모든 것이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갔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금세 돌아왔다. 그는 별안간 한결 유쾌해졌다.

「어제 그 모임 때문에, 이 사람아, 머리가 좀……. 게다가 온통 몸이 말이 아닐세.」 그가 라주미힌을 보고 웃으며 아주 다른 어조로 말을 꺼냈다.

「재미있었나? 나는 어제 제일 재미있는 대목에서 나왔지. 누가 이겼어?」

「아, 물론 아무도 아니지. 영원한 문제로 빠져들더니 허공으로 떠올라 버렸네.」

「생각해 봐, 로쟈, 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까지 갔는지. 범죄라는 게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였어. 우리가 머리가 빠지도록 떠들었다고 했잖나.」

「이상할 게 뭐 있나? 흔한 사회 문제인데.」 라스콜니코프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문제가 꼭 그렇게 놓인 건 아니었습니다.」 포르피리가 한마디 했다.

「꼭 그렇진 않았지, 그건 사실이야.」 라주미힌이 여느 때처럼 열을 내고 서두르며 곧장 맞장구쳤다. 「들어 봐, 로지온, 자네 의견을 말해 줘, 나는 그걸 듣고 싶어. 나는 그자들하고 이를 악물고 싸우고 있었고 자네가 거들어 주기를 바랐어. 자네가 온다고 그자들한테 말해 뒀지……. 사회주의자들의 교리에서 시작된 거야. 그 교리를 알잖나. 범죄란 사회 조직의 비정상에 대한 항의일 뿐이고, 그뿐이고, 다른 원인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서 자네가 틀렸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소리쳤다. 그는 눈에 띄게 활기를 띠었고 라주미힌을 보며 계속 웃어 댔는데, 그 바람에 라주미힌은 어느 때보다 더 흥분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라주미힌이 발끈해서 말을 끊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자들 소책자를 보여 주지. 그자들한테는 모든 것이 『환경의 영향』이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결론은, 사회가 정상으로 조직되기만 하면 항의할 게 아무것도 없어질 테고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의로워질 테니 모든 범죄가 당장 그친다는 거지. 인간 본성은

셈에 넣지 않아, 빼 버리고, 있지도 않은 셈 치는 거야! 그자들은 인류가 역사라는 살아 있는 과정을 거쳐 발전해 마침내 정상적인 사회가 되리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떤 수학적인 머리에서 튀어나온 사회 체계가 온 인류를 단번에 조직해서 어떤 살아 있는 과정보다도 빠르게 한순간에 의롭고 죄 없게 만들어 주리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그자들은 본능적으로 역사를 싫어하는 거야, 『거기엔 추함과 어리석음밖에 없다』면서 그 모든 것을 어리석음으로 설명해 버리지! 그래서 삶의 살아 있는 과정을 그토록 싫어하는 거고, 살아 있는 영혼을 원하지 않는 거야! 살아 있는 영혼은 삶을 요구하고, 영혼은 역학의 규칙에 복종하지 않고, 영혼은 의심스러운 물건이고, 영혼은 반동이니까! 그자들이 원하는 것은, 비록 시체 냄새가 나고 고무로 만들 수 있는 것일지언정 적어도 살아 있지 않고 의지가 없고 노예 같고 반항하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끝에 가서는 결국 모든 것을 팔랑스테르[2]의 벽을 쌓고 방과 복도를 배치하는 일로 환원해 버려! 팔랑스테르는 정말로 다 지어졌지만 자네들의 인간 본성은 팔랑스테르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 그건 삶을 원하고, 제 생명의 과정을 아직 마치지 못했고, 무덤으로 가기엔 너무 일러! 논리 하나만으로 자연을 건너뛸 수는 없는 법이야! 논리는 세 가지 경우를 내다보지만 경우는 백만 가지라고! 백만 가지를 잘라 내고 모든 것을 안락의 문제로 환원해 버려! 그게 문제의 가장 손쉬운 해결이지! 홀리도록 명쾌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게 핵심이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삶의 비밀 전부가 인쇄 전지(全紙) 두 장에 들어간다고!」

「자, 또 북을 두드리며 나가는군! 좀 붙잡아 주게!」 포르피리가 웃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가 라스콜니코프 쪽으로 돌아섰다. 「어젯밤 한 방에서 여섯 사람이 저런 식으로 떠들어 댔습니다, 먼저

펀치를 한잔씩 걸치고서요! 아니야, 이 사람아, 자네가 틀렸네, 범죄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몫은 아주 크다네, 그건 내가 장담하지.」

「아, 그야 나도 알아. 하지만 말해 봐. 마흔 살 먹은 사내가 열 살짜리 아이를 범했다면, 그자를 거기로 몬 게 환경이야?」

「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포르피리가 눈에 띄게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 그런 종류의 범죄야말로 환경의 영향으로 돌리기에 딱 알맞다네.」

라주미힌은 거의 광란 상태였다. 「 아, 그렇게 나온다면. 」 그가 으르렁거렸다. 「 자네의 그 흰 속눈썹이 이반 대제 종루[3]가 서른다섯 사젠이나 되는 탓으로 돌리기에 딱 알맞다는 걸 증명해 주지, 그것도 명료하게, 정확하게, 진보적으로, 게다가 자유주의적 경향까지 곁들여서 증명해 보이겠어! 내가 책임지고! 내기할 텐가?」

「좋네! 자, 저 친구가 어떻게 증명하는지 어디 들어 봅시다!」

「저 친구는 늘 저렇게 사람을 속여, 빌어먹을. 」 라주미힌이 벌떡 일어나 손짓을 해 가며 소리쳤다. 「자네하고 이야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저 짓을 다 일부러 하는 거라고. 자네는 저 사람을 몰라, 로지온! 어제도 그저 그자들을 놀려 먹으려고 그자들 편을 들었어. 어제 저 친구가 한 말들이라니! 그런데 그자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고! 저 친구는 보름이고 계속 저럴 수 있어. 작년에는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우리를 믿게 만들었고, 두 달을 그러고 있었지. 얼마 전에는 결혼하겠다고, 혼례 준비가 다 됐다고 선언할 생각을 해냈어. 새 옷까지 맞췄다고. 우리 모두 축하하기 시작했지. 신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순전히 공상이었다고!」

「아, 자네가 틀렸네! 옷은 전부터 있던 걸세. 사실은 그 새 옷 때문에 자네들을 속일 생각이 든 거야.」

「그렇게 잘 속이십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무심하게 물었다.

「그럴 줄은 모르셨지요,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속으실 테니까요. 하하하! 아니,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범죄니 환경이니 아이들이니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자니, 늘 제 흥미를 끌어 온, 쓰신 논문 한 편이 생각나는군요. 『범죄에 관하여』…… 인가 뭐 그런 것이었는데, 제목은 잊었습니다. 두 달 전에 『정기 평론』에서 즐겁게 읽었지요.」

「제 논문이요? 『정기 평론』에요?」 라스콜니코프가 놀라서 물었다. 「반년 전에 대학을 그만두었을 때 어떤 책을 두고 논문을 하나 쓴 건 사실입니다만, 그건 『주간 평론』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기 평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간 평론』은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때 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간 평론』은 없어지면서 『정기 평론』에 합쳐졌고, 그래서 쓰신 글이 두 달 전에 뒤엣것에 실린 겁니다. 모르셨습니까?」

라스콜니코프는 모르고 있었다.

「아니, 그 논문 값으로 돈을 좀 받아 낼 수도 있을 텐데요! 참 별나십니다! 그렇게 외따로 지내시니 직접 관계된 일조차 통 모르고 계시는군요. 정말입니다, 장담하지요.」

「잘했다, 로쟈! 나도 그건 전혀 몰랐어!」 라주미힌이 소리쳤다. 「오늘 열람실로 달려가서 그 호를 찾아 달라고 해야겠다. 두 달 전이라고? 날짜가 언제였지? 하기야 상관없어, 내가 찾아낼 테니. 우리한테 말도 안 하다니!」

「그 논문이 제 것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머리글자로만 서명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저 우연히 알았습니다. 편집자를 통해서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 제 기억으로는 범죄가 진행되는 내내의 범죄자 심리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범죄의 실행에는 언제나 병이 따른다고 주장하셨지요. 아주, 아주 독창적입니다, 다만…… 제 흥미를 그토록 끈 것은 그 대목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분명하게 풀어내지 않고 그저 시사만 해 두신, 논문 끝머리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온갖 난행과 범죄를 저지를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법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제 생각을 과장하고 일부러 비튼 것에 미소를 지었다.

「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범죄할 권리? 하지만 환경의 영향 때문은 아니고?」 라주미힌이 적잖이 놀라서까지 물었다.

「 아니, 꼭 그것 때문은 아닐세. 」 포르피리가 대답했다. 「 그 논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범인(凡人)』과 『비범인』으로 나뉘네. 범인은 복종하며 살아야 하고 법을 넘을 권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알겠나, 그들은 범인이니까. 그러나 비범인은 어떤 범죄든 저지를 권리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법을 넘을 권리가 있으니, 바로 그들이 비범인이기 때문일세. 제가 잘못 안 게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셨지요?」

「 무슨 소린가? 그럴 리가 없잖아? 」 라주미힌이 어리둥절해 중얼거렸다.

라스콜니코프가 다시 미소 지었다. 그는 대번에 요점을 알아챘고 그들이 자기를 어디로 몰아가려는지 알았다. 그는 제 논문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제 주장은 꼭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박하고 겸손하게 말을 꺼냈다. 「그렇지만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원하신다면 완전히 정확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에게는 거의 즐겁기까지 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범한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온갖 난행을 언제나 반드시 저질러야 한다고는 제가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논지가 실릴 수 있었을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저 『비범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암시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 양심 안에서 어떤 장애물을…… 넘기로 결정할 내적인 권리이고, 그것도 제 사상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이지요(더러는 온 인류에게 이로울 수도 있는 사상 말입니다). 제 논문이 분명치 않다고 하시니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걸 바라고 계신 것이 맞다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케플러와 뉴턴의 발견이 어떤 사정이 얽혀서, 그 발견을 방해하거나 장애물로 길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나 열 사람이나 백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고는 세상에 알려질 수 없었다고 한다면, 뉴턴에게는 그 열 사람이나 백 사람을 없애 버릴 권리가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할 의무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제 발견을 온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뉴턴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죽이고 날마다 시장에서 도둑질을 할 권리가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논문에서 저는 모든…… 그러니까, 가장 오랜 옛사람부터 시작해 리쿠르고스, 솔론, 무함마드, 나폴레옹[4]으로 이어지는 입법자와 인류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범죄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법을 만들면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아 백성이 신성하게 여기던 옛 법을 넘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피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니, 그 피가, 때로는 옛 법을 위해 용감하게 흘린, 아주

무고한 피가 제 대의에 쓸모가 있기만 하다면 그랬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이 은인이자 지도자들 대다수가 끔찍한 살육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요컨대 저는 모든 위인이, 아니 조금이라도 보통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말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두 그 본성상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흔한 바퀴 자국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고, 흔한 바퀴 자국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또다시 그 본성상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일이며, 제 생각으로는 그들이 거기에 복종해서도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전에도 천 번은 인쇄되고 읽혔지요. 사람을 범인과 비범인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얼마간 자의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만, 사람은 대체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열등한 부류(범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종류를 다시 낳는 데에만 쓰이는 재료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뜻의 사람들, 곧 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말을 할 천분이나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제 중심 생각을 믿을 뿐입니다. 물론 그 아래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갈래가 있지만 두 부류를 가르는 특징은 꽤 뚜렷합니다. 첫째 부류는 대체로 기질이 보수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복종하며 살고 복종하기를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종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데, 그것이 그들의 소명이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거기에 조금도 굴욕스러운 데가 없습니다. 둘째 부류는 모두 법을 넘으니, 그들은 파괴자이거나 제 능력에 따라 파괴 쪽으로 기울어진 자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범죄는 상대적이고 갖가지여서, 대개 그들은 더 나은 것을 위해 현재를 무너뜨리기를 아주 여러 방식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제 사상을 위해 시체를 넘든 피를 넘든 해야만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제 안에서, 양심에 따라 피를

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사상과 그 크기에 달렸다는 점은 유념해 주십시오. 제 논문에서 범죄할 권리를 말한 것은 오직 그런 뜻에서입니다(기억하시겠지만 논문은 법률 문제에서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것은 없으니, 대중은 이 권리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을 테고, 그들을 벌하거나 목매달며(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 보수적인 소명을 아주 정당하게 이행하지요. 그러나 바로 그 대중이 다음 세대에 가서는 이 범죄자들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떠받듭니다(이 또한 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첫째 부류는 언제나 현재의 주인이고 둘째 부류는 미래의 주인입니다. 첫째 부류는 세상을 보존하고 그 수를 불리며, 둘째 부류는 세상을 움직여 그 목적지로 이끕니다. 두 부류 모두 존재할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요컨대 제게는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며, vive la guerre éternelle[,5], 물론 새 예루살렘[,6]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새 예루살렘은 믿으시는군요?」

「 믿습니다. 」 라스콜니코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앞선 긴 이야기 내내 그는 양탄자의 한 지점에 눈을 붙들어 두고 있었다.

「그럼…… 그럼 하느님은 믿으십니까? 호기심을 용서하십시오.」

「믿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포르피리에게 눈을 들며 되풀이했다.

「그럼……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을 다 물으십니까?」

「글자 그대로 믿으신다고요?」

「글자 그대로.」

「 저런…….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아까 문제로 돌아가지요. 그들이 언제나 처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도리어……」

「살아생전에 개선한다는 말씀입니까? 아, 예, 어떤 자들은 이승에서 제 목적을 이루고, 그러고 나서는……」

「남을 처형하기 시작한다고요?」

「 필요하다면요. 실은 대개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재치 있는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비범인을 범인과 어떻게 구별합니까? 태어날 때 표적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정확함이, 좀 더 겉으로 드러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을 지키며 사는 실무자의 타고난 걱정을 용서해 주십시오만, 이를테면 특별한 제복을 입게 한다든가, 무언가를 걸치게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낙인을 찍어 둘 수는 없을까요? 아시다시피 혼란이 생겨서 한쪽 부류의 사람이 제가 다른 쪽에 속한다고 상상하고는, 참 멋지게 표현하셨습니다만, 『 모든 장애물을 없애기 』 를 시작해 버린다면 그때는……」

「아, 그런 일이야 아주 자주 있지요! 그 말씀은 아까 것보다 더 재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실 것 없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첫째 부류에서만, 그러니까 범인들 사이에서만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주십시오(제가 그들을 그렇게 부른 것이 어쩌면 불행한 일이었습니다만). 복종하는 성향이 있는데도 그들 가운데 아주 많은 수가, 더러는 암소에게까지 허락되는 타고난 장난기 때문에, 제가 앞서 가는 사람이자 『 파괴자 』 라고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말』 속으로 저를 밀어 넣으려 드는데, 그것도 아주 진심으로 그럽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말로 새로운 사람들은 그들 눈에 띄지 않거나 심지어 비굴한 경향을 지닌 반동으로 멸시당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단한 위험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니, 그들은 결코 멀리까지 가지 못할 터이므로 정말로 불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물론 공상에 휩쓸린 벌로, 또 제 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더러는 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고, 실은 집행인조차 필요 없는 것이 그들은 품행이 아주 바른 터라 스스로를 매질하기 때문이니, 어떤 이들은 서로에게 이 일을 해 주고 어떤 이들은 제 손으로 저를 벌합니다……. 아름답고 교훈적인 효과를 내며 여러 가지 공개적인 참회 행위를 스스로에게 부과하겠지요. 정말이지 불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그런 법칙이 있으니까요.」

「자, 적어도 그 점에서는 얼마쯤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남을 칼로 벨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비범인이 많습니까? 물론 저야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가 아주 많다면 섬뜩한 일이라는 건 인정하셔야지요, 예?」

「아, 그것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같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새로운 사상을 지닌 사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수가 지극히 적습니다, 실로 유난히 적지요. 한 가지만은 분명한데, 사람의 이 모든 등급과 갈래가 나타나는 데에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 틀림없이 어김없는 규칙성으로 작용하고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법칙은 지금으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존재하며 언젠가는 알려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인류의 그 방대한 덩어리는 한낱 재료일 뿐이고, 오직 어떤 커다란 노력에 의해, 어떤 알 수 없는 과정에 의해, 어떤 종족과 혈통의 뒤섞임에 의해 마침내 천 명에 한 사람쯤 독립성의 불꽃을 지닌 사람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보다 더 넓은 독립성을 지닌 사람은 어쩌면 만 명에 한 사람쯤 — 대충, 어림잡아 말하는 것입니다만 — 태어나고, 그보다 더 큰 독립성을 지닌 사람은 십만 명에 하나쯤일

것입니다. 천재는 수백만 명에 하나이고, 인류를 완성하는 위대한 천재들은 어쩌면 수십억 명에 하나쯤 이 땅에 나타나겠지요. 사실 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증류기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법칙이 분명히 있고 또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두 사람 다 농담하는 건가?」 라주미힌이 마침내 소리쳤다. 「거기 앉아서 서로 놀려 먹고 있잖아. 진심인가, 로쟈?」

라스콜니코프는 창백하고 거의 슬퍼 보이는 얼굴을 들었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슬픈 얼굴 곁에 두고 보자니, 포르피리의 감추지 않는, 끈질기고 신경질적이고 무례한 빈정거림이 라주미힌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봐, 이 사람아, 정말로 진심이라면…… 새로울 게 없다는 것, 우리가 이미 천 번은 읽고 들은 것과 같다는 것, 그건 물론 자네 말이 옳아.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정말로 독창적이고 오직 자네만의 것인 부분은, 내가 소름이 끼치게도, 양심의 이름으로 피 흘리는 일을 승인한다는 점이고,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것도 그런 광신으로 그런다는 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자네 논문의 요점이네. 그런데 양심에 의한 그 유혈 승인은 내 생각에는…… 공적이고 법적인 유혈 승인보다 더 무서워…….」

「자네 말이 옳네, 그게 더 무섭지.」 포르피리가 동의했다.

「아니, 자네가 어쩌다 휩쓸린 게 틀림없어! 무언가 잘못된 거야, 내가 읽어 보겠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할 리 없어! 읽어 보겠다니까.」

「그런 건 논문에 없어. 암시만 있을 뿐이야.」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예, 예.」 포르피리는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했다. 「범죄에 대한 생각은 이제 저에게 꽤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이렇게 귀찮게 굴고 있자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등급이 뒤섞이는 데 대한 제 걱정은 없애 주셨습니다만……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어서요! 만약 어떤 사내나 젊은이가 제가 리쿠르고스나 무함마드라고, 물론 장차 그렇게 될 사람이라고 상상하고서 모든 장애물을 없애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 원정이 앞에 있고 원정에는 돈이 필요하다면서…… 원정 밑천을 마련하기 시작한다면…… 아시겠습니까?」

자묘토프가 제 구석에서 별안간 킬킬 웃음을 터뜨렸다. 라스콜니코프는 그쪽으로 눈길조차 들지 않았다.

「그런 경우가 반드시 생기리라는 것은 인정해야겠지요.」 그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허영심 많고 어리석은 자들이 특히 그 덫에 걸리기 쉬운데, 젊은 사람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요?」

「그래서라니요?」 라스콜니코프가 미소로 답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겁니다. 방금 이 사람이 (그는 라주미힌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제가 유혈을 승인한다고 했지요. 사회는 감옥과 유형과 예심판사와 징역으로 지나칠 만큼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그러니 도둑이나 찾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자를 잡는다면요?」

「그럼 마땅한 벌을 받는 거지요.」

「과연 논리가 있으시군요. 그런데 그자의 양심은요?」

「그건 왜 신경 쓰십니까?」

「그저 인정에서요.」

「양심이 있다면 제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겠지요. 그것이 그자의 벌이 될 겁니다, 징역에 더해서요.」

「그런데 진짜 천재들은 어떤가?」 라주미힌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죽일 권리를 가진 자들 말이야. 제가 흘린 피 때문에도 조금도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 건가?」

「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은 왜 나오지? 허락이나 금지의 문제가 아니야. 희생자가 가엾다면 괴로워하라지……. 넓은 의식과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아픔과 괴로움은 언제나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위인들은 이 땅에서 큰 슬픔을 지니게 마련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는 대화의 어조와는 다르게 꿈꾸듯 덧붙였다.

그는 눈을 들어 그들 모두를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미소 짓고 모자를 집어 들었다. 그는 들어올 때의 태도에 견주면 너무 조용했고, 그 자신도 그것을 느꼈다. 모두가 일어섰다.

「자, 저를 욕하셔도 좋고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다시 말을 꺼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군요. 작은 질문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귀찮게 해 드리는 줄 압니다). 그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꺼내 두고 싶은 자그마한 생각이 하나 있어서요.」

「좋습니다, 그 자그마한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라스콜니코프가 창백하고 심각한 얼굴로 그 앞에 서서 기다렸다.

「저,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할 줄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장난스러운, 심리적인 생각인데요……. 그 논문을 쓰실 때 틀림없이 어쩔 수 없이, 헤헤! 스스로를…… 아주 조금은, 말씀하신 뜻에서 새로운 말을 하는 『비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으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지요.」 라스콜니코프가 경멸하듯 대답했다.

라주미힌이 움찔했다.

「그렇다면,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또는 인류에 무슨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라면 — 장애물을 넘는 데까지 스스로를

몰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는 데까지 말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왼쪽 눈을 찡긋하고, 아까와 똑같이 소리 없이 웃었다.

「 설령 제가 넘었다 한들, 물론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 라스콜니코프가 대드는 듯한 오만한 경멸을 실어 대답했다.

「 아니요, 저는 그저 그 논문 때문에, 문학적인 관점에서 흥미가 있었을 뿐입니다……」

「푸! 어쩌면 저렇게 뻔하고 뻔뻔한가!」 라스콜니코프가 역겨워하며 생각했다.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 저는 제가 무함마드나 나폴레옹이라고도, 그런 부류의 어떤 인물이라고도 여기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이상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 지금 러시아에서야 우리 모두 제가 나폴레옹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나?」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섬뜩하리만큼 허물없는 투로 말했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의 억양에까지 유난히 뚜렷한 무언가가 있었다.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도끼로 해치운 게 그 장차 나폴레옹이 될 자들 가운데 하나였는지도 모르지요?」 자묘토프가 구석에서 불쑥 내뱉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말이 없었으나 포르피리를 단단하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라주미힌은 침울하게 인상을 쓰고 있었다. 그는 이보다 앞서 무언가를 알아채고 있던 듯했다. 그가 성난 눈으로 둘레를 둘러보았다. 음울한 침묵이 일 분쯤 이어졌다. 라스콜니코프는 가려고 몸을 돌렸다.

「 벌써 가십니까? 」 포르피리가 지나친 정중함으로 손을 내밀며 상냥하게 말했다. 「 알게 되어 참으로, 참으로 기쁩니다. 청하신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하루 이틀 안에 직접 그리로 저를 찾아오시지요…… 실은 내일이라도요. 열한 시에는 틀림없이 거기 있겠습니다. 다 처리해 드리고 이야기도 좀 나누지요. 거기 마지막으로 들르신 축에 드시니 어쩌면 저희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는 더없이 사람 좋은 표정으로 덧붙였다.

「저를 정식으로 신문하시겠다는 겁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 어째서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어서…… 물건을 맡긴 사람들과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몇몇에게서는 증언도 받았고, 그래서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아 참, 그러고 보니,」 그가 별안간 기뻐진 듯 소리쳤다. 「방금 생각났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가 라주미힌 쪽으로 돌아섰다. 「자네가 그 니콜라이 이야기로 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떠들어 대지 않았나…… 물론 나도 아네, 나도 알아.」 그가 라스콜니코프 쪽으로 돌아섰다. 「그 친구가 결백하다는 건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미치카까지 번거롭게 해야 했지요……. 요점은 이것이고 이게 다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셨을 때가 일곱 시가 지나서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는데,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언짢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일곱 시와 여덟 시 사이에 올라가시면서 2층에 문이 열린 채로 있던 방에서, 기억나십니까? 일꾼 둘을, 아니면 적어도 그중 하나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거기서 칠을 하고 있었는데, 눈에 띄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 칠장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 라스콜니코프가 기억을 뒤지기라도 하듯 천천히 대답했는데, 바로 그 순간 그는 덫이 어디에 놓였는지 되도록 빨리 알아내고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불안으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어 온 신경을 쥐어짜고 있었다. 「아니요, 못 봤고, 그렇게 문이 열린 방을 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4층에서는」 (이제 그는 덫을 제 손에 넣었고 의기양양했다) 「알료나 이바노브나네 맞은편 방에서 어떤 관리가 이사를 나가고 있던 것이 이제 생각납니다……. 생각납니다…… 또렷이 생각나요. 병사들이 소파를 들고 나오다가 저를 벽에 밀어붙였지요. 하지만 칠장이는…… 아니요, 칠장이가 있었던 기억은 없고, 어디에도 문이 열린 방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라주미힌이 생각을 굴려 깨닫기라도 한 듯 별안간 소리쳤다. 「아니, 칠장이들이 일한 건 살인이 난 날이고 이 친구가 거기 간 건 그보다 사흘 전인데? 대체 무얼 묻고 있는 거야?」

「푸! 내가 뒤죽박죽으로 만들었군!」 포르피리가 제 이마를 쳤다. 「 제기랄! 이 일 때문에 머리가 돌아 버리겠어! 」 그는 얼마쯤 미안해하며 라스콜니코프를 향해 말했다. 「일곱 시와 여덟 시 사이에 그 방에서 누가 그 사람들을 보았는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일인지라, 어쩌면 무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아주 뒤죽박죽을 만들었군요.」

「그럼 좀 더 조심해.」 라주미힌이 무뚝뚝하게 한마디 했다.

마지막 말은 복도에서 오간 것이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지나친 정중함으로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그들은 침울하고 뚱한 얼굴로 거리에 나섰고, 몇 걸음을 걷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스콜니코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1. 고골의 희곡 『검찰관』(1836) 1막에서 시장이 의자를 부수는 역사 교사를 두고 하는 말. 포르피리는 이 대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2. 팔랑스테르(phalanstère) —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가 구상한 공동 생활 건물. 천여 명이 한 건물에서 함께 살고 일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당시 러시아 급진 청년들 사이에서 널리 이야기되었다.

3. 이반 대제 종루 — 모스크바 크렘린 안에 있는 종탑으로,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 원전의 「서른다섯 사젠」(1사젠은 약 2.13미터)은 약 75미터로, 저본의 역자 가넷은 이를 「이백오십 피트」로 바꿔 옮겼다.

4. 리쿠르고스 — 스파르타의 제도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입법자. 솔론 —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의 정치가로, 빚으로 인한 노예화를 없애고 법을 새로 세웠다.

5. vive la guerre éternelle — 프랑스어로 「영원한 전쟁 만세」.

6. 새 예루살렘 —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 당시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지상에 세우려 한 이상 사회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

3부 6장

「나는 믿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라주미힌이 어리둥절해하며 라스콜니코프의 논거를 반박하려 애쓰면서 되풀이했다.

그들은 어느새 바칼레예프의 하숙집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와 두냐가 거기서 오래전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주미힌은 논쟁의 열기에 휩싸여 길에서 자꾸만 걸음을 멈추었고, 두 사람이 그 일을 처음으로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사실 자체에 당황하고 또 흥분해 있었다.

「그럼 믿지 마.」 라스콜니코프가 차갑고 무심한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자네야 늘 그렇듯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겠지만, 나는 한 마디 한 마디를 달아 보고 있었어.」

「자네가 의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자들 말을 달아 본 거지…… 흠…… 하기야 나도 인정하네, 포르피리의 말투는 어딘지 이상했고, 그 못된 자묘토프는 한술 더 떴지!…… 자네 말이 맞아, 그자한테 뭔가 있었어 — 그런데 왜? 왜지?」

「어젯밤 사이에 마음이 바뀐 거야.」

「천만에! 그자들이 그런 얼빠진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을 숨기려고, 나중에 자네를 잡으려고 제 패를 감추려고 갖은 애를 썼겠지……. 그런데 죄다 뻔뻔스럽고 조심성이 없었잖아.」

「그자들에게 사실이 있었다면 — 진짜 사실 말이야 — 아니면 적어도 의심할 근거라도 있었다면, 더 캐낼 속셈으로 틀림없이 제 패를 감추려

들었겠지(게다가 벌써 오래전에 수색을 했을 거고). 그런데 그자들에게는 사실이 없어, 단 하나도. 죄다 신기루야 — 죄다 모호하고. 그저 떠다니는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뻔뻔함으로 나를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거야. 어쩌면 그자는 사실이 없다는 데 부아가 나서 분김에 불쑥 내뱉었는지도 모르고 — 아니면 무슨 속셈이 있는지도 모르지…… 똑똑한 사람 같더군. 아는 척해서 나를 겁주려 했는지도 몰라. 여기에는 여기 나름의 심리학이 있는 거야, 이 사람아. 하지만 이걸 죄다 설명하고 있자니 역겹군. 그만두세!」

「 그리고 그건 모욕이야, 모욕이라고! 자네 심정을 알겠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한 마당이니(드디어 그리된 것은 더없이 잘된 일이야 — 나는 기뻐), 나도 이제 솔직히 털어놓겠는데, 나는 그자들한테서 그 생각을 진작에 알아챘어. 물론 그야 아주 희미한 낌새였을 뿐이지 — 넌지시 비치는 정도였지 — 하지만 넌지시 비치는 것조차 어째서 한단 말인가? 저들이 어떻게 감히? 저들 속 어디에, 대체 어디에 그 뿌리가 숨어 있단 말인가? 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자네가 알기나 하나. 생각 좀 해 보게! 가난과 심기증으로 무너진 불쌍한 대학생 하나가, 그것도 섬망을 동반한 혹독한 병을 앓기 바로 전날에, 어쩌면 그 병이 이미 그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이걸 눈여겨보게), 의심 많고 허영심 세고 오만한 데다 여섯 달 동안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만나지 못했고, 누더기를 걸치고 밑창 없는 장화를 신은 채, 하찮은 순경들 앞에 서서 그 무례를 견뎌야 했다는 것, 게다가 코앞에 들이밀린 뜻밖의 빚과 7등관 체바로프의 손에 넘어간 기한 지난 차용증, 역한 페인트 냄새에 레오뮈르 30도[1]의 숨 막히는 공기, 잔뜩 몰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전날 제가 찾아갔던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을 빈속에 겪었으니 — 졸도할 만도 하지 않은가! 그런데 저들은, 저들은 그 위에 죄다 쌓아 올린단 말이야!

빌어먹을 놈들! 자네가 얼마나 짜증이 날지 알겠네만, 나 같으면, 로쟈, 나 같으면 그자들 면전에 대고 껄껄 웃어 주거나, 아니 그보다도 그 상판마다 침을 뱉어 주겠어, 그것도 걸쭉하게. 그리고 사방으로 따귀를 스무 대쯤 날려 주겠네, 따귀란 늘 그렇게 날려야 하듯 요령 있게. 그걸로 끝장을 내 버리겠어. 침이나 뱉고 잊어버리게! 기운 내게. 창피한 노릇이야!」

「그래도 저 친구 말은 참 잘했군.」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침이나 뱉고 잊으라고? 그런데 내일 또 심문이 있잖나?」 그가 쓰디쓰게 말했다. 「내가 정말로 그자들과 해명을 주고받아야 하나? 어제 음식점에서 자묘토프 따위와 말을 섞은 것만 해도 분한 참인데…….」

「제기랄! 내가 직접 포르피리한테 가겠어. 친척인 셈이니 짜내고야 말겠어. 그 속사정을 죄다 나한테 털어놓게 만들 거야! 그리고 자묘토프로 말하자면……」

「이제야 눈치챘군!」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잠깐!」 라주미힌이 별안간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외쳤다. 「잠깐! 자네가 틀렸어. 내가 곰곰이 따져 봤네. 자네가 틀렸어! 그게 어째서 덫인가? 일꾼들에 관한 그 물음이 덫이었다고 자네는 말하지. 하지만 자네가 그 짓을 했다면, 그 집을 칠하는 것을…… 그리고 일꾼들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었겠나? 오히려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겠지, 설령 보았다 해도 말이야. 누가 제게 불리한 것을 인정하겠나?」

「내가 그 짓을 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일꾼들도 그 집도 보았다고 말했을 거야.」 라스콜니코프가 마지못해, 눈에 띄게 역겨워하며 대답했다.

「그런데 어째서 제게 불리하게 말한단 말인가?」

「심문에서 모든 것을 딱 잘라 부인하는 것은 농사꾼이나 가장 서툰 풋내기들뿐이니까. 사람이 조금이라도 트이고 겪어 본 자라면 틀림없이 피할 수 없는 외면의 사실들은 죄다 인정하려 들되, 그것들에 다른 해명을 찾고, 무언가 특별하고 뜻밖인 전환을 끌어들여 그 사실들에 다른 의미를 주고 다른 빛 아래 놓으려 하지. 포르피리는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그럴듯해 보이도록 보았다고 말한 다음 무슨 해명을 붙이리라고 헤아렸을 만해.」

「하지만 그자는 대뜸 일꾼들이 이틀 전에는 거기 있었을 리 없다고, 그러니 자네가 살인이 있던 날 일곱 시 넘어 거기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말했겠지. 그렇게 해서 사소한 데서 자네를 잡았을 거고.」

「그래, 바로 그것을 노린 거야. 내가 곰곰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럴듯한 대답을 서두르다가, 일꾼들이 이틀 전에는 거기 있었을 리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린단 말인가?」

「그보다 쉬운 일이 없지. 영리한 자들이 가장 쉽게 걸려드는 것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일이야. 사람이 교활할수록 단순한 것에 걸려들리라고는 덜 의심하는 법이지. 사람이 교활할수록 그를 잡을 덫은 더 단순해야 하는 거야. 포르피리는 자네가 생각하는 만큼 바보가 아닐세…….」

「그렇다면 그자는 악당이로군!」

라스콜니코프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앞선 대화 내내 음울한 반감을 품고, 분명 무슨 목적에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이어 왔으면서도 이 마지막 설명만은 열을 내어 신명 나게 늘어놓았다는 것이 그에게 이상하게 여겨졌다.

「어떤 대목에는 맛을 들이고 있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순간에 그는 별안간 불안해졌으니, 뜻밖의 섬뜩한 생각이

떠오르기라도 한 것 같았다. 불안은 자꾸만 커져 갔다. 두 사람은 마침 바칼레예프의 집 입구에 이른 참이었다.

「자네 혼자 들어가!」 라스콜니코프가 별안간 말했다. 「나는 곧 돌아올게.」

「어디를 가나? 아니, 바로 여긴데.」

「가야 해, 가야 한다니까. 볼일이 있어……. 반 시간 뒤에 올게……. 그렇게 전해 주게.」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자네와 같이 가겠네.」

「자네까지 나를 괴롭히고 싶은 건가!」 그가 어찌나 쓰라린 짜증을 담아, 어찌나 절망에 찬 눈으로 소리를 질렀던지 라주미힌은 손을 떨구고 말았다. 그는 한동안 층계에 서서, 제 하숙 쪽으로 성큼성큼 멀어져 가는 라스콜니코프를 음울하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이를 갈고 주먹을 움켜쥐며 바로 그날로 포르피리를 레몬처럼 짜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고는, 두 사람이 오래도록 오지 않아 이제는 불안해하고 있을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를 안심시키러 층계를 올라갔다.

라스콜니코프가 집에 닿았을 때 그의 관자놀이는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은 가빴다. 그는 층계를 재빨리 올라가 잠기지 않은 제 방으로 들어서서는 곧바로 걸쇠를 걸었다. 그런 다음 겁에 질려 미친 듯이 구석으로, 물건들을 넣어 두었던 그 벽지 밑 구멍으로 달려가 손을 집어넣고는 몇 분 동안 구멍 속을, 벽지의 갈라진 틈과 주름마다 조심스레 더듬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는 일어나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바칼레예프의 집 층계에 다다를 무렵 그는 문득, 무언가가, 목걸이 하나나 장식 단추 하나, 아니면 노파의 글씨가 적힌 채 그것들을 싸고 있던 종이 조각 한 장이라도 어떻게든 빠져나와 어느 틈에 떨어져 있다가 별안간 뜻밖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제게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서 있었고, 이상하고 굴욕적인, 반쯤 넋이 나간 웃음이 그의 입가를 맴돌았다. 마침내 그는 챙 모자를 집어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생각은 온통 뒤엉켜 있었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대문 밑으로 내려갔다.

「저기 그 사람이 직접 오는군.」 큰 목소리가 외쳤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수위가 제 작은 방 문간에 서서, 헐렁한 겉옷 같은 것에 조끼를 걸치고 소시민처럼 보이는 키 작은 사내에게 그를 가리켜 보이고 있었으니, 그 사내는 멀리서 보면 놀랍도록 여자 같았다. 등이 굽었고 기름때 전 챙 모자를 쓴 머리가 앞으로 늘어져 있었으며, 주름지고 축 처진 얼굴로 보아 쉰 살은 더 되어 보였고, 작은 눈은 살에 파묻힌 채 험상궂고 매섭고 못마땅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 라스콜니코프가 수위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사내는 눈썹 밑으로 그를 슬쩍 훔쳐보았고, 이어 그를 주의 깊게, 천천히 뜯어보더니, 느릿느릿 몸을 돌려 한 마디도 없이 대문을 나서 거리로 나갔다.

「무슨 일이냐니까?」 라스콜니코프가 소리쳤다.

「아, 저 사람이 여기 대학생이 사느냐고 묻더군요, 당신 이름하고 누구 집에 세 들었는지까지 대면서요. 마침 당신이 내려오시기에 가리켜 줬더니 가 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수위도 제법 어리둥절한 눈치였으나 그리 심하지는 않았고,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라스콜니코프는 그 낯선 사내를 뒤쫓아 달려 나갔고, 곧 그가 생각에 잠기기라도 한 듯 눈을 땅에 붙박은 채 여전히 고르고 느릿한 걸음으로 길 건너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내 사내를 따라잡았으나 한동안 그 뒤를 걸었다. 마침내 나란히 서게 되자 그는

사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사내는 곧바로 그를 알아채고 재빨리 그를 보았으나 이내 다시 눈을 떨구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마디도 없이 나란히 일 분쯤 걸었다.

「 당신이 나를 찾았소…… 수위한테? 」 라스콜니코프가 마침내 말했으나,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목소리였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다시 말이 없었다.

「어째서 당신은…… 나를 찾아와 묻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요……. 이게 무슨 뜻이오?」

라스콜니코프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는 말을 또렷하게 내지 못하는 듯했다.

이번에는 사내가 눈을 들어 음울하고 불길한 눈길을 라스콜니코프에게 돌렸다.

「 살인자! 」 그가 별안간, 조용하지만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의 곁에서 계속 걸었다. 다리에 별안간 힘이 빠졌고 차가운 전율이 등골을 타고 내렸으며, 심장은 한순간 멎는 듯하다가 별안간 풀려나기라도 한 것처럼 두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백 걸음쯤 걸었다.

사내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 무슨 뜻이오…… 무엇이……. 누가 살인자란 말이오? 」 라스콜니코프가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살인자요.」 사내가 승리에 찬 증오의 웃음을 띤 채 한층 더 또렷하고 힘주어 대답하고는, 다시 라스콜니코프의 창백한 얼굴과 생기가 꺼진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은 마침 네거리에 이른 참이었다.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왼쪽으로 꺾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선 채로 오래도록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쉰 걸음쯤 갔을 때 사내가 몸을 돌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를 되돌아보는 것이 보였다. 라스콜니코프는 똑똑히 볼 수 없었으나, 사내가 다시 그 차가운 증오와 승리의 웃음을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라스콜니코프는 느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릎을 떨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제 작은 다락방으로 돌아갔고, 챙 모자를 벗어 탁자에 놓은 채 십 분 동안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러고는 기진해 소파에 주저앉아 약하게 앓는 소리를 내며 그 위에 몸을 뻗었다. 눈은 감겨 있었다. 그렇게 그는 반 시간을 누워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몇몇 생각이나 생각의 조각들이, 두서도 맥락도 없는 몇몇 형상이 그의 마음 앞에 떠다녔다 — 어린 시절에 보았거나 언젠가 어디선가 한 번 마주쳤을 뿐 결코 떠올릴 일이 없었을 사람들의 얼굴, V— 교회의 종루, 어느 음식점의 당구대와 그 곁의 어떤 장교, 어느 지하 담배 가게의 엽궐련 냄새, 선술집의 방 하나, 더러운 물로 온통 질척거리고 달걀 껍데기가 흩어진 새까만 뒷계단,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드는 주일의 종소리……. 형상들은 잇달아 이어지며 회오리바람처럼 소용돌이쳤다. 그중 어떤 것은 마음에 들어 붙잡으려 했으나 이내 스러졌고, 그러는 내내 안에서 무언가가 짓눌러 왔으나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때로는 오히려 기분 좋기까지 했다……. 가벼운 떨림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으나 그것 역시 거의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그는 라주미힌의 다급한 발소리와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자는 체했다. 라주미힌이 문을 열고 망설이기라도 하듯 한동안 문간에

서 있다가, 살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서서 조심스레 소파 쪽으로 다가왔다. 라스콜니코프의 귀에 나스타시야의 속삭임이 들렸다.

「깨우지 마세요! 자게 두세요. 저녁이야 나중에 드시면 되지요.」

「그래, 그러자.」 라주미힌이 대답했다. 둘은 조심스레 물러나 문을 닫았다. 다시 반 시간이 흘렀다. 라스콜니코프는 눈을 뜨고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낀 채 다시 반듯이 누웠다.

「 그자는 누구인가? 땅에서 솟아난 저 사내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저자는 죄다 보았다, 그건 분명하다. 그때 저자는 어디 있었나? 어디서 보았단 말인가? 어째서 이제야 땅에서 솟아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흠……」 라스콜니코프는 몸이 차가워지고 떨려 오는 채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니콜라이가 문 뒤에서 찾아낸 그 보석 상자는 —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단서라고? 십만 분의 일만 한 실금 하나를 놓쳐도 그게 이집트 피라미드만 한 증거가 되는 거다!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다 그것을 보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 그는 제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별안간 역겨움과 함께 느꼈다. 「진작 알았어야 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알면서, 내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감히 도끼를 집어 들고 피를 뒤집어썼단 말인가! 미리 알았어야 했다……. 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속삭였다. 이따금 그는 어떤 생각 앞에서 우뚝 멈추어 섰다.

「아니, 그런 자들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다. 모든 것이 허용된 진짜 주인은 툴롱을 들이치고, 파리에서 학살을 저지르고, 이집트에 군대 하나를 잊어버리고 오고, 모스크바 원정에서 오십만 명을 헛되이 버리고도 빌나에서 농담 한마디로 빠져나온다[2]. 그러고는 죽은 뒤에

그에게 우상이 세워지니,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살로 된 것이 아니라 청동으로 된 모양이다!」

별안간 떠오른 엉뚱한 생각 하나가 그를 하마터면 웃길 뻔했다. 「나폴레옹, 피라미드, 워털루, 그리고 침대 밑에 붉은 궤짝을 둔 비쩍 마르고 추저분한 14등관 과부, 노파, 고리대금업자라니 — 이걸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같은 자인들 어떻게 소화하겠는가!…… 저들이 어떻게 소화해 내겠어!…… 미학이 가로막을 테지. 나폴레옹이, 글쎄, 『노파』의 침대 밑으로 기어들겠느냐는 거야! 에이, 시시한 소리!……」

이따금 그는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열에 들뜬 흥분 상태에 빠져들었다. 「노파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는 뜨겁게, 두서없이 생각했다. 「노파는 어쩌면 실수였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아니야! 노파는 그저 병이었을 뿐이야……. 나는 서둘러 넘으려 했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원리를 죽인 거야! 나는 원리를 죽였지만 넘지는 못했어, 이쪽에 멈춰 서고 말았지……. 나는 죽일 줄밖에 몰랐어. 그런데 그것조차 제대로 할 줄 몰랐던 모양이야…… 원리라고? 그 멍청한 라주미힌은 어째서 사회주의자들을 헐뜯었을까? 그자들은 부지런하고 장사에 밝은 사람들이야. 『만인의 행복』이 그들의 사업이지. 아니야, 삶은 내게 단 한 번 주어졌고 다시는 오지 않아. 나는 『만인의 행복』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 나 자신이 살고 싶다, 아니면 차라리 살지 않는 편이 낫다. 나는 『만인의 행복』을 기다리며 주머니에 내 루블을 넣어 둔 채 굶주리는 어머니 곁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만인의 행복에 내 벽돌 한 장을 보태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지. 하하! 그런데 어째서 나를 놓쳐 버렸나? 나는 한 번 살 뿐이고, 나도 원한다고……. 에이, 나는 심미적인 이 한 마리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별안간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 나는 분명히 이 한 마리야.」 그는

그 생각을 움켜쥐고, 그것을 고소해하며, 앙심 섞인 쾌감으로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첫째로, 내가 이 한 마리라는 것을 내가 따져 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지난 한 달 내내 자비로우신 섭리를 성가시게 하며, 내가 제 살덩이의 욕심 때문에 그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흐뭇한 목적을 품고 한 것이라고 증인으로 불러 댔기 때문이지 — 하하! 셋째로, 되도록 공정하게 그 일을 해내겠다고 달아 보고 재어 보고 셈해 보며 겨냥했기 때문이야. 모든 이 가운데서 가장 쓸모없는 한 마리를 골라내고는, 그 여자에게서 첫걸음에 필요한 만큼만, 더도 덜도 아니게 가져오려 했지(그러니 나머지는 그 여자의 유언대로 수도원으로 갔을 테고, 하하!). 그리고 내가 철두철미 이 한 마리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그는 이를 갈며 덧붙였다, 「내가 어쩌면 내가 죽인 그 이보다 더 비열하고 더 역겹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를 죽이고 나면 내가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리라는 것을 미리 느끼고 있었다는 거야. 그 공포에 견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나? 그 천박함! 그 비굴함! 나는 칼을 차고 말에 올라앉은 『예언자』를 이해한다. 알라가 명하시니 『떠는』 피조물은 복종해야 한다! 『예언자』가 옳아, 길을 가로질러 아주 조-오-은 포대를 걸어 놓고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설명 한마디 베풀지 않고 날려 버릴 때 그는 옳아! 복종하라, 떠는 피조물아, 그리고 바라지 마라,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결코, 결코 저 노파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의 머리카락은 땀에 흠뻑 젖었고, 떨리는 입술은 바싹 말랐으며, 두 눈은 천장에 붙박여 있었다.

「어머니, 누이 —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어째서 나는 지금 그들을 미워하는가? 그래, 나는 그들을 미워한다, 그들에게 육체적인 증오를 느낀다, 그들이 곁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지, 기억이 난다……. 그분을

끌어안고서, 만약 그분이 알기만 한다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라니…… 그러면 그분에게 말해 버릴까?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법한 짓이지……. 그분도 나와 같은 사람일 테니까.」 그는 섬망과 씨름하기라도 하듯 억지로 생각을 쥐어짜며 덧붙였다. 「아, 지금 내가 저 노파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저 여자가 되살아난다면 나는 다시 죽일 것 같다! 가엾은 리자베타! 어째서 들어왔던가?…… 그런데 이상하지, 어째서 나는 저 여자를 죽이지도 않은 것처럼 거의 생각하지 않는 걸까? 리자베타! 소냐! 가엾고 순한 것들, 순한 눈을 한……. 사랑스러운 여자들! 어째서 울지 않는가? 어째서 신음하지 않는가? 그들은 모든 것을 내어준다…… 그 눈은 부드럽고 순하다……. 소냐, 소냐! 순한 소냐!」

그는 깜빡 잠이 들었다. 제가 어떻게 거리로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다. 늦은 저녁이었다. 땅거미가 내렸고 보름달이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었으나, 공기 속에는 유난히 숨 막히는 데가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으니, 일꾼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산책을 나와 있었으며, 회반죽과 먼지와 괸 물 냄새가 났다. 라스콜니코프는 침울하고 불안한 채로 걸었고, 무슨 볼일이 있어 나왔다는 것, 서둘러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또렷이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잊어버렸다. 별안간 그는 걸음을 멈추었고, 길 건너편에 한 사내가 서서 제게 손짓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가 길을 건너 그에게 가자 사내는 곧바로 몸을 돌려 고개를 떨군 채 걸어가 버렸으니, 마치 그에게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는 듯했다. 「잠깐, 저자가 정말로 손짓을 했던가?」 라스콜니코프는 의아해하면서도 그를 따라잡으려 했다. 열 걸음쯤 안으로 다가갔을 때 그는 그를 알아보고 겁에 질렸다. 긴 외투를 입은 그 등 굽은 사내였다. 라스콜니코프는 멀찍이서 그를 뒤따랐다. 심장이 두방망이질했다. 두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 들어갔고,

사내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뒤따르는 것을 저자가 알까?」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사내는 어느 큰 집 대문간으로 들어갔다. 라스콜니코프는 대문으로 서둘러 가서, 사내가 돌아보고 제게 신호를 보내는지 들여다보았다. 안뜰에서 사내는 과연 돌아섰고 다시 그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다. 라스콜니코프는 곧바로 그를 따라 안뜰로 들어섰으나 사내는 사라지고 없었다. 첫 번째 층계로 올라갔음이 틀림없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를 뒤쫓아 달려갔다. 두 층 위에서 느리고 고른 발소리가 들렸다. 그 층계는 이상하리만치 낯익어 보였다. 그는 1층의 창에 이르렀다. 달빛이 창유리를 지나 구슬프고 알 수 없는 빛으로 비쳐 들었다. 이어 그는 2층에 이르렀다. 아니! 여기는 페인트공들이 일하고 있던 그 집이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대뜸 알아보지 못했을까? 위쪽 사내의 발소리는 잦아들어 버렸다. 「그러니 어딘가에 멈춰 섰거나 숨은 게 틀림없다.」 그는 3층에 이르렀다. 더 올라가야 하나? 무시무시한 고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올라갔다. 제 발소리가 그를 놀래고 겁먹게 했다. 어찌나 어두운지! 사내는 여기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 그 집은 문이 활짝 열린 채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몹시 어둡고 텅 비어 있었으니, 무엇이든 죄다 치워 버린 것 같았다. 그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달빛에 흠뻑 잠긴 응접실로 들어갔다. 거기 있는 것은 죄다 전과 같았으니, 의자들과 거울과 노란 소파와 액자에 든 그림들이 그대로였다. 커다랗고 둥근 구릿빛 붉은 달이 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토록 고요한 것은 달 탓이다, 무슨 수수께끼를 짜고 있는 거지.」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그는 서서 기다렸고, 오래 기다렸으며, 달빛이 고요해질수록 심장은 더 세차게 뛰어 마침내 아파 왔다. 그래도 여전히 같은 정적이었다. 별안간 그는 나뭇조각이 딱 부러지는 것 같은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고, 다시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잠에서 깬 파리 한 마리가 별안간 날아올라 구슬프게 붕붕거리며 창유리에 부딪쳤다. 그 순간 그는 창과 작은 찬장 사이 구석에 외투 같은 것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저 외투가 왜 여기 있지?」 그는 생각했다. 「전에는 저기 없었는데…….」 그는 조용히 그리로 다가갔고, 그 뒤에 누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레 외투를 젖혔고, 구석의 의자에 앉은 노파가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여자였다. 그는 그 위에 우뚝 섰다. 「무서워하는군.」 그는 생각했다. 그는 살그머니 올가미에서 도끼를 빼내어 노파의 정수리를 한 번, 또 한 번 내리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나무로 만들어지기라도 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겁이 나서 더 가까이 몸을 굽혀 그 여자를 들여다보려 했으나, 그 여자 역시 고개를 더 낮게 숙였다. 그는 바닥까지 몸을 숙여 아래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들여다보다가 공포로 얼어붙었다. 노파는 앉은 채 웃고 있었으니, 소리 없는 웃음으로 몸을 흔들며 그에게 들리지 않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었다. 별안간 그는 침실 문이 조금 열려 있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온 힘을 다해 노파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으나, 도끼가 내리칠 때마다 침실에서 나는 웃음소리와 속삭임은 더 커졌고 노파는 웃음으로 온몸을 들썩일 뿐이었다. 그는 달아나려 했으나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집집의 문은 열려 있었으며, 층계참에도 층계에도 아래쪽 어디에도 사람들이, 늘어선 머리들이 하나같이 바라보면서도 말없이 기다리며 다닥다닥 몰려 있었다.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움켜쥐었고, 다리는 그 자리에 뿌리박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다 잠에서 깼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 그러나 꿈은 이상하게도 이어지는 것 같았으니, 그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내가

문간에 서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다시 감았다. 그는 반듯이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꿈인가?」 그는 의아해하며 다시 눈치채이지 않을 만큼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낯선 사내는 같은 자리에 서서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내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서서 뒤로 문을 조심스레 닫고는, 탁자 쪽으로 가서 여전히 라스콜니코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잠시 멈추었다가, 소리 없이 소파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모자를 제 옆 바닥에 놓고 두 손을 지팡이에 얹고 턱을 두 손에 괴었다. 얼마가 되었든 기다릴 채비가 되어 있음이 분명했다. 라스콜니코프가 훔쳐보아 알아낼 수 있는 한, 그는 이미 젊지 않은 살집 좋은 사내였고, 숱이 많고 빛깔이 옅은, 거의 희다시피 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십 분이 지났다. 아직 밝았으나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방 안은 완전한 정적이었다. 층계에서도 아무 소리 나지 않았다. 다만 큼직한 파리 한 마리가 창유리에 붕붕거리며 부딪치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별안간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았다.

「자,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자는 체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차분하게 웃으며 이상하게 대답했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스비드리가일로프입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지요…….」

---

1. 레오뮈르 — 물의 어는점을 0도, 끓는점을 80도로 잡는 옛 온도 단위. 레오뮈르 30도는 섭씨 약 37.5도에 해당한다.

2. 툴롱 — 1793년 나폴레옹이 포병 지휘로 이름을 얻은 공성전. 파리의 학살은 1795년 왕당파 봉기를 포도탄으로 진압한 일, 이집트의 군대는 1799년 그가 원정군을 남겨 둔 채 홀로 귀국한 일, 모스크바 원정은 1812년의 러시아 침공을 가리킨다. 빌나(오늘날의 빌뉴스)는 그 패주의 길목으로, 그는 빌나 근처 스모르곤에서 군을 버리고 파리로 떠났다.

4부 1장

「아직도 꿈인가?」 라스콜니코프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는 뜻밖의 손님을 조심스럽게, 의심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스비드리가일로프라니! 무슨 헛소리야!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마침내 어리둥절한 채 소리 내어 말했다.

손님은 이 외침에 조금도 놀란 기색이 아니었다.

「두 가지 이유로 찾아왔습니다. 첫째로는, 흥미롭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당신에 대해 이미 많이 들은 터라 당신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싶었고, 둘째로는 당신의 누이 되시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의 이익에 곧바로 관계되는 일에서 당신이 나를 돕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이 없으면 그분은 지금 나를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실 터이니, 나에 대해 편견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들어 주신다면 나는 기대하기를……」

「기대가 틀렸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말을 잘랐다.

「그분들은 어제야 도착하셨지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라스콜니코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제였지요, 나도 압니다. 나 자신은 그저께 도착했고요. 자, 이 말씀은 드리지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나는 나 자신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만, 편견 없이 상식으로 말해서 이 모든 일에서 내 쪽에 특별히 죄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부디 일러 주십시오.」

라스콜니코프는 말없이 계속 그를 바라보았다.

「내 집에서 힘없는 처녀를 괴롭혔고 『파렴치한 제안으로 그 처녀를 모욕했다』 — 그것입니까? (당신 말을 앞질러 두는 겁니다.) 그러나 나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며 et nihil humanum[1]…… 한마디로 나도 마음이 끌리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자라고(그것은 우리 뜻에 달린 일이 아니지요) 가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문제는 이것이지요. 내가 괴물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희생자인가? 그리고 내가 희생자라면 어떻습니까? 내 정열의 대상에게 나와 함께 아메리카로든 스위스로든 달아나자고 청했을 때, 나는 그분에게 더없이 깊은 존경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고 게다가 두 사람 모두의 행복을 마련하리라고 여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은 정열의 종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아마도 나는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요점이 아닙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역겨워하며 말을 잘랐다. 「그저 당신이 옳든 그르든 당신이 역겹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다들 당신과 상종하려 들지 않고 당신을 쫓아내는 거고요. 그러니 가십시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별안간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한테는 에둘러 갈 수가 없군요.」 그가 더없이 솔직한 투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에둘러 구슬려 볼까 했는데, 당신은 대번에 옳은 자리를 잡아 버리는군요!」

「지금도 나를 에둘러 구슬리려 들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드러내 놓고 웃으며 외쳤다. 「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bonne guerre[2]라는 것이고, 속임수 가운데 가장 죄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당신은 내 말을 잘랐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원에서 있었던 일만

아니었다면 불쾌한 일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마르파 페트로브나도 치워 버리셨다더군요?」 라스콜니코프가 무례하게 말을 잘랐다.

「아, 그것도 들으셨군요? 하기야 들으셨겠지요……. 그러나 당신 물음에 대해서는 정말 무어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라면 내 양심은 아주 편안하기는 합니다만. 내가 그 일로 무언가 켕기는 데가 있다고는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규정대로, 순서대로였고, 의사의 검사는 푸짐한 식사와 포도주 거의 한 병 뒤에 곧바로 물에 들어간 탓에 온 졸중이라고 진단했으며, 실상 그 밖의 것은 밝혀질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요즘, 특히 여기로 오는 기차 안에서 내가 혼자 곱씹어 온 것을 말씀드리지요. 내가 그 모든…… 재앙에 어떤 뜻에서 도덕적으로, 이를테면 짜증을 돋운다든가 하는 식으로 한몫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웃었다.

「그런 일로 애를 쓰시다니 놀랍군요!」

「그런데 무엇이 우스우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회초리로 딱 두 번 때렸을 뿐이고 — 자국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나를 냉소가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나로서 얼마나 몹쓸 짓이었는지 따위는 나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나의, 말하자면, 그 욱한 일을 아마 반겼으리라는 것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당신 누이 이야기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진 뒤였고, 사흘 동안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집에 들어앉아 있어야 했으니, 읍내에 들고 나가 내보일 것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편지로 사람들을 어지간히도 지루하게 만들어 놓은 터였습니다(그 사람이

편지를 읽고 다닌 이야기는 들으셨겠지요). 그런데 별안간 그 회초리 두 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맨 먼저 한 일은 마차를 내오라고 이른 것이었지요……. 여자들이 아무리 분개한 티를 내 보여도 실은 모욕당하는 것을 몹시, 몹시 반가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예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상 인간이라는 것들은 대체로 모욕당하기를 아주 좋아하지요, 눈여겨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자들의 유일한 낙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지요.」

한때 라스콜니코프는 일어나 나가 버림으로써 이 대담을 끝내 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떤 호기심이, 나아가 일종의 속셈 같은 것이 그를 잠시 머무르게 했다.

「싸움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아니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마르파 페트로브나와 나는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고, 우리는 아주 화목하게 살았으며 그 사람은 늘 나를 흡족해했지요. 나는 칠 년을 함께 사는 동안 채찍을 딱 두 번 썼을 뿐입니다(성격이 아주 애매한 세 번째 경우는 세지 않고요). 처음은 혼인하고 두 달 뒤, 시골로 내려간 직후였고, 마지막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내가 그런 괴물, 그런 반동, 그런 농노 부리는 주인인 줄 아셨습니까? 헤헤…… 그런데 말이지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몇 해 전 저 이로운 공개[3]의 시절에,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어떤 귀족 하나가 기차 안에서 독일 여자를 두들겨 팼다 해서 온 신문에서, 어디서나 망신을 당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지요? 바로 그 무렵, 내 생각으로는 바로 그해에 『시대』의 파렴치한 행동이 있었지요(아시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밤』, 그 공개 낭독 말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그 검은 눈동자 말입니다![4] 아, 우리 젊은 날의 황금 같은 시절은 어디로 갔는지요?). 자,

그 독일 여자를 팬 신사로 말하자면 나는 그에게 아무 동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동정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해야겠습니다, 때로는 어찌나 사람 속을 긁는 『독일 여자들』 이 있는지, 제 자신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진보적인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참으로 인도적인 관점이지요, 장담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또 별안간 웃음을 터뜨렸다. 라스콜니코프는 이자가 마음속에 굳은 목적을 품고 있으며 그것을 제 안에 감추어 둘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보았다.

「며칠 동안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그가 물었다.

「 거의 아무하고도요. 내가 이렇게 붙임성 좋은 사람이라는 게 놀라우신 모양이지요?」

「아니요, 나는 당신이 지나치게 붙임성 좋은 사람이라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 당신의 무례한 물음에 내가 기분 상해하지 않아서 말입니까? 그것입니까? 그런데 무엇 하러 기분을 상합니까? 물으신 대로 답했을 뿐인데요.」 그는 놀랄 만큼 순박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는 어쩐지 생각에 잠긴 투로 말을 이었다. 「특히 지금은 할 일도 없고요……. 하기야 내가 무슨 속셈이 있어 당신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더구나 당신 누이를 어떤 일로 만나고 싶다고 내가 말씀드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털어놓자면 나는 몹시 지루합니다. 특히 지난 사흘이 그랬지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러나 당신 자신도 어쩐지 몹시 이상해 보입니다. 무어라 하시든, 당신에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이지요…… 바로 이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즈음 들어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자, 자, 그만두지요, 그만두겠습니다, 인상 쓰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곰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침울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당신은 곰 같은 데가 아예 없을지도 모르지요.」 그가 말했다. 「실상 나는 당신이 아주 교양 있게 자란 사람이거나, 적어도 경우에 따라 그런 사람처럼 처신할 줄은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는 누구의 의견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건조하게, 심지어 얼마쯤 거만한 기색까지 띠고 대답했다. 「그러니 상스러움이 우리 풍토에 그토록 편리한 외투가 되어 주는 마당에, 이따금 상스럽게 굴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더구나 타고나기를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말이지요.」 그가 다시 웃으며 덧붙였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 아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연줄이 없지 않은』 분이시지요. 그러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나한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정작 요점에는 답하지 않은 채 시인했다. 「벌써 몇몇은 만났지요. 사흘 동안 빈둥거리며 돌아다녔으니, 내가 그들을 보았거나 그들이 나를 보았거나 했습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지요. 나는 옷차림이 번듯하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으로 쳐지며, 농노 해방도 나한테는 아무 타격을 주지 않았는데, 내 재산이라는 것이 주로 숲과 물가 풀밭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진작부터 그들이 진저리 나던 참이거든요. 여기 온 지 사흘인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도시입니까, 이곳은! 어쩌다 우리 사이에 이런 것이 생겨났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기들과 온갖 신학생들의 도시라니. 그래요, 팔 년 전에 여기서 빈둥거리며 놀아 댈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내 유일한 희망은 해부학입니다, 원 참, 정말 그렇습니다!」

「해부학이라고요?」

「그런데 클럽이니 뒤소[5]니 당신들의 그 옐라긴섬 끝 산책길이니, 하기야 진보라는 것까지도 — 뭐, 그런 것은 죄다 나 없이도 굴러갈 수 있겠지요.」 그는 이번에도 물음을 알아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게다가 사기 노름꾼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기 노름꾼이셨던 겁니까?」

「어찌 안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팔 년 전에 우리는 어엿한 한 패였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교계의 사내들이었으며, 한때를 아주 잘 보냈습니다. 죄다 교양 있게 자란 사람들이었지요, 시인이며 재산가며. 그리고 실상 우리 러시아 사회에서는 대체로 한 번 두들겨 맞아 본 자들에게서 가장 훌륭한 몸가짐이 나오는 법인데, 그 점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시골에서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네진에서 온 비루한 그리스인 하나 때문에 빚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는 했지요. 그때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나타나 그자와 흥정을 해서 은 삼만[6]에 나를 사냈습니다(내가 진 빚은 칠만이었고요). 우리는 합법적인 혼인으로 맺어졌고 그 사람은 나를 보물처럼 시골로 실어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나보다 다섯 살 위였습니다. 나를 몹시 아꼈지요. 칠 년 동안 나는 시골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념해 두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내 머리 위에 서류 한 장을, 남의 이름으로 된 삼만 루블짜리 차용증을 들고 있었으니, 내가 무슨 일로든 뻗대기로 마음먹었다가는 대번에 덫에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자들은 그런 일에서 아무 모순도 느끼지 못하지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그 여자한테서 내빼셨겠군요?」

「무어라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나를 붙들어 둔 것이 그 서류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딱히 다른 데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내가 지루해하는 것을 보고 손수 외국에 다녀오라고 두어 번 권하기까지 했지만, 나는 전에도 외국에 나가 보았고 거기서는 늘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무 까닭도 없이 그렇습니다만, 해돋이며 나폴리만이며 바다며 —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서글퍼집니다. 가장 역겨운 것은 정말로 서글퍼진다는 점이지요! 아니요, 고국이 낫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제 자신은 봐줄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제라도 북극 탐험이나 떠날까 싶습니다, 나는 j'ai le vin mauvais[7]인 데다 술이 싫은데 남은 것이라고는 술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해 볼 만큼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일요일에 베르크가 유수포프 공원에서 커다란 기구를 타고 올라가는데 삯을 받고 사람을 태워 준다더군요[,8]. 정말입니까?」

「아니, 올라가실 겁니까?」

「나는…… 아니요, 아, 아닙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정말로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중얼거렸다.

「무슨 뜻인가? 진심인가?」 라스콜니코프는 의아했다.

「 아니요, 나를 붙들어 둔 것은 그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생각에 잠겨 말을 이었다. 「시골을 떠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러기로 한 것이었고, 거의 일 년 전에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내 영명축일[9]에 그 서류를 돌려주었으며 상당한 액수의 돈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이 있었으니까요. 『보세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믿잖아요,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이 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나는 영지를 제법 반듯하게 건사했고 이웃에서는 나를 알아줍니다. 책도 주문해 들였지요.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공부에 너무 빠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몹시 그리우신 모양이군요?」

「 그립냐고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정말로, 어쩌면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유령을 믿습니까?」

「무슨 유령 말입니까?」

「그야 보통 유령이지요.」

「당신은 믿습니까?」

「 안 믿는다고 해 두지요, pour vous plaire[10]……. 딱 잘라 아니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이기는 합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를 얼마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 마르파 페트로브나께서 찾아와 주시지요. 」 그가 입을 비틀어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찾아와 주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세 번 왔습니다. 처음 본 것은 바로 장례를 치른 날, 땅에 묻고 한 시간 뒤였습니다. 내가 여기로 떠나오기 전날이었지요. 두 번째는 그저께 동틀 녘, 오는 길에 말라야 비셰라 역에서였고, 세 번째는 두 시간 전에 내가 묵고 있는 방에서였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깨어 계셨습니까?」

「말짱히 깨어 있었습니다. 매번 눈이 또렷이 떠져 있었지요. 그 사람은 와서 잠깐 나에게 말을 하고는 문으로 나갑니다 — 늘 문으로요. 소리가 들리다시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라스콜니코프가 별안간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기가 그 말을 한 데 놀랐다. 그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놀라 물었다. 「정말입니까? 우리 사이에 무언가 통하는 데가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날카롭게, 격하게 외쳤다.

「안 했던가요?」

「안 했습니다!」

「한 줄 알았는데요. 들어와서 당신이 눈을 감고 누운 채 자는 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 대뜸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요.」

「『이 사람』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라스콜니코프가 외쳤다.

「 무슨 뜻이냐고요? 나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기도 어리둥절하다는 듯 천연스럽게 중얼거렸다.

잠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건 죄다 헛소리입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그 여자가 당신에게 오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사람 말입니까! 믿어지십니까, 더없이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 사람이란 이상한 것이어서 —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나는 지쳐 있었지요, 아시겠지만 장례 예배며 장례 의식이며 그 뒤의 추도연이며 말입니다. 마침내 서재에 혼자 남게 되었지요. 나는 엽궐련에 불을 붙이고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바쁘시더니,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식당 시계 태엽 감는 걸 잊으셨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칠 년 내내 나는 주마다 그 시계 태엽을 감았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늘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이리로 길을 떠났습니다. 동틀 녘에 역에서 내렸는데, 지쳐서 자다 깬 참이라 눈이 반쯤 감긴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 보니 별안간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카드 한 벌을 손에 들고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길 떠나는 점을 쳐 드릴까요,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그 사람은 점치는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쳐 달라고 하지 않은 일로 나는 두고두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겁에 질려 달아났고, 게다가 마침 종이 울렸지요. 오늘은 싸구려 밥집에서 형편없는 식사를 하고 나서 속이 몹시 더부룩한 채로 앉아 있었는데,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노라니 별안간 또 마르파 페트로브나였습니다. 자락이 긴 새초록 비단 드레스를 입고 아주 맵시 있게 차려입고 들어왔지요. 『안녕하세요,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내 드레스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스카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아니스카는 시골에서 바느질하던 계집으로, 모스크바에서 배워 온 우리 집의 옛 농노 처녀였고 제법 반반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앞에 서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는 드레스를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런 하찮은 일로 나를 찾아오는 수고를 하시다니 놀랍군요, 마르파 페트로브나.』 『어머나, 세상에, 여보, 당신을 좀

성가시게 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약을 올리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마르파 페트로브나.』 『꼭 당신다우시네요,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아내를 묻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신붓감을 찾아 나서다니 당신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고르기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당신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행복이 되지 못하리라는 걸 나는 알아요, 당신은 점잖은 사람들 모두에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는 나가 버렸는데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헛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끼어들었다.

「나는 거짓말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 물음의 무례함을 알아채지 못한 듯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그러면 지난날에도 유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본 적이 있지요, 그러나 평생에 딱 한 번, 육 년 전입니다. 필카라는 농노가 있었는데, 그를 묻고 난 직후에 내가 깜빡하고 『필카, 내 담뱃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들어와서 내 담뱃대들이 있는 찬장으로 가더군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저놈이 앙갚음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죽기 바로 전에 우리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감히 팔꿈치가 뚫린 옷으로 들어오느냐?』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가라, 이 고얀 놈아!』 그는 돌아서서 나갔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르파 페트로브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추도 기도[11]를 올려 주고 싶었지만 부끄러웠지요.」

「의사에게 가 보셔야겠습니다.」

「당신이 말해 주지 않아도 내가 성치 않다는 것은 압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당신보다 다섯 배는 튼튼하다고 봅니다. 나는 유령이 보인다고 믿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유령이 있다고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대놓고 화를 내며 외쳤다.

「사람들은 대체로 무어라고 합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옆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당신은 병들었으니 당신에게 나타나는 것은 실체 없는 환영일 뿐이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유령이 병든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만, 그것은 유령이 병든 사람에게가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유령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없지요!」 라스콜니코프가 짜증스럽게 우겼다.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 이런 논거는 어떻습니까(좀 거들어 주십시오). 유령이란 이를테면 다른 세계들의 조각이고 부스러기이며, 그 세계들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물론 그것을 볼 까닭이 없지요, 그는 무엇보다 이 땅의 사람이고 온전함과 질서를 위해 오직 이 삶만을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병들자마자, 몸의 정상적인 지상의 질서가 깨지자마자 그는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병이 깊어질수록 그 다른 세계와 닿는 일도 많아져서, 사람이 죽는 순간 곧바로 그 세계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오래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세를 믿는다면 그것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거미밖에 없다면, 아니면 그런 종류의 무엇밖에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가 별안간 말했다.

「미친 사람이군.」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늘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엇, 광대하고 광대한 무엇으로 그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반드시 광대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 대신에, 그것이 시골 목욕간 같은 작은 방 하나이고, 시커멓고 그을음투성이이고 구석마다 거미가 있고, 영원이란 그게 다라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따금 그런 식으로 그려 봅니다.」

「그보다 더 공정하고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그려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라스콜니코프가 괴로움에 차서 외쳤다.

「더 공정하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쩌면 그것이 공정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만들었다면 틀림없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아리송한 웃음을 띠고 대답했다.

이 끔찍한 대답에 라스콜니코프는 온몸이 싸늘해졌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더니 별안간 웃기 시작했다.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그가 외쳤다. 「반 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 본 적도 없었고 서로를 적으로 여겼으며, 우리 사이에는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옆으로 밀쳐 두고 우리는 이런 문학 속으로까지 내달아 버렸군요! 우리가 같은 부류라고 한 내 말이 틀렸습니까?」

「실례지만,」 라스콜니코프가 짜증스럽게 말을 이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는 영광을 베푸셨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바쁩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가 봐야 합니다.」

「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당신 누이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루쥔 씨, 표트르 페트로비치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지요?」

「내 누이에 대한 물음은 일절 삼가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아 주실 수는 없습니까? 당신이 정말 스비드리가일로프라면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그 이름을 입 밖에 낼 수 있는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바로 그분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만 서둘러 주십시오.」

「이 루쥔 씨는 내 아내 쪽으로 나와 인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를 반 시간만 보았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당신 나름의 판단이 섰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에게 어울리는 짝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너그럽게, 그리고 분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지요. 나는 당신에 대해 들은 모든 것으로 미루어, 세속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고 이 혼담을 깨뜨릴 수만 있다면 당신이 몹시 기뻐하시리라고 짐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직접 알고 보니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이건 죄다 아주 순진한 소리군요…… 실례지만, 당신으로서는 뻔뻔한 소리라고 했어야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 내가 내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음 놓으십시오, 로지온 로마노비치, 내가 내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면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 심리적으로 기이한 것을 하나 털어놓지요. 조금 전에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에 대한 내 사랑을 변호하면서 나는 나 자신이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나는 지금 사랑의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저-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실상 놀라고 있지요, 정말로 무언가를 느끼기는 했었으니까요……」

「한가함과 방탕 덕분이었겠지요.」 라스콜니코프가 끼어들었다.

「나는 분명 한가하고 방탕합니다, 그러나 당신 누이에게는 나 같은 자조차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자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죄다 헛소리라는 것을 이제 나 자신이 압니다.」

「그것을 안 지 오래됐습니까?」

「 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주 확실해진 것은 그저께, 페테르부르크에 닿은 바로 그 순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모스크바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의 손을 얻으려고, 루쥔 씨를 밀어내려고 가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었지요.」

「 말을 끊어 죄송합니다만, 부디 짧게 줄이고 찾아오신 용건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나는 바쁩니다, 나가 봐야 합니다……」

「 더없이 기꺼이 그러지요. 여기 닿아서 어떤……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 미리 처리해 두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척 아주머니에게 맡겨 두었고, 살림은 넉넉히 마련되어 있으며, 그 아이들에게 내가 몸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나야 어지간히도 훌륭한 아비가 되겠지요! 나는 일 년 전에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례합니다, 이제 곧 본론으로 갑니다. 하게 될지도 모를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는 루쥔 씨 문제도 매듭짓고 싶습니다. 그를 그토록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르파 페트로브나와 다투었기 때문이지요, 그 혼담을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요리해 차려 냈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주선으로, 원하신다면 당신이 보는 앞에서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만나, 우선 그분이 루쥔 씨에게서 얻을 것이라고는 해악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지난날의 모든 불쾌한 일에 대해 용서를 빌고, 만 루블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사 청하여 루쥔 씨와의 파혼을 수월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분 자신도 길만 보인다면 그 파혼을 싫어하지는 않을 듯하니까요.」

「당신은 확실히 미쳤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화가 났다기보다 놀라서 외쳤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만 이 만 루블은 완전히 쓸 데가 없는 돈이고, 나에게는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받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더 어리석은 방식으로 흩어 버리겠지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 내 양심은 아주 편안합니다, 나는 아무 속셈 없이 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끝내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도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요점은 이것이지요, 내가 몹시 존경하는 당신 누이에게 내가 실제로 얼마간의 괴로움과 불쾌함을 끼쳤고, 그래서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나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 보상하기를 원하는 것도, 그 불쾌함을 갚아 드리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분에게 이로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내가 결국 해악밖에는 끼치지 못할 특권을 타고난 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내 제안에 백만분의 일이라도 사욕이 섞여 있었다면 나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 놓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섯 주 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내놓았으면서 이제 와 겨우 만 루블만 내놓지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나는 어쩌면 머지않아 어떤 젊은 아가씨와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그것만으로도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에게 무슨 흑심이 있다는 의심은 막아 줄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은 드리지요. 루쥔 씨와 결혼한다 해도 그분은 어차피 돈을 받는

것이며, 다만 다른 남자에게서 받는 것일 뿐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로지온 로마노비치, 차분하고 조용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스비드리가일로프 자신은 이 말을 하는 동안 더없이 차분하고 조용했다.

「그만 말씀하시기를 청합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어느 모로 보나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무례입니다.」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은 제 이웃에게 해악밖에 끼칠 수 없고, 하찮은 관습의 형식 때문에 손톱만 한 선을 행하는 것조차 막힌다는 말이 되지요. 그건 터무니없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죽어서 유언으로 그 돈을 당신 누이에게 남긴다면, 설마 그분이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아마 마다할 겁니다.」

「아, 아닐걸요, 정말로. 하기야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러라지요. 다만 만 루블이란 경우에 따라 아주 근사한 물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한 말을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에게 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니요,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로지온 로마노비치, 나는 몸소 그분을 만나려고 애써야 할 것이고, 그러느라 그분을 성가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하면 그분을 만나려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어라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분을 한 번은 꼭 보고 싶기는 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유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될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일어나 모자를 집었다. 「딱히 당신을 성가시게 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럴 셈을 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기야 오늘 아침에 당신 얼굴이 몹시 인상에 남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어디서 나를 보았습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불안하게 물었다.

「우연히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나와 닮은 데가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더군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제넘게 파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기 노름꾼들과도 무던히 잘 지냈고, 내 먼 친척이 되는 대단한 어른 스비르베이 공작을 한 번도 지루하게 한 적이 없으며, 프릴루코바 부인의 기념첩에 라파엘로의 성모에 대해 적어 넣을 줄도 알았고, 칠 년 동안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옛날에는 건초 시장의 뱌젬스키의 집[12]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으며, 어쩌면 베르크와 함께 기구를 타고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행은 곧 떠나십니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무슨 여행 말입니까?」

「그야 그 『여행』 말입니다, 당신이 손수 말씀하셨잖습니까.」

「여행이요? 아, 그렇지요. 내가 여행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건 넓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그가 덧붙이고는 별안간 크고 짧은 웃음을 한 번 터뜨렸다. 「어쩌면 여행 대신에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혼처를 맞춰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요?」

「그렇습니다.」

「어느 틈에 그럴 짬이 있었습니까?」

「그건 그렇고 나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한 번 보고 싶어 몹시 애가 탑니다. 간곡히 청합니다. 자, 그럼 우선 이만 가 보겠습니다. 아, 그렇지. 잊은 것이 있군요. 당신 누이에게 전해 주십시오, 로지온 로마노비치,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유언에서 그분을 잊지 않고 삼천 루블을 남겼다고요. 그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렇게 정해 두었고, 그 일은 내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두세 주 안에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자, 삼가 물러갑니다. 나는 당신 아주 가까이에 묵고 있습니다.」

나가던 길에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문간에서 라주미힌과 맞부딪쳤다.

---

1. et nihil humanum — 라틴어. 테렌티우스의 희극에 나오는 「나는 인간이니 인간의 일로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고 여긴다」에서 온 구절로, 저본은 「그리고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까지만 적고 말을 끊는다.

2. bonne guerre — 프랑스어로 「정정당당한 싸움」. 술수를 쓰되 규칙은 어기지 않았다는 뜻의 관용구다.

3. 이로운 공개 — 크림 전쟁 패전 뒤인 185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에서 검열이 느슨해지고 신문이 관리와 지주의 비행을 들추기 시작한 시기를 가리킨다. 당시 이 풍조를 부르던 말(글라스노스트)을 저본은 publicity로 옮겼다.

4. 『시대』 — 1861년 페테르부르크에서 나오던 주간지. 그해 어느 문학의 밤에서 한 부인이 푸시킨의 미완성 작품 『이집트의 밤』을 낭독하자 이 잡지가 그 부인을 조롱하는 글을 실었고, 온 언론이 들고일어나 한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도스토옙스키도 자기 잡지에서 그 부인을 편들었다.

5. 뒤소 — 당시 페테르부르크에 있던 프랑스식 고급 음식점.

6. 은 삼만 — 원문은 유다가 예수를 판 값 「은 삼십」(마태복음 26:15)의 낱말(сребреники)을 그대로 써서 삼만 루블을 부른다. 제 몸값을 유다의 은전에 빗댄 농담이다.

7. j'ai le vin mauvais — 프랑스어로 「나는 술버릇이 사납다」.

8. 베르크 — 당시 페테르부르크에서 삯을 받고 기구 비행을 보여 주던 흥행사. 유수포프 공원은 폰탄카 강가에 있던 공원으로 기구 띄우기가 자주 열렸다.

9. 영명축일 — 정교회에서 자기 세례명과 같은 이름을 가진 성인을 기리는 날. 러시아에서는 생일보다 이날을 더 크게 쇠어 선물을 주고받았다.

10. pour vous plaire — 프랑스어로 「당신 좋으시라고」.

11. 추도 기도 — 정교회에서 죽은 이를 위해 따로 올리는 기도 예배(파니히다). 유족이 성당이나 집에서 사제를 청해 올렸다.

12. 뱌젬스키의 집 — 건초 시장 부근에 있던 뱌젬스키 공작 소유의 큰 셋집 무리.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빈민굴로, 날품팔이와 부랑자와 도둑이 뒤섞여 묵는 곳이었다.

4부 2장

여덟 시가 다 되어 있었다. 두 젊은이는 루쥔보다 먼저 닿으려고 바칼레예프의 집으로 서둘러 갔다.

「그런데 그게 누구야?」 거리에 나서자마자 라주미힌이 물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야, 누이가 그 집에서 가정교사로 있을 때 모욕을 당했다던 그 지주 말이야. 그자가 구애랍시고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바람에 누이는 그 아내 마르파 페트로브나한테 쫓겨났어. 그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나중에 두냐한테 용서를 빌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죽었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게 그 여자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자가 몹시 무서워. 그자는 아내 장례를 치르자마자 곧바로 여기로 왔어. 아주 이상한 자고, 무언가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어…….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두냐를 그자한테서 지켜야 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알아듣겠어?」

「지켜야 한다고! 그자가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한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맙다, 로쟈……. 지킬 거야, 우리가 지킬 거야. 그자가 어디 사는데?」

「몰라.」

「왜 안 물어봤어? 아깝게 됐군! 그래도 내가 알아내지.」

「그자를 봤어?」 잠시 뒤에 라스콜니코프가 물었다.

「봤지, 눈여겨봤어, 아주 잘 봐 뒀어.」

「정말로 봤어? 똑똑히 봤느냐고?」 라스콜니코프가 다그쳤다.

「그래, 또렷이 기억해. 천 명 가운데서도 알아볼 수 있어. 나는 얼굴은 잘 기억하는 편이야.」

두 사람은 다시 말이 없었다.

「흠!…… 그럼 됐어.」 라스콜니코프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게…… 자꾸만 그게 헛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다들」 라스콜니코프가 입을 비틀어 웃는 꼴을 만들며 말을 이었다. 「내가 미쳤다고 하잖아. 나는 방금 어쩌면 내가 정말로 미쳤고 헛것을 본 것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글쎄, 누가 알겠어? 어쩌면 나는 정말로 미쳤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요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 죄다 상상일 뿐인지도 모르지.」

「에이, 로쟈, 그자들이 또 너를 심란하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그자가 뭐라고 했어, 무엇 하러 왔대?」

라스콜니코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라주미힌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 봐.」 그가 말을 꺼냈다. 「내가 너한테 갔더니 너는 자고 있더라. 그다음에 우리는 저녁을 먹었고 나는 포르피리한테 갔는데, 자묘토프가 아직 거기 있더군. 말을 꺼내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 그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모양인데, 그러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포르피리를 창가로 끌고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 그는 딴 데를 보고 나도 딴 데를 봤지. 끝내 나는 그 못생긴 낯짝에 주먹을 들이대고 친척으로서 대가리를 부숴 놓겠다고 했어. 그는 나를 쳐다보기만 하더군. 나는 침을 퉤 뱉고 나와 버렸어. 그게 다야. 아주 멍청한 짓이었지. 자묘토프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일을 망쳐 놨다고 여겼는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기막힌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우리가 왜 속을 썩여야 하지? 물론 네가 무슨 위험에 빠져 있다거나 하면 몰라도, 네가 왜 신경을 써야 해? 너는 이 일과 아무 상관도 없잖아. 그런 자들이야 눈곱만큼도 신경 쓸 것 없어. 나중에 우리가 그자들을 비웃어 주면 되고, 내가 네 처지라면 전보다 더 그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겠어. 나중에 그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 침이나 뱉고 잊어버려! 나중에 두들겨 패 줄 수도 있으니, 지금은 비웃어 주자!」

「그렇겠지.」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그런데 너는 내일 무슨 말을 하려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 순간까지 그는 라주미힌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라스콜니코프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포르피리를 찾아갔다는 라주미힌의 이야기는 그에게 거의 흥미가 없었으니, 그 뒤로 오고 간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복도에서 그들은 루쥔과 마주쳤다. 그는 여덟 시 정각에 도착하여 방 번호를 찾고 있었고, 그리하여 셋은 인사도 나누지 않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함께 들어갔다. 젊은이들이 먼저 들어섰고,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예의를 차리느라 복도에서 외투를 벗으며 잠시 꾸물거렸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곧바로 나와 문간에서 그를 맞았고, 두냐는 오라버니를 맞고 있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안으로 들어와 제법 상냥하게, 그러나 갑절로 위엄을 차리며 부인들에게 인사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쯤 갈피를 잃었고 아직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역시 조금 어색해하던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서둘러 모두를 사모바르가 끓고 있는 둥근 탁자에 앉혔다. 두냐와 루쥔은 탁자 양 끝에 마주 앉았다. 라주미힌과 라스콜니코프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를 마주 보고 앉았는데, 라주미힌은 루쥔 옆이었고 라스콜니코프는 누이 옆이었다.

잠시 침묵이 뒤따랐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짐짓 천천히 향내가 코를 찌르는 고운 아마포 손수건을 꺼내어, 덕망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제 위신이 얼마쯤 손상되었다고 느끼며 해명을 받아 내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의 태도로 코를 풀었다. 복도에서 그에게는 외투를 벗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가 버림으로써 두 부인에게 날카롭고 분명한 벌을 주고 사태의 무거움을 깨닫게 해 주자는 생각이 떠올랐었다. 그러나 그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해명을 듣고 싶었다. 제 명령이 그토록 대놓고 무시되었다면 그 뒤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나았다. 벌을 주는 것이야 그의 손에 달린 일이었고 그럴 시간은 언제든 있을 터였다.

「 여행길은 순조로우셨으리라 믿습니다. 」 그가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에게 관청투로 물었다.

「네, 하느님 덕분에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그 말씀을 들으니 흡족합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께서도 과히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젊고 튼튼해서 지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머니께는 몹시 힘든 길이었지요.」 두냐가 대답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나라의 길은 그 길이가 끔찍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 어머니 러시아 』 는 광대한 나라니까요…….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야 간절했으나 어제는 두 분을 맞으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불편 없이 지나갔으리라 믿습니다만?」

「 아, 아니에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모든 것이 정말 낙담스러웠어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남다른 억양으로 서둘러

말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몸소 어제 드미트리 프로코피치를 보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말이지 우리는 그대로 낭패를 보았을 거예요. 자, 이분이세요!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라주미힌.」 그녀는 그렇게 덧붙이며 그를 루쥔에게 소개했다.

「 이미 그 영광을…… 어제 누렸습니다. 」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라주미힌 쪽으로 적의 어린 곁눈질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얼굴을 찌푸리고 입을 다물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사교의 자리에서 겉으로는 아주 정중하고 예절을 몹시 따지면서도, 무슨 일에서건 제 뜻이 거슬리는 순간 아주 당황하여 우아하고 활기찬 사교계 인사라기보다 밀가루 부대에 가까워지는 부류에 속했다. 다시 모두가 잠잠해졌다. 라스콜니코프는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너무 일찍 말문을 열고 싶지 않았다. 라주미힌은 할 말이 없었으므로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다시 안절부절못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죽었다는데, 들으셨어요?」 그녀는 제일가는 이야깃거리에 기대어 말문을 열었다.

「 물론 들었습니다. 곧바로 통지를 받았지요. 그리고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아내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서둘러 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려고 왔습니다. 적어도 본인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더없이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페테르부르크로요? 여기로요?」 두냐가 불안하게 물으며 어머니와 눈길을 주고받았다.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이 그토록 빨랐다는 점과 그에 앞선 온갖 사정을 헤아려 보면, 틀림없이 무슨 속셈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기서까지 두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가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 귀하께서도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께서도 불안해하실 까닭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두 분 스스로 그와 연락을 트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지금 그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알아내는 중입니다.」

「아, 표트르 페트로비치, 지금 당신이 저를 얼마나 놀라게 하셨는지 모르실 거예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말을 이었다. 「저는 그 사람을 두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무섭다고,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죽은 것도 그 사람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가 그 모욕이 끼친, 말하자면 도덕적 영향으로 일의 진행을 앞당기는 데 한몫했으리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의 전반적인 처신과 도덕적 성격에 관해서라면 본인도 귀하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가 지금 넉넉한지,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정확히 무엇을 남겼는지는 알지 못하나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 페테르부르크에서 그에게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곧바로 옛 버릇으로 되돌아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자는 그런 부류 가운데서도 가장 타락하고 가장 비열하게 못된 자입니다. 본인에게는, 불행히도 그에게 반하여 여덟 해 전에 그의 빚을 갚아 준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또 다른 방식으로도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적지 않은 근거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 부인이 애쓰고 희생한 덕분에, 환상적이고 살인적이라 할 만한 잔학성이 얽혀 있어 시베리아 유형을 받고도 남았을 형사 사건 하나가 처음부터 덮였습니다. 알고 싶으시다면, 그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 세상에!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라스콜니코프는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 일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은 사실인가요?」 두냐가 엄하게, 힘주어 물었다.

「본인은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비밀로 일러 준 것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말씀드려 두어야겠는데, 법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사건은 전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레슬리히라는 외국인 여자가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줄 압니다만, 돈을 이자를 받고 조금씩 꾸어 주고 다른 심부름도 하는 여자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오랫동안 그 여자와 가깝고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먼 친척이, 조카딸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함께 사는 아이가 있었는데 귀먹고 말 못 하는 열다섯 살, 어쩌면 열네 살밖에 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레슬리히는 그 아이를 미워하여 빵 한 조각도 아까워했고 사정없이 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다락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시 결과는 자살이었습니다. 통상의 절차를 거쳐 사건은 끝났습니다만, 나중에 그 아이가……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 잔인하게 능욕당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 정보를 준 사람도 말을 믿을 수 없는 행실 나쁜 또 다른 독일 여자였으며,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돈과 수고 덕분에 경찰에는 실제로 아무런 진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소문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대단히 시사적입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께서도 그 집에 계셨을 때, 여섯 해 전 농노해방 전에 학대를 받고 죽은 하인 필립의 이야기를 분명 들으셨겠지요.」

「저는 오히려 그 필립이 스스로 목을 맸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를 자살로 몰아간, 아니 어쩌면 자살로 기울게 한 것은 스비드리가일로프 씨의 조직적인 학대와 가혹함이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두냐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저는 다만 필립이 심기증 환자 비슷한 사람이었고 집 안의 철학자 같은 사람이어서 하인들이 『책을 읽다가 얼이 빠졌다』고들 했다는, 그리고 그가 목을 맨 것도 스비드리가일로프 씨의 매질보다는 오히려 그 비웃음 때문이었다는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제가 그 집에 있을 때 스비드리가일로프 씨는 하인들에게 잘 대해 주었고 하인들도 실제로 그를 좋아했어요. 물론 필립이 죽은 일로 그를 탓하기는 했지만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별안간 그를 변호하실 뜻이 있으신 듯이 보입니다.」 루쥔이 입술을 비틀어 알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참으로 그는 교활하고 부인들을 홀리는 데 능한 사람이며, 그토록 기이하게 세상을 떠난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그 가련한 본보기입니다. 본인이 바란 것은 다만, 그에게서 틀림없이 예상되는 새로운 시도에 대비하여 귀하와 어머님께 조언으로 도움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그가 또다시 채무자 감옥에서 끝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제 아이들의 이익을 생각하여 그에게 이렇다 할 재산을 남겨 줄 뜻이 조금도 없었고, 설령 무언가를 남겼다 하더라도 그저 겨우 입에 풀칠할 만한, 보잘것없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어서 그런 버릇을 지닌 사람에게는 일 년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 표트르 페트로비치, 부탁드려요. 」 두냐가 말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 씨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괴로워요.」

「그 사람이 방금 저를 찾아왔어요. 」 라스콜니코프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여기저기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모두가 그를 돌아보았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까지 귀가 번쩍 뜨였다.

「한 시간 반쯤 전에 제가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저를 깨우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 라스콜니코프가 말을 이었다. 「꽤 명랑하고 편안해

보였고, 우리가 벗이 되기를 자못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두냐, 그자는 특히 너와 만나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더러 거들어 달라고 했어. 너에게 내놓을 제안이 있다면서 그게 무엇인지 나한테 말해 주었어. 그리고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죽기 일주일 전에 유언으로 너에게 삼천 루블을 남겼고, 그 돈을 아주 곧 받을 수 있을 거라고도 했어, 두냐.」

「하느님 감사합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성호를 그으며 외쳤다. 「그분을 위해 기도해라, 두냐야, 기도해!」

「사실이었군요!」 루쥔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 더 말해 주세요, 또 무엇이 있어요? 」 두냐가 라스콜니코프를 재촉했다.

「 그다음에는 자기가 넉넉하지 못하고 영지는 죄다 아이들에게 갔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친척 아주머니 집에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서 멀지 않은 어딘가에 묵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어, 묻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두냐한테 무엇을, 무엇을 제안하겠다는 거냐?」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겁에 질려 외쳤다. 「 그 사람이 너한테 말했니?」

「네.」

「그게 무엇이더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스콜니코프는 말을 그치고 제 찻잔으로 주의를 돌렸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시계를 보았다.

「 본인은 사업상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처지이니 더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 그는 얼마쯤 뾰로통한 기색으로 그렇게 덧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지 마세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두냐가 말했다.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실 작정이었잖아요. 게다가 어머니께 해명을 청하고 싶다고 손수 쓰셨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다시 앉으면서도 모자는 여전히 손에 쥔 채 무게를 잡고 대답했다. 「본인은 참으로 귀하와 훌륭하신 어머님께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점에 관하여 해명을 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오라버님께서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스비드리가일로프 씨의 어떤 제안에 관하여 드러내 놓고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시니, 본인 또한 드러내 놓고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남이 있는 자리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어떤 사안에 관하여 말입니다. 더구나 본인의 가장 무겁고 간곡한 청은 무시되었고…….」

루쥔은 마음 상한 기색을 지으며 위엄 있는 침묵으로 되돌아갔다.

「우리 자리에 오라버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오로지 제가 우겼기 때문이에요.」 두냐가 말했다. 「오라버니에게 모욕을 당하셨다고 쓰셨지요. 저는 이 일이 당장 밝혀져야 하고 두 분이 화해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로쟈가 정말로 모욕을 주었다면 오라버니는 마땅히 용서를 빌어야 하고, 또 빌 거예요.」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더 강하게 나왔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아무리 좋은 뜻을 품어도 잊을 수 없는 모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넘으면 위험한 선이라는 것이 있고, 한번 넘고 나면 돌아설 길이 없는 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두냐가 얼마쯤 참지 못하고 말을 잘랐다. 「부디 헤아려 주세요, 우리의 앞날 전체가 이 모든 일이 되도록 빨리 밝혀지고 바로잡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일을 달리 볼 수가

없고, 저를 조금이라도 위하신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일은 오늘 안에 끝나야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라버니에게 잘못이 있다면 오라버니가 용서를 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으시니 놀랍습니다.」 루쥔이 점점 더 짜증을 내며 말했다. 「귀하를 존경하고, 말하자면 흠모하면서도, 본인은 동시에 귀댁의 어느 분을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손을 얻는 행복을 바라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의무까지 받아들일 수는……」

「아아, 그렇게 성급히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두냐가 감정을 담아 말을 잘랐다. 「그리고 제가 늘 그렇게 여겨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여기고 싶은, 현명하고 고결한 분이 되어 주세요. 저는 당신께 큰 약속을 했고 당신의 약혼자예요. 이 일에서는 저를 믿어 주시고, 제가 치우치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주세요. 제가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은 당신에게나 오라버니에게나 똑같이 뜻밖의 일이에요. 당신 편지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라고 오라버니에게 우겼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오라버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헤아려 주세요, 두 분이 화해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해요 — 당신이냐 오라버니냐예요. 당신 쪽에서 보나 오라버니 쪽에서 보나 문제는 그렇게 놓여 있어요. 저는 제 선택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고 저질러서도 안 돼요. 당신을 위해서는 오라버니와 인연을 끊어야 하고, 오라버니를 위해서는 당신과 인연을 끊어야 해요. 저는 이제 오라버니가 제게 참으로 오라버니인지 확실히 알아낼 수 있고 또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는, 제가 당신에게 소중한지, 당신이 저를 존중하는지, 당신이 제 남편이 될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루쥔이 성이 나서 잘라 말했다. 「귀하의 말씀은 본인에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차지하는 영광된 처지에 비추어 모욕적이기까지 합니다. 건방진 애송이와 본인을 같은 자리에 놓으시는 그 기이하고 모욕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귀하는 본인에게 하신 약속을 깨뜨릴 수 있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당신이냐 오라버니냐』라고 말씀하시니, 그로써 본인이 귀하의 눈에 얼마나 하찮은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와…… 의무를 생각할 때 본인은 이것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두냐가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저는 당신의 이익을, 지금까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 제 삶 전부를 이루어 온 것과 나란히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은 제가 당신을 너무 가볍게 친다고 마음이 상하셨군요.」

라스콜니코프는 말없이 비웃듯 미소를 지었고 라주미힌은 몸을 들썩였다. 그러나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그 나무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에 더 고집스럽고 더 짜증스러워졌으니, 그것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했다.

「장차 함께 살아갈 사람, 곧 남편을 향한 사랑은 오라버니를 향한 사랑보다 무거워야 마땅합니다. 」 그가 격언이라도 읊듯 말했다. 「그리고 어떻든 본인을 같은 자리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오라버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겠다고 그토록 힘주어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본인은 이제 본인의 체면에 직접 걸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점에 관하여 훌륭하신 어머님께 꼭 필요한 해명을 청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아드님께서는」 그가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를 향해 돌아앉았다. 「어제 라즈수드킨[1] 씨가 있는 자리에서(아니…… 그게 맞습니까? 실례합니다, 성함을 잊었군요. 」

그는 라주미힌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본인을 모욕하셨으니, 곧 본인이 귀하와 사사로이 이야기를 나누며,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며 말씀드린 생각을 비틀어 옮긴 것입니다. 그 생각이란 곧, 고생을 겪어 본 가난한 처녀와 혼인하는 편이 호강하며 살아온 처녀와 혼인하는 것보다 부부 생활의 관점에서 더 이롭다는 것이니, 품성에 더 이롭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아드님께서는 일부러 본인의 말이 지닌 뜻을 부풀려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본인에게 악의가 있었다고 몰아세웠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귀하와 주고받은 편지에 기대어 그리한 것입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 만일 귀하께서 그 반대라는 것을 본인에게 납득시켜 주시고 그로써 본인을 적잖이 안심시켜 주실 수 있다면 본인은 스스로를 다행하게 여기겠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본인의 말을 정확히 어떤 표현으로 옮기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더듬거렸다. 「저는 제가 알아들은 대로 옮겼어요. 로쟈가 그것을 당신께 어떻게 옮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부풀렸겠지요.」

「귀하께서 부추기지 않으셨다면 그가 부풀렸을 리가 없습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위엄을 갖추어 말했다. 「두냐와 제가 당신 말씀을 아주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두냐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 이번에도 본인의 잘못이라는 말씀이군요.」 루쥔이 마음 상해하며 말했다.

「아니, 표트르 페트로비치, 당신은 자꾸 로지온을 탓하시지만, 당신 자신도 앞서 편지에 그 애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쓰셨잖아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용기를 내어 덧붙였다.

「본인은 사실이 아닌 것을 썼다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 당신은 이렇게 썼습니다. 」 라스콜니코프가 루쥔 쪽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어제 돈을 준 것이 사실대로 마차에 치여 죽은 사람의 미망인에게가 아니라 그 딸에게 준 것이라고 말입니다(나는 어제까지 그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와 내 식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렇게 썼고, 그 목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처녀의 행실에 대해 상스러운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비열한 중상입니다.」

「 실례합니다만, 선생. 」 루쥔이 분노로 떨며 말했다. 「 본인이 편지에서 귀하의 자질과 처신을 늘어놓은 것은 오로지, 본인이 귀하를 어떻게 보았고 귀하가 본인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 물으신 귀하의 누이와 어머님께 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지에서 귀하가 문제 삼으신 대목에 관해서는, 거짓된 낱말을 하나라도 짚어 보십시오. 곧 귀하가 돈을 내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안에 아무리 불행하다 한들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보여 보십시오.」

「 내 생각에는, 당신은 그 온갖 미덕을 다 지녔어도 당신이 돌을 던지는 그 불행한 처녀의 새끼손가락만도 못합니다.」

「그러면 귀하는 그 여자를 귀하의 어머님과 누이와 어울리게 하는 데까지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는데, 나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를 어머니와 두냐와 같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 로쟈!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두냐는 새빨개졌고 라주미힌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루쥔은 거만하게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우리가 뜻을 맞출 수 있는지 어떤지는 손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이 문제가 단번에 영영 끝났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집안의 정다운 자리와 비밀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어

들었다. 「다만 물러가면서 감히 청하거니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자리와, 말하자면 타협을 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특별히 훌륭하신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께 청을 드리는 바이니, 본인의 편지가 다른 누구도 아닌 귀하께 보낸 것이었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얼마쯤 마음이 상했다.

「우리가 아주 당신 권한 아래 있는 줄로 여기시는 모양이군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당신 바람이 지켜지지 않은 까닭은 두냐가 말씀드렸고, 그 애는 더없이 좋은 뜻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이지 저에게 분부라도 내리시는 것처럼 쓰셨어요. 당신의 바람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부로 여겨야 하나요? 오히려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각별히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대하셔야 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어쨌든 어떤 뜻에서는 당신 손안에 있는 셈이니까요.」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 더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말입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남긴 삼천 루블 소식이 들어온 참이고, 본인을 대하는 새로운 말투로 미루어 보건대 그 소식은 참으로 때맞춰 온 듯하니까요.」 그가 비꼬듯 덧붙였다.

「그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당신이 우리의 무력함을 셈에 넣고 계셨다고 짐작해도 틀림없겠군요.」 두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이제 어떻든 본인은 그것을 셈에 넣을 수 없게 되었고, 특히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은밀한 제안을 의논하시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귀하의 오라버님께 맡긴 그 제안은, 본인이 보기에 귀하께 크고 어쩌면 대단히 반가운 관심거리인 듯하니 말입니다.」

「세상에!」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라주미힌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래도 부끄럽지 않으냐, 누이야?」 라스콜니코프가 물었다.

「 부끄러워요, 로쟈. 」 두냐가 말했다. 「 표트르 페트로비치, 나가세요!」 그녀는 분노로 하얗게 질려 그를 향해 돌아섰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이런 결말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는 제 자신을, 제 힘을, 그리고 제 제물들의 무력함을 너무나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지금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렸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이런 축출을 당하고 본인이 지금 이 문을 나선다면, 그때는 본인이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셈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헤아려 보십시오. 본인의 말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뻔뻔한 말씀이세요!」 두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저는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무어라고요! 일이 그러-어-케 된 겁니까!」 루쥔이 외쳤으니,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파혼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제 갈피를 아주 잃어버린 것이다. 「일이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권리로 그 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발끈하여 끼어들었다. 「 그리고 무엇에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내가 내 두냐를 당신 같은 사람에게 주어야 하나요? 가세요, 우리한테서 아주 떠나 주세요! 그릇된 일에 우리가 동의한 것이 잘못이고, 누구보다도 내가 잘못했어요…….」

「 그러나 귀하께서는 본인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 」 루쥔이 미친 듯이 날뛰며 말했다. 「 약속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부인하시고…… 게다가…… 본인은 그 때문에 비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하소연이 어찌나 표트르 페트로비치다웠던지, 분노로, 또 그것을 억누르느라 창백해져 있던 라스콜니코프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노발대발했다.

「 비용이라고요? 무슨 비용이요? 우리 짐 가방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만 차장이 당신을 봐서 공짜로 들어다 주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당신을 묶어 놓았다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우리를 손발까지 묶어 놓은 건 당신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 」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애원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 부디 그만 가 주세요!」

「 가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지요. 」 그가 도무지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다. 「 귀하의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말하자면, 귀하의 평판에 관한 읍내 소문이 온 고장에 다 퍼진 뒤에 귀하를 맞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아주 잊으신 모양입니다. 귀하를 위하여 세상의 평판을 무시하고 귀하의 명예를 되찾아 준 이상, 본인은 그에 걸맞은 보답을 셈에 넣었을 만도 하고 참으로 귀하 쪽의 감사를 바랐을 만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본인의 눈이 뜨였습니다! 세상 모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 참으로, 참으로 경솔한 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겠습니다…….」

「저 작자가 대가리가 깨지고 싶은 모양인가?」 라주미힌이 당장 손을 볼 기세로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당신은 비열하고 앙심 많은 사람이에요!」 두냐가 외쳤다.

「한마디도 하지 마! 움직이지도 마!」 라스콜니코프가 라주미힌을 붙들며 외쳤다. 그러고는 루쥔에게 바짝 다가서서 「 이 방에서 나가

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분노로 일그러진 창백한 얼굴로 몇 초 동안 그를 노려보다가 몸을 돌려 나갔다. 그리고 그가 라스콜니코프에게 품은 것과 같은 앙심 서린 증오를 가슴에 안고 물러간 사람은 좀처럼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라스콜니코프에게,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돌렸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그는 제 일이 어쩌면 아주 끝장난 것은 아닐지도 모르며, 부인들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얼마든지』 다시 바로잡힐 수도 있으리라고 여전히 상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1. 라즈수드킨 — 루쥔이 라주미힌의 성을 틀리게 부른 것이다. 라주미힌(Razumihin)의 어근은 러시아어 разум(이성)이고, 루쥔이 갖다 붙인 рассудок(분별)은 그 동의어다. 곧 아무렇게나 틀린 것이 아니라 어근을 같은 뜻의 다른 낱말로 바꿔 놓은 것인데, 한국어로는 이 어근의 말장난을 살릴 길이 없어 저본대로 옮기고 주를 단다.

4부 3장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이런 결말을 예상해 본 적이 없었고, 마지막 선까지 위세를 부리면서 가진 것 없고 기댈 데 없는 두 여자가 제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확신은 그의 허영과, 자기도취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알맞을 만큼의 자신만만함이 더욱 굳혀 주었다. 보잘것없는 데서 몸을 일으켜 세운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병적으로 제 자신에게 반해 있었고 제 머리와 능력을 더없이 높이 평가했으며, 때로는 혼자 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흐뭇하게 들여다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사랑하고 값지게 여긴 것은 제가 일해서, 또 온갖 재주를 부려서 모아 놓은 돈이었다. 그 돈이 그를, 그보다 위에 있던 모든 사람과 대등하게 만들어 주었다.

두냐에게 나쁜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맞기로 했다고 쓰디쓰게 일깨웠을 때,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더없이 진심으로 말한 것이었고 그 「시커먼 배은망덕」에 참으로 분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두냐에게 청혼했을 때 그는 그 소문이 죄다 근거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가는 곳마다 부인해 놓았고, 그때는 이미 온 읍내 사람이 믿지 않고 두냐를 열심히 두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두냐를 제 자리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제 결심을 여전히 대단하게 여겼고 무언가 영웅적인 일로 생각했다. 그것을 두냐에게

말하면서 그는 제가 품고 감탄해 온 속마음을 내비친 것이었고, 남들이 그것에 함께 감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제 선행의 열매를 거두고 듣기 좋은 아첨을 들으려는 은인의 심정으로 라스콜니코프를 찾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제가 더없이 부당하게 상처를 입었고 알아주는 이도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두냐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으니, 그녀 없이 지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혼인에 관한 음탕한 꿈을 꾸어 왔으나,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돈을 모아 왔다. 그는 깊은 비밀 속에서 한 처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되새기곤 했으니 — 정숙하고, 가난하고(반드시 가난해야 했다), 아주 젊고, 아주 예쁘고, 좋은 집안에 교육을 받았고, 몹시 주눅 들어 있고, 고생을 많이 했고, 그의 앞에서 온전히 낮추어져 있고, 평생 그를 제 구원자로 여기며 그를 우러르고 그에게 복종하며 그를, 오직 그만을 경탄할 처녀였다. 일이 끝난 뒤에 그는 이 매혹적이고 즐거운 주제를 두고 얼마나 많은 장면을, 얼마나 많은 사랑의 삽화를 그려 보았던가! 그런데 보라, 그 여러 해의 꿈이 거의 이루어질 참이었으니,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의 아름다움과 교양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 무력한 처지는 그를 극도로 달아오르게 했으며, 그는 그녀에게서 꿈꾸던 것보다 더한 것까지 발견했다. 자존심과 성품과 덕을 갖추고 교양과 지적 성숙에서 그 자신보다 나은(그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처녀가 여기 있었고, 이 여자가 그의 영웅적인 너그러움에 평생 노예처럼 고마워하며 그의 앞에서 티끌 속에 저를 낮출 것이고, 그는 그녀 위에 절대적이고 끝없는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그는 오랜 궁리와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제 앞길을 아주 바꾸어 더 넓은 활동의 세계로 들어서기로 했고, 그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관능에 가까운 열망으로 그려 오던 더 높은

사교계로도 차츰 옮겨 가기로 작정한 참이었다……. 요컨대 그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제 운을 시험해 보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그는 여자를 통해 『얼마든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력 있고 정숙하고 교양 높은 여자의 마음을 끄는 힘은 그의 길을 한결 수월하게 해 주고, 사람들을 그에게 끌어당기며 그의 둘레에 광채를 둘러 주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도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 갑작스럽고 끔찍한 파혼은 그에게 벼락처럼 떨어졌으니, 그것은 흉측한 농담 같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았다. 그는 아주 조금 주인 행세를 했을 뿐이고, 속을 털어놓을 짬조차 없었으며,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고, 흥에 휩쓸렸을 뿐인데 — 그것이 그토록 심각하게 끝나 버린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는 제 나름으로 두냐를 사랑하고 있기도 했으니, 꿈속에서는 이미 그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 그런데 별안간! 안 된다! 내일, 바로 내일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어루만지고 매듭지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인 그 자만심 많은 애송이를 짓뭉개 놓아야 한다. 그는 속이 뒤틀리는 느낌으로 라주미힌까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점에 대해서는 이내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따위 자를 제 자신과 같은 자리에 놓을 수야 있겠는가! 그가 참으로 진심으로 두려워한 사람은 스비드리가일로프였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챙겨야 할 일이 아주 많았다…….

「아니에요, 제가, 제가 누구보다 잘못했어요!」 두냐가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끌어안으며 말했다. 「저는 그 사람 돈에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맹세코, 오라버니,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비열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미리 그 속을 꿰뚫어 보았더라면 무엇에도 마음이 끌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탓하지 마세요, 오라버니!」

「 하느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중얼거렸으나 반쯤은 정신이 나간

채였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듯했다.

모두가 기뻐했고 오 분도 지나지 않아 웃고 있었다. 다만 이따금 두냐가 지나간 일을 떠올리고 얼굴이 하얘지며 이맛살을 찌푸릴 뿐이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저 역시 기쁘다는 것을 알고 놀랐으니, 바로 그날 아침만 해도 그녀는 루쥔과 갈라서는 것을 끔찍한 불행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라주미힌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아직 감히 그 기쁨을 다 드러내지는 못했으나, 가슴에서 다섯 푸드짜리 추가 떨어져 나가기라도 한 듯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는 제 삶을 그들에게 바치고 그들을 섬길 권리가 생긴 것이다…….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다음의 가능성을 생각하기가 두려워 감히 상상을 내달리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라스콜니코프는 같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니, 거의 뚱하고 무심한 얼굴이었다. 루쥔을 치워 버려야 한다고 누구보다 우겨 온 사람이 이제 와서는 일어난 일에 가장 관심이 없어 보였다. 두냐는 그가 아직도 제게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조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오라버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두냐가 그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그래, 그래!」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라스콜니코프가 고개를 들었다.

「 너한테 만 루블을 선물로 주고 싶다더군.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너를 한 번 만나기를 바라고 있어.」

「 그 애를 만나다니! 어림도 없다!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그리고 무슨 낯으로 그 애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냐!」

이어 라스콜니코프는 (꽤 건조하게) 스비드리가일로프와 나눈 이야기를 되풀이했는데,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유령이 찾아왔다는 대목은 쓸데없는 이야기로 빠지지 않으려고 빼놓았으니, 꼭 필요한 것 말고는 어떤 이야기도 꺼내기가 싫었던 것이다.

「오라버니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두냐가 물었다.

「처음에는 너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그자는 내 도움 없이도 너를 만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하더군. 너에게 품었던 정열은 지나가는 들뜬 마음이었을 뿐이고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다고 장담했어. 네가 루쥔과 혼인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더라……. 그자의 말은 대체로 꽤 뒤죽박죽이었어.」

「 오라버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세요, 로쟈?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 고백하자면 나도 그자를 잘 모르겠어. 너한테 만 루블을 내놓으면서도 저는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고, 떠나겠다고 해 놓고는 십 분 만에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려. 그러더니 혼인을 하겠다고, 벌써 혼처가 들어와 있다고 해……. 틀림없이 속셈이 있을 테고 아마 나쁜 속셈일 거야. 그런데 너를 노리는 무슨 계획이 있다면 그토록 서툴게 굴 까닭이 없으니 그것이 이상해……. 물론 나는 너를 대신해서 그 돈을 단번에 거절했어. 아무튼 그자는 아주 이상해 보였어, 그리고…… 심지어…… 실성한 기미까지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어. 그저 그자가 꾸며 쓰는 역할일 수도 있고.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죽음이 그자에게 큰 인상을 남긴 모양이야.」

「 그분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기를.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나는 늘, 늘 그분을 위해 기도하마! 두냐야, 이 삼천 루블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니! 하늘에서 떨어진 것만 같구나! 로쟈야,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 주머니에는 삼 루블밖에 없어서,

두냐하고 나는 그 사람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설 때까지는 그 사람한테 받지 않으려고 어디서든 얼른 시계를 잡힐 궁리만 하고 있었단다.」

두냐는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제안에 어쩐지 지나치게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무언가 무서운 계획을 품고 있어.」 그녀가 거의 몸을 떨며 반쯤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 어울리지 않게 큰 두려움을 알아챘다.

「아무래도 그자를 앞으로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 같아.」 그가 두냐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자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자를 찾아내겠습니다!」 라주미힌이 힘차게 외쳤다. 「그자한테서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로쟈가 저한테 그래도 좋다고 했습니다. 방금 저한테 직접 그러더군요. 『내 누이를 돌봐 주게.』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께서도 저한테 그래도 좋다고 해 주시겠습니까?」

두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으나 근심스러운 빛은 얼굴에서 가시지 않았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조심스럽게 딸을 바라보았으나, 삼천 루블이 그녀의 마음을 눈에 띄게 가라앉혀 준 것만은 분명했다.

십오 분 뒤에 그들은 모두 활기찬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라스콜니코프까지도 말은 하지 않았으나 한동안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라주미힌이었다.

「그런데 왜, 왜 떠나신다는 겁니까?」 그가 황홀해져서 술술 말을 쏟아 냈다. 「그리고 작은 읍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두 여기 함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정말로 서로가 필요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적어도 얼마 동안은요……. 저를 친구로, 동업자로 받아 주시면 우리가 근사한 일을

꾸밀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들어 보십시오! 제가 전부, 계획 전체를 자세히 말씀드리지요! 오늘 아침에,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문득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한테 삼촌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더없이 무던하고 점잖은 영감님이십니다). 그 삼촌에게는 천 루블의 밑천이 있는데, 그분은 연금으로 살아가시니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 저더러 그 돈을 꾸어 가고 이자로 육 퍼센트만 내라고 조르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야 저도 압니다. 그저 저를 도와주고 싶으신 겁니다. 작년에는 그 돈이 필요 없었지만 올해는 그분이 오시는 대로 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삼천에서 천 루블을 더 빌려주시면 시작할 밑천이 되니, 우리가 동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고요?」

이어 라주미힌은 제 계획을 펼쳐 놓기 시작했고, 우리 출판업자와 책장수가 거의 다 제가 파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르며 그래서 대개 형편없는 출판업자인 반면, 웬만큼 괜찮은 출판물은 대체로 밑지지 않고 이익을 내며 더러는 적지 않은 이익을 낸다는 것을 길게 설명했다. 라주미힌은 정말로 출판업자로 나설 꿈을 꾸어 온 터였다. 지난 두 해 동안 그는 출판사에서 일해 왔고 유럽의 세 나라 말을 잘 알고 있었으나, 엿새 전에 라스콜니코프에게는 제가 독일어에 「schwach」[1]하다고 말했으니 번역 일의 절반과 선금 삼 루블을 떠맡기려고 꾀한 것이었다. 그때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라스콜니코프도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왜 우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를, 우리 손에 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를 놓쳐야 합니까!」 라주미힌이 뜨겁게 외쳤다. 「물론 일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제가, 로지온이……. 요즘은 책에 따라

아주 훌륭한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큰 강점은 무엇을 번역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번역하고 출판하고 배우는 일을 한꺼번에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이 있으니 쓸모가 있을 겁니다. 이 년 가까이 출판업자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으니 이제 그 일의 속속들이를 압니다. 그릇을 굽는 데 성인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왜 우리가 기회를 놓쳐야 합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 번역해서 내놓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백 루블은 받을 만한 책이 두세 권 있다는 것을요. 아니, 그중 한 권은 그 착상만으로도 오백 루블을 준대도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출판업자한테 말한다면 그자는 망설이겠지요 — 그런 멍청이들이니까요! 그리고 사업 쪽, 인쇄며 종이며 파는 일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그 길을 압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 나가는 겁니다. 어떻든 그것으로 먹고살게 되고 밑천도 되찾게 될 겁니다.」

두냐의 눈이 빛났다.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그녀가 말했다.

「 저야 물론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지요.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끼어들었다. 「좋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또 누가 알겠어요. 새롭고 해 보지 않은 일이니까요. 물론 우리는 적어도 얼마 동안은 여기 머물러야겠지요.」 그녀는 로쟈를 보았다.

「오라버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냐가 말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 」 그가 대답했다. 「물론 출판사를 꿈꾸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대여섯 권쯤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낼 수 있을 거야. 나도 틀림없이 잘될 책을 한 권 알고 있어. 그리고 저 친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할 것 없어. 저 친구는 그 일을 아니까…….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겠지…….」

「만세!」 라주미힌이 외쳤다. 「자, 잠깐만요, 이 집에 셋집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같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셋집이라 이 하숙과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구도 들어 있고 세도 알맞고 방이 셋입니다. 우선 그 집을 얻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내일 그 시계를 잡히고 돈을 가져다드리면 그때 다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이 함께 지내시면 되고 로쟈도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지요. 그런데 로쟈, 어디 가는 거야?」

「 아니, 로쟈, 벌써 가는 거니? 」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당황하여 물었다.

「이런 참에요?」 라주미힌이 외쳤다.

두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라서 오라버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자를 손에 들고 그들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나를 묻기라도 하는 것 같군요, 아니면 영영 작별이라도 하는 것 같든지.」 그가 어딘가 이상하게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어 보려 했으나 미소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서로 보는 마지막일지도…… 」 그가 무심코 말을 흘렸다. 그것은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소리가 되어 나와 버린 것이다.

「너 왜 그러니?」 어머니가 외쳤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로쟈?」 두냐가 어쩐지 이상한 투로 물었다.

「 아, 꼭 가야 할 데가 있어서…… 」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망설이기라도 하듯 흐릿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창백한 얼굴에는 날카로운 결심의 빛이 있었다.

「 말하려던 것은…… 여기 오면서…… 어머니와 두냐 너에게 말하려던 것은, 우리가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내는 편이 낫겠다는 거예요. 저는 몸이 좋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나중에 갈게요, 제 발로

갈게요…… 그럴 수 있게 되면요. 저는 두 분을 기억하고 사랑해요……. 저를 두세요, 저를 혼자 있게 해 주세요. 이건 전부터 정해 둔 일이에요…… 아주 굳게 마음먹었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제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저를 아주 잊어 주세요, 그편이 나아요. 저에 대해 묻지 마세요. 그럴 수 있게 되면 제 발로 오거나…… 사람을 보낼게요. 어쩌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단념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두 분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안녕히 계세요!」

「하느님 맙소사!」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외쳤다. 어머니도 누이도 몹시 놀랐다. 라주미힌도 그랬다.

「로쟈야, 로쟈야, 우리하고 화해하자꾸나! 전처럼 지내자꾸나!」 가엾은 어머니가 외쳤다.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돌아서서 천천히 방을 나갔다. 두냐가 그를 따라붙었다.

「오라버니,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분노로 눈을 번득이며 속삭였다.

그는 무겁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갈 거야……. 자주 갈게!」 그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방을 나갔다.

「못되고 매정한 이기주의자!」 두냐가 외쳤다.

「저 사람은 실-성-한 거지 매정한 게 아닙니다. 미친 겁니다! 그게 안 보이십니까? 그러고도 그러시면 매정한 건 당신입니다!」 라주미힌이 그녀의 손을 꽉 쥐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넋이 나가 창백해진 어머니에게 소리치고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라스콜니코프는 복도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쫓아올 줄 알았어.」 그가 말했다. 「돌아가 — 그분들 곁에 있어 줘…… 내일도 언제까지나 그분들 곁에 있어 줘……. 나는…… 어쩌면 갈지도 몰라…… 갈 수 있으면. 잘 있어.」

그리고 그는 손도 내밀지 않고 걸어가 버렸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야? 무엇을 하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할 수 있어?」 라주미힌이 어찌할 바를 몰라 중얼거렸다.

라스콜니코프가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었다.

「단번에 말해 두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 너한테 할 말이 없어. 나를 보러 오지 마. 내가 여기로 올지도 모르지……. 나는 내버려 둬, 하지만 그분들은 내버려 두지 마. 내 말 알아듣겠어?」

복도는 어두웠고 두 사람은 등잔 가까이에 서 있었다. 한동안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라주미힌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했다. 라스콜니코프의 타는 듯한, 뚫어질 듯한 눈이 순간순간 더 날카로워지며 그의 영혼 속으로, 그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별안간 라주미힌이 움찔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간 듯했다……. 무슨 생각이, 무슨 암시 같은 것이 미끄러져 나왔고, 그것은 무섭고 흉측한 것이었으며 별안간 양쪽 모두에게 이해되었다……. 라주미힌은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얘졌다.

「이제 알겠어?」 라스콜니코프가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별안간 말했다. 「돌아가, 그분들한테 가.」 그가 별안간 그렇게 말하고는 홱 돌아서서 집을 나섰다.

나는 라주미힌이 어떻게 부인들에게 돌아갔는지, 어떻게 그들을 달랬는지, 로쟈는 앓고 있으니 쉬어야 한다고, 로쟈는 틀림없이 올 것이고 날마다 올 것이라고, 그가 몹시, 몹시 심란해져 있으니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그가, 라주미힌이 그를 지켜보고 의사를, 가장

좋은 의사를, 아니 의사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아 진찰을 받게 하겠다고 어떻게 다짐했는지를 그려 보려 하지 않겠다……. 요컨대 그날 저녁부터 라주미힌은 아들이자 오라버니로서 그들 곁에 자리를 잡았다.

---

1. schwach — 독일어로 「약하다」. 라주미힌은 제 독일어 실력이 시원치 않다는 뜻으로 이 낱말을 썼다. 저본이 독일어 철자를 그대로 둔 자리다.

4부 4장

라스콜니코프는 소냐가 사는 운하 둑의 그 집으로 곧장 갔다. 3층짜리 낡은 초록색 집이었다. 그는 수위를 찾아내 재봉사 카페르나우모프가 어디쯤 사는지 어렴풋한 이야기를 들었고, 안마당 구석에서 어둡고 좁은 계단으로 드는 입구를 찾아낸 뒤 2층으로 올라가, 안마당 위로 2층 전체를 빙 두르고 있는 복도로 나섰다. 어둠 속을 헤매며 카페르나우모프의 문을 찾자면 어느 쪽으로 돌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세 걸음쯤 떨어진 데서 문 하나가 열렸고 그는 기계적으로 그 문을 붙들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불안스레 물었다.

「나요…… 만나러 왔어요.」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하고는 비좁은 현관으로 들어섰다.

부서진 의자 위에 찌그러진 구리 촛대에 꽂힌 초가 하나 서 있었다.

「오셨군요! 맙소사!」 소냐가 가냘프게 외치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다.

「방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 그러고는 라스콜니코프가 그녀를 보지 않으려 애쓰며 서둘러 들어갔다.

잠시 뒤 소냐도 초를 들고 들어와 촛대를 내려놓고는,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의 앞에 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흔들렸고, 뜻밖의 방문에 겁을 집어먹은 기색이 역력했다. 핏기 없던 얼굴에 별안간 붉은 기운이 몰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속이 메스껍고

부끄럽고, 또 행복하기도 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얼른 고개를 돌려 탁자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재빠른 눈길 하나로 방 안을 훑었다.

크기는 크지만 천장이 지독하게 낮은 방이었고, 카페르나우모프네가 세를 놓은 유일한 방이었으며, 왼쪽 벽에 난 닫힌 문 하나가 그 집 방들로 통했다. 맞은편 오른쪽 벽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는데 늘 잠겨 있었고, 그 문은 옆 셋집으로 통했으며 그쪽은 따로 떨어진 살림이었고, 소냐의 방은 헛간처럼 보였는데 몹시 찌그러진 사각형이어서 그 때문에 방이 기괴한 꼴을 하고 있었다. 운하 쪽으로 창이 셋 난 벽이 비스듬히 뻗어 있어 한쪽 구석은 아주 날카로운 각을 이루었고, 어지간히 밝은 빛이 아니고서는 그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다른 쪽 구석은 어울리지 않게 둔했고, 그 큰 방에 세간이라고는 거의 없었으니, 오른쪽 구석에 침대가 하나, 그 옆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의자가 하나 있었다. 푸른 천을 덮은 수수한 전나무 탁자가 같은 벽에 붙어 옆 셋집으로 난 문 가까이 놓여 있었으며, 그 탁자 옆에는 골풀 방석을 깐 의자가 둘 있었다. 맞은편 벽의 날카로운 각 가까이에는 수수한 나무 서랍장이 하나, 마치 허허벌판에 버려진 듯한 꼴로 서 있었고, 방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누렇게 바래고 긁히고 해진 벽지는 구석마다 까맸고, 겨울이면 틀림없이 눅눅하고 연기가 들어찼을 것이었으며, 가난의 표시가 온 데 널려 있어 침대에는 휘장조차 없었다.

소냐는 제 방을 그토록 주의 깊게, 그토록 거리낌 없이 뜯어보는 손님을 말없이 바라보았고, 마침내는 제 심판자, 제 운명을 판가름할 자 앞에 선 사람처럼 공포로 떨기 시작하기까지 했다.

「늦었군요……. 열한 시지요?」 그가 여전히 눈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네.」 소냐가 중얼거렸다. 「아, 네, 그래요.」 그녀는 마치 거기에 빠져나갈 길이라도 있는 듯 황급히 덧붙였다. 「주인집 시계가 방금

쳤어요…… 저도 들었고요……. 열한 시 맞아요.」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라스콜니코프가 침울하게 말을 이었는데, 실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쩌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니까요……」

「어디……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내일…….」

「그럼 내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 안 오시는 거예요?」 소냐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이면 알겠지요…….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한마디 하려고 왔어요…….」

그가 생각에 잠긴 눈을 들어 그녀를 보다가, 그녀는 내내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자기는 앉아 있다는 것을 문득 알아차렸다.

「왜 서 있어요? 앉아요.」 그가 달라진 목소리로,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가 앉았다. 그는 상냥하게, 거의 가엾이 여기듯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렇게 말랐어요! 손이 이게 뭡니까! 훤히 비칠 지경이군요, 죽은 사람 손처럼.」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냐가 희미하게 웃었다.

「늘 이랬어요.」 그녀가 말했다.

「집에서 살 때도요?」

「네.」

「그야 그랬겠지요.」 그가 퉁명스럽게 덧붙였고, 얼굴빛과 목소리가 또 한 번 별안간 달라졌다.

그가 다시 한번 둘레를 둘러보았다.

「이 방은 카페르나우모프네한테서 빌린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저 문 너머에 살고요?」

「네……. 이만한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죄다 방 하나에서요?」

「네.」

「나 같으면 밤에 이 방이 무서울 것 같군요.」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친절하고요.」 여전히 어리둥절한 듯한 소냐가 대답했다. 「세간도, 다…… 다 그 집 거예요. 그리고 다들 친절해요, 아이들도 자주 저한테 놀러 오고요.」

「다들 말을 더듬는다면서요?」

「네……. 그이는 말을 더듬고 다리를 절어요. 그 아내도……. 정확히 더듬는 건 아닌데 말을 또렷이 못 해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이는 전에 집 하인이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일곱인데…… 맏이만 더듬고 나머지는 그냥 몸이 안 좋을 뿐이에요…… 더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녀가 좀 놀란 기색으로 덧붙였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어요. 나한테 다 이야기해 줬지요……. 여섯 시에 나가서 여덟 시 넘어 돌아왔다는 것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소냐는 당황했다.

「오늘 아버지를 본 것 같았어요.」 그녀가 머뭇머뭇 속삭였다.

「누구를요?」

「아버지요.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저 근처 모퉁이에서, 아홉 시 넘어서요. 그런데 앞서 걸어가고 계신 것 같았어요. 꼭 아버지처럼 보였고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 가려던 참이었어요…….」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요?」

「네.」 소냐가 불쑥 속삭이고는, 다시 당혹에 짓눌려 눈을 내리떴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당신을 때리다시피 했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머,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소냐가 거의 질겁한 낯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하느냐고요? 그럼요!」 소냐가 애원하듯 힘주어 말하고는 괴로워하며 두 손을 맞잡았다. 「아, 모르시는군요……. 아시기만 한다면! 보세요, 그이는 꼭 어린애 같아요…….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슬픔 때문에요. 예전엔 얼마나 영리했는지……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얼마나 착했는지! 아, 모르세요, 모르신다고요!」

소냐는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며 흥분과 괴로움에 두 손을 쥐어짰고, 핏기 없던 두 볼이 달아올랐으며 두 눈에는 고통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밑바닥까지 흔들렸다는 것, 말하고 싶어, 편들고 싶어, 무언가를 토해 내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것이 분명했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일종의 채울 길 없는 연민이 그녀의 얼굴 구석구석에 비쳐 있었다.

「저를 때리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맙소사, 저를 때리다니요! 설령 때렸다 한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아무것도, 그 일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이는 너무 불행해요…… 아, 얼마나 불행한데요! 게다가 병들었고요……. 그이는 올바름을 찾고 있어요, 그이는 깨끗해요. 어디에나 올바름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렇게나 굳고, 또 그것을 요구해요……. 그이를 고문한다 해도 그이는 그른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올바를 수 없다는 것을 못 보고, 그래서 그

일에 화를 내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다고요. 그이는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냐가 캐묻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이 죄다 당신 손에 남겨지잖아요. 하기야 전에도 죄다 그 손에 매달려 있었지만……. 게다가 아버지는 해장술 값을 얻으러 당신한테까지 오곤 했고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소냐가 서글프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남을까요?」

「모르겠어요……. 방세가 밀렸는데, 주인 여자가 오늘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한시도 더 있지 않겠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배짱이 좋을까요? 당신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처럼 살아요.」 소냐가 다시 흔들렸고 화까지 냈는데, 마치 카나리아나 그 비슷한 작은 새가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이가 달리 어쩌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녀가 달아오르고 격해져서 물고 늘어졌다. 「오늘 그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못 보셨어요? 어느 순간엔 내일 모든 게 잘되어야 한다고, 점심이며 그런 것들을 두고 어린애처럼 안달하다가……. 그러다 두 손을 쥐어짜고 피를 뱉고 울다가, 별안간 절망해서 벽에 머리를 찧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그이는 당신께 온통 희망을 걸고 있어요, 이제 당신이 도와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어디선가 돈을 좀 꾸어서 저를 데리고 고향에 내려가 양갓집 딸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차리고 저한테 그 감독을 맡겨서, 우리가 새롭고 훌륭한 삶을 시작할 거라고 해요. 그러고는 저한테 입 맞추고 껴안고 위로해

주는데, 그이는 그 꿈같은 생각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다고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종일 빨래하고 치우고 기웠어요, 그 가녀린 손으로 빨래통을 방에 끌어들여 놓고는 숨이 차서 침대에 주저앉고요. 오늘 아침엔 그이하고 같이 폴레치카하고 리다 신을 신발을 사러 가게에 갔어요, 신던 것이 아주 해져서요, 그런데 셈해 둔 돈이 모자랐어요, 어림도 없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그이가 그렇게 예쁘고 작은 장화를 골랐지 뭐예요, 그이는 안목이 있거든요, 모르시겠지만. 그러고는 가게에서 점원들 앞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 그걸 보는 게 얼마나 슬프던지…….」

「 그렇다면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가는군요. 」 라스콜니코프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가엾지 않으세요? 가엾지 않으시냐고요?」 소냐가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저는 알아요, 아무것도 못 보셨으면서도 마지막 한 푼까지 손수 내주셨잖아요, 그러니 죄다 보셨더라면 어땠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저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그이를 울렸는지 몰라요! 바로 지난주에도요! 그래요, 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꼭 일주일 전에요. 저는 모질었어요! 그런 짓을 또 얼마나 자주 했는지! 아, 온종일 그 생각에 비참했어요!」

소냐는 그것을 떠올리는 아픔에 말을 하면서 두 손을 쥐어짰다.

「모질었다고요?」

「네, 저예요 — 저요.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그녀가 울면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뭘 좀 읽어 다오, 소냐, 머리가 아프구나, 읽어 다오, 여기 책이 있다』 하셨어요. 안드레이 세묘노비치 레베쟈트니코프한테서 얻은 책이었는데, 그이가 거기 살거든요, 늘 그런 우스운 책들을 얻어 오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못 있어요』 했어요, 읽고 싶지 않았고, 사실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 깃을 보여

주려고 간 거였으니까요. 행상 리자베타가 깃하고 소매를 싸게 팔았거든요, 예쁘고 새것이고 수가 놓인 걸로요, 그런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그것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해서, 그걸 두르고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 보고는 무척 기뻐했어요. 『그걸 나한테 주려무나, 소냐』 하고 그이가 말했어요, 『제발 좀』. 『제발 좀』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나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두르겠어요? 그저 지나간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리게 할 뿐인데, 그이는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 보고 흐뭇해했지요, 그이한테는 옷이라고는 아무것도,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 여러 해 동안 없었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무얼 달라는 법이 없어요, 자존심이 세서 차라리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내주고 말지요, 그런 그이가 그걸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나 마음에 들어 해서요, 그런데 저는 주기가 아까웠어요. 『그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 무슨 소용이에요?』 하고 제가 말했어요. 제가 그이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이가 저를 그런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렇게나 서러워했어요, 제가 거절한 것을 그렇게나 서러워했어요. 그게 보기에 얼마나 슬펐는지……. 그리고 그이가 서러워한 건 깃 때문이 아니라 제가 거절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알아요. 아, 그걸 죄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말을 도로 거둘 수만 있다면! 아, 제가…… 하지만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없으시겠지요!」

「행상 리자베타를 알았어요?」

「네……. 그이를 아셨어요?」 소냐가 좀 놀라서 물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폐병이에요, 급성 폐병. 곧 죽을 거예요.」 라스콜니코프가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녀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고는 소냐가 저도 모르게 그의 두 손을 붙잡았는데, 마치 그리되지 않게 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죽는 편이 나을 거예요.」

「아니에요, 낫지 않아요, 조금도 낫지 않아요!」 소냐가 질겁하여 저도 모르게 되풀이했다.

「그럼 아이들은요? 데려다 함께 사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소냐가 거의 절망하여 외치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 생각이 전에도 아주 여러 번 그녀에게 떠올랐고 그가 그저 그것을 다시 휘저어 놓았을 뿐임이 분명했다.

「그럼 만일 지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당신이 병이 나서 병원에 실려 간다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가차 없이 물고 늘어졌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럴 리 없어요!」

그리고 소냐의 얼굴이 끔찍한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럴 리 없다고요?」 라스콜니코프가 모진 웃음을 띠고 말을 이었다. 「그런 일에 보험이라도 들어 두었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그 사람들은 죄다 거리로 나앉겠지요, 그 여자는 기침을 하며 구걸하고 오늘 그랬듯이 어딘가 담벼락에 머리를 찧을 테고, 아이들은 울어 댈 테고……. 그러다 쓰러져 경찰서로, 병원으로 실려 가서 죽을 테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리되게 두지 않으세요!」 마침내 소냐의 짓눌린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마치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기라도 한 듯 말없는 간청으로 두 손을 맞잡은 채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가 일어나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일 분이 지났다. 소냐는 두 손과 고개를 떨군 채 끔찍한 낙담 속에 서 있었다.

「저축은 못 해요? 만일을 위해 좀 모아 두는 건?」 그가 별안간 그녀 앞에 멈춰 서며 물었다.

「못 해요.」 소냐가 속삭였다.

「그야 그렇겠지요. 해 보기는 했어요?」 그가 거의 비아냥거리듯 덧붙였다.

「네.」

「그런데 안 됐군요! 그야 그렇지요! 물어볼 것도 없는 일이고.」

그러고는 다시 방 안을 거닐었다. 또 일 분이 지났다.

「날마다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소냐는 그 어느 때보다 당황했고 얼굴에 다시 붉은 기운이 몰렸다.

「아니에요.」 그녀가 괴로운 힘을 쥐어짜 속삭였다.

「폴레치카도 틀림없이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가 불쑥 말했다.

「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니에요! 」 소냐가 칼에 찔리기라도 한 듯 절망하여 크게 외쳤다. 「하느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허락하던데요.」

「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 애를 지켜 주실 거예요, 하느님이요!」 그녀가 제정신이 아닌 채 되풀이했다.

「 하지만 어쩌면 하느님이란 아예 없을지도 모르지요. 」 라스콜니코프가 일종의 악의를 띠고 대답하고는,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냐의 얼굴이 별안간 달라졌다. 경련이 그 위를 스쳐 갔다.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담아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쓰디쓴, 쓰디쓴 울음을 터뜨렸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했지요. 당신 정신도 온전치 않아요.」 그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오 분이 지났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그녀를 보지 않은 채 방을 오르내리다가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두 눈이 번득였다. 그는 두 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고 눈물에 젖은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는데, 그의 눈은 굳고 뜨겁고 꿰뚫는 듯했으며 그의 입술은 실룩거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별안간 빠르게 몸을 숙여 바닥에 엎드리고는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소냐는 미치광이를 피하듯 그에게서 물러섰고, 과연 그는 미치광이처럼 보였다.

「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저 같은 사람 앞에서! 」 그녀가 창백해지며 중얼거렸고, 별안간 고통이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가 곧바로 일어섰다.

「나는 당신한테 절한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고통에 절한 겁니다.」 그가 사납게 말하고는 창가로 걸어갔다. 「들어 봐요.」 그가 잠시 뒤 그녀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나는 아까 어떤 뻔뻔한 자한테, 그자는 당신 새끼손가락만 한 값어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 누이를 당신 옆에 앉힘으로써 누이한테 영예를 베풀었다고요.」

「아,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그분 앞에서요?」 소냐가 겁에 질려 외쳤다. 「 저하고 같이 앉다니요! 영예라니요! 저는…… 저는 명예가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큰, 큰 죄인이에요! 아, 어쩌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내가 당신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은 당신의 불명예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크나큰 고통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 그건 사실이지요. 」 그가 거의 열광하듯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죄는 헛되이 스스로를 죽이고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끔찍하지 않아요? 그토록 혐오하는 이 더러움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아무도 돕지 못하고 아무도 무엇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게(눈만 뜨면 되는 일이지요) 끔찍하지 않아요? 말해 봐요.」 그가 거의 광란에 빠져 말을 이었다. 「이 수치와 타락이 어떻게 당신 안에서 그와 반대되는 거룩한 감정들과 나란히 있을 수 있지요? 곧장 물에 머리부터 뛰어들어 단번에 끝내는 편이 더 올바르지요, 천 배는 더 올바르고 지혜롭지요!」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냐가 고통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힘없이 물었으나, 그의 제안에 놀란 기색은 아니었다.

라스콜니코프가 야릇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그 모든 것을 읽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 생각을 이미, 어쩌면 여러 번 했던 것이고, 절망 속에서 어떻게 끝낼지를 그토록 골똘히 궁리해 두었던 것이며, 어찌나 골똘했던지 이제는 그의 제안에 놀라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말이 모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책망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그녀의 수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남다른지도 물론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것 또한 그에게는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제 처지가 치욕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그녀를 얼마나 끔찍하게 괴롭히고 있는지, 또 오래도록 괴롭혀 왔는지를 보았다. 「무엇이, 무엇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여태 그녀가 그것을 끝내지 못하게 막아 왔을까?」 그제야 그는 저 가엾은 어린 고아들과, 폐병을 앓으며 벽에 머리를 찧는 저 가련한 반미치광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소냐에게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에게는 다시 분명해졌으니, 그녀의 성격과 그녀가 어쨌든 받은 만큼의 교육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에 뛰어들 마음을 먹지 못했다면 어떻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 그 처지에 그토록 오래 머물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이 여전히 그의 앞을 막고 있었다. 물론 그는 소냐의 처지가, 불행하게도 결코 유일하지도 예외적이지도 않은 일이기는 하나, 사회에서 우연히 생겨난 현상임을 알고 있었으되, 바로 그 우연성이, 그녀에게 스민 얼마간의 교양이, 그녀가 지나온 삶이, 저 역겨운 길의 첫걸음에서 그녀를 죽여 버렸을 법하다고 여길 만했다. 무엇이 그녀를 버티게 했는가 — 설마 타락은 아닐 테고? 그 모든 치욕이 그녀에게 닿은 것은 오로지 기계적으로였을 뿐, 진짜 타락은 한 방울도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했음이 분명했으니,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가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 앞에는 세 갈래 길이 있다.」 그는 생각했다. 「운하냐, 미치광이 병원이냐, 아니면…… 끝내 정신을 흐리고 마음을 돌로 만드는 타락 속에 가라앉는 것이냐.」

마지막 생각이 가장 역겨웠으나, 그는 회의하는 자였고 젊고 추상적이었으며 그러므로 모질었고, 그래서 마지막 끝이 가장 그럼직하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게 참일 수 있나?」 그는 속으로 외쳤다. 「아직도 제 넋의 깨끗함을 지켜 온 저 피조물이 끝내 제 눈으로 알면서 저 더러움과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 과정이 벌써 시작된 것은 아닐까? 여태 견뎌 낼 수 있었던 것이 그저 악덕이 그녀에게 덜 역겨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는 방금 소냐가 그랬듯이 외쳤다. 「아니야, 여태 그녀를 운하에서 붙들어 둔 것은 죄라는 생각과 저들, 저 아이들이야……. 그리고 만일 그녀의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면…… 그런데 누가 그녀의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고 하던가? 그녀가 제정신인가? 제정신인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따질 수 있나? 제가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저 역겨움의 구렁 가장자리에 앉아서, 위험하다고 일러 주는데도 손사래를 치며 귀를 막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인가? 틀림없이 그렇겠지. 그 모든 것이 곧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는 그 생각에 고집스럽게 머물렀다. 실은 그 설명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를 더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군요, 소냐?」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소냐는 말이 없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며 그녀 곁에 서 있었다.

「하느님이 없다면 제가 무엇이겠어요?」 그녀가 빠르고 힘 있게 속삭이며, 별안간 번득이는 눈으로 그를 흘깃 보고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아, 그렇단 말이지!」 그는 생각했다.

「그럼 하느님이 그 대가로 당신을 위해 무얼 해 주지요?」 그가 그녀를 더 찔러 보며 물었다.

소냐는 대답할 수 없기라도 한 듯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 약한 가슴이 격정으로 연방 들먹였다.

「잠자코 계세요! 묻지 마세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녀가 별안간 외치며, 준엄하고 노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가 속으로 되뇌었다.

「모든 것을 해 주세요.」 그녀가 다시 눈을 내리뜨고 빠르게 속삭였다.

「저게 빠져나갈 길이로군! 저게 설명이야.」 그는 이렇게 단정하고는, 새롭고 낯설고 거의 병적인 느낌을 품은 채 게걸스러운 호기심으로 그녀를 뜯어보았다. 그는 그 핏기 없고 마르고 고르지 못하고 모진 작은 얼굴을, 그런 불길을 그런 준엄한 기운을 뿜어낼 수

있는 그 부드러운 푸른 눈을, 분노와 노여움으로 아직도 떨고 있는 그 작은 몸을 바라보았다 — 그러자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갈수록 더 낯설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였다. 「성바보야! 성바보!」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서랍장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그는 방을 오르내릴 때마다 그것을 눈여겨보았다. 이제 그가 그것을 집어 들여다보았다. 러시아어 역본 신약[1]이었다. 가죽으로 매어진, 낡고 해진 책이었다.

「이건 어디서 났어요?」 그가 방 저쪽에서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탁자에서 세 걸음 떨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 누가 갖다줬어요. 」 그녀가 마지못한 듯, 그를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누가 갖다줬는데요?」

「리자베타요, 제가 달라고 했어요.」

「리자베타라니! 묘하군.」 그는 생각했다.

소냐에 관한 모든 것이 순간순간 그에게 더 낯설고 더 놀랍게 여겨졌고, 그는 책을 촛불 가까이 가져가 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나사로 이야기가 어디 있지요?」 그가 불쑥 물었다.

소냐는 고집스럽게 바닥을 보며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탁자에 옆으로 서 있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찾아 줘요, 소냐.」

그녀가 그를 몰래 흘깃 보았다.

「거기가 아니에요……. 네 번째 복음서에 있어요.」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지 않은 채 준엄하게 속삭였다.

「 찾아서 읽어 줘요. 」 그가 말했다. 그는 팔꿈치를 탁자에 괴고 머리를 손에 기댄 채 앉아, 들을 채비를 하고 침울하게 눈을 돌렸다.

「삼 주쯤 뒤면 칠 베르스타로, 미치광이 병원으로 어서 오시라! 나도 거기 가 있을 것 같군, 이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소냐는 라스콜니코프의 청을 미심쩍게 듣고는 머뭇거리며 탁자 쪽으로 움직였다. 그래도 그녀는 책을 집어 들었다.

「읽어 보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탁자 너머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수록 준엄해졌다.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읽어요!」

「교회에서 들어 보지도 않으셨고요?」

「나는…… 안 다녔어요. 자주 가요?」

「아-니요.」 소냐가 속삭였다.

라스콜니코프가 웃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아버지 장례에도 안 가겠군요?」

「아니요, 갈 거예요. 지난주에도 교회에 갔었어요…… 위령 기도[2]를 올렸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리자베타요. 도끼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의 신경이 갈수록 팽팽해졌다. 머리가 돌기 시작했다.

「리자베타하고 가까웠어요?」

「 네…….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오곤 했어요…… 자주는 못 오고…… 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같이 읽고…… 이야기했어요. 그이는 하느님을 뵐 거예요.」

그 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 그의 귀에 낯설게 들렸다. 그리고 여기 또 새로운 것이 있었으니, 리자베타와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둘 다 —

성바보라는 것.

「여기 있다간 나도 성바보가 되겠군! 옮는 거야!」

「읽어요!」 그가 짜증스럽고도 다그치듯 외쳤다.

소냐는 여전히 망설였고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으며, 그녀는 그에게 읽어 줄 엄두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그는 그 「불행한 미치광이」를 거의 괴로워하며 바라보았다.

「무엇 하러요? 믿지 않으시면서?……」 그녀가 부드럽게, 그러나 숨이 막힌 듯 속삭였다.

「읽어요! 읽어 달라니까요.」 그가 물고 늘어졌다. 「리자베타한테도 읽어 줬잖아요.」

소냐가 책을 펴서 그 자리를 찾았으나, 그녀의 두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아, 두 번이나 시작하려 했으면서도 첫 음절조차 내뱉지 못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녀가 마침내 억지로 읽어 냈으나, 세 번째 낱말에서 지나치게 죈 현처럼 목소리가 끊어졌다. 숨이 걸리고 가슴이 죄어들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가 어째서 제게 읽어 줄 마음을 먹지 못하는지 얼마쯤 알아차렸고, 그것을 알아차릴수록 더 거칠고 더 짜증스럽게 읽으라고 다그쳤다. 그는 제 것인 그 모든 것을 내보이고 벗겨 보이는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도 잘 알았다. 그는 이 감정들이야말로 참으로 그녀의 은밀한 보물이며, 불행한 아버지와 슬픔에 미쳐 버린 계모와 함께, 굶주리는 아이들과 차마 듣기 어려운 욕설과 책망 한가운데서 살아오는 동안, 어쩌면 여러 해를,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 온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이제 알았고 확실히 알았으니, 그것이 그녀를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가득 채우면서도 그녀에게는 읽고 싶은, 그것도 그가 듣도록 바로 그에게

읽어 주고 싶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지금 읽고 싶은 애타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그녀의 눈에서 읽었고 그녀의 북받친 격정에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아 목에 걸린 경련을 누르고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읽어 나갔다. 그녀는 19절에 이르렀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그분을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당신께서 무엇이든지 하느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느님이 당신께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고는 목소리가 또 떨리고 끊어지리라는 부끄러운 느낌에 그녀가 다시 멈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그분께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가 그분께 가로되」

(그러고는 고통스레 숨을 몰아쉬며, 소냐는 마치 뭇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기라도 하는 듯 또렷하고 힘 있게 읽었다.)

「주여 그러하외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녀는 멈추고 얼른 그를 올려다보았으나, 스스로를 다잡고 계속 읽어 나갔다. 라스콜니코프는 팔꿈치를 탁자에 괸 채 눈을 돌리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32절까지 읽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어 그분께 가로되 주여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저희가 그분께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분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스콜니코프가 돌아앉아 격정에 차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정말로, 진짜 열병에 걸려 온몸을 떨고 있었고 그는 그러리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크고 전대미문인 기적의 이야기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엄청난 승리감이 그녀를 덮쳤으며, 그녀의 목소리가 종처럼 울렸고 승리와 기쁨이 그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눈앞이 캄캄해져 글줄이 눈앞에서 춤추었으나 그녀는 제가 읽는 것을 외고 있었다. 마지막 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에 이르자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잠시 뒤면 벼락에 맞은 듯 엎드려 흐느끼며 믿게 될 저 눈멀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의심과 책망과 비난을 뜨겁게 되살려 냈다……. 「그리고 저이도, 저이도 — 눈이

멀었고 믿지 않는다, 저이도 들을 것이고 저이도 믿을 것이다, 그래, 그래! 당장, 지금 곧」 하는 것이 그녀가 꿈꾸고 있던 것이었고, 그녀는 행복한 기다림에 떨고 있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이 그 위에 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이제는 냄새가 나나이다.」

그녀는 「나흘」이라는 낱말에 힘을 주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저희가 죽은 자 누웠던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당신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나오더라.」

(그녀는 마치 눈앞에서 그것을 보고 있기라도 한 듯, 싸늘하게 식어 황홀에 떨며 큰 소리로 읽었다.)

「수족을 베로 동인 채요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녀는 더 읽지 못하고 책을 덮고는 의자에서 얼른 일어섰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녀가 준엄하게, 그리고 불쑥 속삭이고는, 몸을 돌려 그에게 눈을 들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꼼짝 않고 서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열병처럼 떨고 있었다. 촛동강이 찌그러진 촛대 속에서 꺼져 가며, 가난에 찌든 그 방 안에서 그토록 기이하게 영원한 책을 함께 읽고 있던 살인자와 창녀를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 분, 아니 그보다 더 지났다.

「용건이 있어서 왔어요.」 라스콜니코프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 내어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냐에게 갔고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눈을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유난히 준엄했고 거기에는 일종의 사나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는 오늘 내 가족을 버렸어요.」 그가 말했다. 「어머니와 누이를요. 이제 그 사람들을 보러 가지 않아요. 아주 끊었어요.」

「왜요?」 소냐가 놀라서 물었다. 얼마 전 그의 어머니와 누이를 만난 일이 그녀에게는 스스로도 헤아릴 수 없는 큰 자국을 남겨 놓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그 소식을 거의 공포에 질려 들었다.

「이제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가 덧붙였다. 「같이 갑시다……. 당신한테 왔어요, 우리는 둘 다 저주받았으니, 같이 우리 길을 갑시다!」

그의 눈이 번득였는데, 「꼭 미친 사람 같다」고 이번에는 소냐가 생각했다.

「어디로 가요?」 그녀가 놀라서 물으며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같은 길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것만 알고 그 이상은 몰라요. 같은 목적이에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으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가 끔찍하게, 끝없이 불행하다는 것뿐이었다.

「그 사람들 중 누구도, 말해 봐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해했어요.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신한테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소냐가 속삭였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넘었어요…… 넘을 힘이 있었지요. 스스로에게 손을 댔어요, 한 생명을 죽였어요…… 제 것을요(다 같은 겁니다!). 넋과 깨달음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건초 시장에서 끝나고 말겠지요……. 하지만 견뎌 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으면 나처럼 정신이 나갈 거예요. 이미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같은 길을 함께 가야 해요! 갑시다!」

「무엇 하러요? 이게 다 무엇 하러요?」 그의 말에 야릇하고도 격렬하게 흔들린 소냐가 말했다.

「무엇 하러냐고요? 이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예요! 이제는 일을 똑바로 마주 봐야 해요, 어린애처럼 울면서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외칠 게 아니라. 만일 정말로 내일 당신이 병원에 실려 가면 어떻게 되지요? 그 여자는 미쳤고 폐병을 앓고 있으니 곧 죽을 텐데 아이들은요? 폴레치카한테 화가 닥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셈이에요? 이 거리 모퉁이마다 제 어미가 구걸하라고 내보낸 아이들을 못 봤어요? 나는 그 어미들이 어디서 어떤 꼴로 사는지 알아냈어요. 거기서는 아이가 아이로 남아 있을 수 없어요! 일곱 살배기가 벌써 타락했고 도둑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형상이지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우리더러 아이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아이들은 앞으로 올 인류니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소냐가 히스테리에 빠져 울면서 두 손을 쥐어짜며 되풀이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부서져야 할 것을 단번에 부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제 몸에 지는 거고요. 뭐라고요,

모르겠다고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유와 힘, 무엇보다도 힘! 벌벌 떠는 온 피조물과 저 개미 떼 전부를 딛고 선 힘!……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기억해 둬요! 이게 내 작별 인사예요. 어쩌면 당신한테 말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지요. 내가 내일 오지 않거든 죄다 전해 듣게 될 테고, 그때 이 말을 기억해요.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여러 해가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될지도 모르지요. 내가 내일 오거든,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말해 줄게요……. 잘 있어요.」

소냐가 공포로 흠칫했다.

「아니, 누가 그이를 죽였는지 아세요?」 그녀가 공포에 얼어붙어 물으며, 넋을 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 알아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당신한테, 당신한테만. 나는 당신을 골라냈어요. 용서를 빌러 당신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저 말하러 오는 거예요. 나는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들을 사람으로 당신을 골라 놓았어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리자베타가 살아 있을 때 그 생각을 했지요. 잘 있어요, 악수는 하지 말아요. 내일!」

그가 나갔다. 소냐는 미치광이를 보듯 그를 바라보았으나, 그녀 자신도 정신 나간 사람 같았고 스스로도 그것을 느꼈다. 머리가 돌고 있었다.

「맙소사, 저이가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어떻게 알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끔찍해!」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생각은 그녀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순간도! 「아, 저이는 틀림없이 끔찍하게 불행한 거야!…… 어머니와 누이를 버렸다니…….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저이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저이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던가? 저이가 자기 발에 입을 맞추고 말했지…… 말했어(그래, 저이가 똑똑히 말했어) 자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아, 자비로우신 하느님!」

소냐는 밤새도록 열에 들떠 헛것을 보았다. 이따금 벌떡 일어나 울면서 두 손을 쥐어짜다가 다시 열에 들뜬 잠에 빠졌고, 폴레치카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리자베타를, 복음서를 읽던 일을, 그리고 저이를…… 핏기 없는 얼굴에 타는 눈을 한 저이가…… 제 발에 입을 맞추며 우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 아, 하느님!

오른쪽 문 너머, 소냐의 셋집과 게르트루다 카를로브나 레슬리히의 셋집을 가르고 있는 그 문 너머에는, 레슬리히 부인의 셋집에 딸려 그 집에서 세를 놓는, 오랫동안 비어 있던 사잇방이 하나 있었고, 대문에는 딱지가 붙어 있었으며 운하 쪽으로 난 창에는 세를 놓는다는 쪽지가 꽂혀 있었다. 소냐는 그 방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에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내내 스비드리가일로프 씨는 그 빈방의 문에 붙어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가 나가자 그는 그대로 선 채 잠시 생각하더니, 발끝으로 걸어 그 빈방에 잇닿은 제 방으로 가서 의자를 하나 가져다가 소리 없이 소냐의 방으로 통하는 문가에 놓았다. 그 이야기가 그에게는 흥미롭고 의미심장했고 그는 그것을 무척이나 즐겼는데 — 어찌나 즐거웠던지, 앞으로, 이를테면 내일 같은 때에 한 시간을 내리 서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편히 앉아 모든 면에서 흡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의자를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

1. 소냐의 책은 본문에서 「러시아어 역본 신약」으로 밝혀져 있다. 당시 러시아에서 읽히던 것은 1862년에 나온 시노드역으로, 그 무렵으로서는 가장 새로운 구어체 번역이었다. 그러나 저본인 가넷의 영역본은 뒤이어 오는 요한복음 11장 낭독을 1611년 흠정역의 문어체로 그대로 받아 옮겼다(낭독되는 스물세 절 가운데 스물한 절이 흠정역과 어절 단위로 일치한다). 한국어판은 이 어긋남을 고르지 않고 저본을 따라, 본문의 「러시아어 역본」이라는 말은 그대로 두고 낭독 대목만 문어체로 옮긴다.

2. 위령 기도 — 정교회의 파니히다(панихида). 죽은 이를 위해 따로 올리는 짧은 추도 예식으로, 장례와 무관하게 언제든 청할 수 있다. 가넷은 이를 가톨릭·성공회 용어인 「레퀴엠」으로 옮겼다.

4부 5장

이튿날 아침 열한 시 정각에 라스콜니코프가 형사 사건 예심부로 들어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에게 이름을 들여보냈을 때, 그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된 것이 뜻밖이었다. 불려 들어가기까지 적어도 십 분은 걸렸다. 그는 저들이 자기에게 대뜸 덮쳐들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런데 그는 대기실에 서 있었고, 보아하니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 앞을 쉴 새 없이 오갔다. 사무실처럼 보이는 옆방에서는 서기 몇이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는데, 라스콜니코프가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인지 저들이 조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제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워 둔 경비랄까, 자기에게 붙여 놓은 은밀한 감시랄까 하는 것이 어디엔가 있지는 않은지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레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자잘한 일에 파묻힌 서기들의 얼굴이 보였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였을 뿐 아무도 그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저들로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투였다. 어제의 그 수수께끼 같은 사내가, 땅에서 솟아오른 그 유령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았다면 저들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 두고 기다리게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확신이 그의 속에서 점점 굳어졌다. 게다가 그가 열한 시에 나타나기로 마음먹을 때까지 저들이 기다려 주었겠는가? 그 사내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였고(대체 그가 무엇을 볼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어제 그에게 일어난 일은 또다시 병들고 지나치게 긴장한 상상력이 부풀려 놓은 유령이었던 셈이다. 이 짐작은 어제 그 모든 불안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미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곰곰이 되짚으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던 그는 제가 떨고 있음을 문득 깨달았고 — 저 가증스러운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를 마주하기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이 포르피리를 다시 마주하는 일이었으니, 그는 그를 격렬하고 누그러짐 없는 증오로 미워했고 그 증오가 제 속을 드러내 버릴까 봐 두려웠다. 분노가 어찌나 컸던지 그는 대번에 떨기를 멈추었고, 차갑고 오만한 태도로 들어가리라 마음을 다잡으며, 되도록 입을 다물고 지켜보고 듣기만 하며 적어도 이번 한 번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곤두선 제 신경을 다스리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바로 그때 그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에게로 불려 들어갔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제 집무실에 혼자 있었다. 그 집무실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방으로, 유포(油布)를 씌운 소파 앞에 놓인 커다란 책상과 문서장, 구석의 책장, 그리고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 모두 반들반들한 노란 나무로 된 관청 비품이었다. 구석의 안쪽 벽, 아니 칸막이벽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그곳에는 잠긴 문이 하나 있었고, 그렇다면 그 칸막이 너머에는 다른 방들이 있을 터였다. 라스콜니코프가 들어서자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곧바로 라스콜니코프가 들어온 문을 닫았고 그리하여 둘만 남게 되었다. 그는 겉보기에 상냥하고 기분 좋은 태도로 손님을 맞았으나, 라스콜니코프가 그에게서 어떤 어색함의 기미를, 마치 셈이 어긋났거나 아주 은밀한 일을 하다 들킨 사람 같은 기미를 알아챈 것은 몇 분이 지나서였다.

「아, 이 친구! 이렇게 오셨군요…… 우리 구역으로 말입니다」…… 포르피리가 그에게 두 손을 내밀며 말을 꺼냈다. 「자, 앉으십시오, 노형…… 아니면 『이 친구』니 『노형』이니 하고 불리는 것이 싫으실까요, tout court[1]? 부디 너무 허물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소파에 앉으시지요.」

라스콜니코프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앉았다. 「우리 구역으로」라는 말, 허물없음에 대한 사과, tout court라는 프랑스어 따위 — 모두가 특징적인 표지였다.

「두 손을 내밀었으면서 한 손도 주지 않았다 — 제때에 거두어들인 것이다.」 이 점이 그에게 수상쩍게 다가왔다. 둘은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눈길이 마주치면 번개처럼 재빨리 눈을 돌렸다.

「서면을 가져왔습니다…… 시계 건으로요. 여기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니면 다시 써야 합니까?」

「예? 서면이요? 예, 예, 걱정 마십시오, 그대로 괜찮습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서두르듯 말했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서면을 받아 들여다보았다. 「예, 괜찮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똑같이 빠른 투로 잘라 말하고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다.

잠시 뒤 다른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는 그것을 책상에서 집어 제 문서장 위에 올려놓았다.

「어제 저더러…… 정식으로…… 살해된 여자와 알고 지낸 일에 대해 신문하고 싶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만?」 라스콜니코프가 다시 말을 꺼냈다. 「왜 『같습니다만』을 붙였지?」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그 『같습니다만』을 붙였다고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하는 생각이 두 번째 번개처럼 스쳤다. 그리고 그는 포르피리와 닿기만 했는데도, 단 두 마디 말에, 단 두 번의 눈길에 제 의심증이 순식간에 괴물 같은 크기로 자라났고 그것이 무섭도록 위험하다는 것을

문득 느꼈다. 신경이 떨리고 있었고 동요가 커지고 있었다. 「나쁘다, 나빠! 또 말을 너무 많이 하겠구나.」

「예, 예, 예! 서두를 것 없습니다, 서두를 것 없어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뚜렷한 목적도 없이 책상 둘레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는데, 창문 쪽으로, 문서장 쪽으로, 책상 쪽으로 불쑥불쑥 달려드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라스콜니코프의 의심스러운 눈길을 피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멈춰 서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살지고 둥근 그 작은 몸이 이쪽저쪽으로 굴러다니다가 벽과 구석마다 부딪혀 곧바로 되튀는 공처럼 무척 기이해 보였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담배 피우십니까? 가진 것 있으십니까? 자, 여기 한 대!」 그는 손님에게 담배를 권하며 말을 이었다.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손님을 맞고 있습니다만, 제 거처는 바로 여기, 이 칸막이벽 너머에 있습니다…… 관사 말입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바깥 셋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여기를 좀 손봐야 해서요. 이제 거의 끝나 갑니다……. 관사란, 아시겠지만, 훌륭한 것이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훌륭한 것이지요.」 라스콜니코프가 거의 빈정거리듯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훌륭한 것, 훌륭한 것이지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막 떠올리기라도 한 듯 되풀이했다. 「예, 훌륭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별안간 라스콜니코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두 걸음 앞에서 딱 멈춰 서서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관사가 훌륭한 것이라는 이 여러 번의 어리석은 되풀이는 그 진부함 때문에, 그가 지금 손님에게 던지는 진지하고 골똘하고 수수께끼 같은 눈길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라스콜니코프의 울화를 어느 때보다 더 돋우었고, 그는 빈정거리는, 그리고 적잖이 조심성 없는 도발을 참을 수 없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가 거의 무례하리만큼 그를 바라보며, 그리고 제 무례에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며 불쑥 물었다.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법률상의 규칙, 일종의 법률상의 수법 같은 것이 있지요 — 모든 예심판사에게 — 멀리서부터 시작하되 하찮은 이야기에서, 아니면 진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신문받는 사람의 기운을 돋우거나 아니 오히려 그 주의를 딴 데로 돌려 경계를 풀게 한 다음, 별안간 더없이 뜻밖에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문으로 정수리를 내리쳐 얼떨떨하게 만든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규칙과 지침서에 지금까지도 경건하게 적혀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예……. 아니, 제가 관사 이야기를 꺼낸 것이 그래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말하면서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윙크를 했고, 유쾌하고도 교활한 빛이 그 얼굴을 스쳤다. 이마의 주름이 펴지고 눈이 오므라들고 이목구비가 넓게 퍼지더니, 그는 별안간 온몸을 흔들며 라스콜니코프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본 채 신경질적으로 길게 늘어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라스콜니코프도 억지로 따라 웃었으나, 그가 웃는 것을 본 포르피리가 얼굴이 거의 새빨개질 만큼 커다랗게 웃어 젖히자 라스콜니코프의 역겨움이 모든 조심성을 이겨 버렸고, 그는 웃기를 그치고 인상을 쓴 채 포르피리가 일부러 길게 끄는 웃음이 이어지는 내내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증오에 차서 노려보았다. 그러나 조심성이 모자란 것은 양쪽 다였으니,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손님의 면전에다 대고 웃고 있는 듯했고 손님이 그 웃음을 증오로 받아들이는데도 거의 당황하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뒤의 이 사실이

라스콜니코프의 눈에는 무척 의미심장했다. 그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조금 전에도 당황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자기가, 이 라스콜니코프가 덫에 빠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 여기에는 자기가 모르는 무언가가, 어떤 목적이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 어쩌면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나 있어 다음 순간이면 그것이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대뜸 본론으로 들어가며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어 들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그가 단호하게, 그러나 적잖은 짜증을 실어 말을 꺼냈다. 「 어제 저더러 신문을 받으러 찾아오라는 뜻을 비치셨지요 」 (그는 「 신문 」 이라는 낱말에 특별히 힘을 주었다). 「 왔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물으실 것이 있으면 물으시고, 없으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말에 치여 죽은 그 관리의 장례에 가 봐야 해서요, 그 일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는 덧붙였다는 사실에 대번에 화가 났고 그 화 때문에 더욱 짜증이 났다. 「 저는 이 모든 것에 진저리가 납니다, 들리십니까?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병이 난 것도 얼마쯤은 그 때문이고요. 요컨대 」 그가 병 이야기를 꺼낸 것이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며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 요컨대 지금 당장 저를 신문하시든지 가게 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신문하셔야겠다면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어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우리를 붙들어 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원, 이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엇을 신문한단 말입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웃음을 뚝 그치고 어조를 바꾸어 깩깩거렸다. 「부디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부산을 떨더니 라스콜니코프를 앉히려 들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서두를

것 없어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아니, 아니요, 저는 마침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무척 기쁩니다…… 저는 그저 손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망할 놈의 웃음은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로지온 로마노비치.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게 성함 맞지요?…… 제 신경 탓입니다, 그 재치 있는 말씀에 어찌나 간지럼을 타던지요. 정말이지 저는 가끔 고무공처럼 삼십 분씩 웃음으로 들썩거립니다……. 웃음이 헤퍼서요. 제 체격으로는 중풍이 오지나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자, 앉으십시오. 부디 앉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화가 나신 줄로 알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말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성이 나서 인상을 쓴 채 그를 지켜보며 듣고 있었다. 그는 앉기는 했으나 모자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로지온 로마노비치.」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그리고 또다시 손님의 눈길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보시다시피 저는 독신이고 변변찮은 인간이며 사교에 익숙지 않습니다. 게다가 앞날이랄 것도 없고 굳어 버렸고 시들어 가고 있지요, 그러니…… 그러니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로지온 로마노비치, 우리네,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페테르부르크 바닥에서는 영리한 사람 둘이 만났는데 서로 친하지는 않으나 서로 존중하는 사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둘 같은 사이라면, 이야깃거리를 찾아내기까지 삼십 분이 걸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은 벙어리가 되어 마주 앉은 채 어색해하지요. 누구에게나 이야깃거리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숙녀들에게는…… 상류 사회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야깃거리가 있지요, c'est de rigueur[2]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중간치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혀가 굳고 어색해집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공적인 관심사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정직해서 서로 속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자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금방이라도 가실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쁜데 말이지요……」

라스콜니코프는 모자를 내려놓고,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막연하고 공허한 수다를 진지하게 인상을 쓴 얼굴로 잠자코 계속 듣고 있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시시한 잡소리로 내 주의를 흩뜨리려는 것인가?」

「여기서는 커피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만, 친구와 오 분쯤 보내는 것이야 어떻습니까?」 포르피리가 재잘거렸다. 「게다가 이 온갖 공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언짢게 여기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 친구, 기분을 상하게 해 드릴까 봐 무척 겁이 납니다만, 저에게는 운동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서요. 늘 앉아만 있다 보니 오 분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치질이 있어서요…… 체조로 고쳐 봐야지 고쳐 봐야지 늘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국가 고문관이니 정국가 고문관이니 하는 관리들이, 심지어 추밀원 고문관[3]까지도 신이 나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더군요. 보십시오, 그것이 현대 과학입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는 일로 말하자면, 신문이니 그 온갖 형식이니 하는 것들은…… 방금 신문 이야기를 직접 꺼내셨지요…… 정말이지 이런 심문이라는 것이 때로는 심문받는 쪽보다 심문하는 쪽에 더 난처한 일입니다……. 방금 직접 아주 적절하고 재치 있게 지적하신 대로지요.」 (라스콜니코프는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없었다.)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아주 뒤죽박죽이지요! 북을 두드리듯 같은 가락만 되풀이하게 되고요! 개혁이 있을 거라니 적어도 이름만은 달리 불리게 되겠지요, 헤헤헤! 그리고 우리의 그 법률상의 수법으로 말하자면, 참 재치 있게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재판을 받는 죄수라면 아무리 무지한 농사꾼이라도, 저들이

처음에는 상관없는 질문으로 제 경계를 잠재워 놓았다가(참 멋지게 표현하셨지요) 별안간 정수리를, 도끼 등으로, 헤헤헤! 바로 정수리를 내리쳐 얼떨떨하게 만든다는 것쯤은 압니다, 참 절묘한 비유를 드셨지요, 헤헤! 그러니까 제가 『관사』라는 말로 그런 뜻을 비쳤다고 정말로 여기셨단 말이지요…… 헤헤! 빈정거릴 줄 아는 분이십니다. 자.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지! 말이 말을 부르는군요. 방금 형식 이야기를 하셨지요, 신문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많은 경우에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더러는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쪽이 훨씬 많은 것을 얻어 내지요. 형식이야 언제든 다시 기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점은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예심판사가 걸음마다 형식에 매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예심이라는 일은, 말하자면, 그 나름으로 자유로운 예술입니다, 아니면 그 비슷한 것이지요…… 헤헤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잠시 숨을 돌렸다. 그는 그저 공허한 말들을 내뱉으며 재잘거렸고, 사이사이에 수수께끼 같은 낱말을 몇 개 흘리고는 다시 횡설수설로 돌아갔다. 그는 거의 방 안을 뛰어다니다시피 하며 살진 짧은 다리를 점점 더 빨리 놀렸고, 바닥을 내려다본 채 오른손은 뒤로 돌리고 왼손으로는 제 말과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는 손짓을 해댔다. 라스콜니코프는 그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이에 두 번쯤 문 가까이에서 잠깐씩 멈춰 서서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것을 문득 알아차렸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나?」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포르피리가 유난히 순박한 눈으로 라스콜니코프를 바라보며 유쾌하게 말을 꺼냈고(그것이 그를 흠칫하게 해 대번에 경계하게 만들었다), 「우리 법률상의 형식을

그렇게 재치 있게 비웃으신 것은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헤헤! 그 공들인 심리적 수법이라는 것 가운데 몇몇은 지독히도 우스꽝스럽고, 형식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아마 쓸모도 없을 겁니다. 예…… 또 형식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자, 제게 맡겨진 어떤 사건에서 누군가를,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범죄자로 알아보았다고 하면, 아니 더 엄밀히 말해 범죄자로 의심했다고 하면…… 물론 법률가가 되려고 공부하고 계시지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예,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날을 위한 선례가 되겠군요 — 그렇다고 범죄에 대해 쓰시는 글을 읽고도 제가 감히 가르치려 든다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아니요, 저는 그저 사실로서 말씀드려 볼 뿐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범죄자로 보았다 한들, 그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쥐고 있다 한들, 무엇 하러 그자를 때 이르게 들볶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를테면 제가 그자를 당장 잡아들여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니, 왜 그자를 시내나 좀 돌아다니게 두지 못하겠습니까? 헤헤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니 좀 더 분명한 본보기를 들어 드리지요. 제가 그자를 너무 일찍 감옥에 넣으면 그자에게, 말하자면, 도덕적인 버팀목을 주게 될 공산이 큽니다, 헤헤! 웃으십니까?」

라스콜니코프는 웃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열에 뜬 눈을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눈에 박은 채 앉아 있었다.

「그렇지만 사정이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유형들이 그렇지요. 사람이란 제각각이고, 그 모든 것을 가르는 것은 실무뿐이니까요. 『증거』라고 하셨지요. 그야 증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거라는 것은 대개 두 갈래로 읽힙니다. 저는 예심판사이고, 그러니 약한 인간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증명을, 말하자면, 수학처럼 또렷하게 해 놓고 싶습니다. 둘에 둘을 곱하면 넷이라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증거의 사슬을 엮어 놓고 싶고, 그것은 곧바르고 뒤집을 수 없는 증명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자를 너무 일찍 가두어 버리면 — 설령 그자가 범인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다 하더라도 — 그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더 얻어 낼 수단을 제 손으로 없애 버릴 공산이 큽니다. 어째서냐고요? 그자에게, 말하자면, 확정된 자리를 주어서,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그자를 규정해 주고 마음을 놓게 만들어, 그자가 자기 껍데기 속으로 들어앉아 버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제가 갇힌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세바스토폴에서 알마 전투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4], 영리한 사람들은 적이 대놓고 쳐들어와 세바스토폴을 단번에 빼앗아 갈까 봐 몹시 겁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이 정식 포위 공격을 택해 첫 참호선을 파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며 마음을 놓았다더군요, 적어도 두 달은 질질 끌 테니까요. 웃으십니까, 또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겁니까? 물론 그 말씀도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고말고요. 이것들은 특별한 경우들이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 로지온 로마노비치. 일반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상의 형식과 규칙이 겨냥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헤아려지고 책에 적혀 있는 그 일반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를테면 모든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 순간 낱낱이 지극히 특별한 사건이 되고 때로는 전에 있었던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사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런 종류의 아주 우스운 사건들이 더러 생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아주 가만히 내버려 두고, 건드리지도 들볶지도 않으면서, 다만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자가 순간순간 알거나 적어도 짐작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하여 그자가 끊임없는 의심과 공포 속에 놓이면, 맹세코

그자는 제정신을 잃게 됩니다. 제 발로 찾아올 테고, 어쩌면 둘에 둘을 곱하면 넷이라는 것만큼이나 훤한 무슨 짓까지 저지르겠지요 — 그야말로 신나는 일입니다. 어수룩한 농사꾼에게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부류, 현대식으로 영리하고 게다가 어느 한쪽으로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것은 떼어 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이 친구, 사람이 어느 쪽으로 교양을 갖추었는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신경이 있지요, 신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잊고 계셨군요! 그자들은 하나같이 병들고 신경질적이고 성마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울화에 시달리지요! 그것이야말로, 장담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금광입니다. 그자가 시내를 자유롭게 쏘다니는 것쯤은 제게 아무 걱정거리도 아닙니다! 쏘다니라지요, 좀 쏘다니라지요! 저는 그자가 제 먹잇감이고 제게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헤헤? 외국으로요? 폴란드 사람이라면 외국으로 달아나겠지만 여기 사람은 아닙니다, 더구나 제가 지켜보고 있고 손도 써 두었으니까요. 시골 깊은 데로 달아날까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농사꾼들이, 진짜 거칠고 무지한 러시아 농사꾼들이 살고 있지요. 현대식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우리 농사꾼 같은 외국인들 틈에 끼여 사느니 차라리 감옥을 고를 겁니다. 헤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다 부질없는 이야기이고 겉껍데기일 뿐입니다. 그자가 달아날 데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자는 심리적으로 제게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헤헤! 그것 참 대단한 표현이군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설령 갈 데가 있다 한들 그자는 제게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촛불 둘레를 도는 나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자도 그렇게 제 둘레를 돌고 또 돌 겁니다. 자유는 매력을 잃겠지요. 그자는 골똘해지기 시작하고, 갈피를 잃고, 그물에 걸리듯 제 몸을 사방으로 얽어매고, 스스로를 들볶아 죽게 만들 겁니다! 게다가 그자는

저에게 수학적인 증명까지 마련해 줄 테지요 — 제가 틈을 넉넉히 주기만 한다면요……. 그러고는 제 둘레를 돌고 돌며 반지름을 점점 좁히고 또 좁혀 오다가 — 툭! 제 입속으로 곧장 날아들고 저는 그자를 삼켜 버리는데, 그것이 아주 신나는 일이지요, 헤헤헤! 못 믿으시겠습니까?」

라스콜니코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백하게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여전히 같은 강렬함으로 포르피리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 훌륭한 수업이로군! 」 그는 싸늘해지며 생각했다. 「 어제처럼 고양이가 쥐를 놀리는 정도가 아니다. 공연히 제 힘을 뽐내며…… 나에게 귀띔해 주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 영리한 자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게 무엇인가? 다 헛소리다, 이 양반아, 너는 나를 겁주려고 연기하는 거다! 너에게는 증거가 없고 내가 본 사내는 실제로 있지도 않았다. 너는 그저 내가 정신을 잃게 만들고, 미리 나를 몰아세워 짓뭉개 버리려는 거다. 그러나 너는 틀렸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귀띔을 하지? 내 부서진 신경을 셈에 넣은 것인가? 아니다, 이 양반아, 너는 틀렸고, 네가 무언가를 마련해 두었다 한들 그렇게는 안 된다…… 무엇을 마련해 두었는지 어디 보자.」

그리고 그는 끔찍하고 알 수 없는 파국에 맞설 각오를 다졌다. 때때로 그는 포르피리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싶었다. 이 분노야말로 그가 처음부터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그는 제 마른 입술에 거품이 맺힌 것을 느꼈고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때가 올 때까지 입을 열지 않겠다고 여전히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그는 제 처지에서 그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알고 있었으니, 스스로 말을 너무 많이 해 버리는 대신 침묵으로 제 적을 약 올려 그가 너무 많이 지껄이도록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그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었다.

「아니요, 못 믿으시는군요, 제가 짓궂지 않은 농담이나 하고 있다고 여기시는군요.」 포르피리가 점점 더 활기를 띠고 시시각각 킥킥거리며 다시 방 안을 돌기 시작하면서 말을 꺼냈다. 「하기야 옳은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남들에게 우스운 생각밖에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몸뚱이를 주셨지요. 익살꾼올시다. 그렇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늙은이를 용서하십시오, 우리 로지온 로마노비치. 아직 젊은 분이시고, 말하자면 청춘의 첫머리에 계시니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 지성을 무엇보다 위에 놓으시는 겁니다. 장난스러운 재치와 추상적인 논변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지요. 그것은 꼭 옛 오스트리아의 Hof-kriegsrath[5] 같습니다, 제가 군사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종이 위에서는 나폴레옹을 쳐부수고 사로잡았고, 집무실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영리하게 짜 맞추어 놓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크 장군은 군대를 통째로 이끌고 항복해 버렸습니다, 헤헤헤! 압니다, 압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저 같은 민간인이 전사(戰史)에서 본보기를 끌어다 쓰는 것을 비웃고 계시는군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 약점이라서요. 저는 군사학을 좋아합니다. 온갖 전사를 읽는 것도 무척 좋아하고요. 저는 제 길을 잘못 든 것이 분명합니다. 군대에 있었어야 했어요, 정말이지 그랬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못 되었겠지만 소령쯤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헤헤! 자, 그럼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실제 사실이라는 것과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은, 여보십시오, 무게가 나가는 문제들이고, 그것들이 더러 가장 날카로운 계산을 어떻게 속여 넘기는지는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 늙은이 말을 들어 보십시오 —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렇게 말할 때, 서른다섯도 채 되지 않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정말로 늙어 버린 것처럼 보였다. 목소리까지

달라졌고 몸이 오그라든 것 같았다.) 「 게다가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솔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저 해 드리면서 대가 한 푼 바라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헤헤! 자, 계속하지요. 재치란 제 생각에는 훌륭한 것이고, 말하자면 자연의 장식이자 삶의 위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재주를 부릴 수 있는지요! 그래서 가난한 예심판사로서는 때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어려워지는데, 더구나 제 자신도 제 공상에 휩쓸리기 쉬운 처지이고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도 결국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딱한 예심판사를 구해 주는 것이 바로 그 기질이니, 그게 탈이지요! 그런데 자기 재치에 휩쓸린 젊은 사람들은, 참 재치 있고 영리하게 표현하신 대로 『모든 장애물을 넘을 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자는 거짓말을 할 겁니다 —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인 그 사람, 그 이름 없는 사내 말입니다 — 그리고 그자는 아주 영리하게, 훌륭하게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자가 이겨서 자기 재치의 열매를 누리겠거니 여기시겠지만, 가장 흥미로운 대목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그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겁니다. 물론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방이 답답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자는 우리에게 실마리를 준 겁니다! 그자는 비길 데 없이 거짓말을 했으되 자기 기질을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자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또 어떤 때는 장난스러운 자기 재치에 휩쓸려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을 놀려 먹으려 들고,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인 듯 창백해지겠지만, 그 창백함이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지나치게 진짜 같아서 또다시 우리에게 실마리를 준 것이 됩니다! 그자에게 묻는 사람이 처음에는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바보가 아니라면 이튿날에는 달리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물론 걸음마다 그런 식입니다! 그자는 부르지도 않은 자리에 제 발로 나서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 끊임없이 지껄이고, 온갖 비유적인 암시를 끌어들입니다, 헤헤! 찾아와서는 왜 진작 나를 잡아가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헤헤헤! 그리고 그런 일이, 아시겠습니까, 가장 영리한 사람에게도, 심리학자에게도, 문필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질은 모든 것을 거울처럼 비추지요! 들여다보고 보이는 것에 감탄이나 하십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창백하십니까, 로지온 로마노비치? 방이 답답합니까? 창문을 열어 드릴까요?」

「아,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소리치더니 별안간 웃음을 터뜨렸다. 「부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포르피리는 그를 마주 보고 서서 잠깐 멈추었다가 별안간 저도 웃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발작적인 웃음을 뚝 그치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그는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크고 또렷하게 말을 꺼냈다. 「이제야 똑똑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노파와 그 동생 리자베타를 죽였다고 정말로 의심하고 계시는군요. 제 쪽에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 일에 진저리가 납니다. 저를 법에 따라 기소하고 잡아들일 권리가 있다고 여기신다면 기소하시고 잡아들이십시오. 그러나 면전에서 조롱당하고 들볶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으며 목소리를 억누르지 못했다.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있는 힘껏 책상에 주먹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들리십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원, 이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보아하니 잔뜩 겁을 먹고 소리쳤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 친구,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또다시 소리쳤다.

「쉿, 이보시오! 저들이 듣고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에게 무어라 하겠습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라스콜니코프의 얼굴에 제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겁에 질려 속삭였다.

「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 라스콜니코프가 기계적으로 되풀이했으나 그 또한 별안간 속삭이고 있었다.

포르피리가 재빨리 몸을 돌려 창문을 열러 달려갔다.

「바깥 공기를 좀 쐬십시오! 그리고 물을 좀 드셔야겠습니다, 이 친구. 발작입니다!」 그는 물을 가져오라고 부르려고 문 쪽으로 달려가다가 구석에서 물병을 찾아냈다. 「자, 조금 드십시오.」 그가 물병을 들고 달려와 속삭였다. 「혹시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놀람과 동정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던지 라스콜니코프는 입을 다물고 거친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은 받지 않았다.

「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 친구, 이러다 제정신을 잃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물을 좀 드십시오, 조금만 드십시오.」

그는 억지로 잔을 쥐여 주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역겨운 듯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예, 가볍게 한 차례 왔군요! 병이 다시 도지겠습니다, 이 친구.」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여전히 적잖이 당황한 낯으로 다정한 동정을 담아 깩깩거렸다. 「 원, 이런, 몸을 더 돌보셔야 합니다! 드미트리 프로코피치가 여기 왔었습니다, 어제 저를 보러 왔지요 — 압니다, 압니다, 제 성미가 고약하고 빈정거리기 좋아한다는 것은요. 그런데 그이가 거기서 무슨 결론을 끌어냈는지요!…… 원, 이런, 그이는 어제 다녀가신 뒤에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어찌나 말을 하고 또 하던지 저는 그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이를 보내신 겁니까? 아니, 제발 좀 앉으십시오, 자비를 베푸셔서라도 앉으십시오!」

「아니요, 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찾아왔다는 것도, 왜 찾아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 라스콜니코프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아셨다고요?」

「알았습니다.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저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뒤 밤중에 셋집을 보러 가서 초인종을 울리고 피에 대해 물으신 것도, 그래서 일꾼들과 문지기들이 어리둥절해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러시다가는 정말로 미쳐 버리십니다, 맹세코 그렇습니다! 제정신을 잃으실 겁니다! 먼저는 운명한테서, 다음에는 경찰 관리들한테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 계시니, 이 일에서 저 일로 내달리며 저들이 입을 열어 이 모든 것을 끝내도록 몰아붙이시는 것이지요. 이 온갖 의심과 어리석음에 진저리가 나셨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심정을 알아맞혔지요? 다만 그렇게 하시다가는 제정신을 잃으실 테고 라주미힌의 정신까지 잃게 만드실 겁니다. 그이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셔야지요. 편찮으신 데다 그이에게는 미덕이 있으니 그 병이 그이에게 옮는 것이지요…… 더 나아지시면 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발 좀 앉으십시오. 부디 좀 쉬십시오, 안색이 말이 아닙니다, 좀 앉으십시오.」

라스콜니코프는 앉았고, 더는 떨지 않았으며 온몸이 뜨거웠다. 그는 놀란 채로, 여전히 겁에 질린 듯 다정한 걱정을 담은 눈으로 자기를 살피고 있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말에 온 신경을 긴장시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셋집에 대한 포르피리의

뜻밖의 말이 그를 완전히 짓눌러 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다면 저자는 셋집 일을 알고 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을 제 입으로 나에게 말한다!」

「예, 우리 법률 실무에도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적인 심리의 사례였지요.」 포르피리가 빠르게 말을 이었다. 「어떤 사내가 살인을 자백했는데 그것을 어찌나 그럴듯하게 밀고 나갔는지요! 그야말로 환각이었습니다. 그는 사실들을 들이대며 모두를 속여 넘겼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얼마쯤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얼마쯤은, 본의 아니게 어떤 살인의 빌미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인자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낙담에 빠졌고, 그것이 마음을 짓눌러 머리를 돌게 만들었으며, 이런저런 것을 상상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자기가 그 살인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끝내는 원로원[6]이 그 일을 들여다보았고 그 딱한 사람은 무죄를 받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로원에 감사할 일이지요! 쯧쯧쯧! 그러니 말입니다, 이 친구, 스스로 신경을 긁고 싶은 충동에 이끌려 밤중에 초인종을 울리고 다니고 피에 대해 묻고 다니신다면 열병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병적인 심리를 제 실무에서 연구해 왔습니다. 사람은 때로 창문에서, 또는 종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지요, 그 느낌이 또 그렇게 달콤하고요. 초인종을 울리는 것도 꼭 그와 같습니다……. 다 병입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제 병을 돌보지 않기 시작하셨어요. 경험 많은 의사에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 뚱뚱한 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정신이 혼미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헛소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잠시 라스콜니코프는 모든 것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럴 수가, 그럴 수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 그는 그

생각이 자기를 어느 정도의 격분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느끼며, 그 격분이 자기를 미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느끼며 그 생각을 밀어냈다.

「저는 헛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포르피리의 속셈을 꿰뚫어 보려고 온 능력을 쥐어짜며 소리쳤다. 「저는 완전히 제정신이었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듣고 있고 알아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헛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유난히 힘주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다 알아듣습니다! 아아!…… 들어 보십시오,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 친구. 만약 정말로 범죄자이시거나 이 빌어먹을 일에 어떤 식으로든 얽혀 계시다면,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제정신이었다고 우기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힘주어 그렇게 끈질기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도무지 그럴 수 없습니다.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틀림없이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고 우기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음에는 교활한 기색이 있었는데, 포르피리가 몸을 굽혀 다가오자 라스콜니코프는 소파 위에서 몸을 뒤로 물리며 말없이 어리둥절해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면 라주미힌 씨 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어제 제 발로 이야기하러 왔는지, 아니면 부추기셔서 왔는지 하는 것 말입니다. 그이가 제 발로 왔다고 하시고, 부추기셨다는 것은 감추셨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추지 않으십니다! 바로 직접 부추기셔서 그이가 왔다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런 말을 힘주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지나갔다.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그가 입술을 비틀어 병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힘없이 말했다. 「제 속셈을 다 안다는 것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다 안다는 것을 또다시 보이려 하시는군요.」 그는 제가 말을 제대로 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말했다. 「저를 겁주려 하시거나…… 아니면 그저 저를 비웃고 계시거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를 응시했고, 그 눈에는 또다시 격렬한 증오의 빛이 서렸다.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그가 소리쳤다. 「범죄자에게 가장 좋은 빠져나갈 구멍은 감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되도록 감추지 않는 것임을 아주 잘 알고 계시면서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참 교활한 분이시군요!」 포르피리가 킥킥거렸다. 「도무지 당해 낼 수가 없군요, 무슨 편집증 같은 것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 믿으신다고요? 그렇지만 벌써 믿고 계십니다, 사분의 일 아르신[7]쯤은 믿으셨어요. 한 아르신 다 믿게 해 드리지요, 저는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고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라스콜니코프의 입술이 떨렸다.

「예,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요.」 포르피리가 라스콜니코프의 팔꿈치 조금 위를 다정하게 가볍게 잡으며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요, 병을 돌보십시오. 게다가 지금 가족분들도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셔야지요. 달래 드리고 위로해 드려야 하는데 겁만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를 감시하고 계시고 그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까?」

「원, 이런! 아니, 그건 다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흥분하시면 저에게도 남들에게도 다 말해 버리신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라주미힌 씨, 드미트리 프로코피치한테서도 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아니, 말을 끊으셨습니다만,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그 모든 재치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으신 탓에 사물을

상식으로 보는 눈을 잃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초인종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저는, 예심판사인 제가, 그런 귀중한 것을, 그런 사실을(어엿한 사실 하나라고요!) 이렇게 통째로 넘겨 드렸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 보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고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먼저 의심을 풀어 드리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어야 하며, 주의를 딴 데로 돌려놓았다가 별안간 도끼 등으로 정수리를 내리치듯(바로 직접 쓰신 표현대로) 얼떨떨하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댁은 살해된 여자의 셋집에서 밤 열 시에, 아니 열한 시가 다 되어 무엇을 하고 계셨답니까? 그리고 왜 초인종을 울리셨고 왜 피에 대해 물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문지기들더러 함께 경찰서로, 중위한테 가자고 하셨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을 품고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정식으로 진술을 받고 하숙을 수색하고 어쩌면 잡아들이기까지 했어야지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저는 의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건전하게 보는 눈을 잃으시고 아무것도 못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스콜니코프가 흠칫 놀라는 바람에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그것을 놓칠 리 없었다.

「줄곧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소리쳤다.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가 잘못 알았을 리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포르피리가 화가 난 듯이, 그러나 라스콜니코프 씨가 자기를 어떻게 보든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유쾌하고 빈정거리는 낯빛을 지킨 채 되받았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예심판사가 어떻게 대해 드렸습니까? 병이니 헛소리니 모욕이니 우울이니 경찰 관리니 그 밖의

온갖 것이니 하고 죄다 일러 드리면서 방어할 수단을 쥐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헤헤헤! 하기야 그 심리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것이 그리 미덥지 않고 양쪽으로 다 베는 칼이기는 합니다. 병이니 헛소리니 꿈이니 헛것이 보였다느니 기억이 안 난다느니 —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보십시오, 어째서 그 병중에, 그 헛소리 중에 하필 바로 그 망상들에 사로잡히셨고 다른 망상에는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것들도 있었을 텐데요, 예? 헤헤헤헤!」

라스콜니코프는 거만하고 경멸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마디로」 그가 일어서면서, 그러면서 포르피리를 조금 밀치며 크고 끈질기게 말했다. 「한마디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딱 잘라 말씀하시고 서두르십시오, 지금 당장!」

「이거 참 대단한 일을 겪는군요!」 포르피리가 더없이 사람 좋고 교활하고 태연한 낯으로 소리쳤다. 「그리고 왜 알고 싶어 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알고 싶어 하십니까, 저들이 아직 들볶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불을 손에 쥐여 달라고 조르는 아이 같으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왜 스스로 우리에게 들이미십니까, 예? 헤헤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라스콜니코프가 노발대발해 소리쳤다.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불확실함을요?」 포르피리가 말을 끊었다.

「저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못 하겠고 하지 않겠습니다,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그가 또다시 책상에 주먹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쉿! 쉿! 저들이 듣습니다! 진지하게 경고드리니 몸조심하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포르피리가 속삭였는데, 이번에는 그 얼굴에 노파 같은 사람 좋음과 놀람의 기색이 없었다. 이제 그는 눈살을 찌푸린 채 엄격하게 대놓고 명령하고 있었고, 마치 단번에 온갖 비밀과 얼버무림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뿐이었다. 어리둥절해진 라스콜니코프는 별안간 진짜 광란에 빠졌으나, 이상하게도 그는 완전한 분노의 발작 속에서도 조용히 말하라는 그 명령에 또다시 따랐다.

「저는 고문당하도록 저를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증오와 함께 곧바로 깨달으며,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더욱 큰 분노에 떠밀리며 속삭였다. 「잡아들이십시오, 수색하십시오, 그러나 제발 형식을 갖추어 하시고 저를 가지고 놀지 마십시오! 감히 그러지 마십시오!」

「형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르피리가 똑같은 교활한 미소를 띠고, 라스콜니코프를 흐뭇하게 바라보기라도 하듯 말을 끊었다. 「저는 아주 정답게, 친구로서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 우정 따위는 원하지 않고 거기에 침을 뱉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자, 저는 모자를 집어 들고 갑니다. 저를 잡아들이실 생각이라면 이제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그는 모자를 집어 들고 문 쪽으로 갔다.

「제 자그마한 깜짝 선물은 안 보고 가시렵니까?」 포르피리가 킥킥거리며 다시 그의 팔꿈치 조금 위를 붙들어 문 앞에서 멈춰 세웠다.

그는 갈수록 더 유쾌하고 장난스러워지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것이 라스콜니코프를 미치게 만들었다.

「무슨 깜짝 선물 말입니까?」 그가 멈춰 서서 겁먹은 눈으로 포르피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제 자그마한 깜짝 선물 말입니다, 저 문 뒤에 앉아 있지요, 헤헤헤!」 (그는 칸막이벽에 난, 제 관사로 통하는 잠긴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에요? 무엇이……?」

라스콜니코프는 문으로 걸어가 열려고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다.

「잠겨 있습니다, 열쇠는 여기 있고요!」

정말로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보여 주었다.

「거짓말입니다.」 라스콜니코프가 걷잡을 수 없이 으르렁거렸다. 「거짓말입니다, 이 빌어먹을 어릿광대야[8]!」 그러고는 문 쪽으로 물러나면서도 조금도 겁먹지 않은 포르피리에게 달려들었다.

「다 알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덤벼들며 소리쳤다. 「제가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조롱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더 드러내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 로지온 로마노비치. 격해지셨군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부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을 부르십시오! 제가 병든 줄 알고서 저를 광란으로 몰아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려 한 것이 속셈이었습니다! 사실을 내놓으십시오! 저는 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없고 자묘토프 같은 하찮고 너절한 의심만 있을 뿐이지요! 제 성미를 알고서 저를 분노로 몰아간 다음 사제와 입회인[9]으로 저를 쓰러뜨리려 하신 겁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놓으십시오!」

「입회인은 무슨 입회인입니까, 여보시오? 사람들이 무슨 상상을 다 하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형식을 갖춘 것이 못 됩니다, 이 일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 친구……. 그리고 보시다시피 형식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포르피리는 문에 귀를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정말로 그때 다른 방, 바로 문 앞에서 무슨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아, 오는군요.」 라스콜니코프가 소리쳤다. 「저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다 셈해 두셨지요…… 좋습니다, 다 내놓으십시오. 입회인이든 증인이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 너무나 뜻밖이어서 라스콜니코프도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도 두 사람의 면담이 이런 결말에 이르리라고는 도저히 내다볼 수 없었을 그런 일이었다.

---

1. tout court — 프랑스어로 「짧게 말해서」, 곧 아무 덧붙임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른다는 뜻.

2. c'est de rigueur — 프랑스어로 「그것이 격식이다」, 곧 으레 그래야 하는 것이라는 뜻.

3. 제정 러시아 관등표(14등급)에서 국가 고문관은 5등, 정국가 고문관은 4등, 추밀원 고문관은 3등에 해당하는 문관 직급이다. 영역자 가넷은 앞의 둘을 「온갖 관등의 관리들」로 뭉뚱그렸다.

4. 알마 전투는 1854년 9월 크림 전쟁 초기에 벌어진 싸움이다. 그 뒤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세바스토폴을 단번에 치지 않고 긴 포위전을 택했다.

5. Hof-kriegsrath — 독일어로 오스트리아의 궁정 군사 참의회. 1805년 울름에서 마크 장군이 군대째로 나폴레옹에게 항복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6. 원로원(통치 원로원) — 제정 러시아에서 형사 사건의 최종 상소를 맡은 최고 기관. 영역자 가넷은 이를 「고등 항소 법원」이라는 영국식 이름으로 옮겼다.

7. 아르신 — 러시아의 길이 단위로 약 71센티미터. 영역자 가넷은 이 단위를 지우고 「사분의 일쯤」으로만 옮겼다.

8. 어릿광대 — 원문은 폴리시넬(полишинель), 이탈리아 희극과 인형극에서 온 꼽추 광대다. 영역자 가넷은 이를 영국 인형극의 주인공 펀치로 바꾸어 놓았다.

9. 입회인은 제정 러시아의 형사 절차에서 수색·압수·체포 따위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던 일반인 증인이다.

4부 6장

나중에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라스콜니코프에게 그것은 이렇게 보였다.

문 뒤에서 들리던 소란이 별안간 빠르게 커지더니 문이 조금 열렸다.

「무슨 일인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아니, 내가 분부해 두지 않았나……」

한순간 대답이 없었으나, 문간에 사람이 여럿 있고 그들이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무슨 일인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불안하게 되풀이했다.

「죄수 니콜라이를 데려왔습니다.」 누군가 대답했다.

「필요 없네! 데려가게! 기다리게 하게! 여기서 무얼 하는 건가? 이런 무질서가 있나!」 포르피리가 문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하지만 저 사람이……」 같은 목소리가 말을 꺼냈다가 별안간 멎었다.

실랑이에 쓰인 것은 이 초, 그 이상은 아니었고, 이어 누군가 거칠게 떠밀었고, 이어 몹시 창백한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 사내의 모습은 첫눈에 몹시 기이했다. 그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 앞만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빛이 번뜩였고, 그와 동시에 그 얼굴에는 처형대로 끌려가는 사람 같은 죽은 빛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하얗게 질린 입술이 희미하게 실룩거렸다.

그는 일꾼처럼 옷을 입었고 키는 보통이었으며, 아주 젊고 야위었고, 머리는 둥글게 돌려 깎았으며, 생김새는 가늘고 메말랐다. 그가 밀쳐냈던 사내가 뒤따라 방으로 들어와 용케 그의 어깨를 붙들었으니, 그는 호송병이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팔을 뿌리치고 다시 한 번 그에게서 빠져나왔다.

여러 사람이 궁금해하며 문간으로 몰려들었다. 그중 몇은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이 모든 일이 거의 한순간에 일어났다.

「나가게, 너무 이르대도! 부를 때까지 기다리게!…… 어째서 이렇게 일찍 데려왔나?」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몹시 짜증을 내며, 셈이 어그러지기라도 한 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니콜라이가 별안간 무릎을 꿇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포르피리가 놀라 소리쳤다.

「내가 죄인이오! 죄는 내 것이오! 내가 살인자요.」 니콜라이가 별안간, 숨이 조금 가쁜 채로, 그러나 꽤 크게 또박또박 말했다.

십 초 동안 모두가 얼어붙기라도 한 듯 침묵이 흘렀다. 호송병조차 뒤로 물러나 더는 니콜라이에게 다가가지 않고 기계적으로 문 쪽으로 물러섰고 꼼짝도 하지 않고 섰다.

「무슨 소린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한순간의 얼떨떨함에서 깨어나며 소리쳤다.

「내가…… 살인자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니콜라이가 되풀이했다.

「뭐라고…… 자네가…… 뭐라고…… 누구를 죽였다는 건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보기에도 어리둥절했다.

니콜라이는 다시 한순간 말이 없었다.

「알료나 이바노브나와 그 동생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를, 내가…… 도끼로…… 죽였소. 어둠이 나를 덮쳤소.」 그가 별안간 덧붙이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생각에 잠기기라도 한 듯 한동안 서 있었으나, 별안간 정신을 차리고 청하지도 않은 구경꾼들을 손짓으로 물렸다. 그들은 곧바로 사라지고 문을 닫았다. 이어 그는 구석에 서서 니콜라이를 넋 나간 듯 바라보고 있는 라스콜니코프 쪽을 보고는 그에게 다가가려다가 우뚝 멈추어 그를 바라보았고, 곧바로 니콜라이에게로, 다시 라스콜니코프에게로, 또다시 니콜라이에게로 눈을 옮기더니, 무엇에 휩쓸리기라도 한 듯 다시 니콜라이에게 달려들었다.

「자네는 어째서 그 어둠 이야기로 앞질러 가나?」 그가 거의 화를 내다시피 그에게 소리쳤다. 「어둠이 자네를 덮쳤는지 아닌지는 아직 묻지도 않았네……. 말해 보게, 자네가 죽였나?」

「내가 살인자요……. 진술을 하겠소.」 니콜라이가 말했다.

「아흐! 무엇으로 죽였나?」

「도끼요. 미리 마련해 두었소.」

「아흐, 서두르는군! 혼자서?」

니콜라이는 그 물음을 알아듣지 못했다.

「혼자서 했느냐고?」

「그렇소, 혼자서. 그리고 미트카는 죄가 없고 거기 끼지도 않았소.」

「미트카 이야기는 서두르지 말게! 아아흐! 그때 자네들은 어째서 그렇게 층계를 뛰어 내려갔나? 수위들이 자네 둘을 마주쳤다는데!」

「 눈을 속이려고 그런 거요…… 미트카하고 같이 달렸소. 」 니콜라이가 대답을 미리 마련해 두기라도 한 듯 서둘러 대꾸했다.

「그럴 줄 알았어!」 포르피리가 분하다는 듯 소리쳤다. 「저건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야.」 그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고, 별안간

그의 눈이 다시 라스콜니코프에게 가 멎었다.

그는 니콜라이에게 어찌나 정신을 빼앗겼던지 한순간 라스콜니코프를 잊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제 그는 별안간 정신이 들었고, 당황하기까지 했다……

「친애하는 로지온 로마노비치, 실례합니다!」 그가 그에게 날아가듯 다가왔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셔야겠습니다…… 여기 계셔 봐야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저도…… 보시다시피, 무슨 깜짝 선물들이 다 생기는지!…… 자, 이리로 가시지요!」

그러고는 그의 팔을 잡고 문을 가리켰다.

「이건 예상하지 못하셨겠지요?」 아직 사태를 온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용기를 되찾은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이보십시오, 예상하지 못하기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저렇게 떨리는 것 좀 보십시오! 헤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도 떨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떨고 있지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문 앞에 이르렀고, 포르피리는 라스콜니코프가 어서 가 버리기를 안달했다.

「그 자그마한 깜짝 선물은요, 보여 주지 않으실 겁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별안간 말했다.

「아니, 물으시면서 이가 딱딱 부딪치는군요, 헤헤! 빈정거리기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또 뵐 때까지!」

「제 생각에는 이걸로 영영 작별입니다!」

「하느님 뜻대로지요, 하느님 뜻대로지요!」 포르피리가 어쩐지 일그러진 미소를 띠고 중얼거렸다.

사무실을 지나가면서 라스콜니코프는 많은 사람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다. 현관의 사람들 틈에서 그는 그날 밤 제가 구역 경찰관에게 가자고 했던 그 집 수위 둘을 보았다. 그들은 거기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층계에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그 사람이 숨이 차서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고 있었다.

「 한 말씀만, 로지온 로마노비치. 나머지야 다 하느님 뜻대로입니다만, 그래도 형식상 여쭈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서요…… 그러니 또 뵙게 될 겁니다, 그렇고말고요.」

그러고는 포르피리가 미소를 띤 채 그를 마주하고 우뚝 섰다.

「그렇고말고요.」 그가 한 번 더 덧붙였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했으나 입 밖에 내지 못했다.

「 방금 있었던 일은 용서해 주셔야겠습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제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말을 꺼냈으니, 그는 용기를 어찌나 되찾았던지 허세를 부려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포르피리가 거의 신이 나서 대꾸했다. 「 저 역시도…… 저는 성미가 독살스럽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또 뵙게 되겠지요. 하느님의 뜻이라면 서로 아주, 아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 그리고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되겠지요? 」 라스콜니코프가 덧붙였다.

「 그렇지요,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되겠지요. 」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맞장구를 치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라스콜니코프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명명일 잔치에 가시는 길입니까?」

「장례식입니다.」

「아 그렇지, 장례식이지요! 건강을 돌보십시오, 건강을요……」

「 무엇을 빌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가 다시 뒤를 돌아본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더 큰 성공을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만, 맡고 계신 직책이 워낙 우스운 것이라서요.」

「 어째서 우습다는 말씀입니까? 」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가려고 몸을 돌렸다가 이 말에 귀를 쫑긋 세우는 듯했다.

「아니, 저 가엾은 니콜라이를 예의 그 방식대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문하고 들볶았으면 자백을 했겠습니까! 밤낮으로 그를 물고 늘어지며 『자네가 살인자야, 자네가 살인자야……』 하고 증명해 보이셨을 테고, 이제 그가 자백을 했으니 다시 그를 뼈마디마디 주물러 대기 시작하시겠지요. 『자네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 하고 말씀하시겠지요. 『자네는 살인자가 아니야! 자네일 리가 없어! 그건 자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세!』 그러니 이래도 직책이 우습지 않단 말입니까?」

「 헤헤헤! 그럼 제가 방금 니콜라이더러 저건 자기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 것을 알아채셨군요?」

「알아채지 않을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 헤헤! 재치가 있으십니다, 재치가 있으세요. 무엇이든 다 알아채십니다! 참으로 장난기 어린 머리를 가지셨습니다! 게다가 늘 우스운 쪽을 물고 늘어지시고요…… 헤헤! 작가들 가운데서는 고골이 바로 그 점이 더없이 두드러졌다지요?」

「그렇지요, 고골이.」

「그렇습니다, 고골이지요……. 더없이 즐겁게 다시 뵙기를.」

「더없이 즐겁게 다시 뵙기를……」

라스콜니코프는 곧장 집으로 걸어갔다. 머릿속이 어찌나 뒤엉키고 어지러웠던지 집에 이르자 그는 소파에 십오 분이나 앉아 생각을 추스르려 애썼다. 그는 니콜라이에 대해 생각해 보려 들지 않았다. 그는

얼이 빠져 있었다. 그는 그 자백이 설명할 수 없고 놀라운 무엇 — 제 이해를 넘어선 무엇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니콜라이의 자백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이 사실이 가져올 결과는 그에게 곧바로 분명해졌으니, 그 거짓됨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다시 그를 쫓아올 터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가 자유로웠고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으니, 위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 어느 정도인가? 제 처지가 차츰 그에게 분명해졌다. 조금 전 포르피리와의 장면을 큰 줄기만 대강 떠올려 보고도 그는 다시 공포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는 아직 포르피리의 목적을 다 알지 못했고 그 계산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포르피리는 이미 제 패를 얼마쯤 내보였고, 포르피리의 그 「수」가 제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는 라스콜니코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그는 낱낱이, 정황까지 들어 제 손으로 저를 내놓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신경질적인 기질을 알고 첫눈에 그를 꿰뚫어 본 포르피리는 너무 과감하기는 했으나 거의 틀림없는 수를 두었다. 라스콜니코프가 스스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으나, 아직 사실이라 할 것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는 제 처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포르피리는 무엇을 노리고 있었던가? 정말로 오늘 무언가 마련해 둔 것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었나? 그는 정말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아니었던가? 니콜라이로 말미암은 뜻밖의 파국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헤어졌을까?

포르피리는 제 패를 거의 다 보여 주었다. 물론 모험이었지만 보여 주었고, (라스콜니코프에게는 줄곧 그렇게 여겨졌다) 포르피리에게 정말로 무언가 더 있었더라면 그것도 보여 주었을 것이다. 그 「깜짝

선물」이란 무엇이었나? 조롱이었나? 무슨 뜻이 있었나, 없었나? 사실 같은 것을, 확실한 증거 한 조각을 감추고 있었을 수 있을까? 어제의 그 사내? 그는 어디로 꺼져 버렸나? 오늘은 어디 있나? 포르피리에게 정말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어제의 그 사내와 이어져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두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신경질적으로 떨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일어나 챙 모자를 집어 들고 잠시 생각하다가 문으로 갔다.

적어도 오늘만은 제가 거의 틀림없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여겨도 되리라는 일종의 예감이 그에게 있었다. 별안간 기쁨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서둘러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가고 싶었다. 물론 장례식에는 너무 늦을 터였으나 추도연에는 늦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그는 곧 소냐를 보게 될 터였다.

그는 우뚝 서서 잠시 생각했고, 병든 미소가 그의 입술에 비어져 나왔다.

「오늘이다! 오늘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풀이했다. 「그래, 오늘이다!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문을 열려는 참에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문은 부드럽고 천천히 열렸고, 별안간 한 모습이 나타났다 — 어제의, 땅 밑에서 솟아난 그 사내였다.

사내는 문간에 서서 말없이 라스콜니코프를 바라보다가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그는 어제와 똑같았으니, 같은 모습에 같은 옷차림이었으나 얼굴과 눈빛만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풀이 죽어 보였고 깊이 한숨을 쉬었다. 손을 뺨에 갖다 대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기만 했더라면 그는 영락없는 시골 아낙처럼 보였을 것이다.

「무슨 일이오?」 공포에 얼어붙은 라스콜니코프가 물었다. 사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별안간 땅에 거의 닿을 만큼 깊이 몸을 굽혀 절했다. 적어도 오른손 손가락으로 땅을 짚기는 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라스콜니코프가 소리쳤다.

「내가 죄를 지었소.」 사내가 나직이 말했다.

「어떻게?」

「나쁜 생각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 나는 부아가 났소. 당신이 와서, 어쩌면 술이 들어간 채로, 수위들더러 경찰서에 가자고 하고 피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그들이 당신을 놓아 보내고 당신을 술 취한 사람으로 여긴 것에 부아가 났소. 어찌나 부아가 났던지 잠을 잃을 지경이었소. 그리고 주소를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는 어제 여기로 와서 당신을 찾았던 거요…….」

「누가 왔다고?」 라스콜니코프가 곧바로 기억을 더듬기 시작하며 말을 끊었다.

「내가 왔소, 내가 당신한테 몹쓸 짓을 했소.」

「그럼 당신은 그 집에서 왔소?」

「나는 그들과 함께 대문간에 서 있었소…… 기억나지 않소? 우리는 여러 해 전부터 그 집에서 장사를 해 왔소. 우리는 모피 장인이오, 소시민이고, 일감을 집으로 받아 하지요…… 무엇보다도 나는 부아가 났소…….」

그러자 그저께 대문간에서 있었던 장면 전체가 라스콜니코프의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다. 그는 거기 수위들 말고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어떤 목소리가 그를 곧장 경찰서로 데려가자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말한 사람의 얼굴은

떠올릴 수 없었고 지금도 알아보지 못했으나, 제가 돌아서서 그에게 무어라 대답했던 것은 기억이 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의 그 공포에 대한 풀이였다. 가장 끔찍한 생각은 그가 실제로 거의 끝장날 뻔했다는 것, 그토록 하찮은 정황 하나로 제 손으로 저를 망칠 뻔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내는 그가 셋방을 얻으러 왔다는 것과 피 이야기를 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르피리에게도 그 헛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양날로 베는 이 심리뿐 사실이라 할 것은 없으며,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를 붙잡는다 한들 어떻게 유죄를 씌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포르피리는 그렇다면 셋방에 대해 이제야 막 들은 것이고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 포르피리에게…… 내가 거기 갔었다고 말한 것이 당신이오? 」 별안간 떠오른 생각에 얻어맞은 듯 그가 소리쳤다.

「포르피리가 누구요?」

「예심부 책임자 말이오.」

「그렇소. 수위들은 거기 가지 않았지만 나는 갔소.」

「오늘?」

「당신보다 바로 일 분 먼저 갔었소. 그리고 나는 들었소, 다 들었소,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들볶았는지.」

「어디서? 무엇을? 언제?」

「 아니, 그 사람 칸막이 너머에서 말이오. 나는 내내 거기 앉아 있었소.」

「 뭐라고? 아니, 그럼 당신이 그 깜짝 선물이었단 말이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수위들이 내 말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았소.」 사내가 말을 꺼냈다. 「너무 늦었다고, 제때 가지 않았다고 그쪽에서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그들이 말했소. 나는 부아가 나서 잠을 잃었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소. 그리고 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내어 오늘 갔소. 처음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없었고, 한 시간 뒤에 갔을 때는 나를 만나 줄 수가 없다고 했소. 세 번째로 갔더니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소. 나는 있었던 그대로 죄다 알렸고, 그러자 그 사람이 방 안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소.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나한테 무슨 짓들이냐? 내가 그런 일인 줄 알았더라면 호송병을 붙여 그자를 불러들였을 것 아닌가!』 하고 말했소. 그러고는 뛰어나가 누군가를 불러 구석에서 이야기를 하더니, 이어 나에게 돌아서서 야단을 치고 캐물었소. 나를 한참이나 야단쳤소. 그래서 나는 죄다 말했고, 어제 당신이 내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는 것과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도 말했소.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뛰어다니기 시작해서 연방 제 가슴을 치고 화를 내고 뛰어다녔고, 당신이 왔다는 전갈이 오자 나더러 칸막이 뒤로 들어가라고 했소. 『거기 좀 앉아 있게.』 그 사람이 말했소. 『무슨 소리를 듣든 꼼짝 말게.』 그러고는 거기에 나를 위해 의자를 놓아 주고 나를 가두었소. 『어쩌면,』 그 사람이 말했소. 『자네를 부를지도 모르네.』 그리고 니콜라이를 데려왔을 때는 당신이 가자마자 나를 내보냈소. 『자네를 다시 부르러 보내어 신문하겠네.』 그 사람이 말했소.」

「그리고 당신이 거기 있는 동안 그가 니콜라이를 신문했소?」

「당신을 내보내자 곧바로 나도 내보냈고, 그러고는 니콜라이를 신문하기 시작했소.」

사내는 우뚝 섰다가 다시 별안간 손가락으로 땅을 짚으며 몸을 굽혀 절했다.

「내 나쁜 생각과 내 중상을 용서해 주시오.」

「하느님께서 용서하실 거요.」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사내는 다시 몸을 굽혀 절했으나 이번에는 땅에 닿도록이 아니라 허리까지만 굽혔고, 천천히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 모든 것이 양날로 벤다, 이제는 모든 것이 양날로 벤다. 」 라스콜니코프가 되풀이했고, 그는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방을 나섰다.

「이제 한번 싸워 보자.」 그는 층계를 내려가며 악의에 찬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 악의는 저 자신을 겨눈 것이었다. 그는 부끄러움과 경멸을 품고 제 「비겁함」을 떠올렸다.

5부 1장

두냐와 그 어머니를 만난 운명적인 자리가 있고 난 이튿날 아침은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영향을 끼쳤다. 몹시 불쾌한 일이기는 했으나,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환상적이고 믿기지 않는 일로만 보이던 것을 그는 조금씩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상한 허영심이라는 검은 뱀이 밤새도록 그의 가슴을 갉아먹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곧바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황달에 걸린 것이 아닌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건강은 아직까지 아무 탈이 없어 보였고, 요사이 제법 살이 오른 제 고결하고 말간 얼굴을 바라보노라니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다른 신붓감을, 어쩌면 더 나은 신붓감까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한순간 정말로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제 지금 처지가 다시 떠오르자 그는 고개를 돌려 힘껏 침을 뱉었고, 그것이 그가 얹혀살고 있는 젊은 벗 안드레이 세묘노비치 레베쟈트니코프에게 말없는, 그러나 빈정거리는 미소를 불러일으켰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고 곧바로 젊은 벗의 계정에 그것을 적어 넣었다. 요사이 그가 그 계정에 적어 넣은 것은 적지 않았다. 어제 그 자리의 결말을 안드레이 세묘노비치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그의 분노는 갑절이 되었다. 그것이 성급함과 짜증 때문에 홧김에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이었다……. 게다가 그날 아침 내내 불쾌한 일이 꼬리를 물었다. 원로원[1]에 걸려 있는 제 소송에서까지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를 짜증 나게 한 것은 다가오는 혼인을 내다보고 빌려 제 돈으로 손을 보게 하던 그 셋집의 임자였다. 벼락부자가 된 어느 독일인 장인인 그 임자는 방금 서명한 계약을 깬다는 생각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사실상 새로 단장한 집을 돌려주는 것인데도 위약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내놓으라고 우겼다. 마찬가지로 가구점에서도 사 놓기는 했으나 아직 그 집으로 옮기지 않은 가구의 계약금을 단 1루블도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

「가구 때문에 혼인을 해야 한단 말인가?」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이를 갈았고, 그와 동시에 또 한 번 절망적인 희망이 번득였다. 「정말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돌이킬 수 없이 끝나 버린 것일까? 한 번 더 애를 써 보는 것이 정말 소용없는 일일까?」 두냐 생각이 그의 가슴에 관능적인 통증을 찔러 넣었다. 그 순간 그는 괴로움을 견디고 있었고, 만일 바라기만 해서 라스콜니코프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다면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곧바로 그 소원을 입 밖에 냈을 것이다.

「저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도 내 잘못이었어.」 레베쟈트니코프의 방으로 맥없이 돌아가며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대체 어쩌자고 그렇게 유대인 노릇을 했을까? 따져 보면 아무 셈속도 없는 짓이었어! 저들이 나를 제 섭리처럼 우러러보게 하려고 한 푼도 쥐여 주지 않고 붙잡아 두려 했는데, 그래, 저 꼴을 보란 말이지! 퉤! 혼수와 선물이며 자질구레한 장신구며 화장 상자며 패물이며 옷감이며 크노프 상회와 영국 상점에서 파는 그런 잡동사니에 천오백 루블쯤 썼더라면 내 처지가 더 나았을 테고…… 더 든든했을 텐데! 저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내치지는 못했을 거야! 저들은 파혼하면 돈과 선물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여길 그런 부류이고, 돌려주기란 꽤나 괴롭고 아까웠을 테지! 그리고

양심이 저들을 찔렀을 거야. 여태 그토록 너그럽고 자상했던 사람을 어떻게 내칠 수 있겠어?……. 흠! 내가 실수를 했어.」

그리고 다시 이를 갈며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불렀다 — 물론 소리를 내지는 않고.

그는 전보다 갑절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왔다. 지나는 길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도연 준비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제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고 실은 초대를 받은 것 같기도 했으나, 제 걱정거리에 빠져 있느라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묘지에 가 있는 동안 상을 차리느라 바쁜 리페베흐젤 부인에게 물어보고 그가 들은 바로는, 잔치는 굉장한 규모가 될 것이고 하숙인이 거의 모두 초대받았으며 그 가운데는 죽은 이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까지 끼어 있고, 전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다툰 일이 있는데도 안드레이 세묘노비치 레베쟈트니코프까지 초대를 받았으며, 그 자신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초대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숙인 가운데 거의 가장 중요한 손님인 만큼 간절히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 자신도 근래의 불쾌한 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격식을 갖추어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준비에 몹시 바빴으며 거기서 진짜 즐거움을 얻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한껏 차려입어 온통 새 검정 비단 차림이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이 모든 것이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한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얼마쯤 생각에 잠긴 채 제 방으로, 아니 그보다는 레베쟈트니코프의 방으로 들어갔다. 라스콜니코프가 손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다.

안드레이 세묘노비치는 아침 내내 집에 있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이 신사를 대하는 태도는 이상했으나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그의 집에 들어와 지내게 된 날부터 그를 도를 넘을 만큼 경멸하고 미워했으면서 동시에 그를 얼마쯤 두려워하는

듯했다. 페테르부르크에 닿으면서 그의 집에 들어와 지내게 된 것이 단순히 인색함 때문만은 아니었으니,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목적이기는 했겠지만 말이다. 그는 한때 제 피후견인이었던 안드레이 세묘노비치가 앞서 나가는 젊은 진보주의자로서 어떤 흥미로운 모임들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으며 그 모임들이 하는 일이 시골에서는 전설처럼 이야기된다는 말을 들었던 터였다. 그것이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모두를 경멸하고 모두의 정체를 까발린다는 그 힘 있고 모르는 것이 없는 모임들은 오래전부터 그에게 묘하기는 하나 아주 막연한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물론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림잡아 헤아리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그도 여느 사람들처럼 특히 페테르부르크에 무슨 진보주의자니 허무주의자니 폭로꾼이니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그 낱말들이 지닌 뜻을 터무니없을 만큼 부풀리고 비틀어 놓고 있었다. 여러 해 전부터 그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한 것은 정체가 까발려지는 일이었고, 제 사업을 페테르부르크로 옮긴다는 생각에 그가 끊임없이 불안해한 주된 까닭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어린아이가 더러 까닭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듯 그것을 두려워했다. 몇 해 전 제 길에 막 들어섰을 무렵 그는 제 후원자였던 지방의 제법 중요한 인물 둘이 무참하게 까발려진 사건 두 건을 겪은 일이 있었다. 한쪽은 공격받은 사람에게 큰 추문으로 끝났고 다른 한쪽은 하마터면 심각한 말썽으로 끝날 뻔했다. 그래서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페테르부르크에 닿는 대로 그 문제를 파고들어, 필요하다면 「우리 젊은 세대」의 환심을 사 둠으로써 앞일에 미리 손을 써 두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 일에서 그는 안드레이 세묘노비치를 믿고 의지했고, 라스콜니코프를 찾아가기 전에 이미 요즘 도는 문구 몇 개를 주워 담아 두는 데 성공한 터였다. 안드레이 세묘노비치가 그저 그런 얼간이라는 것을 그는 곧 알아챘으나, 그렇다고 해서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마음을 놓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진보주의자들이 죄다 그와 같은 바보라고 확신했다 한들 그의 불안이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드레이 세묘노비치가 그를 들볶아 대는 온갖 학설과 사상과 체계는 그에게 아무 관심거리도 되지 못했다. 그에게는 제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 — 그는 그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장 알아내고 싶었을 뿐이다. 이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들에게서 두려워할 것이 있는가? 그가 이러저러한 일을 벌이면 그들이 그를 까발릴 것인가, 아닌가? 까발린다면 정확히 무엇 때문이며, 지금 그들이 까발리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뿐이 아니다. 그들이 정말로 힘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 자리에서 슬쩍 속여 넘길 수는 없을까? 그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를테면 바로 그들을 통해 제 출셋길에 무언가 손을 써 둘 수는 없을까? 실로 수백 가지 물음이 떠올랐다.

안드레이 세묘노비치는 빈혈기가 있고 연주창을 앓는 자그마한 사내로, 이상하리만큼 허연 금발에, 커틀릿 모양으로 기른 구레나룻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관리였고 거의 언제나 눈에 탈이 있었다. 마음씨는 제법 무른 편이었으나 말할 때는 자신만만하고 더러 지독히 우쭐거렸는데, 그 자그마한 몸집과 어울리지 않아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는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가장 존중하는 하숙인 가운데 하나였으니, 술에 취하는 일이 없고 방세를 꼬박꼬박 냈기 때문이다. 안드레이 세묘노비치는 실제로 제법 어리석었다. 그가 진보의 대의와 「우리 젊은 세대」에 붙은 것은 열정에서였다. 그는 유행하는 사상에 달라붙어 그것을 속되게 만들어 버릴 뿐이고 아무리 진심으로 섬긴다 한들 저희가 섬기는 대의를 죄다 희화로 만들어 놓고 마는, 저 수많고 갖가지인 속물들, 비실비실한 팔삭둥이들,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독불장군들의 군단 가운데 하나였다.

레베쟈트니코프는 사람이 좋기는 했으나 그 역시 표트르 페트로비치를 싫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일은 양쪽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 안드레이 세묘노비치가 아무리 단순하다 한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저를 속여 넘기며 속으로 경멸하고 있다는 것과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푸리에[2]의 체계와 다윈의 학설을 그에게 풀어 보이려 애썼으나, 근래 들어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지나치게 빈정거리며 듣기 시작했고 심지어 무례하게 굴기까지 했다. 사실인즉 그는 레베쟈트니코프가 그저 그런 얼간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거짓말쟁이이기도 하며, 제 동아리 안에서조차 이렇다 할 연줄이 없고 그저 세 다리 건너 주워들은 것들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며, 게다가 머릿속이 너무나 뒤죽박죽이어서 십중팔구 제 선전 활동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이 없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짐작하기 시작한 터였다. 그런 자가 남의 정체를 까발리기는 무슨! 덧붙여 두어야 할 것은,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그 열흘 남짓한 동안 (특히 처음에는) 안드레이 세묘노비치에게서 더없이 기이한 칭찬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안드레이 세묘노비치가 그를 두고 어디 메샨스카야 거리쯤에 새로운 「공동체」를 머지않아 세우는 데 힘을 보탤 용의가 있다느니, 장차 두냐가 혼인한 지 한 달 만에 정부를 두고 싶어 하더라도 막지 않을 용의가 있다느니, 장차 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용의가 있다느니 하며 치켜세웠을 때 그는 항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제 칭찬을 듣는 것이 어찌나 즐거웠던지 그런 미덕조차 제 것으로 돌려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그날 아침 5푼짜리 공채[3]를 얼마쯤 현금으로 바꿀 일이 있었고, 이제 탁자 앞에 앉아 지폐 뭉치를 세고 있었다. 돈이라고는 거의 만져 본 일이 없는 안드레이 세묘노비치는 그 지폐

다발을 무심하게, 심지어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노라고 제 자신에게 시늉을 하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안드레이 세묘노비치가 정말로 그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는 무엇으로도 표트르 페트로비치를 납득시킬 수 없었을 터이고, 안드레이 세묘노비치는 그대로 그 나름대로,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제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며 어쩌면 늘어놓은 지폐 뭉치로 젊은 벗을 간질이고 약 올려, 그의 보잘것없음과 둘 사이에 있다고들 하는 그 모든 차이를 일깨울 기회를 반기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속으로 쓰라려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도무지 믿기 어려울 만큼 건성이고 짜증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니까 안드레이 세묘노비치는 제가 좋아하는 화제인 새롭고 특별한 「공동체」의 창설을 놓고 이야기를 넓혀 가기 시작한 참이었다. 주판알 튀기는 소리 사이사이로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짤막한 대꾸에는 누가 보아도 뚜렷한, 그리고 일부러 무례하게 구는 빈정거림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인도적인」 안드레이 세묘노비치는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언짢은 기분을 어제 두냐와 틀어진 일 탓으로 돌렸고, 그 주제를 놓고 한바탕 논해 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에게는 그 문제에 관하여 훌륭한 벗을 위로해 줄 만하고 그의 계발을 북돋우는 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진보적인 이야깃거리가 있었다.

「저쪽에서…… 그 과부 쪽에서 무슨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가장 흥미로운 대목에 이른 안드레이 세묘노비치의 말을 불쑥 가로채며 물었다.

「아니, 모르셨어요? 그런 의식이란 걸 제가 어떻게 보는지는 어젯밤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초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어제 그 부인하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거지 같은 바보가 그 딴 바보, 라스콜니코프한테서 받은 돈을 죄다 이 잔치에 쏟아부으리라고는 본인으로서는 짐작도 못 했습니다. 방금 지나오면서 저쪽 준비하는 꼴을 보고 놀랐지요, 그 술들이라니! 여러 사람이 초대를 받았고요.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무슨 속셈이 있어 보이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말을 이었다. 「뭐라고요? 본인도 초대를 받았다고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기억에 없군요. 그렇지만 가지 않겠습니다. 어째서 가겠습니까? 어제 지나는 길에 그 여자에게, 관리의 궁핍한 과부로서 한 해 치 봉급을 일시 지원금으로 받아 낼 수도 있다는 말을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을 초대한 모양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헤헤헤!」

「저도 갈 생각은 없어요.」 레베쟈트니코프가 말했다.

「 그러시겠지요! 손수 두들겨 패 놓으셨으니. 부끄러우실 만도 하지요, 헤헤헤!」

「누가 누구를 팼다고요?」 레베쟈트니코프가 당황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 아니, 한 달 전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두들겨 패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쪽 신념이라는 것이 고작 그 정도라는 이야기고…… 여성 문제라는 것도 그리 미덥지가 않다는 이야기지요, 헤헤헤!」 그리고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위로라도 받은 듯 다시 주판알을 튀기기 시작했다.

「그건 다 중상이고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늘 두려워하던 레베쟈트니코프가 소리쳤다. 「 그런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달랐다고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건 모함이에요. 저는 그저 저를 지켰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먼저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고 제 구레나룻을 죄다 잡아 뜯었어요……. 누구든 제 몸을 지키는 것쯤은 허락되는 일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도 저에게 폭력을 쓰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건 거의 전제니까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그 여자 앞에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이에요? 저는 그저 그 여자를 밀쳐 냈을 뿐이에요.」

「헤헤헤!」 루쥔이 계속 악의에 차서 웃었다.

「그쪽 기분이 나쁘니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고 여성 문제하고는 아무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모르시는군요. 저도 사실 여자가 모든 점에서, 힘에서까지(요즘 그렇게들 주장하니까요) 남자와 같다면 거기서도 평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물론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런 문제는 애초에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싸움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미래 사회에서 싸움이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싸움에서 평등을 찾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일 테니까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아요…… 물론 싸움이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없을 테고, 지금은 있지만…… 아이참! 당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지! 제가 가지 않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원칙에 따라 가지 않는 거예요, 추도연이라는 역겨운 인습에 한몫 끼지 않으려고요, 그래서라고요! 하기야 물론 그걸 비웃어 주러 갈 수도 있겠지요……. 거기 사제가 없다니 아쉽네요. 사제가 있다면 꼭 갈 텐데요.」

「 그러니까 남의 상에 앉아서 그 상과 그쪽을 초대한 사람들을 모욕하시겠다는 거군요. 예?」

「 모욕이 아니라 항의지요. 저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간접적으로나마 계몽과 선전의 대의를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계몽과 선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고, 어쩌면 모질수록 더 좋은 것이고요. 저는 씨앗 하나를, 생각 하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 씨앗에서 사실이 자라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들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상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테레비예바는(지금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요) 집을 나와서…… 제 몸을…… 바쳤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인습대로 살지 않겠다고, 자유로운 혼인에 들어선다고 알렸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어요. 그건 너무 모질다고, 부모를 좀 봐주어서 더 다정하게 썼어야 했다고들 했지요. 제가 보기엔 그건 다 터무니없는 소리이고 부드러울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오히려 바로 그럴 때 항의해야 해요. 바렌츠는 혼인한 지 일곱 해 만에 아이 둘을 버리고 남편에게 편지로 대놓고 말했어요. 『나는 당신과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사회에 또 다른 조직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숨기고 나를 속여 온 당신을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최근에야 그것을 마음 넓은 어떤 사람에게서 배웠고, 그에게 나를 주었으며 그와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터놓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속이는 일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를 되찾을 생각은 마십시오,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편지는 그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그 테레비예바라는 사람이 세 번째로 자유로운 혼인을 했다던 그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두 번째예요! 그렇지만 네 번째면 어떻고 열다섯 번째면 또 어때요, 그런 건 다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아쉬워한 적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에요. 부모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제가 어떤 항의를 그분들에게 들이댔을까 하고 가끔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무슨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떨어져 나간 빵 조각』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게 다 뭐예요,

퉤! 본때를 보여 드렸을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해 드렸을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깜짝 놀라게 한다! 헤헤! 자,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말을 가로챘다. 「대신 이것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그 죽은 사람의 딸을, 그 가냘퍼 보이는 자그마한 것을 아십니까? 그 여자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신념입니다만, 그것이 여성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왜 아니겠어요? 제 말은, distinguons[4].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정상은 아니지요, 강제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완전히 정상일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 될 테니까요. 지금 이대로도 그 여자에게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것이 그 여자의 자산이었으니까요, 말하자면 그 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완전한 권리를 가진 자본이었지요. 물론 미래 사회에서는 자산이 필요 없어지겠지만, 그 여자가 맡은 몫은 다른 의미를, 이성에 맞고 그 여자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소피야 세묘노브나 개인으로 말하자면, 저는 그 여자의 행위를 사회 조직에 대한 힘차고 몸소 구현된 항의로 보고 그 때문에 그 여자를 깊이 존경해요. 정말이지 그 여자를 볼 때마다 기쁩니다!」

「그 여자가 이 하숙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이 그쪽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레베쟈트니코프는 격분했다.

「그것도 중상이에요.」 그가 악을 썼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죄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지어낸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소피야 세묘노브나에게 수작을 건 적이 없어요! 저는 그저 그 여자를 계발하고 있었을 뿐이고, 전혀

사심 없이, 그 여자를 일으켜 항의하게 하려던 것이었어요……. 제가 바란 것은 그 여자의 항의뿐이었고, 소피야 세묘노브나는 어차피 여기 머무를 수 없었어요!」

「당신네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청해 보셨습니까?」

「 자꾸 웃으시는군요, 아주 온당치 못하게 말이에요, 한 말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 없어요. 공동체는 그런 역할이 없도록 세워지는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은 본질적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어리석은 것이 거기서는 분별 있는 것이 되고, 지금의 조건에서 부자연스러운 것이 공동체 안에서는 더없이 자연스러운 것이 돼요. 모든 것이 환경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환경이고 인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까지도 소피야 세묘노브나와 사이가 좋은데, 그것이야말로 그 여자가 저한테 몹쓸 일을 당했다고 여긴 적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요! 저는 지금 그 여자를 공동체로 꾀어 들이고 있어요, 다만 아주, 아주, 아주 다른 바탕 위에서요! 뭐가 우스우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더 넓은 바탕 위에 선 특별한 공동체를 세우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념에서 더 멀리 나아갔어요. 우리는 더 많이 거부해요! 도브롤류보프가 무덤에서 일어난다면 저는 그와도 논쟁을 벌일 거예요. 벨린스키쯤은 아예 납작하게 눌러 버릴 테고요![5] 그리고 그동안에도 저는 소피야 세묘노브나를 계속 계발하고 있고요. 그 여자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고운 성품을 이용해 먹으신다는 거지요, 예? 헤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오, 그 반대라! 헤헤헤! 거참 묘한 말씀이군요!」

「 믿어 주세요! 제가 왜 감추겠어요? 오히려 저 자신도 이상할 지경이에요. 저를 대할 때 그 여자는 어쩐지 유난스럽게, 어쩐지 겁먹은

듯이 정결하고 수줍어하거든요!」

「 그래서 물론 그 여자를 계발하고 계시겠군요…… 헤헤! 그 정숙이라는 것이 죄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납득시키려 애쓰면서 말입니다?」

「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거칠게, 그렇게 어리석게 —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 계발이라는 낱말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맙소사, 어쩌면 그렇게……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셨는지! 우리는 여성의 자유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당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군요……. 정결이니 여성의 정숙이니 하는 일반적인 문제야 그 자체로 쓸모없는 것이고 실상 편견이라고 제쳐 두더라도, 저는 저를 대하는 그 여자의 정결을 온전히 받아들여요, 그건 그 여자가 정할 일이니까요. 물론 그 여자가 저를 원한다고 스스로 말해 준다면 저는 제가 무척 운이 좋다고 여길 거예요, 그 처녀를 아주 좋아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여자의 존엄을 저보다 더 존중해서 그 여자를 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바라며 기다립니다, 그뿐이에요!」

「무얼 하나 선물하시는 편이 훨씬 나을 텐데요. 그런 건 생각도 못 해 보셨을 테지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모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여자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주 다른 문제라고요! 당신은 그저 그 여자를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받아 마땅하다고 잘못 여기는 사실 하나를 보고서, 같은 인간을 인도적으로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거지요. 그 여자가 어떤 성품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다만 저로서는 근래 들어 그 여자가 책 읽기도 책 빌리기도 아주 그만두었다는 것이 아쉬워요. 전에는 제가 빌려주곤 했거든요. 또 아쉬운 것은, 항의하는 데 그만한 기운과 결단을 보이고도 — 이미 한 번 보여 준 적이 있지요 — 스스로를

믿는 힘이, 말하자면 독립이 아직 모자라고 부정이 모자라서 어떤 편견과 어떤 어리석은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어떤 문제들은 아주 잘 이해해요, 이를테면 손에 입 맞추는 문제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여자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불평등의 표시니까요. 우리가 그 문제로 토론을 했고 제가 그걸 그 여자에게 들려주었어요. 프랑스의 노동자 결사에 대한 이야기도 주의 깊게 들었고요. 지금은 미래 사회에서 방에 들어가는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 전에 이런 문제로 토론을 했어요. 공동체의 구성원은 남자든 여자든 다른 구성원의 방에 아무 때나 들어갈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있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나 그 여자가 그때 마침 꼭 필요한 볼일을 보고 있다면요, 헤헤!」

레베쟈트니코프는 정말로 화가 났다.

「당신은 늘 그 얘기, 그 망할 『볼일』 얘기뿐이군요!」 그가 넌더리를 내며 소리쳤다. 「퉤! 체계를 설명하면서 그 망할 볼일 이야기를 그때 너무 일찍 꺼낸 것이 얼마나 화나고 분한지 몰라요! 제기랄! 그건 당신 같은 사람들 모두에게 걸림돌이고, 무엇보다 무슨 일인지 알기도 전에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러고는 꼭 저희가 옳은 것처럼! 꼭 무슨 자랑거리라도 있는 것처럼! 퉤! 저는 체계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지기 전에는 초심자가 그 문제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좀 말씀해 보세요, 오물 구덩이에 대체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라면 어떤 오물 구덩이든 맨 먼저 나서서 치울 용의가 있어요. 게다가 그건 희생의 문제도 아니고 그저

노동이에요, 다른 어떤 노동에도 못지않은, 아니 라파엘로나 푸시킨의 일보다 훨씬 나은 명예롭고 유용한 노동이지요, 더 유용하니까요.」

「더 명예롭다, 더 명예롭다, 헤헤헤!」

「『더 명예롭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인간의 활동을 두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더 명예롭다』느니 『더 고귀하다』느니 — 그런 건 죄다 제가 거부하는 낡아 빠진 편견이에요. 인류에게 쓸모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명예로워요. 제가 아는 낱말은 하나뿐이에요. 유용하다! 얼마든지 비웃으셔도 좋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마음껏 웃었다. 그는 돈 세기를 끝내고 치우는 중이었다. 그러나 지폐 얼마는 어쩐 일인지 아직 탁자 위에 남아 있었다. 「오물 구덩이 문제」는 그 저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번 둘 사이에 다툼과 불화의 빌미가 된 적이 있었다. 우스운 것은 그것이 레베쟈트니코프를 정말로 화나게 하는 반면 루쥔은 재미있어했다는 점이고, 그 순간 그는 젊은 벗을 화나게 만들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어제 운이 나빴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상하고 성가시게 구는 거예요.」 「독립」이니 「항의」니 해도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맞서기를 감히 못 하고 여전히 지난날의 버릇이 남은 존경을 얼마쯤 지닌 채 그를 대하던 레베쟈트니코프가 불쑥 내뱉었다.

「그보다 이것부터 말해 보십시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거만하게 언짢은 낯으로 말을 가로챘다. 「혹시…… 아니 그보다, 앞서 말한 그 젊은 아가씨더러 지금 잠깐 이 방으로 와 달라고 청할 만큼 정말로 가까운 사이입니까? 다들 묘지에서 돌아온 모양이던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가씨를 좀 봐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레베쟈트니코프가 놀라서 물었다.

「아, 그냥 그러고 싶습니다. 본인은 오늘이나 내일 여기를 떠날 참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둘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야기하는 동안 그쪽이 자리에 있어도 좋습니다. 아니, 있는 편이 낫겠군요. 그러지 않으면 그쪽이 무슨 상상을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아무 상상도 안 해요. 그저 물어봤을 뿐이고, 그 여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불러오는 것쯤이야 아주 쉬운 일이지요. 지금 가겠습니다, 그리고 방해가 되지 않을 테니 마음 놓으세요.」

오 분 뒤 레베쟈트니코프가 소냐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몹시 놀란 채, 늘 그렇듯 수줍음에 짓눌린 채 들어왔다. 그녀는 이런 자리에서는 언제나 수줍어했고 낯선 사람을 언제나 두려워했으니, 어릴 적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심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그녀를 「정중하고 상냥하게」 맞았으나, 거기에는 그의 생각으로는 그만한 체면과 무게를 지닌 사람이 그녀처럼 젊고 어떤 의미에서는 흥미로운 것을 대할 때 어울리는, 얼마쯤 놀리는 듯한 허물없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안심시키고」 탁자 앞 제 맞은편에 앉혔다. 소냐는 앉아서 둘레를 둘러보았다 — 레베쟈트니코프를, 탁자 위에 놓인 지폐를, 그러고 나서 다시 표트르 페트로비치를, 그리고 그녀의 눈은 그에게 못 박힌 채 떨어지지 않았다. 레베쟈트니코프가 문 쪽으로 가려 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일어나 소냐에게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손짓하고 문간에서 레베쟈트니코프를 붙들었다.

「라스콜니코프가 저기 있습니까? 왔습니까?」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라스콜니코프요? 네. 왜요? 네, 저기 있어요. 막 들어오는 걸 봤어요……. 왜요?」

「저, 본인이 특별히 청하건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고 본인을 이…… 젊은 여자와 단둘이 두지 말아 주십시오. 몇 마디만 나누면 되는 일입니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무슨 말을 만들어 낼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라스콜니코프가 무슨 말이든 옮기고 다니는 것은 본인이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레베쟈트니코프가 요점을 알아챘다. 「 네, 그럴 권리가 있으시지요……. 물론 저 개인의 신념으로는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럴 권리가 있으시지요. 그럼요, 있겠습니다. 저기 창가에 서서 방해가 되지 않게 하지요…… 제 생각에도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소파로 돌아가 소냐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지극히 위엄 있는, 심지어 엄한 낯빛을 지었으니, 「부인, 착각일랑 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듯했다. 소냐는 당혹감에 짓눌렸다.

「 먼저, 소피야 세묘노브나, 존경하는 어머님께 본인의 사정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지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당신에게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이니까요? 」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대단히 위엄 있게, 그러면서도 상냥하게 말을 꺼냈다.

그의 뜻이 우호적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입니다.」 소냐가 겁먹은 듯 서둘러 대답했다.

「그러면 본인의 사과를 그분께 전해 주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게 되었고, 어머님의 고마운 초대에도 불구하고 댁의 블린[6] 자리에…… 아니, 추도연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그리고 소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그녀의 순진함과 예법에 어두운 것을 보고 미소 지으며 그녀를 붙들었다. 「그리고 친애하는 소피야 세묘노브나, 본인에게만 관계되는 그만한 하찮은 일로 당신 같은 분을 본인이 감히 번거롭게 했으리라 여기신다면 본인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소냐는 황급히 앉았다. 그녀의 눈은 탁자 위에 남아 있는 회색과 무지개빛 지폐[7]에 다시 한순간 머물렀으나 그녀는 얼른 눈길을 돌려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눈을 고정했다. 남의 돈을 쳐다보는 것이, 더구나 그녀로서는 끔찍하게 무례한 일로 느껴졌던 것이다. 그녀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왼손에 쥐고 있는 금 손잡이 안경과 가운뎃손가락에 낀, 노란 보석이 박힌 묵직하고 몹시 아름다운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별안간 눈길을 돌렸고, 어디를 보아야 할지 몰라 끝내는 다시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게 되었다. 더욱 위엄 있게 뜸을 들인 뒤 그가 말을 이었다.

「본인은 어제 지나는 길에 우연히 가엾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두어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분이 처한 처지가 —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상궤를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상궤를 벗어난……」 소냐가 황급히 맞장구쳤다.

「아니면 더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병이 든 것이지요.」

「네, 더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 네, 병이 든 것입니다.」

「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애에서, 그리고오오, 말하자면 연민에서 본인은 그분의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를 내다보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난에 짓눌린 집안 전체가 이제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제 그분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연금을 받아 주시기로 하셨다고 말했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조금도 그런 일이 없고, 실상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인은 그저 재직 중에 사망한 관리의 과부로서 임시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넌지시 비쳤을 뿐입니다 — 그것도 후원자가 있을 때에나 말이지요…… 그런데 보아하니 돌아가신 부친께서는 근무 연한을 다 채우지도 못했고 근래에는 아예 관직에 있지도 않았더군요. 요컨대 무슨 희망이 있다 한들 대단히 덧없는 것이니, 그런 경우에는 보조를 청구할 권리라는 것이 실상 아예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연금을 꿈꾸고 있다니, 헤헤헤!…… 앞서 나가는 부인이올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남을 잘 믿고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좋으니 무엇이든 다 믿어 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분은 그런 성품이시라…… 네…… 실례하겠습니다.」 소냐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가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본인이 하려던 말씀은 아직 듣지 않으셨습니다.」

「네, 듣지 않았습니다.」 소냐가 중얼거렸다.

「그러면 앉으십시오.」 그녀는 끔찍하게 당황했다. 그녀는 세 번째로 다시 앉았다.

「 그 불행한 어린것들과 함께 있는 그분의 처지를 보건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힘이 닿는 한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닿는 한에서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그분을 위하여 의연금을 모으거나 복권을 마련하거나 그 비슷한 것을, 곧 이런 경우에 벗들이나 심지어 남을 돕고자 하는 바깥사람들이 으레 마련하는 그런 것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당신께 말씀드리려던 것이 바로 그것이니, 그것은 능히 될 수 있는 일입니다.」

「 네, 네…… 하느님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 소냐가 표트르 페트로비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더듬더듬 말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오늘부터 시작해도 되겠고, 오늘 저녁에 의논해서 말하자면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시에 본인에게로 오십시오. 레베쟈트니코프 씨도 우리를 거들어 주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미리 일러 두어야 할 사정이 한 가지 있고, 소피야 세묘노브나, 본인이 감히 당신을 번거롭게 하여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돈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본인의 손에 쥐여 드릴 수는 없으며, 실상 그것은 위태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추도연이 그 증거입니다. 그분에게는 내일 먹을, 말하자면 빵 한 조각도 없고…… 뭐, 신발이며 구두며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자메이카 럼주를 사들였고 게다가 마데이라주까지, 그리고…… 그리고 커피까지 산 모양입니다. 지나오면서 본인이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그것이 죄다 다시 당신에게 떨어질 테고 저들에게는 빵 한 조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니,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불행한 과부가 그 돈을 알지 못하고 이를테면 당신만이 알도록 의연금을 모아야 합니다. 본인의 말이 옳습니까?」

「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뿐이고, 한평생에 한 번인데……. 그분은 그렇게나 예를 다하고 싶어 하셨고, 그이를 기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별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정말, 정말…… 저들도 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갚아 주실…… 그리고 고아들이……」

소냐는 울음을 터뜨렸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 친족을 위하여 우선 본인이 힘닿는 대로 내놓는 액수를 본인 개인의 것으로 받아 주시겠습니까. 본인의 이름이 이 일과 함께 오르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하자면 본인에게도 나름의 걱정거리가 있는 터라 더는 못 합니다……」

그리고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조심스럽게 펼친 1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소냐에게 내밀었다. 소냐는 그것을 받아 들고 새빨개져서는 벌떡 일어나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격식을 갖추어 그녀를 문까지 바래다주었다. 그녀는 흥분하고 괴로워하며 마침내 방을 빠져나가, 당혹감에 짓눌린 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로 돌아갔다.

그동안 내내 레베쟈트니코프는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창가에 서 있거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소냐가 나가자 그는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걸어가 엄숙하게 손을 내밀었다.

「저는 다 들었고 다 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동사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건 명예로운 일이에요, 아니 제 말은, 인도적인 일이지요! 감사받기를 피하려 하셨지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사사로운 자선에 원칙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악을 뿌리 뽑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니까요. 그래도 당신이 하신 일을 기쁘게 보았다는 것만은 인정해야겠어요 — 그럼요, 그럼요, 마음에 듭니다.」

「그건 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얼마쯤 당황하여 중얼거리고는 레베쟈트니코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제 당신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도 남의 불행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비록 사회적으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해도 — 그래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정말이지 당신에게서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더구나 당신 생각대로라면 말이지요…… 아, 당신 생각이라는 게 당신에게 얼마나 걸림돌인지! 이를테면 어제 운이 나빴던 일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계세요.」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애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낀 순박한 레베쟈트니코프가 소리쳤다. 「그리고 혼인이, 법률상의 혼인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친애하고 고결한 표트르 페트로비치? 어째서 혼인의 그 합법성에 매달리세요? 자, 저를 때리셔도 좋지만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당신이 자유로운 것이, 당신이 인류에게 아주 버려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기뻐요, 정말로 기뻐요……. 자, 속엣말을 다 했습니다!」

「당신들의 그 자유로운 혼인에서 오쟁이를 지고 남의 자식을 길러 주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법률상의 혼인을 바라는 겁니다.」 루쥔이 무어라도 대답하려고 대꾸했다.

그는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긴 듯했다.

「아이라고요? 아이 이야기를 하셨군요.」 레베쟈트니코프가 나팔 소리를 들은 군마처럼 튀어 나갔다. 「아이는 사회 문제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지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이 문제에는 다른 해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아예 낳지 않겠다고 해요, 아이가 가족이라는 제도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아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오쟁이 이야기를 해 보지요! 그건 제 약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약한, 경기병식, 푸시킨식 표현[8]은 미래의 어휘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대체 오쟁이란 게 뭐예요? 오, 이 무슨 미망인지! 무슨 오쟁이요? 왜 오쟁이예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오히려 자유로운 혼인에서야말로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오쟁이란 모든 법률상 혼인이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고, 말하자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며 항의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도 굴욕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만일, 터무니없는 가정입니다만, 법률상의 혼인을 하게 된다면 저는 당신네가 그렇게 저주하는 그 오쟁이를 오히려 기뻐할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보, 나는 여태 당신을 사랑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존경하오, 당신이 항의할 줄

알았으니!』 웃으시는군요! 그건 당신이 편견에서 벗어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이참! 법률상의 혼인에서 속는 것이 어째서 불쾌한지 저는 이제 알아요, 그렇지만 그건 양쪽이 다 굴욕을 당하는 비루한 처지가 낳는 비루한 결과일 뿐이에요. 자유로운 혼인에서처럼 드러내 놓고 오쟁이를 지우면 그것은 더는 존재하지 않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오쟁이라는 이름조차 잃어요.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자기 행복을 가로막거나 새 남편 때문에 자기에게 앙갚음하지 않을 만큼 계발된 사람이라고 여김으로써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증명해 보일 뿐이에요. 제기랄!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제가 시집을 가게 된다면, 퉤! 그러니까 제가 장가를 들게 된다면, 법률에 따르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내가 오래도록 정부를 두지 않으면 제가 손수 아내에게 정부를 데려다 줄 것 같아요. 『여보』 하고 말하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당신이 나를 존경하는 것이오. 자!』 제 말이 옳지 않아요?」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들으면서 킥킥거렸으나 그다지 흥겨워하지는 않았다. 실은 거의 듣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고 마침내 레베쟈트니코프까지 그것을 알아챘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들떠 보이기까지 했고 두 손을 비비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레베쟈트니코프는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떠올리고 곰곰이 되새겼다.

---

1. 루쥔이 걸어 둔 것은 민사 소송이다. 제정 러시아에서 민사·형사 사건의 최종 상소심은 원로원이 맡았다. 저본은 이를 영국 독자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옮겼다.

2. 샤를 푸리에(1772~1837)는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팔랑주라 부르는 생활·노동 공동체를 통해 사회를 고쳐 나가자고 주장했다. 1840년대 이후 러시아 청년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

3. 5푼짜리 공채 — 해마다 5퍼센트의 이자가 붙는 러시아 국채. 1860년대에 널리 거래되던 무기명 증권으로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4. distinguons — 프랑스어로 「구별해 봅시다」. 논의에서 개념을 갈라 따지자고 할 때 쓰는 스콜라 논법의 상투어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프랑스어가 몰락한 집안의 혈통을 내세우는 표지인 것과 달리 이 사람의 프랑스어는 배운 티를 내는 표지이므로, 본문에 뜻을 나란히 적지 않고 각주로만 밝힌다.

5. 니콜라이 도브롤류보프(1836~1861)와 비사리온 벨린스키(1811~1848)는 러시아 급진 비평의 두 거목이다. 1860년대 청년들에게는 우상이었다. 저본은 이 두 문장을 뺐다.

6. 블린은 러시아식 얇은 부침개로, 추도연 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다. 루쥔이 추도연을 그만 「블린 자리」라고 했다가 고쳐 말한다. 저본은 이 말실수를 뺐다.

7. 제정 러시아의 지폐는 액면마다 빛깔이 달라 흔히 빛깔 이름으로 불렸다. 회색은 25루블권, 무지개빛은 100루블권을 가리킨다.

8. 원문은 「뿔」이다. 러시아어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남편이 오쟁이를 지는 것을 「뿔을 단다」고 한다. 저본은 이 낱말을 「명예」 따위로 흐려 옮겼다. 푸시킨은 1837년 아내의 평판을 둘러싼 결투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그 뒤로 러시아에서 명예와 결투는 떼어 놓기 어려운 말이 되었다.

5부 2장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어지러운 머릿속에서 그 어처구니없는 추도연[1]의 생각이 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꼭 집어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겠다. 라스콜니코프가 마르멜라도프의 장례를 위해 준 이십여 루블 가운데 거의 십 루블이 거기에 허비되었다. 어쩌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죽은 이의 기억을 「걸맞게」 기려야 한다고 여겼는지도 모르니, 하숙인들 모두가, 그중에서도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그이는 결코 저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고 어쩌면 저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이를 보고 코를 치켜들」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어쩌면 가장 큰 몫은 저 남다른 「가난한 자의 자존심」 이었는지도 모르니, 그것 때문에 숱한 가난뱅이들이 우리네 살림에서 누구나 치러야 하는 어떤 사회적 의례를 맞으면 마지막 힘을 다해 안간힘을 쓰고 아껴 둔 마지막 코페이카까지 털어 쓰니, 오로지 「남들보다 못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 남들에게 어떻게든 「흉잡히지 않」기 위하여서다. 또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이번 일에서, 모두에게 버림받은 듯이 보이던 바로 그 순간에, 저 「하찮고 고약한 하숙인들」에게 제가 「살 줄 알고 손님을 대접할 줄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처지에 살도록 길러진 사람이 전혀 아니고 「고귀한, 아니 귀족의 집안이라고까지 해도 좋을 대령 댁에서」 길러졌으며, 손수 마루를 쓸고 밤마다 아이들의 누더기를 빨려고 자라난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못

견뎠으리라는 것도 매우 있음 직하다. 이런 자존심과 허영의 발작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기가 꺾인 사람들에게도 이따금 찾아오며, 때로는 그들에게서 짜증스럽고 걷잡을 수 없는 욕구로 바뀐다. 그런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기가 꺾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지에 짓눌려 죽을 수는 있었을지언정 그 기가 꺾일 수는 없었으니, 다시 말해 그녀는 겁을 집어먹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의지는 으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소냐가 그녀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말한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아직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실제로 요즈음, 지난 한 해 내내, 그 가엾은 머리는 너무나 시달린 나머지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사들의 말로는 폐병이 깊어지는 것 또한 정신의 착란을 부추긴다고 한다.

여러 가지 갖가지 포도주는 없었고 마데이라도 없었으니 그것은 부풀려진 말이었으나, 포도주는 있었다. 보드카와 럼과 리스본 포도주가 있었는데 죄다 더없이 값싼 것이었으나 양은 넉넉했다. 음식으로는 쿠티야[2] 말고도 서너 가지가 있었고 그중에는 블린도 있었으니, 죄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의 부엌에서 마련한 것이었다. 사모바르 두 개가 끓고 있었으니 식사 뒤에 차와 펀치를 낼 참이었다. 먹을 것을 사들이는 일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손수 챙겼고, 하숙인 가운데 하나인, 무엇 하러 리페베흐젤 부인의 집에 묵고 있는지 하느님이나 아실 딱한 폴란드 사내가 그녀를 거들었다. 그는 곧바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분부를 받들겠다고 나서서 어제 하루 내내, 또 이날 아침 내내 혀를 빼물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아무래도 혀를 빼문 그 꼴이 남의 눈에 띄도록 각별히 애쓰는 듯했다. 하찮은 일 하나하나에 그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달려갔으니 고스티니 드보르 상가까지 그녀를 찾아 쫓아갈 지경이었고, 쉴 새 없이 그녀를 「파니 호룬지나」[3]라고 불렀다.

끝에 가서 그녀는 그가 진절머리가 났으나, 처음에는 이 「쓸모 있고 도량 넓은 사람」이 없었으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더없이 환한 빛깔로 칠해 놓는 것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의 칭찬은 어찌나 과장되었던지 때로는 듣는 이를 민망하게 만들 정도였고, 새로 사귄 사람의 공적이라며 이런저런 사연을 지어내고는 그것이 실제라고 아주 진심으로 믿어 버리곤 했다. 그러다 별안간 환멸을 느끼고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말 그대로 떠받들던 그 사람을 거칠고 경멸스럽게 밀쳐 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본디 잘 웃고 쾌활하고 화평을 좋아하는 기질이었으나, 끊임없는 실패와 불운을 겪으면서 모두가 화평하고 기쁘게 살기를, 그리고 누구도 감히 그 화평을 깨뜨리지 않기를 어찌나 사납게 바라고 요구하게 되었던지, 아주 작은 삐걱거림에도, 아주 작은 재난에도 거의 광란에 이를 지경이 되어, 한순간에 더없이 밝은 희망과 공상에서 제 운명을 저주하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찢고 내던지며 벽에 머리를 찧는 데로 옮겨 가는 것이었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 역시 별안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눈에 유난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 유난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마 오로지 이 추도연을 벌이게 되었고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수고를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상을 차리고, 식탁보와 그릇 따위를 대고, 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그녀가 떠맡았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것을 죄다 그녀의 손에 맡긴 채 제 자신은 묘지로 갔다. 모든 것이 잘 치러졌다. 식탁보마저 거의 깨끗했고, 그릇, 포크, 나이프, 술잔, 유리잔, 찻잔은 물론 여러 하숙인에게서 모아 온 것이라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었으나, 상은 정해진 시각에 제대로 차려져 있었으며,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제 일을 훌륭히 해냈다고 여겨 한껏 차려입고서, 새 상장(喪章) 리본을 단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채 약간의 자랑스러움을 띠고 돌아오는 일행을 맞았다. 그 자랑스러움은 그럴 만한 것이었는데도 무슨 까닭인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비위를 거슬렀다. 「마치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아니면 상도 못 차릴 뻔했다는 듯이!」 리본을 새로 단 모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 멍청한 독일 여자가 제가 집주인이랍시고, 가난한 하숙인들을 돕는 데 선심 쓰듯 승낙해 주었답시고 우쭐거리는 것 아닌가! 선심이라니! 별꼴이야! 대령이었고 하마터면 지사까지 될 뻔했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아버지는 마흔 사람 분의 상을 차리게 하는 일도 더러 있었고, 그럴 때 아말리아 이바노브나 — 아니, 루드비고브나 — 따위는 부엌에 발도 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당장은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미루고 쌀쌀맞게 대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니,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를 오늘 안으로 반드시 눌러 제자리에 앉혀 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저 여자가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지는 하느님이나 아실 일이었으니 말이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화나게 한 것은 또 있었으니, 초대받은 하숙인들 가운데 장례식에 온 사람이라고는 기어이 묘지까지 뛰어들어 온 그 폴란드 사내 말고는 거의 아무도 없었으면서, 추도연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이, 그 딱한 것들이, 그나마 여럿은 말짱한 정신도 아닌 채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었다. 나이가 더 들고 더 번듯한 축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오지 않았다. 이를테면 하숙인 가운데 가장 번듯하다고 할 만한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쥔은 나타나지 않았으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바로 어제 저녁에 온 세상에 — 그러니까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와 폴레치카와 소냐와 그 폴란드 사내에게 — 그가 재산이 많고 연줄이 넓은 더없이 너그럽고 고결한 사람이며, 제 첫 남편의 벗이었고 제 아버지의 집에 드나들던 손님이었으며, 제게 상당한

연금이 나오도록 온 힘을 써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떠벌려 놓은 터였는데도 그랬다. 여기서 밝혀 두어야 할 것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누군가의 연줄과 재산을 추어올릴 때 거기에는 아무런 속셈도 없었고 전혀 사심이 없었으며, 말하자면 넘치는 마음에서, 그저 칭찬받는 사람의 무게를 더해 주는 그 즐거움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루쥔을 뒤따라, 아마도 「그에게서 본을 받아」, 「그 고약한 비열한 레베쟈트니코프」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것은 또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기는 거지? 저것은 그저 인정을 베풀어 부른 것이고, 그나마 표트르 페트로비치와 한방에 묵는 그의 지인이라 안 부르기가 어색해서였는데.」

오지 않은 이들 가운데에는 거드름 피우는 어느 부인과 그 「혼기가 지난 처녀」인 딸도 있었으니, 이 집에 하숙을 든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으면서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방에서 나는 소음과 소동에 대해, 특히 마르멜라도프가 취해 돌아왔을 때의 일로 여러 차례 불평을 해 온 터였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이 이야기를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에게서 들었는데,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다투다가 온 식구를 문밖으로 내쫓겠다고 으르면서, 너희는 너희가 성가시게 구는 그 훌륭한 하숙인들의 「발밑에도 못 미친다」고 소리쳤던 것이다. 이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제가 그 「발밑에도 못 미친다」는 그 부인과 딸을, 어쩌다 마주쳤을 때 도도하게 고개를 돌려 버리던 그 둘을 초대하기로 작정했으니, 저들에게 「이쪽은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더 고귀하며, 원한을 마음에 두지 않고 초대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그녀가 지금 같은 살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추도연 자리에서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지사 자리를 넌지시 내비치며 이 점을 저들에게 분명히 해 두고, 아울러 저를 마주치고 고개를 돌려 버리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도 넌지시 일러 줄 작정이었다. 그 뚱뚱한 중령

(실은 퇴역 이등 대위[4]였다)도 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어제 아침부터 「 곯아떨어진 」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온 사람이라고는 그 폴란드 사내와, 여드름투성이 얼굴에 기름때 전 연미복을 입은 딱한 몰골의 서기 — 제 입으로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다 냄새가 지독했다 — 그리고 한때 우체국에 있었고 누군가가 아득한 옛날부터 무슨 까닭인지 모르게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의 집에 얹혀살게 해 주고 있는, 귀먹고 거의 눈까지 먼 노인이 전부였다.

퇴역 중위 하나도 왔는데, 실은 병참부 관리로, 취해 있었고 크고 더없이 꼴사나운 웃음을 웃었으며, 게다가 — 글쎄 — 조끼도 입지 않고 있었다! 손님 가운데 하나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곧장 식탁에 앉아 버렸다. 끝내는 옷이 없는 어떤 자가 실내복 바람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만은 너무한 일이어서,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와 폴란드 사내가 애를 쓴 끝에 그를 내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폴란드 사내는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의 집에 살지도 않고 여태 아무도 본 적 없는 다른 폴란드 사람 둘을 데려왔다. 이 모든 것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몹시 짜증 나게 했다. 「그러면 대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준비를 했단 말인가?」 손님들의 자리를 내느라 아이들의 자리는 식탁에 차려 주지도 못했고, 어린 둘은 저 구석 걸상에 앉아 상자 위에 차려 준 밥을 먹고 있었으며, 다 큰 아이인 폴레치카가 그 둘을 돌보고 먹이고, 「양갓집 아이들에게 하듯」 콧물을 닦아 주어야 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실제로 손님들을 맞으면서 위엄을, 심지어 도도함을 한층 더 부풀리지 않을 수 없었다. 몇몇은 각별히 준엄한 눈으로 노려보았고, 거만하게 자리에 앉기를 청했다. 무슨 까닭인지 오지 않은 이들의 책임은 모두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에게 있다고 여기고는 대뜸 그녀를 지극히 데면데면하게 대하기 시작했는데, 상대는

그것을 곧바로 알아채고 몹시 언짢아했다. 그런 시작은 그 끝을 위해 좋은 조짐이 아니었다. 마침내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들이 묘지에서 돌아온 바로 그 무렵에 들어섰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를 보고 몹시 기뻐했으니, 첫째로 그가 손님 가운데 유일한 「교양 있는 손님이며, 다들 알다시피 이 년 뒤에는 이곳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맡게 될 사람」 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가 들어서자마자 아무리 오고 싶었어도 장례식에 오지 못한 것을 정중히 사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야말로 그에게 달려들어 제 왼편에 앉혔다(오른편에는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있었다). 음식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두가 맛을 보는지를 쉴 새 없이 걱정하면서도, 시시각각 말을 끊어 놓는 데다 지난 이틀 사이 유난히 뿌리를 내린 듯한 그 괴로운 기침에 시달리면서도, 그녀는 쌓이고 쌓인 감정과 이 추도연의 실패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라스콜니코프에게 서둘러 쏟아 놓았고, 그 사이사이에 손님들을, 그중에서도 특히 집주인 여자를 비웃는 활기차고 걷잡을 수 없는 웃음을 섞어 넣었다.

「죄다 저 뻐꾸기 탓이에요! 누굴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저 여자, 저 여자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집주인 여자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저것 좀 보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우리가 제 이야기를 하는 줄은 느끼면서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프흐, 저 올빼미! 하하하! (콜록-콜록-콜록.) 그리고 저 모자는 무엇 하러 쓴 걸까요? (콜록-콜록-콜록.) 저 여자가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 저를 돌봐 주고 저에게 영광을 베푸는 것이라고 다들 여겨 주기를 바라는 걸 알아채셨어요? 저는 점잖은 사람에게 하듯 저 여자한테 좀 나은 사람들을, 바로 죽은 남편을 알던 사람들을 불러 달라고 했는데, 저 여자가 데려온 꼴들을 좀 보세요. 광대 같은 것들! 추레한 것들! 저 얼굴 지저분한 사람 좀 보세요. 두 다리 달린 콧물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저 딱한 폴란드 사람들, 하하하! (콜록-

콜록-콜록.) 저 사람들은 여기 코빼기도 들이민 적이 없고, 저는 저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여기 무엇 하러 왔겠어요? 저렇게 한 줄로 나란히 앉아 있네요. 이봐요, pan!」 그녀가 별안간 그중 하나에게 외쳤다. 「블린은 드셔 보셨어요? 좀 더 드세요! 맥주도 드시고요! 보드카는 안 하시겠어요? 보세요,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하잖아요, 저 딱한 사람들, 어지간히 굶주렸던 모양이에요. 괜찮아요, 먹으라지요! 적어도 시끄럽게 굴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집주인 여자의 은수저가 걱정될 뿐이지요…… 아말리아 이바노브나!」 그녀가 별안간 거의 소리를 내다시피 하여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혹시라도 댁의 수저를 도둑맞더라도 저는 책임지지 않을 테니 미리 말해 둡니다! 하하하!」 그녀는 라스콜니코프를 돌아보며 웃고는 다시 집주인 여자 쪽으로 고갯짓을 했으니, 제가 던진 말에 아주 신이 나 있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또 못 알아들었네요! 입을 떡 벌리고 앉아 있는 꼴 좀 보세요! 올빼미예요, 영락없는 올빼미! 리본을 새로 단 올빼미라니, 하하하!」

여기서 그녀의 웃음은 다시 오 분이나 이어지는 견딜 수 없는 기침 발작으로 바뀌었다. 손수건에는 피가 조금 묻어 났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돋았다. 그녀는 말없이 그 피를 라스콜니코프에게 보였고,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마자 두 볼에 도지는 열꽃을 띠고 지극한 흥분 속에서 다시 그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한테 그 부인과 딸을 초대하는 일을, 말하자면 더없이 섬세하게 일러 주었거든요.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지요? 그 일에는 극도의 섬세함이, 더없는 세심함이 필요했는데, 저 여자가 어떻게 해 놓았는지, 타지에서 올라온 그 바보가, 그 거드름 피우는 계집이, 시골뜨기 주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저 소령의 미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타 보겠다고 관청을 드나들며 치맛자락이나 닳게

하고 다니는 주제에, 쉰다섯 살에 눈썹을 그리고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는 주제에(다들 아는 일이에요)…… 그런 것이 오실 생각을 안 했을 뿐 아니라, 못 오면 못 온다고, 이런 경우 지극히 평범한 예의가 요구하는 대로 사과 한마디조차 보내지 않았어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왜 오지 않으셨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냐는 어디 있지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 저기 오네요! 무슨 일이냐, 소냐, 어디 갔었느냐? 네 아버지 장례식 날까지 그렇게 시간을 못 지키다니 이상한 일이구나. 로지온 로마노비치, 저 애를 옆에 앉게 자리를 좀 내주세요. 저기가 네 자리다, 소냐…… 먹고 싶은 것을 먹으렴. 젤리를 얹은 찬 전채를 좀 먹으려무나, 그게 제일 낫다. 블린은 곧 가져올 게다. 아이들한테는 주었느냐? 폴레치카, 너는 다 챙겼니? (콜록-콜록-콜록.) 됐다. 착하게 굴어라, 리다, 그리고 콜랴, 발을 그렇게 꼼지락거리지 마라. 점잖은 도련님처럼 앉아 있으렴. 무슨 말이냐, 소냐?」

소냐는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사과를 서둘러 전했으니,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하려고 애쓰면서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말인 양 일부러 지어내기까지 하고 제 나름으로 꾸민, 더없이 골라 뽑은 공손한 표현들을 썼다. 그녀는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형편이 되는 대로 곧 찾아와 단둘이 용무를 의논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손을 쓸지 정하겠다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는 것도 덧붙였다, 등등, 등등.

소냐는 이것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누그러뜨리고 진정시키며 그 비위를 맞추어 줄 것이고, 무엇보다 그 자존심이 흡족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라스콜니코프 옆에 앉았다. 그에게 서둘러 고개를 숙여 보이며 호기심 어린 눈길을 한 번 던졌다. 그러나 그 뒤로는 내내 그를 쳐다보지도 그에게 말을 걸지도 않으려는 듯했다. 그녀는 넋이 나가 보였으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기쁘게 하려고 줄곧 그쪽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도 상복을 마련할 수 없었으니, 소냐는 짙은 갈색 옷을 입었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저에게 하나뿐인 옷, 어두운 줄무늬 무명옷을 입고 있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보낸 전갈은 아주 잘 먹혔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위엄을 갖추고 소냐의 말을 들은 뒤 똑같이 위엄을 갖추고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건강은 어떠신지 물었고, 그러고는 곧바로 라스콜니코프에게 거의 소리가 나도록 속삭이기를, 표트르 페트로비치 정도의 지위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유별난 자리」에 끼어 앉는다는 것은 제 집안에 대한 그의 헌신과 제 아버지와의 오랜 우정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상한 일이었으리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이토록 감사한 거예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런 자리에서도 저희 대접을 마다하지 않아 주셨으니 말이에요.」 그녀가 거의 소리를 내어 덧붙였다. 「하지만 그것도 오로지 가엾은 제 남편에 대한 선생님의 각별한 정 때문에 약속을 지켜 주신 것이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한 번 자랑스러움과 위엄을 담아 손님들을 죽 훑어보고는, 별안간 각별히 자상하게, 식탁 건너편의 귀먹은 노인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구운 고기를 좀 더 드시지 않겠어요, 리스본 포도주는 받으셨고요?」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한참 동안 제가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조차 알아듣지 못했으니, 옆자리 사람들이 재미 삼아 그를 찔러 대고 흔들어 대는데도 그랬다. 그는 그저 입을 벌린 채 주위를 두리번거릴 뿐이었고, 그것이 좌중의 웃음을 더 키웠다.

「저런 얼간이 좀 보세요! 저것 좀, 저것 좀! 저런 걸 무엇 하러 데려왔을까요? 그런데 표트르 페트로비치로 말하자면 저는 늘 그분을 믿었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물론 그분은 이런 것들과는 다르지요…… 」 그러고는 지극히 준엄한 얼굴로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를 향해 어찌나 날카롭고 크게 말을 건넸던지 상대가 아주 당황할 지경이었다. 「댁의 저 차려입은 너절한 것들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은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제 부엌에 식모로도 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돌아가신 제 남편이 어진 마음으로 저것들을 불러들였다 한들 그건 저것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는 일이었을 거예요.」

「예이, 술을 좋아하셨습죠, 그건 좋아하셨습죠, 드시곤 하셨습죠!」 퇴역한 병참부 관리가 열두 잔째 보드카를 들이켜며 별안간 외쳤다.

「돌아가신 제 남편에게 그 약점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 다들 아는 일이에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대뜸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이는 다정하고 명예를 아는 사람이었고, 제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했어요. 가장 나빴던 건 그이의 어진 성품이 온갖 몹쓸 사람들을 다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이는 제 신발 밑창만도 못한 자들과 어울려 마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이 주머니에서 생강 과자 수탉이 나왔어요. 곤드레만드레 취해 있으면서도 아이들은 잊지 않았던 거지요!」

「수-탉-이요? 수-탉-이라고 하셨습니까?」 병참부 나리가 고함쳤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대답할 값어치도 없다고 여겼다. 무언가 생각에 잠기더니 한숨을 쉬었다.

「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가 그이에게 너무 모질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녀가 라스콜니코프를 향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이는 저를 존중했어요, 저를 몹시 존중했어요! 마음이 어진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때때로 그이가 어찌나 딱하던지요! 그이가 구석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그이가 너무나 딱해서 다정하게 대해 주고 싶었다가도 이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 다정하게 대해 주면 또 마실 텐데. 』 모질게 굴어야만 그이를 조금이나마 붙들어 둘 수 있었어요.」

「예, 머리채를 잡아 뜯기는 일도 있었습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죠.」 병참부 관리가 다시 고래고래 소리치고는 또 한 잔을 목구멍에 쏟아 넣었다.

「어떤 바보들한테는 머리채를 잡아 뜯는 것만이 아니라 빗자루로 다스리는 것까지도 이로울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병참부 관리에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두 볼에 핀 열꽃이 점점 더 짙어졌고 가슴이 들먹였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녀는 한바탕 소동을 벌일 참이었다. 손님들 가운데 여럿이 키득거리고 있었으니 분명 재미있어하고 있었다. 그들은 병참부 관리를 쿡쿡 찌르며 그에게 무어라 속삭이기 시작했다. 분명 두 사람을 맞붙이려는 것이었다.

「 그런데 여-어-쭤 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요.」 병참부 관리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누구의…… 고귀하신 처지를 두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 상관없습니다! 헛소리지요! 과부! 과부 아낙! 용서해 드립니다…… 패스!」

그러고는 보드카를 또 한 잔 털어 넣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말없이 앉아 역겨움을 느끼며 듣고 있었다. 그가 음식을 먹은 것은 오로지 예의 때문이었으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쉴 새 없이 제 접시에 놓아 주는 것을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맛만 볼 뿐이었다. 그는 소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소냐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괴로워했으니, 그녀 역시 이 추도연이 평온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짜증이 커져 가는 것을 겁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다. 타지에서 온 그 두 부인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초대를 그토록 경멸로 대한 가장 큰 까닭이 저 자신, 소냐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어머니가 초대에 아주

언짢아하며 「제 딸을 어떻게 그런 계집애 옆에 앉히겠느냐?」 고 물었다는 말을 그녀는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에게서 들은 터였다. 소냐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이미 그 말을 들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고, 소냐에게 가해진 모욕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저 자신이나 제 아이들이나 제 아버지가 당한 모욕보다 더 큰 것, 한마디로 죽음과도 같은 모욕이었으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이제 「그 너절한 것들에게 저것들 둘 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전에는」, 등등, 등등, 가라앉지 않으리라는 것을 소냐는 알고 있었다. 일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듯 누군가가 식탁 저쪽 끝에서 소냐에게 접시 하나를 건넸으니, 거기에는 검은 빵으로 빚은, 화살에 꿰뚫린 두 개의 심장이 놓여 있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새빨개져서 대뜸 식탁 건너편으로 그것을 보낸 자는 「술 취한 당나귀」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내다보고 있었고, 동시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도도함에 깊이 상처를 입은 터라, 좌중의 기분을 돌려놓고 제 위신을 세워 보려고 난데없이 제가 아는 사람 「약방의 카를」 이야기를 꺼냈으니, 그 사람이 어느 날 밤 삯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부가 그에게 죽이기를 원하고, 카를은 죽이지 말라고 아주, 아주 많이 빌고, 울고 두 손 맞잡고, 무서워져서 무서움에서 그의 심장을 찔렀다」는 것이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웃음을 짓기는 했으나 곧바로,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한마디 했다. 상대는 한층 더 마음이 상해서, 제 「Vater aus Berlin[5]은 아주,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주머니를 손에 넣고 다니셨다」고 되받았다. 잘 웃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참지 못하고 어찌나 크게 웃었던지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인내심을 잃고 저를 가누기조차 어려워졌다.

「저 올빼미 좀 들어 보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곧바로, 기분이 거의 되살아나 속삭였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말하려던 건데 주머니를 손에 넣고 다녔다고 말해 버렸으니, 남의 주머니나 털고 다녔다는 말이 되어 버렸잖아요. (콜록-콜록.) 그리고 알아채셨어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참에 아주 알아 두세요, 이 페테르부르크의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엇보다 어디선가 우리한테 흘러들어 오는 독일 사람들이 죄다 우리보다 더 멍청하다는 걸요! 글쎄 생각해 보세요, 『약방의 카를이 무서움에서 심장을 찔렀다』 느니, 그 코흘리개가 마부를 묶어 버리기는커녕 『두 손 맞잡고 울고 아주 많이 빌었다』 느니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바보! 그러면서 저 여자는 그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 줄로 여기고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는 짐작도 못 한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저 술 취한 병참부 관리가 저 여자보다 훨씬 더 영리해요. 적어도 저쪽은 술꾼이라 남은 정신까지 마셔 없앴다는 게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요. 그런데 저 외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찌나 얌전하고 점잖은지……. 저것 좀 보세요, 저렇게 눈을 부라리고 앉아 있는 꼴을!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하하하! (콜록-콜록-콜록.)」

기분을 되찾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곧바로 라스콜니코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 연금을 받게 되면 제 고향 T――에 양갓집 규수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열 작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녀는 더없이 솔깃한 세목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다 별안간 드러난 것은, 언젠가 술집에서 마르멜라도프가 라스콜니코프에게 제 아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학교를 나올 때 지사와 여러 고관들 앞에서 숄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하며 들먹였던 바로 그 표창장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지금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표창장은 이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기숙학교를 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분명했으나, 그녀가 이것을 챙겨 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거드름 피우는 두 너절한 것들」이 추도연에 온다면 그것들을 눌러 버리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더없이 고귀한, 「귀족이라 해도 좋을 집안 출신이며 대령의 딸로서, 요즈음 그토록 많이 불어난 어떤 뜨내기 계집들보다는 틀림없이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게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표창장은 곧바로 취한 손님들의 손으로 넘어갔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것을 붙들어 두려고 하지 않았으니, 거기에는 실제로 제가 7등관[6]이자 훈장 수훈자의 딸이라는 것이 en toutes lettres[7]로 적혀 있어서, 그녀는 정말로 대령의 딸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신이 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T——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평온하고 행복한 삶에 대하여, 제 기숙학교에서 가르치게 할 김나지움 교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늘어놓았으니, 그중 하나는 더없이 번듯한 프랑스인 노인 망고 선생으로 옛날 여학교에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자신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던 사람이며 아직도 T——에 살고 있으므로 틀림없이 적은 사례로도 제 학교에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녀는 저와 함께 T——로 가서 모든 계획을 도와줄 소냐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식탁 저쪽 끝에서 누군가가 별안간 푸흡 코웃음을 쳤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것을 업신여겨 못 들은 척하려 했으나,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곧바로 소피야 세묘노브나가 저를 도울 능력이 있음은 의심할 바 없다는 것을, 「그 아이의 온순함과 참을성과 헌신과 너그러움과 훌륭한 교양」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소냐의 뺨을 두드리고 몸을 반쯤 일으켜 두 번 따뜻하게 입을 맞추었다. 소냐는 새빨개졌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별안간 울음을 터뜨리고는 곧바로 저를 두고 「신경 약한 바보다, 너무 속이 상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식사도 끝났으니 차를 돌릴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고 아무도 제 말을 들어 주지 않는 것에 깊이 상한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를 써서, 남모를 서글픔을 품은 채 지극히 실속 있고 깊이 있는 소견 하나를 감히 내놓았으니, 앞으로 그 기숙학교에서는 아가씨들의 깨끗한 속옷(die Wäsche[8])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꼭 그런 좋은 부인(die Dame) 하나 있어야 합니다, 속옷을 잘 보는」, 그리고 둘째로 「젊은 아가씨들 모두 밤에 몰래 아무 소설에 읽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었다.

분명 속이 상해 있었고 몹시 지쳐 있었으며 이 추도연에 진절머리가 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대뜸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의 말을 잘랐으니, 「댁은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die Wäsche를 돌보는 것은 세탁물 관리인이 할 일이지 양갓집 기숙학교 교장이 할 일이 아니고, 소설을 읽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건 그냥 입에 담기도 민망한 소리이니 입을 좀 다물어 주시기 바라요」라는 것이었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발끈해서 화를 내며, 저는 그저 「좋은 마음을 먹었을 뿐이고」 「아주 많이 좋은 마음을 먹었으며」 「방세에 금을 낸 지가 오래되었다」고 한마디 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곧바로 그녀를 「눌러 앉혔으니」, 좋은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바로 어제 죽은 남편이 탁자에 누워 있는데도 방세 이야기로 저를 들볶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에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아주 조리 있게도, 저는 「그 부인들 초대했는데 그 부인들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들 고귀한 부인이고 안 고귀한 부인한테 올 수가 없으니까」라고 한마디 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곧바로, 댁은 추레한 여편네이니 참된 고귀함이 무엇인지 따위는 판단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주었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참지 못하고 대뜸 선언하기를, 제 「Vater aus Berlin은 아주,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고, 두 손이 주머니를 손에 넣고 다니셨고, 언제나 『푸! 푸!』 하셨다」고 하고는, 제 아버지를 흉내 내겠다고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두 볼을 부풀려 「푸! 푸!」 비슷한 알 수 없는 소리를 내었고, 하숙인들은 싸움이 벌어지기를 바라며 짐짓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를 부추기면서 왁자하게 웃어 댔다.

그러나 이것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너무한 일이어서, 그녀는 곧바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선언하기를,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에게는 아마 아버지가 있었던 적조차 없을 것이고 그저 페테르부르크의 술 취한 핀란드 여자일 뿐이며, 틀림없이 한때 식모였을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삶은 가재처럼 새빨개져서, 아버지가 있었던 적조차 없는 것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쪽일 것이나 「저에게는 Vater aus Berlin이 있었고 그분은 이렇게 긴 프록코트를 입고 언제나 푸-푸-푸 하셨다」고 새된 소리를 질렀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경멸을 담아 한마디 했으니, 제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다들 아는 일이고 바로 그 표창장에 제 아버지가 대령이었다고 활자로 찍혀 있는 반면,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의 아버지는 (그런 것이 정말로 있기나 했다면) 아마 페테르부르크 어디의 핀란드 사람으로 우유나 팔았을 것이며, 아니 아버지라는 것이 아예 있었던 적조차 없을 성싶으니, 저것을 부칭으로 무어라 불러야 하는지, 이바노브나인지 루드비고브나인지부터가 아직껏 분명치 않은 형편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에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격분에 채찍질당한 듯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고는, 저는 「아말-이반」이지 루드비고브나가 아니라고, 「제 Vater의 이름은 Johann이었고 그분은 burgomeister[9]였으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Vater는 아주 한 번도 burgomeister였던 적이

없다」 고 새되게 외쳤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준엄하고 겉보기에는 침착한 목소리로(그녀는 창백했고 가슴이 들먹이고 있었으나) 한마디 했으니, 「댁이 단 한 번만 더 감히 댁의 그 경멸스러운 아비를 제 아버님과 같은 자리에 놓는다면, 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댁의 머리에서 그 모자를 뜯어내어 발로 짓밟아 버리겠어요」라고 했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녔으니, 제가 이 집의 주인이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이 순간에 당장 집에 나가」라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무슨 까닭인지 식탁의 은수저들을 거두어들이겠다고 달려들었다. 큰 아우성과 소란이 일었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소냐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말리려고 달려갔으나,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별안간 「노란 딱지」에 대해 무어라 고함을 치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소냐를 밀쳐 내고, 모자를 두고 한 으름장을 당장 실행하려고 집주인 여자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쥔이 별안간 문지방 위에 나타났다. 그는 서서 준엄하고 빈틈없는 눈으로 좌중을 훑어보았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그에게 달려갔다.

---

1. 추도연 — 정교회에서 장례를 치른 뒤 죽은 이를 기려 여는 식사(포민키). 저본은 같은 것을 funeral lunch·funeral dinner·memorial dinner 세 낱말로 갈라 쓰지만 한국어판은 한 용어로 옮긴다.

2. 쿠티야 — 정교회의 추도 의식에 반드시 오르는 음식(кутья). 삶은 곡식에 꿀과 건포도를 섞어 만들며, 죽은 이를 기리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술씩 뜬다. 저본의 역자 가넷은 이 이름을 지우고 「쌀과 꿀」로 풀어 옮겼다.

3. 파니 호룬지나 / pan — 폴란드어의 높임 호칭. pani는 「부인」, pan은 「선생」에 해당하고, 호룬지나는 기수(旗手) 관등인 호룬지의 부인을 일컫는 칭호다. 폴란드 사내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붙이는 과분한 경칭이다.

4. 이등 대위 — 관등표 제9등급의 무관 관등(штабс-капитан)으로, 중령(제7등급)보다 두 등급 아래다. 중령으로 행세하던 사내의 실제 관등을 서술자가 괄호 안에서

밝힌다. 가넷은 이 자리를 colonel-major로 옮겼다.

5. Vater aus Berlin — 독일어로 「베를린 출신의 아버지」. 아말리아는 이 말만은 끝까지 러시아어로 옮기지 않는다.

6. 7등관 — 관등표 제7등급의 문관인 궁정 고문관(надворный советник). 무관으로 치면 중령에 해당하므로, 그 딸은 「거의 대령의 딸」이라 내세울 만했다.

7. en toutes lettres — 프랑스어로 「글자 그대로 또박또박」, 곧 줄임말이나 에두름 없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뜻.

8. die Wäsche — 독일어로 「빨래·속옷」. 저본이 독일어 그대로 둔 자리이므로 이판도 원철자로 둔다.

9. burgomeister — 독일어권 도시의 시장(市長). 표준 철자는 Bürgermeister이나 저본의 철자를 그대로 둔다.

5부 3장

「 표트르 페트로비치. 」 그녀가 외쳤다. 「 저를 지켜 주세요…… 당신만이라도! 저 어리석은 여자에게 일러 주세요, 불행에 빠진 귀부인에게 이렇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일에는 법이 있다는 것을……. 총독 각하께 직접 가겠어요……. 저 여자는 그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제 아버지께서 베푸신 환대를 생각하셔서 이 고아들을 지켜 주세요.」

「 잠깐 실례합니다, 부인……. 실례합니다. 」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손을 내저어 그녀를 물리쳤다. 「 부인의 아버님은, 부인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본인이 전혀 뵈올 영광을 갖지 못한 분입니다…… 실례합니다, 부인! 」 (누군가 큰 소리로 웃었다) 「 그리고 본인은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와 벌이시는 그 끝없는 말다툼에 끼어들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용무를 말하러 온 것이고…… 부인의 의붓따님과 지금 당장 한마디 나누고자 합니다, 소피야…… 이바노브나, 본인 생각에는 그렇지요?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옆걸음으로 비켜 지나 소냐가 있는 맞은편 구석으로 갔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제자리에 선 채로 있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제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일이 없다고 잡아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환대라는 것은 그녀가 스스로 지어낸 것이었건만 이제 와서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사무적이고

메마르며 경멸이 섞인, 위협하는 듯한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말투 또한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가 들어서자 그 모든 소란이 차츰 잦아들었다. 이 「진지한 사업가」가 나머지 사람들과 눈에 띄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무언가 중대한 일로 왔다는 것,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까닭이 그를 데려왔으며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 또한 분명했다. 소냐 곁에 서 있던 라스콜니코프는 그가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한 듯했다. 잠시 뒤 레베쟈트니코프 또한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선 채로, 눈에 띄게 관심을 보이며, 거의 경이에 가까운 낯빛으로 귀를 기울였고, 한동안 어리둥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혹 말씀을 끊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얼마간 중요한 일입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딱히 누구를 향해서랄 것 없이 말했다. 「다른 분들이 자리해 계신 것이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 이 집의 주인으로서 본인이 소피야 이바노브나에게 드릴 말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삼가 청합니다. 소피야 이바노브나.」 그는 몹시 놀라 벌써 겁을 집어먹은 소냐를 향해 말을 이었다. 「당신이 다녀간 직후, 본인의 벗인 레베쟈트니코프 씨의 방에서 본인의 탁자 위에 있던 백 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해 준다면, 본인은 명예를 걸고 단언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을 증인으로 세우거니와, 이 일은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본인은 대단히 엄중한 수단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될 터이니, 그때는…… 당신 스스로를 탓해야 할 것입니다.」

방 안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울던 아이들까지 조용해졌다. 소냐는 죽은 사람처럼 새하얘진 얼굴로 서서 루쥔을 빤히 바라볼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직 알아듣지 못한 듯했다. 몇 초가 지났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루쥔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마침내 소냐가 가냘프게 말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루쥔이 되풀이하고는 다시 몇 초 동안 말을 멈추었다. 「잠깐 생각해 보시지요, mademoiselle[1].」 그는 엄하게, 그러면서도 타이르는 듯한 투로 말을 꺼냈다. 「곰곰이 헤아려 보십시오, 본인은 생각할 시간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토록 완전히 확신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의 경험으로 보아 이렇게 대놓고 당신을 고발하는 모험은 결코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고발하는 일이 거짓이거나 설령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본인은 본인의 용도에 맞추어 5푼 이자가 붙는 증권 몇 장, 액면으로 삼천 루블어치를 바꾸었습니다. 그 셈은 본인의 지갑에 적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본인은 돈을 세기 시작했고 — 이것은 레베쟈트니코프 씨가 증언해 줄 것입니다 — 이천삼백 루블을 세어 지갑에 넣고 그 지갑은 프록코트 옆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백 루블가량이 남아 있었고 그 가운데 백 루블짜리 지폐가 석 장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본인의 청을 받고) 들어왔고 —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 있던 내내 몹시 거북해했으며, 그리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세 번이나 일어나 무슨 까닭인지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 역시 레베쟈트니코프 씨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mademoiselle, 본인이 레베쟈트니코프 씨를 통해 당신을 부른 것이 오로지 당신의 친척인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앞이 막막하고 궁핍한 처지에 관하여(본인은 그 부인의 추도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과 의논하고, 또 그분을 위하여 모금이나 복권 따위의 것을 마련하는 편이 좋을지를 의논하기 위해서였다는 본인의 진술을, 당신 자신도 아마 부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본인에게 고마워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본인이 이 모든 것을 일어난 그대로 늘어놓는 것은, 첫째로 그것을 당신의 기억에 되살려 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본인의 기억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음을 당신에게 보여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본인은 탁자에서 십 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집어 당신의 친척을 위한 본인 몫의 첫 출연금으로 당신에게 건넸습니다. 레베쟈트니코프 씨가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본인은 당신을 문까지 바래다주었고 — 당신은 여전히 같은 거북한 상태였습니다 — 그 뒤에 레베쟈트니코프 씨와 단둘이 남아 십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 그런 다음 레베쟈트니코프 씨가 나갔고 본인은 돈이 놓인 탁자로 돌아가, 앞서 작정한 대로 그것을 세어 따로 치워 두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백 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레베쟈트니코프 씨를 본인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억측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인이 셈을 잘못했을 리도 없으니, 당신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본인은 계산을 끝내고 합계가 맞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거북해하던 모습, 어서 나가고 싶어 하던 그 조급함, 그리고 한동안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나아가 당신의 사회적 처지와 그에 따르는 습속을 고려에 넣는다면, 본인이 말하자면 공포와 더불어, 참으로 본인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의 의심을 — 잔인하지만 정당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당신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덧붙여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본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음에도 이

고발로 얼마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본인은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조처를 취한 것은, 그 까닭을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부인, 오로지 당신의 그 시커먼 배은망덕 때문입니다! 아니, 궁핍한 당신의 친척을 위하여 본인이 당신을 부르고, 십 루블의 기부를 당신에게 건네는데,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이런 짓으로 갚는단 말입니까. 너무합니다! 당신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곰곰이 헤아려 보십시오! 더구나 본인은 참된 벗으로서 당신에게 청하는 바이니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본인보다 나은 벗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소냐가 겁에 질려 속삭였다. 「십 루블을 주셨지요,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소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 한 귀퉁이의 매듭을 풀고 십 루블짜리 지폐를 꺼내 루쥔에게 내밀었다.

「 그러면 나머지 백 루블은 가져갔다고 자백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그가 지폐를 받지 않은 채 나무라듯 다그쳤다.

소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토록 무섭고 준엄하고 비아냥거리는, 적의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라스콜니코프를 보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벽 곁에 서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하느님 맙소사!」 소냐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 경찰에 알려야 하겠으니 그동안 수위를 불러 주시기를 삼가 청합니다.」 루쥔이 조용히, 친절하다 싶게까지 말했다.

「Gott der Barmherzige[2]! 저 여자가 도둑인 줄 내가 알았어요.」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외쳤다.

「알고 계셨다고요?」 루쥔이 그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전부터 그렇게 여길 만한 까닭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훌륭하신 아말리아 이바노브나, 증인들 앞에서 나온 그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를 청합니다.」

사방에서 왁자한 말소리가 일었다. 모두가 술렁였다.

「뭐-어라고요!」 별안간 정신을 차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외치며 고삐 풀린 듯이 루쥔에게 달려들었다. 「뭐라고요! 저 애를 도둑으로 몬다고요? 소냐를? 아아, 악당들, 악당들!」

그러고는 소냐에게 달려가 여윈 두 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죔쇠처럼 붙들었다.

「소냐! 어떻게 감히 저 사람한테서 십 루블을 받았니? 어리석은 것! 이리 다오! 그 십 루블 당장 이리 내 — 자!」

그러고는 소냐에게서 지폐를 낚아채어 구겨 쥐고 루쥔의 얼굴에 정통으로 던졌다. 그것은 그의 눈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얼른 그것을 주웠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화를 참지 못했다.

「저 미친 여자를 붙드십시오!」 그가 소리쳤다.

그때 레베쟈트니코프 말고도 몇 사람이 더 문간에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 두 부인도 있었다.

「뭐라고요! 미쳤다고요? 내가 미쳤다고요? 이 바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새된 소리를 질렀다. 「바보는 당신이에요, 이 잔꾀나 부리는 법률쟁이, 비열한 인간! 소냐가, 소냐가 당신 돈을 가져갔다고요! 소냐가 도둑이라고요! 저 애는 오히려 당신한테 돈을 내줄 아이예요, 이 바보야!」 그러고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발작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바보를 본 적 있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모두에게 루쥔을 가리키며 이쪽저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도요?」 문득 집주인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까지도, 이 소시지 장수 여편네가, 저 애가

「 훔쳤어요 」 라고 맞장구를 치다니, 크리놀린을 두른 이 비열한 프로이센 닭다리야! 아, 당신들! 아, 당신들! 저 애는 이 방에서 나간 적도 없고, 당신한테서, 이 비열한 인간아, 돌아오자마자 바로 여기로지온 로마노비치 곁에 앉았다고요!…… 뒤져 보세요! 저 애가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으니 돈은 그 몸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뒤져 봐요, 뒤져 보라고요! 하지만 못 찾거든 그때는 미안하지만, 이보세요, 당신이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나는 우리 폐하께, 우리 폐하께, 우리 자애로우신 차르께 직접 가서 그 발치에 엎드리겠어요, 오늘, 이 순간에라도! 나는 고아예요! 들여보내 줄 거예요! 들여보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나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야 말 거예요! 당신은 저 애가 순하다는 것을 계산에 넣었지요! 그걸 믿었지요! 하지만 이봐요, 나는 그 대신 만만치 않은 여자예요! 큰코다칠 줄 알아요! 뒤져 봐요, 뒤져 보라고요!」

그러고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미친 듯이 루쥔을 흔들어 대며 소냐 쪽으로 끌고 갔다.

「 본인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고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하십시오, 부인, 진정하십시오. 부인이 만만치 않으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 이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루쥔이 중얼거렸다. 「 그런 일은 경찰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하기야 증인이라면 이미 이만큼 있으니 말이지요……. 본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남자로서는 곤란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성별로 보아……. 그렇지만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의 도움을 받는다면…… 물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뒤져 보라고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외쳤다. 「소냐, 주머니를 뒤집어 보여라! 봐요! 보라고요,

이 괴물아, 주머니가 비었잖아요, 여기에는 손수건이 들어 있었고! 여기 또 한쪽 주머니, 봐요! 보이지요, 보이지요?」

그러고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두 주머니를 뒤집었다기보다 하나씩 차례로 밖으로 잡아채어 끄집어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서 별안간 종이쪽 하나가 튀어나와 공중에 포물선을 그리며 루쥔의 발치에 떨어졌다. 모두가 그것을 보았고 여러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허리를 굽혀 두 손가락으로 그 종이를 집어 올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고 펼쳤다. 여덟 겹으로 접힌 백 루블짜리 지폐였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손을 빙 돌려 그 지폐를 모두에게 보였다.

「도둑이야! 내 집에서 나가. 경찰, 경찰!」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악을 썼다. 「저런 것들은 시베리아를 보내야 해요! 썩 나가!」

사방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다. 라스콜니코프는 말없이 소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이따금 루쥔에게 재빠른 눈길을 던질 뿐이었다. 소냐는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거의 놀라지도 않은 것 같았다. 별안간 온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외마디 소리를 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 그녀가 가슴을 찢는 울음소리로 외치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달려갔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소냐를 붙잡아, 제 가슴으로 모두에게서 막아 주려는 듯 꼭 끌어안았다.

「소냐! 소냐! 나는 믿지 않아! 봐라, 나는 믿지 않아!」 그녀는 뻔히 드러난 사실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외치며, 갓난아이라도 되는 양 소냐를 팔에 안고 앞뒤로 흔들었고, 그 얼굴에 연신 입을 맞추었으며, 그러다 두 손을 붙들어 거기에도 입을 맞추었다. 「네가 가져갔다니!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까! 아아, 맙소사! 당신들은 바보예요,

바보들이라고요.」 그녀가 방 안 전체를 향해 외쳤다. 「당신들은 몰라요, 저 애가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 어떤 아이인지 당신들은 몰라요! 저 애가 그걸 가져갔다고요, 저 애가? 저 애는 당신들이 아쉬우면 제 마지막 누더기까지 팔아 주고 맨발로 나설 아이예요, 그런 아이라고요! 내 아이들이 굶고 있었기 때문에 노란 딱지를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제 몸을 판 거예요! 아아, 여보, 여보! 아아, 여보, 여보! 이게 보여? 이게 보이냐고? 당신 추도연이 이 꼴이야! 하느님! 저 애를 좀 지켜 주세요, 다들 왜 그렇게 서 있기만 해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어째서 저 애 편을 들어 주지 않나요? 당신도 믿는 건가요? 당신들은 다, 다, 다, 다 저 애의 새끼손가락만도 못해요! 하느님 맙소사! 이제라도 저 애를 지켜 주세요!」

가엾고 폐병 들고 의지가지없는 그 여자의 울부짖음은 좌중에게 큰 효과를 내는 듯했다.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바싹 여윈 폐병 환자의 얼굴, 피가 말라붙은 바싹 튼 입술, 쉰 목소리, 아이처럼 거침없이 쏟아지는 눈물, 남을 믿는,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절망에 찬 도움의 간구, 그 모든 것이 어찌나 가련한지 모두가 그녀를 딱하게 여기는 듯했다. 적어도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이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부인, 부인, 이 일은 부인께 누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무게를 실어 외쳤다. 「아무도 부인을 이 일의 교사자라거나 하다못해 공범이라고 몰아세우려 들지는 않을 것이니, 더욱이 부인께서 주머니를 뒤집어 그 죄를 밝혀내심으로써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음을 스스로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동정을 베풀 뜻이 있습니다, 만일 말하자면 가난이 소피야 세묘노브나를 그리로 몰아간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백을 마다했습니까, mademoiselle? 치욕이 두려웠습니까? 첫걸음이라서? 아마 정신이 아득해졌던 것이겠지요? 그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짓에까지 스스로를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좌중 전체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본인은 이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고 말하자면 딱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본인에게 퍼부어진 개인적인 모욕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mademoiselle, 지금의 이 수치가 앞날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소냐를 향해 말했다. 「본인은 이 일을 더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라스콜니코프를 슬쩍 훔쳐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라스콜니코프의 눈에 이는 불길은 당장이라도 그를 재로 만들어 버릴 듯했다. 그러는 동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미친 여자처럼 소냐에게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들 역시 사방에서 소냐를 껴안았고, 폴레치카는 —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 눈물에 잠겨 흐느낌으로 몸을 떨며 울어서 퉁퉁 부은 예쁘장한 작은 얼굴을 소냐의 어깨에 파묻었다.

「비열하다!」 별안간 문간에서 큰 목소리가 외쳤다.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재빨리 돌아보았다.

「이 무슨 비열한 짓이오!」 레베쟈트니코프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쏘아보며 되풀이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흠칫 몸을 떠는 것 같기까지 했다. 모두가 그것을 알아보았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 일을 떠올렸다.) 레베쟈트니코프가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섰다.

「 그러고도 감히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소? 」 그가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 그게 무슨 말입니까, 레베쟈트니코프 씨?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루쥔이 중얼거렸다.

「 내 말은 당신이…… 중상모략가라는 뜻이오, 내 말은 바로 그 뜻이오! 」 레베쟈트니코프가 근시의 눈으로 그를 준엄하게 바라보며

열을 올려 말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한마디 한마디를 붙들어 무게를 달아 보기라도 하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처음 한순간 정말이지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 말이 본인을 두고 하는 것이라면,……」 그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정신이 나간 것 아닙니까?」

「 나는 멀쩡하오, 당신이야말로…… 사기꾼이오! 아아, 이 무슨 파렴치한 짓인가! 나는 다 들었소. 나는 일부러 기다렸소, 그것을 알아보려고 말이오, 솔직히 말해 지금도 논리가 썩 들어맞지는 않으니까…….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벌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소.」

「아니, 본인이 대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그 터무니없는 수수께끼 같은 소리는 그만두시지요! 아니면 술에 취한 것 아닙니까!」

「술꾼은 당신이겠지, 이 비열한 인간아, 나는 아니오! 나는 보드카에 손도 대지 않소, 그것이 내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이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제 손으로 소피야 세묘노브나에게 그 백 루블짜리 지폐를 주었단 말입니다 — 내가 보았고, 내가 증인이며, 맹세라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레베쟈트니코프가 좌중을 향해 되풀이했다.

「 미쳤습니까, 이 애송이가? 」 루쥔이 새된 소리를 질렀다. 「 저 여자가 당신 앞에 있지 않습니까 — 저 여자 자신이 방금 여기서 모두 앞에 본인이 십 루블만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주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보았소, 나는 보았단 말이오.」 레베쟈트니코프가 되풀이했다. 「 그리고 그것이 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기는 하나,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법정에서 당신이 원하는 어떤 맹세든 할 용의가 있소, 당신이 그것을 그 사람 주머니에 슬쩍 넣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까. 다만 나는 바보같이 당신이 선의로 그러는 줄 알았던 거요! 문간에서 그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이 돌아서고 당신이 한 손으로는 그 손을 잡고 있을 때, 다른 손으로, 왼손으로 지폐를 그 주머니에 밀어 넣었소. 나는 보았소, 나는 보았단 말이오!」

루쥔의 얼굴이 하얘졌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그가 뻔뻔스럽게 외쳤다. 「아니, 창가에 서 있던 당신이 어떻게 그 지폐를 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근시 눈으로 헛것을 본 것이지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헛것을 본 것이 아니오. 얼마쯤 떨어져 서 있기는 했으나 나는 다 보았소. 창가에서 지폐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틀림없이 그렇소 — 그건 사실이오 — 그런데도 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백 루블짜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소, 당신이 소피야 세묘노브나에게 십 루블을 주려 할 때 탁자에서 백 루블짜리 지폐를 집어 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오(그때 나는 가까이 서 있었기에 그것을 보았고, 곧바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던 까닭에 당신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소). 당신은 그것을 접어 내내 손에 쥐고 있었소. 그 뒤 나는 그만 다시 잊어버렸는데, 당신이 일어설 때 그것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다가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소! 나는 그때 다시 생각이 났소, 같은 생각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오, 곧 당신이 내가 보지 않는 데서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려 한다는 생각 말이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지켜보았을지 짐작이 가겠지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것을 그 사람 주머니에 밀어 넣는 데 성공하는 것을 보았소. 나는 보았소, 나는 보았고, 맹세라도 하겠소.」

레베쟈트니코프는 숨이 턱에 닿아 있었다. 사방에서 외침이 일었는데 대개는 놀라움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나 더러는 위협하는 투였다. 모두가 표트르 페트로비치를 둘러쌌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레베쟈트니코프에게 날아가듯 달려갔다.

「안드레이 세묘노비치! 내가 당신을 잘못 보았어요! 저 애를 지켜 주세요! 저 애 편을 들어 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저 애는 고아예요. 하느님이 당신을 보내신 거예요! 안드레이 세묘노비치, 고마운 양반, 은인이시여!」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도 거의 알지 못한 채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다 헛소리입니다!」 루쥔이 분노에 휩싸여 악을 썼다. 「당신이 지껄인 것은 모두 헛소리요, 선생! 『잊었다, 생각났다, 잊었다』라니, 그게 대체 뭡니까? 그래서 본인이 일부러 몰래 그것을 주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무슨 속셈으로? 본인이 이런……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무엇 때문이냐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알 수 없는 것이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확실하오! 내가 잘못 보기는커녕, 이 파렴치한 범죄자 같으니, 나는 바로 그 일로 그때 당장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던 것을 기억하고 있소, 당신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그 손을 잡고 있던 바로 그때 말이오. 무엇 때문에 그것을 몰래 그 사람 주머니에 넣었을까? 어째서 몰래 그랬을까, 내 말은 그 뜻이오. 그저 나에게 감추려던 것일까, 내 신념이 당신의 것과 맞서고 내가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사사로운 자선을 부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 앞에서 그렇게 큰 돈을 주기가 정말로 부끄러웠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소. 어쩌면 저 사람은 그 여자를 놀라게 해 주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지, 주머니에서 백 루블짜리 지폐가 통째로 나오면 말이야, 하고도 생각했소.(자선을 베푸는 사람들 가운데

제 선행을 그런 식으로 꾸미기를 몹시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아니까 말이오.) 그다음에는 당신이 그 사람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는 생각도 떠올랐소,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당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오는지 보려고 말이오. 그다음에는 또 당신이 감사를 피하려는 것이고, 속담에 있듯이 당신의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뭐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했소. 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 나는 그것을 따져 보기를 미루어 두었소만, 그래도 당신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여겼소.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으니, 소피야 세묘노브나가 그것을 알아채기도 전에 그 돈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여기로 와서 그 사람을 방 밖으로 불러내어 당신이 그 주머니에 백 루블을 넣어 두었다고 일러 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오. 그러나 오는 길에 나는 먼저 코빌라트니코프 댁 부인들에게 들러 『실증적 방법 총론』을 가져다주고, 특히 피데리트의 논문을(그리고 바그너의 것도) 추천하고 왔소. 그러고 나서 여기로 왔더니 이 꼴이 벌어져 있지 않소! 자, 내가 당신이 그 백 루블짜리 지폐를 그 사람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내가 이 모든 생각과 궁리를 할 수 있었겠소, 할 수 있었겠느냔 말이오?」

레베쟈트니코프가 끝에 논리적 귀결까지 붙인 그 장광설을 마쳤을 때 그는 몹시 지쳐 있었고 얼굴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다. 딱하게도 그는 다른 언어라고는 하나도 모르면서 러시아어조차 제대로 말할 줄 몰랐고, 그리하여 이 변호사 노릇의 위업을 치르고 나자 기진맥진하여 거의 수척해진 꼴이었다. 그런데도 그의 말은 굉장한 효과를 냈다. 그가 어찌나 격렬하게, 어찌나 확신에 차서 말했던지 모두가 그를 믿는 것이 분명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제 형편이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다.

「당신에게 무슨 어리석은 의문들이 떠올랐다 한들 그것이 본인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소리쳤다. 「그런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꿈이라도 꾼 것이겠지요, 그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말하거니와,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 당신은 본인에 대한 무슨 앙심에서, 그저 분풀이로 거짓말을 하고 중상을 하는 것이니, 본인이 당신의 그 자유사상적이고 신을 모르는 사회적 제안들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응수는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득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방에서 못마땅해하는 웅성거림이 들렸다.

「아, 이제는 그쪽으로 나오시겠다!」 레베쟈트니코프가 외쳤다. 「거짓말이오! 경찰을 부르시오, 나는 맹세를 하겠소! 다만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이 있소. 무엇이 저자로 하여금 저토록 야비한 짓을 무릅쓰게 했는가 하는 것이오. 아아, 가련하고 비열한 인간!」

「그가 어째서 그런 짓을 무릅썼는지는 내가 설명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나 역시 그것을 맹세하겠습니다.」 마침내 라스콜니코프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단단하고 침착해 보였다. 그 모습만 보고도 그가 정말로 이 일을 알고 있으며 수수께끼가 풀리리라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느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레베쟈트니코프를 향해 말했다.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나는 그 밑바닥에 어떤 파렴치한 음모가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나만이 아는 몇 가지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짐작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곧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정이 모든 것을 밝혀 줍니다. 당신의 값진 증언이 마침내 나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모두, 모두 들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신사분은」 그는 루쥔을 가리켰다. 「얼마 전까지 한 처녀와 — 내 누이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라스콜니코바와 —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페테르부르크에 와서 그는 그저께 첫 대면 자리에서 나와 다투었고 나는 그를 내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 그것을 증명해 줄 증인이 둘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저께 나는 그가 여기, 당신의 방에 묵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따라서 우리가 다툰 바로 그날 — 그저께 — 그가, 고인이 된 마르멜라도프 씨의 벗으로서 내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장례에 쓸 돈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쪽지를 써 보내어, 내가 가진 돈을 모조리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아니라 소피야 세묘노브나에게 주어 버렸다고 알렸고, 더없이 야비한 투로 소피야 세묘노브나의…… 품행을 들먹였으니, 곧 소피야 세묘노브나를 향한 내 태도의 성격을 넌지시 비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를 어머니와 누이에게서 갈라놓으려는 속셈이었으니, 그들이 보내 준 돈, 그들이 가진 전부인 그 돈을 내가 합당치 못한 데에 쏟아붓고 있다고 넌지시 일러바친 것입니다. 어제저녁 나는 어머니와 누이 앞에서, 그리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 돈은 장례를 위하여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준 것이지 소피야 세묘노브나에게 준 것이 아니며, 그저께만 해도 나는 소피야 세묘노브나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 곧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쥔이 제가 지닌 온갖 미덕을 다 갖추었다 한들 그토록 헐뜯는 소피야 세묘노브나의 새끼손가락만도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피야 세묘노브나를 내 누이 곁에 앉게 하겠느냐는 그의 물음에는, 나는 그날 이미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누이가 그의 이간질에도 나와 다투려 하지 않는 데에 약이 올라, 그는 차츰 그들에게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끝내 사이가 갈라졌고 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제저녁에

있었습니다. 이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만일 그가 지금 소피야 세묘노브나가 도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는 첫째로 어머니와 누이에게 제 의심이 거의 옳았음을, 내가 누이를 소피야 세묘노브나와 같은 자리에 놓은 데 대하여 성낼 만한 까닭이 있었음을, 나를 몰아세운 것이 곧 제 약혼자인 내 누이의 명예를 지키고 보전하는 일이었음을 보여 준 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내 가족과 다시 갈라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 그들의 환심을 사기를 바랐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 개인에게 복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니, 소피야 세묘노브나의 명예와 행복이 나에게 대단히 소중하다고 여길 만한 근거가 그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노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전부이고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제 말을 맺은 것은 이러한, 또는 대개 이러한 투였으니, 그 말은 듣는 이들의 외침에 자주 끊기면서도 대단히 주의 깊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끊기는 와중에도 그는 날카롭게, 차분하게, 정확하게, 또렷하게, 단단하게 말했다. 날카로운 목소리와 확신에 찬 어조와 준엄한 얼굴은 모두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그렇소, 그렇소, 바로 그것이오.」 레베쟈트니코프가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오, 소피야 세묘노브나가 우리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여기 있는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손님들 가운데서 당신을 보았는지 물었으니 말이오. 나를 창가로 따로 불러내어 몰래 물었소. 당신이 여기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이오! 바로 그것이오, 바로 그것이오!」

루쥔은 경멸하듯 웃을 뿐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다. 그는 빠져나갈 어떤 수를 궁리하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물러가는 편을 반겼을 테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거의

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제게 씌워진 고발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소피야 세묘노브나를 모함했다는 것을 대놓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그러잖아도 술기운이 오른 좌중은 몹시 술렁이고 있었다. 병참부 관리는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지도 못한 주제에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외쳐 대며 루쥔에게 대단히 언짢은 제안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취한 것은 아니었다. 방마다에서 세든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폴란드 사람 셋은 엄청나게 흥분하여 그에게 연신 「pan lajdak!」[3] 하고 소리치며 폴란드 말로 위협을 중얼거렸다. 소냐는 바짝 긴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그녀 역시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막 정신이 돌아온 사람 같았다. 그녀는 라스콜니코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으니, 제 안전이 모두 그에게 달려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힘겹게 그르렁거리며 숨을 쉬었고 몹시 지쳐 보였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누구보다도 얼빠진 낯으로 입을 딱 벌린 채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녀 눈에 보이는 것은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어쩌다 낭패를 보았다는 것뿐이었다.

라스콜니코프가 다시 말을 하려 했으나 사람들이 그러도록 두지 않았다. 모두가 위협과 욕설을 퍼부으며 루쥔을 둘러쌌다. 그러나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겁먹지 않았다. 소냐를 향한 제 고발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아차리고 그는 뻔뻔함에 호소했다.

「실례합니다, 여러분, 실례합니다! 밀지 마십시오,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며 말했다. 「그리고 위협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단언하건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본인은 그리 겁 많은 축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형사 사건을 덮어 버린 데 대하여 말입니다. 도둑의 정체는 밝혀지고도

남았으며 본인은 이 일을 고소하겠습니다. 법정은 그렇게 눈이 멀지도 않았고…… 그렇게 취해 있지도 않으니, 소문난 무신론자이자 선동자이며 자유사상가인 두 사람이, 그것도 개인적인 복수의 동기에서 고발하는 것임을 제 입으로 실토할 만큼 어리석은 두 사람이 하는 증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방에서 당신 흔적이 눈에 띄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즉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어떻게 풀어 설명해 왔는지를 생각하면…… 이 보름 내내 말입니다!」

「아까 본인이 나가겠다고 당신에게 직접 말했을 때, 레베쟈트니코프 씨, 당신은 붙들려고 했지요. 이제 본인은 다만 당신이 바보라는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그 머리와 그 근시를 두고 의사를 찾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사람들을 밀치며 빠져나갔다. 그러나 병참부 관리는 욕설만 퍼붓고서 그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 마음이 없었다. 그는 탁자에서 유리잔을 집어 공중에 휘두르다가 표트르 페트로비치를 향해 던졌는데, 잔은 곧장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에게 날아갔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고, 병참부 관리는 휘두른 기세에 중심을 잃고 탁자 밑으로 무겁게 나동그라졌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제 방으로 건너갔고 반 시간 뒤에는 그 집을 떠났다. 본디 겁이 많은 소냐는 그날 전부터, 제가 누구보다도 쉽게 파멸당할 수 있으며 저를 모욕하는 것쯤은 누구든 거의 벌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까지 그녀는 조심하고 순하게 굴고 누구에게나 고분고분하기만 하면 불행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 왔다. 그 실망은 너무나 컸다. 그녀야 물론 무엇이든, 이런 일까지도 참을성 있게, 거의 군소리 없이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한동안은 그것이 너무나 쓰라렸다. 승리를 거두고 결백이

밝혀졌음에도 — 처음의 공포와 얼떨떨함이 지나가고 모든 것을 또렷이 알아볼 수 있게 되자 — 제가 아무 힘도 없다는 느낌과 제가 당한 부당함이 그녀의 가슴을 괴롭게 죄어들었고, 그녀는 발작하듯 터져 나오는 울음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더는 견디지 못하고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가 집으로 달려갔으니, 루쥔이 떠난 바로 뒤의 일이었다. 왁자한 웃음소리 속에 유리잔에 맞은 아말리아 이바노브나 역시 남의 잔치에 숙취만 떠안는 꼴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모든 일의 탓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있다고 여기고 미친 사람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내 집에서 나가요! 당장! 앞으로 갓!」

그러고는 그 말과 함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낚아채어 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다. 그러잖아도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창백해져 거의 까무러칠 듯 숨을 헐떡이면서도, 지쳐 쓰러져 있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싸움은 너무나 힘이 기울었다. 집주인 여자는 깃털을 털어 내듯 그녀를 밀쳐 버렸다.

「뭐라고요! 그 신을 모르는 모함만으로는 모자랐다는 듯이 — 이 비열한 것이 나에게 덤벼들다니! 뭐라고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날에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다니! 내 빵과 소금을 얻어먹고도 나를, 내 고아들과 함께 길바닥으로 내몰다니! 나더러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가엾은 여자가 흐느끼고 헐떡이며 울부짖었다. 「하느님 맙소사!」 그녀가 눈을 번득이며 외쳤다. 「이 땅에는 정의가 없단 말인가요? 우리 고아들이 아니면 누구를 지켜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디 두고 봅시다! 이 땅에는 법과 정의가 있어요, 있고말고요, 내가 그것을 찾아내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이 신을 모르는 것아! 폴레치카, 아이들과 함께

있어라, 나는 돌아올 테니. 나를 기다려라, 길에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 정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그러고는 죽은 마르멜라도프가 이야기 속에서 말한 적이 있는 그 초록빛 drap de dames 숄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아직도 방을 메우고 있는 어수선하고 술 취한 세입자들의 무리를 비집고 나가,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거리로 뛰쳐나갔다 — 당장, 지금 곧,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선가 정의를 찾겠다는 막연한 작정을 품고서. 폴레치카는 어린 두 아이를 팔에 안은 채 겁에 질려 방구석 궤짝 위에 웅크리고 앉아, 떨면서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새된 소리를 지르고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바닥에 내던지면서 방 안을 날뛰고 다녔다. 세입자들은 두서없이 떠들어 댔다. 더러는 벌어진 일을 저마다 아는 만큼 품평했고, 더러는 서로 다투며 욕설을 퍼부었으며, 또 더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나도 갈 때다!」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자, 소피야 세묘노브나,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그리고 그는 소냐의 셋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

1. mademoiselle — 프랑스어로 미혼 여성을 부르는 말. 루쥔은 소냐를 고발하는 동안에만 이 프랑스어 호칭을 쓰고, 뒤에 「동정」을 베푸는 대목에서도 다시 쓴다. 저본이 프랑스어 철자 그대로 두었으므로 한국어판도 음차하지 않고 원철자를 유지한다.

2. Gott der Barmherzige — 독일어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놀라거나 위급할 때면 독일어로 외친다.

3. pan lajdak — 폴란드어. pan은 「나리·선생」에 해당하는 높임 호칭이고, lajdak은 「파렴치한·건달」이라는 욕이다. 높임 호칭에 욕을 붙여 「파렴치한 나리!」쯤으로 부르는 말이다.

5부 4장

라스콜니코프는 제 가슴에 그토록 무거운 공포와 고뇌를 지고 있으면서도 루쥔에 맞서 소냐를 힘차고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그러나 아침나절에 그만큼을 겪고 난 그는, 소냐를 지켜야 한다고 그를 떠민 강한 개인적 감정과는 별개로, 견딜 수 없게 되어 가던 제 인상들을 바꿀 기회가 온 것을 반기는 듯했다. 그는 또한, 특히 어떤 순간들에는, 곧 있을 소냐와의 만남을 생각하며 마음이 어지러웠으니, 리자베타를 죽인 것이 누구인지 그녀에게 말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이 제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될지 그는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생각을 손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집을 나서며 「자, 소피야 세묘노브나, 이제 당신이 무어라고 하는지 봅시다!」 하고 외쳤을 때만 해도 그는 여전히 겉으로는 들떠 있었고, 루쥔을 이긴 승리로 여전히 기운차고 도전적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페르나우모프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는 별안간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문 앞에서 망설이며 우두커니 선 채, 「리자베타를 죽인 것이 누구인지 그녀에게 말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상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것은 이상한 물음이었으니, 그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말하기를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째서 그래야만 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고 그저 그렇게 느낄 뿐이었으며, 피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제가 무력하다는 그 괴로운 자각이 그를 짓뭉갤 듯했다. 망설임과 괴로움을

잘라 버리려고 그는 얼른 문을 열고 문간에서 소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앉아 있었으나, 라스콜니코프를 보자 곧바로 일어나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를 맞으러 나왔다.

「안 계셨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가 방 한가운데서 그를 맞으며 얼른 말했다.

그녀가 그 말을 그에게 서둘러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것이 그녀가 기다려 온 말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탁자로 가서 그녀가 방금 일어난 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두 걸음 떨어져 그를 마주 보고 섰는데, 어제와 꼭 같았다.

「자, 소냐?」 그가 말했고,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게 죄다 『당신의 사회적 처지와 그에 따르는 습속』 탓이었다지요. 아까 그 말 알아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괴로움이 드러났다.

「 제발 어제처럼만은 말씀하지 마세요. 」 그녀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발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비참한 일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녀는 그가 그 나무람을 언짢아할까 봐 서둘러 웃어 보였다.

「 거기서 나와 버린 건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지금 거기선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곧장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자꾸만……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는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그들을 하숙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것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정의를 찾으러」 어디론가 뛰쳐나갔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맙소사!」 소냐가 외쳤다. 「어서 가요…….」

그러고는 망토를 낚아챘다.

「언제나 그 타령이군요!」 라스콜니코프가 성이 나서 말했다. 「당신 머릿속엔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하고 좀 있어요.」

「하지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야 물론 당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집을 뛰쳐나간 이상 제 발로 당신을 찾아올 테니까요.」 그가 짜증스레 덧붙였다. 「여기서 당신을 못 찾으면 그것도 당신 탓이 될 테고…….」

소냐는 괴로운 조바심 속에 앉았다. 라스콜니코프는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궁리했다.

「이번엔 루쥔이 당신을 고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소냐를 보지 않은 채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러고 싶었다면, 그게 제 속셈에 맞았다면, 레베쟈트니코프와 내가 없었을 경우 그는 당신을 감옥에 보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네.」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수긍했다. 「네.」 그녀는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듯 괴로워하며 되풀이했다.

「 하지만 내가 거기 없었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레베쟈트니코프가 나타난 것도 순전한 우연이었고요.」

소냐는 잠자코 있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면, 그다음엔요?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해요?」

그녀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기다렸다.

「나는 당신이 또 『그 얘긴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하고 외칠 줄 알았는데요.」 라스콜니코프가 웃었으나 억지웃음에 가까웠다. 「또 잠자코 있는 겁니까?」 그가 잠시 뒤에 물었다. 「그래도 무슨 이야기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레베쟈트니코프라면 『문제』라고 할 만한 걸 당신이 어떻게 푸는지 나는 알고 싶은데.」 (그는 갈피를 놓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니, 정말로 나는 진지해요. 소냐, 당신이 루쥔의 속셈을 죄다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 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아이들을, 덤으로 당신까지 — 당신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니까 — 그리고 폴레치카까지 망하게 하리라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었다고요…… 폴레치카도 같은 길을 갈 테니까요. 자, 그런데 별안간 그 모든 것이, 그가 계속 살 것이냐 저들이 계속 살 것이냐가 당신의 결정 하나에 달리게 됐다고 해 봐요. 그러니까 루쥔이 계속 살아 나쁜 짓을 저지를 것인가, 아니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죽을 것인가 하는 거지요. 둘 가운데 누가 죽어야 할지 당신은 어떻게 정하겠어요?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소냐가 불안스레 그를 보았다. 무언가를 에둘러 더듬어 가는 듯한 이 머뭇거리는 물음에는 이상한 데가 있었다.

「그런 걸 물으시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가 캐묻는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그랬겠지요. 하지만 거기 어떻게 답하겠어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왜 물으세요?」 소냐가 넌더리를 내며 말했다.

「그러면 루쥔이 계속 살아 나쁜 짓을 저지르는 편이 낫겠군요? 당신은 그것조차 감히 정하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하느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걸요……. 그리고 물어서는 안 될 걸 왜 물으세요? 그런 부질없는 물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제 결정에 달릴 수가 있겠어요 — 누가 저를 재판관으로 세워 누가 살고 누가 살지 말아야 할지 정하게 했나요?」

「아, 하느님의 섭리가 끼어들면야 어쩔 도리가 없지요.」 라스콜니코프가 침울하게 투덜거렸다.

「차라리 무얼 바라시는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소냐가 괴로워하며 외쳤다. 「또 무언가로 끌고 가시는군요……. 그저 저를 괴롭히러 오신 거예요?」

그녀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는 침울한 비참함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 분이 지났다.

「물론 당신 말이 옳아요, 소냐.」 마침내 그가 나직이 말했다. 그는 별안간 달라져 있었다. 꾸며 낸 오만함과 속수무책의 도전이 담겼던 어조가 사라졌다. 목소리마저 별안간 약해졌다. 「어제 나는 용서를 빌러 오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거의 첫마디부터 용서를 빌고 있군요……. 루쥔이니 섭리니 하는 말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나는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소냐…….」

그는 웃어 보이려 했으나 그 핏기 없는 웃음에는 어딘가 속수무책이고 덜 된 데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런데 별안간 소냐를 향한 일종의 쓰디쓴 증오라는 이상하고 놀라운 감각이 그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그 감각에 놀라고 겁먹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으나, 제게 못 박힌 그녀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만큼 애타는 눈과 마주쳤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으며, 그의 증오는 허깨비처럼 사라졌다. 그것은 진짜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한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잘못 안 것이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다만, 그 순간이 왔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다시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떨구었다. 별안간 그는 창백해지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소냐를 보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침대로 옮겨 앉았다.

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노파의 등 뒤에 서서 고리에서 도끼를 이미 빼낸 채 「한시도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던 그 순간의 감각과 무섭도록 닮아 있었다.

「왜 그러세요?」 소냐가 몹시 겁에 질려 물었다.

그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못했으니, 이것은 그가 「말하려고」 했던 방식과는 전혀, 전혀 달랐고, 그는 지금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 침대 위 그의 옆에 앉아 눈을 떼지 않은 채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이 마구 뛰다가 내려앉았다.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그녀에게 돌렸고,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해 보려고 속수무책으로 버둥거렸다. 공포의 아픔이 소냐의 가슴을 찔렀다.

「왜 그러세요?」 그녀가 그에게서 조금 물러나며 되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냐, 겁내지 말아요……. 부질없는 소리예요. 따지고 보면 정말로 부질없는 소리지요.」 그가 헛소리하는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왜 당신을 괴롭히러 왔을까?」 그가 그녀를 보며 별안간 덧붙였다. 「정말로 왜일까? 나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그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소냐…….」

그는 아마 십오 분 전에도 스스로에게 그 물음을 던지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거의 모른 채, 온몸에 끊임없는 떨림을 느끼며 말하고 있었다.

「아, 얼마나 괴로우시면!」 그녀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괴로이 중얼거렸다.

「죄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들어 봐요, 소냐.」 그가 별안간 웃었는데, 두 초쯤 이어진 핏기 없고 속수무책인 웃음이었다. 「어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던 게 기억나요?」

소냐가 불안스레 기다렸다.

「나가면서 나는 어쩌면 영영 작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오늘 다시 온다면 누가……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말해 주겠다고 했지요.」

그녀가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자, 나는 그것을 말하러 왔어요.」

「그럼 어제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그녀가 힘겹게 속삭였다. 「어떻게 아세요?」 그녀가 별안간 정신을 되찾기라도 한 듯 얼른 물었다.

소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녀는 괴롭게 숨을 쉬었다.

「나는 알아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사람을 찾아냈나요?」 그녀가 머뭇머뭇 물었다.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소리로, 다시 한동안 말이 없다가 되물었다.

그가 그녀 쪽으로 돌아앉아 그녀를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맞혀 봐요.」 그가 여전히 일그러진 속수무책의 웃음을 띠고 말했다.

경련 같은 것이 그녀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어째서 저를 이렇게 겁주세요?」 그녀가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니까…… 나는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벗인 모양이지요.」 라스콜니코프가 눈을 돌릴 수 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그 리자베타를 죽일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얼떨결에 그 여자를 죽인 거예요……. 노파가 혼자 있을 때 죽이려고 거기 갔는데…… 그때 리자베타가 들어왔고…… 그 여자까지 죽였지요.」

또 한 번 끔찍한 순간이 지나갔다. 둘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못 맞히겠어요?」 그가 종탑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것 같은 기분으로 별안간 물었다.

「아, 아니요……」 소냐가 속삭였다.

「잘 봐요.」

그가 이 말을 하자마자 다시 그 낯익은 감각이 그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별안간 그녀의 얼굴에서 리자베타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리자베타의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그가 도끼를 들고 다가가자 그녀는 벽 쪽으로 물러서며 한 손을 내밀었고,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공포가 어려 있었으니, 어린아이들이 무언가를 무서워하기 시작할 때 저를 무섭게 하는 것을 뚫어지게, 불안스레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울음이 터지기 직전에 작은 두 손을 내미는, 꼭 그 모습이었다. 지금 소냐에게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났다. 똑같은 속수무책과 똑같은 공포로 그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별안간 왼손을 내밀어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희미하게 누르고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에게서 더 멀어지면서 두 눈은 더욱 꼼짝없이 그에게 못 박아 두었다. 그녀의 공포가 그에게 옮아 같은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거의 똑같이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맞혔어요?」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하느님 맙소사!」 그녀의 가슴에서 끔찍한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침대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으나, 잠시 뒤 일어나 재빨리 그에게 다가와 두 손을 붙잡고는, 가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꽉 움켜쥔 채 다시 그 똑같이 뚫어지는 눈길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마지막 필사적인 눈길로 그녀는 그의 안을 들여다보고 마지막 희망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 했으나, 희망은

없었고, 의심도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으니, 죄다 사실이었다! 뒷날 실제로 그 순간을 떠올렸을 때 그녀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여겼고, 어째서 자기가 대뜸 아무 의심도 없다는 것을 알아보았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를테면 그녀는 그런 일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 그런데도 이제 그가 말하자마자 그녀는 별안간 자기가 바로 그것을 정말로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

「그만해요, 소냐, 그만하면 됐어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그가 비참하게 애원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리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전혀 이렇지 않았으나, 일은 이렇게 일어났다.

그녀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두 손을 쥐어짜며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가, 이내 되돌아와 다시 그의 옆에 앉았는데, 어깨가 그의 어깨에 닿을 듯했다. 별안간 그녀는 칼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흠칫하더니 외마디 소리를 내고는, 제가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 스스로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녀가 절망에 차서 말하고는 벌떡 일어나 그의 목에 매달려 두 팔로 그를 끌어안고 꼭 붙들었다.

라스콜니코프가 뒤로 물러나 서글픈 웃음을 띠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소냐 —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입 맞추고 나를 끌어안다니……. 당신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군요.」

「아무도 —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녀가 그의 말은 듣지도 않고 미친 듯이 외쳤고, 별안간 격렬한 히스테리의 울음을 터뜨렸다.

오래 낯설었던 감정이 그의 가슴에 밀려들어 단번에 그것을 누그러뜨렸다. 그는 그것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 두 줄기 눈물이 그의 눈에 솟아 속눈썹에 매달렸다.

「그럼 나를 버리지 않겠어요, 소냐?」 그가 거의 희망을 품은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어디서도요! 」 소냐가 외쳤다. 「 따라가겠어요, 어디든 따라가겠어요. 아, 맙소사! 아, 저는 얼마나 비참한지!…… 어째서, 어째서 저는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어째서 진작 오시지 않았어요? 아,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 네, 이제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이, 같이요! 」 그녀가 저도 모르게 되풀이하고는 다시 그를 끌어안았다. 「 징역에도 같이 가겠어요!」

그는 이 말에 별안간 몸서리를 치듯 움찔했고, 그 가증스럽고 거의 오만한 웃음이 다시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나는 아직 징역에 갈 생각이 없을지도 몰라요, 소냐.」 그가 말했다.

소냐가 얼른 그를 보았다.

불행한 사람을 향한 첫 열렬하고 애끓는 연민이 지나가자 다시 살인이라는 끔찍한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다. 달라진 그의 어조에서 그녀는 살인자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리둥절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어째서인지, 어떻게인지, 무슨 목적으로였는지 알지 못했고, 이제 그 모든 물음이 한꺼번에 그녀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저이가, 저이가 살인자라니! 그게 사실일 수 있을까?」

「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 그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처럼 온통 어리둥절해서 말했다. 「 어떻게

그러실 수가, 그러실 수가,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일에 스스로 손을 대실 수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뭐 — 빼앗으려고요. 그만둬요, 소냐.」 그가 지친 듯, 거의 짜증스레 대답했다.

소냐는 말문이 막힌 듯 서 있다가 별안간 외쳤다.

「굶주리셨군요! 그건…… 어머니를 도우려고요? 그렇지요?」

「아니요, 소냐, 아니에요.」 그가 얼굴을 돌리고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그렇게 굶주리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를 돕고 싶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것도 진짜는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소냐.」

소냐가 두 손을 맞잡았다.

「그게, 그게 죄다 사실일 수 있어요? 하느님 맙소사, 무슨 그런 사실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 파딩[1] 한 닢까지 내주고는 강도질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아,」 그녀가 별안간 외쳤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 주신 그 돈…… 그 돈……. 설마 그 돈이……」

「아니에요, 소냐.」 그가 서둘러 말을 끊었다. 「그 돈은 그게 아니에요. 걱정 말아요! 그 돈은 어머니가 어떤 상인을 통해 부쳐 주신 것으로, 내가 앓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한테 준 그날 도착했어요……. 라주미힌이 그걸 봤어요…… 그가 나 대신 받았고요……. 그 돈은 내 것이었어요 — 내 돈이었다고요.」

소냐는 어리둥절한 채 그의 말을 들으며 알아들으려고 있는 힘을 다했다.

「그리고 그 돈……. 나는 사실 돈이 있기나 했는지도 몰라요.」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나직이 덧붙였다. 「나는 그 여자 목에서 지갑을 하나 벗겨 냈어요, 샤미 가죽으로 된…… 무언가로 불룩하게 채워진

지갑을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럴 틈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리고 물건들은 — 줄이며 장신구며 — 이튿날 아침에 지갑과 함께 V—— 대로에서 들어간 어느 안뜰의 돌 밑에 묻었어요. 지금도 죄다 거기 있지요…….」

소냐가 온 신경을 곤두세워 들었다.

「 그러면 어째서…… 어째서, 빼앗으려고 그랬다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지푸라기라도 붙잡듯 얼른 물었다.

「 모르겠어요……. 나는 그 돈을 가질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 그가 다시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러고는 흠칫 깨어나기라도 한 듯 짧게 빈정대는 웃음을 지었다. 「아, 내가 무슨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래요?」

저이가 미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소냐의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곧 그 생각을 물리쳤다. 「아니야, 다른 무엇이 있어.」 그녀는 그것을 도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거 알아요, 소냐.」 그가 별안간 확신에 차서 말했다. 「말해 두겠는데, 내가 그저 배가 고파서 죽였더라면,」 그는 낱말마다 힘을 주며 수수께끼처럼, 그러나 진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행복할 겁니다. 그건 믿어야 해요! 당신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가 잠시 뒤 일종의 절망에 차서 외쳤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한들 당신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를 그렇게 어리석게 이겨서 당신이 얻는 게 무엇이지요? 아, 소냐, 내가 오늘 당신한테 온 게 그러자고였을까요?」

소냐가 다시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잠자코 있었다.

「 어제 내가 당신더러 같이 가자고 한 건 나한테 남은 것이 당신뿐이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요?」 소냐가 머뭇머뭇 물었다.

「 훔치러도 죽이러도 아니니 걱정 말아요. 」 그가 쓰게 웃었다.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소냐, 어제 내가 당신더러 어디로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인지 나는 이제야, 바로 이 순간에야 알겠어요! 어제 그 말을 할 때 나는 어디인지 몰랐어요. 나는 당신한테 한 가지를 청했고, 한 가지 때문에 당신한테 왔어요 —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소냐?」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런데 왜, 왜 나는 이 사람한테 말했을까? 왜 알게 했을까?」 그가 잠시 뒤 절망에 차서, 끝없는 고뇌의 눈으로 그녀를 보며 외쳤다. 「 소냐, 당신은 지금 나한테 설명을 바라고 있어요. 앉아서 그걸 기다리고 있지요, 나는 알아요.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알아듣지 못할 테고 그저 비참하게 괴로워하기만 할 겁니다…… 나 때문에! 자, 당신은 또 울면서 나를 끌어안는군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견디지 못해서 그걸 남에게 떠맡기러 왔기 때문이지요. 당신도 괴로워하라지,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질 테니! 그런데 당신은 그런 비열한 놈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괴로워하고 계시잖아요?」 소냐가 외쳤다.

같은 감정의 물결이 다시 그의 가슴에 밀려들어 다시 한순간 그것을 누그러뜨렸다.

「소냐, 나는 마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 새겨 둬요. 그것으로 많은 것이 설명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나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오지 않았을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겁쟁이고…… 비열한 놈이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좋아요! 그게 요점은 아니니까. 지금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아,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가 다시 외쳤다. 「우리는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왜 나는 왔을까? 나는 그것만은 결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시길 잘하셨어요.」 소냐가 외쳤다. 「제가 아는 편이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가 고뇌에 차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것이었다면 어떨까?」 그가 결론에 이르기라도 한 듯 말했다. 「그래, 그것이었어! 나는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인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 아니요.」 소냐가 순진하고 머뭇머뭇하게 속삭였다. 「그저 말씀만 해 주세요, 말씀만요, 알아들을게요, 제 안에서 알아들을게요!」 그녀가 자꾸만 애원했다.

「알아듣겠다고요? 좋아요, 두고 봅시다!」 그는 말을 멈추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런 것이었어요.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지요 — 이를테면 나폴레옹이 어쩌다 내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그리고 출세의 시작으로 삼을 툴롱도 이집트도 몽블랑 횡단[2]도 그에게 없었고, 그 그림 같고 기념비적인 것들 대신에 그저 우스꽝스러운 노파 하나, 말단 관리의 과부 하나가 있어서 (물론 그의 출세를 위해서) 그 여자의 궤에서 돈을 훔쳐 내려면 그 여자까지 죽여야 했다면 어땠을까? 자, 다른 수가 없었다면 그가 그 일에 스스로 손을 댔을까요? 그것이 기념비적인 것과 그토록 멀고…… 그리고 죄스럽기까지 하다는 데 마음이 켕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해 두지만 나는 그 『물음』을 두고 무섭도록 나 자신을 들볶았고, 그래서 마침내 (어쩌다 별안간) 그것이 그에게 털끝만한 켕김도 주지 않았으리라는 것, 그것이 기념비적이지 않다는 생각조차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거기에 멈춰 설 만한 것이

있다는 걸 그가 알아보지도 못했으리라는 것, 그리고 다른 길이 없었다면 그가 생각 한번 해 보지 않고 찍 소리도 못 하게 그 여자의 목을 졸랐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끔찍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생각에 잠기기를 그만두고…… 목을 졸랐지요…… 권위자의 본을 따라서……. 바로 그랬던 겁니다! 우습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소냐, 무엇보다 우스운 건 어쩌면 정말로 그랬으리라는 거예요.」

소냐는 조금도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바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지 마시고요.」 그녀가 더욱 머뭇머뭇, 거의 들리지 않게 애원했다.

그가 그녀 쪽으로 돌아앉아 서글프게 그녀를 바라보고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이번에도 당신 말이 옳아요, 소냐. 물론 그건 죄다 부질없는 소리고, 거의 다 말뿐이지요! 보세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한테는 가진 것이 거의 없고, 누이는 어쩌다 좋은 교육을 받아 놓고는 가정교사로 뼈빠지게 일할 팔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희망은 죄다 나한테 쏠려 있었고요. 나는 학생이었지만 대학에서 제 앞가림을 할 수가 없어 한동안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질질 끌었더라도 십 년이나 십이 년쯤 뒤에 (운이 좋으면) 연봉 천 루블쯤 되는 교사나 서기 비슷한 것이 되기를 바랄 수 있었겠지요.」 (그는 배운 것을 외우듯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어머니는 슬픔과 근심으로 기진해 있을 테고 나는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없을 테고, 누이는…… 뭐, 누이는 더 못한 꼴을 당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평생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고, 모든 것에 등을 돌리고, 제 어머니를 잊고, 제 누이에게 가해진 모욕을 점잖게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째서 그래야 하지요? 그들을 묻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 아내와 아이들을 — 제 등에 지고는 또 파딩 한 닢, 빵 한 조각 없이 내버려 두려고요?

그래서 나는 노파의 돈을 손에 넣어,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고 처음 몇 해를, 대학에 다니는 동안과 나온 뒤 얼마 동안을 그 돈으로 버티기로 마음먹었어요 —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넉넉하고 철저한 규모로 해내어, 아주 새로운 출셋길을 닦고 독립된 새 삶으로 들어서기로 한 거지요……. 자…… 그게 다예요……. 자, 물론 노파를 죽인 건 잘못한 일이지요……. 자, 이만하면 됐어요.」

그는 기진하여 제 말을 끝까지 끌고 가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소냐가 괴로워하며 외쳤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 그게 옳지 않다는 건 당신도 알겠지요. 하지만 나는 참되게 말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어요! 하느님 맙소사!」

「나는 이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에요, 소냐, 쓸모없고 역겹고 해로운 것을요.」

「사람을 — 이 한 마리라고요!」

「그게 이 한 마리가 아니었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가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소냐.」 그가 덧붙였다. 「오래전부터 헛소리를 하고 있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점은 당신 말이 옳아요. 아주, 아주 다른 까닭들이 있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소냐……. 지금 머리가 지독하게 아프군요.」

그의 두 눈이 열에 들뜬 광채로 빛났다. 그는 거의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불안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가를 맴돌았으며, 흥분 너머로 그의 무서운 기진이 비쳐 보였다. 소냐는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보았고, 그녀 자신도 어지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참 이상하게도 말했다. 어쩐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 그렇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느님 맙소사! 」 그러고는 절망에 차서 두 손을 쥐어짰다.

「아니에요, 소냐, 그게 아니에요.」 그가 별안간 다시 말을 시작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새롭고 갑작스러운 생각의 줄기가 그를 치고 말하자면 그를 깨우기라도 한 것 같았다 —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상상해 봐요 — 그래요, 그게 확실히 낫겠어요 — 내가 허영심 많고, 시샘 많고, 심술궂고, 비루하고, 앙심 깊고, 그리고…… 뭐, 어쩌면 미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상상해 봐요. (기왕이면 한꺼번에 죄다 털어놓읍시다! 사람들이 벌써 광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도 알아챘어요.) 방금 나는 대학에서 내 앞가림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어쩌면 할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가 등록금에 필요한 만큼은 부쳐 주셨을 테고, 옷이며 장화며 먹을 것은 틀림없이 내가 벌 수 있었을 거예요. 반 루블짜리 과외 자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라주미힌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악에 받쳐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악에 받쳤다, 그게 꼭 맞는 말이에요!) 나는 거미처럼 내 방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도 내 굴에 와 봤으니 봤겠지요……. 그런데 소냐, 낮은 천장과 비좁은 방이 넋과 머리를 옥죈다는 것을 알아요? 아, 나는 그 다락방이 얼마나 싫었는지! 그러면서도 거기서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나가지 않았어요! 며칠씩 내리 나가지 않았고, 일도 하지 않았고,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지요. 나스타시야가 무얼 가져다주면 먹었고 가져다주지 않으면 온종일 굶었는데, 일부러, 앙심으로 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밤에는 불이 없어서 어둠 속에 누워 있었고 양초 살 돈을 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공부를 해야 했는데도 책을 팔아 버려 탁자 위 공책에는 먼지가 한 치나 앉아 있지요. 나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는 편이 좋았어요. 그리고 자꾸만 생각했지요……. 그리고 내내 꿈을 꿨어요, 온갖 이상한 꿈들을요, 늘어놓을 것도 없고요! 다만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또 잘못 말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자꾸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남들이 어리석다면 —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리석다는 걸 알아요 — 어째서 나는 더 지혜로워지려 하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가? 그러다 알았지요, 소냐, 모두가 지혜로워지기를 기다리자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그다음엔 그런 일은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것,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힘을 쏟아 봐야 헛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게 그들의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소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아요, 소냐, 머리와 마음이 강한 자는 누구든 그들 위에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요. 크게 감행하는 자는 누구든 그들의 눈에 옳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멸시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서 입법자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감행하는 자가 누구보다 옳은 사람이 될 겁니다! 여태껏 그래 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려면 눈이 멀어야 해요!」

라스콜니코프는 이 말을 하면서 소냐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이제 그녀가 알아듣든 말든 개의치 않았고, 열이 그를 온통 사로잡아 그는 일종의 음울한 황홀에 빠져 있었다(그가 너무 오랫동안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었다). 소냐는 그의 음울한 신조가 그의 신앙이자 법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때 나는 알아차렸어요, 소냐.」 그가 열에 들떠 말을 이었다. 「힘은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 들 엄두를 내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요. 오직 한 가지,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엄두를 내기만 하면 돼요! 그때 난생처음으로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모양을 갖추었는데, 나보다 먼저 아무도, 아무도 떠올린 적 없는 생각이었어요! 이 모든 부조리 곁을 지나가면서도 그것을 그저 꼬리째 움켜잡아

악마에게 털어 버릴 엄두를 여태 단 한 사람도 내지 못했고 지금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나는 별안간 대낮처럼 훤히 보았어요! 나는…… 나는 그 엄두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죽였지요. 나는 그저 엄두를 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냐! 그게 그 모든 일의 까닭이었어요!」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소냐가 두 손을 맞잡고 외쳤다. 「하느님을 등지셨으니 하느님이 치신 거예요, 악마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럼 소냐, 내가 어둠 속에 누워 이 모든 것이 내게 또렷해졌을 때, 그건 악마의 유혹이었을까요, 그래요?」

「그만하세요, 웃지 마세요, 하느님을 모독하는 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 하느님! 저이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만해요, 소냐! 나는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악마가 나를 이끈 것이었다는 건 나 스스로 알아요. 그만해요, 소냐, 그만해요!」 그가 음울하게 우겨 대며 되풀이했다. 「나는 죄다 알아요, 어둠 속에 누워 그것을 몇 번이고 되씹고 몇 번이고 혼자 속삭여 봤어요……. 나는 그것을 낱낱이 나 자신과 따져 보았고, 그래서 죄다, 죄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모든 지껄임이 얼마나, 얼마나 지겨웠는지! 나는 그것을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소냐, 그만 지껄이고 싶었고요. 그런데 내가 바보처럼 무턱대고 그 일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나는 현명한 사람처럼 그 일에 들어갔고, 바로 그것이 나를 망쳤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내가 힘을 얻을 권리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면 — 나한테는 분명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 또는 사람이 이 한 마리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면, 그것이 곧 나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였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곧장 가는 자한테는 이 한 마리겠지만 말이지요, 내가

몰랐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폴레옹이라면 그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를 궁금해하며 그 여러 날 나 자신을 들볶았다면, 그건 물론 내가 나폴레옹이 아니라는 것을 또렷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모든 지껄임이 주는 고통을 죄다 견뎌야 했고, 소냐, 그것을 떨쳐 버리고 싶어 못 견뎠으니, 나는 궤변 없이 죽이고 싶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 오직 나 하나를 위해 죽이고 싶었어요! 나는 나 자신한테조차 그 일을 두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살인을 한 것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 그건 헛소리예요 — 나는 부와 힘을 얻어 인류의 은인이 되려고 그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헛소리! 나는 그저 했을 뿐이니, 나를 위해, 오직 나 하나를 위해 그 살인을 했고, 내가 남들의 은인이 되든, 아니면 거미처럼 제 그물에 사람들을 걸어 그들의 목숨을 빨아먹으며 한평생을 보내든, 그 순간에는 아무래도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소냐. 내가 원한 것은 돈이라기보다 다른 무엇이었어요……. 이제 나는 죄다 알아요……. 나를 알아들어 줘요! 어쩌면 나는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두 번 다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을 알아내고 싶었으니, 나를 몰아간 것은 다른 무엇이었어요. 나는 그때 내가 남들과 똑같은 이 한 마리인지 아니면 사람인지를 빨리, 그 자리에서 알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감히 몸을 굽혀 집어 들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떠는 피조물인지 아니면 권리를 가진 자인지……」

「죽일 권리요? 죽일 권리가 있는지요?」 소냐가 두 손을 맞잡았다.

「아, 소냐!」 그가 성이 나서 외쳤고 무어라 되받으려는 듯하다가 경멸하듯 입을 다물었다. 「말을 끊지 말아요, 소냐. 나는 한 가지만 밝히고 싶어요. 그때 악마가 나를 부추겼다는 것, 그리고 나도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은 이 한 마리일 뿐이므로 나한테는 거기 갈 권리가

없었다는 것을 그 뒤로 악마가 내게 보여 주었다는 것을요. 악마는 나를 놀리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당신한테 온 겁니다! 손님을 맞아요! 내가 이 한 마리가 아니었다면 당신한테 왔겠어요? 들어 봐요. 그때 내가 노파한테 간 것은 그저 시험해 보려고 간 것이었어요……. 그건 믿어도 좋아요!」

「그러고는 그 여자를 죽이셨어요!」

「 하지만 내가 어떻게 죽였지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인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때의 나처럼 살인을 하러 갑니까? 내가 어떻게 갔는지는 언젠가 이야기해 주지요! 내가 노파를 죽였던가요? 나는 그 여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죽였어요! 나는 단번에, 영영 나 자신을 짓뭉갰어요……. 하지만 그 노파를 죽인 건 악마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만, 그만해요, 소냐, 그만! 나를 내버려 둬요!」 그가 별안간 고통의 발작에 사로잡혀 외쳤다. 「나를 내버려 둬요!」

그는 두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두 손으로 제 머리를 바이스처럼 죄었다.

「 이 무슨 괴로움이에요! 」 고뇌의 울부짖음이 소냐에게서 터져 나왔다.

「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가 별안간 고개를 들고, 절망으로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그녀가 벌떡 일어서며 외쳤고, 눈물이 가득했던 두 눈이 별안간 빛나기 시작했다. 「일어나세요!」 (그녀가 그의 어깨를 붙들었고, 그는 거의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일어섰다.) 「지금 곧, 이 순간에 가세요, 네거리에 서세요, 절하세요, 먼저 스스로 더럽힌 땅에 입을 맞추고, 그다음엔 온 세상을 향해 사방으로 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소리 높여 말하세요, 『나는 살인자다!』라고요.[3] 그러면 하느님이 다시 삶을 보내 주실 거예요.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그녀가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온몸을 떨면서, 그의 두 손을 낚아채어 제 손안에 꽉 움켜쥐고, 불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물었다.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황홀에 놀랐다.

「징역 말이에요, 소냐? 내가 자수를 해야 한다고요?」 그가 침울하게 물었다.

「괴로움을 받고 그것으로 죄를 씻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아니! 나는 그자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소냐!」

「하지만 어떻게 계속 살아가시려고요? 무엇을 위해 사시려고요?」 소냐가 외쳤다. 「이제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이에요? 아니,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아,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 벌써 어머니와 누이를 버리셨잖아요. 저이는 벌써 그들을 버렸어요! 아, 하느님!」 그녀가 외쳤다. 「아니, 저이는 그걸 죄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혼자서 살 수 있겠어요! 이제 어떻게 되시려고요?」

「어린애처럼 굴지 말아요, 소냐.」 그가 나직이 말했다. 「내가 그자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지요? 내가 왜 그자들한테 가야 하나요? 그자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지요? 그건 허깨비일 뿐이에요……. 그자들 자신이 수백만 명씩 사람을 죽여 놓고 그것을 덕으로 칩니다. 그자들은 악당이고 비열한 놈들이에요, 소냐! 나는 그자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 내가 그 여자를 죽였지만 감히 돈은 가져오지 못하고 돌 밑에 감췄다고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아니, 그자들은 나를 비웃을 테고, 그걸 챙기지 않았다고 나더러 바보라고 하겠지요. 겁쟁이에 바보라고! 그자들은 알아듣지 못할 테고 알아들을 자격도 없어요. 내가 왜

그자들한테 가야 하지요? 나는 안 갑니다. 어린애처럼 굴지 말아요, 소냐…….」

「견디시기에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녀가 절망에 찬 애원으로 두 손을 내밀며 되풀이했다.

「어쩌면 내가 나 자신한테 공정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가 곰곰이 생각하며 침울하게 말했다. 「어쩌면 나는 결국 이 한 마리가 아니라 사람이고, 나 자신을 단죄하는 데 너무 서둘렀는지도 모르지요. 나는 한 번 더 싸워 보겠어요.」

오만한 웃음이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그 짐을 지고 사시다니! 그것도 한평생을, 한평생을요!」

「익숙해지겠지요.」 그가 침울하게, 생각에 잠겨 말했다. 「들어봐요.」 그가 잠시 뒤 말문을 열었다. 「그만 울어요, 이제 사실을 이야기할 때니까. 경찰이 나를 쫓고 있다는 것, 내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러 온 겁니다…….」

「아!」 소냐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아니, 왜 소리를 질러요? 내가 징역에 가기를 바라더니 이제 와서 겁이 나요? 하지만 말해 두겠는데, 나는 자수하지 않아요. 나는 싸울 테고 그자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자들한테는 진짜 증거가 없어요. 어제는 큰 위기였고 나도 끝장났다고 여겼지만, 오늘은 형편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자들이 아는 사실은 죄다 두 가지로 풀 수 있으니, 그러니까 나는 그자들의 고발을 오히려 나한테 유리하게 돌려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배운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자들은 틀림없이 나를 잡아갈 거예요. 어떤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벌써 그렇게 했을 게 분명하고, 어쩌면 지금이라도, 바로 오늘 중에 나를 잡아갈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소냐. 그자들은 나를 다시 내보낼 테니까……

나한테 걸 진짜 증거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테니까요, 내가 장담하지요. 그리고 그자들이 나를 걸고 있는 것으로는 사람을 유죄로 만들지 못해요. 이만하면 됐어요……. 나는 그저 당신이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누이한테는 놀라지 않도록 어떻게든 잘 둘러대 보겠어요……. 그래도 누이의 앞날은 이제 안전한 것 같고…… 어머니 쪽도 틀림없이 그럴 테고……. 자, 그게 다예요. 그래도 조심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면회를 오겠어요?」

「아, 가겠어요, 가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둘 다 서럽고 풀이 죽어 있었으니, 마치 폭풍에 떠밀려 인적 없는 물가에 단둘이 내던져진 것 같았다. 그는 소냐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 별안간 짐스럽고 괴롭게 느껴졌다. 그렇다, 그것은 이상하고 무서운 감각이었다! 소냐를 만나러 오는 길에 그는 제 모든 희망이 그녀에게 걸려 있다고 느꼈고 적어도 제 괴로움의 한 조각은 덜어 내리라 기대했는데, 이제 그녀의 온 마음이 그를 향하자 그는 별안간 자기가 전보다 헤아릴 수 없이 더 불행하다고 느꼈다.

「소냐.」 그가 말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는 면회를 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소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났다.

「십자가를 지니고 계세요?」 그녀가 별안간 생각난 듯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 물음을 알아듣지 못했다.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자, 이걸 받으세요, 사이프러스 나무로 된 것이에요. 저한테는 또 하나, 리자베타의 것이었던 구리 십자가가 있어요. 리자베타와 바꿨거든요. 그이가 저한테 그 십자가를 주고 저는 제 작은 이콘을 주었어요.[4] 이제 리자베타의 것을 제가 걸고 이것을 드릴게요. 받으세요…… 제 거예요! 제 것이라고요.」 그녀가 그에게

애원했다. 「우리는 같이 괴로움을 받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 십자가를 질 거예요!」

「이리 줘요.」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받으려고 내민 손을 곧바로 도로 거두었다.

「지금은 말고요, 소냐. 나중이 낫겠어요.」 그가 그녀를 달래려고 덧붙였다.

「네, 네, 그게 낫겠어요.」 그녀가 확신에 차서 되풀이했다. 「괴로움을 맞으러 가실 때, 그때 거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걸어 드릴게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같이 갈 거예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문을 세 번 두드렸다.

「소피야 세묘노브나, 들어가도 될까요?」 아주 귀에 익은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냐가 겁에 질려 문으로 달려갔다. 레베쟈트니코프 씨의 아마빛 머리가 문간에 나타났다.

---

1. 파딩(farthing) — 4분의 1페니에 해당하는 영국의 최저액 동전. 저본의 역자 가넷이 러시아 화폐 코페이카를 영국 동전으로 바꾸어 옮긴 자리다. 이 책에서는 루블·코페이카와 뒤섞여 쓰인다.

2. 툴롱은 1793년 나폴레옹이 포병 지휘로 이름을 얻은 공성전, 이집트는 1798~99년의 원정을 가리킨다. 몽블랑 횡단은 1800년 이탈리아 원정길에 알프스를 지난 일로, 실제로 부대가 지나간 곳은 그랑생베르나르 고개이나 저본은 몽블랑으로 적었다.

3. 네거리에서 땅에 입 맞추고 사방에 절하는 것은 러시아 민간에 뿌리를 둔 공개 참회의 방식이다. 죄지은 이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더럽힌 땅과 온 세상에 용서를 구하는 의식으로 여겨졌다.

4. 정교회 신자는 세례 때 받은 십자가를 끈에 꿰어 평생 목에 걸고 다니며, 흔히 작은 이콘을 함께 꿴다. 사이프러스(측백나뭇과의 향나무)와 구리는 그 십자가를 만드는

흔한 재목이다. 십자가를 서로 바꾸는 것은 의남매를 맺는다는 뜻의 오랜 관습이다.

5부 5장

레베쟈트니코프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소피야 세묘노브나,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는 별안간 라스콜니코프에게로 말을 돌렸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생각하기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실성했습니다.」 그는 라스콜니코프에게서 소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불쑥 내뱉었다.

소냐가 비명을 질렀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 — 어디선가 쫓겨난 듯하고, 어쩌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세묜 자하로비치의 상관에게 달려갔다가 집에 없어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자는 다른 장군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군요……. 글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기로, 그 다른 장군 집으로 달려가서는,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나 끈덕졌던지 기어이 그 상관을 만나 내고야 말았답니다, 식사 자리에서 불러내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물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제 입으로 하는 말로는 그자에게 욕을 퍼붓고 무언가를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요……. 어떻게 붙들려 가지 않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까지 붙들고

아무에게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쳐서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지, 모두가 자기를 버렸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손풍금을 들고 거리로 나가겠다고, 아이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자기도 그러겠다고, 그렇게 돈을 모으겠다고, 그리고 날마다 그 장군의 창 밑으로 가겠다고 소리칩니다…… 『아비가 관리였던 좋은 집안 아이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꼴을 모두가 똑똑히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계속 때려서 다들 울고 있습니다. 리다에게는 『내 마을』을 부르라 가르치고, 사내아이에게는 춤을, 폴레치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란 옷은 죄다 찢어서 배우들처럼 조그만 모자를 만들고 있고, 음악 대신 양철 대야를 들고 다니며 땡땡 울리겠답니다…….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레베쟈트니코프는 더 말을 이으려 했으나,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듣고 있던 소냐가 망토와 모자를 낚아채더니 가면서 걸치며 방에서 뛰쳐나갔다. 라스콜니코프가 그 뒤를 따랐고 레베쟈트니코프가 그를 뒤따랐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미쳤습니다!」 그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그가 라스콜니코프에게 말했다. 「소피야 세묘노브나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폐병에서는 결절이 더러 뇌에 생기기도 한다더군요. 제가 의학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설득해 보려 했는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절 이야기를 했습니까?」

「꼭 결절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알아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말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울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면 그 사람은 울음을 그친다는

것이지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이 당신의 확신입니까?」

「그렇다면 인생이 너무 쉬울 겁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물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로서는 이해하기가 꽤 어렵겠지요. 그런데 파리에서는 순전히 논리적 논증만으로 미친 사람을 고칠 수 있는지를 두고 진지한 실험을 해 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죽은 거기 어느 교수, 이름난 학자가 그런 치료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미친 사람의 신체 기관에는 실상 아무 이상이 없고 광기란 말하자면 논리적 오류, 판단의 착오, 사물에 대한 그릇된 견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츰 그 미친 사람에게 그의 오류를 보여 주었고, 믿어지십니까, 성공했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물요법도 함께 썼으므로 그 성공이 얼마나 그 치료 덕분인지는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진작부터 듣고 있지 않았다. 자기가 사는 집에 이르자 그는 레베쟈트니코프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레베쟈트니코프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둘레를 둘러보더니 서둘러 가던 길을 갔다.

라스콜니코프는 제 작은 방으로 들어가 한가운데 우뚝 섰다. 무엇하러 여기 돌아왔는가? 그는 누렇고 너덜너덜한 벽지를, 먼지를, 제 소파를 바라보았다……. 마당에서 요란하고 끊임없는 두드리는 소리가 올라왔다. 누군가 망치질을 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창가로 가서 발끝으로 서서는 골똘한 낯으로 오래도록 마당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마당은 비어 있었고 망치질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왼편 집에는 열린 창문 몇이 보였고 창턱에는 병들어 보이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빨래가 널려 있었다…… 그는 그 모두를 외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소파에 앉았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는 이토록 무섭게 혼자라고 느껴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 그는 다시 한번 느꼈다, 이제 소냐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어쩌면 그녀를 미워하게 되리라고.

「무엇하러 그 여자에게 가서 눈물을 구걸했던가? 무엇하러 그 여자의 삶에 독을 풀어야 했던가? 아, 이 비열함!」

「나는 혼자 남겠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감옥에 오지 못한다!」

오 분 뒤 그는 야릇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들었다. 야릇한 생각이었다.

「어쩌면 정말로 징역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막연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밀려다녔는지 그는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별안간 문이 열리고 두냐가 들어왔다. 처음에 그녀는 가만히 서서 문간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소냐에게 그랬던 것과 꼭 같이. 그러고는 들어와 어제와 같은 자리, 그를 마주 보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말없이, 거의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내지 마세요, 오라버니. 잠깐만 있다 갈 거예요.」 두냐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엄하지 않았다. 눈은 맑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 또한 사랑을 품고 자기에게 왔음을 알았다.

「 오라버니, 이제 다 알아요, 다요. 드미트리 프로코피치가 죄다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리석고 경멸스러운 혐의를 걸고 사람들이 오라버니를 들볶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요……. 드미트리 프로코피치 말로는 위험은 없고, 그 일을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건 잘못이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라버니가 얼마나 분할지 저는 충분히 알겠고, 그 분함이 영영 자국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우리와 인연을 끊은 일에 대해서는 저는 오라버니를 탓하지 않아요, 감히 탓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일로 나무랐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라도 그만큼 큰 괴로움이 있었다면 모두에게서 멀어졌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께는 이 일을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라버니 이야기는 끊임없이 할 거고, 오라버니가 곧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 전하겠어요. 어머니 걱정은 마세요, 제가 마음을 놓아 드릴게요. 하지만 오라버니도 어머니를 너무 애태우지는 마세요 — 적어도 한 번은 와 주세요, 그분이 오라버니의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저 이 말을 하려고 왔어요. 」 (두냐가 일어서기 시작했다.) 「 혹시 제가 필요하시거나, 필요해지시면…… 제 한평생이나 무엇이든…… 부르세요, 그러면 가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홱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두냐!」 라스콜니코프가 그녀를 멈춰 세우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 라주미힌, 드미트리 프로코피치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두냐가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요?」 그녀가 잠시 기다렸다가 물었다.

「유능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잘 있거라, 두냐.」

두냐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별안간 겁을 집어먹었다.

「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라버니? 정말로 우리가 영영 헤어지는 건가요, 저에게 그런…… 그런 작별의 말을 주시다니?」

「신경 쓸 것 없다……. 잘 가거라.」

그는 돌아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잠시 서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보다가 마음이 무거워진 채 나갔다.

아니, 그는 그녀에게 차갑지 않았다. 그녀를 품에 안고 작별하고 싶은, 심지어 말해 버리고 싶은 한순간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이) 있었으나 그는 그녀의 손을 만지는 것조차 감히 하지 못했다.

「나중에 그 애는 내가 저를 껴안았던 것을 떠올리며 몸서리칠 테고, 내가 제 입맞춤을 훔쳤다고 여기겠지.」

「그리고 그 애가 그 시험을 견뎌 내겠는가?」 그는 몇 분 뒤 혼잣말로 이어 갔다. 「아니, 견디지 못한다. 그런 처녀들은 견디지 못한다! 결코 견디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는 소냐를 생각했다.

창에서 신선한 공기 한 줄기가 들어왔다. 햇빛이 스러지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갔다.

물론 그는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헤아릴 수 없었고 헤아리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끊임없는 불안과 마음의 고통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가 고열로 드러눕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쩌면 바로 이 끊임없는 내적 긴장이 그를 제 발로 서 있게 하고 정신을 지니고 있게 도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인위적인 흥분이 오래갈 수는 없었다.

그는 정처 없이 헤맸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근래 들어 어떤 특별한 종류의 비참함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사무치는 것도 날카로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속의 느낌, 영원의 느낌이 있었다. 그것은 이 차갑고 납덩이 같은 비참함으로 채워질 가망 없는 세월의 맛을, 「사방 한 야드의 자리」에서의 영원의 맛을 미리 보여 주었다. 저녁 무렵이면 이 감각이 대개 더 무겁게 그를 내리누르기 시작했다.

「이 얼빠진, 순전히 육체적인 허약함, 해 지는 것 따위에 매인 허약함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아니 할 수가 없구나! 소냐에게만이 아니라

두냐에게도 가게 되겠지.」 그가 증오에 차서 중얼거렸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레베쟈트니코프가 달려왔다.

「글쎄, 당신을 찾아 방까지 갔었습니다. 글쎄, 그 사람이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겨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피야 세묘노브나와 제가 그들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아이들에게 노래하고 춤추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고요. 네거리마다 가게 앞마다 멈춰 서는데, 바보들이 떼를 지어 뒤를 따라다닙니다. 어서 갑시다!」

「 그러면 소냐는요? 」 라스콜니코프가 레베쟈트니코프를 뒤따라 서두르며 불안하게 물었다.

「그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피야 세묘노브나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기야 소피야 세묘노브나도 제정신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완전히 미쳤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갈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지금은 운하 기슭 다리 근처에 있습니다, 소피야 세묘노브나 집에서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운하 기슭 다리 근처, 소냐가 세 들어 사는 집에서 두 집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주로 거리의 아이들이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쉬고 갈라진 목소리가 다리에서도 들려왔고, 그것은 과연 거리의 구경꾼을 끌어모을 만한 기이한 광경이었다. 초록 숄을 두른 낡은 옷차림에 한쪽이 흉하게 짜부라진 찢어진 밀짚모자를 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쳐 숨을 헐떡였다. 여위고 폐병 든 얼굴은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워 보였고, 실제로 볕 아래 바깥에 나오면 폐병 든 사람은 집 안에 있을 때보다 언제나 더 나빠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그녀의 흥분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짜증은 시시각각 더 격해졌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소리치고 달래고, 구경꾼 앞에서 어떻게 춤추고 무엇을 불러야 하는지 일러 주고,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데 절망하여 때렸다……. 그러다가는 구경꾼에게 달려들곤 했다. 점잖게 차려입은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보는 것이 눈에 띄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호소했다, 「점잖은, 가히 귀족이라 할 집안」의 이 아이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보라고. 구경꾼 속에서 웃음이나 비웃는 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당장 그 비웃는 자들에게 달려들어 다투기 시작했다. 더러는 웃고 더러는 고개를 저었으나, 겁에 질린 아이들을 데리고 선 미친 여자의 모습에 누구나 호기심을 느꼈다. 레베쟈트니코프가 말한 프라이팬은 거기 없었다, 적어도 라스콜니코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팬을 두드리는 대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리다와 콜랴를 춤추게 하고 폴레치카에게 노래를 시키면서 여윈 두 손으로 박자를 쳤다. 그녀 자신도 노래를 거들었으나 두 번째 음에서 무서운 기침에 무너져, 절망 속에 제 기침을 저주하고 눈물까지 흘렸다. 그녀를 가장 미치게 한 것은 콜랴와 리다의 울음과 공포였다. 아이들을 거리의 노래꾼처럼 차려입히려 애쓴 흔적이 있었다. 사내아이는 튀르크 사람처럼 보이라고 붉고 흰 무언가로 만든 두건을 쓰고 있었다. 리다에게는 입힐 것이 없어 그저 붉은 뜨개 모자를, 아니 마르멜라도프의 것이었던 잠자리 모자를 썼는데, 거기에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할머니 것이었다가 가보로 궤 속에 간직되어 온 부러진 흰 타조 깃 한 조각이 달려 있었다. 폴레치카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 아이는 겁먹은 당혹 속에 어머니를 바라보며 곁에 붙어 서서 눈물을 감추고 있었다. 아이는 어머니의 상태를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불안하게 둘레를 둘러보았다. 거리와 사람들이 몹시

무서웠던 것이다. 소냐는 울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하면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따라다녔으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설득될 사람이 아니었다.

「 그만해라, 소냐, 그만해. 」 그녀가 빠르게 말하며 헐떡이고 기침하며 외쳤다. 「네가 무엇을 청하는지 너는 모른다, 너는 어린애 같구나!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술 취한 독일 여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모두가, 온 페테르부르크가 보라지, 아비가 평생을 진실과 충성으로 봉직하다 가히 직무 중에 죽었다 할 명예로운 사람이었던 아이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이제 이 허황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 몹쓸 장군이 그걸 보게 하자! 그리고 너는 어리석다, 소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부터 말해 봐라. 우리는 너를 충분히 괴롭혔다, 나는 더 그러지 않겠다! 아, 로지온 로마노비치, 당신이군요!」 그녀는 라스콜니코프를 보고 그에게 달려가며 외쳤다. 「이 어리석은 애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보다 나은 수는 없다고요! 손풍금쟁이도 벌어먹고 사는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거지꼴이 된 가난한 양갓집 고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대번에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군은 자리를 잃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람 창 밑에서 공연을 할 거고, 황제께서 지나가시면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앞에 세워 그분께 보여 드리며 말하겠어요, 『 아버지시여, 저희를 지켜 주소서. 』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자비로우시니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그 몹쓸 장군은……. 리다, tenez vous droite!(똑바로 서 있거라!) 콜랴, 너는 다시 춤을 출 거다. 왜 훌쩍이느냐? 또 훌쩍이는구나! 무엇이 무섭다는 거냐, 바보야? 맙소사, 얘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로지온 로마노비치?

얘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신다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녀는, 저도 거의 울면서 — 그렇다고 끊임없이 빠르게 흐르는 말이 멎지는 않았다 — 울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라스콜니코프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녀를 설득해 보았고, 심지어 그녀의 허영을 건드릴 요량으로, 기숙학교의 교장이 되려는 사람이 손풍금쟁이처럼 거리를 떠도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까지 말했다.

「 기숙학교라니, 하하하! 뜬구름 잡는 소리지요. 」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외쳤고 그 웃음은 기침으로 끝났다. 「아니에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 꿈은 끝났어요! 다들 우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장군은……. 아시겠어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제가 그자에게 잉크병을 던졌답니다 — 마침 대기실에 이름을 적는 종이 옆에 놓여 있었거든요. 제 이름을 적고 그것을 던지고 달아났지요. 아, 악당들, 악당들! 하지만 그자들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제가 손수 아이들을 먹여 살리겠어요,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겠어요! 저 애는 우리 때문에 견딜 만큼 견뎠어요!」 그녀가 소냐를 가리켰다. 「폴레치카, 얼마나 모았느냐? 보여 다오! 뭐라고, 겨우 두 파딩[1]이라고? 아, 인색한 것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뒤만 따라다니며 혀를 내미는구나. 저기, 저 멍청이는 무엇이 우스워서 웃는 거야? 」 (그녀는 구경꾼 속의 한 사내를 가리켰다.) 「 이게 다 여기 이 콜랴가 어리석어서야.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성가시구나. 무엇을 바라느냐, 폴레치카? 프랑스어로 말해 보아라, parlez-moi français. 아니, 내가 가르쳐 주었잖느냐, 너는 몇 마디를 알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서야 너희가 좋은 집안의 잘 자란 아이들이지 여느 손풍금쟁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겠느냐? 우리는 거리에서 인형극[2] 따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점잖은 노래를 부르려는 거다……. 아, 그래,…… 우리가 무엇을 부르지? 너희가 자꾸 내 정신을

흩뜨리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보세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우리는 여기 서서 부를 것을, 콜랴가 거기 맞춰 춤출 수도 있는 것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공연은 죄다 즉흥이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의논하고 낱낱이 익혀 두어야 해요, 그런 다음 넵스키로 갈 거예요, 거기엔 상류 사회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 우리는 대번에 눈에 띌 거예요. 리다는 『내 마을』 밖에 몰라요, 『내 마을』 하나뿐인데 그건 누구나 부르지요. 우리는 훨씬 더 점잖은 것을 불러야 해요……. 자, 무엇을 생각해 냈느냐, 폴레치카? 네가 어미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내 기억이 아주 가 버렸구나, 그러지 않았다면 무엇이든 생각해 냈을 텐데. 『경기병』은 정말 부를 수 없고. 아, 프랑스어로 부르자, 『Cinq sous』[3] 말이다, 내가 가르쳐 주었지,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프랑스어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너희가 좋은 집안 아이들인 줄 알아볼 테고, 그러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을 거야……. 『Marlborough s'en va-t-en guerre』[4]를 불러도 좋겠구나, 그건 아주 어린애 노래이고 귀족 집안이면 어디서나 자장가로 부르는 것이니까.」

「Marlborough s'en va-t-en guerre Ne sait quand reviendra……」 그녀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니다, 『Cinq sous』를 부르는 편이 낫겠어. 자, 콜랴, 두 손을 허리에 얹어라, 어서. 그리고 리다, 너는 반대쪽으로 계속 돌아라, 폴레치카와 나는 노래하며 손뼉을 치겠다!」

「Cinq sous, cinq sous Pour monter notre menage.」[5]

(기침, 기침, 기침!) 「옷매무새를 바로 해라, 폴레치카, 어깨에서 흘러내렸구나.」 그녀가 기침으로 헐떡이며 일렀다. 「지금은 특히 얌전하고 점잖게 굴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좋은 집안 아이인 줄 다들 알아본다. 내가 그때 말했지, 몸판을 더 길게, 두 폭으로 마르라고. 네 탓이다, 소냐, 더 짧게 하라고 훈수를 두더니, 이제 보아라, 애 꼴이 아주

흉해지지 않았느냐……. 아니, 너희 또 우는구나! 무슨 일이냐, 바보들아? 자, 콜랴, 시작해라. 어서, 어서! 아, 견딜 수 없는 아이로구나!」

「Cinq sous, cinq sous.」

「또 병정이야! 뭘 원하는 거야?」

과연 순경 하나가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문관 제복에 외투를 걸친 신사 하나가 — 목에 훈장을 단 쉰 줄의 점잖아 보이는 관리로, 그것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기쁘게 했고 순경에게도 효과가 있었다 — 다가와 말없이 초록빛 3루블 지폐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동정의 빛이 어려 있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것을 받고 정중한, 심지어 의례적이라 할 인사를 했다.

「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생. 」 그녀가 도도하게 입을 열었다. 「 저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사유로 말씀드리면 (돈을 받아라, 폴레치카. 곤경에 빠진 가난한 양갓집 부인을 기꺼이 도우려는 너그럽고 명예로운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보아라). 보시다시피, 존경하는 선생, 이 아이들은 좋은 집안의 — 가히 귀족의 연줄이 닿는다 하여도 좋을 — 고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몹쓸 장군은 앉아서 멧닭 고기를 먹으면서…… 제가 성가시게 군다고 발을 굴렀습니다. 『각하.』 제가 말했습니다. 『고아들을 지켜 주십시오, 각하께서는 제 죽은 남편 세묜 자하로비치를 아셨고, 그가 죽은 바로 그날 가장 비열한 악당이 그의 하나뿐인 딸을 중상했습니다.』 …… 또 저 병정이! 저를 보호해 주세요. 」 그녀가 관리에게 외쳤다. 「어째서 저 병정이 저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메샨스카야 거리에서 다른 병정 하나한테서 달아나 온 참입니다. 뭘 원하는 거야, 이 멍청아?」

「거리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는 건 당신이잖아. 내가 손풍금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손풍금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인은 허가가 없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어디 사십니까?」

「뭐라고, 허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울부짖었다. 「나는 오늘 남편을 묻었어. 무슨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 진정하십시오, 부인, 진정하십시오. 」 관리가 입을 열었다. 「가시지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틈은 부인께서 계실 곳이 아닙니다. 편찮으시지 않습니까.」

「 존경하는 선생, 존경하는 선생, 모르셔서 그럽니다. 」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넵스키로 갈 겁니다……. 소냐, 소냐! 그 애는 어디 있지? 저 애도 울고 있구나! 다들 왜들 그러느냐? 콜랴, 리다, 어디로 가는 거냐?」 그녀가 별안간 질겁하여 외쳤다. 「아, 어리석은 것들! 콜랴, 리다, 저것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콜랴와 리다는 사람들과 어머니의 미친 짓에 넋이 나가 있다가, 자기들을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병정을 마침내 보자 별안간 미리 짜기라도 한 듯 서로 손을 맞잡고 달아나 버렸다. 가엾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울부짖으며 그 뒤를 쫓았다. 울면서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 그녀는 가엾고 볼썽사나운 꼴이었다. 소냐와 폴레치카가 그 뒤를 따라 달려갔다.

「데려와라, 데려오너라, 소냐! 아, 어리석고 은혜 모르는 것들!…… 폴레치카! 저것들을 붙잡아라…….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녀는 달리다 발이 걸려 넘어졌다.

「다치셨어요, 피가 나요! 아이고!」 소냐가 그녀 위로 몸을 굽히며 외쳤다.

모두 달려와 둘레에 몰려들었다. 라스콜니코프와 레베쟈트니코프가 제일 먼저 그녀 곁에 이르렀고 관리도 서둘러 왔으며, 그 뒤로 순경이 성가신 일이 되겠구나 싶어 못 견디겠다는 몸짓으로 「아이고, 귀찮아!」 하고 중얼거리며 따라왔다.

「비키시오! 비켜요!」 그가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죽어 가네.」 누군가 외쳤다.

「실성했다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여자가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계집아이와 사내아이는 붙잡았나? 데려오고 있구먼, 큰애가 붙들었어……. 아이고, 저 말썽꾸러기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찬찬히 살펴보고서야 사람들은 소냐가 생각한 것처럼 그녀가 돌에 부딪혀 다친 것이 아니라, 포도를 붉게 물들인 그 피가 그녀의 가슴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전에도 저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가 라스콜니코프와 레베쟈트니코프에게 중얼거렸다. 「저건 폐병입니다. 피가 쏟아져 환자를 질식시키지요. 얼마 전에 제 친척에게서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컵 반쯤 되는 피가 순식간에……. 그렇지만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곧 숨을 거두시려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 방으로요!」 소냐가 애원했다. 「제가 여기 살아요!…… 보세요, 저 집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저에게 와 주세요, 어서요.」 그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몸을 돌렸다. 「의사를 불러 주세요! 아이고!」

관리가 애쓴 덕에 이 안이 받아들여졌고 순경까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옮기는 것을 거들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이 없는 채로 소냐의 방으로 옮겨져 침대에 뉘어졌다. 피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으나 그녀는 정신이 돌아오는 듯했다. 라스콜니코프와 레베쟈트니코프와

관리가 소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고, 문 앞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먼저 몰아낸 순경이 그들을 뒤따랐다. 폴레치카가 떨며 울고 있는 콜랴와 리다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카페르나우모프네 방에서도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 집주인은 수염이 나고 머리칼이 솔처럼 뻗친, 다리를 절고 한쪽 눈이 먼 기이한 생김새의 사내였고, 그 아내는 언제나 겁에 질린 표정을 한 여자였으며, 입을 헤벌린 채 놀란 얼굴을 한 아이 몇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별안간 모습을 드러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고 사람들 속에서 그를 보지 못했던 터라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의사와 사제 이야기가 나왔다. 관리는 이제 의사를 부르기에는 늦은 것 같다고 라스콜니코프에게 속삭였으나 그래도 부르러 보내라고 일렀다. 카페르나우모프가 손수 달려갔다.

그러는 동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숨을 돌렸다. 피가 한동안 멎었다. 그녀는 병들었으나 골똘하고 꿰뚫어 보는 눈으로 소냐를 바라보았다. 소냐는 창백하게 떨며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일으켜 달라고 청했다. 사람들이 양쪽에서 받쳐 그녀를 침대에 앉혔다.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그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데려왔구나, 폴레치카? 아, 어리석은 것들! 왜 달아났더냐……. 윽!」

또다시 그녀의 마른 입술이 피로 덮였다. 그녀는 눈을 굴리며 둘레를 둘러보았다.

「이런 데서 살고 있었구나, 소냐! 네 방에 내가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었지…… 이렇게 오게 됐구나…….」

그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소냐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너를 다 빨아먹었다, 소냐. 폴레치카, 리다, 콜랴, 이리오너라! 자, 여기 있다, 소냐, 다 데려가라! 내가 너에게 넘긴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무도회는 끝났다.」 (기침!) 「눕혀 다오, 편히 죽게 해 다오.」

사람들이 그녀를 베개 위에 도로 뉘었다.

「뭐, 사제? 나는 싫다. 너희에게는 남는 1루블이 없지 않으냐. 나에게는 죄가 없다. 하느님은 그런 것 없이도 나를 용서하셔야 한다.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분은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상관없다!」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한 섬망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따금 몸을 떨고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잠시 사람들을 알아보았으나 이내 다시 섬망에 빠져들었다. 숨소리는 거칠고 힘겨웠으며 목에서 가르랑거리는 소리 같은 것이 났다.

「제가 그자에게 말했습니다, 각하.」 그녀가 한 마디 한 마디 뒤에 숨을 몰아쉬며 내뱉었다. 「그 아말리아 루드비고브나가, 아! 리다, 콜랴, 두 손을 허리에, 어서! Glissez, glissez! pas de basque! (미끄러지듯, 미끄러지듯! 바스크 스텝으로!) 뒤꿈치로 박자를 쳐라, 우아한 아이가 되어야지!」

「Du hast Diamanten und Perlen」[6]

「다음은 무엇이더라? 그게 부를 만한 것이다.」

「Du hast die schönsten Augen Mädchen, was willst du mehr?」[7]

「무슨 생각이람! Was willst du mehr? 저 바보가 별것을 다 지어내는구나! 아, 그래!」

「한낮의 뙤약볕 속, 다게스탄의 골짜기에서.」

「아, 내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는 그 노래를 미치도록 좋아했다, 폴레치카! 네 아버지가, 알겠느냐, 우리가 약혼했을 때 그것을 부르곤 했지……. 아, 그 시절! 아, 우리가 부를 것은 바로 그거다! 어떻게 되더라? 잊어버렸구나. 좀 일깨워 다오! 어떻게 되더라?」

그녀는 몹시 흥분하여 몸을 일으키려 했다. 마침내 끔찍하게 쉬고 갈라진 목소리로, 한 마디마다 비명을 지르고 숨을 몰아쉬며, 점점 커지는 공포의 낯빛으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한낮의 뙤약볕 속!…… 골짜기에서!…… 다게스탄의!…… 가슴에 납을 박은 채!……」

「각하!」 그녀가 가슴을 찢는 비명과 쏟아지는 눈물로 별안간 울부짖었다. 「고아들을 지켜 주십시오! 각하께서는 고 세묜 자하로비치의 손님이셨습니다…… 가히 귀족이라 할…….」 그녀는 흠칫하며 정신을 차리고 일종의 공포에 질려 모두를 둘러보았으나 이내 소냐를 알아보았다.

「소냐, 소냐!」 그녀가 거기 그 애가 있다는 것이 놀랍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말했다. 「소냐, 얘야, 너도 여기 있구나?」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켰다.

「그만! 때가 됐다! 잘 있거라, 가엾은 것! 늙은 말을 타고 타서 죽여 놨구나! 허리가 끊어졌다-아!」 그녀가 원한에 찬 절망으로 외쳤고, 그 머리가 베개 위로 무겁게 떨어졌다.

그녀는 다시 의식을 잃었으나 이번에는 오래가지 않았다. 창백하고 누렇게 여윈 얼굴이 뒤로 떨어지고 입이 벌어졌으며 다리가 경련하듯 움직이더니, 깊고 깊은 한숨을 쉬고 숨을 거두었다.

소냐가 그녀 위로 엎어져 두 팔로 껴안고는, 죽은 여자의 여윈 가슴에 머리를 묻은 채 꼼짝하지 않았다. 폴레치카는 어머니의 발치에 몸을 던져 그 발에 입 맞추며 격렬하게 울었다. 콜랴와 리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으나 무언가 무서운 일이라는 느낌은 있었다. 둘은 서로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고 마주 바라보다가, 동시에 입을 벌리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둘 다 아직 그 차림새 그대로였다. 하나는 두건을, 하나는 타조 깃 달린 모자를 쓴 채였다.

그런데 「표창장」이 어떻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곁 침대 위에 놓여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베개 옆에 놓여 있었고 라스콜니코프가 그것을 보았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레베쟈트니코프가 그에게 깡충 다가왔다.

「죽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 로지온 로마노비치, 두어 마디 나눌 일이 있습니다.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레베쟈트니코프는 즉시 자리를 내주고 조심스럽게 물러났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놀란 라스콜니코프를 더 멀찍이 구석으로 데려갔다.

「내가 모든 절차를, 장례며 그런 것을 맡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돈 문제인데, 내가 말씀드렸듯이 나에게는 남아도는 돈이 있습니다. 저 어린것 둘과 폴레치카를 좋은 고아원에 넣고, 성년이 될 때 각자에게 1500루블씩 돌아가도록 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소피야 세묘노브나가 그 아이들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 여자도 진창에서 끌어내겠습니다, 착한 처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에게 전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만 루블을 그렇게 쓰고 있다고.」

「그런 자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물었다.

「아! 의심 많은 분이시군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웃었다. 「그 돈은 나에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저 인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저 여자는 『이 한 마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죽은 여자가 누워 있는 구석을 가리켰다.) 「어느 늙은 전당포 노파처럼 말입니다. 자, 당신도 동의하실 겁니다, 『정말로 루쥔이 계속 살아 나쁜 짓을 저지를 것인가, 아니면 저 여자가 죽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돕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폴레치카도 같은 길을 갈 테니까요……』」

그는 어딘가 유쾌하게 눈을 찡긋하는 듯한 능청으로 이 말을 하면서 눈을 라스콜니코프에게 고정하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에게 했던 제 말을 듣고 하얗게 질려 얼어붙었다. 그는 얼른 물러서며 사납게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바라보았다.

「 어, 어떻게…… 아십니까? 」 그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속삭였다.

「아니, 나는 여기 벽 너머 레슬리히 부인 집에 묵고 있습니다. 여기가 카페르나우모프네이고 저기가 레슬리히 부인 집인데, 그분은 나의 오래고 각별한 벗이지요. 나는 이웃입니다.」

「당신이?」

「 그렇습니다.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웃음으로 몸을 떨며 말을 이었다. 「 명예를 걸고 장담합니다, 친애하는 로지온 로마노비치, 당신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까워질 거라고, 내가 그렇게 예언했다고. 자,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던한 사람인지 보시게 될 겁니다. 나와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

1. 파딩(farthing) — 4분의 1페니에 해당하는 영국의 최저액 동전. 저본은 러시아 화폐 코페이카가 놓일 자리에 영국 동전을 넣어 옮겼고, 그래서 이 책에는 루블·코페이카와 파딩이 뒤섞여 나온다.

2. 인형극 — 저본은 영국 인형극 『펀치와 주디』의 이름을 썼다. 러시아의 페트루시카 인형극을 영국 것으로 바꾸어 놓은 자리다.

3. Cinq sous — 「5수」. 수(sou)는 프랑스의 잔돈 단위다. 당시 프랑스 통속 가극에서 유행하던 노래의 제목으로, 이어지는 대목에 그 첫 두 행이 나온다.

4. Marlborough s'en va-t-en guerre — 「말버러가 전쟁터로 떠나네」. 이어 부르는 둘째 행 Ne sait quand reviendra는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네」라는 뜻이다. 프랑스의 오래된 동요이자 자장가다.

5. Cinq sous, cinq sous / Pour monter notre menage — 「5수, 5수 / 우리 살림을 차리기 위해」라는 뜻.

6. Du hast Diamanten und Perlen — 「그대에게는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있고」.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인 독일 가곡의 첫 행이다.

7. Du hast die schönsten Augen / Mädchen, was willst du mehr? — 「그대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눈이 있으니 / 아가씨여, 무엇을 더 바라는가?」라는 뜻. 바로 다음 문단에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방금 자기가 부른 이 독일어 구절을 그대로 되받아 비웃는다.

6부 1장

라스콜니코프에게 이상한 시기가 시작되었으니, 마치 안개가 내려앉아 그를 감싸서는 빠져나갈 길이라고는 어디에도 없는 음울한 고독 속에 가두어 버린 것만 같았다. 한참 뒤에 그 시기를 돌이켜 보며 그는 제 정신이 때때로 흐려져 있었고 마지막 파국에 이르기까지 사이사이 끊기면서도 그 상태가 이어졌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그때 여러 가지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이를테면 어떤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틀리게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어쨌든 뒷날 제 기억을 짜 맞추어 보려 했을 때 그는 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는 여러 사건을 뒤섞어 놓았고 제 상상 속에만 있던 사정을 들어 어떤 일들을 설명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때에는 병적인 불안의 고통에 사로잡혀 그것이 공포에까지 이르곤 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무감각의 순간들과 시간들을, 어쩌면 며칠씩을 기억하기도 했으니, 그것은 앞서의 공포에 대한 반동으로 찾아온 것이었고 죽어 가는 이에게서 이따금 보이는 비정상적인 무감각에 견줄 만한 것이었다. 대체로 이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제 처지를 온전하고 또렷하게 이해하는 일에서 달아나려 애쓰고 있는 듯했는데, 당장 생각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그에게는 유난히 성가셨다. 소홀히 했다가는 완전하고 피할 수 없는 파멸이 닥칠 몇몇 근심거리에서 놓여날 수만 있었다면 그는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가 유난히 마음을 쓴 것은 스비드리가일로프였으니, 그는 줄곧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도 좋았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죽던 순간 소냐의 방에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내뱉은, 지나치게 위협적이고 오해할 여지 없는 그 말이 있은 뒤로 그의 정신은 제대로 돌아가기를 그친 듯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사실이 그를 극도로 불안하게 했는데도 라스콜니코프는 그것을 밝히려 서두르지 않았다. 어떤 때에는 도시의 외지고 한적한 곳 어느 허름한 밥집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서는, 자기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도 거의 모르는 채로 있다가 문득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떠올렸다. 그러면 그는 저 사내와 당장 담판을 짓고 할 수 있는 한 조건을 맞추어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불쑥, 또렷이, 그리고 소스라치는 마음으로 깨닫곤 했다. 어느 날 성문 밖을 걷다가 그는 자기들이 바로 거기서 만나기로 해 두었다고, 자기가 스비드리가일로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정말로 여기기까지 했다. 또 한번은 동트기 전에 덤불 밑 땅바닥에 누운 채로 깨어나 처음에는 어떻게 거기 오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죽고 난 이삼 일 동안 그는 아무 목적도 없이 잠깐씩 들르곤 하던 소냐의 하숙에서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두 번 만났다. 둘은 몇 마디를 주고받았을 뿐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손끝도 대지 않았는데, 마치 당분간은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서로 말없이 합의라도 해 둔 듯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주검은 아직 관 속에 누워 있었고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장례 채비로 바빴다. 소냐도 몹시 바빴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니코프에게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아이들 일을 아주 만족스럽게 처리해 두었다고 알렸다. 어떤 연줄을 통해 몇몇 인사를 붙들 수 있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고아 셋을 당장 아주 알맞은 시설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

앞으로 떼어 준 돈이 큰 도움이 되었으니, 빈털터리 고아보다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고아를 맡기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소냐에 대해서도 무언가 말했고, 하루 이틀 안에 직접 라스콜니코프를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그와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야기해 두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야기는 층계참에서 오갔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니코프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잠깐 뜸을 들인 뒤 불쑥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로지온 로마노비치.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요? 보고 듣기는 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다만 내 일에 남의 일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군요. 아,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가 별안간 덧붙였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신선한 공기입니다, 신선한 공기…… 무엇보다도요!」

그는 층계를 올라오는 사제와 복사에게 길을 내주려고 옆으로 비켜섰다. 그들은 추도 예배[1]를 드리러 온 것이었는데,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분부로 그 예배는 하루에 두 번씩 어김없이 올려지고 있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제 갈 길을 갔고, 라스콜니코프는 잠시 선 채로 생각하다가 사제를 따라 소냐의 방으로 들어가 문가에 섰다. 사람들이 조용하고 느리고 구슬프게 예식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그에게는 죽음에 대한 생각과 죽음이 곁에 있다는 것에 짓누르는, 그리고 알 수 없이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추도 예배를 들어 본 지도 오래였다. 게다가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너무나 무섭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언가가 함께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모두 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폴레치카는 울고 있었으며, 그 뒤에서는 소냐가 기도를 올리며 나직이, 말하자면 겁먹은 듯이 울고 있었다.

「저 사람은 요 며칠 동안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라스콜니코프는 문득 생각했다. 햇빛이 방 안에 환했고 향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으며, 사제는 「 주여, 안식을 주소서…….」 하고 읽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사제는 축복을 내리고 물러가면서 이상한 눈으로 둘레를 돌아보았다. 예배가 끝난 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그의 두 손을 잡고 제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었는데, 이 짧은 몸짓이 라스콜니코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혐오의 기미도, 역겨움의 기미도, 손의 떨림도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으니, 그것은 자기를 버리는 일의 마지막 끝이었고 적어도 그는 그렇게 풀이했다.

소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나왔다. 그는 몹시 비참했다. 어딘가 외딴곳으로 달아날 수만 있었다면 평생을 거기서 보내야 한대도 제가 운이 좋다고 여겼을 것이나, 요즈음 거의 언제나 혼자 지냈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혼자라고 느낄 수가 없었다. 어떤 때에는 도시를 벗어나 한길로 걸어 나갔고 한번은 작은 숲에까지 이르기도 했으나, 인적이 드문 곳일수록 그는 가까이에 불안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더 뚜렷이 느끼는 듯했다. 그것이 그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으나 몹시 성가시게 했으므로 그는 서둘러 도시로 돌아와 사람들 틈에 섞이고 음식점과 술집에 들어가고 고물 시장으로, 건초 시장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고 오히려 더 홀로였으며, 어느 날 해질 무렵에는 한 시간이나 술집에 앉아 노랫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정말로 즐거웠다고 뒷날 기억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양심이 제 마음을 찌르기라도 한 듯 그 똑같은 불안을 다시 느꼈다. 「나는 여기 앉아 노래나 듣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가?」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만이 제 불안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느꼈으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할 무언가가

있었으나 그것은 그가 또렷이 이해할 수도 말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엉킴이었다. 「아니, 차라리 다시 싸움을! 차라리 다시 포르피리를…… 아니면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차라리 다시 도전을…… 공격을. 그래, 그래!」 그는 생각했다. 그는 술집을 나와 거의 뛰다시피 달아났고, 두냐와 어머니 생각에 별안간 공포에 가까운 상태에 빠졌다. 그날 밤 그는 아침이 오기도 전에 크레스톱스키 섬의 어느 덤불 속에서 열로 온몸을 떨며 깨어났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 이른 아침에야 겨우 다다랐다. 몇 시간 자고 나자 열은 내렸으나 그는 늦게, 오후 두 시에 깨어났다.

그는 그날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장례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냈고, 자기가 거기 가 있지 않다는 것이 기뻤다. 나스타시야가 먹을 것을 가져다주자 그는 입맛을 느끼며, 거의 게걸스럽게 먹고 마셨다. 머리가 한결 맑았고 지난 사흘 동안보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는 앞서 저를 덮쳤던 공포의 발작에 잠시 놀라워하기까지 했다.

문이 열리고 라주미힌이 들어왔다.

「아, 먹고 있구나. 그럼 아픈 건 아니지.」 라주미힌은 이렇게 말하고는 의자를 끌어다 라스콜니코프 맞은편 탁자에 앉았다.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것을 숨기려 들지도 않았으며, 뚜렷이 짜증을 내며 말했으나 서두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무언가 특별히 굳은 결심을 해 둔 사람처럼 보였다.

「들어 봐.」 그가 단호하게 말을 꺼냈다. 「나로 말하면 너희 다 지옥에나 가라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 분명한 건, 내가 이 일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캐물으러 왔다고는 생각하지 마. 알고 싶지 않아, 젠장! 네가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한대도 나는 아마 끝까지 듣고 있지 않고 욕을 하며 나가 버릴 거다. 내가 온 건 오직 한 가지, 네가

정말로 미쳤는가를 단번에 확인하려는 거야. 네가 미쳤거나 그에 가깝다는 생각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어. 솔직히 나도 그 생각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네 어리석고 역겹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로 보나 요새 어머니와 누이를 대한 태도로 보나 말이야. 그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건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괴물이나 비열한 놈뿐이야. 그러니 너는 미친 게 틀림없지.」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방금. 그 뒤로 너는 못 봤지? 그동안 대체 뭘 하고 다닌 거야? 말 좀 해 봐. 나는 벌써 세 번이나 너를 찾아왔다. 어머니는 어제부터 몹시 편찮으신데, 너한테 오겠다고 마음을 굳히셨고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말렸지만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지. 『그 애가 아프다면, 그 애 정신이 놓여 가고 있다면, 어미만큼 그 애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다 같이 여기 왔다.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 우리는 계속 진정하시라고 빌었지만, 들어와 보니 너는 없었어. 어머니는 앉으셨고 십 분을 그대로 계셨고 우리는 말없이 서서 기다렸는데, 어머니는 일어나서 말씀하셨어. 『그 애가 나갔다면, 다시 말해 몸이 성해서 제 어미를 잊었다면, 어미가 제 아들 문간에 서서 동냥처럼 다정함을 구걸하는 것은 욕되고 꼴사나운 일이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 자리에 누우셨고 지금은 열이 있으셔. 『알겠다. 그 애한테는 제 계집을 만날 틈은 있는 게로구나.』 하고 말씀하시더군. 네 계집이란 소피야 세묘노브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야. 네 약혼자인지 정부인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곧장 소피야 세묘노브나한테 갔고, 둘러보니 관이 있고 아이들이 울고 있고 소피야 세묘노브나가 아이들에게 상복을 입혀 보고 있더군. 네 그림자도 없었어. 나는 사과하고 물러 나와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에게 알렸다. 그러니 그건 다 헛소리이고 너한테 계집 같은

건 없으니, 가장 그럴듯한 건 네가 미쳤다는 거지. 그런데 너는 여기 앉아서 사흘은 굶은 사람처럼 삶은 쇠고기를 게걸스럽게 먹고 있구나, 하기야 그 점으로 말하면 미치광이도 먹기는 하지만. 하지만 너는 아직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미치지 않았어! 그건 내가 맹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너는 미치지 않았어! 그러니 너희 다 지옥에나 가라지. 거기엔 무슨 수수께끼가, 무슨 비밀이 있는 거고 나는 네 비밀 때문에 머리를 썩일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저 너한테 욕이나 한바탕 하러 온 거다.」 그는 일어서며 말을 맺었다. 「속이 좀 풀리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는 알겠어.」

「이제 뭘 할 셈인데?」

「내가 뭘 하려는지가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한바탕 마실 셈이군.」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뻔하잖아.」

라주미힌은 잠깐 말이 없었다.

「너는 언제나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한 번도 미친 적이 없었어, 한 번도.」 그가 문득 따뜻하게 말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마실 거야. 잘 있어!」

그러고는 나가려고 몸을 돌렸다.

「 누이하고 — 그저께였던 것 같은데 — 네 이야기를 했다, 라주미힌.」

「나하고! 그런데…… 그저께 어디서 누이를 볼 수 있었다는 거야?」 라주미힌은 우뚝 멈춰 섰고 얼굴빛이 조금 창백해지기까지 했다.

그의 심장이 느리고 세차게 뛰고 있는 것이 보였다.

「누이가 혼자 여기 와서 저기 앉아 나하고 이야기했어.」

「누이가 그랬다고!」

「그래.」

「누이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 말이야.」

「너는 아주 착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했지. 네가 누이를 사랑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그건 누이가 스스로 아니까.」

「누이가 스스로 안다고?」

「뻔하잖아. 내가 어디로 가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너는 남아서 그들을 돌볼 테니까. 나는, 말하자면, 그들을 네 손에 맡긴다, 라주미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네가 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고 또 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야. 누이도 너를 사랑할 수 있고 어쩌면 이미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제 네가 스스로 정해, 네가 제일 잘 아니까, 한바탕 마시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로쟈! 이봐…… 그래……. 아, 젠장! 그런데 너는 어디로 갈 셈인데? 물론 그게 다 비밀이라면 됐어……. 하지만 나는…… 나는 그 비밀을 알아낼 거야…… 그리고 그게 무슨 우스꽝스러운 헛소리이고 네가 다 지어낸 거라고 확신한다. 아무튼 너는 훌륭한 녀석이야, 훌륭한 녀석이고말고!……」

「내가 덧붙이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야. 네가 끼어드는 바람에 못 했지만, 그 비밀을 알아내지 않겠다는 건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시간에 맡겨 두고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사람에게 필요한 건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라더군.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보러 지금 바로 그 사람한테 갈 참이야.」

라주미힌은 생각에 잠긴 채, 흥분한 채 서서 말없이 결론을 내렸다.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한 거다! 틀림없어. 그리고 무슨 결정적인 일을 저지르기 직전이야, 그건 확실해.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리고 두냐가 알고 있구나.」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너를 보러 온다.」 그는 한 음절 한 음절 무게를 달듯 말했다. 「그리고 너는 공기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내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물론 그 편지도…… 그것도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는 혼잣말로 결론을 내렸다.

「무슨 편지?」

「누이가 오늘 편지를 받았어. 그게 누이를 몹시 흔들어 놓았지 — 정말 몹시. 너무 심하게. 내가 네 이야기를 꺼내니까 누이는 그만두라고 하더군. 그러더니…… 그러더니 어쩌면 우리가 아주 곧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러고는 무엇 때문인지 나한테 따뜻하게 고맙다고 하기 시작하더니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다.」

「누이가 편지를 받았다고?」 라스콜니코프가 생각에 잠겨 물었다.

「그래, 너는 몰랐어? 흠……」

둘 다 말이 없었다.

「잘 있어, 로지온. 이 사람아, 한때 나는……. 됐다, 잘 있어. 알다시피, 한때는……. 자, 잘 있어! 나도 가 봐야겠다. 나는 마시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다 부질없는 소리지!」

그는 서둘러 나갔으나, 문을 거의 닫았다가 별안간 다시 열고는 눈길을 돌린 채 말했다.

「아 참, 그 살인 사건 기억나? 알잖아, 포르피리가 맡은 그 노파 말이야. 살인자가 잡혔대. 자백했고 증거도 내놓았다는군. 바로 그 직공들 가운데 하나야, 그 도장공 말이다, 생각 좀 해 봐! 내가 여기서 그들을 변호했던 거 기억나? 믿어지나? 문지기와 증인 둘이 층계를 올라오는 동안 거기서 동료와 드잡이하며 웃고 떠들던 그 장면 전부가,

의심을 돌리려고 일부러 꾸민 짓이었다는 거야. 그런 애송이한테 그런 교활함, 그런 침착함이 있다니! 좀처럼 믿기 어렵지만 제 입으로 그렇게 밝혔고 다 자백했어. 그리고 나는 그 일로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하긴, 그자는 예심판사들의 의심을 돌리는 데서는 위선과 임기응변의 천재니까 — 그러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겠지! 물론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든 있을 수 있는 법이고, 그자가 끝까지 그 노릇을 해내지 못하고 자백해 버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믿기 쉽게 만들지. 그런데 나는 얼마나 바보였던지! 나는 그들 편에서 펄펄 뛰었으니!」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말해 줘. 그리고 그게 왜 너한테 그렇게 흥미로운 거지?」 라스콜니코프가 누가 보아도 알 만큼 동요하며 물었다.

「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게 왜 나한테 흥미롭냐고 나한테 묻다니!…… 그야 여러 사람한테 들었지만 그중에 포르피리도 있었지…… 거의 다 그 친구한테서 들었어.」

「포르피리한테서?」

「포르피리한테서.」

「그가…… 그가 뭐라고 했어?」 라스콜니코프가 소스라치며 물었다.

「아주 훌륭하게 설명해 주더군. 심리학적으로, 제 방식대로.」

「그가 설명했다고? 자기가 직접 설명했어?」

「그래, 그래. 잘 있어. 다음에 다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바빠서. 한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됐다, 다음에!…… 이제 내가 마실 일이 뭐가 있겠어? 너는 술도 없이 나를 취하게 만들었어. 나는 취했다, 로쟈! 잘 있어, 나는 간다. 아주 곧 다시 올게.」

그는 나갔다.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한 거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라주미힌은 천천히 층계를 내려가며 결론을 내렸다. 「 그리고 제 누이를

끌어들였어. 그건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의 성격에 아주, 아주 어울리는 일이지. 둘이 만나고 있었던 거야!…… 누이도 그런 낌새를 비쳤고……. 누이가 한 그 많은 말들이…… 그 암시들이…… 다 그런 뜻이었어! 그러지 않고서야 이 엉킴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흠! 그런데 나는 하마터면…… 맙소사,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가! 그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저 친구한테 못할 짓을 했어! 그날 복도의 램프 밑에서 저 친구가 그랬던 거지. 푸! 내 쪽에서 무슨 그런 거칠고 더럽고 비열한 생각을 했단 말인가! 니콜라이는 훌륭한 사람이야, 자백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 얼마나 분명해졌는가! 그때의 그 병, 그 이상한 행동들…… 그전에도, 대학에서, 얼마나 시무룩했던가, 얼마나 침울했던가……. 그런데 그 편지는 이제 무슨 뜻이지? 거기에도 무언가 있을지 모른다. 누구한테서 온 거지? 내 짐작으로는……! 아니, 알아내야겠다!」

그는 두냐를 떠올렸고 제가 들은 모든 것을 깨달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그러고는 별안간 달리기 시작했다.

라주미힌이 나가자마자 라스콜니코프는 일어나 창문 쪽으로 돌아섰다가 한쪽 구석으로 갔다가 다시 다른 구석으로 갔는데, 제 방이 얼마나 작은지도 잊은 듯했고, 그러다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는, 말하자면, 새로워진 느낌이었다. 다시 싸움이다, 그러니 빠져나갈 길이 온 것이다.

「그렇다, 빠져나갈 길이 왔다! 너무 숨 막혔고 너무 비좁았고 짐이 너무 괴로웠으며, 어떤 때에는 무기력이 그를 덮쳤다. 포르피리의 집에서 니콜라이와 벌어진 그 장면 이후로 그는 숨이 막혔고 빠져나갈 희망도 없이 갇혀 있었는데, 니콜라이가 자백한 바로 그날 소냐와의 장면이 있었다. 그때 제가 한 행동과 제 마지막 말들은 미리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것과도 전혀 달랐다. 그는 순식간에, 뿌리까지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소냐의 말에 동의했고, 이런 것을 마음에 담은 채 혼자서는 더 살아갈 수 없다는 데 마음속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수수께끼였다…… 그가 그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어쩐지 같은 점에서는 아니었고, 스비드리가일로프와는 아직 싸움이 남아 있을지도 몰랐다. 스비드리가일로프 또한 빠져나갈 길일 수 있었으나, 포르피리는 다른 문제였다.」

「그러니까 포르피리가 직접 라주미힌에게 설명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했다. 그가 또 그 빌어먹을 심리학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포르피리가? 그러나 니콜라이가 나타나기 전에 둘 사이에 오간 일이 있은 뒤에, 오직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 단둘의 면담이 있은 뒤에, 포르피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니콜라이가 범인이라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무렵 라스콜니코프는 포르피리와의 그 장면의 대목들을 자주 떠올렸으나 거기에 생각을 붙들어 두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둘 사이에 그런 말들이, 그런 몸짓들이 오갔고, 그런 눈길을 주고받았고, 그런 어조로 이야기되었고, 일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첫마디에 첫 몸짓에 포르피리가 꿰뚫어 본 니콜라이가 그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라주미힌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니! 그날 복도의 램프 밑 장면이 그때 효력을 낸 것이고, 그리하여 그는 포르피리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저자가 라주미힌을 그렇게 속이기 시작했을까? 라주미힌을 니콜라이로 따돌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무슨 계획이 있는 게 틀림없었고 무슨 속셈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날 아침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사실이었다 — 너무 오랜 시간이. 그런데도 포르피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래, 그것은 나쁜 징조였다…….」

라스콜니코프는 모자를 집어 들고 여전히 생각에 잠긴 채 방을 나섰는데, 적어도 머리가 맑다고 느낀 것은 오랜만이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정리해야 한다.」 그는 생각했다. 「되도록 빨리. 저자도 내가 제 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지친 가슴에 어찌나 증오가 치밀었는지 그는 그 둘 가운데 누구라도 — 포르피리든 스비드리가일로프든 —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는 혼잣말로 되뇌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그는 복도에서 바로 그 포르피리와 맞닥뜨렸으니, 그가 그를 보러 오는 길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잠깐 어안이 벙벙했으나 그것도 잠깐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포르피리를 보고 그리 놀라지 않았고 그가 거의 두렵지도 않았으며, 그저 흠칫했을 뿐 곧바로, 그 자리에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어쩌면 이것이 끝을 뜻하는 걸까? 그런데 포르피리가 어떻게 고양이처럼 조용히 다가와서 내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까? 문에서 엿듣고 있었던 걸까?」

「손님이 올 줄은 모르셨겠지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포르피리가 웃으며 외쳤다. 「오래전부터 들러 볼 생각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오 분쯤 들르지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지요. 나가시는 길입니까? 오래 붙들지는 않겠습니다. 담배나 한 대 피우게 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앉으십시오.」 라스콜니코프는 손님에게 자리를 내주었는데, 그때 그 표정이 어찌나 반갑고 다정했던지 만일 제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면 스스로도 놀랐을 것이다.

마지막 남은 찌꺼기, 바닥의 앙금까지 긁어모으고 있었다! 그렇게 사람은 때로 강도와 함께 반 시간 동안 죽을 듯한 공포를 겪다가도, 마침내 칼이 제 목에 닿는 순간에 이르면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법이다.

라스콜니코프는 포르피리를 똑바로 마주 보고 앉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고, 포르피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담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말해라, 말해라.」 라스콜니코프의 가슴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자, 왜 말하지 않는가?」

---

1. 추도 예배 — 정교회에서 죽은 이를 위해 드리는 기도 예식(파니히다). 장례를 치르기까지 주검 곁에서 되풀이해 올린다.

6부 2장

「아, 이 담배!」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마침내 한 대에 불을 붙이고 숨을 돌린 뒤 입을 열었다. 「해롭습니다, 정말로 해롭지요. 그런데도 끊지를 못합니다! 기침이 나고 목이 간질거리기 시작하고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겁쟁이라서 얼마 전에 B——n 선생한테 가 보았는데, 그 양반은 환자 하나에 적어도 반 시간은 들이는 분입니다. 저를 보더니 정말로 웃더군요. 그러고는 청진을 해 보고 나서 『그런데 담배가 당신한테 맞지 않습니다, 폐가 늘어나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 자리를 무엇으로 메우겠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니 그게 탈이지요, 헤헤헤, 마시지를 않으니.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또 제 직업적인 수작을 부리는구나.」 라스콜니코프는 역겨워하며 생각했다. 지난번 면담의 온갖 정황이 문득 되살아났고, 그는 그때 저를 덮쳤던 그 감정이 다시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 그저께 저녁에 댁을 찾아왔었는데, 모르셨지요? 」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 바로 이 방에 들어왔었습니다. 오늘처럼 지나가는 길이었고 답방을 하자고 생각했던 것인데, 문이 활짝 열려 있기에 들어와서 둘러보고 기다리다가 하녀에게 이름도 남기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으십니까?」

라스콜니코프의 얼굴이 점점 더 침울해졌다. 포르피리는 그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챈 듯했다.

「 털어놓고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 친구! 저는 당신에게 설명할 빚이 있고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라스콜니코프의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순간에 진지하고 근심 어린 빛이 그 얼굴에 떠올랐고, 놀랍게도 라스콜니코프는 거기서 슬픔의 기미를 보았다. 그는 그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본 적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짐작한 적도 없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우리 사이에 이상한 장면이 오갔지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우리의 첫 면담도 이상했고요. 하지만 그때는…… 자, 이제는 다 하나로 맞물렸지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제가 당신에게 크게 잘못한 셈이 되었고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신경이 곤두서고 무릎이 떨리고 있었으며, 저도 신경이 곤두서고 무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의 처신은 꼴사나웠고 신사답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우리는 신사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신사이니, 그 점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온당치 못했습니다.」

「 저자가 무슨 속셈이지? 나를 뭐로 보는 거지?」 라스콜니코프는 깜짝 놀라 스스로에게 물으며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뜬 채 포르피리를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에는 솔직한 편이 낫겠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고개를 조금 뒤로 젖히고 눈을 내리깐 채 말을 이었는데, 마치 예전의 제 먹잇감을 더는 제 시선으로 당황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듯, 그리고 예전의 제 술수를 스스로 업신여긴다는 듯했다.

「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이며 그런 장면은 오래 이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니콜라이가 그것을 끝내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빌어먹을 소시민 녀석이 그때 제 칸막이 뒤에 줄곧 앉아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그것은 이미 아시겠고, 그자가 그 뒤에 당신을 찾아갔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이 짐작하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런 채비도 해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느냐고 물으시겠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때는 저 자신도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던 겁니다. 문지기를 부르라고 겨우 일러 둔 것이 고작이었지요(나가시면서 보셨을 줄 압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오직 하나가 번개처럼 빠르게 제 머리를 스쳤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저는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자, 하고 저는 생각했지요 — 한 가지를 잠시 놓치더라도 다른 것을 붙잡게 될 테고,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것을 잃지는 않으리라고. 당신은 천성이 몹시 신경이 날카로운 분입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지나칠 정도로요. 당신의 성격과 마음의 다른 기본 자질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자질들은 제가 어느 만큼 알아보았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저는 그때도,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제 이야기를 죄다 불쑥 털어놓는 일이 늘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인내의 끝까지 몰아붙이면 그런 일이 이따금 일어나기는 하지요, 그래도 드문 일입니다만. 저도 그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꼬투리 하나만 있으면,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꼬투리라도, 단 하나라도, 다만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것, 물건이라 할 만한 것, 한낱 심리가 아닌 무언가가 있으면 하고요. 사람이 죄가 있다면 그에게서 무언가 실체 있는 것을 얻어 낼 수 있어야 하는 법이고, 아주 뜻밖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당신의 기질을 믿고 있었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무엇보다도 당신의 기질을요! 그때 저는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당신은…… 대체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마침내 중얼거렸는데, 생각도 하지 않고 던진 물음이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는 얼떨떨해하며 의아해했다. 「정말로 나를 결백하다고 여기는 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고요? 저는 제 자신을 해명하러 왔고 그것을, 말하자면, 신성한 의무로 여기며, 이 모든 일이, 그때의 그, 말하자면, 정신이 흐려졌던 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당신에게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많은 괴로움을 안겼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저는 괴물이 아니며, 짓눌려 있으면서도 자존심이 높고 위압적이며 무엇보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그런 대우를 견뎌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압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더없이 고결한 사람으로, 아량의 싹까지 지닌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의 신념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솔직하고 아주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무엇보다 저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당신에게 끌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웃으실지도 모르겠고 그러실 권리도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좋아할 까닭이야 정말이지 없지요.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인상을 지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고, 제가 마음과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점잖게 말을 멈추자 라스콜니코프는 어떤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으니, 포르피리가 저를 결백하다고

여긴다는 생각이 별안간 그를 두렵게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낱낱이 다 되짚을 필요는 거의 없겠지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저로서는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우선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소문이었고 누구에게서, 언제 나왔는지…… 그리고 대체 어떤 연유로 당신에게까지 일이 미쳤는지도 역시 군더더기라고 봅니다. 제 의심이 깨어난 것은 순전한 우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고요? 흠! 그것도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소문과 그 우연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터놓고 인정하지요 — 이왕 다 털어놓는 김에 — 당신을 처음으로 찍은 것은 저였습니다. 노파가 물건에 적어 둔 표시며 그 밖의 것들, 그런 건 다 허튼소리입니다. 그런 것이야 백 개라도 꼽을 수 있지요. 또 저는 그때 경찰서에서 있었던 그 장면을 낱낱이 알게 될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도 우연이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남다르고 대단한 이야기꾼한테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 장면을 눈앞에 생생히 되살려 놓더군요. 하나가 또 하나를 불렀던 겁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 친구! 제가 어떻게 어떤 생각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토끼 백 마리로 말 한 마리를 만들 수 없고 의심 백 개로 증거 하나를 만들 수 없다고 영국 속담이 말한다지만, 그건 분별의 말일 뿐이고, 정념이라는 것, 그 정념을 어디 한번 다스려 보십시오. 예심판사도 결국은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잡지에 실린 당신 논문도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저는 당신을 비웃었습니다만, 그건 당신을 끌어내려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당신은 병들었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당신이 대담하고 오만하고 진지하며…… 많은 것을 느껴 왔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에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같은 것을 느껴 보았기에 당신 논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잠 못 이루는 밤에 광기 어린 흥분 속에서, 부풀어 오르며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억눌린 열정과 함께 잉태된 것이지요. 그리고 젊은이의 그 오만하고 억눌린 열정은 위험합니다! 그때 저는 당신을 비웃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드려야겠군요. 저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그런 첫 습작을 지독히도 좋아합니다. 연기가 있고 안개가 있고, 그 안개 속에서 현이 울립니다. 당신 논문은 터무니없고 공상적입니다만 거기에는 언뜻언뜻 비치는 진실함이, 젊은이의 굽힐 줄 모르는 자존심이, 절망의 대담함이 있고, 음울한 논문입니다만 바로 그 점이 훌륭합니다. 저는 당신 논문을 읽고 한쪽에 치워 두면서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 사람하고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구나!』 자, 그런 서두가 있었으니, 그다음에 일어난 일에 제가 어떻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 저런, 저는 아무것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그때 그것을 눈여겨 두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어쩌면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예심판사가 그런 착상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제 손에는 니콜라이가 있고 그를 겨눈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 그것을 어떻게 보시든 좋습니다만 그것은 증거입니다. 그자도 자기 심리를 들이밀고요, 그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아시고, 당신의 지성과 마음으로 그때 제가 심술궂게 군 것을 나무라지 않으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건 심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헤헤! 제가 그때 댁을 수색하러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왔습니다, 왔고말고요, 헤헤! 당신이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저는 여기 있었으니, 공식적으로도 아니고 제 이름으로도 아니었지만

여기 있었습니다. 첫 의심이 들었을 때 댁은 실오라기 하나까지 수색당했습니다. 그런데 umsonst[1]였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올 것이다, 제 발로, 그것도 곧 올 것이다, 죄가 있다면 반드시 온다, 다른 사람은 오지 않겠지만 저 사람은 온다고요. 그리고 라주미힌 씨가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것을 꾸몄고 그가 그 사건을 당신과 이야기하도록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으니, 라주미힌은 자기 분개를 눌러 둘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묘토프 씨는 당신의 분노와 그 드러내 놓은 대담함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음식점에서 『내가 죽였다!』고 불쑥 내뱉다니요, 너무 대담했고 너무 무모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저 사람이 죄가 있다면 만만찮은 적수가 되겠구나 하고요. 그때 제 생각이 그랬고,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묘토프를 그냥 쓰러뜨려 버렸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 그 빌어먹을 심리라는 것은 양쪽으로 다 읽힌다는 것 말입니다! 자, 저는 계속 당신을 기다리며 지켜보았는데, 하느님이 보내 주셨는지 당신이 오시더군요! 제 심장이 정말로 두근거렸지요. 아!」

「 그런데 왜 오셔야 했을까요? 들어오면서 웃으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유리를 통해 보듯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만, 그렇게 각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웃음에서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지요! 그때 라주미힌 씨가 — 아, 그 돌, 물건들을 숨겨 둔 그 돌 말입니다! 어느 채마밭에 있는 것이 보이는 듯하군요, 채마밭이라고 자묘토프에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제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되풀이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 논문을 뜯어보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던가요! 당신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두

가지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다른 뜻이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로지온 로마노비치, 저는 끝까지 가 보았고, 기둥에 머리를 부딪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하고 저는 말했지요,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것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편이 더 자연스럽기까지 하다고요. 고문이었습니다! 『 아니, 차라리 꼬투리 하나가 있었으면!…… 』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인종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을 죽였고 온몸이 떨렸으며, 『여기 바로 그 꼬투리가 있다! 이거다!』 하고 저는 생각했고 곰곰이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따져 보려 하지도 않았지요. 그 소시민 녀석이 당신 면전에 대고 『살인자』라고 한 뒤에 당신이 백 걸음을 그와 나란히 걸으면서 내내 감히 한마디도 묻지 못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저는 그 순간 제 돈으로 천 루블이라도 내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등골의 그 오싹함은, 병중에 반쯤 헛소리를 하면서 초인종을 울린 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로지온 로마노비치, 제가 당신에게 그런 장난을 친 것이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하필 그 순간에 오게 했을까요, 누가 등을 떠밀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맹세코! 그리고 니콜라이가 우리를 갈라놓지 않았더라면…… 그때의 니콜라이를 기억하십니까? 또렷이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벼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벼락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그를 어떻게 맞았습니까! 저는 그 벼락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요. 당신도 보셨겠지요,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도, 당신이 가고 나서 그자가 몇 가지 점에 대해 아주, 아주 그럴듯하게 대답하기 시작해서 저 스스로도 놀랐을 때에도, 그때에도 저는 그자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게 이런 것이지요! 아니,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Morgenfrüh[2]. 니콜라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방금 라주미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도 니콜라이를 범인으로 보고 라주미힌에게 직접 그렇게 장담하기까지 했다던데요…….」

숨이 막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동요 속에서, 제 속을 낱낱이 꿰뚫어 보았던 이 사내가 제 말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것을 믿기가 두려웠고 믿지도 않았으며, 아직 애매한 그 말들 속에서 더 분명하고 결정적인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라주미힌 씨라!」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라스콜니코프가 물음을 던진 것이 반가운 듯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소리쳤다. 「헤헤헤! 하지만 라주미힌 씨는 따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면 동무요 셋이면 남이니까요. 라주미힌 씨는 알맞은 사람이 아니고, 게다가 바깥사람입니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달려왔지요……. 하지만 그 사람 이야기는 그만두지요, 왜 그를 끌어들이겠습니까? 니콜라이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가 어떤 부류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우선 그는 아직 미성년인 아이이고, 딱히 겁쟁이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예술가 같은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를 그렇게 묘사한다고 웃지 마십시오. 그는 순진하고 남의 영향을 잘 받으며, 마음이 있고 공상이 많은 친구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러 다른 마을에서까지 온다더군요. 학교에도 다니고 손가락 하나만 세워 보여도 눈물이 나도록 웃으며, 곤드레만드레가 되도록 마시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버릇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따금, 남이 사 줄 때에, 아이처럼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훔친 것도 제 딴에는 훔친 줄도 몰랐지요, 『떨어진 것을 주운 것이 어떻게 훔친 것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교도 출신이라는 것을, 아니 구교도라기보다 그냥 분파 신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집안에는 방랑파[3]가 있었고, 그 자신도 얼마 전까지 꼬박 두 해 동안 자기 마을에서 어떤 장로의 영적인 지도를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을 저는 니콜라이한테서 그리고 그의 자라이스크 동향 사람들한테서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그는 황야로 달아나고 싶어 했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옛 책들을, 『참된』 책들을 읽고 또 읽으며 거기에 푹 빠졌지요.」

「페테르부르크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여자와 술이요. 그는 무엇에나 반응하는 사람이라 장로도 그 모든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어떤 화가가 그를 마음에 들어 해서 찾아다니곤 했다는데, 그러다 이번 일이 그에게 닥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겁을 먹고 목을 매려 했습니다! 달아났고요! 러시아의 재판이라는 것에 대해 민중이 품은 생각을 어떻게 이겨 낼 수 있겠습니까, 『재판에 걸어 죄인으로 만든다』는 말만 들어도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새로 생긴 법정들이 뭐라고 할지 두고 볼 일이지요. 부디 좋은 일을 하기를! 자, 감옥에서 그는 그 거룩한 장로를 떠올린 모양이고 성경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십니까,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고난』이라는 말이 지닌 힘을!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관헌의 손에 고난을 받는다면 더욱 좋고요. 제가 일하던 때에 아주 온순하고 순한 죄수가 하나 있었는데, 감옥에서 꼬박 한 해를 밤마다 페치카 위에서 성경을 읽다가 머리가 돌아 버렸습니다. 어찌나 돌아 버렸는지, 어느 날 아무 까닭도 없이 벽돌을 집어 소장에게 던졌습니다, 소장이 그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던진 꼴이라니, 다치게 할까 두려워 일부러 한 아르신(약 71센티미터)쯤 옆으로 겨누었는데, 무기를 들고 관리를 친

죄수가 어떻게 되는지야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니콜라이가 『고난을 받고』 싶어 하거나 그 비슷한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사실 여러 사실로 보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제가 안다는 것을 모르지요. 뭐라고요, 농사꾼들 가운데 그런 공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숱합니다. 그 장로가 이제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목을 매려 한 뒤로요. 하지만 그는 제 발로 와서 제게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가 버틸 것 같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는 자기 말을 거두어들일 것이고, 저는 그가 와서 자기 진술을 물릴 것을 시시각각 기다리며 그 니콜라이를 좋아하게 되어 그를 낱낱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헤헤! 그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제게 아주 그럴듯하게 대답했는데, 분명히 필요한 정보를 얻어 두었고 영리하게 채비를 해 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점들에 대해서는 그저 갈피를 못 잡고 아무것도 모르며,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 짐작하지 못합니다!」

「 아닙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니콜라이는 아닙니다! 이것은 공상적이고 음울한 사건이며,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운 오늘의 사건, 피가 『새롭게 한다』는 말이 인용되고 안락이 삶의 목적으로 설교되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책에서 온 꿈이 있고 이론으로 들쑤셔진 마음이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첫걸음을 내딛는 결단을 봅니다만,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결단입니다. 그는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듯, 종탑에서 뛰어내리듯 그것을 하기로 결단했고, 범죄를 저지르러 갈 때도 마치 제 다리가 아닌 다리로 걸어간 듯했습니다. 그는 뒤에 문 닫는 것을 잊었고 이론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을 죽였으며, 살인을 저지르고도 돈을 가져가지 못했고 그나마 움켜쥔 것은 돌 밑에 감추었습니다. 문 뒤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울리는 동안 겪은 그 고통만으로는 모자랐는지, 그는 반쯤 헛소리를 하면서 빈집을 찾아가 그 초인종 소리를 되살리려 했고 등골의 그 오싹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 했지요……. 자, 그것은 병 때문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살인자이면서 스스로를 정직한 사람으로 여기고 남들을 업신여기며 창백한 천사처럼 돌아다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니콜라이가 할 짓이 아닙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 친구!」

앞서 한 말들이 하나같이 제 말을 거두어들이는 것처럼 들렸던 터라 이 마지막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칼에 찔린 듯 몸을 떨었다.

「그러면…… 그러면 누가…… 누가 살인자입니까?」 그가 숨 막히는 목소리로, 참지 못하고 물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그 물음에 놀라기라도 한 듯 의자 등받이 쪽으로 흠칫 몸을 젖혔다.

「누가 살인자냐고요?」 그는 제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되풀이했다. 「그야 당신이지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진심으로 확신하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라스콜니코프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몇 초 동안 서 있다가 한마디도 없이 다시 앉았다. 그의 얼굴이 경련하듯 씰룩거렸다.

「 입술이 전처럼 떨리는군요. 」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거의 안쓰러워하듯 말했다.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 그가 잠깐 뜸을 들인 뒤 덧붙였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시는 거지요,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터놓고 대하려고 일부러 온 겁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라스콜니코프는 현장에서 붙들린 겁먹은 아이처럼 속삭였다.

「아니요, 당신입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당신이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포르피리가 엄하게, 확신에 차서 속삭였다.

둘 다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이상하리만큼 오래, 십 분쯤 이어지는 동안 라스콜니코프는 의자에 팔꿈치를 괴고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고,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별안간 라스콜니코프가 경멸하는 눈으로 포르피리를 바라보았다.

「또 그 낡은 수작이군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또 그 낡은 수법입니다. 지겹지도 않습니까!」

「아, 그만두십시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증인이 있는 자리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단둘이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토끼처럼 당신을 쫓아 붙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백하든 않든 이제 제게는 아무래도 좋으니, 저로서는 그것 없이도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라스콜니코프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같은 물음을 다시 드리지요. 저를 유죄로 여기신다면 왜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아, 그 물음이군요! 하나하나 답해 드리지요. 첫째로, 당신을 그렇게 곧바로 붙잡아 가는 것은 제게 이롭지 않습니다.」

「어째서요? 확신하신다면 마땅히…….」

「아, 제가 확신한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장은 제 꿈일 뿐입니다. 제가 왜 당신을 그곳에 편히 쉬시라고 넣어 드려야 합니까, 그러라고 제게 청하시는 걸 보니 아시는군요. 이를테면 제가 당신을 그 소시민 녀석과 대질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겠지요. 『자네 취해 있었나, 안 취해 있었나? 누가 나를 자네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나? 나는 자네를 그저 취한 사람으로 여겼고, 실제로 자네는 취해 있었지.』 자,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게다가 당신 이야기가 그자의

이야기보다 더 그럴듯한데요? 그자의 진술을 받쳐 주는 것이라고는 심리뿐이고 — 그 흉한 낯짝으로는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 노릇입니다 — 반면에 당신은 정확히 과녁을 맞히지요. 그 악당은 이름난 주정뱅이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이 이미 여러 번 솔직히 인정했듯이 그 심리라는 것은 양쪽으로 읽히고, 두 번째 쪽이 더 강하고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며, 그것 말고는 당신을 겨눌 것이 제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감옥에 넣을 것이고 게다가 예법에 아주 어긋나게도 그것을 미리 알려 드리러 왔습니다만,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 또한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제게 이롭지는 않습니다. 자, 둘째로 제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그래요, 그래서 둘째는요?」 라스콜니코프는 아직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신에게 설명할 빚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괴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데, 믿으시든 말든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셋째로 저는 당신에게 곧바르고 터놓은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 자수하고 자백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비길 데 없이 이롭고 제게도 이로운 것이, 어깨의 짐을 벗게 될 테니까요. 자, 이만하면 제 쪽에서 터놓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스콜니코프는 잠깐 생각했다.

「 들어 보십시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당신은 조금 전에 기댈 것이라고는 심리뿐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수학을 들고 나오셨군요. 자, 당신 자신이 틀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그런 꼬투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꼬투리를 그때 이미 찾아냈지요, 주님이 보내 주신 겁니다!」

「무슨 꼬투리 말입니까?」

「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리고 어쨌든 저는 더 미룰 권리가 없으니 당신을 가두겠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는 이제 아무 차이도 없고, 그러니 이것은 오로지 당신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맹세코 그편이 나을 겁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가 악의에 차서 웃었다.

「 그건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정말이지 뻔뻔합니다. 설령 제가 유죄라 해도 —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 제가 그곳에 들어가 편히 쉬게 될 거라고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엇 하러 자백하겠습니까?」

「 아, 로지온 로마노비치, 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감옥이 그리 편안한 곳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 그나마 제 이론인데 제가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되겠으며, 게다가 지금도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일 수는 없습니다, 헤헤! 그리고 무슨 이로움이냐고 어떻게 물으십니까? 그것이 형을 얼마나 덜어 줄지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자기 몸에 뒤집어써서 사건 전체를 흐려 놓은 이 마당에 자백하시는 것이 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앞에 맹세하건대 저는 당신의 자백이 완전히 뜻밖의 일로 보이도록 손을 써 드리겠습니다. 그 심리적인 대목들이며 당신에 대한 의심이며 하는 것을 죄다 쓸어 내어, 당신의 범죄가 일종의 착란처럼 보이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착란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리고 제 말을 지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침울하게 잠자코 고개를 떨구었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다시 웃었으나, 그 웃음은 슬프고 부드러웠다.

「아니요!」 그는 포르피리 앞에서 겉을 꾸미려는 노력을 죄다 버린 듯이 말했다.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저는 형이 덜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바로 그것이 제가 두려워하던 겁니다!」 포르피리가 뜨겁게, 그리고 보아하니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바로 그것이 제가 걱정하던 겁니다, 당신이 감형 따위에는 마음을 쓰지 않으리라는 것 말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슬프고도 많은 것을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 삶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포르피리가 말을 이었다. 「당신 앞에는 아직 삶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감형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참을성이 없는 분이군요!」

「제 앞에 무엇이 많이 남았다고요?」

「삶이요. 당신이 무슨 예언자라고 그렇게 많이 아십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어쩌면 하느님께서 바로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슬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감형도 있을 테고요…….」 라스콜니코프가 웃었다.

「어째서요, 소시민적인 수치가 두려우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 모르는 채 그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젊으시니까요! 그렇더라도 자수하고 자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에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역겨움과 경멸을 담아, 소리 내어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속삭였다.

그는 가려는 듯 다시 일어섰으나 눈에 띄게 절망한 채 다시 앉았다.

「 아무래도 좋다니,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믿음을 잃었고 제가 당신에게 낯간지러운 아첨을 하고 있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 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이론 하나를 지어냈다가 그것이 무너지고 조금도 독창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부끄러워했습니다! 비열한 것이 되고 말았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구제할 길 없이 비열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까지 비열하지 않아요! 적어도 당신은 오래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고 단숨에 맨 끝까지 갔습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저는 당신을, 믿음이든 하느님이든 찾아내기만 한다면 고문하는 자가 그들의 창자를 끄집어내는 동안에도 서서 미소 지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오래전부터 공기를 바꾸는 일이 필요했고, 고난도 좋은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십시오! 어쩌면 니콜라이가 고난을 바라는 것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러나 지나치게 영리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따져 보지 말고 삶 속으로 곧장 몸을 던지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 삶이 당신을 곧장 기슭으로 실어다 두 발로 세워 줄 겁니다. 무슨 기슭이냐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저 당신 앞에 긴 삶이 남아 있다고 믿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제 말을 죄다 미리 준비해 둔 연설로 여기신다는 것을 압니다만, 어쩌면 나중에 이 말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고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그 노파만 죽인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른 이론을 지어냈더라면 어쩌면 일억 배는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셨을지도 모르니, 어쩌면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할지도 모르지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느님께서 당신을 무언가를 위해 아껴 두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다만 큰마음을 가지시고 덜 두려워하십시오! 앞으로 이루어야 할 그 큰일이 두려우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걸음을 내디딘 이상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있으니 당신은 정의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만, 정말이지 삶이 당신을 건너가게 해 줄 것이고

나중에는 당신 스스로 그것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정말로 흠칫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소리쳤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예언자입니까? 어떤 장엄한 평온의 높이에서 제게 이런 아는 체하는 예언을 내리시는 겁니까?」

「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이미 끝장난 사람입니다, 그뿐입니다. 어쩌면 감정과 동정이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아는 것도 조금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제 날은 이미 끝났고, 당신은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삶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기야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삶도 연기처럼 흩어져 아무것도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자, 당신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당신 같은 마음을 지닌 분이 아쉬워할 것이 안락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랫동안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것을 정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해가 되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당신을 볼 것이니, 해는 무엇보다 먼저 해여야 합니다. 왜 또 웃으십니까? 제가 이런 실러라서요? 제가 아첨으로 당신을 구슬리려 한다고 여기시는 데 걸겠습니다. 뭐, 그럴지도 모르지요, 헤헤헤! 어쩌면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편이 낫겠고 어쩌면 결코 온전히는 믿지 않으시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어디까지 비열한 인간이고 어디까지 정직한 인간인지는 당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저를 붙잡으실 작정입니까?」

「글쎄요, 하루 반이나 이틀쯤은 더 돌아다니시게 둘 수 있겠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그편이

이롭습니다, 맹세코 이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아나면요?」 라스콜니코프가 이상한 미소를 띠고 물었다.

「아니요, 당신은 달아나지 않습니다. 농사꾼이라면 달아나겠지요, 유행하는 분파 신도라면 달아나겠지요, 남의 생각을 받드는 하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디르카 소위한테 그랬듯 새끼손가락 끝만 보여 주어도 평생 무엇이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 이론을 이미 믿지 않게 되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달아나겠습니까? 숨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지긋지긋하고 힘든 일일 테고, 당신이 삶에서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한 자리, 당신에게 맞는 공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신에게 무슨 공기가 있겠습니까? 달아나면 당신은 제 발로 돌아올 것이니, 당신은 우리 없이는 지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감옥에 넣으면 —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거기 있다 치고 —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제 발로 자백할 것이고 어쩌면 스스로도 놀라실 것이며, 한 시간 전까지도 자기가 자백하러 가리라는 것을 모르실 겁니다. 저는 당신이 『고난을 받겠다』고 결심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제 말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 발로 거기에 이르실 겁니다. 고난이란, 로지온 로마노비치, 위대한 것이니까요. 제가 살이 쪘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저도 알 만큼은 아니까요. 비웃지 마십시오, 고난에는 하나의 사상이 있고 니콜라이가 옳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달아나지 않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가 일어나 모자를 집어 들었고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도 일어섰다.

「산책하러 나가십니까? 저녁 날씨가 좋겠군요, 폭풍우만 오지 않는다면요. 하기야 공기를 좀 시원하게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그도 제 모자를 집어 들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제가 오늘 당신에게 자백했다는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라스콜니코프가 침울하게 고집스레 말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고 저는 그저 궁금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아, 압니다, 기억해 두지요. 저것 좀 보십시오, 떨고 계시는군요! 걱정 마십시오, 이 친구,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좀 돌아다니십시오, 너무 멀리까지 돌아다니실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거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거북한 부탁입니다만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 하기야 저는 그런 일을 믿지 않고 당신이 그럴 사람이라고도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만 — 그래도 혹시 이 사십 시간이나 오십 시간 동안 이 일을 다른 방식으로, 무슨 공상적인 방식으로 끝내 버리겠다는 생각에 — 스스로에게 손을 대겠다는 생각에 — 사로잡히시거든(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만 부디 용서하십시오) 짧지만 자세한 쪽지를, 두 줄이면 되니 남겨 주시고 그 돌을 적어 주십시오. 그편이 더 고결한 일이겠지요. 자, 그럼 또 뵙겠습니다! 좋은 생각과 건전한 결심이 있으시기를!」

포르피리는 몸을 구부린 채 라스콜니코프를 보지 않으려 애쓰며 나갔다. 라스콜니코프는 창가로 가서, 포르피리가 거리에 이르러 멀어졌으리라고 헤아려질 때까지 짜증스러운 초조함으로 기다렸고, 그러고는 그도 서둘러 방을 나섰다.

---

1. umsonst — 독일어로 「헛되이·허탕」이라는 뜻. 포르피리는 결정적인 대목마다 독일어 낱말을 한마디씩 끼워 넣는다.

2. Morgenfrüh — 독일어로 「내일 아침」. 당시 러시아에서 독일어를 흉내 내어 쓰던 관용구로, 「어림없다·어디 그렇게 되나」라는 뜻으로 쓰였다.

3. 어느 종교적 분파다. — 영역자 가넷의 주.

6부 3장

그는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집으로 서둘러 갔다.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에게 무언가 숨은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한번 그것을 알아차린 뒤로 그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고, 이제 그때가 온 것이었다.

가는 길에 한 가지 물음이 특히 그를 괴롭혔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포르피리에게 다녀갔을까?

판단할 수 있는 한으로는 다녀가지 않았다고 맹세라도 할 수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곱씹었고 포르피리가 찾아왔던 일을 되짚어 보았다. 아니다, 다녀가지 않았다, 물론 다녀가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다녀가지 않았다면 앞으로 갈까? 그런데 당장은 가지 않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왜? 그는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설명할 수 있었다 한들 지금 이 순간에 그 일로 머리를 많이 쓰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 모든 것이 그를 걱정스럽게 했으나 동시에 그는 거기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었다. 이상한 말이지만, 어쩌면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그는 코앞에 닥친 제 앞날에 대해서는 희미하고 어렴풋한 불안밖에 느끼지 않았다. 훨씬 더 중대한 다른 불안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 그것 역시 그 자신에 관한 것이었으나, 다른 방식으로, 더 목숨에 닿는 방식으로 그러했다. 게다가 그날 아침 머리는 근래보다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그는 엄청난 도덕적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새롭고 하찮은 난관들과 겨루는 것이 과연 값어치 있는 일인가? 이를테면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포르피리에게 가지 못하도록 술수를 부리는 것이 값어치 있는 일인가? 캐묻고, 사실을 확인하고, 스비드리가일로프 따위에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값어치 있는 일인가?

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던가!

그런데도 그는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 서둘러 가고 있었다. 그에게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소식이나 빠져나갈 길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다! 두 사람을 한자리로 이끄는 것이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무슨 본능이었을까? 어쩌면 그저 피로였는지도, 절망이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였으며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저 우연히 제 발로 나타난 것뿐인지도 몰랐다. 소냐? 그러나 이제 와서 무엇 하러 소냐에게 간단 말인가? 다시 그녀의 눈물을 구걸하러? 그는 소냐도 두려웠다. 소냐는 돌이킬 수 없는 선고처럼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제 길을 가든지 그녀의 길을 가든지 해야 했다. 특히 그 순간에는 그녀를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니다, 차라리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시험해 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오래전부터 어떤 까닭에선지 그를 만나야만 한다고 느껴 왔다는 것을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무슨 공통된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악행부터가 같은 종류일 수 없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몹시 불쾌했고, 보나 마나 타락했으며, 틀림없이 교활하고 사람을 속이는 자였고, 어쩌면 악의까지 품은 자였으니, 그를 두고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다. 그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아이들을 돌봐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속셈에서 그러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 사람은 늘 무슨 꿍꿍이를, 무슨 계획을 품고 있었다.

요즈음 라스콜니코프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며 그를 몹시 불안하게 하는 생각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어찌나 괴로웠던지 그는 그 생각을 떨쳐 버리려고 대놓고 애를 쓰곤 했다. 그는 이따금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제 뒤를 밟고 있다고 생각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의 비밀을 알아냈고 두냐에게 흑심을 품었던 자다. 그가 지금도 그 흑심을 품고 있다면? 품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의 비밀을 알아내어 그를 손아귀에 넣은 마당에 그것을 두냐를 치는 무기로 쓴다면?

이 생각은 때로 꿈속에서까지 그를 괴롭혔으나,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 가는 그 길에서만큼 생생하게 떠오른 적은 없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그는 침울한 분노에 휩싸였다. 우선 이것은 모든 것을, 심지어 그 자신의 처지까지 뒤바꿔 놓을 것이었다. 그는 곧바로 두냐에게 제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것이다. 두냐가 무슨 무모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어쩌면 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 편지? 오늘 아침 두냐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페테르부르크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루쥔일까? 라주미힌이 그녀 곁에서 지켜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라주미힌은 사정을 아무것도 모른다. 어쩌면 라주미힌에게 말해 주는 것이 그의 의무일까? 그는 역겨운 마음으로 그 생각을 떠올렸다.

어쨌든 되도록 빨리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나야 한다고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다행히도 일의 뿌리에만 닿을 수 있다면 대담의 세세한 것들은 대수로울 게 없었다. 그러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럴 수 있는 자라면…… 그가 두냐를 해치려고 꾸미고 있다면 — 그때는……

라스콜니코프는 그 한 달 동안 겪은 일로 몹시 지쳐 있던 터라 그런 물음을 한 가지로밖에 결정할 수 없었다. 「그때는 그를 죽이겠다.」 그는 차가운 절망 속에서 생각했다.

갑작스러운 고통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는 길 한복판에 우뚝 멈춰 서서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려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X 대로에, 방금 지나온 건초 시장에서 서른 걸음이나 마흔 걸음쯤 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왼편 집의 이 층은 통째로 선술집으로 쓰이고 있었다. 창이란 창은 모두 활짝 열려 있었고, 창가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림자로 미루어 방들은 터져 나갈 듯이 가득 차 있었으며, 노랫소리와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터키 북이 둥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들이 새된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들렸다. 어째서 X 대로까지 왔을까 의아해하며 돌아서려던 참에, 문득 끝 쪽 창 하나에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으니, 활짝 열린 창가 찻상 앞에 담뱃대를 물고 앉아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몹시 당황했고 거의 겁에 질렸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며 뜯어보고 있었는데, 라스콜니코프가 대번에 알아챈 바로는 일어나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슬쩍 빠져나갈 작정인 듯했다. 라스콜니코프는 곧바로 그를 못 본 척, 멍하니 딴 데를 보는 척하면서 곁눈으로 그를 살폈다. 그의 심장이 몹시 뛰었다. 과연,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남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담뱃대를 입에서 빼고 몸을 숨기려던 참이었으나,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다가 라스콜니코프가 자기를 보았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별안간 알아차린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라스콜니코프의 방에서, 그가 잠들어 있던 사이에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일과 거의 같았다.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이 떠오르더니 점점 더 넓게 번져 갔다. 서로 상대에게 보이고 있고

지켜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마다 알았다. 마침내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자, 자, 나한테 볼일이 있으면 들어오시지요. 나 여기 있습니다!」 그가 창에서 소리쳤다.

라스콜니코프는 선술집으로 올라갔다. 그는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창이 하나뿐인 아주 자그마한 안쪽 방에서 찾아냈는데, 그 방은 술청에 잇대어 있었고, 술청에서는 장사치며 관리며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스무 개쯤 되는 작은 탁자에 앉아, 목이 터져라 악을 쓰는 합창패의 노래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멀리서 당구공 부딪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비드리가일로프 앞의 탁자에는 마개를 딴 샴페인 병 하나와 포도주가 반쯤 든 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작은 손풍금을 든 사내아이와, 걷어 올린 줄무늬 치마에 리본 달린 티롤 모자를 쓴, 혈색 좋고 볼이 발그레한 열여덟 살쯤 된 여가수도 있었다. 옆방에서 합창이 울려 대는데도 아랑곳없이 그 처녀는 손풍금 반주에 맞추어 얼마쯤 쉰 알토 목소리로 하인 방에서나 부를 법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 자, 그만하면 됐다. 」 라스콜니코프가 들어오자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처녀는 대번에 노래를 그치고 공손하게 서서 기다렸는데, 운을 맞춘 하인 방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하고 공손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이보게 필립, 잔 하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소리쳤다.

「나는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당신더러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셔라, 카탸! 오늘은 더 필요 없으니 가 보아라.」 그는 그녀에게 잔을 가득 따라 주고 노란 지폐[1] 한 장을 내려놓았다.

카탸는 여자들이 흔히 그러듯 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 스무 모금에 포도주를 들이켜고는 지폐를 받아 들고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손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그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방을 나가자 사내아이가 손풍금을 들고 그 뒤를 졸졸 따라 나갔다. 둘 다 길에서 불러들인 아이들이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페테르부르크에 온 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았으나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이미, 말하자면, 가부장적인 틀 위에 놓여 있었으니, 급사 필립도 벌써 『아는 사이』였고 몹시 굽실거렸다.

술청으로 통하는 문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이 방에서 제집처럼 지냈고 어쩌면 온종일을 여기서 보내는지도 몰랐다. 선술집은 더럽고 초라했으며 이류 축에도 들지 못했다.

「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 라스콜니코프가 말을 꺼냈다. 「그런데 방금 무엇 때문에 건초 시장에서 X 대로 쪽으로 꺾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꺾은 적이 없습니다. 건초 시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당신에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저 꺾어 들었을 뿐인데 당신이 여기 있군요. 이상한 일입니다!」

「어째서 대번에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 아, 당신네들이 다 그렇지요.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웃었다. 「 속으로는 기적이라고 믿으면서도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저 우연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제 의견이라는 것을 가지는 일에 얼마나 겁쟁이인지는 당신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래서 당신이 내 호기심을 끌었던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만하면 넉넉하지 않습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눈에 띄게 들떠 있었으나 아주 조금 그럴 뿐이었으니, 포도주를 반 잔밖에 마시지 않은 터였다.

「내가 당신 말마따나 제 의견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기 전에 나를 찾아오셨던 것 같은데요.」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아, 그건 다른 이야기였지요. 사람마다 제 속셈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적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요 이삼 일 내내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술집 이야기는 내가 직접 해 드렸으니 당신이 곧장 여기로 온 데에는 아무 기적도 없습니다. 길도 내가 직접 일러 드렸고, 어디에 있는지도, 몇 시에 오면 나를 볼 수 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놀라서 대답했다.

「그러시겠지요. 나는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소가 당신 기억에 기계적으로 찍힌 겁니다. 당신은 기계적으로, 그러면서도 일러 준 대로 정확하게 이쪽으로 꺾어 들었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도 당신이 알아들으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지요. 당신은 자기를 너무 많이 드러냅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리고 또 한 가지, 페테르부르크에는 걸으면서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곳은 반쯤 미친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우리에게 학자만 있었더라면 의사며 법률가며 철학자가 저마다 제 분야에서 페테르부르크를 두고 더없이 값진 연구를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영혼에 이토록 침울하고 거세고 기이한 영향이 몰려 있는 곳은 페테르부르크 말고는 드뭅니다. 기후의 영향만 해도 그만큼 큰 몫을 하지요. 게다가 이곳은 온 러시아의 행정 중심지이니 그 성격이 온 나라에 비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고요. 요점은 내가 당신을 여러 번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집을 나섭니다 —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말입니다 — 집에서 스무 걸음쯤 가면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등 뒤로 맞잡으며, 보고 있기는 하되 앞에 있는 것도 옆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마침내 입술을 놀리며 혼잣말을 시작하고, 이따금 한 손을 휘저으며 연설을 하다가, 끝내는 길 한복판에 한참이나 멈춰 섭니다. 그건 도무지 될 일이 아닙니다. 나 말고도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당신에게 조금도 이롭지 않습니다만, 실상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고 나로서는 당신을 고쳐 드릴 수도 없으며, 물론 당신은 내 말을 알아들으시겠지요.」

「내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스콜니코프가 캐묻는 눈으로 그를 보며 물었다.

「아니요, 나는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놀란 듯이 말했다.

「 그러면 내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 라스콜니코프가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좋습니다, 당신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차라리 이 말씀이나 해 주십시오. 당신이 여기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이고 나더러 여기로 당신을 찾아오라고 두 번이나 일러 주었다면, 아까 내가 길에서 창을 올려다보았을 때 어째서 몸을 숨기고 빠져나가려 했습니까? 나는 보았습니다.」

「헤헤! 그러면 내가 당신 방 문간에 서 있었을 때 당신은 멀쩡히 깨어 있으면서도 어째서 소파에 눈을 감고 누워 자는 척했습니까? 나도 보았습니다.」

「 나한테는…… 까닭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건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내 까닭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를 뿐이지요.」

라스콜니코프는 오른쪽 팔꿈치를 탁자에 내려놓고 오른손 손가락에 턱을 괸 채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전에도 인상에 남았던 그 얼굴을 꼬박 일 분 동안 뜯어보았다. 그것은 가면 같은 기묘한 얼굴이었다. 희고 붉으며, 입술은 새빨갛고, 수염은 아마빛이었으며, 머리털도 아직 숱이 많은 아마빛이었다. 그의 눈은 어쩐지 지나치게 푸르렀고 그 눈빛은 어쩐지 지나치게 무겁고 붙박여 있었다. 나이에 비해 놀랄 만큼 젊어 보이는 그 잘생긴 얼굴에는 무언가 지독하게 불쾌한 데가 있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가벼운 여름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었고 속옷치레가 유난히 깔끔했다. 보석이 박힌 커다란 반지를 끼고 있었다.

「이제 와서 당신 일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라스콜니코프가 신경질적인 조급함으로 대번에 요점으로 파고들며 별안간 말했다. 「당신이 나를 해칠 마음만 먹으면 아마 가장 위험한 사람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보여 드리지요, 나는 당신이 짐작하시는 것만큼 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곧바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이 내 누이에 관해 전에 품었던 뜻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요즈음 드러난 일에서 그쪽으로 무슨 득을 볼 생각이라면, 당신이 나를 가두게 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내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 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당신도 아시지요. 그리고 둘째로,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 나는 이 내내 당신에게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 서둘러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귀하고 머지않아 너무 늦어질 공산이 크니까요.」

「어째서 그리 서두르십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보며 물었다.

「사람마다 제 속셈이 있지요.」 라스콜니코프가 침울하고 조급하게 대답했다.

「방금 당신 스스로 나더러 솔직하라고 다그쳐 놓고 첫 물음부터 답하기를 마다하시는군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속셈이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해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봅니다. 물론 당신 처지에서는 더없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나로서는 당신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기는 해도 그렇지 않다고 당신을 설득하는 수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촛값도 못 건질 노름이고 나는 당신에게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나한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나한테 매달려 온 것은 당신 쪽이었습니다.」

「그야 그저 관찰하기에 흥미로운 대상이었으니까요. 나는 당신 처지의 그 기괴한 됨됨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 그게 다였지요! 게다가 당신은 내가 크게 관심을 두었던 분의 오라비이고, 지난날 그분에게서 당신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로 미루어 당신이 그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하면 넉넉하지 않습니까? 헤헤헤! 그래도 당신 물음이 제법 복잡해서 나로서는 답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해야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당신도 뚜렷한 목적만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다그쳤다. 「그러면 나 역시 여기로 오는 기차 안에서 당신을,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 주리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서 무슨 이문을 얻으리라는 것을 셈하고 있었다고는 생각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사람들인지 보십시오!」

「무슨 이문을 얻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내가 어찌 압니까? 보시다시피 나는 이런 선술집에서 온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내 낙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낙은 아니지만 사람이란 어디엔가는 앉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 딱한 카탸만 해도 — 보셨지요?…… 내가 먹보라면, 클럽에서 미식이나 하는 자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나는 이런 것도 먹습니다.」

그는 구석의 작은 탁자를 가리켰는데, 거기에는 끔찍해 보이는 비프스테이크와 감자의 찌꺼기가 양철 접시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식사는 하셨습니까? 나는 좀 먹었으니 더는 필요 없습니다. 이를테면 술은 아예 마시지 않습니다. 샴페인 말고는 아무것에도 손을 대지 않고, 그것도 저녁 내내 한 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데, 그만큼만 마셔도 머리가 아픕니다. 방금 그것을 시킨 것은 기운을 돋우려는 것이었으니, 이제 곧 어디로 나가야 하는 데다 지금 당신은 별난 마음 상태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학생처럼 몸을 숨긴 것도 그 때문이었으니, 당신이 나를 붙들까 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는 회중시계를 꺼냈다. 「한 시간쯤은 당신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시 반이군요. 내가 무엇이라도 되었더라면, 지주라든가, 아버지라든가, 기병 장교라든가, 사진사라든가, 신문기자라든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전문도 없고, 그래서 이따금 정말로 지루합니다. 나는 정말이지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이고, 무엇 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냐고요? 아시다시피 귀족이고, 이 년 동안 기병대에서 복무했고, 그다음에는 여기 페테르부르크에서 빈둥거렸고, 그다음에는 마르파 페트로브나와 혼인해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것이 내 이력입니다!」

「당신은 노름꾼이시라던데요?」

「 아니요, 내가 무슨 노름꾼입니까. 사기 노름꾼은 — 노름꾼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기 노름꾼이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기 노름꾼 노릇도 했지요.」

「이따금 두들겨 맞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지요. 어째서 물으십니까?」

「아니, 그자들에게 결투를 청할 수도 있었을 테고…… 아무튼 제법 활기찼겠군요.」

「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나는 철학에는 재주가 없습니다. 고백하자면 나는 여자들 때문에 서둘러 이리로 왔습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묻자마자 말입니까?」

「 바로 그렇습니다.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사람 마음을 끄는 솔직함으로 웃었다. 「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여자들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데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여기시는 모양이군요?」

「악덕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여기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 악덕이라! 아,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군요! 그러나 차례대로 답해 드리지요, 먼저 여자 일반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억눌러야 합니까? 여자들에게 정열을 품고 있는 내가 어째서 여자들을 끊어야 합니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일거리인데 말입니다.」

「 그러면 여기서 악덕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악덕을 바란다고 해 두지요. 당신이 굳이 악덕이라고 우기시니까요. 어쨌든 나는 대놓고 묻는 것은 좋아합니다. 적어도 이 악덕에는 무언가 항구적인 것이, 공상에 기대지 않고 참으로 자연에 뿌리를 둔 것이,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피 속에 들어앉아 사람을 언제까지나 불태우며 어쩌면 세월이 흘러도 쉬 꺼지지 않을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일거리라는 데에는 동의하시겠지요.」

「그건 기뻐할 일이 못 됩니다, 그것은 병이고 위험한 병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도를 지나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병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일에서는 도를 지나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첫째로 그것은 사람마다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며, 둘째로 물론 무엇에서든 절도를, 치사하나마 타산을 지켜야 마땅하겠지만, 나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나는 스스로 총을 쏘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듯한 사람이라면 지루함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기꺼이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스스로 총을 쏠 수도 있습니까?」

「원, 무슨 말씀을!」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역겨운 기색으로 되받았다. 「부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가 서둘러, 그때까지 대화 내내 보이던 허풍기는 조금도 없이 덧붙였다. 얼굴까지 어딘지 달라진 듯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약함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나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고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비주의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유령 말이군요! 아직도 계속 찾아옵니까?」

「아,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기랄!」 그가 짜증스러운 기색으로 외쳤다. 「차라리 그 이야기를 합시다…… 하기야…… 흠! 시간이 많지 않아 당신과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 아쉽습니다! 해 드릴 이야기가 수두룩했을 텐데요.」

「무슨 일이 있으신데요, 여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자입니다, 어쩌다 생긴 일이지요……. 아니, 그건 내가 이야기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이 모든 흉물스러움과 더러움은 당신에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스스로를 멈춰 세울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당신도 힘이 있는 척하십니까? 헤헤헤! 방금 당신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리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악덕과 미학을 설교하다니요! 당신은 — 실러고, 당신은 — 이상주의자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 마땅히 그래야 할 바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놀라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실제로는 이상합니다……. 아, 시간이 없다니 참 아깝습니다, 당신은 더없이 흥미로운 전형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지요, 실러를 좋아하십니까? 나는 그를 지독히 좋아합니다.」

「참으로 허풍쟁이시군요.」 라스콜니코프가 얼마쯤 역겨워하며 말했다.

「맹세코 아닙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기야 다투지는 않겠습니다, 허풍쟁이라고 해 두십시오,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면 허풍 좀 떨면 어떻습니까? 나는 마르파 페트로브나와 시골에서 칠 년을 보냈으니, 이제 당신 같은 똑똑한 사람을 — 똑똑하고 더없이 흥미로운 사람을 — 만나면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게다가 그 반 잔짜리 샴페인을 마셔서 머리가 조금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몹시 들뜨게 한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가 놀라서 물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일어서려던 참이었다. 그는 답답하고 숨이 막혔으며, 이를테면 여기 온 것이 거북했다. 그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이 땅 위에서 가장 하찮은 악당이라고 확신했다.

「아아! 앉으십시오, 좀 더 계십시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사정했다. 「차라도 가져오게 하지요. 좀 더 계십시오, 허튼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말입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해 드리지요. 원하신다면 어떤 여자가 당신 말마따나 나를 『구원』하려 들었던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첫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당신 누이였으니까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보내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이……」

「 아, 걱정 마십시오. 게다가 나 같은 하찮고 비루한 자에게도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더없이 깊은 존경밖에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

1. 노란 지폐 — 당시 러시아에서는 지폐를 액면마다 다른 빛깔로 찍어 빛깔로 불렀다. 노란 것은 1루블짜리다.

6부 4장

「 아시겠지만 — 그렇지, 내가 직접 말씀드렸군요.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액수 때문에 채무자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것을 갚을 가망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어떻게 나를 빼냈는지 시시콜콜 늘어놓을 것은 없습니다만, 여자가 때로 어느 지경까지 미쳐서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정직한 여자였고 배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지만 아주 분별이 있었습니다. 그 정직하고 질투심 많은 여자가 신경질과 나무람의 장면을 숱하게 겪은 끝에 나와 일종의 계약을 맺기까지 몸을 낮추었고 혼인해 사는 내내 그것을 지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퍽 위였고, 게다가 늘 입에 정향인지 무엇인지를 물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에는 돼지 같은 데가 어찌나 많았던지, 또 그 나름의 정직함도 있어서, 나는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온전히 충실할 수는 없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에 그 사람은 광란에 빠졌지만 그래도 어쩐지 나의 그 야만스러운 솔직함을 마음에 들어 한 듯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을 보면 내가 자기를 속일 마음이 없다는 뜻이라고 여긴 것이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질투심 많은 여자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 먼저 치는 것입니다. 숱한 눈물 끝에 우리 사이에 문서 없는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첫째, 나는 결코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사람의 남편으로 있는다. 둘째, 나는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결코 집을 비우지 않는다. 셋째,

나는 결코 붙박이 정부를 두지 않는다. 넷째, 그 대가로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나에게 이따금 하녀들에게 눈길을 주는 것을 허락하되 반드시 그 사람이 남몰래 알고 있는 한에서만 그러기로 한다. 다섯째, 우리 계급의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일은 하느님이 막아 주시기를. 여섯째, 만에 하나 내가 — 하느님이 막아 주시기를 — 크고 진지한 정열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그것을 마르파 페트로브나에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 마지막 조항에 관해서라면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제법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별 있는 여자였으니 나를 참된 사랑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난잡한 난봉꾼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분별 있는 여자와 질투심 많은 여자는 아주 다른 것이고, 바로 거기서 탈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치우침 없이 판단하려면 우리는 몇 가지 선입견과 우리를 둘러싼 보통 사람들에 대한 버릇 든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다른 누구의 판단보다 당신의 판단을 믿을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르파 페트로브나에 대해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구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나는 내가 원인이 된 그 헤아릴 수 없는 괴로움들이 정말로 미안합니다. 자, 더없이 자상한 남편이 더없이 자상한 아내에게 바치는 점잖은 oraison funèbre[1]로는 이만하면 넉넉하겠지요. 우리가 다툴 때면 나는 대개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을 돋우지 않았는데, 그 신사다운 처신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드물어서 그 사람을 움직였고 실은 그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던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당신 누이만은 어떻게도 견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어쩌자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가정교사로 제 집에 들이는 모험을 했는지. 내 설명은 이렇습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열이 많고 쉽게 감동하는 여자여서 그저 제가 먼저 당신 누이에게 반해

버린 겁니다 — 말 그대로 반해 버린 거지요. 뭐, 놀랄 것도 없습니다 —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보십시오! 나는 첫눈에 위험을 알아보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손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믿기십니까? 그리고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처음에는 내가 당신 누이에 대해 한사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끝없이 흠모하며 늘어놓는 제 칭찬을 내가 건성으로 받는다고 정말로 화를 냈다는 것도 믿기십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바랐던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에게 나에 관한 것을 낱낱이 일러바쳤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아무에게나 우리 집안의 비밀을 죄다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나를 흉보는 딱한 버릇이 있었으니, 그토록 반가운 새 벗에게 어찌 털어놓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리라 짐작하고,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나에 대해 떠돌던 그 어둡고 알 수 없는 소문들을 죄다 들었을 것은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도 벌써 그런 이야기를 얼마간 들으셨다는 데 얼마든지 걸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었습니다. 루쥔이 당신더러 어떤 아이를 죽게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입니까?」

「 그런 천한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역겹고 짜증스러운 기색으로 말했다. 「그 모든 바보 같은 소리를 굳이 아셔야겠다면 언젠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시골에 있던 당신의 어떤 하인 이야기도, 거기서도 당신이 무슨 일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두시기를 청합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눈에 띄게 조바심을 내며 다시 말을 잘랐다.

「죽은 뒤에 당신에게 담뱃대를 채워 주러 왔다던 그 하인입니까?…… 당신이 직접 나에게 이야기하셨지요.」 라스콜니코프는 점점 더 짜증이 났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고, 라스콜니코프는 그 눈길에서 악의에 찬 조롱이 번득이는 것을 언뜻 본 듯싶었다. 그러나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을 억누르고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다.

「 그렇습니다, 그 하인이었지요. 보아하니 당신도 몹시 흥미로워하시는 듯하니 첫 기회가 닿는 대로 당신의 호기심을 채워 드리는 것을 내 의무로 삼겠습니다. 원 참! 보아하니 나는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낭만적인 인물로 통할 만하군요.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나에 대한 그 알 수 없고 흥미로운 뒷말들을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에게 되뇌어 주었으니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이 그분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는 감히 짐작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내게 이롭게 작용했습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타고난 혐오를 품고 있었는데도, 그리고 내가 한결같이 침울하고 사람을 밀어내는 꼴을 하고 있었는데도 — 그분은 적어도 나를 가엾게 여기기는 했습니다, 길 잃은 영혼을 가엾게 여긴 것이지요. 그리고 처녀의 마음이 한번 연민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그 처녀는 그를 『구원』하고, 정신이 들게 하고, 일으켜 세워 더 고귀한 목적으로 이끌고, 새 삶과 보람 있는 일로 부활시키려 들 수밖에 없지요 — 뭐, 그런 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우리 모두 아는 바입니다. 나는 대번에 새가 제 발로 그물로 날아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채비를 했지요. 인상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러실 것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모든

것은 연기가 되어 흩어졌으니까요. (원, 내가 어지간히도 마시는군!)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늘 당신 누이가 기원후 이삼 세기에, 어느 군주나 소아시아 어느 총독이나 속주 총독의 딸로 태어나는 운명을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순교를 견뎌 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고, 달군 부젓가락으로 가슴을 지질 때 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발로 그리로 걸어갔겠지요. 그리고 사오 세기였다면 이집트의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 풀뿌리와 황홀과 환시로 연명하며 삼십 년을 거기 머물렀을 겁니다. 그분은 그저 누군가를 위해 어떤 고문을 마주하기를 목말라하고 있고, 제 고문을 얻지 못하면 창밖으로 몸을 던질 사람입니다. 라주미힌 씨[2]라는 분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 분별 있는 사람이라더군요, 성이 그렇다고 일러 주기도 하고요. 아마 신학생이겠지요. 자, 그 사람이 당신 누이를 잘 돌보는 편이 좋을 겁니다! 나는 그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귐이 시작될 무렵에는 사람이 더 경솔해지고 더 어리석어지기 쉽지요. 똑똑히 보지 못하는 겁니다. 원, 그분은 어째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실상 내 쪽에서는 도무지 억누를 수 없는 육체의 욕망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지독하게 정숙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유례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잘 새겨 두십시오, 나는 당신 누이에 대해 이것을 사실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그 넓은 지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병적으로 정숙하고, 그것이 그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 무렵 집에 파라샤라는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검은 눈의 계집아이로 나는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 다른 마을에서 막 온 참이었지요 — 아주 예뻤지만 믿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 집 안 어디서나 들릴 만큼 넋두리를 해 대는 바람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나서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일부러 정원의 가로수 길에 혼자 있는 나를 찾아와 눈을 번뜩이며 딱한 파라샤를 내버려 두라고 다그쳤습니다. 우리 둘만의 첫 대화라고 해도 좋을 것이었지요. 나는 물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 당황하고 무안해하는 낯을 지으려 애썼으니, 실상 내 배역을 제법 잘 해낸 셈입니다. 그다음에는 면담이, 은밀한 대화가, 훈계가, 간청이, 애원이, 심지어 눈물까지 왔습니다 — 믿기십니까, 눈물까지 말입니다? 사상을 퍼뜨리려는 열정이 어떤 처녀들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물론 그 모든 것을 내 운명 탓으로 돌리고, 빛에 주리고 목마른 자인 척하고, 마침내는 여자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데 가장 힘센 무기, 누구도 결코 속여 넘기지 않으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여자에게 듣는 무기에 기댔습니다. 그것은 널리 알려진 수단 — 아첨입니다. 세상에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고 아첨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가운데 거짓된 음이 백분의 일이라도 섞이면 불협화음이 되고 그것이 말썽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첨은 마지막 음까지 죄다 거짓이라 해도 그만큼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없이 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거친 흡족함일지언정 그래도 흡족함입니다. 그리고 아첨이 아무리 거칠어도 적어도 절반은 어김없이 참으로 보입니다. 발달의 모든 단계, 사회의 모든 계급에서 그러합니다. 베스타의 처녀라도 아첨으로는 꼴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남편과 아이들과 제 미덕에 헌신하던 어느 부인을 내가 한번 어떻게 꾀었는지는 지금도 웃음 없이는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고 얼마나 수고가 들지 않았던지! 그리고 그 부인은 정말로 정숙했습니다 — 하여간 제 나름으로는 말입니다. 내 전술이라고는 그저 그 부인의 순결 앞에 온전히 무너져 엎드려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도 없이 그 부인에게 아첨했고, 손을 한 번 쥐거나 눈길 한 번 받는 데 성공하기가

무섭게 그것을 힘으로 빼앗았다고 나 자신을 나무라며, 그 부인은 저항했으니 내가 그토록 원칙 없는 자가 아니었더라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부인은 어찌나 순진한지 내 배신을 내다볼 수 없었고 저도 모르게, 알지도 못한 채 나에게 굴복한 것이라는 듯 우겨 댔지요. 실상 나는 이겼고, 내 부인은 자기가 순진하고 정숙하며 제 모든 의무와 책임에 충실했는데 아주 우연히 무너진 것이라고 굳게 믿은 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 부인에게 당신도 나와 꼭 마찬가지로 쾌락을 찾았다는 것이 내 진심 어린 확신이라고 설명해 주었을 때 그 부인이 나에게 얼마나 화를 냈는지요. 딱한 마르파 페트로브나도 아첨 쪽으로는 지독히 약해서, 내가 마음만 먹었더라면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재산을 죄다 내 앞으로 돌려놓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술을 지독히 많이 마시고 말도 너무 많이 하는군요.) 이제 내가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에게도 같은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려도 화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고 조급해서 모든 것을 망쳐 버렸습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여러 번 — 특히 어느 한 번은 — 내 눈빛에 몹시 언짢아했습니다, 믿기십니까? 이따금 내 눈에 그분을 놀라게 하는 빛이 떠올랐고 그것이 점점 더 세지고 더 거리낌 없어지다가 끝내는 그분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시시콜콜 말할 것은 없고, 우리는 갈라섰습니다. 거기서 나는 또 어리석게 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상 퍼뜨리기와 나를 돌려세우려는 노력 일체를 더없이 상스럽게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샤가 다시 무대에 올랐고, 그 아이만도 아니었으니, 실상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지요. 아, 로지온 로마노비치, 당신 누이의 눈이 이따금 어떻게 번뜩일 수 있는지 당신이 보실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취해 있고 포도주를 한 잔이나 마셨다는 것은 마음 쓰지 마십시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그 눈길은 내 꿈자리를

따라다녔고, 끝내는 그분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간질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광란에 휘둘릴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믿지 못했을 겁니다. 화해하는 것이 참으로 긴요했으나 그때는 이미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광란에 휘둘려 어느 지경의 어리석음까지 끌려갈 수 있는지! 결코 광란 속에서 무슨 일을 벌이지 마십시오, 로지온 로마노비치. 나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어쨌거나 거지라는 것(아, 미안합니다, 그 말이 아닌데…… 그러나 뜻만 통한다면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제 일로 먹고산다는 것, 어머니와 당신을 건사해야 한다는 것을(아, 제기랄, 또 인상을 쓰시는군요) 곱씹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이리로, 페테르부르크로 달아나 준다면 내 돈을 죄다 — 그때 마련할 수 있었던 삼만 루블을 — 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영원한 사랑이니 황홀이니 하는 것을 맹세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렵 나는 그분에게 어찌나 미쳐 있었던지 그분이 나더러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독살하라거나 목을 베고 저와 혼인하라고 했더라면 당장 그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이미 아시는 그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그 비열한 법률가 루쥔을 붙들어 두 사람을 거의 맺어 놓다시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미칠 지경이었을지 짐작하실 겁니다 — 그것은 실상 내가 하려던 것과 똑같은 일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하니 당신이 아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는데…… 흥미로운 젊은 양반이시군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조바심을 내며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가 거의 무의식중에 홀짝인 샴페인 한 잔인가 한 잔 반이 그에게 병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보았고 —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몹시 미심쩍었다.

「자, 당신 말씀을 듣고 나니 당신이 내 누이를 노리고 페테르부르크에 왔다는 것을 나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를 한층 더 돋우려고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 대놓고 말했다.

「원, 말도 안 됩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정신을 차리는 듯이 말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당신 누이는 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나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점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눈을 가늘게 뜨고 조롱하듯 웃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사내와 그 정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고 그 두 사람만 아는 작은 구석이 늘 하나 있지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가 나를 혐오하는 마음으로 보았다고 당신이 보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흘린 몇 마디로 보아 나는 당신이 아직도 두냐에게 흑심을 — 물론 못된 흑심을 — 품고 있으며 그것을 서둘러 해치울 작정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런 말을 흘렸다고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제 흑심에 붙은 그 형용사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진하게 당황해하며 물었다.

「아니,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겁을 내십니까? 지금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내가 — 겁을 낸다고요? 당신을 두려워한다고요? 오히려 당신이 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cher ami[3]. 그러나 무슨 헛소리인지…….

하기야 내가 너무 마셨군요, 그건 알겠습니다. 또 하마터면 말을 너무 할 뻔했습니다. 빌어먹을 술 같으니! 이보게! 거기, 물!」

그는 샴페인 병을 집어 들더니 거리낌 없이 창밖으로 내던졌다. 필립이 물을 가져왔다.

「 다 헛소리입니다!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수건을 적셔 머리에 얹으며 말했다. 「그러나 한마디로 답해서 당신의 의심을 죄다 없애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혼인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랬습니까? 잊었군요. 그러나 그때는 확실하게 말씀드렸을 리가 없습니다, 약혼녀를 본 적도 없었고 그저 그럴 작정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약혼녀가 있고 다 정해진 일이니, 미룰 수 없는 볼일만 없었더라면 당장 당신을 데리고 그 집에 갔을 겁니다, 당신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요. 아, 제기랄, 십 분밖에 남지 않았군요! 자, 시계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해 드려야겠습니다, 내 혼인은 그 나름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니까요. 어디 가십니까? 또 가시려고요?」

「아니요,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

「아주 안 가신다고요? 두고 보지요. 내가 데려가 약혼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이 곧 떠나셔야 하니까요. 당신은 오른쪽으로 가셔야 하고 나는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레슬리히 부인이라고, 지금 내가 세 들어 사는 집 여자 말입니다, 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겨울에 제 집 처녀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여자 아니냐고요. 자, 듣고 계십니까? 그 여자가 나를 위해 다 마련해 준 겁니다. 당신은 지루해하니 시간을 메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아시다시피 나는 침울하고 우울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쾌활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나는 침울합니다.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사흘씩이나 말 한마디 없이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슬리히라는 여자는 참으로 교활한 계집입니다. 나는 그 여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압니다. 내가 싫증이 나서 아내를 버리고 떠나면 그 여자가 아내를 손에 넣어 돈벌이로 삼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 물론 우리 계급이나 그보다 높은 데다 말입니다. 그 여자 말로는 아비는 몰락한 퇴직 관리인데 삼 년째 두 다리가 마비된 채 의자에 앉아만 있다더군요. 어미는 분별 있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지방에서 벼슬살이를 하지만 돕지 않고, 시집간 딸이 하나 있지만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게다가 제 자식들만으로는 모자란다는 듯이 어린 조카 둘을 떠맡고 있고, 막내딸을 과정도 마치지 않은 채 김나지움에서 데려왔는데 그 계집아이가 한 달 뒤면 열여섯이 되니 그때 시집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갔습니다. 얼마나 우스웠는지! 나는 나를 이렇게 내보입니다 — 지주에 홀아비에 이름난 가문에 연줄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으로 말이지요. 내가 쉰이고 그 아이가 아직 열여섯도 안 되었다 한들 어떻습니까? 누가 그런 것을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홀리지 않습니까? 홀리고말고요, 하하! 내가 아비와 어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보셨어야 하는 건데. 그 순간의 나를 보는 데는 돈을 낼 만했을 겁니다. 그 아이가 들어와서 무릎을 굽혀 인사하는데, 짐작하시겠지요, 아직도 짧은 치마 차림입니다 — 피지 않은 꽃봉오리지요! 저녁놀처럼 붉어지면서 — 틀림없이 미리 들은 것이겠지요. 당신이 여자 얼굴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에는 그 열여섯 해, 그 어린애 같은 눈, 수줍음과 부끄러워서 나는 눈물이 아름다움보다 낫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영락없는 작은 그림이기도 하고요. 새끼 양의 털처럼 잔 고수머리로 말린 금발, 도톰하고 자그마한 붉은 입술, 조그만 발, 사람을 홀리는 아이입니다!…… 자, 우리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나는 집안 사정 때문에 서두른다고 말해 두었고, 이튿날,

그러니까 그저께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면 대번에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대로 두지요……. 자, 그 아이는 저녁놀처럼 붉어지고 나는 시시각각 입을 맞춥니다. 어미는 물론 그 아이에게 이이가 네 남편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못을 박아 두지요. 그야말로 달콤한 일입니다! 지금 이 약혼한 처지가 어쩌면 혼인보다 나은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른바 la nature et la vérité[4]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하! 나는 그 아이와 두 번 이야기해 보았는데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따금 나를 훔쳐보는데 그 눈길이 정말로 나를 태웁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라파엘로의 마돈나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스티나의 마돈나의 얼굴에는 어딘가 환상적인 데가, 슬픔에 잠긴 성스러운 바보 여인(유로디바)의 얼굴이 있지요. 눈여겨보신 적 없습니까? 자, 그 아이가 그런 축입니다. 약혼한 이튿날 나는 천오백 루블어치 선물을 사 주었습니다 — 다이아몬드 한 벌과 진주 한 벌, 그리고 이만한 크기의 은제 화장 상자에 온갖 것을 담아서 말이지요, 그래서 내 마돈나의 얼굴까지 환해졌습니다. 어제는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혔는데 아마 좀 지나치게 스스럼없었던 모양입니다 — 얼굴이 새빨개지고 눈물이 솟았지만 그것을 내보이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우리만 남게 되자 그 아이가 별안간 내 목에 매달려(제 뜻으로 그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두 팔로 나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고분고분하고 충실하고 착한 아내가 되겠다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제 온 삶을, 삶의 모든 순간을 바치겠다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그 대가로 바라는 것이라고는 나의 존중뿐이며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는다, 선물도 필요 없다』 고 맹세했습니다. 얇은 망사 옷을 입고 잔 고수머리에 처녀다운 수줍음의 홍조를 띠고 눈에는 벅찬 마음의 눈물을 담은 열여섯 살짜리 천사에게서, 단둘이서 그런 고백을 듣는 것이 제법 사람을 홀린다는 것은 당신도 인정하시겠지요! 홀리지

않습니까? 돈을 낼 만하지 않습니까? 자…… 들어 보십시오, 우리 함께 내 약혼녀를 보러 갑시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실은 이 끔찍한 나이 차와 성숙의 차가 당신의 색욕을 돋우는 것이겠지요! 정말로 그런 혼인을 하시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제 생각만 하고, 제 자신을 속일 줄 가장 잘 아는 자가 가장 즐겁게 사는 법입니다. 하하!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미덕에 열을 올리십니까?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의 선량한 벗이여.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헤헤헤!」

「그러나 당신은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아이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하기야…… 하기야 당신에게는 당신 나름의 까닭이 있었겠지요……. 이제 다 알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지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웃었다. 「그 일로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지요. 여기 온 첫날 나는 여기저기 소굴을 찾아다녔는데, 칠 년 만이었으니 그저 달려들다시피 했지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나는 옛 벗들과 다시 사귀는 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그들 없이 지낼 작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와 시골에 있을 때 나는 길을 아는 자라면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자리들에 대한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농민들에게는 보드카가 있고, 활동에서 밀려난 배운 젊은이들은 있을 수 없는 꿈과 환상 속에서 제 몸을 축내며 이론에 절름발이가 되고, 어디선가 유대인들이 몰려와 돈을 감춰 두고, 나머지는 죄다 방탕에 몸을 내던집니다. 이 도시는 첫 시각부터 그 낯익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나는 어쩌다 무시무시한 소굴에 들어갔는데 — 나는 내 소굴이 더러운 것이 좋습니다 — 이른바 무도회라는 것이었고, 내 젊은 시절에는 본 적도 없는 캉캉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별안간 열세 살쯤 된 계집아이가 곱게 차려입고 그 방면의 전문가와 춤을 추는 것이 보였는데, 맞은편에는 또 다른 전문가가 vis-à-vis[5]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미는 벽 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그것이 어떤 캉캉이었는지는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아이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다가 끝내 모욕을 느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짝이 아이를 붙들어 빙글빙글 돌리며 앞에서 재주를 부려 댔고, 모두가 웃었으며 — 나는 이 나라 구경꾼들이 좋습니다, 캉캉 구경꾼들까지도 말입니다 — 그들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꼴좋다 — 꼴좋다! 애를 데려오면 안 되지!』 자, 그 위로가 되는 소견이 조리에 닿았는지 아닌지는 내 알 바 아닙니다. 나는 대번에 계획을 정하고 어미 곁에 앉아, 나도 낯선 사람인데 여기 사람들은 배움이 없어 점잖은 이들을 알아보고 마땅한 대접을 할 줄 모른다는 말로 이야기를 꺼내고, 내게 돈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아듣게 하고, 내 마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쪽방에 세 들어 있었고 시골에서 막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그 어미는 자기와 딸에게 나와 알고 지내는 것은 영광일 따름이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그들에게 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무슨 송사 때문에 도시에 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는 힘과 돈을 대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진짜 무용 강습소인 줄 알고 잘못해서 그 무도장에 들어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어린 처녀에게 프랑스어와 춤을 가르치는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내 제의는 영광이라며 열렬히 받아들여졌고 — 우리는 지금도 사이가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우리 함께 그들을 보러 갑시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그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타락하고 더럽고 음탕한 사람 같으니!」

「실러, 당신은 영락없는 실러군요! O la vertu va-t-elle se nicher?[6] 그런데 말이지요, 나는 당신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려고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즐겁군요!」

「 그렇겠지요. 나 자신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쯤은 나도 압니다. 」 라스콜니코프가 성이 나서 중얼거렸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마음껏 웃었다. 마침내 그는 필립을 불러 셈을 치르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 어이쿠, 내가 취했군요, assez causé[7]. 」 그가 말했다. 「즐거웠습니다.」

「 즐거우셨을 만도 하지요! 」 라스콜니코프가 일어서며 외쳤다. 「머릿속에 그와 똑같은 끔찍한 계획을 품은 닳아빠진 난봉꾼으로서야 그런 모험담을 늘어놓는 일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 더구나 이런 사정에서, 나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자극이 되겠지요!」

「자, 그 말씀을 하신다면,」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얼마쯤 놀란 눈으로 라스콜니코프를 뜯어보며 대답했다. 「그 말씀을 하신다면, 당신 자신이 철저한 냉소가입니다. 어쨌든 그럴 만한 것은 넉넉히 가지고 계시지요. 당신은 아주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아주 많은 것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하지요. 당신과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진심으로 아쉽습니다만, 나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음식점을 나섰다. 라스콜니코프도 그 뒤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리 많이 취하지 않았으니, 술기운이 한순간 돌았을 뿐 시시각각 가시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중대한 일에 골몰해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앞두고 들떠 있으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했다. 지난 몇 분 사이에 라스콜니코프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고, 시시각각 더

무례해지고 더 비웃는 투가 되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이 모든 것을 알아챘고 그 역시 마음이 놓이지 않았으니, 그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몹시 미심쩍어져서 그를 뒤쫓기로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보도로 나왔다.

「당신은 오른쪽으로 가시고 나는 왼쪽으로 가지요, 아니면 좋으실 대로 거꾸로 하든지요. 그저 adieu, mon plaisir[8], 다시 만나게 되기를.」

그러고서 그는 건초 시장 쪽으로,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

1. oraison funèbre — 프랑스어로 「장례 추도사」. 본디 성직자가 장례 예배에서 죽은 이를 기려 읽는 격식 있는 연설을 가리킨다.

2. 라주미힌 — 이 성의 어근은 러시아어 разум(이성)이다. 「성이 그렇다고 일러 준다」는 말은 그 어근을 가리키는 것인데, 한국어 음차로는 이 말장난이 옮겨지지 않는다.

3. cher ami — 프랑스어로 「친애하는 벗이여」.

4. la nature et la vérité — 프랑스어로 「자연과 진실」.

5. vis-à-vis — 프랑스어로 「마주 선 사람」. 카드리유 같은 춤에서 맞은편에 서는 짝을 가리키는 말이다.

6. O la vertu va-t-elle se nicher? — 프랑스어로 「오, 미덕이 어디에 깃들려 하는가?」. 몰리에르가 적선을 하다 했다고 전해 오는 말 「Où la vertu va-t-elle se nicher!」에서 왔고, 뜻밖의 자리에서 미덕을 만났을 때 쓰는 빈정거림이다. 저본은 첫 낱말을 Où가 아니라 O로 적고 물음표로 닫았는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

7. assez causé — 프랑스어로 「이야기는 이만하면 됐다」.

8. adieu, mon plaisir — 프랑스어로 「잘 있으시오, 나의 즐거움이여」.

6부 5장

라스콜니코프가 그를 뒤따라갔다.

「 이게 무슨 짓입니까?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돌아서며 외쳤다. 「분명히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당신한테서 눈을 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어라고요?」

둘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마주 보았으니, 서로의 힘을 가늠하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 당신이 반쯤 취해서 늘어놓은 이야기를 죄다 들어 보니, 」 라스콜니코프가 거칠게 말했다. 「당신이 내 누이에 대한 그 더없이 비열한 속셈을 버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며, 내 누이가 오늘 아침에 편지를 한 통 받았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간 내내 한자리에 붙어 있지를 못했지요……. 오는 길에 아내를 하나 파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아무 뜻도 없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는 라스콜니코프 자신도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십니까! 지금 당장 순경을 부를까요?」

「부르십시오!」

둘은 다시 한동안 마주 선 채 있었다. 마침내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라스콜니코프가 제 으름장에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자 그는 유쾌하고 다정한 태도를 지었다.

「대단한 분이군요! 나는 호기심에 좀이 쑤시면서도 일부러 당신 일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막힌 일이지요. 다음으로 미루어 두었습니다만, 당신은 죽은 사람도 깨울 만한 분이군요……. 자, 그럼 갑시다, 다만 미리 일러 두는데 나는 잠깐 돈을 가지러 집에 들를 뿐입니다. 그러고는 셋집 문을 잠그고 마차를 잡아 섬들로 가서 저녁을 보낼 겁니다. 자, 자, 그래도 나를 따라오시겠습니까?」

「 내가 당신 집에 가는 것은 당신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소피야 세묘노브나를 보러 가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지 못한 것을 사과하려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소피야 세묘노브나는 집에 없습니다. 그 아가씨는 아이 셋을 데리고 어느 지체 높은 노부인에게 갔습니다, 고아원 몇 곳의 후원자인데 내가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지요. 나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아이 셋을 돌볼 돈을 그 노부인에게 맡기고 그 시설에도 기부를 해서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소피야 세묘노브나의 사연도 하나 숨기지 않고 낱낱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야 세묘노브나가 오늘 그분이 별장에서 나와 잠시 묵고 계신 X 호텔로 오라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야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같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당신이 나를 의심스럽게 보는 것은 바로 내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굴며 지금껏 당신에게 캐묻는 일로 성가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는 유별나게 보인 것이지요.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 조심스럽게 굴고 볼 일이지요!」

「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법도요!」

「아, 그거였군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웃었다. 「그렇지요,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당신이 그것을 그냥 지나쳤다면 나야말로 놀랐을 겁니다. 하하! 당신이 벌여 놓고 소피야 세묘노브나에게 이야기하던 그 장난을 얼마쯤 알아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어쩌면 내가 시대에 아주 뒤떨어져서 알아듣지 못하는지도 모르겠군요. 제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젊은 양반. 최신 이론을 펼쳐 보이시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들었을 리 없습니다. 죄다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무언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아니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자꾸 한숨을 쉬고 신음하는 그 모양새이니, 당신 속의 실러가 시시각각 들고일어나는데 이제 와서는 나더러 문에 귀를 대지 말라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가서 관청에 이런 낭패를 보았다고 알리십시오, 당신 이론에 자그마한 잘못이 하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문에 귀를 대서는 안 되지만 노파들쯤은 손에 잡히는 아무것으로나 마음 내키는 대로 까부숴도 된다고 확신하신다면, 아메리카로 떠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것도 서둘러서요. 달아나십시오, 젊은이! 아직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뱃삯은 내가 드리지요.」

「나는 그런 건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역겨워하며 말을 잘랐다.

「알겠습니다(그러나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들을 나는 압니다 — 도덕 문제들이지요? 시민과 인간의 의무 말입니다. 그런 건 죄다 치워

버리십시오. 이제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헤헤! 당신은 그래도 자기가 인간이고 시민이라고 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말려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게 맞지 않는 일을 떠맡아 봤자 소용없는 법이지요. 자, 차라리 총으로 자신을 쏘시지요, 아니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성나게 해서 떼어 놓으려는 모양이군요.」

「참 별난 분이군요! 아무튼 다 왔습니다. 계단으로 오르시지요. 보십시오, 저쪽이 소피야 세묘노브나에게 가는 길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 말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카페르나우모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가씨는 열쇠를 그 사람한테 맡겨 둡니다. 마침 마담 드 카페르나우모프가 여기 있군요. 어이, 뭐라고요? 저 여자는 귀가 좀 먹었습니다. 나갔다고요? 어디로요? 들으셨습니까? 집에 없고 아마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자, 내 방으로 오시지요. 나를 보러 오고 싶으셨던 것 아닙니까? 자, 여깁니다. 레슬리히 부인은 집에 없습니다. 늘 바쁜 여자지요, 장담하는데 훌륭한 여자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사리를 아셨다면 그 여자가 쓸모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자, 보십시오! 서랍장에서 이 5푼짜리 공채를 꺼냅니다 — 내가 아직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보시지요 — 이건 오늘 현금으로 바꿀 겁니다. 더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군요. 서랍장을 잠그고, 셋집을 잠그고, 자, 다시 계단으로 나왔습니다. 마차를 잡을까요? 나는 섬들로 갑니다. 태워 드릴까요? 이 마차를 잡아 옐라긴섬으로 가겠습니다. 아, 싫으십니까? 이제 지겨우신 게지요! 한번 타 보시지요!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덮개를 내리면 되니까요…….」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이미 마차에 올라타 있었고, 라스콜니코프는 적어도 이 순간에는 제 의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건초 시장 쪽으로 걸어갔다. 가는 길에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았더라면,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백 걸음도 못 가서 마차에서 내려

삯을 치르고 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섰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격렬한 역겨움이 그를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서 떼어 놓았다.

「 저 상스러운 악한, 저 음탕한 난봉꾼이자 비열한 놈한테서 한순간이나마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었다니! 」 그가 저도 모르게 외쳤다.

라스콜니코프의 판단은 너무 가볍고 성급하게 내려진 것이었으니,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는 신비롭다고까지는 못 해도 적어도 얼마간 독특한 인물로 그를 만들어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누이에 관한 한, 라스콜니코프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녀를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을 두고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지겹고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혼자가 되자 스무 걸음도 가지 않아 그는 여느 때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버렸다. 다리 위에서 그는 난간 곁에 서서 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바로 곁에 서 있었다.

그는 다리 어귀에서 그녀와 마주쳤으나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 두냐는 길에서 오라버니를 이런 모습으로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크게 놀라 걸음을 멈추었고, 그를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별안간 그녀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건초 시장 쪽에서 빠르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남몰래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듯했으니, 다리 위로 올라서지는 않고 보도 한쪽에 비켜서서 라스콜니코프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두냐를 지켜보며 그녀에게 손짓을 보내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오라버니에게 말을 걸지 말고 제게로 오라고 청하는 손짓을 하고 있다고 여겼다.

두냐는 그대로 했다. 그녀는 오라버니 곁을 살그머니 지나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 다가갔다.

「어서 자리를 뜹시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로지온 로마노비치가 우리 만남을 아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나는 바로 저 앞 음식점에서 그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가 나를 찾아와 나는 그를 떼어 놓느라 몹시 애를 먹었으며, 그는 내가 당신에게 보낸 편지를 어떻게든 알아내고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말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겠습니까?」

「자, 이제 모퉁이를 돌았으니」 두냐가 말을 잘랐다. 「오라버니는 우리를 보지 못해요. 당신하고 더 멀리 가지는 않겠다는 것을 말해 두어야겠군요. 여기서 말하세요. 거리에서도 다 말할 수 있잖아요.」

「 첫째로, 거리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소피야 세묘노브나도 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당신에게 보여 드릴 서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와 함께 가는 데 동의하지 않으시겠다면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당장 가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아주 기묘한 비밀 하나가 온전히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냐는 망설이며 걸음을 멈추고 꿰뚫어 보는 눈으로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바라보았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도시는 시골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도 당신이 나에게 끼친 해가 내가 당신에게 끼친 해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야……」

「소피야 세묘노브나에게 미리 말해 두었나요?」

「아니요, 그 아가씨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지금 집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중팔구 있을 겁니다. 오늘 친척을 묻었으니

그런 날에 남의 집을 다닐 것 같지는 않군요. 당분간 나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당신에게 말한 것조차 반쯤 후회하고 있으니, 이런 일에서는 아주 사소한 경솔함도 밀고나 다름없지요. 나는 저 집에 삽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 수위입니다 — 나를 아주 잘 알지요. 보십시오, 인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숙녀와 함께 오는 것을 보았고 벌써 당신 얼굴도 눈여겨보았을 것이 틀림없으니, 나를 두려워하고 의심하신다면 그편이 반가우실 겁니다. 이렇게 거칠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집을 혼자 쓰지 않습니다. 소피야 세묘노브나의 방은 내 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 그 아가씨도 세 들어 삽니다. 이 층 전체가 세를 놓은 방들이지요. 어찌하여 어린아이처럼 겁을 내십니까? 내가 정말 그토록 무섭습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입술이 너그럽게 봐주는 듯한 미소로 비틀렸으나, 그는 조금도 웃을 기분이 아니었으니, 심장이 마구 뛰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점점 커지는 흥분을 감추려고 목소리를 꽤 높였다. 그러나 두냐는 이 유별난 흥분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어린아이처럼 그를 겁내고 그가 그토록 무섭게 느껴진다는 그 말에 몹시 부아가 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나는 당신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앞장서세요.」 그녀는 겉으로는 침착하게 말했으나 얼굴은 몹시 창백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소냐의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집에 있는지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없군요. 안된 일입니다! 그러나 곧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갔다면 고아들 일로 어떤 부인을 만나러 간 것뿐일 테지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내가 끼어들어 이런저런 마련을 해 주었지요. 소피야 세묘노브나가 십 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원하신다면 오늘

안으로 그 아가씨를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여기가 내 셋집입니다. 이 방 둘이 내 방이고요. 집주인인 레슬리히 부인이 옆방을 씁니다. 자, 이쪽을 보십시오. 내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 침실에서 난 이 문은 텅 빈 방 둘로 이어지는데, 세를 놓는 방들입니다. 여기 있군요……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가구가 딸린 꽤 널찍한 방 둘을 쓰고 있었는데, 두냐는 미심쩍은 눈으로 둘레를 살폈으나 가구에서도 방의 위치에서도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이 있기는 했으니, 이를테면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셋집이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두 셋집 사이에 정확히 끼어 있다는 점이었고, 그의 방들은 복도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여자의 거의 텅 빈 방 둘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침실에서 난, 열쇠로 잠가 둔 문을 따고 세를 놓는 그 빈방 둘을 두냐에게 보여 주었고, 두냐는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문간에 멈춰 섰으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서둘러 설명했다.

「여기, 이 둘째 큰 방을 보십시오. 저 문을 눈여겨보시지요, 잠겨 있습니다. 문 옆에 의자가 하나 서 있는데, 이 방 둘을 통틀어 하나뿐인 의자로 더 편하게 엿들으려고 내 방에서 가져온 것이고, 저 문 바로 맞은편이 소피야 세묘노브나의 탁자입니다. 그 아가씨는 거기 앉아 로지온 로마노비치와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나는 여기 앉아 이틀 저녁을 잇달아, 그때마다 두 시간씩 엿들었습니다 — 그러니 물론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엿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엿들었습니다. 이제 내 방으로 돌아가시지요. 여기서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제 거실로 데려와 의자를 권했다. 그는 탁자 맞은편에, 그녀에게서 적어도 7피트[1]는 떨어져 앉았으나, 아마도 그의 눈에는 언젠가 두냐를 그토록 겁나게 했던 그 불길이 그대로 타오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몸을 떨었고 다시 한번 미심쩍은 눈으로 둘레를 살폈는데, 그것은 저도 모르게 나온 몸짓이었으니 그녀는 제 불안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셋집이 외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별안간 그녀의 마음을 쳤다. 그녀는 적어도 집주인 여자는 집에 있는지 묻고 싶었으나 자존심이 물음을 막았고, 게다가 그녀의 가슴에는 제 몸에 대한 두려움과는 견줄 수 없이 큰 다른 괴로움이 있었다. 그녀는 크나큰 고통 속에 있었다.

「당신 편지입니다.」 그녀가 편지를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쓰신 것이 사실일 수 있나요? 당신은 내 오라버니가 저질렀다는 범죄를 넌지시 말하고 있어요. 너무 또렷하게 넌지시 말하고 있으니 이제 와서 부인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말해 두는데 나는 당신이 쓰기 전에도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한마디도 믿지 않아요. 역겹고 우스꽝스러운 의심이에요. 나는 그 이야기가 왜,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아요. 당신에게는 아무 증거도 있을 수 없어요. 증명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말하세요! 그러나 미리 일러 두는데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두냐는 이 말을 서둘러 내뱉었고, 한순간 얼굴에 피가 몰렸다.

「 믿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혼자서 내 방에 오는 위험을 무릅쓰셨습니까? 어째서 오셨습니까? 그저 호기심에서입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당신이 용감한 아가씨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군요. 정말이지 나는 당신이 라주미힌 씨에게 여기까지 바래다 달라고 청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그는 당신과 함께 있지도 가까이 있지도 않더군요, 나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개 있는 일이지요, 로지온 로마노비치를 아끼려 하셨다는 뜻이니까요. 하기야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거룩하지요……. 당신 오라버니 일이라면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방금 당신 눈으로 그를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마 그것 하나에 기대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말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는 이틀 저녁을 잇달아 소피야 세묘노브나를 보러 여기 왔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 앉았는지는 보여 드렸지요. 그는 그 아가씨에게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그가 직접 물건을 잡히곤 하던 관리 미망인인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였고, 그 노파의 동생도 죽였는데, 리자베타라는 행상 여자로 그가 언니를 죽이고 있을 때 마침 들어왔던 겁니다. 그는 가지고 간 도끼로 둘을 죽였습니다. 털려고 죽였고 실제로 털었습니다. 돈과 이런저런 물건을 가져갔지요……. 그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 한마디 소피야 세묘노브나에게 말했고, 그 아가씨가 그의 비밀을 아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가씨는 그 살인에 말로도 행동으로도 한몫하지 않았고 지금의 당신만큼이나 그 일에 몸서리쳤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가씨는 그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럴 리 없어요.」 두냐가 하얗게 질린 입술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그럴 리 없어요. 아주 작은 까닭도, 어떤 근거도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가 노파를 털었다는 것, 그것이 까닭입니다. 그는 돈과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를 그 돈이나 물건을 쓰지 않고 돌 밑에

감추었으며 지금도 거기 있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히 그것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오라버니가 어떻게 훔치고 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꿈엔들 생각할 수 있어요?」 두냐가 외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니, 당신은 그를 알고 그를 보았잖아요, 그가 도둑일 수 있나요?」

그녀는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 애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제 두려움을 아주 잊고 있었다.

「수천 수백만 가지 엇갈림과 있을 법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도둑은 훔치면서 제가 악당인 것을 압니다만, 나는 우편 행랑을 털어 연 신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 누가 알겠습니까, 그자는 십중팔구 제가 신사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겠지요! 물론 당신처럼 남에게서 전해 들었다면 나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귀를 믿습니다. 그는 그 모든 까닭도 소피야 세묘노브나에게 설명했는데, 그 아가씨는 처음에는 제 귀를 믿지 못했으나 끝내 제 눈을, 제 두 눈을 믿었습니다. 그가 직접 제 입으로 그 아가씨에게 말해 주었으니까요.」

「무슨…… 까닭이었나요?」

「 긴 이야기입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 그저 그런 이론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나도 주된 목적이 옳다면 나쁜 짓 하나쯤은 괜찮다고 여기는 바로 그 이론 말입니다, 나쁜 짓 하나에 착한 일 수백 가지! 물론 재주 있고 자존심이 지나친 젊은이로서는, 가령 보잘것없는 삼천 루블만 있었더라도 제 앞길 전부가, 제 앞날 전부가 다르게 짜였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삼천 루블이 없다는 것이 속 쓰린 일이기도 하지요. 거기에 굶주림에서 오는, 굴 같은 방에서 사는 데서 오는, 누더기에서 오는, 제 사회적 처지와

누이와 어머니의 처지가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생생히 느끼는 데서 오는 신경질까지 보태십시오. 무엇보다도 허영, 자존심과 허영이지요, 하기야 그에게 좋은 점도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그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부디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게다가 내 일도 아니고요. 자그마한 이론 하나가 끼어들기도 했지요 — 그저 그런 이론 하나가 —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재료와 특별한 사람으로 나누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제 높은 처지 덕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그 재료를, 그 쓰레기를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들 말이지요. 이론으로야 나무랄 데 없습니다, une théorie comme une autre[2]. 나폴레옹이 그를 엄청나게 끌어당겼는데, 그러니까 그를 사로잡은 것은 수많은 천재들이 나쁜 짓 하나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저 자신도 천재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론은 만들 수 있었으나 생각 없이 넘을 수는 없었고 그러므로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는 젊은이에게는 굴욕스러운 일이지요,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그렇지만 뉘우침은요? 그럼 당신은 그에게 도덕적인 감정이 조금도 없다는 건가요? 그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요즘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하기야 전에도 그리 질서가 잡혀 있던 적은 없지요. 러시아 사람은 대체로 생각이 넓습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제 땅처럼 넓고 기괴한 것과 어지러운 것에 지나치게 기울지요, 그러나 특별한 천재성 없이 넓기만 한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 둘이 저녁을 먹고 나서 테라스에 앉아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 당신은 그

넓은 것을 두고 나를 나무라시곤 했지요!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여기 누워 제 계획을 궁리하고 있던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도. 우리에게는 신성한 전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특히 배운 계층에는요, 기껏해야 누군가가 책에서든 낡은 연대기에서든 제 나름대로 그것을 지어내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학자들이고 죄다 고리타분한 늙은이들이라, 사교계 사람으로서는 거의 상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내 생각을 대체로 아시지요. 나는 누구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끈질기게 지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에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요. 나는 내 생각으로 당신의 관심을 끄는 행운까지 누렸습니다……. 아주 창백하시군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나는 그의 이론을 알아요.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람들에 관한 그 글을 읽었어요. 라주미힌이 가져다주었지요.」

「라주미힌 씨가요? 당신 오라버니의 글이요? 잡지에요? 그런 글이 있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재미있겠군요. 그런데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소피야 세묘노브나를 만나고 싶어요.」 두냐가 가냘프게 말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지요? 돌아왔는지도 모르잖아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는 말을 맺지 못했다. 그야말로 숨이 끊길 듯했다.

「소피야 세묘노브나는 밤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봅니다. 곧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다면 아주 늦어서야 들어올 겁니다.」

「아, 그럼 너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알겠어…… 너는 거짓말을 했어…… 내내 거짓말만 했어……. 난 너를 믿지 않아! 믿지 않아!」

두냐가 완전히 얼이 빠져 외쳤다.

그녀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어,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서둘러 내준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왜 이러십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좀 마시십시오…….」

그는 그녀에게 물을 뿌렸다. 두냐는 몸을 떨며 정신을 차렸다.

「세게 들었군.」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얼굴을 찌푸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진정하십시오! 내 말을 믿으십시오, 그에게는 벗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구할 겁니다. 내가 그를 외국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십니까? 나에게는 돈이 있고, 사흘이면 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으로 말하자면, 그는 앞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온갖 좋은 일을 할 겁니다. 진정하십시오. 그는 아직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잔인한 사람! 이런 일을 두고 비웃을 수 있다니! 놓아 주세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에게로요. 그가 어디 있지요? 아세요? 이 문은 왜 잠겨 있어요? 우리는 저 문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잠겨 있어요. 언제 잠근 거지요?」

「이런 일을 두고 온 집 안이 들리도록 소리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나는 비웃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 진력이 났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꼴로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를 내주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그를 미쳐 날뛰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는 제 발로 자수할 테니, 말씀드리는데 그는 이미 감시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벌써 그의 뒤를 밟고 있어요. 당신은 그저 그를 내주는 꼴이 될 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는 방금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직 구할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앉으십시오. 함께 궁리해 봅시다. 당신과 단둘이 이 일을 의논하고 찬찬히 따져 보려고 들어오시라 한 겁니다. 그러니 앉으십시오!」

「어떻게 그를 구할 수 있어요? 정말 구할 수 있나요?」

두냐가 앉았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녀 곁에 앉았다.

「모두 당신에게, 당신에게, 오직 당신 한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가 눈을 빛내며, 거의 속삭이듯, 북받쳐서 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며 입을 열었다.

두냐는 놀라 그에게서 물러났다. 그 역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당신이…… 당신 말 한마디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나…… 내가 그를 구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있고 벗들이 있습니다. 그를 당장 멀리 보내겠습니다. 여권을 구하겠습니다, 여권 두 장을, 하나는 그를 위해 하나는 나를 위해. 나에게는 벗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지요……. 원하신다면 당신 여권도 구하겠습니다…… 어머님 것도……. 라주미힌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옷자락에 입 맞추게 해 주십시오, 그러게 해 주십시오, 그러게 해 주십시오……. 그 옷 스치는 소리만으로도 나에게는 벅찹니다. 『그렇게 하라』 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나도 믿겠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를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거의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별안간 그의 머리로 치솟은 듯했다. 두냐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열어요! 열어요!」 그녀가 문을 흔들며 외쳤다. 「열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일어서서 정신을 차렸다. 아직 떨리고 있던 그의 입술이 천천히 성난 비웃음으로 벌어졌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힘주어 말했다. 「집주인 여자는 나갔고, 그렇게 소리쳐 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공연히 스스로를 들볶고 계실 뿐이지요.」

「열쇠는 어디 있어? 당장, 당장 문을 열어, 비열한 인간!」

「열쇠를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군요.」

「아! 이건 폭행이야!」 두냐가 죽은 사람처럼 하얘져서 외쳤다. 그녀는 가장 먼 구석으로 달려가 조그만 탁자로 서둘러 제 앞을 막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 저를 괴롭히는 자에게 눈을 박은 채 그의 몸짓 하나하나를 지켜보았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방 저쪽 끝에 그녀를 마주하고 선 채 있었다. 그는 적어도 겉으로는 확실히 침착했으나 얼굴은 전과 같이 창백했다. 비웃는 미소는 그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방금 폭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그렇다면 내가 손을 써 두었다는 것도 알아 두셔야겠군요. 소피야 세묘노브나는 집에 없습니다. 카페르나우모프네는 멀리 떨어져 있고 — 그 사이에 잠긴 방이 다섯입니다. 나는 적어도 당신보다 갑절은 힘이 세고, 게다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하소연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설마 정말로 오라버니를 내주실 생각은 아니겠지요? 게다가 아무도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처녀가 어찌하여 혼자 사는 사내의 셋집을 혼자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오라버니를 희생시킨다 해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니, 폭행을 증명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지요,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악당!」 두냐가 분에 차서 속삭였다.

「 마음대로 부르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저 일반론으로 말했을 뿐이라는 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당신이 더없이 옳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 폭력은 가증스러운 것이지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다만, 설령…… 내가 권해 드리는 대로 당신이 제 뜻으로 오라버니를 구하실 마음이 드신다 해도 뉘우칠 일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보여 드리려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형편에, 그러니까 굳이 그 말을 써야 한다면 폭력에 따르는 것이 될 테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버니와 어머님의 운명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평생토록……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두냐에게서 여덟 걸음쯤 떨어진 소파에 앉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그의 굽힐 줄 모르는 결심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그를 알고 있었다. 별안간 그녀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공이를 당기고는 손에 쥔 채로 탁자 위에 놓았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벌떡 일어섰다.

「아하! 그런 거였군요?」 그가 놀라면서도 짓궂게 웃으며 외쳤다. 「자, 그러면 일의 모양새가 아주 달라지는군요. 당신은 내 일을 놀랍도록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그런데 그 권총은 어디서 났습니까? 라주미힌 씨한테서요? 아니, 이건 내 권총이군요, 옛 친구 아닙니까! 이걸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시골에서 내가 가르쳐 드린 사격 수업이 헛되지 않았군요.」

「네 권총이 아니야, 네가 죽인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것이었어, 이 악한! 그 집에 네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네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 인간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 내가 가졌어. 한 걸음이라도 다가와 봐, 맹세코 너를 죽일 테니.」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럼 오라버니는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 자리에 선 채 말했다.

「밀고하고 싶으면 해! 꼼짝 마! 움직이지 마! 쏠 거야! 네가 아내를 독살했다는 걸 나는 알아, 너야말로 살인자야!……」 그녀는 권총을 겨눈 채 있었다.

「내가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독살했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너야! 네 입으로 넌지시 말했잖아. 나한테 독 이야기를 했잖아……. 네가 그걸 구하러 갔다는 걸 나는 알아…… 마련해 두었다는 것도……. 틀림없이 너야……. 비열한 놈!」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너 때문이었겠지…… 어쨌든 네가 그 까닭이었을 테니까.」

「거짓말! 난 너를 언제나, 언제나 미워했어…….」

「오호,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 당신이 그 선전에 열을 올리던 때 나에게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을 잊으신 모양이군요. 나는 그것을 당신 눈에서 보았습니다. 그 달빛 밝던 밤, 나이팅게일이 울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거짓말!」 두냐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다. 「거짓말이야, 이 모함꾼!」

「거짓말이라고요? 뭐, 좋으실 대로, 거짓말이지요. 내가 지어냈습니다. 여자에게 그런 일을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그가 미소 지었다. 「네가 쏘리라는 건 알아, 이 어여쁜 들짐승아. 자, 쏴!」

두냐는 권총을 들어 올리고,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진 채 거리를 가늠하고 그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아랫입술은 핏기 없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고 커다란 검은 눈은 불길처럼 타올랐으니, 그는 그녀가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태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권총을 들어 올리던 순간 그 눈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그에게 옮아붙는 듯했고, 그의 가슴에는 찌르는 듯한 아픔이 지나갔다.

그가 한 걸음 내디뎠고 총소리가 울렸다. 총알은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뒤쪽 벽으로 날아갔다. 그는 꼼짝 않고 선 채 나직이 웃었다.

「 말벌이 나를 쏘았군. 곧장 내 머리를 겨누다니. 이게 뭐지? 피인가?」 그는 손수건을 꺼내 오른쪽 관자놀이를 타고 가늘게 흐르는 피를 닦았다. 총알은 살갗만 겨우 스친 듯했다.

두냐는 권총을 내리고, 두려움이라기보다 일종의 얼빠진 놀라움에 잠겨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 자, 빗나갔습니다! 다시 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여전히 미소를 띠고, 그러나 음울하게 나직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당신이 다시 공이를 당기기 전에 내가 당신을 붙잡을 틈이 생길 겁니다.」

두냐는 흠칫하더니 재빨리 공이를 당기고 다시 권총을 들어 올렸다.

「나를 내버려 둬요.」 그녀가 절망에 차서 외쳤다. 「맹세코 다시 쏘겠어요. 나는…… 당신을 죽이겠어요.」

「 자…… 세 걸음이면 죽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죽이지 못하신다면…… 그때는……」 그의 눈이 번뜩였고 그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두냐가 다시 쏘았으나 불발이었다.

「 장전을 허술하게 하셨군요. 괜찮습니다! 아직 뇌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잡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마주 서서, 열에 들뜬 듯 간절하고 고집스럽게 굳어진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사납게 마음을 다잡고 기다렸다. 두냐는 그가 저를 놓아주느니 차라리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녀는 그를 죽일 것이다, 두 걸음 앞에서!」 별안간 그녀가 권총을 던져 버렸다.

「던져 버렸군!」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놀라며 말하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무거운 것이 그의 가슴에서 굴러떨어진 듯했으니 —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 그 순간 그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니, 그것은 그 자신도 무어라 규정하지 못했을, 더 어둡고 더 쓰라린 다른 감정에서 풀려난 것이었다.

그는 두냐에게 다가가 가만히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았다.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으나 나뭇잎처럼 떨면서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를 내지 못했다.

「놓아 줘!」 두냐가 애원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몸을 떨었다. 그 반말은 아까의 반말과는 어딘지 다르게 들렸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가 나직이 물었다. 두냐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그럴 수 없는 거야?…… 영영?」 그가 절망 속에 속삭였다.

「영영!」 두냐가 속삭였다.

스비드리가일로프의 가슴속에서 무섭고 말 없는 싸움이 한순간 이어졌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별안간 그는 팔을 거두고 빠르게 창 쪽으로 돌아서서 창을 마주하고 섰다. 또 한순간이 지나갔다.

「열쇠입니다.」

그는 그것을 외투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 돌아서지도 두냐를 보지도 않고 등 뒤의 탁자 위에 놓았다.

「가져가십시오! 어서!」

그는 고집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두냐는 열쇠를 집으러 탁자로 다가갔다.

「어서! 어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여전히 돌아서지도 움직이지도 않은 채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 「어서」라는 말의 어조에는 무시무시한 뜻이 실려 있는 듯했다.

두냐는 그것을 알아듣고 열쇠를 낚아채어 문으로 달려가 재빨리 문을 열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잠시 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닌 채 X 다리 쪽으로 운하 기슭을 달려 나갔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삼 분 동안 창가에 선 채 있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둘레를 둘러보고 이마 위로 손을 쓸어내렸는데, 기이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으니, 가엾고 슬프고 힘없는 미소, 절망의 미소였다. 이미 말라 가던 피가 그의 손에 묻었다. 그는 성난 눈으로 그것을 보더니 수건을 적셔 관자놀이를 씻었다. 두냐가 던져 버린 권총이 문가에 놓여 있다가 별안간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그것을 집어 들어 살펴보았으니, 총열이 셋인 구식 소형 권총으로 아직 두 발과 뇌관 하나가 남아 있었다. 한 번 더 쏠 수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모자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갔다.

---

1. 7피트 — 약 213센티미터.

2. une théorie comme une autre — (프랑스어) 그저 그런 이론 하나, 여느 이론이나 매한가지.

6부 6장

그는 그날 저녁 열 시까지 이 싸구려 술집에서 저 싸구려 술집으로 옮겨 다니며 보냈다. 카탸도 어디선가 나타나 또 하나 하인 방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악당이자 폭군이」

「카탸에게 입 맞추기 시작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카탸와 손풍금 타는 사내와 가수 몇 명과 급사들과 말단 관리 둘에게 술을 샀다. 그가 이 관리들에게 각별히 끌린 것은 둘 다 코가 비뚤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굽었고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굽어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그를 유원지로 데려갔고, 그는 그들의 입장료를 냈다. 그 유원지에는 비쩍 마른 삼 년생 전나무 한 그루와 덤불 세 무더기가 있었고, 그 밖에 「복스홀」[1]이 하나 있었는데 실상은 차도 파는 술집이었으며, 그 둘레에 초록색 탁자와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다. 형편없는 가수들의 합창과, 뮌헨에서 온, 술에 취했으나 지독히 침울한, 코가 빨간 독일인 광대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었다. 관리들은 다른 관리 몇과 시비가 붙어 금세 주먹다짐이 벌어질 듯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 시비를 가릴 사람으로 뽑혔다. 그는 십오 분 동안 그들의 말을 들었으나, 그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러 대는지 알아들을 길이 없었다. 확실해 보이는 사실은 하나뿐이었다 —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를 훔쳤고 그 자리에서 어느 유대인에게 팔아치우기까지 했는데, 그 몫을 동무와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밝혀진바 훔친 물건은 복스홀의 찻숟가락이었다. 없어진 것이 발각되어 일이 성가시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숟가락 값을 물어 주고 일어나 유원지를 걸어 나왔다. 열 시쯤이었다. 그동안 내내 그는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차를 시킨 것도 무엇보다 남 보기 때문이었다.

어둡고 숨 막히는 저녁이었다. 열 시쯤 하늘에 험악한 먹구름이 몰려왔다. 천둥이 한 번 울리더니 비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물은 방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되어 땅을 두들겼다. 번개가 시시각각 번쩍였고, 한 번 번쩍일 때마다 다섯을 셀 만큼 오래갔다.

살갗까지 흠뻑 젖은 채 그는 집으로 가 문을 잠그고 들어앉아, 책상을 열고 돈을 모두 꺼낸 뒤 서류 두어 장을 찢었다. 그러고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옷을 갈아입으려 했으나, 창밖을 내다보고 천둥과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만두고, 모자를 집어 들고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방을 나섰다. 그는 곧장 소냐에게로 갔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카페르나우모프네 아이 넷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차를 먹이던 참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공손하게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맞으며 그의 흠뻑 젖은 옷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저마다 냉큼 달아나 버렸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탁자 앞에 앉아 소냐에게 곁에 앉으라고 청했다. 그녀는 겁먹은 듯 들을 채비를 했다.

「나는 아메리카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피야 세묘노브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말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을 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 몇 가지 정리를 해 두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인을 만났지요? 그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냐가 움찔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는 제 나름의 방식이 있지요. 당신 여동생들과 남동생 일이라면, 그 아이들은 정말로 앞이 마련되었고, 그 앞으로 떼어 둔 돈은 내가 안전한 데 맡겨 두고 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 증서는 당신이 맡아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자 그럼, 그건 정해졌습니다. 여기 3000루블어치 5푼 이자 채권[2] 석 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둘만의 것으로 엄히 해 두어, 당신이 무슨 소리를 듣든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돈이 필요할 겁니다. 예전처럼 계속 살아가는 것은, 소피야 세묘노브나, 좋지 않고, 게다가 이제는 그럴 까닭도 없으니까요.」

「 저는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이들도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요.」 소냐가 서둘러 말했다. 「그러니 제가 여태 감사를 그토록 적게 드렸다면…… 부디 그렇게 여기지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은,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밥벌이는 언제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정을 베푸실 것이라면, 그 돈은…….」

「이건 당신 것입니다, 당신 것입니다, 소피야 세묘노브나, 그러니 그 일로 말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럴 틈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할 겁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에게는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 머리에 총알 한 방이거나, 시베리아거나. 」 (소냐가 사납게 그를 쳐다보며 흠칫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람 입으로 다 들었고 수다쟁이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수해서 자백하라고 당신이 그에게 한 말은 좋은 충고였습니다. 그에게는 그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시베리아로 정해지면 그는 갈 것이고 당신은 그를

따라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를 위해 필요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주는 것은 내가 그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아말리아 이바노브나에게 밀린 것을 갚겠다고 약속했지요. 내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빚을 그리 생각 없이 떠맡을 수 있습니까, 소피야 세묘노브나? 그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빚이지 당신 빚이 아니었으니, 그 독일 여자를 거들떠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에 대해 묻거든 — 내일이나 모레쯤 물어 올 겁니다 — 내가 지금 당신을 찾아온 일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돈도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가 일어섰다.) 「로지온 로마노비치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그건 그렇고, 그 돈은 당분간 라주미힌 씨에게 맡겨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라주미힌 씨를 아시지요? 물론 아실 겁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가져다주거나…… 때가 되거든 가져다주십시오. 그때까지는 잘 감추어 두시고요.」

소냐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당황한 얼굴로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을 하고 싶었고 무언가 묻고 싶었으나, 처음 얼마 동안은 엄두가 나지 않았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다.

「어떻게…… 이런 빗속에 어떻게 지금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아메리카로 떠나는 길인데 비에 발이 묶이다니! 헤헤! 안녕히 계십시오, 소피야 세묘노브나, 착한 사람! 오래오래 사십시오, 당신은 남들에게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라주미힌 씨에게 내가 안부를 전하더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안부를 전하더라고 말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는 나갔고, 소냐는 놀라고 겁에 질린 채, 무언가 어렴풋하고 무거운 의심에 싸여 남겨졌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같은 날 저녁 열한 시 이십 분에 그는 또 한 번 몹시 기이하고 뜻밖의 방문을 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다. 살갗까지 젖은 채 그는 바실리옙스키섬 3번가, 말리 대로 쪽에 있는, 약혼녀의 부모가 사는 작은 셋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을 열어 줄 때까지 한참을 두드려야 했고, 그의 방문은 처음에 큰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마음만 먹으면 몹시 사람을 끄는 데가 있었으므로, 분별 있는 부모가 처음에 세운, 실로 매우 영리한 짐작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아마도 술을 너무 마셔 제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리라는 짐작은 이내 사라져 버렸다. 다정하고 분별 있는 어머니가 몸이 마비된 아버지를 안락의자째 스비드리가일로프 앞으로 굴려 들어왔고,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이런저런 상관없는 물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결코 대놓고 묻는 법이 없었고, 늘 웃으며 두 손을 비비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무언가를 꼭 알아내야 할 때면 — 이를테면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혼례를 언제 치르고 싶어 하는지 같은 것 — 파리와 그곳 궁정 생활에 대한 흥미롭고 거의 열띤 물음부터 꺼내 놓고, 그러고 나서야 조금씩 이야기를 3번가 쪽으로 돌려 오는 것이었다. 다른 때 같으면 물론 이것은 아주 인상 깊은 솜씨였겠으나, 이번에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유난히 참을성이 없어 보였고, 약혼녀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을 처음부터 들었는데도 당장 만나야겠다고 우겼다. 처녀는 물론 나타났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대뜸 그녀에게, 아주 중대한 일이 있어 한동안 페테르부르크를 떠나야 하게 되었으므로 은화로 쳐서 1만 5000루블을 여러 가지 증권으로 가져왔으니 자기의 선물로 받아 달라고, 혼례 전에 이 하찮은 선물을 하려고 진작부터 마음먹고 있었노라고 알렸다. 그

선물과 당장의 출발 사이에 어떤 논리적 연관이 있는지, 그 일을 위해 한밤중 퍼붓는 빗속에 반드시 그들을 찾아와야 했던 까닭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로웠다. 으레 따르기 마련인 놀라움과 아쉬움의 탄성도, 으레 따르기 마련인 물음도 유별나게 적고 조심스러웠다. 대신 쏟아진 감사는 더없이 뜨거웠고, 더없이 분별 있는 어머니의 눈물이 거기에 힘을 보탰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일어나 웃고, 약혼녀에게 입을 맞추고, 뺨을 토닥이고,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서 아이 같은 호기심과 더불어 어딘가 간절한 말 없는 물음을 알아차리고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 번 더 입을 맞추었다. 자기 선물이 곧장 더없이 분별 있는 어머니의 보관함에 잠겨 버리리라는 생각에 속으로는 참으로 화가 났으면서도 그랬다. 그는 그들 모두를 유별난 흥분 속에 남겨 두고 떠났으나, 다정한 엄마는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조용히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의심 몇 가지를 정리해 주었다. 결론인즉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대단한 사람이고, 큰일과 큰 연줄과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니 — 그 속내야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은 마음 내키는 대로 여행을 떠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돈을 내주는 법이니 놀랄 것이 없다고 했다. 물론 흠뻑 젖어 있던 것은 이상하지만, 이를테면 영국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기이하고, 그런 상류 사회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두고 뭐라 하든 개의치 않으며 격식도 차리지 않는다고 했다. 어쩌면 정말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고 일부러 그 꼴로 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일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하느님만 아시는 노릇이며, 돈은 자물쇠를 채워 두어야 하고, 요리사 페도시야가 부엌을 뜨지 않고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협잡꾼 레슬리히에게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이

한없이 이어졌다. 그들은 두 시까지 앉아 소곤거렸으나, 처녀는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어리둥절하고 어딘가 서글픈 채로.

그러는 동안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정이 되자 정확히 X코프 다리를 건너 페테르부르크 구역 쪽으로 가고 있었다. 비는 그쳤고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몸을 떨기 시작했고, 한순간 각별한 흥미를 담은, 아니 묻는 듯한 눈길로 작은 네바의 검은 물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물가에 서 있자니 곧 몹시 추워졌다. 그는 돌아서서 Y 대로 쪽으로 갔다. 그는 그 끝없는 거리를 오래, 거의 반 시간을 걸었고, 어둠 속 나무 보도에서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발을 헛디뎠으나, 거리의 오른편에서 줄곧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요즈음 이 거리를 지나다니며 그는 끝 쪽 어딘가에 나무로 지었으나 제법 큰 여관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아 두었는데, 이름이 아드리아노플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기억은 틀리지 않았다. 그 여관은 하느님께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어찌나 눈에 띄는지 어둠 속에서도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길쭉하고 거뭇하게 바랜 나무 건물이었고, 늦은 시각인데도 창마다 불이 켜져 있고 안에 사람 기척이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복도에서 마주친 누더기를 걸친 사내에게 방을 달라고 했다. 사내는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정신을 차리고는 곧바로 복도 저 끝, 계단 밑에 있는 답답하고 조그만 방으로 그를 데려갔다. 다른 방은 없었고 모두 차 있었다. 누더기를 걸친 사내가 묻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차가 있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물었다.

「예, 있습니다, 나리.」

「그 밖에는 뭐가 있나?」

「송아지 고기, 보드카, 안주가 있습니다.」

「차하고 송아지 고기를 가져오게.」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십니까?」 사내가 정말 놀란 듯이 물었다.

「없네, 없어.」

누더기를 걸친 사내는 완전히 실망한 채 물러갔다.

「좋은 데인 모양이군.」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생각했다. 「어째서 여태 몰랐을까? 나는 아마 café chantant[3]에서 나와 오는 길에 무슨 일을 겪은 사람처럼 보이겠지. 여기 묵어 간 자들이 누구였는지 알면 재미있을 텐데?」

그는 초에 불을 붙이고 방을 좀 더 찬찬히 살폈다. 천장이 어찌나 낮은지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겨우 몸을 펴고 설 수 있을 만한 방이었다. 창은 하나였고, 몹시 더러운 침대와 싸구려 물감을 칠한 의자와 탁자가 방을 거의 다 메우고 있었다. 벽은 널빤지로 짠 듯했고 그 위에 값싼 벽지가 발려 있었는데, 어찌나 찢기고 먼지를 뒤집어썼는지 무늬는 분간할 수 없었으나 전체 빛깔이 — 노란색이라는 것은 —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다. 벽 하나는 비스듬히 내려온 천장에 잘려 있었으나, 그 방은 다락이 아니라 그저 계단 밑이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초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옆방에서 이따금 고함으로 치솟는 기이하고 끈질긴 웅얼거림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 웅얼거림은 그가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치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가 나무라고 있었고 거의 울먹이며 꾸짖고 있었으나, 들리는 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뿐이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일어나 손으로 불빛을 가렸고, 곧 벽 틈으로 새어 드는 빛을 보았다. 그는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제 방보다 조금 넓은 그 방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머리가 몹시 곱슬거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내로, 웃옷을 벗은 채 연설가의 자세로, 몸을 가누려고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서 제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는

상대를 거지라고, 관등 하나 없는 자라고 꾸짖었다. 자기가 저자를 진창에서 건져 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쫓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오직 섭리의 손가락뿐이라고 큰소리쳤다. 그 꾸지람을 받는 쪽은 의자에 앉아, 재채기가 몹시 하고 싶은데 나오지 않는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 양처럼 멍하고 흐리멍덩한 눈을 연설하는 쪽으로 돌렸으나, 저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눈곱만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고 듣고 있지도 않았다. 탁자 위에서는 초 한 자루가 다 타 가고 있었다. 포도주 잔들과 거의 빈 보드카 병과 빵과 오이와 식은 차 찌끼가 남은 잔들이 놓여 있었다. 이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심드렁하게 돌아서서 침대에 앉았다.

누더기를 걸친 심부름꾼이 차를 들고 돌아와서는 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또 한 번 묻지 않고는 못 배겼고, 다시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서야 마침내 물러갔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몸을 덥히려고 서둘러 차를 한 잔 마셨으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웃옷을 벗고 담요를 둘러쓴 채 침대에 누웠다. 짜증이 났다. 「이런 일에는 몸이 성한 편이 나았을 텐데.」 그는 웃으며 생각했다. 방은 답답했고 초는 흐릿하게 탔으며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고, 구석에서 생쥐가 긁는 소리가 들렸으며 방에서는 쥐 냄새와 가죽 냄새가 났다. 그는 일종의 몽상에 잠긴 채 누워 있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무언가 하나에 상상을 붙들어 매고 싶었다. 「창 밑이 뜰인 모양이군.」 그는 생각했다. 「나무 소리가 난다. 폭풍우 치는 밤에, 어둠 속에서 나는 나무 소리를 나는 어찌나 싫어하는지! 사람에게 끔찍한 기분을 준다.」 그는 조금 전 페트로프스키 공원을 지나올 때에도 그 소리가 싫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러자 작은 네바에 걸린 다리가 생각났고, 거기 서 있을 때처럼 다시 추워졌다. 「나는 물을 좋아해 본 적이 없다.」

그는 생각했다. 「풍경화 속의 물이라 해도.」 그러다 문득 기이한 생각이 떠올라 다시 웃었다. 「이제 와서 취향이니 안락이니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는가마는, 나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 그런 일을 치를…… 제 자리를 따로 고르는 짐승처럼. 페트로프스키 공원으로 갔어야 했다! 어둡고 춥다고 여겼던 게지, 헤헤! 마치 내가 유쾌한 기분이라도 찾는 사람인 양!…… 그런데, 왜 여태 초를 끄지 않았을까?」 그는 초를 불어 껐다. 「옆방은 잠자리에 들었군.」 벽 틈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생각했다. 「자, 이제, 마르파 페트로브나, 지금이 나타날 때요. 어둡고, 당신에게 꼭 맞는 때와 자리요. 그런데 이제는 오지 않겠지!」

문득 그는 두냐에게 품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한 시간 전에 라스콜니코프에게 그녀를 라주미힌에게 맡기라고 권했던 일이 떠올랐다. 「라스콜니코프가 알아맞힌 대로,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을 놀리려고 그런 말을 했던 모양이다. 그건 그렇고 그 라스콜니코프라는 자는 어지간한 악당이다! 겪을 만큼 겪었지. 그 허튼소리를 떨쳐 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잘나가는 악당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그 점에서 그런 젊은 것들은 비루하다. 에잇, 그자야 어떻든! 제멋대로 하라지,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그는 잠들 수가 없었다. 차츰 두냐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고, 몸에 전율이 훑고 지나갔다. 「아니, 이제 그건 다 그만두어야 한다.」 그는 몸을 추스르며 생각했다.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한다. 기이하고도 우스운 일이다. 나는 누구를 크게 미워해 본 적이 없고, 원수를 갚고 싶다고 특별히 바란 적조차 없으니, 그것이 나쁜 징조다, 나쁜 징조, 나쁜 징조. 나는 다투는 것도 좋아한 적이 없고 성을 내 본 적도 없다 — 그것도 나쁜 징조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여자에게 한 약속도 — 젠장!

그러나 — 누가 알겠는가? — 어쩌면 그 여자가 어떻게든 나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지도…….」

그는 이를 갈고 다시 입을 다물었다. 또다시 두냐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처음 방아쇠를 당긴 뒤 겁에 질려 권총을 내리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던 그때 그대로였다. 그가 일깨워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녀를 두 번이라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녀는 제 몸을 지키려 손 하나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순간 그녀가 거의 가엾게 여겨졌던 것을,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던 것을 그는 떠올렸다……

「아이! 젠장, 또 이 생각인가! 치워 버려야 한다!」

그는 선잠이 들고 있었다. 열에 들뜬 오한도 가셨는데, 갑자기 이불 밑에서 무언가가 팔과 다리 위를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흠칫했다. 「으! 제기랄! 생쥐인 모양이군.」 그는 생각했다. 「탁자에 남겨 둔 송아지 고기 때문이다.」 담요를 걷어차고 일어나 추위를 맞을 생각이 지독히도 나지 않았으나, 별안간 또 무언가 불쾌한 것이 다리 위를 지나갔다. 그는 담요를 걷고 초에 불을 붙였다. 열로 오한이 들어 몸을 떨면서 그는 허리를 굽혀 침대를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담요를 털자 별안간 생쥐 한 마리가 홑이불 위로 튀어나왔다. 그가 잡으려 했으나 생쥐는 침대를 떠나지 않은 채 갈지자로 이리저리 내달렸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손등을 타고 지나더니 별안간 베개 밑으로 쏙 들어갔다. 그가 베개를 내던지자,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위로 뛰어올라 몸을 타고 내달려 셔츠 속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몸서리치다가 잠에서 깼다.

방은 어두웠다. 그는 여전히 담요를 둘러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 밑에서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 역겹군. 」 그는 짜증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일어나 창을 등지고 침대틀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예 자지 않는 편이 낫다.」 그는 그렇게 정했다. 그러나 창에서 차고 눅눅한 바람이 새어 들었다. 그는 일어서지 않은 채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초는 켜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형상이 하나씩 잇달아 떠올랐고, 처음도 끝도 없는 조각난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는 졸음에 잠겨 들었다. 추위 탓인지, 눅눅함 탓인지, 어둠 탓인지, 아니면 창 밑에서 울부짖으며 나무들을 흔들어 대는 바람 탓인지, 환상을 향한 어떤 끈질긴 갈망이 일었다. 그는 자꾸만 꽃의 형상에 머물렀고, 아름다운 꽃밭을, 환하고 따뜻하다 못해 거의 더운 날을, 축일을 — 삼위일체 축일[4]을 그려 보았다. 영국식 취향으로 지은 훌륭하고 호사스러운 시골집이 향기로운 꽃에 덮여 있고, 꽃밭이 집을 빙 둘러 있었다. 덩굴로 뒤덮인 현관 둘레에는 장미 화단이 있었다. 값진 양탄자를 깐 밝고 서늘한 계단은 자기 화분에 심은 진귀한 화초로 꾸며져 있었다. 그는 특히 창가에서, 밝고 푸르고 굵고 긴 줄기 위로 고개를 숙인, 여리고 희고 짙은 향을 풍기는 수선화 다발들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그 앞을 떠나기가 아쉬웠으나 계단을 올라 크고 천장이 높은 응접실로 들어섰고, 그곳에도 온통 — 창가에도, 테라스로 열린 문가에도, 테라스 위에도 — 꽃이 있었다. 바닥에는 갓 베어 향기로운 풀이 깔려 있었고, 창은 열려 있었으며, 신선하고 서늘하고 가벼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창 밑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 흰 공단 수의로 덮인 탁자 위에 관이 하나 놓여 있었다. 관은 흰 비단으로 덮이고 도톰한 흰 주름 장식이 둘려 있었으며, 사방을 꽃다발이 에워싸고 있었다. 꽃 속에 흰 망사 옷을 입은 처녀가 누워 있었다. 두 팔을 엇걸어 가슴에 얹은 모습이 대리석으로 깎아 놓은 것 같았다. 그러나 풀어 헤쳐진 금빛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머리에는 장미 화관이 얹혀 있었다. 엄하고

이미 굳어 버린 옆얼굴도 대리석을 쪼아 만든 듯했고, 핏기 없는 입술에 떠오른 미소에는 아이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크나큰 비참함과 서러운 호소가 가득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 처녀를 알고 있었다. 관 곁에는 이콘도 없었고 켜 놓은 초도 없었으며 기도 소리도 없었다. 그 처녀는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던 것이다. 열넷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 마음은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죽였다. 그 아이 같은 영혼을 질겁하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한 모욕에, 천사 같은 순결을 까닭 없는 치욕으로 더럽히고 그녀에게서 마지막 절망의 비명을 쥐어짜 낸 모욕에 짓눌려서였다. 그 비명은 들어 주는 이 없이 뻔뻔스럽게 짓밟혔다, 바람이 울부짖던 어두운 밤에, 캄캄하고 추운, 눅눅한 해빙기에…….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정신을 차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으로 갔다. 그는 더듬어 걸쇠를 찾아 창을 열었다. 바람이 사납게 작은 방 안으로 몰아쳐 들어와, 셔츠 하나만 걸친 그의 얼굴과 가슴을 서리처럼 쏘았다. 창 밑은 뜰 같은 것이, 아마도 유원지인 듯했다. 그곳에도 낮에는 찻상이 놓이고 노래가 있을 것이었다. 지금은 나무와 덤불에서 빗방울이 창 안으로 날아들었다. 움 속처럼 어두워서 사물의 검은 얼룩만 간신히 분간할 수 있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창턱에 팔꿈치를 짚고 몸을 숙인 채 오 분 동안 어둠을 들여다보았고, 밤의 어둠 속에서 대포 소리가 한 번, 뒤이어 또 한 번 울렸다. 「아, 신호로군! 강물이 불어나고 있다.」 그는 생각했다. 「아침이면 낮은 동네에서는 거리로 소용돌이쳐 내려와 지하실과 움을 채울 것이다. 움에 사는 쥐들이 헤엄쳐 나올 테고, 사람들은 비바람 속에서 욕을 해 대며 세간을 위층으로 끌어 올리겠지. 지금 몇 시나 되었을까?」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디 가까운 데서 벽시계가 바삐 재깍거리다가 세 시를 쳤다.

「아하! 한 시간이면 날이 밝겠군! 뭘 기다리겠는가? 지금 당장 나가곧장 공원으로 가자. 거기서 비에 흠뻑 젖은 큰 덤불을 하나 고르는 거다. 어깨가 닿기만 해도 수백만 방울이 머리 위로 후드득 떨어지도록.」

그는 창에서 물러나 창을 닫고 초에 불을 붙이고 조끼와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썼다. 그러고는 초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초 동강과 온갖 쓰레기 틈 어디선가 잠들어 있을 누더기를 걸친 심부름꾼을 찾아 방값을 치르고 여관을 나갈 참이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이보다 나은 때는 고를 수 없다.」

그는 길고 좁은 복도를 한참 걸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고, 막 소리를 내어 부르려던 참에 낡은 찬장과 문 사이 어두운 구석에서 살아 있는 듯한 기이한 물체 하나를 언뜻 보았다. 그가 초를 들고 몸을 굽히자 다섯 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물에 젖은 걸레처럼 흠뻑 젖은 옷을 입고 떨며 울고 있었다. 아이는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았고, 커다란 검은 눈으로 멍하니 놀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이따금, 오래 울다가 이제 막 달래지기 시작한 아이들이 그러듯 흐느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고, 추위에 감각이 없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여기 숨어서 밤새 자지 못했던 모양이군.」 그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아이는 별안간 생기가 돌아 혀 짧은 소리로 재잘거렸는데, 「엄마」 이야기와 「엄마가 때린다」는 이야기와 자기가 「깨뜨려따」는 무슨 잔 이야기였다. 아이는 쉬지 않고 재잘거렸다. 아이의 말에서 그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었다. 아이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로, 아마 이 여관에서 일하는 술꾼 요리사일 어미가 아이를 때리고 겁을 주었다는 것, 아이가 어미의 잔을 깨뜨리고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어제 저녁에 달아나 한참 동안 밖에서 빗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마침내 이리로 들어와 찬장 뒤에 숨었고, 눅눅함과 어둠과 호되게 맞으리라는 무서움에 울며 떨며

밤을 새웠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를 안아 들고 제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히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양말도 신지 않은 발에 꿴 해진 신은 밤새 웅덩이에 담가 두었던 것처럼 젖어 있었다. 옷을 다 벗기자 그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덮어 주었으며, 머리끝에서부터 담요로 감싸 주었다. 아이는 곧바로 잠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음울한 생각에 잠겼다.

「공연히 수고를 했군.」 그는 짓누르는 듯한 짜증과 함께 별안간 그렇게 단정했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는 부아가 나서, 누더기를 걸친 심부름꾼을 다시 찾아 서둘러 떠나려고 초를 집어 들었다. 「망할 계집애!」 문을 열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아이가 잠들었는지 보려고 다시 돌아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들쳤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담요 밑에서 몸이 더워져 창백하던 뺨이 발그레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발그레함은 아이다운 장밋빛 뺨보다 더 짙고 더 거칠어 보였다. 「열이 올라 붉은 것이겠지.」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생각했다. 그것은 술기운으로 붉어진 것 같았다. 마치 아이에게 잔 가득 술을 먹이기라도 한 듯했다. 진홍빛 입술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문득 그에게는 아이의 길고 검은 속눈썹이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눈꺼풀이 열리고 능글맞고 교활한 눈이 아이답지 않게 찡긋하며 내다보는 듯했고, 마치 이 계집아이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는 척하고 있는 듯했다. 그렇다, 정말 그랬다. 아이의 입술이 벌어지며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떨렸다. 참아 보려 애쓰는 듯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애쓰기를 그만두었고, 이제 그것은 히죽거림이었으며, 한껏 벌어진 히죽거림이었다. 조금도 아이답지 않은 그 얼굴에는 뻔뻔하고 도발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음탕이었고, 창녀의 얼굴이었으며, 프랑스 창녀의 뻔뻔한 얼굴이었다. 이제 두 눈이 활짝 열렸고, 그 눈이 이글거리는 뻔뻔한 눈길을 그에게 돌렸으며, 눈이

웃었고, 그를 불렀다……. 그 웃음에, 그 눈에, 아이의 얼굴에 어린 그런 추악함에는 한없이 흉하고 소름 끼치는 무엇이 있었다. 「뭐야, 다섯 살짜리가?」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정말로 소름이 끼쳐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를 향해 돌아누웠다. 조그만 얼굴이 온통 달아오른 채 두 팔을 내밀고……. 「저주받을 계집애!」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아이를 치려고 손을 쳐들며 소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깼다.

그는 같은 침대에, 여전히 담요를 둘러쓴 채 있었다. 초에는 불이 붙어 있지 않았고, 창으로 아침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밤새 악몽에 시달렸군!」 그는 화가 나서 일어났다. 몸이 아주 부서진 것 같았고 뼈마디가 쑤셨다. 밖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의 다섯 시였다. 늦잠을 잔 것이다! 그는 일어나 아직 눅눅한 저고리와 외투를 입었다. 주머니에서 권총이 만져지자 그는 그것을 꺼내 뇌관을 바로잡고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어 속표지의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큼직한 글씨로 몇 줄을 적었다. 그것을 다시 읽어 보고 나서 그는 탁자에 팔꿈치를 짚고 생각에 잠겼다. 권총과 수첩이 그의 곁에 놓여 있었다. 파리 몇 마리가 깨어나, 아직 탁자에 그대로 있는 손도 대지 않은 송아지 고기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비어 있는 오른손으로 한 마리를 잡아 보려 들었다. 지칠 때까지 해 보았으나 잡지 못했다. 마침내 자기가 이 흥미로운 일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흠칫하더니, 일어나 단호하게 방을 걸어 나갔다. 일 분 뒤 그는 거리에 있었다.

젖빛의 짙은 안개가 도시 위에 걸려 있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미끄럽고 더러운 나무 보도를 따라 작은 네바 쪽으로 걸었다. 그는 밤새 불어난 작은 네바의 물과, 페트로프스키 섬과, 젖은 오솔길과, 젖은 풀과, 젖은 나무와 덤불을, 그리고 마침내 그 덤불을 그려 보고

있었다……. 그는 심사가 뒤틀린 채 집들을 노려보기 시작했다. 다른 것을 생각해 보려는 것이었다. 거리에는 마부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샛노란 나무로 지은 작은 집들은 덧문을 닫은 채 더럽고 풀 죽어 보였다. 추위와 눅눅함이 온몸에 스며들어 그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따금 가게 간판이 눈에 띄면 그는 하나하나 찬찬히 읽었다. 마침내 그는 나무 보도가 끝나는 데에 이르러 커다란 돌집 앞에 다다랐다. 더럽고 떨고 있는 개 한 마리가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아 넣은 채 그의 앞을 가로질렀다. 외투를 입은 사내 하나가 고주망태가 되어 보도를 가로질러 엎드려 있었다. 그는 그자를 보고 지나갔다. 왼편에 높은 소방 망루가 언뜻 보였다. 「허!」 그가 소리쳤다. 「여기가 자리로군. 굳이 페트로프스키일 까닭이 있나? 어차피 공식 증인이 보는 앞이 될 테니…….」

그는 이 새로운 생각에 하마터면 웃을 뻔하면서 망루가 있는 그 큰 집이 선 거리로 접어들었다. 굳게 닫힌 그 집의 큰 대문에, 회색 군인 외투를 걸치고 머리에 구리로 된 아킬레스 투구[5]를 쓴 작은 사내가 어깨를 문에 기대고 서 있었다. 그는 졸리고 심드렁한 눈길을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 던졌다. 그의 얼굴에는, 예외 없이 유대 인종의 모든 얼굴에 시큼하게 찍혀 있는 그 영원한 심통 사납고 풀 죽은 표정이 어려 있었다. 두 사람은, 스비드리가일로프와 아킬레스는, 몇 분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아킬레스에게는, 취하지도 않은 사람이 제게서 세 걸음 떨어진 데 서서 한마디도 없이 노려보고만 있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로 여겨졌다.

「아-니, 여기서 뭘 하려는 거요-오?」 그가 몸도 자세도 바꾸지 않은 채 말했다.

「 아무것도 아니오, 형제, 안녕하시오. 」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대답했다.

「여긴 그럴 자리가 아니오.」

「나는 외국에 가는 길이오, 형제.」

「외국에?」

「아메리카로.」

「아메리카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권총을 꺼내 공이치기를 젖혔다. 아킬레스가 눈썹을 치켜올렸다.

「아-니, 여긴 그런 쟝난(장난)을 할 자리가 아니오!」

「어째서 자리가 아니라는 거요?」

「아-니, 아니니까 아닌 거요.」

「뭐, 형제, 나는 상관없소. 좋은 자리요. 누가 묻거든 그저 이렇게 말하시오, 아메리카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

그는 권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

「 아-니, 여기서 그러면 안 되오, 여긴 그럴 자리가 아니오! 」 아킬레스가 정신이 번쩍 들어 소리쳤다. 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방아쇠를 당겼다.

---

1. 복스홀 — 저본이 인용부호로 싸서 남긴 낱말이다. 당시 러시아에서 вокзал은 유원지 안에 딸린 유흥·연주 시설을 가리켰고, 「역(驛)」이라는 오늘날의 뜻은 뒤에 붙었다.

2. 5푼 이자 채권 — 당시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던 연 5퍼센트 이자부 증권. 액면가대로 사고팔 수 있어 큰돈을 건네는 데 쓰였다.

3. café chantant — 프랑스어로 「노래가 있는 카페」. 손님이 술을 마시며 가수와 악단의 공연을 보던 곳이다.

4. 삼위일체 축일 — 정교회의 성삼위일체 주일. 부활절에서 쉰째 날에 드는 초여름 축일로, 이날에는 성당과 집 안을 푸른 가지와 갓 벤 풀로 덮어 꾸민다. 바로 뒤에 나오는 「갓 베어 향기로운 풀」이 그 풍습이다.

5. 아킬레스 투구 — 당시 러시아의 소방수와 건물 수위가 쓰던, 꼭대기에 볏이 달린 놋쇠 투구를 부르던 말. 고대 그리스 투구를 본떠 만든 모양이라 그렇게 불렸다.

6부 7장

같은 날 저녁 일곱 시쯤 라스콜니코프는 어머니와 누이가 묵고 있는 하숙으로, 라주미힌이 그들을 위해 찾아 준 바칼레예프의 집 그 하숙으로 가는 길이었다. 계단은 거리에서 곧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갈지 말지 여태 망설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발걸음을 질질 끌며 걸었으나, 무엇으로도 그를 되돌려 세우지는 못했을 것이니 그의 결심은 이미 서 있었다.

「게다가 아무래도 상관없다, 저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저들은 나를 별난 사람으로 여기는 데 익숙하니까.」

그의 옷차림은 끔찍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으며 밤새 맞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피로와 비바람과 몸의 탈진과 거의 스물네 시간에 걸친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거의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전날 밤을 내내 혼자서, 하느님이나 아실 어딘가에서 보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결심에 이르렀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열어 주었다. 두냐는 집에 없었다. 하녀까지도 마침 나가고 없었다. 처음에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기쁨과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고, 그러고는 그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왔구나!」 그녀가 기쁨에 겨워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로쟈야, 이렇게 어리석게 눈물로 너를 맞는다고 성내지 말려무나. 나는 우는 게 아니라 웃고 있단다. 내가 운다고 생각했니? 아니야, 나는 기뻐서

그런다. 다만 눈물을 흘리는 이 바보 같은 버릇이 들어 버렸구나.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줄곧 이렇다. 무슨 일에나 운다. 앉으렴, 얘야, 피곤하겠지. 보면 안다. 아이고, 온통 진흙투성이로구나.」

「어제 비를 맞았어요, 어머니…….」 라스콜니코프가 입을 열었다.

「아니다, 아니야.」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서둘러 말을 막았다. 「너는 내가 예전처럼 여편네답게 꼬치꼬치 캐물으려는 줄 알았겠지. 걱정 말려무나, 나는 안다, 나는 다 안다. 이제 나도 여기 사는 법을 배웠고 정말이지 그편이 낫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 나는 아주 마음을 정했으니, 내가 어떻게 네 계획을 알아듣고 네게 그 셈을 대라고 하겠니? 네게 무슨 걱정과 계획이 있는지, 네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야 하느님이나 아시겠고,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자꾸 네 팔꿈치를 찔러 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왜 미친 사람처럼 이리 왔다 갔다 하지……? 나는 잡지에 실린 네 글을 세 번째로 읽고 있단다, 로쟈야. 드미트리 프로코피치가 가져다주었지. 그걸 보자마자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 어리석은 것아,』 하고 나는 생각했지. 『저 애가 매달려 있는 게 저거였구나. 저것이 수수께끼의 답이로구나! 저 애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새 생각이 들어 있을 테고, 저 애는 그걸 곰곰이 헤아리고 있는데 내가 저 애를 성가시게 하고 심란하게 만들고 있구나.』 나는 그걸 읽었다, 얘야, 물론 알아듣지 못한 데가 아주 많았지만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보여 주세요, 어머니.」

라스콜니코프는 잡지를 받아 들고 제 글을 훑어보았다. 제 기분이나 제 처지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는데도, 그는 활자로 인쇄된 제 글을 처음 보는 작가라면 누구나 겪는 그 이상하고 씁쓸하게 달콤한 감각을 느꼈다. 게다가 그는 겨우 스물세 살이었다. 그것은 한순간이어졌을 뿐이니, 몇 줄 읽고 나서 그는 이맛살을 찌푸렸고 무서운

비애가 그의 가슴을 죄어 왔으며 지난 몇 달 동안의 그 모든 내면의 싸움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는 역겨움과 노여움에 차서 그 글을 탁자 위로 내던졌다.

「그렇지만 로쟈야,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네가 머지않아 우리 학계에서 앞서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 어쩌면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쯤은 내 눈으로 안다. 그런데 저들이 감히 너를 미쳤다고 여겼다니! 너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정말 그렇게 여겼다. 아이고, 그 천한 버러지들이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니! 그리고 두냐도, 두냐까지도 하마터면 그걸 믿을 뻔했으니 —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네 아버지도 잡지에 두 번이나 글을 보내셨다 — 처음에는 시였고(원고가 내게 있으니 보여 주마) 두 번째는 소설 한 편을 통째로였지(내가 베껴 쓰게 해 달라고 졸랐단다). 그것들이 실리게 해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 실리지 않았다! 예니레 전만 해도 나는 네 끼니와 네 옷과 네가 사는 꼴 때문에 가슴이 미어졌다, 로쟈야. 하지만 이제 다시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너는 네 머리와 네 재주로 무슨 자리든 네가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말이다. 물론 너야 지금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일에 매달려 있겠지…….」

「두냐는 집에 없나요, 어머니?」

「없다, 로쟈야. 나는 그 애를 못 보는 날이 많구나. 나를 혼자 두고 나간단다. 드미트리 프로코피치가 나를 보러 와 주니 고마운 일이고, 그 사람은 늘 네 이야기를 한다.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경한다, 얘야. 두냐가 나를 아주 안 헤아린다는 말은 아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야. 그 애에게는 그 애의 방식이 있고 나에게는 내 방식이 있지. 요즘 그 애에게 무슨 비밀이 생긴 듯한데, 나는 너희 둘에게 비밀이 있어 본 적이 없다. 물론 나는 두냐가 분별이 넘치도록 있다는 걸 믿고,

게다가 그 애는 너와 나를 사랑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엇으로 이어질지 나는 모르겠구나. 로쟈야, 네가 지금 와 주어서 나는 이렇게 기쁜데 그 애는 나갔다가 너를 놓쳤구나. 그 애가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말하마. 『네 오라비가 네가 나가 있는 동안 다녀갔다. 그동안 너는 어디 있었느냐?』 로쟈야, 나를 너무 응석받이로 만들면 못쓴다. 올 수 있을 때 오고, 못 오면 그것도 괜찮다,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나는 네가 나를 아낀다는 걸 알 테고,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네가 쓰는 것을 읽을 테고, 모두에게서 네 소식을 들을 테고, 이따금은 네가 직접 나를 보러 오겠지. 그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겠니? 지금도 이렇게 네 어미를 위로하러 왔구나, 나는 그걸 안다.」

여기서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울기 시작했다.

「또 이러는구나! 내 어리석음은 마음에 두지 말려무나.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앉아 있지?」 그녀가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커피가 있는데 너한테 권하지도 않았구나. 아아, 이것이 늙은이의 이기심이다. 곧 가져오마!」

「 어머니, 수고하실 것 없어요, 저는 곧 갑니다.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 말을 들어 주세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겁먹은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 어머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에 관해 무슨 말을 들으시더라도, 누가 저에 관해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제 말을 헤아리지도 달아보지도 않는 사람처럼, 가슴에 벅차오른 것에 떠밀리듯 그가 별안간 물었다.

「 로쟈, 로쟈야, 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묻니? 아니, 누가 너에 관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게다가 나는 누가 찾아오든 그 말을 믿지 않을 테고, 그냥 쫓아 버릴 게다.」

「저는 제가 언제나 어머니를 사랑해 왔다는 걸 말씀드리러 왔어요. 우리 둘뿐이어서 기쁘고, 두냐가 없는 것까지도 기쁩니다.」 그가 같은 충동에 실려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불행해지시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지금 자기 자신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모질고 어머니를 아끼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생각하신 것이 죄다 잘못이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는 결코 어머니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말없이 그를 끌어안고 제 가슴에 꼭 붙인 채 조용히 울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로쟈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그동안 우리가 그저 너를 성가시게 굴 뿐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 보니 너에게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네가 괴로운 것이로구나. 나는 오래전부터 그걸 내다보았다, 로쟈야. 이런 말을 해도 용서해 주려무나. 나는 자꾸 그 생각을 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네 누이는 어젯밤 내내 헛소리를 하며 누워 있었는데 온통 네 이야기뿐이었다. 몇 마디를 알아들었지만 무슨 소린지는 짐작하지 못했다. 나는 아침 내내 교수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듯, 무언가를 예감하듯 지냈는데, 이제 그것이 왔구나! 로쟈, 로쟈야, 어디로 가는 거냐? 너는 어디론가 떠나는 거지?」

「예.」

「그럴 줄 알았다! 알다시피 네가 나를 필요로 하면 나도 너와 같이 갈 수 있다. 두냐도 그렇고. 그 애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끔찍이 사랑해 —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소피야 세묘노브나도 우리와 같이 가면 되지. 알겠지만 나는 그 아이를 딸로 여기는 것까지도 기쁘다…… 드미트리

프로코피치가 우리를 도와 함께 가게 해 줄 게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냐?」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뭐라고, 오늘 말이냐?」 그를 영영 잃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가 외쳤다.

「더 있을 수 없어요, 이제 가야 해요, 꼭 그래야 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갈 수 없는 거냐?」

「안 됩니다. 그저 무릎 꿇고 저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는 어쩌면 그분께 닿을 테니까요.」

「너를 축복하고 성호를 그어 주마. 그래, 그래. 아아 하느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는 기뻤다, 거기 아무도 없다는 것이, 어머니와 단둘이라는 것이 몹시 기뻤다. 그 끔찍한 몇 달을 다 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그는 그녀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은 채 울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고 이번에는 그에게 묻지도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제 아들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 그에게 무서운 순간이 닥쳤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로쟈, 내 사랑아, 내 맏이야.」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제 너는 꼭 어렸을 때 같구나. 너는 이렇게 나한테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곤 했지.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우리가 가난했을 때 너는 그저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네 아버지를 묻고 나서는 우리가 그 무덤에서 얼마나 자주 함께 울며 지금처럼 끌어안았더냐. 그리고 내가 오래전부터 울고 있는 것은 어미의 마음이 화를 미리 알아챘기 때문이다. 네가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닿자마자 그날 저녁에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저 네 눈만 보고도

짐작했다. 그 자리에서 가슴이 내려앉았고, 오늘 문을 열고 너를 보았을 때 나는 그 무서운 때가 왔구나 싶었다. 로쟈, 로쟈야, 너 지금 바로 떠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또 오겠지?」

「예…… 오겠습니다.」

「로쟈야, 성내지 말려무나, 나는 감히 너한테 묻지 못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 다만 두 마디만 해 주려무나 — 네가 가는 곳이 머냐?」

「아주 멉니다.」

「 거기서 무엇이 너를 기다리고 있니? 무슨 자리나 앞길이 있는 거냐?」

「 하느님이 보내시는 것이겠지요…… 그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스콜니코프가 문으로 갔으나 그녀가 그를 붙들고 절망에 차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 그만하세요, 어머니. 」 라스콜니코프가 여기 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말했다.

「영영은 아니지, 아직 영영은 아니지? 오겠지, 내일 오겠지?」

「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그는 마침내 몸을 뿌리쳤다.

따뜻하고 상쾌하고 밝은 저녁이었다. 아침나절에 날이 갠 것이다. 라스콜니코프는 제 하숙으로 갔다. 그는 서둘렀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는 나스타시야가 사모바르에서 손을 놓고 저를 뚫어져라 지켜보며 눈으로 뒤쫓는 것을 알아챘다. 「누가 나를 찾아왔나?」 그는 의아해했다. 포르피리의 모습이 역겹게 떠올랐다. 그러나 문을 열자

두냐가 있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혼자 앉아 있었고,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문간에서 우뚝 멈춰 섰다. 그녀가 놀라 소파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보고 섰는데, 그에게 못 박힌 그녀의 두 눈은 공포와 끝없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눈만 보고도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았다.

「들어가도 되느냐, 아니면 가야 하느냐?」 그가 미심쩍은 듯 물었다.

「 저는 온종일 소피야 세묘노브나와 같이 있었어요. 둘이서 오라버니를 기다렸어요. 오라버니가 틀림없이 거기로 오시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라스콜니코프는 방으로 들어가 지친 몸을 의자에 내려놓았다.

「 몸에 기운이 없구나, 두냐. 나는 몹시 지쳤다. 그리고 하필 이 순간만은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는 미심쩍은 눈으로 그녀를 흘끗 보았다.

「밤새 어디 계셨어요?」

「 또렷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이다, 누이야, 나는 이번에 아주 마음을 정하고 싶었고, 몇 번이나 네바강 가를 걸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것은 기억난다. 그런데……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가 다시 미심쩍은 눈으로 그녀를 보며 속삭였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저와 소피야 세묘노브나가 두려워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 오라버니는 아직 삶을 믿고 계신 거군요? 하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씁쓸하게 웃었다.

「 나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방금 어머니와 끌어안고 울었다.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데 방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어머니께 청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두냐.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어머니한테 다녀오셨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두냐가 겁에 질려 외쳤다. 「설마 그러신 건 아니겠지요?」

「아니다, 말로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주 많이 알아들으셨다. 네가 잠꼬대하는 것을 들으셨다더구나. 어머니는 이미 절반쯤은 알고 계신 게 틀림없다. 어머니를 보러 간 것은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비열한 인간이다, 두냐.」

「비열한 인간이면서도 고통을 마주할 각오는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가시는 거지요, 오라버니?」

「그래, 나는 간다. 지금 곧. 그래, 그 치욕을 벗으려고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다, 두냐. 그런데 물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 여태 나를 강하다고 여겨 왔다면 치욕쯤은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그가 서둘러 말을 이었다. 「그건 자존심이냐, 두냐?」

「자존심이에요, 로쟈.」

빛을 잃은 그의 눈에 불꽃이 한 번 번뜩였는데, 그는 제가 아직 자존심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누이야, 내가 그저 물이 무서웠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느냐?」 그가 흉한 웃음을 띠고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아, 로쟈, 그만하세요!」 두냐가 쓰라리게 외쳤다. 침묵이 이 분 동안 이어졌으니, 그는 눈을 마루에 박은 채 앉아 있었고 두냐는 탁자 저편 끝에 서서 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별안간 그가 일어섰다.

「늦었다, 갈 때가 되었구나! 나는 지금 곧 자수하러 간다. 그런데 내가 왜 자수하러 가는지를 모르겠다.」

굵은 눈물이 그녀의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이야, 너는 울고 있구나. 그래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겠느냐?」

「그걸 의심하셨어요?」

그녀가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았다.

「고통을 마주함으로써 오라버니는 이미 그 죄를 절반은 씻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녀가 그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외쳤다.

「죄라고? 무슨 죄?」 그가 별안간 노발대발하여 외쳤다. 「내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더럽고 해로운 이 한 마리를, 전당포 노파 하나를 죽인 것이!…… 그 여자를 죽인 것은 마흔 가지 죄를 씻는 일이었다. 그 여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목숨을 빨아먹고 있었어. 그게 죄였느냐?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어째서 너희는 죄다 사방에서 그걸 내게 들이대느냐? 『죄야! 죄야!』 이 쓸데없는 치욕을 마주하기로 마음먹은 이제야 나는 내 비겁함이 얼마나 얼빠진 것이었는지 똑똑히 보인다. 내가 그러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저 내가 비열하고 무능하기 때문이고, 어쩌면 저…… 포르피리가…… 넌지시 이른 대로 내게 이롭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라버니는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두냐가 절망에 차서 외쳤다.

「모든 사람이 흘리게 하는 피지.」 그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끼어들었다. 「흘러내리고 언제나 폭포처럼 흘러 왔으며 샴페인처럼 쏟아지는 피,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사람들이 카피톨리움[1]에서 월계관을 쓰고 나중에 인류의 은인이라 불리게 되는 그런 피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아봐라! 나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었고, 그 한 번의 어리석음 대신 수백 수천 가지 좋은 일을 했을 것이다. 어리석음이랄 것도 없고 그저 서투름이었지, 그 생각 자체는 이제 실패한 뒤라서 어리석어 보일 뿐 결코 그렇게까지 어리석지

않았으니까……. (실패하면 무엇이나 어리석어 보이는 법이다.) 나는 그 어리석음으로 그저 나를 남에게 매이지 않는 자리에 세워 놓고, 첫걸음을 떼고, 밑천을 얻으려 했을 뿐이며, 그러고 나면 견주어 보면 헤아릴 수 없이 큰 이로움으로 모든 것이 고르게 다져졌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나는 그 첫걸음조차 해내지 못했다, 내가 비열하기 때문이야,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너희 눈으로 보지는 않겠다. 내가 해냈더라면 나는 영광의 관을 썼을 테지만, 지금 나는 덫에 걸린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라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형식이 다르다는 거지, 심미적으로 그리 좋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정식 포위전으로 사람들에게 폭탄을 퍼붓는 것이 어째서 더 존경할 만한 형식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미학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무력함의 첫 증상이다. 나는 결코, 결코 지금만큼 이것을 똑똑히 알아본 적이 없고, 지금보다 더 내 죄를 이해하지 못한 적도 없으며, 나는 결코, 결코 지금만큼 강하고 확신에 찼던 적이 없어.」

창백하고 지친 그의 얼굴에 핏기가 몰려들었다. 그러나 마지막 외침을 입 밖에 내던 순간 그는 우연히 두냐의 눈과 마주쳤고, 그 눈에 어린 자기를 두고 하는 괴로움이 어찌나 컸던지 그는 저도 모르게 정신이 들었다. 어쨌든 자기가 이 가엾은 두 여자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어쨌든 자기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그는 느꼈다……

「두냐야, 내게 죄가 있다면 나를 용서해 다오(죄가 있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잘 있어라! 다투지 말자. 갈 때가 되었다, 이미 늦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부탁이다, 나는 들를 데가 또 있다……. 너는 지금 곧 가서 어머니 곁에 앉아 있어라. 간곡히 부탁한다! 이것이 너에게 하는 내 마지막, 가장 큰 청이다. 어머니를 조금도 혼자 두지

마라. 나는 어머니를 견디실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상태로 두고 왔으니, 그대로 두면 어머니는 돌아가시거나 정신을 놓으실 것이다. 어머니 곁에 있어라! 라주미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해 두었다……. 나 때문에 울지 마라. 나는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평생 정직하고 사내답게 살아 보겠다. 어쩌면 언젠가 너는 내 이름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너희에게 욕을 끼치지 않겠다, 두고 보아라. 나는 아직 보여 줄 것이……. 자, 이제는 잠시 작별이다.」 그가 서둘러 말을 맺었으니, 제 마지막 말과 약속에 두냐의 눈이 또 이상한 빛을 띠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왜 우느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영영 헤어지는 게 아니다! 아, 그래! 잠깐만, 잊을 뻔했구나!」

그는 탁자로 가서 먼지 앉은 두꺼운 책 한 권을 집어 들고 펼쳐, 책장 사이에서 상아에 그린 자그마한 수채 초상 하나를 꺼냈다. 열병으로 죽은 집주인 여자의 딸, 수녀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이상한 처녀의 초상이었다. 그는 잠시 제 약혼자였던 이의 표정이 살아 있고 병약한 작은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초상에 입을 맞추고 두냐에게 건넸다.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다, 오직 그 사람한테만.」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 사람의 마음에다 나는 그 뒤로 이토록 흉하게 이루어지고 만 것의 많은 부분을 털어놓았지. 마음 쓰지 마라.」 그가 두냐에게로 돌아서며 말했다. 「그 사람도 너만큼이나 그 일에 반대했고, 그러니 그 사람이 가고 없는 것이 나는 다행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는 것, 모든 것이 둘로 쪼개지리라는 것이다.」 그가 별안간 다시 낙심으로 돌아가며 외쳤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말이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느냐? 나 자신이 그것을 원하기는 하느냐? 사람들은 이것이 나를 시험하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모든 무의미한 시련이 있어야 하느냐? 이십 년의 징역살이 끝에 고통과 백치

상태에 짓뭉개지고 늙은이처럼 허약해진 그때에 가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깨닫게 되기라도 한다는 거냐? 그러고 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어째서 나는 지금 그런 삶에 동의하고 있느냐? 아아, 오늘 동틀 녘에 네바강을 바라보고 섰을 때 나는 내가 비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두냐에게는 힘든 일이었으나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걸어서 멀어졌고, 쉰 걸음쯤 가다가 그를 다시 보려고 돌아섰다. 그는 아직 눈에 보였고, 모퉁이에서 그 역시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으나, 그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자 그는 조바심과 짜증까지 실어 손짓으로 그녀를 쫓아 보내고는 홱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고약한 놈이다, 나도 안다.」 잠시 뒤 두냐에게 성난 손짓을 한 것이 부끄러워지자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면 저들은 어째서 나를 이토록 아끼는가? 아아, 내가 혼자였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 또한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궁금하구나, 앞으로 올 그 십오 년이나 이십 년 사이에 내 영혼이 정말로 그토록 순해져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훌쩍이며 말끝마다 나 자신을 강도라고 부르게 될까? 그래,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야, 저들이 나를 그리로 보내는 것도 그 때문이고 저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다. 저것들이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꼴을 보라, 하나같이 타고나기를 비열한이고 강도이며 더 고약하게는 얼간이인데, 그런데도 나를 유형에서 빼내 주려고 해 보라, 저들은 의로운 분노로 펄펄 뛸 것이다. 아아, 나는 저것들을 죄다 얼마나 미워하는가!」

그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저 모두 앞에서, 가릴 것 없이 저 모두 앞에서 자기가 낮추어질 수 있을지를, 확신에 의해 낮추어질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안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이십 년에 걸친 끊임없는 속박이 그를 아주 짓뭉개 버리지 않겠는가? 물이 돌을 닳게 하는 법이다. 그런데 어째서, 어째서 그는 그 뒤에도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이 꼭 책에 쓰인 대로, 달리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어째서 그는 지금 가고 있는가? 어제저녁부터 그가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진 것은 어쩌면 백 번째였겠으나, 그래도 그는 갔다.

---

1. 카피톨리움 — 고대 로마의 언덕이자 최고신 유피테르의 신전이 있던 곳. 개선한 장군은 그곳까지 행진해 올라가 월계관을 받았다.

6부 8장

그가 소냐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소냐는 온종일 무서운 불안 속에서 그를 기다렸다. 두냐가 그녀와 함께 기다려 주었으니, 소냐가 알고 있다던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말이 떠올라 그날 아침에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두 처녀가 나눈 이야기와 눈물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벗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적지 않겠다. 두냐는 그 만남에서 적어도 한 가지 위안은 얻었으니, 제 오라비가 혼자가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제 자백을 들고 소냐에게 맨 먼저 갔고, 사람이 필요했을 때 그녀에게서 사람을 찾았으며, 그녀는 운명이 그를 어디로 보내든 그와 함께 갈 것이었다. 두냐는 묻지 않았으나 그러리라는 것을 알았고, 거의 경외에 가까운 눈으로 소냐를 바라보았으며, 처음에는 그 눈길로 소냐를 거의 난처하게 만들 지경이었다. 소냐는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다. 그녀는 도리어 제가 두냐를 쳐다볼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다. 라스콜니코프의 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 두냐가 그토록 정성스럽고 정중하게 제게 허리를 숙이던 그 우아한 모습은 그 뒤로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에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닿을 수 없는 광경의 하나로 남아 있었다.

두냐는 마침내 더 참지 못하고 소냐를 두고 나와, 오라비의 방에서 그를 기다리려고 그리로 갔으니, 그가 거기로 먼저 오리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이다. 그녀가 가고 나자 소냐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두냐 또한 그것을

겁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온종일 그럴 리 없다고 서로를 설득하며 보냈고 함께 있는 동안은 둘 다 덜 불안했는데, 헤어지자마자 저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소냐는 어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기에게 라스콜니코프 앞에 길이 둘뿐이라고, 유형길 블라디미르카냐 아니면…… 하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고, 게다가 그녀는 그의 허영을, 그의 오만을, 그의 자존심을,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이를 살게 하는 것이 비겁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일 수가 있을까?」 그녀는 마침내 절망에 차서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에 해가 지고 있었다. 소냐는 낙심한 채 서서 창밖을 뚫어져라 내다보고 있었으나, 거기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웃집의 회칠하지 않은 민민한 벽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죽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 그가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기쁨의 외마디 소리를 질렀으나,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는 창백해졌다.

「그래요.」 라스콜니코프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십자가를 받으러 왔어요, 소냐. 네거리로 가라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리되니 왜 무서워하지요?」

소냐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조가 그녀에게는 이상하게 들렸고 찬 떨림이 온몸에 지나갔으나, 이내 그녀는 그 어조와 그 말이 가면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를 피하기라도 하듯 어쩐지 구석을 보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소냐, 나는 이렇게 하는 편이 어쩌면 더 이로우리라고 따져 보았어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렇지만 긴 이야기라 따질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내가 무엇에 화가 나는지 알아요? 그 멍청하고 짐승 같은 낯짝들이 곧 나를 에워싸고 퉁방울눈을 부라리며 나를

쳐다보며 그 멍청한 질문들로 나를 들볶을 테고 나는 거기 대답해야 하리라는 것이, 저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리라는 것이 짜증스러워요……. 쳇! 알다시피 나는 포르피리한테는 가지 않아요, 그자는 지긋지긋해요. 차라리 내 벗인 화약 중위한테 가겠어요. 내가 그자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킬지! 그렇지만 좀 더 차분해져야겠지요. 요즘 너무 성마르게 굴었어요. 방금 누이한테 거의 주먹을 쥐다시피 하고 을러댔다니까요, 그 애가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돌아섰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참 짐승 같은 꼴이지요! 아! 내가 어디까지 와 버렸는가! 자,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그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하는 듯했다.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무엇 하나에 정신을 붙들어 매지도 못했으며, 그의 생각들은 서로를 뒤쫓아 내달리는 것 같았고, 그는 앞뒤 없이 지껄였으며, 그의 두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소냐는 말없이 서랍에서 십자가 두 개를, 사이프러스 나무로 된 것 하나와 구리로 된 것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제게 성호를 긋고 그에게도 성호를 그은 뒤, 나무 십자가를 그의 목에 걸어 주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표시로군요, 헤헤! 마치 지금까지는 고생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듯이! 나무 십자가는 농민의 것이고, 구리 십자가는 리자베타의 것이니 — 당신이 직접 걸겠군요, 어디 보여 줘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걸 걸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순간에? 나도 그런 것 두 개가 기억나요, 은으로 된 것 하나와 작은 이콘 하나. 나는 그때 그것들을 노파의 가슴 위에 던져 놓았지요. 지금이라면 그것들이 어울릴 텐데, 정말이지 지금 내가 걸어야 할 것은 그것들인데……. 그렇지만 나는 헛소리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을 잊고 있군요. 나는 어쩐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알려 주러 온 거예요, 소냐, 당신이 알고 있으라고…… 그뿐이에요 —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흠,

그렇지만 할 말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당신이 직접 가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나는 감옥으로 가고 당신은 바라던 것을 얻겠군요. 아니, 왜 울어요? 당신까지? 그러지 말아요. 그만둬요! 아아, 나는 이 모든 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나 그의 감정이 흔들렸고, 그녀를 바라보자 가슴이 아팠다. 「저 여자는 왜 같이 슬퍼하는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 여자에게 무엇인가? 왜 우는가? 왜 어머니나 두냐처럼 내 길 떠날 채비를 해 주는가? 저 여자는 내 보모가 되겠지.」

「성호를 그으세요, 기도라도 한 번 하세요.」 소냐가 떨리는, 겁먹은 목소리로 애원했다.

「아 그럼요, 얼마든지! 진심으로요, 소냐, 진심으로…….」

그러나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여러 번 성호를 그었다. 소냐는 숄을 집어 들어 머리에 썼다. 아마도 마르멜라도프가 말했던 바로 그 초록빛 drap de dames 숄, 「집안 숄」 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것을 보며 그 일을 떠올렸으나 묻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가 정말로 이것저것을 잊고 있으며 역겨울 만큼 심란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이 두려웠으며, 그러다 소냐가 자기와 함께 갈 작정이라는 생각이 별안간 그를 덮쳤다.

「뭐 하는 거예요? 어딜 가요? 여기 있어요, 있으라니까요! 나 혼자 가겠어요.」 그가 비겁한 짜증에 차서 외쳤고, 거의 성이 나서 문 쪽으로 움직였다. 「떼를 지어 행렬이라도 지어 갈 셈인가?」 그가 나가면서 중얼거렸다.

소냐는 방 한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잊고 있었다. 사무치고 거스르는 의심이 그의 가슴속에서 솟구쳤다.

「정말 그런가, 이 모든 게 정말 그런 것인가?」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다시 생각했다. 「아직 멈춰 서서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고…… 가지 않을 수는 없는가?」

그러나 그는 그래도 갔다. 그는 별안간, 이제 아주,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질 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거리로 접어들다가 그는 소냐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소리를 지른 뒤로 꼼짝도 못 한 채 초록 숄을 쓰고 방 한가운데에 서 있던 그녀를 그대로 두고 나왔다는 것을 떠올렸고, 잠깐 우뚝 멈춰 섰다.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생각 하나가, 마치 그때를 노려 숨어서 그를 칠 기회를 엿보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에게 떠올랐다.

「 대체 나는 무슨 목적으로 방금 그 여자한테 갔는가? 볼일이 있어서라고 말했지. 무슨 볼일? 볼일 따위 없었다! 내가 간다고 말하려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었나?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가? 아니다, 아니야, 나는 방금 개를 쫓듯 그 여자를 쫓아냈다. 내가 그 여자의 십자가를 원했던가? 아아, 나는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아니다, 나는 그 여자의 눈물을 원했고, 그 여자가 겁에 질리는 것을, 그 여자의 가슴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무엇에든 매달려야 했고, 시간을 끌어야 했고, 사람 하나를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감히 나 자신에게 그토록 기대를 걸었고, 나 자신을 그토록 꿈꾸었다, 거지인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비열한 놈, 비열한 놈!」

그는 운하 둑을 따라 걸었고, 이제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다리에 이르자 그는 멈춰 섰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 다리를 건너 건초 시장으로 갔다.

그는 오른쪽 왼쪽을 간절하게 둘러보았고 무엇이든 뚫어져라 쳐다보았으나 어느 것에도 정신을 붙들어 맬 수가 없었으니, 모든 것이 미끄러져 달아났다. 「한 주쯤 뒤, 한 달쯤 뒤면 나는 죄수 호송 마차에

실려 이 다리 위를 지나가겠지. 그때는 이 운하를 어떤 눈으로 볼까? 이걸 기억해 두고 싶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저 간판을 봐라! 그때는 저 글자들을 어떻게 읽을까? 여기 『캄파니』[1]라고 적혀 있군, 저건 기억해 둘 만하지, 저 『아』 자 말이야. 그리고 한 달 뒤에 저걸 다시 보는 거야 — 그때는 저걸 어떤 눈으로 볼까? 그때 나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아아, 지금 내가 애태우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저열한 것이겠는가!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흥미로운 일이기는 하겠지…… (하하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어린애가 되어 가고 있다, 나 자신에게 뻐기고 있어. 나는 왜 부끄러워하는가? 쳇! 사람들이 어찌나 밀어 대는지! 저 뚱뚱한 사내 — 독일 사람이 틀림없다 — 나한테 부딪친 저자는 제가 누구한테 부딪쳤는지 알기나 할까? 아기를 안고 구걸하는 아낙이 있군. 저 여자가 나를 저보다 행복하다고 여긴다는 것이 신기하다. 옳지, 재미삼아 한 닢 줘 볼까. 주머니에 5코페이카짜리가 한 닢 남았군, 이건 어디서 났더라? 자, 자…… 받으시오, 아주머니!」

「하느님이 지켜 주시기를.」 거지 아낙이 우는소리로 읊조렸다.

그는 건초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 틈에 끼여 있는 것이 싫었다, 아주 싫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람이 가장 많아 보이는 데로만 걸었다. 혼자 있을 수만 있다면 그는 이 세상 무엇이라도 내주었을 테지만, 혼자 있게 되면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 자신이 알고 있었다. 군중 속에 술에 취해 주정하는 사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자는 자꾸 춤을 추려다가 넘어졌고 둘레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 몇 분 동안 그 취한 사내를 바라보다가 별안간 짧고 뚝뚝 끊기는 웃음을 터뜨렸으나, 일 분 뒤에는 그자를 잊었고 여전히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제가 어디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으나, 광장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어떤 감정이 별안간 그를 덮쳐 몸과 마음을 온통 휩쓸었다.

그는 별안간 소냐의 말을 떠올렸다. 「네거리로 가서, 사람들에게 절하고, 땅에 입을 맞추세요, 당신은 그 땅에도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온 세상에 소리 높여 말하세요, 『나는 살인자다』 라고요.」 그것을 떠올리자 그는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특히 지난 몇 시간의 가망 없는 비참과 불안이 그를 어찌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지, 그는 이 새롭고 섞이지 않은 온전한 감각의 기회를 그야말로 움켜쥐었다. 그것은 발작처럼 그를 덮쳤고, 그의 영혼 속에서 붙은 불티 하나 같았으며, 그 불이 그의 온몸으로 번져 그의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단박에 누그러지며 눈물이 솟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는 광장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땅에 절하고, 그 더러운 땅에 기쁨과 황홀에 차서 입을 맞추었다. 그는 일어섰다가 두 번째로 절했다.

「저 사람 취했구먼.」 곁에 있던 젊은이 하나가 말했다.

웃음이 왁자하게 터졌다.

「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형제들, 그래서 제 자식들하고 제 고향한테 작별을 고하는 거지. 온 세상에 절하고 이 큰 도시 페테르부르크하고 그 길바닥에 입을 맞추는 거라고.」 조금 취한 소시민 하나가 거들었다.

「게다가 아주 젊은 사람인데!」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신사 양반이고.」 누군가가 점잖게 말했다.

「요즘은 누가 신사고 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이 외침과 말들이 라스콜니코프를 멈춰 세웠고, 어쩌면 막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려던 참이던 「내가 죽였다」라는 말은 스러져 버렸다. 그러나 그는 그 말들을 잠자코 견뎠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경찰서로

이어지는 거리로 꺾어 들었으며, 가는 길에 무언가를 언뜻 보았으나 놀라지는 않았으니 그래야만 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건초 시장에서 두 번째로 절했을 때 그는 왼쪽으로 쉰 걸음쯤 떨어진 자리에 서 있는 소냐를 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광장에 서 있는 나무 판잣집 하나 뒤에 숨어 그에게서 몸을 감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 괴로운 길에서 내내 그를 뒤따라온 것이다! 그 순간 라스콜니코프는 소냐가 영원히 자기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운명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든 땅끝까지 그를 따라오리라는 것을 느꼈고 또 이제 아주 알아 버렸다. 그의 가슴이 온통 뒤집혔다…… 그러나 그는 벌써 그 운명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는 제법 단단한 걸음으로 안뜰로 들어섰다. 3층까지 올라가야 했다. 「올라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 그는 생각했다. 그는 그 운명의 순간이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곰곰이 따져 볼 시간이 아직 넉넉히 남은 것처럼 느꼈다.

또 그 똑같은 쓰레기, 나선 계단에 널린 그 똑같은 달걀 껍데기, 또 활짝 열린 셋집 문들, 또 그 똑같은 부엌들과 거기서 새어 나오는 그 똑같은 김과 악취. 라스콜니코프는 그날 이후로 여기 온 적이 없었다. 두 다리가 저려 오며 몸을 받치지 못했으나 그래도 다리는 앞으로 나아갔고, 그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추슬러 사람답게 들어서려고 잠시 멈춰 섰다. 「그런데 왜? 무엇 하러?」 그는 곰곰이 따지며 의아해했다. 「어차피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역겨울수록 낫다.」 그는 한순간 「화약 중위」 일리야 페트로비치의 모습을 떠올렸다. 정말로 그자한테 가는 것인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는 없는가? 니코딤 포미치한테는? 돌아서서 곧장 니코딤 포미치의 집으로 갈 수는 없는가? 적어도 그러면 사사로이 끝낼 수 있을 텐데……. 아니, 아니다! 「화약 중위」 한테로! 마셔야 한다면 단숨에 들이켜자.

몸이 싸늘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진 채 그는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안에 사람이 아주 적어 수위 하나와 농사꾼 하나뿐이었고, 문지기는 칸막이 뒤에서 내다보지도 않았다. 라스콜니코프는 다음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쩌면 아직 말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제복을 입지 않은 서기인 듯한 사람 하나가 글을 쓰려고 책상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서기가 앉는 참이었다. 자묘토프는 없었고, 물론 니코딤 포미치도 없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라스콜니코프가 책상 앞의 사람을 향해 물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 — 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기척도 보이지 않는데 러시아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2] 옛날이야기에서 그다음이 어떻게 되더라…… 잊어버렸군! 『겨-경의를 표하네!』」 낯익은 목소리가 별안간 외쳤다.

라스콜니코프는 흠칫했다. 화약 중위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세 번째 방에서 나온 참이었다. 「운명의 손이로구나.」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저자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를 보러 왔나? 무슨 일로?」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외쳤다. 그는 누가 보아도 더없이 기분이 좋았고 조금 들떠 있기까지 했다. 「볼일로 왔다면 좀 이르네.[3]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일 뿐이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해 보겠네. 실은 나도…… 뭐라고, 뭐라고? 실례하네…….」

「라스콜니코프.」

「아무렴, 라스콜니코프지. 내가 잊었으리라고 생각했나?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말게…… 로지온 로 — 로 — 로지오노비치, 그렇지, 맞지?」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래, 그래, 아무렴, 로지온 로마노비치! 막 거기에 닿던 참이었네. 나는 자네에 관해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았지. 정말이지 그 일이 있은 뒤로…… 내가 그렇게 굴었던 뒤로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다네…… 나중에야 나에게 설명해 주더군, 자네가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게다가 학식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걸음이라는 것이지…… 저런! 문필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치고 처음에 좀 남다르게 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와 내 아내는 문학을 더없이 존경하네, 내 아내로 말하자면 아주 열렬하다네! 문학과 예술이지! 사람이 신사이기만 하다면 나머지는 재주로도 학식으로도 분별로도 천재로도 얻을 수 있어. 모자로 말하자면 — 원, 모자가 무슨 대수인가? 모자는 블린 한 장일 뿐이니 치메르만 가게에서 사면 그만이지. 하지만 모자 밑에 있는 것, 모자가 덮고 있는 것, 그건 살 수가 없다네! 나는 자네한테 찾아가 해명할 생각까지 했었네만, 자네가 혹시…… 싶더군. 아 참, 물어보는 것을 잊었네, 정말로 무슨 볼일이 있는 건가? 자네 식구들이 왔다고 들었네만?」

「예, 어머니와 누이가 왔습니다.」

「나는 자네 누이를 뵙는 영광과 기쁨까지 누렸네 — 대단히 교양 있고 매력 있는 분이더군, 그래서 솔직히 나는 자네한테 그렇게 열을 낸 것이 미안했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자네가 기절한 것을 내가 의심쩍게 본 일로 말하자면 — 그 일은 훌륭하게 밝혀졌네! 옹고집에 광신이었지! 자네가 분개한 것도 알겠네. 식구들이 왔으니 하숙을 옮기는 건가?」

「아, 아닙니다, 그저 들렀을 뿐입니다……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서 자묘토프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지! 아무렴, 자네들이 가까워졌다고 들었네. 그런데 아니야, 자묘토프는 여기 없네. 그래, 우리는 알렉산드르 그리고리예비치를 잃었어. 어제부터 여기 없네. 다른 데로 옮겼지…… 옮기면서 모두와 싸우기까지 했어…… 그것도 아주 무례하게. 경솔한 젊은것일 뿐이야. 무언가를 기대해 볼 만도 했네만, 뭐,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네 빛나는 젊은이들이란 게 그렇지. 무슨 시험을 보겠다고 하더군. 그렇지만 그거야 입으로 떠들고 자랑하려는 것일 뿐 그 이상은 가지 못할 걸세. 물론 자네나 자네 친구 라주미힌 씨는 전혀 다른 경우지, 자네의 앞길은 학문이고 자네는 한 번 실패한다고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니까. 자네에게는 말하자면 삶의 온갖 즐거움이 nihil est[4]지 — 자네는 고행자요 수도사요 은자일세!…… 책 한 권, 귀에 꽂은 펜 한 자루, 학문의 탐구, 자네의 정신이 날아오르는 곳은 거기지! 나 자신도 그런 편이라네……. 리빙스턴의 『여행기』는 읽어 보았나?」

「아닙니다.」

「아, 나는 읽었네. 요즘은 허무주의자라는 것들이 아주 많지 않나, 하기야 이상할 것도 없지. 대체 어떤 세상인가 말일세? 내가 묻겠네. 그런데 내가 자네하고…… 자네는 물론 허무주의자가 아니겠지? 솔직히, 솔직히 대답해 보게!」

「아, 아닙니다……」

「내 말을 믿게, 자네는 나한테 자네 자신한테 하듯 솔직히 말해도 되네! 공무는 공무지만…… 자네는 내가 우정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하려는 줄 알겠지? 아니, 틀렸네! 우정이 아니라 인간이자 시민으로서의 감정, 인류애와 전능하신 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일세. 나는 관리일 수 있으나 언제나 나 자신을 인간이자 시민으로 느끼고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지……. 자네가 자묘토프를 물었지. 자묘토프는 평판 나쁜 집에서 샴페인이나 돈 포도주 잔을 기울이며 프랑스식으로

추문이나 일으킬 걸세…… 자네의 자묘토프란 그런 위인일세! 그에 비해 나는 어쩌면 말하자면 헌신과 높은 감정으로 불타고 있고, 게다가 나에게는 관등이 있고 지체가 있고 자리가 있네! 나는 혼인해서 자식을 두었고 인간과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저자는 대체 누구인가 말일세? 나는 자네를 교육으로 고결해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일세…… 그리고 이 산파라는 것들도 유난히 많아졌어.」

라스콜니코프가 묻는 얼굴로 눈썹을 치켜올렸다. 누가 보아도 방금 식탁에서 일어난 일리야 페트로비치의 말은 그에게 대부분 빈 소리의 흐름일 뿐이었다. 그러나 더러는 알아들었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한 채 묻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 머리를 짧게 깎은 그 계집애들 말일세. 」 말 많은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내 나름으로 산파라고 이름 붙였는데, 아주 마땅한 이름이라고 보네. 헤헤! 그것들이 학술원에 다니며 해부학을 배운다지. 내가 병이 나면 아가씨를 불러다 치료를 받아야 하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헤헤!」 일리야 페트로비치는 제 재담에 아주 흡족해하며 웃었다. 「 교육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는 것이지. 그렇지만 일단 교육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닌가. 무엇 하러 그걸 함부로 쓰나? 저 악당 자묘토프가 그러듯 무엇 하러 점잖은 사람을 모욕하나? 저자가 나를 왜 모욕했는가 말일세? 그리고 이 자살들을 좀 보게, 얼마나 흔해졌는지 자네는 짐작도 못 할 걸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쓰고는 목숨을 끊는다네, 사내아이도 계집아이도 늙은이도. 바로 오늘 아침에도 막 이 도시에 온 신사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 닐 파블리치, 여보게, 페테르부르크스카야 쪽에서 권총으로 제 목숨을 끊은 그 신사 이름이 뭐였지?」

「 스비드리가일로프. 」 누군가가 옆방에서 쉰 목소리로 무심하게 대답했다.

라스콜니코프는 흠칫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제 목숨을 끊었다고요!」 그가 외쳤다.

「뭐라고, 자네가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아나?」

「예…… 압니다…….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 그래, 그렇다네. 아내를 잃었고, 함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느닷없이 제 몸에 총을 쏘았지, 그것도 상상도 못 할 만큼 추문스럽게……. 수첩에 몇 마디 적어 두었더군. 자기는 온전한 정신으로 죽는 것이며 제 죽음에 대해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다고 말일세. 돈은 있었다더군. 자네는 그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

「저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제 누이가 그 집에서 가정교사로 있었습니다.」

「저런, 저런, 저런! 그렇다면 자네가 그자에 관해 무언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군. 낌새를 못 챘나?」

「 어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무언가가 제 위로 떨어져 저를 짓눌러 숨 막히게 하는 것 같았다.

「또 창백해졌군. 여기가 하도 답답해서……」

「예, 가야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중얼거렸다. 「성가시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 아, 천만에, 얼마든지 오게. 자네를 보는 것이 반갑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기쁘군.」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손을 내밀었다.

「저는 그저…… 자묘토프를 보러 왔을 뿐입니다.」

「알겠네, 알겠어, 그리고 자네를 보아서 반갑네.」

「저는…… 아주 기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스콜니코프가 웃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비틀거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제 발로 서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른손으로 벽을 짚어 몸을 지탱하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장부를 든 수위 하나가 경찰서로 올라가느라 저를 밀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고, 아래층에서 개 한 마리가 날카롭게 짖어 대고 어떤 여자가 그 개에게 홍두깨를 던지며 소리치는 것 같았다. 그는 내려가 안뜰로 나갔다. 거기, 입구에서 멀지 않은 자리에 소냐가 창백하게, 죽은 사람처럼 질린 채 서서 사납게, 사납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 앞에 우뚝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무치는 고뇌와 절망의 빛이 있었다. 그녀가 두 손을 맞잡았다. 그의 입술이 흉하고 뜻모를 웃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이를 드러내 웃고는, 경찰서로 되돌아갔다.

일리야 페트로비치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 앞에는 계단에서 그를 밀치고 지나갔던 바로 그 농사꾼이 서 있었다.

「이런! 또 왔나! 무얼 두고 갔나? 무슨 일인가?」

라스콜니코프는 입술이 하얗게 질리고 움직이지 않는 눈길로 천천히 다가왔고, 탁자까지 곧장 걸어가 손으로 탁자를 짚고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할 수 없었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몸이 안 좋은 모양이군, 의자를! 자, 앉게! 물 좀 가져와!」

라스콜니코프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으나 두 눈은 일리야 페트로비치의 얼굴에 박아 둔 채였고, 그 얼굴에는 언짢은 놀라움이 떠올라 있었으며, 두 사람은 일 분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물이 왔다.

「그건 내가……」 라스콜니코프가 입을 열었다.

「물을 좀 마시게.」

라스콜니코프는 손을 들어 물을 마다하고, 나직하게 끊어 가며,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그때 관리 미망인인 노파와 그 동생 리자베타를 도끼로 죽이고 강도질을 했습니다.」

일리야 페트로비치가 입을 딱 벌렸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달려왔다.

라스콜니코프는 제 진술을 되풀이했다.

---

1. 러시아어 원문의 간판에는 조합·상회를 뜻하는 товарищество(타바리셰스트보)가 첫 모음 o를 a로 잘못 적은 Таварищество로 쓰여 있고, 라스콜니코프가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그 틀린 a 자다. 한국어판은 「콤파니」가 「캄파니」로 잘못 적힌 것으로 옮겨 틀린 글자를 「아」로 삼았다.

2. 러시아 옛이야기에서 괴물이나 마녀가 숨어든 사람의 냄새를 맡고 외치는 상투어구를 끌어다 쓴 것이다. 여기서는 낯선 사람이 소리 없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익살로 읊은 말이다.

3. 도스토옙스키는 지금이 해가 진 뒤라는 것, 그리고 라스콜니코프가 지난번에 오후 두 시에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너무 늦게 왔다고 핀잔을 들었다는 것을 잊은 듯하다. — 영역자 가넷의 주.

4. nihil est —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의 라틴어.

에필로그 1

시베리아. 넓고 호젓한 강기슭에 도시 하나가 서 있으니, 러시아의 행정 중심지 가운데 하나다. 그 도시에는 요새가 있고, 요새 안에는 감옥이 있다. 그 감옥에 제2급 유형수[1] 로지온 라스콜니코프가 아홉 달째 갇혀 있다. 그의 범죄가 있은 뒤로 거의 일 년 반이 지났다.

그의 재판에는 어려울 것이 거의 없었다. 그 범죄자는 제 진술을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고수했다. 그는 사실을 뒤섞지도 왜곡하지도 않았고, 제게 유리하게 누그러뜨리지도 않았으며, 아무리 작은 세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살인의 모든 정황을 설명했고, 살해된 여자의 손에서 나온 저당물의 비밀(쇠 조각을 덧댄 나뭇조각)도 밝혔다. 그는 제가 어떻게 그 여자의 열쇠를 가져갔는지, 그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궤와 그 안에 든 것까지 낱낱이 진술했고, 그 안에 있던 물건 몇 가지를 하나하나 꼽기까지 했다. 리자베타 살해의 수수께끼도 설명했고, 코흐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학생이 어떻게 문을 두드렸는지를, 둘이 서로 주고받은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 가며 이야기했으며, 그 뒤에 제가 어떻게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 니콜라이와 드미트리가 꽥꽥 악쓰는 소리를 들었는지, 어떻게 빈 셋집에 숨었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갔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는 보즈네센스키 대로의 그 안마당, 대문 밑의 그 돌, 지갑과 패물이 나온 그 돌을 가리키는 것으로 진술을 맺었다. 사실 모든 것이 더없이 분명했다. 예심판사들과 재판관들은 무엇보다도 그가 패물과 지갑을 쓰지도 않은 채 돌 밑에

감추었다는 것, 게다가 자기가 훔친 물건들을 낱낱이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수까지 틀리게 댔다는 사실에 몹시 놀랐다. 그가 지갑을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아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로 보였다. 지갑에서는 317루블 60코페이카가 나왔다. 오래 돌 밑에 있었던 탓에 맨 위에 놓였던 가장 큰 지폐 몇 장은 몹시 상해 있었다.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진실하고 숨김없는 자백을 한 피고가 어째서 이 일에 대해서만은 거짓말을 하는지 오래도록 알아내려 애썼다. 마침내 몇몇 사람이(특히 심리학자들 가운데서), 그가 정말로 지갑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래서 돌 밑에 감출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그렇다면 이 범죄는 목적도 이득의 추구도 없이 오직 일시적인 정신착란으로, 말하자면 살인과 강도에 대한 병적인 편집광증으로만 저질러질 수 있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이것은 요즘 형사 사건에 그토록 자주 갖다 쓰이는, 일시적 정신이상이라는 최신 유행의 이론과 맞아떨어졌다. 게다가 라스콜니코프의 심기증(心氣症) 증세는 여러 증인에 의해, 조시모프 의사와 옛 동창들과 하숙집 여주인과 그 하녀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 모든 것이 라스콜니코프가 여느 살인강도와는 사뭇 다르며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결론을 강하게 가리켰다.

이 견해를 내세우던 이들이 몹시 분해하게도, 그 범죄자는 자기를 변호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무엇이 그를 살인과 강도질로 몰아갔느냐는 결정적인 물음에, 그는 더없이 거친 정확함으로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다. 원인은 제 비참한 처지, 제 가난과 무력함이었고, 거기서 찾아내리라 셈해 두었던 적어도 삼천 루블의 힘을 빌려 삶의 첫걸음을 마련하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제 얕고 비겁한 천성 때문에, 게다가 궁핍과 좌절로 더 날카로워진 그 천성 때문에 살인으로

이끌렸다고 했다. 무엇이 자백하게 했느냐는 물음에는 진심에서 우러난 뉘우침이었다고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거칠다 싶었다…….

그러나 판결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너그러웠는데, 어쩌면 그 범죄자가 자기를 정당화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고발하려는 바람을 내비치는 듯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범죄의 기이하고 유별난 정황이 모두 참작되었다. 범행 당시 그 범죄자가 비정상적이고 가난에 짓눌린 상태였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훔친 것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회한의 작용으로, 한편으로는 범행 당시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돌려졌다. 덧붙이자면 리자베타를 뜻하지 않게 죽인 일이 이 마지막 가설을 확인해 주는 구실을 했으니, 한 사람이 살인을 두 번 저지르면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잊어버리다니! 끝으로, 기가 꺾인 광신자(니콜라이)가 제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바람에 사건이 손댈 수 없이 헝클어진 바로 그때, 게다가 진짜 범죄자를 겨눌 증거도 의심조차도 없던 그때에 나온 자백(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제 말을 온전히 지켰다) — 이 모든 것이 형을 가볍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피고에게 유리한 다른 정황들도 아주 뜻밖에 드러났다. 전 대학생 라주미힌이 어디선가 알아내어 증거를 내놓았는데, 라스콜니코프가 대학에 다닐 적에 폐병을 앓던 가난한 동창을 도와 여섯 달 동안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 그를 부양했고, 그 학생이 죽으면서 제가 열세 살 적부터 거의 내내 돌보던 늙고 쇠약한 아버지를 남기자 라스콜니코프가 그 노인을 돌보다가 마침내 병원에 넣어 주었으며 노인이 죽었을 때 장례 비용을 댔다는 것이었다. 그의 옛 하숙집 여주인이자 죽은 약혼녀의 어머니인 과부 자르니치나도, 그들이 다섯 모퉁이의 다른 집에 살던 시절에 라스콜니코프가 한밤중 불이 났을 때 이미 불길이 번진 셋집에서 어린아이 둘을 끌어내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증언했다. 이 일은 조사를 거쳐 여러 증인에 의해 꽤 잘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들이 그에게 유리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범죄자는 정상 참작을 받아 겨우 팔 년의 제2급 유형에 처해졌다.

재판이 시작되던 바로 그 무렵 라스콜니코프의 어머니가 앓아누웠다. 두냐와 라주미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를 페테르부르크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겠다고 보았다. 라주미힌은 재판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뒤쫓으면서 동시에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를 되도록 자주 볼 수 있도록, 페테르부르크에서 멀지 않은 철도 연변의 도시를 골랐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의 병은 기이한 신경성 질환이었고 지성이 부분적으로 흐려지는 증세를 동반했다.

두냐가 오라버니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앓아누워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라주미힌과 그녀는 어머니가 라스콜니코프에 대해 묻거든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를 의논해 두었고, 그가 사사로운 일을 맡아 멀리 러시아 국경 어딘가로 떠나야 했으며 그 일이 끝내는 그에게 돈과 명성을 가져다주리라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위해 그럴듯하게 지어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그때에도 그 뒤에도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아들이 갑자기 떠난 일에 대한 저 나름의 이야기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들려주면서, 저만 아는 신비롭고 중대한 사실이 많다는 것, 로쟈에게는 아주 힘센 적들이 많아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넌지시 비쳤다. 그의 앞날로 말하자면, 어떤 적대적인 사정들만 지나가면 눈부시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라주미힌에게, 제 아들이 언젠가는 나라의 큰일을 맡는 인물까지 될 것이며 그의

논문과 빛나는 문필의 재능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장담했다. 그녀는 그 논문을 끊임없이 읽었고 소리 내어 읽기까지 했으며 거의 잠자리에까지 가지고 들어갔으나, 로쟈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좀처럼 묻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눈에 띄게 피하는 것만으로도 의심이 일 법했는데도 그랬다.

마침내 그들은 어떤 일들에 대한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의 기이한 침묵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그녀는 아들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예전에 제 작은 고을에 살 때는 사랑하는 로쟈의 편지를 어서 받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아온 사람인데도 그랬다. 이것이 두냐에게는 큰 불안거리였다. 어머니가 아들의 운명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더 끔찍한 말을 듣게 될까 두려워 묻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녀에게 떠올랐다. 어느 쪽이든 두냐는 어머니가 온전히 제 정신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한두 번,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가 이야기를 이끌어 간 방향이 로쟈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었고, 시원치 않고 미심쩍은 대답을 듣자 그녀는 이내 침울하게 입을 다물었으며 그 기분이 오래도록 이어졌다. 두냐는 마침내 어머니를 속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어떤 점들에 대해서는 아주 입을 다무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엾은 어머니가 무언가 끔찍한 것을 짐작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두냐는 오라버니가 해 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스비드리가일로프와 만난 뒤, 그리고 그 마지막 운명의 날 전날 밤에 제가 헛소리하는 것을 어머니가 엿들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머니가 거기서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 때로는 며칠이, 몇 주씩이 침울한 침묵과 눈물로 지나간 뒤에 발작적인 활기의 시기가 찾아오고, 그러면 그 병자는 거의 쉬지 않고 제 아들 이야기를,

그의 앞날에 걸어 둔 제 희망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곤 했다……. 그녀의 공상은 이따금 몹시 기이했다. 그들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맞장구치는 척했으나(어쩌면 그녀는 그것이 시늉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래도 이야기를 이어 갔다.

라스콜니코프가 자백하고 다섯 달이 지나 그는 선고를 받았다. 라주미힌과 소냐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감옥으로 그를 찾아갔다. 마침내 헤어질 때가 왔다. 두냐는 오라버니에게 이 이별이 영영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맹세했고, 라주미힌도 그랬다. 라주미힌은 젊은이다운 열정으로, 앞으로 서너 해 동안 적어도 든든한 생계의 바탕만은 닦아 놓고 얼마간 돈을 모아 시베리아로 옮겨 가기로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시베리아는 온갖 천연자원이 넉넉하되 일손과 활동적인 사람과 자본이 모자란 땅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로쟈가 있는 도시에 자리를 잡고 다 함께 새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헤어지며 울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 며칠 전부터 몹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많이 물었고 끊임없이 어머니를 걱정했다. 어찌나 심하게 걱정하는지 두냐가 다 놀랄 지경이었다. 어머니가 앓는다는 말을 듣고 그는 몹시 침울해졌다. 소냐에게는 그동안 내내 어쩐지 유난히 말을 아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남긴 돈의 힘으로, 소냐는 그가 시베리아로 보내지는 그 유형수 대열을 따라가려고 진작에 채비를 마쳐 놓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와 그녀 사이에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으나 둘 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작별에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 함께 행복하게 살리라는 누이와 라주미힌의 뜨거운 기대를 듣고 그는 기이하게 웃었다. 그는 어머니의 병이 머지않아 불행으로 끝나리라고 예언했다. 소냐와 그는 마침내 길을 떠났다.

두 달 뒤 두냐는 라주미힌과 결혼했다. 조용하고 쓸쓸한 혼례였으나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와 조시모프는 초대를 받았다. 이 기간 내내 라주미힌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기색을 띠고 있었다. 두냐는 그가 제 뜻을 모두 이루어 내리라고 맹목적으로 믿었고, 사실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에게서는 강철 같은 의지가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학위를 받으려고 다시 대학 강의에 나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앞날의 계획을 세웠고, 다섯 해 뒤에는 틀림없이 시베리아로 옮겨 갈 셈이었다. 그때까지 그들의 희망은 소냐에게 걸려 있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두냐와 라주미힌의 혼인에 기꺼이 축복을 내렸으나, 혼례가 끝난 뒤로는 더욱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그녀를 기쁘게 해 주려고 라주미힌은 라스콜니코프가 그 가난한 학생과 쇠약한 그 아버지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일 년 전에 어린아이 둘을 불길에서 구해 내다가 어떻게 화상을 입고 앓기까지 했는지를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이 두 소식은 그러잖아도 정신이 흐트러져 있던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를 거의 황홀경에 이를 만큼 들뜨게 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두냐가 늘 따라다녔는데도 길에서 낯선 사람들과 말을 트기까지 했다. 합승마차에서든 가게에서든, 들어줄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그녀는 제 아들 이야기를, 그의 논문 이야기를, 그가 그 학생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불길 속에서 어떻게 화상을 입었는지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두냐는 어머니를 어떻게 말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병적인 흥분의 위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군가가 라스콜니코프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얼마 전의 재판 이야기를 꺼낼 위험이 있었다.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제 아들이 구해 낸 두 아이의 어머니가 사는 곳을 알아내어 기어이 찾아가겠다고 고집했다.

마침내 그녀의 안절부절못함은 극에 이르렀다. 그녀는 이따금 별안간 울음을 터뜨리곤 했고 자주 앓아누워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제가 헤아려 보니 로쟈가 곧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그가 작별 인사를 할 적에 아홉 달 뒤에는 돌아오려니 하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잘라 말했다. 그녀는 그가 올 채비를 하기 시작해서, 그를 위해 마련한 방(제 방이었다)을 손보고, 가구를 닦고, 빨래를 하고 새 휘장을 다는 따위의 일을 벌였다. 두냐는 불안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도와 방을 꾸몄다. 끊임없는 공상 속에서, 기쁜 백일몽과 눈물 속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난 밤에 풀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앓아누웠고, 아침이 되자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다. 열병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보름 만에 죽었다. 헛소리 가운데 그녀는 제 아들의 끔찍한 운명에 대해 그들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말들을 흘렸다.

라스콜니코프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그가 시베리아에 닿은 때부터 꾸준히 편지가 오갔는데도 그랬다. 편지는 소냐를 통해 오갔으니, 그녀가 달마다 어김없이 라주미힌 앞으로 썼고 어김없이 꼬박꼬박 답장을 받았다. 처음에 그들은 소냐의 편지가 메마르고 시원치 않다고 여겼으나, 나중에는 그보다 더 나을 수 없는 편지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니, 그 편지들에서 불행한 오라버니의 삶이 온전한 그림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소냐의 편지는 더없이 사실적인 세부로 가득했고, 유형수로 지내는 라스콜니코프의 모든 둘레를 더없이 단순하고 또렷하게 그려 보였다. 제 희망에 대한 말도, 앞날에 대한 어떤 짐작도, 제 감정을 늘어놓은 데도 없었다. 그의 마음 상태와 내면의 삶을 풀이해 보려는 시도 대신에 그녀는 단순한 사실들을 적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 그대로, 그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보고, 면회 때 그가 무엇을 청했는지, 무슨 심부름을 시켰는지 따위였다. 이 모든 사실을 그녀는

놀랍도록 세세하게 적었다. 불행한 오라버니의 모습이 마침내 아주 또렷하고 정확하게 떠올랐다. 잘못 알 수가 없었으니,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냐와 그 남편은 그 소식에서 위안을 거의 얻지 못했고, 처음에는 더욱 그랬다. 소냐는 그가 늘 시무룩하고 말이 없다고, 그들의 편지에서 전해 주는 소식에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이따금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다고 썼고, 그가 진실을 알아차린 것을 보고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을 알렸더니 겉으로는 적어도 크게 마음이 흔들리는 기색이 없어 놀랐다고 썼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그가 그토록 제 안에 틀어박혀 모든 사람에게서 저를 닫아걸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 그는 제 새로운 삶을 아주 곧바르고 단순하게 받아들인다고, 제 처지를 이해하며 당분간은 더 나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런 처지에서 그토록 흔한) 근거 없는 희망을 품지 않으며, 전에 알던 것과는 딴판인 제 둘레의 어떤 것에도 거의 놀라지 않는다고. 그녀는 그의 건강이 괜찮다고 썼다. 그는 꾀부리지도 더 하려 들지도 않으면서 제 일을 했다. 먹는 것에는 거의 무심했으나, 일요일과 축일을 빼고는 음식이 어찌나 나쁜지 마침내 날마다 제 차를 마시려고 그녀에게서, 소냐에게서 돈을 얼마쯤 받는 것을 반기게 되었다. 그는 그 밖의 일로는 수고하지 말아 달라고, 자기를 두고 이렇게 법석을 떠는 것이 성가실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소냐는 또, 감옥에서 그가 나머지 사람들과 한방을 쓴다고, 저는 그 막사 안을 본 적이 없으나 붐비고 비참하고 건강에 나쁘리라 짐작한다고, 그가 널빤지 침상에 깔개 하나를 깔고 자면서 달리 손보려 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헐하고 거칠게 지내는 것은 무슨 계획이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을 두지 않고 무심해서라고 했다.

소냐는 그가 처음에는 제 면회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실은 찾아온다고 거의 짜증을 냈고 말을 하려 들지 않으며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숨김없이 썼다. 그러나 끝내는 그 면회가 그에게 버릇이 되고 거의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어, 그녀가 며칠 앓아 찾아가지 못했을 때는 눈에 띄게 괴로워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축일이면 감옥 문간에서, 또는 그가 잠깐 그녀를 만나러 끌려 나오는 위병소에서 그를 보았다. 일하는 날에는 작업장이나 벽돌 가마로, 또는 이르티시 강기슭의 헛간으로 일하는 그를 보러 갔다.

제 이야기로는, 소냐는 그 도시에서 아는 사람과 뒤를 봐주는 이까지 얼마쯤 생겼다고, 바느질을 한다고, 그리고 그 도시에 옷 짓는 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여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썼다. 그러나 그녀를 통해 라스콜니코프도 윗사람들의 비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의 일이 가벼워졌다는 것 따위는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소식이 왔다(두냐는 소냐의 요즈음 편지들에서 어떤 각별한 동요와 불안까지 알아채고 있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멀리한다고, 동료 죄수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며칠씩 입을 다물고 있으며 낯빛이 몹시 창백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다 별안간, 마지막 편지에서 소냐는 그가 몹시 위중하게 앓아 병원의 죄수 병동에 누워 있다고 썼다.

---

1. 제2급 유형수 — 제정 러시아의 유형 노역(카토르가)은 노역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있었고, 제2급은 요새에서의 노역에 해당하여 광산 노역인 제1급보다 가벼웠다. 바로 앞 문장에서 이 감옥이 요새 안에 있다고 한 것과 맞물린다.

에필로그 2

그는 벌써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무너뜨린 것은 감옥살이의 끔찍함도, 고된 노역도, 나쁜 음식도, 빡빡 깎인 머리도, 기워 입은 옷도 아니었다. 그런 시련과 고생 따위가 그에게 무슨 대수였겠는가! 고된 일은 오히려 반가웠으니, 몸이 지쳐 버리면 적어도 몇 시간의 고요한 잠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식이 그에게 무슨 대수였겠는가 — 바퀴벌레가 떠다니는 멀건 양배춧국이? 지난날 학생이던 시절에는 그것조차 없는 때가 자주 있었다. 옷은 따뜻했고 그가 사는 방식에 맞았다. 그는 족쇄조차 느끼지 않았다. 빡빡 깎인 머리와 두 빛깔로 나뉜 죄수 웃옷이 부끄러웠던가? 누구 앞에서? 소냐 앞에서? 소냐는 그를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그녀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소냐 앞에서까지 부끄러웠고, 그 때문에 업신여기는 거친 태도로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가 부끄러워한 것은 빡빡 깎인 머리도 족쇄도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이 뼛속까지 찔린 것이었다. 그를 앓게 한 것은 상처 입은 자존심이었다. 아, 저 자신을 탓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그랬다면 그는 무엇이든, 수치와 치욕까지도 견딜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자기를 엄하게 심판했고, 그의 모질어진 양심은 제 과거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실수 말고는 특별히 끔찍한 잘못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가 부끄러웠던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이 라스콜니코프가, 눈먼 운명의 무슨 판결에 따라 그토록 눈멀게, 가망 없이, 소리 없이,

어리석게 파멸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마음이 편해지려면 무슨 판결의 「무의미」 앞에 저를 낮추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대상도 목적도 없는 불안, 앞으로는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할 끝없는 희생 — 그의 앞에 놓인 것은 그것뿐이었다. 팔 년이 지나면 겨우 서른둘이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무슨 위안이 되겠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 때문에 애쓸 것인가? 그저 있기 위해 사는 것인가? 그는 전에 어떤 사상을 위해, 어떤 희망을 위해, 심지어 어떤 공상을 위해서까지 제 존재를 내놓을 각오가 천 번은 되어 있지 않았던가. 그저 있는 것만으로는 그에게 언제나 너무 적었고, 그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랐다. 어쩌면 바로 그 욕망의 세기 때문에 그는 저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이 허락된 사람이라고 여겼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운명이 그에게 뉘우침을, 심장을 찢어 놓고 잠을 앗아 가는 타오르는 뉘우침을, 그 끔찍한 괴로움이 목을 매거나 물에 몸을 던지는 환영을 불러오는 그런 뉘우침을 보내 주기라도 했더라면! 아, 그는 그것을 반겼으리라! 고뇌와 눈물, 그것 또한 삶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제 범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를 감옥으로 데려온 흉하고 더없이 어리석은 제 짓들에 대고 화를 냈던 것처럼, 적어도 제 어리석음에 대고 화를 내는 데서 위안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감옥 안에서, 자유 속에서 그는 제 행동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보고 따져 보았고, 그것들이 그 운명의 시간에 보였던 만큼 그렇게 실수투성이이고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다고 여기게 되었다.

「내 생각이 세상이 생겨난 이래 들끓고 맞부딪쳐 온 다른 생각과 이론들보다 어디가, 대체 어디가 더 어리석다는 말인가?」 그는 저 자신에게 물었다. 「이 일을 아주 독립적으로, 널찍하게, 흔해 빠진

관념에 물들지 않고 보기만 하면 내 생각은 결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 부정론자들이여, 은화 5코페이카짜리 현자들이여[1], 어찌하여 그대들은 중도에서 멈춰 서는가!」

「어째서 내 행동이 저들에게는 그토록 끔찍해 보일까?」 그는 저 자신에게 말했다. 「그것이 악행이기 때문인가? 「악행」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내 양심은 편안하다. 물론 그것은 법률상의 범죄였고, 물론 법조문이 깨어졌으며 피가 흘렀다. 좋다, 법조문을 어긴 값으로 내 목을 가져가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그렇다면, 권력을 물려받는 대신 낚아챈 인류의 은인들 가운데 많은 이가 그 첫걸음에서 처형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자들은 제 걸음을 견뎌 냈고 그래서 옳았으며, 나는 견뎌 내지 못했고 그러니 나에게는 그 걸음을 나 자신에게 허락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오직 그 점에서만 그는 제 범죄성을 인정했으니, 오직 자기가 그것을 견뎌 내지 못하고 자수했다는 사실에서만 그랬다.

그는 또 이런 물음으로도 괴로워했다. 어째서 나는 나를 죽이지 않았는가? 어째서 나는 강물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자백하는 쪽을 골랐는가? 살려는 욕망이 그토록 강했던가, 그리고 그것을 이겨 내기가 그토록 어려웠던가?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이겨 내지 않았던가?

그는 괴로움 속에서 저에게 이 물음을 던졌고, 바로 그 강물을 굽어보며 서 있던 그때에 이미 어쩌면 제 안의, 제 신념 속의 깊은 거짓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예감이 앞으로 그의 삶에 올 전환의, 앞으로 올 그의 부활의, 앞으로 올 삶을 보는 새 눈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그저 본능의 둔중한 무게로, 그가 끊어 낼 수도 없었고 또다시 제 나약함과 보잘것없음 탓에 넘을 힘도 없었던 그 무게로

돌리는 편을 택했다. 그는 동료 죄수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모두 얼마나 삶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고 놀랐는데, 그가 보기에 그들은 자유로울 때보다 감옥에서 삶을 더 사랑하고 더 값지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를테면 떠돌이들은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궁핍을 견뎌 냈던가! 그런 사람들이 한 줄기 햇살을, 태고의 숲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숨은 차가운 샘을 그토록 아낄 수 있단 말인가. 그 떠돌이는 재작년부터 그 샘을 눈여겨 두었다가, 연인을 다시 보고 싶어 하듯 그것을 다시 보고 싶어 하며, 그 둘레의 푸른 풀과 덤불에서 우는 새를 꿈꾸는 것이다. 더 들여다볼수록 그는 더욱 알 수 없는 본보기들을 보았다.

감옥에서 그는 물론 보지 못한 것이,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 많았다. 그는 말하자면 눈을 내리깐 채 살았으니,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는 역겹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는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이 많아졌고, 그는 저도 모르게, 전에는 짐작조차 못 했던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저와 나머지 모든 사람 사이에 놓인 끔찍하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이었다. 그들은 다른 종족 같았고, 그는 그들을, 그들은 그를 불신과 적의를 품고 바라보았다. 그는 이렇게 갈라선 일반적인 까닭을 알았고 이해했으나, 그때까지는 그 까닭이 그토록 깊고 강하다고는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폴란드인 유형수 몇, 정치범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저 이 무리를 모두 무지렁이와 종놈으로 여기고 높은 데서 업신여겼다. 그러나 라스콜니코프는 그들을 그렇게 볼 수 없었으니, 그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폴란드인들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에도 꼭 그처럼 남을 업신여기는 이들이 있었으니, 전에 장교였던 자와 신학생 출신 둘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들의 잘못도 그만큼 또렷하게 보았다. 그는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그들은 마침내 그를 증오하기까지 했는데 — 어째서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보다 훨씬 죄가 무거운 자들이 그의 범죄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넌 나리야.」 그들은 말하곤 했다. 「도끼를 들고 설칠 게 아니었지. 그건 나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

사순절[2] 둘째 주에 같은 막사 사람들과 함께 재계(齋戒)하고 성찬을 받을 차례가 그에게 돌아왔다. 그는 성당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어느 날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모두가 한꺼번에 노발대발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넌 무신론자야! 넌 하느님을 믿지 않아.」 그들이 외쳤다. 「넌 죽어 마땅해.」

그는 그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도 제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그를 무신론자라며 죽이려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죄수 하나가 완전히 미쳐 날뛰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침착하게, 말없이 그를 기다렸고, 그의 눈썹은 떨리지 않았으며 얼굴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호송병이 가까스로 그와 그 살인자 사이에 끼어들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피를 보았을 것이다.

그가 풀 수 없는 물음이 또 하나 있었다. 어째서 그들은 모두 소냐를 그토록 좋아하는가? 그녀는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 애쓰지 않았고, 그들과 좀처럼 마주치지도 않았으며, 이따금 일터로 그를 보러 잠깐 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도 모두가 그녀를 알았고, 그녀가 그를 따라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녀가 어떻게 어디서 사는지를 알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특별히 무슨 일을 해 준 적도 없었다. 단 한 번, 성탄절에 그녀가 온 감옥에 파이와 칼라치를 적선으로 가져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차츰 그들과 소냐 사이에 더

가까운 관계가 생겨났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주고 부쳐 주었고, 그 도시를 찾아온 죄수들의 친척은 그들이 일러둔 대로 소냐에게 선물과 돈을 맡기고 갔다. 그들의 아내와 연인들도 그녀를 알고 찾아오곤 했다. 그리고 그녀가 일터로 라스콜니코프를 만나러 오거나 길에서 죄수 한 무리와 마주치면, 모두가 모자를 벗고 모두가 절했다. 「어머님, 소피야 세묘노브나, 우리 어머니, 다정하고 우리를 가엾이 여겨 주시는 분!」 낙인찍힌 거친 죄수들이 그 가냘프고 조그마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녀가 미소 지으면 모두가 기뻐했으며, 그들은 그녀의 걸음걸이까지 좋아해서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려고 돌아서서 그녀를 칭찬했다. 그녀가 그토록 자그마하다는 것까지 칭찬했고, 나중에는 무엇을 칭찬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들은 치료를 받으러 그녀를 찾아오기까지 했다.

그는 사순절 끝 무렵 내내, 그리고 부활절 주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 몸이 나아지자 그는 열에 들떠 헛것을 보던 동안에 꾸었던 꿈들을 떠올렸다. 그는 온 세상이 아시아 깊은 곳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끔찍한 역병의 제물로 정해지는 꿈을 꾸었다. 아주 적은 수의 뽑힌 사람들을 빼고는 모두가 멸망할 참이었다. 무슨 새로운 선모충들이, 사람의 몸에 깃드는 미세한 생물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생물들은 지성과 의지를 타고난 영(靈)이었다. 그것들을 제 안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자, 미친 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병든 자들만큼 제가 총명하다고, 제가 진리를 온전히 쥐고 있다고 여긴 사람들은 일찍이 없었고, 제 결정과 제 과학적 결론과 제 도덕적 신념과 믿음이 그토록 틀림없다고 여긴 사람들도 일찍이 없었다.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민족 전체가 그 전염으로 미쳐 갔고, 모두가 들떠 있었으며 아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저마다 제게만 진리가 있다고

여기고는 남들을 바라보며 비참해했고, 제 가슴을 치고, 울고, 두 손을 쥐어짰다. 그들은 판단할 줄을 몰랐고 무엇을 악으로 무엇을 선으로 여겨야 할지 뜻을 모으지 못했으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옳다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까닭 없는 앙심으로 서로를 죽였다. 그들은 서로를 치려고 군대로 모여들었으나, 행군하는 중에도 그 군대는 저희끼리 치고받기 시작해서 대열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서로에게 달려들어 찌르고 베고 물어뜯고 잡아먹었다. 도시에서는 하루 내내 경종이 울렸고, 사람들이 달려 모였으나 무엇 때문에 불려 나왔는지도, 누가 부르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저마다 제 생각을, 제 개선안을 내놓으며 뜻을 모으지 못했으므로 더없이 흔한 생업들이 버려졌다. 농사도 멈추었다. 사람들은 무리 지어 만나 무언가에 뜻을 모으고 함께 뭉치기로 맹세했으나, 곧바로 저희가 내놓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고발하고 싸우고 죽였다. 큰불과 굶주림이 있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파멸에 휩쓸렸다. 역병은 퍼지고 점점 더 멀리 나아갔다. 온 세상에서 오직 몇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순결하고 뽑힌 백성으로, 새로운 종족과 새로운 삶을 세우고 땅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할 운명을 지녔으나, 아무도 이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고 아무도 그들의 말과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이 무의미한 헛소리가 그토록 서글프고 그토록 괴롭게 기억 속에서 울리는 것이, 이 열병의 헛것이 남긴 인상이 그토록 오래 가시지 않는 것이 괴로웠다. 부활절이 지나고 둘째 주가 되어 따뜻하고 밝은 봄날이 이어졌고, 감옥 병동에서는 그 아래로 보초가 오가는 쇠창살 창문이 열렸다. 소냐는 그가 앓는 동안 두 번밖에 찾아올 수 없었으니, 올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주 병원 마당으로 오곤 했고, 특히 저녁이면 더러 잠깐 서서 병동 창문을 올려다보기만 하려고 오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거의 다 나았을 무렵 라스콜니코프는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서 우연히 창가로 갔다가 멀리 병원 대문께에 서 있는 소냐를 곧바로 보았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몸을 떨며 서둘러 창가에서 물러났다. 이튿날 소냐는 오지 않았고 그다음 날도 오지 않았으며, 그는 제가 불안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침내 그는 퇴원했다. 감옥에 이르러 그는 죄수들에게서 소피야 세묘노브나가 집에 앓아누워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몹시 불안해져서 사람을 보내 그녀의 소식을 물었고, 오래지 않아 그녀의 병이 위중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저를 걱정한다는 말을 듣고 소냐는 연필로 쓴 쪽지를 보내, 훨씬 나아졌으며 가벼운 감기일 뿐이고 곧, 아주 곧 일터로 그를 보러 가겠다고 전했다. 그것을 읽으며 그의 심장은 아프게 뛰었다.

또 따뜻하고 밝은 날이었다. 이른 아침 여섯 시에 그는 강기슭으로 일하러 나갔는데, 거기서는 설화석고를 빻았고 그것을 굽는 가마가 헛간에 있었다. 보내진 사람은 셋뿐이었다. 죄수 하나는 연장을 가지러 간수와 함께 요새로 갔고, 다른 하나는 장작을 마련해 가마에 넣기 시작했다. 라스콜니코프는 헛간에서 강기슭으로 나와 헛간 옆 통나무 더미에 앉아 넓고 인적 없는 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높다란 기슭에서 널따란 경치가 그의 앞에 펼쳐졌고, 건너편 기슭에서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으며, 햇빛에 잠긴 드넓은 초원에는 유목민의 천막들이 검은 점처럼 겨우 보였다. 저기에는 자유가 있었고, 저기에는 여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저기에서는 시간 자체가 멈춰 선 듯했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축 떼의 시대가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만 같았다. 라스콜니코프는 앉아 바라보았고, 그의 생각은 백일몽으로, 관조로 흘러갔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으나 어떤 비애가 그를 뒤흔들고 괴롭혔다. 별안간 그는 소냐가 제 곁에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아직 아주 이른 시각이어서 아침의 냉기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부르누스[3]와 그 초록빛 숄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앓은 자취가 남아 야위고 창백했으나, 그녀는 반가운 웃음으로 그를 맞았고 다만 손만은 여느 때처럼 머뭇거리며 내밀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에게 손을 내밀기를 머뭇거렸고, 더러는 그가 뿌리칠까 두려운 듯 아예 내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역겨운 듯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언제나 그녀를 만나는 것이 성가신 듯했으며, 더러는 그녀가 와 있는 내내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었다. 이따금 그녀는 그 앞에서 몸을 떨었고 깊이 상심한 채 돌아갔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그녀를 흘끔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땅으로 떨구었다. 그들은 단둘이었고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간수는 마침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리되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별안간 무언가가 그를 움켜쥐어 그녀의 발치에 내던지는 것 같았다. 그는 울며 그녀의 무릎을 끌어안았다. 처음 한순간 그녀는 몹시 놀라 얼굴이 온통 죽은 사람처럼 질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떨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바로,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의 눈에 끝없는 행복의 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끝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하고 싶었으나 말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둘 다 창백하고 야위었다. 그러나 병들어 창백한 그

얼굴들은 새로운 미래의, 새 삶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부활의 새벽빛으로 환했다.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저마다의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위한 끝없는 생명의 샘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기다리며 참기로 했다. 그들 앞에는 아직 일곱 해가 남아 있었고, 그때까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얼마나 끝없는 행복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부활했고, 그것을 알았으며, 새로워진 제 온 존재로 그것을 온전히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 그녀는 오직 그의 삶 속에서 살 뿐이었다.

같은 날 저녁 막사가 잠겼을 때, 라스콜니코프는 널빤지 침상에 누워 그녀를 생각했다. 그날 그는 제 적이던 죄수들이 모두 저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다고 느끼기까지 했고, 그가 먼저 말을 걸기도 했으며 그들도 다정하게 대꾸했다. 그는 이제 그것을 떠올리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는 그녀를 생각했다. 그는 제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는지를 떠올렸다. 그는 창백하고 야윈 그녀의 조그만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 기억들이 이제는 그를 거의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얼마나 끝없는 사랑으로 그녀의 모든 고통을 갚아 주게 될지를 알고 있었다. 지난날의 온갖 고뇌가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모든 것이, 제 범죄와 판결과 옥살이까지도, 북받쳐 오르는 이 첫 감정 속에서는 이제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바깥의 낯선 사실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는 무엇 하나 오래 생각할 수 없었고, 무엇 하나 의식해서 따져 볼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변증법의 자리에 삶이 들어섰고, 그의 의식 속에서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여물어 갈 것이었다.

그의 베개 밑에는 신약성경이 놓여 있었고, 그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집어 들었다. 그 책은 소냐의 것이었으니, 그녀가 그에게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읽어 준 바로 그 책이었다. 옥살이를 시작할 무렵 그는 그녀가 신앙 문제로 저를 성가시게 하고 복음서 이야기를 꺼내며 책을 들이밀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성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가 앓아눕기 얼마 전에 제 입으로 그 책을 청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져다주었다. 지금까지 그는 그것을 펼쳐 보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그것을 펼치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이제 그녀의 신념이 내 신념이 될 수는 없을까? 적어도 그녀의 감정, 그녀의 바람만이라도…….」

그녀 역시 그날 몹시 마음이 흔들렸고, 밤에 다시 앓아누웠다. 그러나 그녀는 어찌나 행복했는지 제 행복이 거의 두려울 지경이었다. 일곱 해, 겨우 일곱 해라니! 그들의 행복이 시작되던 무렵 어떤 순간에는 두 사람 다 그 일곱 해를 이레처럼 여길 채비가 되어 있었다. 새 삶이 거저 주어지지는 않으리라는 것, 그 값을 비싸게 치러야 하리라는 것, 앞으로 이룰 위대한 공적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다 — 한 인간이 차츰 새로워지는 이야기, 그가 차츰 거듭나는 이야기, 그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 가는 이야기,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알아 가는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있을 터이나, 우리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

1. 은화 5코페이카짜리 현자 — 원문은 мудрецы в пятачок серебра로, 은화 한 닢 값어치밖에 안 되는 싸구려 현자를 비꼬는 말이다. 영역 저본은 이 자리에 영국 동전 「반 페니」를 넣었다.

2. 사순절 — 부활절에 앞선 금식 기간. 정교회에서는 대재기(大齋期)라 하며, 이 기간에 신자는 고해와 성찬을 받는다. 정교회의 부활절은 율리우스력으로 헤아리므로 서방 교회의 부활절과 날짜가 어긋나는 해가 많다.

3. 부르누스 — 본디 북아프리카의 두건 달린 겉옷을 가리키는 말인데, 19세기 러시아에서는 그 모양을 본떠 만든 여성용 겉옷을 이렇게 불렀다.

판권면

죄와 벌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지음

◆

저본

Fyodor Dostoyevsky, *Crime and Punishment,* translated from the Russian by **Constance Garnett**.

이 책은 위 영역본을 저본으로 옮긴 뒤, 제2판에서 러시아어 원전(위키문헌 전자판, lib.ru 텍스트)과 문장마다 대조해 고친 것입니다. 문단 나눔은 영역본을 따릅니다.

원작 초판	1866년, 《러시아 통보》 연재
저본 영역본	1912년
원작자	도스토옙스키(1821–1881)
영역자	콘스탄스 가넷(1861–1946)

두 사람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했으며, 이 책의 저본은 퍼블릭도메인입니다.

◆

이 판에 관하여

41개 장과 역자 서문을 원문 문단 구조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3,911문단, 번역 3,911문단**으로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았습니다.

옮긴이 주 160개.

1.1판(2026년 10월)에서 에테르 라이브러리 총서의 공통 인명·지명 표기에 맞춰 일부 표기와 띄어쓰기를 고쳤습니다(예: 마호메트 → 무함마드, 네바 강 → 네바강, 신약성서 → 신약성경). 본문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번역 원칙과 저본의 성격은 「일러두기」에 밝혀 두었습니다.

◆

에테르 라이브러리

퍼블릭도메인 고전을 한국어로 완역해 무료로 공개하는 기획입니다.

이 책은 일곱 번째 권입니다. 영역본 중역으로 시작해 제2판(2026년 10월)에서 러시아어 원전 대조를 마쳤습니다.